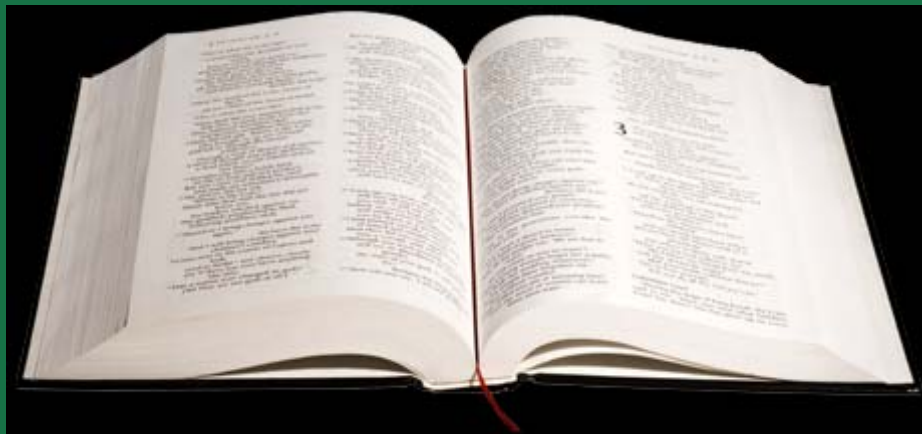


Bible Study Notes

(바이블 스터디 노트 제1권)



말씀의 합리적 이해 개정판
4년 과정 성경 공과 각 반 통합 책

아니타 돌 지음/ 배제형 옮김
도서 출판 벽옥

4년 과정 성경 공과

바이블 스터디 노트

제1권

말씀의 합리적 이해 개정판
공동번역 성경

BIBLE STUDY NOTES
BY ANITA S. DOLE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옮김

BIBLE STUDY NOTES

MEMORIAL EDITION

By Anita S. Dole

Edited By Wm. R. Woofenden

AMERICAN NEW CHURCH

SUNDAY SCHOOL ASSOCIATION



ANITA STURGES DOLE

(Mrs. Louis A. Dole)

1889-1973

이 책에 대하여....

이 책, “바이블 스터디 노트”는 자기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성경을 꾸준히 읽는 분, 또는 이를 위해 몇 사람들이 매 주 모여 공부하는 그룹들 등등의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려 해서 편역 출판된 책이다.

역자가 출판한 여러 성경 해설서 중에서 본 권은 과거 1970년도 경에 북미 새교회들의 주일 학교를 위해 아니타 에스 돌 여사께서 매 주 한 공과씩 집필하신 주일 성경 공과(bible study notes)를 번역한 것이다.

현재 시판되는 원서(영문판)은 총 6권으로 성경 책의 순서에 따라 재 편집되어 있다. 하지만 역자는 이 책을 돌 여사가 처음 구상하여 실시하셨던 그대로 매 주 한 공과씩 공부하여 4년에 마치도록 각 권당 40 공과, 전 4권 도합 160 공과로 처음 그대로의 방식을 따라 책을 엮었다.

영문판은 성경 본문을 생략하고 있으나 성경 통독이 우선임을 감안해 책의 부피가 커지는 단점을 감수하고라도 본문을 추가하였다. 또한 처음 성경 읽기에 도전하는 초심자를 감안해 부드러운 성경 번역이라 판단되는 공동 번역을 본문 읽기로 선택했다. 물론 이 번역은 역자의 상응 해석을 위해 마땅치 않은 대목들이 많아 개역 한글판을 인용하는 때도 많이 있다. 어찌됐든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분명하게 다 읽는 것, 더불어 기억에 많이 남게 읽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은 성경 본문에 이어 교리 요점,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이어서 1, 2, 3반, 기본 상응 공부, 4, 5반, 그리고 각 공과 해설에 도움을 준 이마누엘 스웨덴북의 저서로부터의 인용문이 첨부되고 마지막으로 각 공과를 마무리하는 일종의 시험지에 해당하는 질문과 답으로 매 주의 공과 공부를 마무리 한다.

각 반은 영문판의 경우 primary(1반), junior(2반), intermediate(3반), senior(4반), adult(5반)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는 교회 주일 학교 공과를 위해 나이에 따라 붙여진 것으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략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성인의 성경 공부에

응용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 이하인 유치원 수준의 경우는 공작, 그리기, 등등으로 공부하는데 이 자료는 아래 웹사이트의 books scan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교리 요점”은 각 공과에 등장하는 공통 주제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 예배” 편은 개인 사정상 교회에서 예배를 보지 못하는 가정, 또는 목사와 같은 전문가 없이 한, 두 가정이라도 뜻있는 이들이 모여 예배를 보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설교 자료를 제공하여 어디서나 예배를 이어가게 하고자 편찬된 공과이다.

“기본 상용 공부”는 몇 안 되는 낱말이지만 기억에 담아두면 본문외 성경의 의미 파악에 적잖은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1-5반”의 시작 머리에 있는 작은 글씨체의 글은 성경 교사에게 보내는 글이지만 읽어두면 본문 이해에 보탬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은 각 공과의 의미파악에 도움을 준 이마누엘 스웨덴봄의 저서 속의 문항을 발췌 인용하고 있어 때로 이해가 난감해질 수 있지만 차차 이해될 것이다.

“질문과 답”은 각 반에 해당하는 질문 몇 개씩을 모두 모아 놓고 있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이라면 질문 첫 항부터 중간까지는 매우 쉽겠지만 끝 부분 2-3개의 문항은 흥미있을 것이다. 첫 질문이 너무 쉬워 유치한듯 여겨지더라도 거룩한 성경 공부라는 점에서 겸손히 답을 만들며 기억에 더 다진다면 유익할 것이다.

교회에서 이 책을 사용하는 경우는 위와같이 분류하여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 요즘 시대는 각종 자료 수집이 쉽고 활발하기도 한 바, 특정한 어떤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나홀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많은 이들이 있는 바, 역자는 그분들의 성경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위해 이 책은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리라 확신하여 연령별 분류가 아닌 성경 지식 수준에 따른 분류를 채택하여 1-5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물론 본 서의 각 반을 매 주 다 읽고 공부한다면 이는 역자의 더할나위없는 바램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해되지 못해 난해해지거나 혼돈되는 것이 염려되어 각자의 성경 이해 수준에 적합한 반만을 골라 30분 내지 1시간 내에 한 공과 공부가 끝날 수 있도록 각 반을 떼어내 한 권의 작은 책으로 재편집해 들고 다니기 쉽고 책 구입 비용도 줄이고, 공부 부담도 덜되어 꾸준히 이어나가는 성경 공부의 시작 끈 역할을

역자는 기대하여 큰 책인 “바이블 스터디 노트”를 분해하여 각 반별 작은 책 “성경 공과”라는 책명을 붙여 4권x6반=24권으로도 출판해두었다. 이 작은 책은 큰 책으로 부터이기 때문에 95% 정도가 완전히 같다.

성경에 내 영을 위한 양식이 들어 있다 확신하여 성경을 멀리하지 않는 이들이라면 성경 읽기와 읽은 대목의 의미 파악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과제라 역자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되 처음부터 단번에 지식을 쓸어 담듯 하지 말고 매우 천천히 매일, 또는 매 주 한 단계씩 밟아 올라 지상의 삶 안에 영계의 것을 담아 나가 저세계로 가져가길 기도한다.

이 책 외에 더 많은 내용은 웹사이트 www.baysidechurch.org를 검색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라틴 성경, 이마누엘 스웨덴봄의 초판 저술(라틴어)과 그의 저술 대부분(영문판), 여러 목사들의 성경 해설서 (영문판) 및 이 책을 포함하여 역자의 모든 번역서, 그리고 미국 보스톤 주변 여러 교수들의 논문집(영문판)을 다운받는 것도 가능하다.



제1권 차례

** 이 책에 대하여.....

1. 창조에 관하여	창세기 1장; 2장 1-3절	11
2. 에덴의 동산	창세기 2장 8-25절	33
3. 노아가 방주를 짓다	창세기 6장	50
4. 아브람을 부르심	창세기 11장 27-30절; 12장 1-10절	67
5. 이사악의 출생	창세기 21장 1-21절	83
6. 야곱과 에사오	창세기 25장 19-34절; 27장	99
7. 요셉과 그 형제들	창세기 37장	118
8. 모세의 출생	출애굽기 1장; 2장 1-10절	134
9. 홍해를 건너다	출애굽기 13장 17-22절; 14장	151
10. 십계명	출애굽기 19장 16-25절; 20장 1-21절	170
11.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187
12. 발람	민수기 22, 23, 24장	204
13. 예리고 성의 정복	여호수아 6장	227
14. 드보라와 바락	판관기 4장	244
15.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상 1장; 2장 1-11절	263
16. 사울을 선택함	사무엘상 9, 10장	280
17. 다윗을 기름붓다	사무엘상 16장	298
18. 솔로몬의 지혜	열왕기상 3장	315
19. 엘리야와 아합	열왕기상 17; 18장	331
20. 아사왕의 통치	열왕기상 15: 9-24	358
21. 시편에 관해서	열왕기하 23장 1-2절; 시편 1편	374
22. 이사야를 부르심	이사야 6장	388
23. 활활 타는 화덕	다니엘 3장	405

24. 예언자 미가	미가 6장	422
25. 성전의 재건	하깨 1장	436
26. 주님이 세상에 오시다	마태복음 1장 18-25절; 2장 13-23절	451
27. 동방박사의 방문	마태복음 2장 1-15절	469
28. 세례를 받으신 주님	마태복음 3장	486
29. 시험을 받으신 주님	마태복음 4장 1-11절	502
30. 주님의 첫 제자들	마태복음 4장 12-25절	519
31. 산 위에서의 설교	마태복음 5, 6, 7장	534
32. 주님의 공생애	마태복음 8장	554
33.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	570
34.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마태복음 17장	587
35. 종려주일	마태복음 21장 1-27절	603
36. 주님의 지상 마지막 주간	마태복음 26, 27장	618
37. 부활하신 주님	마태복음 28장	640
38. 요한의 환상	요한 계시록 1장	658
39.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요한 계시록 2, 3장	675
40. 거룩한 성	요한계시록 21, 22장	693

1

창조에 관하여

머리말

성경은 세상의 어느 책과도 다르다. 주님께서 그 저자이시며 그 속에 주님 자신에 관한 것과 우리가 천국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 책의 첫 권은 「창세기」로써 “시작”이라는 뜻이다.

「교리 요점」은 공부의 편의를 위해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으며, 특히 3반과 4반을 공부할 때 유용할 것이다. 이는 단지 어느 부분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각 요점은 교회의 4가지 기본 원칙이 되는 4가지의 교리인 주님, 말씀, 믿음, 생활(charity)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되어 있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장, 2장 1-3절

1장: 1.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2.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3.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4.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6.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7. 하느님께서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8.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9.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0. 하느님께서 마른 땅을 물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1. 하느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돋아나거라! 땅 위에 낱알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2.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돋아났다. 낱알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났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3. 이렇게 사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14.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 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15.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6.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17. 하느님께서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걸어 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18. 이리하여 밝음과 어둠을 갈라 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9. 이렇게 나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0. 하느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창공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 다녀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1.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큰 물고기와 물 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 다니는 온갖 새들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2. 하느님께서 이것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23. 이렇게 다섯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4. 하느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온갖 짐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5. 하느님께서 이렇게 온갖 들짐승과 짐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6.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짐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시고 28.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 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29.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낫알을 내는 풀과 씨가
튼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30.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31.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엿새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장: 1.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2. 하느님께서
는 엿새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3.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교리 요약 (Doctrinal Points)

- * 주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하늘과 땅을 창조 하셨다.
- * 말씀은 우리의 창조주에 관한 것과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의 계시이다.
- *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판단이 주님의 말씀과 다르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다.
- *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을 가지고는 어떤 진정한 선도 행할 수 없다. 모든 선은
주님에게만 있고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Notes for Parents)

우리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과 이루어야 할 일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

학교에 보낸다. 또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더 높은 영원한 세계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더 심오한 것들을 배우게 하려고 자녀들을 주일 학교에 보낸다.

영혼을 살찌우는 참된 진리들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 학교는 늘 성경을 가르친다.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해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읽고, 또 그를 항상 기억하도록 돕는다면 자녀들의 마음에는 튼튼한 기초가 심어질 것이다. 주님은 단지 말씀만 남기신 것이 아니며 우리들의 기억 속에 심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실재하신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성경을 알고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 된다. 창조는 가장 중요하며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로 시작한다. 만약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삶에 있게 되는 진정한 목적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오늘날 매우 발달된 과학은 세상이 형성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까지 추정해 내며 그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까지 한다. 그러한 까닭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창조와 그것의 근거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서에 대한 직역적 해석 때문에 생긴 잘못된 이해이다. 노인들이 「In my day, people didn't do that」 - 내가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 - 라고 말할 때, 여기서의 때(day)는 과학적이고 명확한 시간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창세기 1장의 육 일간의 창조란 24시간으로 이루어진 6일이라는 시간이 아닌 인간의 영적 성장의 6단계의 상태들을 의미한다. 물론, 물질적인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도 창조 이야기와 대체로 비슷한 순서이기는 하지만,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물질적인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 졌냐는 것이 아니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하느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들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발견하고 개발될 수 있는 물질계의 이루어짐이 아닌,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며 그분으로부터 있게 되는 진리와 선에 의해서만 발전이 가능한 영혼의 내면과 그것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있다는

것이다.

창세기의 1장은 사람이 무의식 상태일 때, 따라서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단지 잠재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는 유아(태아)기로부터 진정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 영적인 것은 하늘에 해당되고 자연적인 것은 땅,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처음으로 창조된 “빛”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빛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주님의 진리인데, 이 진리를 배우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하느님의 형상에 이르게 되고 그분을 닮아 안식일로 상징되는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된다.

제 1반 (Primary)

전체 이야기를 간단하게 기억에 담아두는 기회로 삼아 보라.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자.

- * 누가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 * 어떤 책이 우리에게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 * 성경책은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떤 책인지 압니까? 그것은 성경이다. 성경은 주님이 쓰신 것이므로 「주님의 책」이라고 불린다. 또한 주님이 말씀 하셨으므로 「말씀」이라고도 한다. 성경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지상의 삶이 끝난 후에 천국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생명의 책」이라고 한다.

성경은 많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첫 책을 창세기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시작”을 뜻한다. 이제 그 첫 책의 첫 장을 읽어 보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알아 보기로 하자. 이 장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 또한 주님은 다른 어떤 곳, 즉 천국(저 세상)도 만드셨는데 그 곳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장차 그 곳에 가서 살게 된다.

- * 세상이 처음 창조 되었을 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 *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 * 이 날들은 24시간 단위의 날들이 아니고 아주 긴 시간입니다.
- * 주님은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세상은 사람이 창조되기 이 전에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과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만드셨고 우리를 자녀로써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돌보도록 명령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맞도록 모든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일곱 번째 날에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한다면(창세기 2:1-3) 매주 주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것이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다. 나는 오늘을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오늘은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복되다」 함은 행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죄를 씻는다」 함은 성스럽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 2반 (Junior)

성경 이야기를 간략하게 머리 속에 담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찾아 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응이 필요하다. 오늘 공부에서는 빛과 어두움을 가지고 찾아 보도록 하자.

다음 질문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자.

- *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 *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무엇입니까?
- * 그 책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 성경의 첫 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 * 누가 성경의 저자입니까?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말해 준다. 하느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을 내적으로도 완전하게 되도록 만드셨는데 이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람이 내적으로 완전하게 되기까지의 준비 기간이 “날 들” 이라고 불리며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창조의 첫 단계가 「빛」이라는 것에 주목하자. 창세기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라고 쓰여 있다. 여기서의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고 스웨덴북은 강조한다. 그러면 물리적인 빛 외에 어떤 다른 빛이 있는 것일까? 영어로 “I see”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직역하면 “나는 본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관용구로서 이해가 된다 또는 알았다는 의미로서 “아, 그렇구나”라는 의미로 쓰인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 순간은 마치 암흑처럼 어둡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면 마치 마음속에 빛이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빛은 바로 주님께서 비 롯된 진리와 그 진리가 담긴 지식이다. 그래서 빛이 첫 날에 창조 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물이 나뉘고 하늘과 땅에 구분이 생겼고, 셋째 날에는 물에서 마른 땅이 나타나고 풀과 곡식과 과일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났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이 창조되고 드디어 여섯째 날에 동물들이 창조되었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 되었다. 27절을 읽어 보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느님은 온 세상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리고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즐기며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보살피도록 명령하셨다. 만약 인간이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그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를 해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이 그것들을 잘 보살피고 잘 사용하면, 주님께 더욱 신뢰 받고 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2장 3절을 읽어 봅시다. 「복되다」는 것은 행복을 의미하며, 「죄를 씻음」 또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주일이 어떤 날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주일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하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날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주일은 주님과 주님에 대한 신앙심을 배우는 기회와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

창조 이야기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모두가 상징적인 것이다. 이러한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암흑과 같은 무지에서 태어나 이해력이 성장함에 따라 조금씩 발달하며 선한 행실이라는 과일이 열리게 되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진정한 남자 또는 여자의 모습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경배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제 각 날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더욱 잘 기억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7일 동안의 일들을 간단히 적어 보자.

- * 첫째 날에 하느님이 빛을 창조 하셨다.
- * 둘째 날에 하느님은 궁창을 만드셨다.
- * 셋째 날에 하느님은 씨 있는 풀과 과일나무를 만드셨다.
- * 넷째 날에 하느님은 해, 달 그리고 별을 만드셨다.
- * 다섯째 날에 하느님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다.
- * 여섯째 날에 하느님은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다.
- * 일곱째 날에 하느님은 쉬셨다.

제 3반 (Intermediate)

성경은 상징적으로 인간의 영적 생활을 표현한다. 즉, 성경은 문자적 의미뿐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일정한 계획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하나의 이야기이다.

먼저 성서의 첫 절을 마음에 새겨 두자. 그것은 3절, 27절, 28절의 말씀들을 배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6일 동안 각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창세기 1장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연과학적 설명을 위해 성서가 써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도 알아낼 수 있는 것으로 하느님께서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 성서를 만드신 것은 그러한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 성서는 우리가 결코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에 관한 사실, 즉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 쓰게 하셨기에 성서는 주님이 그 저자이시다.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의해 사람의 말로 쓰여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 주셨기 때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은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저자가 아닌 주님이 저자이신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사람이 세상적인 속성과 천국적인 속성을 가진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아무리 동물적인 속성을 가졌다 할 지라도 결코 사람은 단순히 동물이 될 수는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거듭남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람의 세상적인 속성은 아직 초보적이었고 천국적인 속성은 무지와 암흑으로 가려져 있다. (2절)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의 모습이며 거듭남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이다.

우리의 영적 발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고 말한 순간부터 이다. 물질적인 빛이 신체적인 눈을 위하여 있듯이 영적인 빛인 진리는 마음의 눈을 위하여 있다. 빛이 있으므로 우리의 눈이 제 구실을 할 수 있고 진리가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제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에서야 우리는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빛" 또는 "밝다"는 말은 흔히 "발전할 수 있다" 또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쓰이고 "어둠"은 "발전할 수 없다" 또는 "가능성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

6일 간의 창조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기까지, 즉 형상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영적인 본성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게 되기까지의 6단계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창세기를 잘 읽고 진리의 빛 속에서 각각의 단계를 생각해 보자.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의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과 상응으로써 연결되어져 있다. 같은 맥락으로 성서의 모든 내용들도 상응의 원리로서 그 안에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성서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창조 이야기에 있는 몇 가지 상응에 대해 알아 보자. 「물」은 진리를, 「창공」, 더 정확히 표현해서 「광활한 공간」은 우리의 사고면(생각하는 평면)을, 창공 위의 물은 주님과 천국적인 삶에 대한 진리를, 그리고 창공 아래의 물은 세상과 세상적인 삶에 관한 진리를 의미한다. 「마른땅」은 의식적인

경험을 뜻하며 「바다」는 기억 속에 있는 진리들을 뜻한다. 「식물계」는 생각을 상징하고 과일은 행실을 상징한다. 「씨」는 과일이라는 결실 또는 행실 안에 내포되어 있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근원을 의미한다. 주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하셨듯이, 보여지는 결실인 열매의 질은 그 열매의 근원인 “씨”의 질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1-23절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씨”가 말씀을 의미한다고 밝히셨다.

「해」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달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별은 천국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상징한다. 낮은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상태 즉 분명히 아는 것을 의미하며 밤은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이는 상태를 뜻한다. 별에 의해 항해자들이 인도되는 것처럼 주님과 선한 삶에 대해 배운 지식들을 따르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움직이는 창조물들」은 바람이나 애착을 표현한다. 물고기와 같은 냉혈동물은 지식에 대한 애착을 뜻하고 온혈동물은 유용한 일에 대한 애착을 뜻한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27절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자.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애착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스웨덴북은 “창조의 목적은 인류로부터 천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천국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2장 3절을 읽고 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안식일은 우리에게 슬프거나 힘든 날이 되도록 하느님께서 정하신 날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행복과 평화를 즐기고 나누도록 정하신 날이다. 행복이란 「내 멋대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은 남을 해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계명을 따라 삶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도록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여야 한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되새겨 보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

기본 상응 공부 (Basic Correspondence)

빛 = 진리

물 = 진리

마른땅, 땅, 대지 =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는 의식적인 경험

식물계 = 우리의 생각들

동물계 = 우리의 감정들

암흑 = 무지

해 = 주님을 사랑함, 모든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달 = 주님을 믿음

별들 = 천국에 대한 지식

창공 위의 물 = 영적인 진리 즉 영혼의 삶을 위한 진리

창공 아래의 물 = 자연적인 진리 즉 세상의 삶을 위한 진리

바다 = 기억 속의 진리

물고기 = 세상적 지식에 끌리는 마음(세상적 지식을 향한 애착들)

새들 = 영적 지식에 끌리는 마음(영적 지식을 향한 애착들)

동물들 = 유용한 생각과 행동에 대한 애착들

제 4반 (Senior)

종교와 과학의 관계와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간으로 주님의 섭리와 교회의 교리를 생각해 본다.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 반박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인 듯 보이는 것들 중 창조 이야기가 그 첫 번째로 대두 된다. 발전된 과학 문명의 주장은 우주의 형성은 150억 년 전에, 그리고 지구의 형성은 45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하며 실험적 증명들도 함께 내세운다.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사실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은

창조 이야기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따라서 그것을 포함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이 사람들에게 자연과학이나 또는 사람들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적 사물을 통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창조 했고 또 오늘날 우리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설사 동물과 많은 부분이 흡사하다 하더라도 결코 단순한 고등동물이 될 수는 없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물질적인 하늘과 땅이 아닌 사람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의미한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이 세상에 살기에 알맞은 육체와 정신(땅)을 가졌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의 삶에 대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면(하늘)을 가진다.

갓난아기가 어떠한 지식도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처음의 우리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영적인 면과 자연적인 면 모두 발달하지 못했었다. 사람의 아기는 다른 동물들의 새끼와는 달리 특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계획하셨던 대로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과정을 상응으로 설명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첫 단계(첫째 날)는 마치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의식 또는 자각이 시작되는 때이다. 이것은 볼 수 있는 능력 즉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사물을 구별하게 되고 즐거움과 고통에 대한 연상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마치 구별 능력이 생긴 아기가 부모나 친지들을 알아보게 되고 노는 것, 웃는 것, 그리고 무엇이 그를 즐겁게 하는가를 인지하게 된다. 둘째 단계(둘째 날)는 어떤 일들 즉 기쁜 일이 아니더라도 해야 한다는 것과 삶에는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것 외에 어떤 것이 더 존재함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는 천국적인 삶을 위해 기초가 되는 선과 악에 대한 초보적인 구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단계(셋째 날)는 주위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

무엇이 행동과 생각의 원리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기 시작한다. 넷째 단계(넷째 날)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처음으로 갖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게 되고 또한 그를 위해 일하고 싶은 소망이 생긴다. 해와 달과 별은 각각 주님에 대한 사랑, 믿음, 그리고 천국적인 것에 관한 지식을 묘사한다. 다섯째 단계(다섯째 날)는 세상적인 것과 천국적인 것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지식을 갖게 된다. 여섯째 단계(여섯째 날)는 선한 일을 향한 강한 애착이 생기며, 이에 따르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가르침에 따라 삶으로써 보다 성숙되고 독립적이며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진정한 휴식과 평화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스웨덴북의 「Arcana Coelestia (천국의 신비)」의 첫 권을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며, 5반의 후미에 그 책에서 인용된 부분이 있다.

제 5반 (Adults)

이 반은 주로 주제를 다루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창세기 1장에 대한 새 교회의 가르침은 다른 교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교회의 가르침은 상응을 기본으로 하여 말씀의 속뜻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새 교회의 가르침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없이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가르침이다.

근대의 무신론자의 대부인 Jean Astruc (1684-1766)의 작품이 나오기 몇 년 전에 스웨덴북의 「Arcana Coelestia」 1권이 발행되었는데 이것 또한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인간들이 성경에 대한 의심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때에 맞추어 스웨덴북을 부르심으로 이러한 과학주의적 무신론과 비판들을 극복하고 대항할 수 있는 진리를 공개하신 것이다. 스웨덴북에 의하면 성서의 대부분이 상응에 의해서 속뜻을 담고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의 1~11장까지의 내용은 직역주의적인 해석으로는 어떤 의미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쩌면 그의 시대에 유행하던 과학적 성서 비판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였을 것이다.

스웨덴북에 의하면 창세기의 1~11장은 고대의 말씀에서 발췌하여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고대 말씀은 현재의 성경 이전에 존재했던 말씀으로 온전히 상응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대 이전의 시대 즉, 태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천국과 직접 교통하였고 두 세계의 진정한 관계를 이해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영계에 있는 어떤 것과 상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에서의 삶에 몰두하면서 영적인 세계와의 교통은 끊어졌고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계의 어떤 것과 상응한다는 것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창조 이야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조차 잊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씀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러므로 말씀들이 사실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말씀은 여전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되고 그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악이며 불행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말씀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와 교리의 근원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말씀에 담겨진 내면의 의미에 대한 지식을 되찾길 원하셨고 그것은 스웨덴북을 통해 이뤄졌다. 새 교회 사람들에게는 창조 이야기가 생소하고 이상하여 말씀을 신뢰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우리 각자의 영혼의 유래와 그것의 진정한 성장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이야기이다.

새 교회의 어린이들은 말씀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은 단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서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리적인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웨덴북은 창조의 목적이 인류로부터 이루어지는 천국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 말씀의 첫 절에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다. 하늘은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속성을, 땅은 자연적인 속성을 상징한다. 창조에 쓰인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그린 것이다. 우선 우리는 우리 안에 보다

높은 속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점진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다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높은 차원과 낮은 차원 즉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상호관계의 중요성과 그들의 올바른 쓰임새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장이 모두 이루어 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 천국적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 영혼의 발달 과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각 개인의 발달 과정과 인류의 발달 과정이 서로 상응한다. 그 이유는 인류가 개인으로 구성되고 각 개인은 인류의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새 교회가 가지는 특수성은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믿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원리를 스웨덴북은 상응 (correspondence)이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새교회인들조차도 아직은 이러한 원리와 이해를 생활에 적용하여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그들의 상응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말씀을 읽을 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생활상에서도 그저 이야기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말씀에 있는 창조 이야기를 읽고 스웨덴북의 설명을 들으면 상응을 이해하고 체계성을 갖추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창조 이야기의 첫 절에 쓰인 하늘은 사람의 속 부분을, 땅은 사람의 겉 부분을 의미한다.(AC16) 여기서 겉 부분이란 단순히 몸(body)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관련이 있는 모든 생각과 느낌들을 포함한다. 속사람은 보다 높은 영혼의 내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대체로 이를 의식하지는 못하며 주님과 영적인 것에 관한 생각과 느낌으로 이뤄진다. 이 두 부분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지만, 땅 - 겉 사람 - 은 태어날 때 그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은 “공허”처럼 백지 상태이다. 즉 지상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목적과 의도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내면에 있는 보다 높은 속성의 존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기든 어른이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세상(자연)의 삶 보다 더 높은 삶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내면 즉 속 사람은 암흑 속에 있게 되고 설령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더라도 진정한 선과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보다 높은 삶이란 영적인 삶과 알맞은 관계를 이를 때에만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속사람 안에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통해 주님의 자애가 우리에게 이르도록 한다는 말이다.

다시 태어남 -천국적인 인격의 형성- 의 첫 시작은 빛이 오는 것이다. 암흑은 모르는 상태를 뜻하고 빛은 아는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연유로 주님께서는 인류 전체가 암흑, 즉 모르는 상태에 빠져 버린 것을 상징하는 밤에 태어나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는 온 세상이 다시 어두워졌던 것이다. 6일 간의 창조의 이야기는 영적 발달의 각 단계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즉 어둠에서 빛으로 발전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저녁 또는 어둠은 무지를 뜻하며 아침 또는 빛은 앎을 뜻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하시자 빛이 생겨났다는 것이 창조의 시작 곧 우리의 영적 성장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이 말씀을 “사람이 선과 진리라는 더 높은 것을 알기 시작하는 첫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한다.(AC20) 거듭나기 위한 첫 단계는 단순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삶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즉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님의 섭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작용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빛(앎)과 어둠(무지)로 나누신다.

두 번째 날에 우리는 세상에 관한 일과 천국과 하느님에 관한 것을 구분하게 되고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진정한 어떤 것(창공)에 대해 깨닫기 시작한다,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이 나뉘는 것은 물로 상응되는 우리가 배운 지식들이 체계화되어 이원화가 된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물이 언급되어 지는데 물은 일반적으로 지식 또는 진리를 상징한다. 하느님과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저 여느 책 이상의 의미가 없으며 선과 진리에 대한 관념 또한 이 세상에 있어서의 의미 외에는 무의미 하다. 그러나 사람이 하느님의 존재와 보다 높은 삶에 대해 인지하게 될 때 비로소 선과 진리는 영적인 실재로 그에게 존재하게 된다.

셋째 날 또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보다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이루게 된다. 창공 아래의 물은 바다로 모아지는데 “바다”는 기억은 되었으나 이해되

지는 얇은 단순한 기억 속의 지식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는 지식과 단순한 기억적 지식을 구분할 수 있을 때, “마른 땅”으로 상징되는 “사람으로서 육은 무엇이고 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관념”이 형성된다. 이때부터 우리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진정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마치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듯이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으로 식물이 창조 되는데, 이에 대한 상응을 공부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와 이에 대한 주님의 설명을 살펴보자. 씨 뿌리는 사람은 주님이시며, 씨는 주님의 말씀 속의 진리, 땅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열매는 씨인 진리가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의 삶 속에 자라 선하고 쓸모 있는 일로 결실이 맺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식물들은 다양한 진리들을 뜻한다. 모든 식물과 나무는 어떤 특정한 진리로부터 자라난 삶의 규율들을 뜻하며 과실은 규율이 우리의 삶에 적용된 결과로 나타난 선한 행위를 뜻한다. 모든 과실이 다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가능성을 가진 씨를 그 속에 가지고 있듯이, 어떤 사람의 올바른 행위 안에 있는 규율은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행위를 인식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어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영향력이 있다. 식물의 성장과정을 통해 이것을 재조명해 보자. 처음에는 씨에서 “연약한 풀잎”이 자란다. 그 후 이 풀잎이 씨를 내포하는 과실이 열리는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작은 진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고 말 듯 한 미미한 진리에서 시작해 점점 더 중요하고 풍성한 진리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날까지의 성장에서 우리가 행한 선은 신의 존재와 영적인 것을 단순히 아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하고 체계를 잡은 규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하느님과 그의 뜻하시는 바에 대해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어진다. 넷째 날에는 큰 빛(해), 작은 빛(달)과 별이 세상에 나타난다. 큰 빛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작은 빛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별들은 천국에 대한 지식을 상징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존재를 믿으나 하느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들 자신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행하거나 혹은 악을 행한 후에 오게 되는 공포가 두려워서, 또는 남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를 행하는 것이다. 그들은 선을 행하게 하는 진리(빛)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의 근원이 주님이심은 모르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옳은 일은 동기부여가 스스로의 판단과 이득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그들의 선한 행위의 근간은 의무감, 공포감, 존경 받고 싶은 욕심, 또는 자기만족에 불과할 것이다. 이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으로 들린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일까? 어떻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상 잘못된 것이다. 주님은 구약 성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궁극적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현신 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이 되었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각자의 자연적인 욕구와 취향에 따라 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인품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닌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행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때 우리의 내면의 하늘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태양”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는 “태양”을 보고 난 후에도 때때로 욕망 때문에 내면의 하늘을 가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우리는 계명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상징되는 “달빛”에 해당된다. “달빛”은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다시 말해 유혹이 사라질 때까지의 일시적인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길을 비춰준다. 만약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 “사랑과 믿음에 대한 지식”으로 상징되는 “별빛”이 우리의 길을 비춰준다. “별빛”은 주님과 계명들에 대한 말씀을 배워 가지게 되는 지식을 의미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인도하던 상태에서 주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적 발전 단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진정한 선을 행하기 위해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주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스웨덴 북은 “진정한 선은 주님의 사랑과 같은 이타적인 사랑으로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앓을 상징하는 식물계 수준으로부터 애착이 담긴 삶을 상징하는 동물계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이것이 “단순한 지식으로부터 깨우침으로 확신을 얻는 것”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별이 그 두 단계들 사이에서 창조되는 이유이다. 상응으로 볼 때 따뜻한 피를 가진 동물들은 진리와 함께하는 애착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스웨덴봄은 창세기 1장 20절에 대해 설명하면서 “불이 켜지고 그 불이 속사람 안에 놓여진 후, 겉사람은 속사람으로부터 그 빛을 받고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다”고 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위한 선을 행하고 스스로의 판단에서 비롯된 진리를 말하는 동안은 그는 진정으로 살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나(인간)”에서 비롯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죽은 것이고, 그 안에는 악과 거짓밖에는 없으며, 이기심으로부터 나온 모든 행위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AC39) 그러나 사람이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의 기억의 바다 속에 있던 표면적인 지식도 되살아나게 된다. 그러한 표면적인 지식들도 주님과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관련되어 진다.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바다로부터 온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창조물”로 상징된다. 그리고 우리 이성의 높은 부분은 새들처럼 공중을 날기 시작한다. 바다의 큰 물고기는 외면적인 지식 안에 있는 큰 원리를 상징한다. 물고기와 새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사는 동물들이 나타난다. 이것들은 더 이상 마음에만 머물러있지 않고 행동의 근원인 의지에 속한 것들 즉 선한 애착들을 상징한다. 이 단계에 이르기 전의 우리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지만 할 수 없이 행하였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좋은 육지 동물들이 창조되는 것으로 상징된다. 새와 물고기들은 마음속에 있는 높고 낮은 일들을 의미하며 동물들은 애착이나 의지를 뜻한다. 우리 안에 선한 애착이 생겨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비로소 지성과 의지의 양면에서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진정한 인간이 된다. “남자와 여자 모두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기본 상응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말씀에서 남자는 지적인 면을, 여자는 애착적인 측면을 상징한다. 거듭난 사람은 스스로의

모든 생각과 애착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누구든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면 주님의 권능이 그에게 들어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주님께서 지으신 또 하나의 세계, 곧 내적왕국이 있는 데 우리는 이것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내적인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 있는지에 늘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 물고기와 새들과 동물들을 잘 간직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날 -안식일- 은 완전한 인격이 형성되어 천국적인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보여준다. 우리가 어떤 유혹도 극복할 수 있어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게 되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망 대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천국적인 행복의 상태를 맞볼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천국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이러한 갈등과 시련에서 자유로워져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웃에 봉사하는 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느끼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휴식이란 단순히 일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 안에서의 휴식”이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깨어 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키게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도우시던 주님께서도 휴식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말씀에서 숫자 7은 성스러운 것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보의 저서에서 (From the Writings of Swedenborg)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16과 20항)」:

16항. 태고 시대를 ‘시작’이라고 불렀다. 성서의 여러 곳에서 예언자들은 이것을 ‘오래된 날들’ 또는 ‘영원의 날들’이라 불렀다. 또한 「시작」은 사람이 다시 거듭나는 첫 순간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가 거듭남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듭나는(regeneration)것을 사람의 “새로운 창조”라고도 부른다. 「창조」, 「형성」, 「만듦」이란 표현은 구체적인 상징성에서는

다르지만 예언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는 대체로 거듭남을 뜻한다. 또한 「하늘」은 내적인 사람을, 「땅」은 다시 태어나기 이전의 외적인 사람을 뜻한다.

20항.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거듭남의 그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이 선과 진리는 더 높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외적인 삶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고 진리인지조차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애와 세상에 대한 사랑에 속한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애와 세상 사랑을 선호하는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선이라 믿는 것이 사실은 악이고 그러한 악을 선호하는 진리는 사실은 거짓들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이 새로이 태어나게 될 때 처음으로 스스로의 선은 선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빛에 더 가까워짐에 따라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선과 진리 자체임을 깨닫기 시작한다.

질문 정리

- 1)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가?
- 2)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 3) 우리는 성경을 또 다르게 무엇이라고도 부르는가?
- 4) 성경의 처음 말씀은 무엇인가?
- 5)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6) 세상과 모든 것이 창조 되는데 며칠이 걸렸을까?
- 7) “날”은 24시간 단위의 하루를 의미하는가?
- 8) 첫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 9)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 10) 셋째 날에 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 11) 셋째 날에 무엇이 새로 창조 되었을까?
- 12) 넷째 날에 무엇이 나타났을까?
- 13) 다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 되었을까?
- 14) 몇째 날에 동물이 만들어졌을까?

- 15) 무엇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을까?
- 16) 인류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 되었을까?
- 17)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말하셨을까?
- 18) 주님은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을까?
- 19) 주님이 첫 장에서 우리에게 진실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 20) 하늘과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
- 21) 해와 달과 별들은 무엇에 상응될까?

질문의 답

- 1) 성경 2) 하느님 3) 주님의 책, 말씀, 생명의 책 4) 한 처음에 5) 창조
- 6) 육일 7) 아니다 8) 빛 9) 창공 10) 바다와 마른 땅 11) 풀, 나무들
- 12) 해, 달, 별들 13) 물고기, 새들 14) 여섯째 날 15) 사람 16) 하느님
- 17)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19) 우리의 영적 성장의 시작 20)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 21)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천국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들

2

에덴의 동산

머리말

창세기의 1장부터 7장까지는 고대 언어의 표현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며 상징성이 강하다. 이 부분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에 적합한데 그 이유는 어린이들은 단순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기 때문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장

2장: 8. 야훼 하느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9. 야훼 하느님께서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돋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돋아나게 하셨다.

10.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 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11.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손이라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월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2. 그 땅은 좋은 금뿐 아니라 브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는 곳이었다. 13.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혼이라 하는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4. 셋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넷째 강줄기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15.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16.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18.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하시고, 19.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 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20. 이렇게 아담은 짐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21.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22.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 오시자 23.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 24. 이리하여 남자는 아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25.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교리 요점

- *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의 영혼 여러 평면에 적용된다.
- * 우리에게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지식과 능력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선을 찾지 말고 항상 주님께에서 그것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에덴의 동산은 아름다운 곳에 대한 비유로 태초의 사람들이 자신 안에 교회를 이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교회의 중심에는 선과 진리의 근원인 주님이 계셨고 이것이 생명나무로 묘사됐다. 이 동산에 물을 공급하는 강은 주님께에서 온 진리가 그들의 삶의 여러 평면으로 흘러감을 의미하며 이것이 삶의 이상적인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가 왜 지속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이 동산에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나무 -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이었다. 사람은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동물과는 태초부터 다른

존재였다. 사람은 점차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주님의 뜻을 따르거나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선택에 자유가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리키며 그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상징된다. 주님께서 사람은 주님의 진리 없이도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의 이야기 또한 비유이다. 앞서 밝혔듯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두 고대에 사용된 상징적 언어로 된 표현들에서 모세가 발췌한 것이며 그 말씀들은 이미 존재했던 것이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두 명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앞서 우리가 배웠듯이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창조된 것이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 또는 ‘인류’를 뜻하며 ‘이브’는 ‘생명’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브의 창조를 통해 주님의 자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생명력이 없던 인간이 주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우리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으며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서야 우리가 천사의 모습으로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다.

제 1반

주님은 아주 옛날 사람들을 만드실 때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잘 돌보도록 명하셨고 모든 나무의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으나 한 나무의 과일만은 먹지 못하게 명령하셨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그들은 영원히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사람들은 그 동산을 떠나게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망치는 것은 우리의 “동산”을 망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이며 그곳의 첫 사람을 아담이라 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25절까지 읽어 보면 주님께서 그 첫 번째 사람들을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것 같이 보살피신 것을 알 수 있다.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했다. 그 때에 그들은 이기적이거나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지 않았다. 순진한 상태에 있었던 첫 번째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뜻하신 대로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보살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에덴의 동산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자.

- * 주님은 어느 곳에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들을 살게 했을까?
- * 에덴은 “기쁨”을 의미하는가?
- * 그 강들은 몇 개의 줄기로 나누어졌을까?
- * 에덴의 동산 한가운데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을까?

우리는 주님이 금하신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유혹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항상 즐거웠다면 늘 순종하며 살 수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즐거움보다 어리석은 때가 더 많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제 2탄

에덴의 동산, 강, 두 그루의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참고로 에제키엘과 요한계시록의 이와 관련된 부분도 읽어 보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생명나무와 에덴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 대해 비교해 보자.

다음 질문에 답해 보면서 시작해 보자.

- * 성경의 맨 첫 권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창세기의 의미는 무엇일까?
- * 창세기 1장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
- * 모든 것이 창조되는데 며칠이 걸렸을까?
- * 모든 것을 만들기 시작할 때 주님은 맨 처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 * 무엇이 맨 마지막에 창조 되었을까?
- * 7일째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 *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성경의 몇 장일까?

- * 강은 몇 줄기로 나뉘어 졌을까?
- * 누가 동산에 살고 있었을까?
- * 아담은 동산에서 무엇을 했을까?

앞서 설명했듯이 히브리어에서 아담은 사람을 뜻한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6절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이다. 따라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는 두 명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그를 따를 만큼 충분히 발달된 태고 시대의 인류를 말하는 것이다. 에덴의 동산은 지상에 존재했던 최초의 교회로 스웨덴북은 이를 태고교회(Most Ancient Church)라고 이름한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고 있었다.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던 그들의 상태를 상징하는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을 뜻한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존했으며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가 더욱 그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앞장에서는 빛이 진리를 의미한다고 배웠는데, 본장에서는 진리의 또 다른 표현인 ‘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여러분은 “지식에 목말라 있다. -a thirst for knowledge-”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예제키엘 47장 1절부터 5절까지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읽어 보자. 여기에 묘사된 강은 에덴의 동산에 물을 공급하던 그 강과 같은 것으로 그 강의 물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4절까지도 읽어보도록 하자.

- * 동산의 한가운데 무슨 나무가 있었을까?
- * 그 외에 또 어떤 나무에 대해서 쓰여 있는가?
- * 하느님이 아담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한 한 가지 일은 어떤 것일까?

아주 옛날의 사람들은 순진하고 행복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했으며 또한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상태인 동산의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만 나옴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잘 보살피며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그들은 동산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과일 나무 중 그 열매를 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나무가 있었는데 이 선악과의 나무는 선과 진리가 주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에게서도 비롯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과일을 먹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다음의 질문을 통해 말씀 안에 있는 몇 가지 비유를 더 살펴보도록 하자.

* 아담이 잠들었을 때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 주님은 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을까?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 또한 비유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의 하나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매우 해롭다는 것이다. 주님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셨다. 그러므로 결혼은 처음부터 주님의 뜻에 의해 신성한 것으로 특별히 구별되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차차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다.

제 3반

식물계와 상응하는 것들에 대해 재조명 해보자. 강과 생명나무는 태고교회의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와 더불어 사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에덴의 동산의 이야기에 나오는 지명을 알고 그 이름들의 히브리어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상응으로 연결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주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결혼을 통해 사람들의 이기심을 없애려고 하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에덴의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아담과 이브는 두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태고교회 즉 지상의 최초 교회의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을 의미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아담이란 단어가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브는 “생명”을 의미하며 에덴은 “기쁨”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동쪽”에 만드신 것은 그곳이 주님에게 가까운 방향이기 때문이

다. 동, 서, 남, 북의 네 방향은 주님으로부터 가깝고 먼 상태를 의미한다. 태양은 주님을 상징하며 동쪽에서 떠오른다. 그래서 동쪽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를 뜻하며 서쪽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떨어진 상태를 뜻한다. 남쪽은 일조량이 가장 많은 방향으로, 남쪽으로 향해 가는 것은 주님의 진리를 보다 많이 이해함을 뜻한다. 그리고 북쪽으로 향해 가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줄어들음을 뜻한다.

강이 네 줄기로 갈라진 것은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각각 다른 정도와 각도로써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작용되는 것을 상징한다. 첫 번째 강줄기인 '비손 - Pison'은 “흘러 넘친다”는 뜻이며 믿음에서 나온 지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강물이 공급된 땅은 금이 넘쳤던 곳으로 이는 선한 마음을 상징한다. 두 번째 강줄기는 '기혼 - Gihon'으로 “갑자기 흘러나온다”는 뜻이며 선과 진리에 대한 모든 지식을 의미한다. '히데켈 - Hiddekel'은 “급류”를 뜻하며 마음을 명확하게 해주는 이성을 상징한다. '유프라테스 - Euphrates'는 “결실이 풍부함”을 뜻하며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시작점인 기억적 지식들을 상징한다. 우리가 성경을 진심으로 익히고 깨닫는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이러한 네 단계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에덴 동산의 강은 에제키엘 47장 1절부터 5절까지와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하는 강과 동일하다.

나무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식을 상징한다. 우리 안에는 인식을 상징하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들 중 가장 크고 높은 나무는 인식으로 알게 된 원리들 중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생명나무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생명나무가 에덴의 동산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원리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뜻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가르침이 없이도 선하고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상징한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이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면 그것의 용도와 이름에 대해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물의 용도와 특성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에 맞는 이름을 붙여준다. 초기의 사람들은 모든 사물이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것과 상응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인간들로 하여금 주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인지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그 특성에 맞는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쓰여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었지만 자기애가 점점 그들의 마음에 자라나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했다. 이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쓰여 있다. 인간이 완전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신다. 이상적인 결혼생활을 이루려면 남편과 아내 서로 모두가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욱 아끼며 사랑해야 한다. 24절의 말씀은 결혼식 주례에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 결혼은 처음부터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상태로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때는 인간의 발달에 있어 그들 영혼의 성장이 육체의 성장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망각해 버리는 때를 말한다. 우리들 역시 이 중요한 사실을 잊기 쉽다. 주님이 아담으로부터 뽑아낸 갈비뼈는 사람이 그 자신만으로는 얼마나 생명력이 없는가를 보여준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진실로 사랑스럽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기본 상응 공부

강 = 주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오는 진리

나무들 = 일반적인 원리들

생명나무 = 주님의 선과 진리로부터 나오는 원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 스스로 슬기롭고 선해질 수 있다는 원리

네 방위 = 주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

동쪽 = 사랑의 측면에서 주님과 가까운 상태

서쪽 =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보다 적은 상태

남쪽 = 주님의 진리를 확실히 이해함

북쪽 = 주님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희미함

광물계 = 삶의 밑바닥 수준에 속하는 일들

금 = 사랑

제 4반

여자의 창조에 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 결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자.

상응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라 해도 에덴의 동산이 순수함과 행복한 상태를 뜻한다는 것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상태가 사실은 주님께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덴의 동산은 땅위에 존재하던 동산이 아닌 영적인 동산이며 태고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이 최초의 교회를 「태고교회」 또는 「아담교회」라고 한다. 태고교회의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의 삶의 주체라고 믿었는데 이 원칙을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았다. 이것이 “동산의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생명나무를 마음에 지니고 있었기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보기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인식들)이 나오도록 하실 수 있었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이 나무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것을 우리의 영적 성장에 비취 본다면 우리가 모든 경험 속의 진실한 본성을 영과 자연의 양 측면으로 구별할 수 있음을 상징한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말씀을 배우고 연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까닭은 그들의 심정이 주님을 향해 태어나면서부터 열려 있어 주님께서 그들을 직접 훈육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진리를 배우며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 네 갈래로 갈라져 흐르는 강이며 이 강들이 흐르는 에덴은 곧 그러한 진리로 비옥하게 되는 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 옳다고 느끼는 마음속의 충동들 또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스웨덴북은 태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 원리를 중심으로 살아서 세상적인 것들이 본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았다고 했다. 이것은 초기의 인류가 우리 보다 미개하고 야만적 이었을 거라는 역사학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역사학자들도 알고는 있지만 사실로 인정하지는 않는 고대의 “황금시대”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화적 이야기로 전해진 것이다. 여기에 대해 스웨덴북은 "금"이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고대인의 지식에

도 남아있어서 태고 시대를 그들은 “황금시대”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이는 그들이 사랑을 통해 주님에게 인도되었기 때문이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만 지배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만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에게에는 각자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은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창조되었고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스웨덴본은 이브의 창조를 상징하는 것을 '푸로프리움(Proprium)'이라는 라틴어로 설명한다. 라틴어로 '푸로프리움'은 인간 고유의 것(man's own 또는 one's own)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푸로프리움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신 진리를 망각 또는 부인하고 인간인 나 스스로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다 는 일반적인 견해를 떠올리면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문제는 이 푸로프리움은 유전적 특성처럼 조상에서 후손에게로 전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태고의 인류가 하느님께 독립을 선언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푸로프리움을 지니고 태어난다. 현재의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인데 그이유가 우리는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스스로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가 되었다. 갈비뼈가 육체의 심장과 폐를 보호하듯이 갈비뼈란 우리의 의지와 이해성을 보호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갈비뼈로서 창조된 이브가 상징하는 푸로프리움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이해성 곧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에게 푸로프리움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시발점이었지만, 우리에게 푸로프리움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느끼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되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적이며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타인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바른 사고와 올바른 선택을 거듭함에 따라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의 모양과 형상에 가까워지게 된다.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브로 상징되는 푸로프리움 또한 에덴의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완전히 소유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삶에 의미와 기쁨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거듭남에 필요함을 인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푸로프리움은 우리 영혼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또한 이것이 진정한 선을 유용한 삶을 통해 이루는데 필요한 것임도 알아야겠다. 결혼은 주님께 의해 만들어졌고 그것의 진정한 목적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나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은 자기애로 빠지기 쉬운 인간적 본성을 경계하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스웨덴북이 본 천국에서 “완전한 사람”은 여자나 남자가 아니라 결혼하여 한 사람처럼 보이는 한 쌍의 부부였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혼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으로, 스웨덴북은 결혼을 신성한 관계라고 강조한다. 진정한 결혼이란 몸과 마음이 결합해 이생에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결합하여 천국에서의 삶까지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

제 5반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여자가 창조된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자.

창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류나 각 개인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 이것은 태초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며 그들을 스웨덴북은 태고교회라고 이름 한다. 태고교회의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이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로서 다른 말로는 이들을 천적 사람들(Celestial People)이라 구분 짓는다. 천적 사람들이란 주님께 대한 사랑을 삶의 원리로 하여 선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지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 이들은 3층천국의 천사들이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천국과 직접 교통했으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 “천적”인 것을 볼 수 있었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했다. 그들은 주님께 대한 사랑을 매개체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스스로의 판단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판단은 대개 세상적 욕망에 따라 움직이며 이러한 욕망은 대부분 악에 속하기 때문이다. 첫 사람들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에 만족했으며 그들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 없이 스스로의 지혜로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오직 선하고 순수한 애착만 갖고 있었다. 스웨덴북의 저서들은 그들의 순수함과 행복한 삶, 결혼에 대한 높은 이상과 서로에 대한 사랑, 어린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신앙심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 태고교회 시대에는 사랑이 모든 것의 바탕이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화처럼 우리에게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을 학자들은 고대의 “황금시대”라 명명한다. 여기서 “황금”은 사랑에 대한 상응인 금이 인류의 무의식에 반영되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창세기에서는 주님이 만드신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의 동산이 이 태고 교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상응이다. “에덴”은 즐거움 또는 기쁨을 뜻하며 “동쪽”은 항상 주님에게 가까운 것을 뜻한다. 동산은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지혜의 강으로 적셔지며 그 곳의 모든 나무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유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동산 한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주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이 이 동산의 것들을 돌보고 가꾼다는 것은 모든 선한 것들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인식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뜻한다.

아이들은 순수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한다. 아이들이 자의식에 눈을 뜨거나 이기적인 것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류의 초기 단계 또한 유아기처럼 여길 수 있겠다. 초기의 사람들은 주님께 늘 가까이 있었으며 그들은 부모의 철저한 보호 하에 있는 아이처럼 걱정이나 공포를 느끼지 못했다. 강이 네 줄기로 갈라짐은 주님이 우리 마음 모든 곳에 진리를 상징하는 빛을 비추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강줄기인 '비손 - Pison'은 “흘러넘친다”는 뜻이며 믿음에서 나온 지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강물이 공급된 땅은 금이 넘쳤던 곳으로 이는 선한 마음을 상징한다. 두 번째 강줄기는 '기혼 - Gihon'으로 “갑자기 흘러나온다”는 뜻이며 선과 진리에 대한 모든 지식을 의미한다. '히데켈 - Hiddekel'은 “급류”를 뜻하며 마음을 명확하게

해주는 이성을 상징한다. '유프라테스 - Euphrates'는 “결실이 풍부함”을 뜻하며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토대가 되는 기억적 지식들을 상징한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선과 유익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모든 좋은 것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셨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진리인지 지각(perception)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각력은 우리가 주님께 의해 인도되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만 얻을 수 있다. 유아들은 이 지각력과 유사한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

동산에는 주님께서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주님께서 먹으면 안 되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동산에 두었는지 의아하며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그 나무를 심으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될 때 종종 “주님께서 사람을 불행하게 내버려 두신다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불평을 갖는 것과 같다. 선악과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아를 인식한 후 창조주인 주님 앞에 자신이 주님과 별개인 독립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을 상징한다.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깨닫는 것은 영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그의 영혼의 동산에 선악과가 존재해야만 한다. 주님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이러한 행복은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다른 창조물은 생명이 되는 주님의 사랑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존재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음을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요 사람은 그러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의 능력이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느끼며 주님께서 주신 것들 또한 스스로를 위해 사용해도 된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를 먹지 않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먹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선악과로 상징하는 것에 신뢰를 두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 옳고 선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정한 선과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는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스웨덴북은 “우리는 기억이나 개념으로 믿음의 신비를 논해서는 안된다. 이는 천적인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한 의지와 이해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믿고 인정해야 한다.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부분은 인간이 태고교회로 상징되는 높은 지점에서 추락하는 첫 단계를 보여준다. 즉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착각하여 주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나 주님께에서 멀어지는 것을 묘사한 장면이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서는 섭리로서 이러한 인간의 욕망마저도 선용하시어 인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신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혼자 사는 것”이란 천적인 사람들의 상태로서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살며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내 스스로의 의지로 세상에서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은 악에 속하는 것이다. 사람이 홀로 산 것은 유아기의 삶과 같다. 주님은 사람이 외부적인 것에 눈을 뜨고 흥미를 갖게 됨을 아시고 그에게 세상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사람이 스스로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들의 특성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보여주고 그로 하여금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는 마치 어린 아이가 하루하루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와 세상에 관해 배워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만을 중시하게 되며 이로 인해 더 높은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사라져간다. 이것은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는 상황과 같은 것이다. 주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갈비뼈란 이기적일 수 밖에 없는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본성을 뜻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인간이 "자아와 그에 속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스웨덴북은 이것을 프로프리움(Proprium)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프로프리움은 인간의 하부 구조(framework)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죽은 것이다. 우리의 자아가 주님과 관계를 인식하게 되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안의 프로프리움은 살이 입혀져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일부 이해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의 인품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밖으로 끌어냄”, 다시 말해 “남의

눈으로 나를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특히 주님이나 천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스스로를 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주님을 섬기기 위해 다듬질되어야하는 도구로 보게 되며 이것은 곧 우리 안의 영적 뼈대에 살을 입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가 타인에게 유용한 존재가 됨으로써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우리의 죽어있었던 자아가 아름다운 생명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여자를 창조하신 것과 같다. 스웨덴북은 “사람의 자아는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단지 뼈만 있는 어떤 것과 같아 생명력이 없고 흉한 모습이며 죽은 존재이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 생기를 갖게 되는데, 비로소 살로 옷이 입혀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AC 149) 우리는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누가복음 24:39) 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의지만이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129항)」: “사람은 스스로가 생각해낸 원칙들의 지배를 받는다. 설사 그 원칙들이 그릇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지식과 추론은 그러한 원칙들을 선호한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유들이 생겨나서 잘못된 원칙들을 지지하게 되어 마침내 그 사람은 거짓을 진리처럼 여기고 만다. 그러므로 볼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상상력에 의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으로부터, 즉 주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길이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진다. 그런 후 추론과 기억적 지식에 관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깨우침이 있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결코 금지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삶에 도움이 되며 즐거운 일이다. 또한 신앙인들이 세상의 배운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능력이 닿는 한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를 자연적인 진리, 즉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으로 확증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이어야 하며 스스로가 되어서는 안된다. 전자는 생명이며 후자는 죽음이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
- 2) 성경의 첫 번째 책 이름은 무엇인가?
- 3) 창세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 4)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5) 주님은 며칠 동안 모든 것을 창조 하셨을까?
- 6) 무엇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을까?
- 7) 사람은 누구와 닮게 창조되었을까?
- 8) 주님은 7일째 무엇을 하셨을까?
- 9) 주님은 첫 사람들을 어디에 살게 하셨을까?
- 10) 첫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졌을까?
- 11) 아담은 무엇을 의미할까?
- 12)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까?
- 13) 물은 동산에 어떻게 공급되었을까?
- 14) 강은 몇 개의 물줄기로 나뉘었을까?
- 15) 주님께서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 16) 아담은 무엇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
- 17) 아담이 잠들었을 때 주님은 그로부터 무엇을 빼내셨을까?
- 18) 주님께서 그 갈비뼈로 무엇을 만드셨을까?
- 19) 에덴의 동산을 통해 보여주는 뜻은 무엇인가?
- 20) 강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 21) 두 개의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하나님의 말씀 2) 창세기 3) 시작 4) 창조 5) 육 일 6) 사람 7) 하나님
- 9) 에덴의 동산 8) 휴식 10) 아담 11) 인류 12) 돌보고 가꾸는 일 13) 강 14) 네 개
- 15)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16) 동물과 새들 17) 갈비뼈 18) 여자
- 19) 주님에게 가까이 있으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상태 20)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 21) 「생명의 나무」: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
-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며 주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선한 것과 즐거운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3

노아가 방주를 짓다

머리말

뱀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들은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자아와 스스로의 욕망에만 집착함으로써 순진함, 천적인 상태 그리고 선행에 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즉 악의 근원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본장을 통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것 그리고 인간이 주님께 첫 번째로 불순종한 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자.

성 서 본 문: 창세기 6장

6장: 1. 땅 위에 사람이 불어나면서부터 그들의 딸들이 태어났다. 2. 하느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 3.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백 이십 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4. 그 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 느빌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5. 야훼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6. 왜 사람을 만들었든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7. 야훼께서는 “내가 지어 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는 것과 공중에 새까지 모조리 없애 버리리라. 공연히 만들었구나”하고 탄식하셨다. 8. 그러나 노아만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 9.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느님

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10.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11. 하느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12.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13.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땅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14. 너는 전나무로 배 한 척을 만들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15. 그 배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여라. 길이는 삼백 자, 나비는 오십 자, 높이는 삼십 자로 하고, 16. 또 배에 지붕을 만들어 한 자 치켜 올려 덮고 옆에는 출입문을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만들어라. 17. 내가 이제 땅 위에 폭우를 쏟으리라. 홍수를 내어 하늘 아래 숨 쉬는 동물은 다 쓸어버리리라. 땅 위에 사는 것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18. 그러나 나는 너와 계약을 세운다.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19. 그리고 목숨이 있는 온갖 동물도 암컷과 수컷으로 한 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 가 너와 함께 살아남도록 하여라. 20. 온갖 새와 온갖 짐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길짐승이 두 마리씩 너한테로 올 터이니 그것들을 살려 주어라. 21.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먹도록 저장해 두어라.” 22. 노아는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교리 요점

* 노아의 방주 때부터 인간은 “천적” 본성 대신에 한 단계 낮은 “영적” 본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진리를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에 대한 것을 배우고 그 진리에 순종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자연적인 애착들을 믿어 진리를 배우고 깨우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최초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를 주님께 불순종하는데 사용 했다. 욕망과 자기 확신의

상징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들에게 생명나무 보다 더 매혹적이었다. 이것이 스웨덴봄이 설명하는 악의 근원 또는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선에 대해 주님 보다 더 잘 안다고 확신하고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판단은 우리를 점점 올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 주님께에서 지속적으로 멀어진 태고교회의 사람들은 그들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스스로에게서 생겨난 자아만을 간직하게 되었다. 그들의 이러한 상태는 주님이 보시기에 인간성을 잃은 짐승의 모습처럼 보였다. 그러므로 그들을 파괴한 "홍수"가 상징하는 것은 악과 거짓이 인간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홍수가 인류를 파괴함이 상징하는 것은 악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인간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하여 버린 태고교회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 지으신 천국에 갈수가 없었는데, 스웨덴봄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영적인 세계에 지옥이라는 곳이 생겨났다고 한다.

태고교회의 말기에 주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한 소수의 사람들이 노아로 묘사되고 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 방주는 인간이 하느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만들어지는 인격을 상징한다. 이 이야기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 방주의 침수를 막기 위해 안과 밖에 칠한 역청(송진)은 우리의 근본적인 이기심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진리와 선을 알지 못하더라도 나의 이득과 행복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악과 거짓에 완전히 빠지지 않아 선택의 기회를 갖게 하려는 주님의 배려이다. 방주의 3층 구조는 우리의 지적인 면의 3단계 즉 아는 것(지식), 이해하는 것(습득), 깨우치는 것(이해)에 해당된다. 방주의 문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들을 뜻한다. 방주의 위에 있는 창문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찾는 우리의 의지를 뜻한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은 우리의 다양한 애착과 생각들을 상징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읽고 기억하기 쉬운 이야기의 형태로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경이로움과 성경 안에 내포되어 있는 주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제 1반

주님은 노아를 통해 우리가 선할 때는 항상 보살피 주심을 말씀하고 계신다. 본장을 통해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의 이름들을 공부해보자.

주님이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서 첫 사람들을 얼마나 잘 보살피셨는지와 주님이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하신 한 가지 일에 대해 상기해 보자. 아담과 이브는 뱀의 유혹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그들에게 그 나무의 열매는 너무나도 좋게 보였고 그 열매를 따 먹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주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결국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의 동산을 떠나야만 했고 먹을 것을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다. 에덴의 동산 밖으로 쫓겨 나간 그들은 더욱 나빠져 갔고 결국 그들 모두가 큰 홍수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악을 사랑하고 거짓으로 그 악을 변호하는 삶을 살면 결국 멸망 또는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태고교회 사람들 중 주님께 순종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은 그들을 홍수로 부터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셨다.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 22절까지를 읽고 다음의 질문들에 답해 보자.

- * 노아의 세 아들은 누구인가?
- * 주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 * 중요한 것을 담아 안전하게 보관하는 상자는 무엇인가?
- * 노아의 방주는 무엇으로 만들어 졌는가?
- * 방주의 속은 어떻게 나누어졌을까?
- * 창문은 어디에 있었을까?
- * 문은 어디에 있었을까?
- * 누가 방주에 들어갔을까?
- * 사람들 외에 방주에 들어간 것은 무엇일까?
- * 홍수가 났을 때 방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제 2반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악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험난하게 된다. 본장에서 모든 것이 선 또는 악과 상응하고 있음에 대해 알아보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응이란 물리적 법칙이나 수학적 대입과 같이 변함없이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진리를 상징하는 물은 홍수가 되면 거품을 상징한다. 마태복음 7장 24-29절을 참조해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 * 주님은 최초의 사람을 어디에 놓으셨는가?
- * 에덴의 동산은 어떻게 물이 공급되었을까?
- * 동산의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을까?
- * 주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아담과 이브가 주님께 불순종한 후 그들에게 내려진 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그들 안에 존재하던 아름다운 순진함을 잃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상징된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잘못 또는 실수를 한 후 그것들에 대해 제때에 용서를 받지 않거나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일을 더욱 나쁘게 한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이다. 어릴 때의 우리들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여 분노를 사게 하거나 누군가를 상하게 한 후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둑이나 살인자들 또한 한 때는 순진한 아이들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나쁜 길로 빠져 구제불능에 이르게 되는지 생각해 보자. 누구도 단번에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와 같이 태고교회의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에 존재하던 에덴의 동산이 닫힌 후 점진적으로 나빠지게 되어 그들의 지성과 심정에 주님이 아무 것도 해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이기적인 것 외에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홍수는 이러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거짓들이 인간의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리는 것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태고교회의 사람들 중에 소수의 선한 이들이 있었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안에서 살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배로 그것을 상상

한다. 그러나 사실 방주(Ark)라는 것은 궤 또는 상자를 의미한다. 노아의 방주를 제외하고도 유명한 궤(Ark)가 두 개 더 있다. (출애굽기 2장 3절과 25장 10절) 노아의 방주는 우리의 이기적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나쁜 사고와 욕심들인 홍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방주는 주님의 섭리에 따라 지어진 강한 인격을 상징한다고 한다. 우리가 성경을 더욱 자세히 읽고 공부하면, 노아의 방주의 세세한 부분이 상징하는 의미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앞서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이 방주의 세세한 구조를 살펴보자.

- * 방주는 무엇으로 지어졌을까?
- *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했을까?
- * 배는 몇 층으로 되었을까?
- * 배의 내부 구조는 어땠을까?
- * 문은 어디에 있었을까?
- * 창문은 어디에 있었을까?

방주를 공부하는 데 있어 창문과 문의 상응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은 결국 인격이라는 마음이 거주하는 집을 수단으로 서로 교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남과 교류하는 것이 바로 방주에 있는 문으로 상징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항상 순수하고 친절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주님께 소망해야 하는데, 그것은 순수하고 친절한 마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천국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섭리에 의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천국을 향해 항상 열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방주의 위쪽에 있는 창문이다. 이 창문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심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새들과 동물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루는 모든 생각들과 애착들을 상징한다. 주님께서 왜 방주의 문만을 닫으셨을까? 공항에서 큰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모든 사람이 비행기에 탑승한 후 그 문이 닫혀진다. 이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때까지 탑승객이 비행기 밖으로 뛰어 내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예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데 그것은 방주 안에 있는 좋은 생각들과 애착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방주의 크기는 큐빗으로 측량되고 있다. 「큐빗」은 원래 “구부림”을 의미하는 단어로 팔을 구부리는 것 또는 팔꿈치를 의미하게 되었다. 측량도구가 없었던 고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팔로 그것을 대신했다. 1큐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뜻한다. 그것은 실제 1.5feet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방주의 길이는 450feet, 넓이는 75feet, 높이는 45feet 정도가 된다. 큐빗 단위로 보면 길이는 300큐빗, 넓이는 50큐빗, 높이는 30큐빗이다. 성경에 있는 숫자들은 모두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숫자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 또한 쉽게 깨닫게 된다.

제 3만

노아와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적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장을 통해 “영적”과 “천적”이란 용어의 차이를 살펴보자. “천적”은 우리의 의지 또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행함을 의미하며 “영적”은 우리의 이해성 또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행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그 세부 항목에 관한 것들도 알아보자.

이브와 뱀에 관한 이야기는 태고 사람들이 주님께 불순종하여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을 잃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들은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 선 대신 악을 선택하여 자신만을 사랑하며 스스로의 지혜를 믿음으로써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리고 그들은 극도로 악해져 그들의 사악함이 마치 큰 홍수와 같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모든 영적 생명, 선한 애착들, 그리고 진실한 사고들마저 사라지고 마침내 그들은 육체적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에덴의 동산에 있는 강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표현하며 이 진리만이 모든 것에 생명이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스스로로부터 진리를 찾는 데 이것은 결국 거짓에 대한 사랑이 되고 결국은 파멸의 원인이 된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기에 충분한 선이 남아 있었던 태고교회의 사람 중 일부를 상징한다.

홍수를 이겨낸 방주는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형성된 인격을 상징한다. 이 방주는

3층 구조로 지어졌는데 이는 우리 마음의 3층 구조를 의미한다. 방주 위에 창이 있음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기 위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문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방주의 “방들”은 인간 내에 의지와 이해성의 분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마침내 그들의 사고와 의지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원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고 올바른 것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구원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우리 또한 스스로가 원하지 않더라도 옳은 것을 배우고 실천하면 구원될 수 있다.

최초의 사람들은 “천적”(Celestial)사람들로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그들의 의지 속에 직접 흘러 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들은 의(意), 지(知) 그리고 행(行)이 하나인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가 이기적으로 변화되어 그들은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직접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노아로 시작되는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spiritual)사람들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우선적으로 이해성에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의지 부분에 들어가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며 여러 이름들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 성경 이야기 속의 영적 배경에는 간략한 계보가 종종 주어진다. 이름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은 아무 중요성도 없이 보여서 오히려 왜 이러한 내용이 성경의 일부에 속하는지 의아해 하기도 한다.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인물들의 상응을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를 요약하자면 이것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서 계속적으로 이탈되어 가는 단계들로 볼 수 있으며 이 단계들이 갈수록 더 외향적이 되어 감을 볼 수 있다.

노아는 히브리어로「휴식」을 뜻한다. 노아가 모두를 데리고 방주로 들어간 후 주님께서 “문을 닫았다”함은 인간이 이미 타락한 영들로 가득한 영계와 직접적인 접촉을 못하게 되자 주님께서 그나마 인간 속에 남아있던 선한 것을 보존하시려는 것을 뜻한다. 노아는 썸, 함, 야벳이란 세 아들을 가졌다. 이들의 이름은 생명의 새로운 상태가 갖게 된 영계와의 새로운 세 가지 접촉 방법들을 표현하고 있다. 「썸」은

“이름”을 뜻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연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애착에 대한 것 보다 진리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새로운 능력을 상징한다. 「함」은 “따뜻함”을 뜻한다. 따뜻함이란 사람 또는 교회가 가지는 진리에 대한 애착 즉 진리를 사랑함인데 이는 방주에 사용된 전나무로 더 잘 묘사되고 있다. 역청은 “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역청을 함유한 나무에 불을 지르면 얼마나 잘 타게 되는지 상상하면 쉽게 이해하게 된다. 「야벳」은 “넓혀짐”을 의미한다. 우리가 진리를 향한 탐험을 시작할 때, 우리의 호기심은 우리를 지식이라는 넓은 바다로 인도 한다. 이 세 능력(세 아들들)들이 홍수의 파괴로부터 보존되어 졌고 이 능력들에 적절히 관련된 애착들(아내들)과 그것을 지지하는 선한 애착들(방주 속의 동물들), 그들을 지탱시키는 진리들(방주 속의 먹을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그들 안의 선함이 넓혀지게 된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주님이 문을 닫았다” 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시험에 들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주님은 우리와 시험 사이에 항상 계시며 방주라는 우리의 인격이 홍수와 같은 시련을 극복하고 딱딱한 땅에 정지하여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다. 우리는 이와 더불어 비가 40일간 밤낮으로 내렸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기본 상응 공부

홍수(나쁜 의미의 물) = 이기심으로 인해 거짓으로 변한 진리

3 = 의지, 사고, 행동이라는 세 측면의 완벽함 (의지+사고=행동)

40 = 시험의 상태

제 4반

태고 교회와 고대 교회가 신화에서는 금과 은 시대로 표현되고 있는데 금은 사랑에 상응되며 은은 진리에 상응된다. 홍수의 이야기로 그려진 이때 이후로 천적인 상태가 지상에 다시 되돌아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의 의지는 유전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고난 상태로”는 옳은 것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옳은 것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에덴의 동산 밖으로 쫓겨 난 후 더욱 더 나빠져 갔다. 우리가 독선적이고 이기적으로 살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주위에서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자녀가 올바른 생활에서 이탈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모든 범죄자들도 처음에는 순진한 아기로부터 출발했음을 생각해 보라.

에덴의 동산에 있는 강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진리를 뜻한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그들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해 결국 거짓만을 얻게 되고 이러한 거짓은 그들의 영적 생활을 파괴하는 홍수가 될 때까지 커져갔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적 과멸에 까지 이르게 됐다. 이것의 자세한 이유는 본장의 끝부분에 인용한 참고 문헌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욕망을 따라 살다가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된다. 홍수는 인류의 역사 중에 아주 악하고 참혹한 때를 상징하고 있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이 모두 악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 소수의 사람들은 비록 가장 이상적인 행복의 상태를 잃었다 해도 주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상징된다. 그들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성장된 인격이 바로 방주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방주로 인해 참혹한 난관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숫자 40은 시험이 가득한 상태 또는 시험을 다 극복하는 정점을 뜻하는데 비가 40 주야로 내린 것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생활과 주님의 40일간의 시험을 상기하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방주의 세부 사항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방주는 역청을 함유한 전나무(gopher wood)로 만들어졌다. 이 나무는 자연적 선함을, 역청은 이기심을 뜻한다. 이것은 곧 사람들이 선함과 악함을 모두 가진 것을 상징한다. 성경의 모든 숫자가 의미를 갖고 있듯이, 방주의 크기에 관한 숫자도 의미를 갖고 있다. 방주의 3층 구조는 우리 마음의 3층 구조를 의미 한다. 창문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열려있는 우리의 마음이고 옆에 낸 문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방주의 세부 사항 중 두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하나는 방주의

안과 밖이 역청으로 칠해 있었다는 것이다. 역청은 우리의 이기적 사랑을 상징한다. 역청의 상징성은 바벨탑 이야기에 등장하는 역청(slime)과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성이 역청을 캐는 골짜기에 있었음을 상기해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조차도 좋게 쓰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만드신다.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칠한 역청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기심이 아닌 거짓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주님께 의해 사용되는 이기심을 뜻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잘못을 행하지 않을 경우 기대되는 보상, 잘못된 행위에 대한 타인들의 비난, 또는 잘못에 대한 처벌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방주가 여러 칸의 “방”(rooms)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태고교회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처럼 나뉘어 있지 않았다. 주님은 그들의 심정에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느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악해지자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임할 수 없게 되었다. 주님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선한 것들을 보존하시고 또 비록 인간의 모든 바람들이 악해지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진리를 보고 따를 수 있어서 진리 또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인간의 의지와 이해성을 분리시켰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이 옳바르다고 인식할 수 있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강제해서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방주 안에 있었던 새와 동물들은 선 또는 악에 속한 애착들을 의미하고 이것은 사람의 인격을 구성한다. 양식(food)은 이러한 애착들을 키우는 사상들을 의미한다. 방주 안의 모든 새와 동물들이 두 마리씩 쌍으로 존재했던 것은 생각(이해)이 의지와 결합한 상태의 애착 (affection)들을 상징한다. 창세기 7장 2절에서 깨끗한 짐승은 7쌍씩을, 부정함 짐승은 한 쌍씩만 취했음은 태고 교회의 사람들이 악 보다 선이 더 강했음(많았음)을 뜻한다.

“아담”은 우리 교회에서 태고 교회로 부르며 신화에서는 이를 황금시대로 이른다. 그리고 “아담”으로 상징되는 태고 교인들은 감성적 또는 “천적” 타입(type)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삶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노아”는 지성적 또는 “영적”타입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그들의 사고(생각함)와 삶이 일치했기 때문이

다. 노아는 고대 교회 또는 은 시대(Silver Age)를 상징한다.

제 5반

인간 내에 이해성과 의지가 분리되어 있는 이유와 고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본장을 통해 "양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과 마음의 자세를 바로 잡는 습관의 필요성도 염두에 두자.

앞장에서 첫 사람들 즉 태고 교회가 주님에 의해 발달된 과정과 그들의 순진하고 행복한 생활이 주님에 의해 인도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것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 세계에 속한 것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바램을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시험으로 인해 그들이 스스로에 의해 인도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추론하기까지 이르러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을 그들의 심정을 통하여 가르칠 수 없게 됐다. 마침내 그들은 진리에 대한 지각을 상실하고 영계와도 교통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스스로에 속한 것들만 생각하고 천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을 변명하거나 확증하기 위해 사용했다. 이것이 성경에서 “사람의 딸들과 하느님의 아들들 사이의 결혼”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하느님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전해 내려온 천적인 진리들을, 사람의 딸들은 그들의 이기적 사랑으로부터 온 악한 애착들을 상징한다. 그 결합의 결과가 거인족이며, 이것은 타락한 태고 교인들의 상태를 상징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고 생각하기에 신들(gods)과 같이 위대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영적 상태가 성서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민수기 13장 33절과 신명기 3장 11절을 보면 거인족의 자취를 볼 수 있다. 다윗과의 결투로 유명한 거인인 「골리앗」은 신체적 거인들 중 마지막 후손인 셈이다. 천적인 것을 악용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판단하던 타락한 태고 교인들은 육체적으로도 거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 악용(곡해, 타락) 또는 거짓들은 궁극적으로 영혼과 육체를 모두 파괴했고 내재하던 영으로서의 삶을 질식 시켰으며 마침내는 그들 스스로 치고 받아 멸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로부터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들이 비롯된다는 것이 모든 산들을 꼭대기까지 덮어버린 홍수가 상징하는 것이며,

이 거짓들을 추구하는 것 즉 홍수는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을 익사시켜 버린다.

본장의 서두는 외식(外植)적 진리(apparent truth)로 시작된다. 주님께서 사람을 만듭을 탄식하고 후회하셔서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후회 또는 인류의 멸망을 생각조차 하실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신데, 마치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이러한 구절들을 스웨덴북은 외식(外植)적 진리 곧 겉보기에만 진리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외식(外植) 진리는 언뜻 보기에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태고 교회의 파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악과 거짓에 의한 것이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주님의 섭리는 인간을 위해서만 역사하신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섭리도 변화하는 인간을 따라 움직일 때는 인간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나 자식의 행실과 마음가짐에 따라 그 사랑이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인간이 심히 악해져 주님께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차단되었을 때는 주님께서도 그들이 스스로를 망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만, 옳은 것을 추구하고 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새로운 방법을 준비하시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하든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다.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옳은 것을 추구하던 소수의 사람들이 노아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도 선한 것만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천적인 차원에서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천적인 상태 즉 근원적인 상태로 회복될 수는 없었다. 주님은 그들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셨고 그들에게 주님께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셨다. 그 수단이 바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방주는 전나무(gopher wood)로 지어졌으며 나무는 자연적 선함(natural goodness)을 상징한다. 그 이유는 타락한 태고교회 사람들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이 바로 자연적 선함이었던 것이다. 스웨덴북의 설명에 의하면, 전나무는 불타기 쉬운 나무로 이것은 이기심으로 가득한 자연적 선함을 상징한다고 한다.(천국의 신비 제 643항) 방주는 그 안에 “방들(rooms)”을 가지도록 만들어져 있다. 여기서 “방들”은 인간의 의지와 이해성을 상징한다. 이것은 의지를 통해 주님께서 선으로 직접 인도하시던 태고교회

의 시대가 끝나고 주님께서 이해성을 통해 인간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고대교회의 시작을 의미한다. 태고 교인들의 사고는 그들의 내적 바램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그들의 가장 깊은 바램은 주님만을 섬기려는 것이었으므로,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의 사고에 실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기적인 바램이 그들의 의지를 지배할 때 그들의 사고는 거짓만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님은 생각의 근원인 이해성을 의지로부터 분리시키셨는데, 이로 인해 그들이 마음으로는 옳은 것을 원치 않더라도 이해성을 통해 진리를 알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셨다. 진리를 배우고 깨우친 진리를 살아냄으로서 즉 행동 안에 진리가 실재하게 됨으로서 주님은 타락한 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새로운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로 상징되는 고대교회의 사람들은 의지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지각을 통하는 대신 인간의 이해성 안에 새로이 주어진 의지인 양심(conscience)에 의하여 옳은 길로 인도 되었다. 의지와 이해함(will and understanding)의 분리는 방주 안이 여러 칸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음으로 상징되고 있다. 방주의 3층이란 마음의 세 가지 평면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식(knowledge), 추론(reason), 이해함(understanding) 또는 행동(act), 사고(thought), 의지(will)를 상징한다. 방주 위에 난 창문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얻도록 마음이 열려 있음을 뜻하고, 방주 옆의 문은 진리를 듣고 순종함을 의미한다. (AC651-658)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 안에 계시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계시록 3장 20절 참조)

방주의 내부는 태고교회의 일부로 고대교회의 시초였던 사람들의 인격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방주는 주님께서 태고 교회의 길을 잃은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질서를 주신 것인데,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성을 통해 진리를 받고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진리)을 사랑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교회는 심정(heart)으로 주님을 사랑함이 근원이었기 때문에 천적 교회였다. 두 번째 교회 즉 고대 교회는 이해성을 통해 받아들인 진리가 근원이었기에 영적 교회였다. 새로운 질서로 세워진 양심을 가진 마음(mind)은 멸망을 상징하는 거짓의 홍수로부터 인간 내에 자연적인 선이라도 남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었다.

성서의 이야기들은 인류에 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역사)에도 적용된다. 유아기는 에덴의 동산의 상태와 비교될 수 있다. 자의식이 발달하여 우리 스스로

자기 길을 선택하기 원하게 되면 그동안 잠재해있던 우리 안의 악들이 우리 의식 내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종종 제멋대로이고 고집불통인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곧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이 상징하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상태와 비슷하다. 이들은 자기 이익만 집착하며 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금하게 되면 그들은 이성을 잃고 광분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그들의 이기심은 그들을 스스로 망치게 하는 지경으로 이르게 한다. 우리들은 모두 악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악한 생각에 집착하거나 그 쪽으로 동의하기 시작하면 악은 우리의 영적인 것 뿐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 파괴할 것이다.

우리는 의지와 이해성을 분리해 놓으신 주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히 응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옳은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자녀들이 싫어하더라도 그것들을 꼭 실행하는 버릇을 육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자녀들에게는 서히 좋은 습관이 형성되고 옳은 방침을 실행하도록 인도하는 양심이 발달하게 된다. 방주는 주님께서 인간들을 가르치셔서 옳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방주 안의 동물들은 인간 내의 갖가지 애착들을 상징하는데, 이러한 애착들은 각 개인이 개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며 거듭나는 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노아와 그의 아내는, 우리 속에 존재하는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바램들과 주님에 대한 인식을 상징한다.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들은 주님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는 사고(思考)들과 애착들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의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시험을 상징하는 홍수가 물러가고 방주가 산꼭대기에 안주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 안에 더 이상 방주를 파괴시키려 하는 거짓이 없어서 진리로부터의 삶에 대한 확고한 지침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mind)은 주님 안에서 휴식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로 살아갈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다. “자유란 주님에 의해 인도되는 것”임을 기억해 두자.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607,608항)」:

607항.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믿기도 힘든 것은 태고 교회의 사람들이 내적 호흡을 하였고 외적 호흡은 오직 잠잠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후의 세대들이나 오늘날의 우리처럼 많은 단어들로 말하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관념(ideas)으로 소통했다. 그들은 모습과 얼굴의 무수한 변화들로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중 입술의 변화무쌍함이 특별했다. 입술에는 지금은 퇴화되어버린 근육 조직이 아주 많은데, 그들은 이 근육 조직들을 사용해서 오늘날의 음절로는 한 시간 이상이 걸려야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일분 만에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의사소통은 언어를 사용해서 뜻을 전달해야만 하는 오늘날의 우리 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하였다고 한다.

608항. 내적 호흡이 점차로 힘들어 지면서 외적 호흡(external respiration)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오늘날과 같이 되었다. 외적 호흡이란 단어들의 조합인 언어로 뜻을 전하는 것인데, 생각 속의 사상이 결정되면 자음소리(articulate sound)를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내적 상태는 완전히 바뀌어졌고 지금은 태고 교회의 내적 지각력 대신 고대 교회의 양심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639항)」: “역청을 바른 방주, 방주의 크기, 구조 그리고 홍수 등등이 글자 그대로만을 의미 한다면, 그 안에 영적 또는 천적인 의미들이 없을 것이며 그것들은 기껏해야 역사적인 가치 그것도 여느 학자들의 소견들과 같은 정도의 쓸모만이 인류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 안에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방주에 관한 것들도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질문 정리

- 1) 주님은 첫 사람을 어디에 놓으셨을까?
- 2) 첫 사람들은 그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 3) 에덴의 동산에 물은 어떻게 공급되었을까?

- 4)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는 무엇일까?
- 5) 에덴의 동산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었을까?
- 6) 주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금하셨을까?
- 7) 주님은 아담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로부터 무엇을 취하셨을까?
- 8) 주님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셨을까?
- 9) 첫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 불순종 했을까?
- 10) 주님께 불순종한 그들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
- 11) 그들은 회개했을까?
- 12) 주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셨을까?
- 13) 주님은 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을까?
- 14) 주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 15) 우리는 방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까?
- 16)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을까?
- 17)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18) 노아는 방주로 무엇을 들어오게 했을까?
- 19)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 20) 홍수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 21) 방주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에덴의 동산 2) 지키고 잘 돌보았다 3) 강 4) 생명나무 5)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6)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7) 갈비뼈 8) 여자 9)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 10) 동산으로부터 쫓겨남 11) 아니다 12) 인류를 멸하기로 13) 그들은 선행기 때문에 14) 방주 15) 전나무, 역청, 3층, 칸막이 방들, 창문, 문 16) 아내, 아들, 며느리 17) 셈, 함, 야벳 18) 창조물의 쌍들 19) 자아에게서 올바름을 찾음 20) 진리가 거짓이 되어 파괴적이 됨 21) 주님께 순종함으로 형성된 좋은 인격

4

아브람을 부르심

머리말

시간이 흐르자 노아의 후손들 또한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다. 결국 그들은 함께 어울려 살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어 지상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도덕적 교훈은,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의 일원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집단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균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서 본문: 창세기 11장 27-30절, 12장 1-10절

11장: 27. 데라의 후손은 다음과 같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28. 하란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29.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았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래요,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로서 이스가와는 동기간이었다. 30. 사래는 잉태를 하지 못하는 몸이었으므로 자식이 없었다. 31.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나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다 자리잡고 살았다. 32. 데라는 이백 오 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1.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2.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 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3.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

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4. 아브람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칠십 오 세였다. 5.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6. 아브람은 가나안 땅을 거쳐 모레의 상수리나무가 있는 세겜 성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7.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아브람은 야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쳤다. 8. 아브람은 그 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 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아브람은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치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 9. 아브람은 다시 길을 떠나 네겟 쪽으로 옮겨 갔다. 10.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하여 아브라함은 에집트에 몸붙여 살려고 옮겨 간 일이 있었다.

교리 요점

*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고대 말씀에서 취해 온 것이며 이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쓰인 것이 아니다. 사실적인 역사시대는 제 12장부터 시작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아브람의 이야기에서부터 역사시대로 접어든다.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다. 주님은 이들을 선택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으며 또한 이들의 삶이 쓰인 성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주신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로 이뤄진 두 번째 교회도 첫 번째 교회처럼 그들 스스로의 인간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사고를 근간으로 살아가면서 악으로 기울어져 갔다. 아브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은 새로 시작되는 길고 긴 영적 성장의 과정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적 성장 과정들의 반복은 인류 역사와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된다. 한 나라가 심히 부패되어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를 수 없게 되면 주님은 그들 가운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내셔서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 개인이 악해져서 삶의 옳은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은 그의 구원을 위해 그 사람 안에서 선을 향할 기초가 될 것을 새로이 발견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악을 선택해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까지 주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 삶은 하나의 여행이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아브람의 여행으로 상징되는 영적 여행을 하도록 부름을 받게 된다. 가나안 땅 즉 거룩한 땅이라고도 하는 이곳은 천국 또는 천국적 인격을 상징한다. 주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주님께 순종하려는 사람들이라도 모두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아브람의 형제인 「나홀」과 그의 가족은 가나안의 북동쪽인 「하란」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변성하며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과는 교류하며 가깝게 지냈다. 아브람의 아들 이삭의 아내와 손자인 야곱의 아내들은 모두 하란 출신이었다. 하느님을 믿으며 선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돌보시는 “양”들로 상징되어진다. 하지만 선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아브람이 그랬듯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 그분에 대해서 더욱 많이 배우기를 원해야한다. 아브람이 흉년 때문에 이집트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섬기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준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제 1반

본장에서 「아브라함」의 등장에 대해 알아본다. 이것은 거룩한 땅에 대한 첫 언급이기도 하다. 「아브라함」, 「사라」, 「롯」의 이름,과 「나홀성」 또는 「하란」 이라 불리는 장소를 기억해 보자. 그리고 아브람이 맨 처음 도착한 거룩한 땅인 「세겜」과 「베델」의 지역명들도 알아보자. 우리는 아브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 성경 구절을 통해 주님에 대한 그의 순종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배워야 한다.

홍수가 끝나자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새로운 생활을 위해 방주에서 지상으로 나왔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단은 예배의 상징으로, 노아의 시대에는 대부분의 제단이 돌로 쌓아 만들어졌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제단이 있고 그 위에는 항상 성경이 놓여진다. 그 이유는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는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노아는 주님께 항상 순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쌍방이 약속 하는 것을 「언약」(covenant)이라고 하며 주님께서서는 이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가 주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스스로 현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의 자만심과 이기심이 극도로 심해져 그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없게 되었다.

- * 고대 사람들이 아주 사악해져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중 누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 * 그들은 홍수에서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 우리는 방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 * 누가 노아와 함께 구원되었나?
- * 방주로 구원된 것들은 무엇인가?
- *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 * 주님께서서는 불순종으로 악해진 인간들을 멸하는 대신 그들을 지상의 여러 곳으로 흩어지도록 하셨다.
- * 주님은 그들 중 순종하려는 한 가족을 찾았다.

- * 이 가족은 가나안의 동쪽 방향에 있는 「갈대아」의 「우르」에서 살았다.
- * 주님은 이 가족에게 고향을 떠나 가나안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 * 이 여행은 길고 어려운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하지는 못했다.
- * 그들은 가나안의 북동쪽에서 잠시 멈추었는데 「나홀」은 거기에 정착했다.
- * 「나홀」은 이곳을 우르를 떠나기 전 죽은 형제 「하란」의 이름을 따라 지었는데 나홀의 성이라고도 불린다.
- * 아버지 「테라」도 하란에서 죽는다.
- * 「롯」은 하란의 아들이다.
- * 주님은 아브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
- * 아브람의 일행이 멈춘 가나안 땅의 첫 도착지는 어디인가?
- * 그들이 두 번째로 멈춘 곳은 어느 곳인가?
- * 아브람은 멈춘 곳에서 무엇을 했나?
- * 그들은 왜 이집트로 내려갔는가?

제 2반

본장에서 나오는 장소와 이름들을 상세히 기억해 보자.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될 때 덧붙여진 글자 「h」는 Jehovah(여호와)로부터 왔다. 주님이 아브라함이라 부르도록 하신 것은 아브람과 주님의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홀성으로 알려져 있는 하란과 그의 가족들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성서 지도를 펴고 이 장소들을 찾아본다면, 아브람과 그 가족들이 큰 사막 때문에 진진하지 못하고 멀리 북쪽으로 간 것을 이해할 것이다. 아브람이 가나안으로 가도록 부름 받는 것, 거룩한 땅, 제단들, 이집트로 내려간 것 등의 의미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자.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공부해 보자.

- * 태고 교회 사람들에게 일어난 마지막 일은 무엇이었나?
- * 누가 구원되었는가?
- *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 노아는 가족 외에 무엇을 방주에 들였나?
- * 비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렸을까?

- * 데라가 살았던 곳은 어디인가?
- * 데라는 아들을 몇이나 두었나?
- * 데라의 아들 중 누가 우르에서 죽었나?
- * 데라의 아들 중 누가 떠나지 않고 남았나?
- * 주님은 데라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 아브람은 왜 더 여행했을까?
- * 주님은 아브람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 * 누가 그와 함께 갔을까?
- * 그들은 어떤 땅에 있었을까?
- * 아브람이 처음 도착한 거룩한 땅은 어디인가?
- *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
- * 아브람은 도착지에서 무엇을 만들었을까?
- * 아브람은 처음 도착지에서 왜 정착할 수 없었을까?
- * 흉년은 무엇인가?
- * 아브람은 흉년으로 인해 어디로 갔는가?

홍수가 끝난 뒤 지상에 새로 정착한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엔 매우 선했지만 점점 스스로의 욕망을 선택해서 사는 것을 원했고 결국 그들 자신의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보다 우월한 것으로 착각했다. 창세기 11장 1-9절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는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 세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스스로의 이기심 때문에 멸망되지 않도록 그들을 흩어 버리신 것이다. 바벨탑 사건 다음의 성경 말씀은 족보와 같다. 우리는 그 기록을 보고 당시의 사람들이 현대인보다 더 오래 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 이름들은 하나의 집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한 아브람과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성서 지도를 통해 살펴보자. 그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행은 아주 길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들은 걷거나 혹은 나귀를 타고 여행했고 가족들을 몰고 가야했기에 자주 쉴 수밖에 없었고 밤이 되면 텐트를 치고 가족들을 지켜야 했다. 나홀과 그의 가족은 여행을 끝내기로 결정한 뒤 그들이 정착한 곳을 우르에서 죽은 하란의 이름을 따서

'하란'이라고 불렀다. 그곳은 종종 나홀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는 이 성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우리는 아브람(Abram)을 아브라함(Abraham)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주님 스스로 여호와(Jehovah)중의 “h”를 아브람의 이름에 붙여 바꿔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아브람의 아내 「사래(Sarai)」를 「사라(Sarah)」로 바꿔 이름 지으셨다. 주님이 이들의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이들이 흉년이 들어 이집트에 갔다가 되돌아와 가나안 땅에 영구적인 고향을 만들어 과거 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교류했기 때문이다.

제 3반

여행은 우리의 삶(인생)에 상응한다. 상응에 근간한 상용어구나 술어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성경 안의 상응을 이해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상에 세운 두 번째 교회 즉 고대 교회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로 그려지고 있다. 고대말씀(Ancient Word)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전의 성경은 교회시대에 쓰여 졌다. 고대 사람들은 상응 공부를 즐겨 해서 성경 또한 상응을 담을 이야기들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아를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배와 연관되어 만들었던 형상들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잊어 버렸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이 두 번째 교회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바벨탑 이야기 이후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첫 아들인 「셈」의 후손들의 이름을 알려 준다. 이들은 셈족이라 불리며 현재 소아시아라 부르는 지역에서 살았다. 창세기 11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이름들은 창세기 앞 장에서 등장했던 이름들처럼 개인의 이름이 아닌 한 가문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스웨덴북에 의하면 실질적인 역사시대는 14절부터라고 한다. 그것은 「에벨(Eber)」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시작되는데 그의 이름을 더 정확히 하자면 헤벨(Heber)이라고 써야하며 그로부터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이 기원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존 인물들로 이들의 후손들에 의해 이스라엘 교회와 유대 교회가 이루어진다.

성경의 지도를 보고 갈대아의 우르를 찾아보면, 갈대아의 우르와 가나안의 사이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브람의 가족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란을 경유하게 된다. 하란은 우르를 떠나기 전에 죽은 아브람의 형제인 롯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으로, 나홀의 성이라고도 부른다. 그 이유는 나홀이 하란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도 하란에서 죽게 된다. 그러나 아브람, 그의 조카 롯, 그리고 아내 사라와 그의 하인들은 여행을 다시 시작했다.

우리는 하란이라는 지역과 더불어 아브람이 처음 도착해 제단을 쌓은 가나안 지역 내의 두 곳 즉 셰켄(Shechem)과 베델(Bethel)도 기억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지역과 사람들의 이름은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집트도 기억해야 한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그 지역을 비옥하게 해서 고대에서는 세계의 곡식 창고로 유명해서 흉년이 들면 타 지역 사람들이 그곳에서 양식을 구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자주 이집트로 갔던 것을 알 수 있다.

주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님이 자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아 중심적인 삶의 길을 떠나 그분이 뜻한 삶의 천적인 상태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한 여행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심과 같다. 가나안 땅 즉 거룩한 땅은 천적 상태를 상징한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과 장소들은 상응으로 볼 때 천국을 향한 우리의 영적 여행과 관련되어 있다. 이집트는 우리가 삶에 필수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두는 것 같이 많은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저장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흉년은 양식 곧 선과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지식의 부족을 의미한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줄 지식이 부족함을 느낀다. 이런 지식의 부족이 상징하는 흉년을 견뎌내기 위해, 또는 부로 상징되는 충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집트로 상징되는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자발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게 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스웨덴볼의 삶의 수칙들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에 상응한다. 이집트에서 되돌아 오면 우리가 얻은 지식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 상응 공부

갈대야의 우르 = 우리의 자아로 본능적 상태
가나안의 땅 = 천국적 상태
하란 = 자연적으로 선한 상태
이집트 = 지식을 획득하는 상태

제 4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본능적 욕망과 생각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더 많은 지식을 얻어야 하는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 성경에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되돌아오는 이야기에 담겨 있다. 우리는 세상적 지위의 상승을 위해서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배움과 노력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노아의 이야기는 고대 교회 즉 두 번째 교회가 생기고 또 쇠퇴해져 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최후에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벨탑 이야기이다. 이러한 성경의 사건들을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수많은 세대에 걸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경 기록 중에서 역사 시대로 접어드는 부분을 살펴보자. 스웨덴본은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실존 인물이 에벨(Eber: 창세기 11:14)이라고 한다. 이 사람으로부터 히브리인들이 시작되며 히브리인 중 한 명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 고대 교회를 잇는 세 번째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Israelitish Church)와 유대 교회 (Jewish Church)로 이루어진다. 그 명확한 구분은 어렵지만 대체로 이스라엘 교회는 모세가 계명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유대 교회는 바빌론 유수에서 귀환한 유다 왕국의 사람들 (people of Judah)이라는 의미에서 기원한 유대인(Jews)라고 불리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가 바로 유대 교회의 마지막이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 교회를 스웨덴복음 표현(Representative Church, 表現) 교회, 또는 교회를 표현하기만 했음(Representative of a Church, 껍데기 뿐인 교회)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교회의 특성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는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담은 외적 형식만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교훈은 문자적 이야기 안에 내포된 깊은 뜻이지만 우리는 먼저 말씀의 문자적 이야기를 공부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것은 마치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문자적 의미를 통해서만 말씀 안에 있는 깊은 뜻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교회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영적 또는 천적인 것들을 잃은 상태로 자연적인 것만이 남아있는 교회의 표현, 즉 겉으로만 교회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계명들과 예배에 대한 의식들은 상응을 통해 인류에게 참된 교회의 의미를 알게 해준다. (히브리서 8:5 참조)

주님은 하나의 교회가 타락의 끝에 이르게 되면 옛 교회의 사람들 중 선한 자들을 택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위해 부르신다.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바로 옛 교회, 즉 고대 교회의 마지막인 히브리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 중 선한 자들로,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 아껴두신 것 즉 나머지 또는 그루터기(remnant)를 상징한다. 아브람은 고향을 떠나 주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소유하도록 약속하신 거룩한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보면, 구약성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약속을 글자 그대로 따른 것처럼 보이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주님이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아브람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이 바로 영적 후손이며, 이러한 영적 후손만이 주님과 약속을 이행하여 가나안 땅이란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 있는 천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이다.

주님이 아브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들의 고향으로 상징되는 타고난 이기적인 본성을 떠나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천국의 삶이 있는 거룩한 땅으로 여행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거룩한 땅에 도착하기 전 하란에서 죽었고 아브람의 형제 나홀과 그의 가족은 하란에 정착했

다. 이처럼 이 여행은 아주 길어 도중에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여행을 시작한 모든 사람의 결과가 다 똑같지는 않다. 하란은 자연적 수준의 선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주님께 순종하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선하게 살고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준에 머문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서의 순종에 만족하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속뜻)들은 배우려하지 않는다.

아브람과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여행을 계속하여 가나안에 도착하고 또 다시 남쪽으로 이동한다. 네 방향 중 동쪽은 그들의 심정이 주님께 더 가까이 있음을 뜻하고 남쪽은 그들이 영적으로 총명한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남쪽 방향으로 여행한다는 것은 더 밝은 빛 쪽으로 진보하는 것을 뜻한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도 도착 하는 곳 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섭리를 인식하기 위해 애쓰며 우리 삶의 매 단계를 올라 갈 때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 흉년을 만나게 된다. 흉년은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을 상징한다. 흉년은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기적인 현상이다. (아모스서 8:11 참조) 간혹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를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의 영적 진보는 필요 없다는 착각을 한다. 말씀 전체를 통해 이집트는 자연적 지식의 창고를 의미하고, 여기서 지식은 말씀의 문자적 의미를 공부해 얻는 지식도 포함한다. 처음으로 아브람이 이집트로 갔고, 그 후에는 야곱과 요셉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집트로 가셨다. 그것은 선과 진리에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 시기가 이집트에 체류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교회의 시조인 아브람을 우리의 영적 성장으로 보면 선한 생활로 인도되기 위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의 아주 어린 영적 상태와 상응한다. 우리는 내 고향(출생 때 갖고 있던 매우 낮은 수준의 영적 상태)과 우리의 혈연(넓은 의미로 우리의 이기적인 애착과 생각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상속된 특별한 약함과 약들)을 떠나 주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여행해야 한다. (마태 19:29 참조)

제 5반

실질적인 역사 시대의 등장과 아브람 이야기의 일반적인 요점에 대해 알아본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1140항과 1343항에서 창세기 1~11장까지는 모세가 고대 말씀으로부터 발췌해 온 것이며 성경에서 실존 인물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람은 창세기 11장 14절에 있는 에벨(Eber)이라고 서술한다. 에벨로부터 히브리라는 호칭이 붙기 시작했다. 그는 고대 교회의 두 번째 단계에 속하며 이 교회는 아브람의 아버지 테라 시대까지이다. (천국의 신비 제 1343항 참조) 아브람은 고대 교회의 세 번째 단계를 의미하는데 이로부터 새로운 교회 즉 이스라엘 교회, 그리고 후에는 유대 교회가 시작된다. (1360 참조) 두 번째 고대 교회인 히브리 교회도 첫 번째인 노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들을 인식하며 예배에 속한 모든 형태를 상응(correspondence)을 기반으로 하여 그 가치를 파악했다. 제물(sacrifices)이 예배 의식을 구성하는 조건이 되는 것도 에벨로 상징되는 고대교회의 두 번째 단계부터다. 그러나 세대가 지남에 따라 예배가 상징하는 것과 다양한 예배의식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한 지식을 소홀히 했다. 결국 사람들은 제물이나 사람이 만든 형상들 자체가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고 마침내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천국과 영원한 삶에 대한 것들을 모두 잊고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했다. 이러한 퇴보로 인해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심정과 지성(hearts and minds)에 가르침을 주실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내적 생각을 갖지 못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그 결과 지상에 진정한 교회가 사라지게 되고 단지 교회라는 이름만 가진 표현적인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주님은 인간과의 계약을 기억하셔서 인간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고 특별히 마음의 동기가 선한 이들은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이스라엘 교회와 그 다음에 오는 유대 교회를 구성하셨으나 이러한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즉 그 안에 천국과 인류의 영적 교류가 있는 교회는 아니었다. 서간문에 보면 “율법에 의거 봉헌물을 제공”하는 유대 성직자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늘 성전의 모조품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다. (히브리 8:5) 이스라엘과 유대라는 교회는 주님께서 인간들이 주님과 말씀을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선택된 것이지 그들이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른 민족들 보다 나아서 선택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아주 외적인 사람들로 상과 벌에 의해서 이끌어 졌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강제하지는 않으셨으며 그들의 영적 자유(freedom)가 간섭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참된 예배에 상응하는 특별하고 구별된 형식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인도하셨다. 아브람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실존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아브람의 삶은 문자 그대로의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상징성이 강한 인물로, 말씀 중에 그에 관한 모든 기록은 주님의 삶과 연관되며 우리의 삶에도 연관되어 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아브람의 역사가 의미를 갖고 말씀에 기록되도록 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브람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역사적 발견은 자연적 지식 면에서 흥미로울 수 있지만 말씀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에텐의 동산 이야기는 천적 타입(type)에 속한 교회의 발생과 퇴보를 다루며, 노아의 이야기는 영적 타입에 속한 교회의 발생과 퇴보를 그린다. 우리는 본장에서 자연적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발달과정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모두 자연적인 차원의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나며, 이 자연적 수준에서 성장하여 발달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본장에서 다룬 이야기는 우리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보여줌과 함께 그 이야기의 세부 사항들을 통해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성경에서 주님과 유대인이 밀접하게 관련됨과 같이 우리 개개인의 삶의 진보 또한 주님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생명의 책인 이유이기도 하다.

아브람은 주님으로부터 여행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여기서의 여행이 인생을 상징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여행은 우리의 영혼이 진보하는 과정에 대한 상징적 묘사이다. 번안의 천로 역정 (Bunyan's Pilgrim's Progress)은 이러한 상징적 요소들을 잘 사용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진보 (prograss)」라는 단어가 우리 영혼의 성장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성서의 내적인 의미를 깨우치게 해주는 상응(correspondence)은 우리가 말씀과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의 인생길은 때로는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때로는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후진, 전진 또는 정지하기도 한다. 간혹 우리는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전경을 살펴듯이, 영적인 정상에 올라 우리 삶의 전체를 차분하게

관망하며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기도 한다. 주님은 스웨덴봄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인식의 내적 세계를 더욱 넓히도록 하셨다.

우리는 아브람의 여행에 관련된 성경의 세부 사항의 의미들도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아브람은 그의 고향인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의 땅으로 가도록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 우리가 태어난 땅은 자연적 상속물인 악과 거짓이며 가나안의 땅은 천국적 상태이다. 천국적 상태는 우리가 타고난 본능적 또는 이기적인 유혹과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명령에 따르며 그분의 인도와 보호아래 천국적인 것을 감지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브람이 가나안의 땅으로 가도록 주님의 부름을 받음은 천국 그 자체를 향해 여행하기 위한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다. 아브람이 여행 중 하란에서 머무른 것처럼 천국적 상태로 가는 여정은 멀고 힘들다. 우리들 중 일부는 나홀과 그의 가족이 하란에 정착했던 것처럼 천국적 상태에 이르는 도중에 멈추기도 한다. 만약 우리가 아브람처럼 계속 전진해 목적지까지 가고자 한다면, 아브람이 세겜 골짜기에 잠깐 머무른 것으로 묘사된 첫 번째로 맛보는 천국적 상태에 멈추지 않고 베델이라는 더 높은 상태로 계속 전진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감지하는 천국적 상태의 매 단계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 되는데, 이는 곧 아브람이 도착지마다 제단을 쌓는 것으로 상응된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적인 상태에 더욱 가까이 이르게 되면 진리에 대한 배고픔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말씀가운데서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로 표현되고 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시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즉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흉년과 상응한다. 아브람은 흉년을 만나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그곳은 자연적 상태의 학식을 뜻한다. 스웨덴봄의 천국의 신비 제 1461항에서 이집트는 “지식 중에서 기억적 지식”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이집트에 곡식이 풍부할 수 있었던 것은 강우량 때문이 아니라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정기적인 범람으로 농지가 비옥했기 때문이다. 수확된 열매는 필요할 때를 대비해 창고에 꾸준히 저장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흉년이 들 때도 이집트로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브람뿐만 아니라 요셉과 그의 형제들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리고 주님 역시 어린 시절 헤롯왕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 간 경험이 있다. 이러한 성서의 이야기들을 깊이 묵상하면 이집트로의 여행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로의 여행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 안에 저장해 놓으신 것으로부터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함을 상징한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흉년이 들면,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말씀을 읽고 새로운 진리들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영적 힘을 주신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읽고 그 지식을 배우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브람이 새로운 풍요함을 얻기 위해 여행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가 우리가 얻은 풍요함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1461항)」: “아브람이 체류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내려갔다. (창세기12:10)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온 지식 속에 있는 교훈을 의미한다. 이집트와 체류란 단어로부터 그 의미의 근거를 알 수 있다. 이집트는 지식 중에서 기억적 지식을 뜻하고 체류란 가르침을 받는 상태에 속함을 쉽게 알게 된다. 겉 사람(external man)은 물질적이고 감각적이다. 하지만 겉 사람에게 지식이 배양되지 않으면 천국적인 것, 영적인 것,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지식(knowledges)은 무엇이든지 답을 수 있는 그릇과 같아서 천국적인 것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식은 반드시 말씀에서 얻은 지식이어야 한다. 말씀으로부터 지식을 얻게 되면 주님 자신이 그 지식을 열고 가르치신다. 그 이유는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하여 내려 왔기 때문이요, 외적 형태(external form)로는 주님이 잘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해도 말씀의 모든 부분에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성경의 첫 11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인가?
- 2) 성경에 언급된 첫 실제 인물은 누구인가?
- 3) 지상에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은 누구인가?
- 4) 아브람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 5) 아브람의 형제는 누구인가?
- 6) 아브람의 아내는 누구인가?
- 7)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 8) 주님은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 9) 그들이 첫 번째 멈춘 곳은 어디인가?
- 10) 누가 하란으로부터 떠나 계속 여행을 했는가? 롯은 누구인가?
- 11) 주님은 아브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12)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머문 곳은 어디인가?
- 13) 아브람이 두 번째 머문 곳은 어디인가?
- 14) 아브람은 머문 두 장소에서 무엇을 지었는가?
- 15) 그 후, 아브람은 어디로 갔으며 왜 그곳으로 갔는가?
- 16)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7) 아브람의 여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18) 에집트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9) 주님께서 본문 마지막 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아니다 2) 아벨 3) 아브람 4) 데라 5) 하란, 나홀 6) 사래 7) 갈대아의 우르 8) 가나안 9) 하란(나홀의 성) 10) 롯, 아브람의 조카 11)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12) 세겜 13) 베델 근처 14) 제단 15) 에집트, 흉년 때문에 16) 천국적인 삶 17) 상속된 이기적 경향을 떠나는 것 18) 말씀 속에서 필요한 진리를 얻는 것 19) 우리는 진리를 꾸준히 더 배워 나가야 할 것

5

이사악의 출생

머리말

첫 번째 합리성을 의미하는 이스마엘과 두 번째 합리성을 의미하는 이사악의 대조를 위해 먼저 이스마엘의 출생에 관한 재검토와 상속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자.

성 서 본 문: 창세기 21장 1-21절

21장 1. 야훼께서는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2. 사라는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3. 아브라함은 사라는 낳아 준 아들을 이사악이라 이름지어 불렀다. 4. 하느님의 분부를 따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사악이 태어난 지 팔 일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5. 아브라함이 아들 이사악을 얻은 것은 백 살이 되던 해였다. 6. 사라는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모두들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구나. 7.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리라고 말할 꿈이나 꾸었더냐? 그런데 그 노령에 아들을 얻으셨구나.” 8. 아기가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다. 이사악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9. 그런데 사라는 에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사악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10.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사악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11.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12.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애와 네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사라는 하는 말을 다 들어 주어라. 이사악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네 혈통을 이을 것이다. 13. 그러나 이 계집종의 아들도 네 자식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4.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식 얼마와 물 한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 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였다. 하갈은 길을 떠나 얼마쯤 가다가 브엘세바 빈들을 헤매게 되었다. 15. 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덩불 한 구석에 아들을 내려 놓고 16.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 뜨고 보랴”고 탄식하며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이스마엘을 바라 보았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소리내어 우는데도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았다. 17.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시켜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셨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저기서 네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18.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19. 하느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하갈은 큰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20.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다. 그는 자라서 사막에서 살며 활을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21. 그는 바란 사막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감을 에집트 땅에서 골라 맞아 들였다.

교리 요점

*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표준에 따라 판단하는 이성보다 더 높은 이성을 얻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아브라함, 이사악, 그리고 야곱은 우리들처럼 약함과 과실이 많았다. 주님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 그들의 삶을 말씀 안에 기록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 필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계하기 위함에서 였다. 주님께서서는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깊은 교훈들을 말씀의 매 단계마다 포함되도록 기록하셨다. 주님께서서는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선행과 좋은 감정 뿐 아니라 우리의 죄와 잘못까지도 선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하시며 천국적인 삶으로 인도되도록 노력하고 계신다.

본장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라가 자기의 여종인 이집트 출신 하녀를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사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브라함 때에는 진정한 결혼의 의미조차 망각되어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인 관습으로 되어 있었다. 사라와 아브라함 역시 일부다처가 그르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첩을 거느린 것을 벌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서는 오히려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장차 그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고 하갈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사라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줄 아들 이사야를 낳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머니 하갈과 함께 쫓겨났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는 족보는 우리들의 영혼이 유아기에서 성년기까지의 성장과정과 같다. 아브람은 어린 아이와 같이 아주 단순하고 순종적이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자라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부모에게 따지기 시작한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처음으로 논리성을 가지는 아이들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것이다. 아이들이 사물의 내부를 보거나 스스로에게 좋게 느껴지는 것이라 해도 다 선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인정하기에는 그들의 삶이 아직 부족하다. 아이들은 스스로의 생각이 언제나 옳고 부모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스마엘은 이러한 어린 아이들에 해당되며 마치 들나귀와 같았다. 그는 히브리어로 “야생(wild)”라고 창세기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들나귀(wild-ass)를 의미한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는 우리의 아주 어린 시절과 같은 성향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단계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거룩한 땅에 거주하지는 못하더라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사야의 출생은 겉치레적인 표현과 사리추구를 원리로 삼는 대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하느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 추론하는 능력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보다 높은 추론을 통해 영적으로 진보하게 된다.

제 1반

이스마엘이 이사악을 조롱하여 쫓겨난 것에 대해 알아보자.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100살이었고 사라는 90세였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거룩한 땅을 이어받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해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으나 주님께서는 그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고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다음의 질문 및 요점을 상기해 보자.

- * 이스마엘이 14살이 되었을 때 사라의 아들을 가졌다.
- *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이사악은 “웃음(laughter)”을 의미한다.
- * 이사악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나?
- * 사라의 이스마엘의 어떤 행동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를 쫓아내라고 요구했는가?
- *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디로 쫓겨 났는가?
- * 주님은 이스마엘을 위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제 2반

헤브론과 브엘세바를 지도에서 찾아보자. 하갈이 사라에게 처음 추방 당한 것에 대해 상기해 보자. 어떤 면에서는 이사악을 조롱하여 쫓겨나는 이스마엘과 임신한 것을 이유로 사라에게 거만 했던 하갈은 같은 마음상태였는지 모른다. 이스마엘의 인격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이사악과 이스마엘의 상응상의 차이도 쉽게 파악할 것이다. 이사악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였으나 주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잘 되도록 하셨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거룩한 땅을 물려받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며 그의 아내 사라의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사라의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주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일부다치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옳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이 아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더욱 상세히 공부해 보자.

- * 아브라함과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사라는 왜 하갈을 내쫓으려고 했는가?
- * 주님은 어떻게 하갈을 구원하셨는가?
- * 사라는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이사악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은 몇 살이었나?
- * 이스마엘의 어떤 행동이 사를 화나게 했는가?
- * 주님은 하갈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가?
- * 우리는 스스로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조롱한 경험이 있는가?
- *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했는가?
- *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 *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 * 이스마엘은 자라서 무엇이 되었는가?
- * 이스마엘의 아내는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 *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하갈은 주님께 순종하고 자기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얻어 매우 흡족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며 사라는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때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다.

임신했음을 알게 된 하갈의 거만한 행동과 이사악을 조롱했던 이스마엘의 어리석은 행동을 상기해 보자. 그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사물의 겉만 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급함이나 어리석음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여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젊은 시절에 더 많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라는 하갈의 거만함과 이스마엘의 어리석음에 대해 화를 냈다. 부모가 자녀들이 더 이상 타일리지 않으면 매를 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영적 불순종이 도를 넘으면 우리에게 더 힘든 시험을 허락하신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순종적이고 바를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과 양식을 주어 그들을 멀리 떠나보냈고 그들은 또다시 광야로 쫓겨났다. 그 후 하갈은 자기 스스로 샘을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죽게 된다고 생각하며 통곡했다. 성경에 "하느님(God)께서 그 아이(lad)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하갈이 눈을 감고 광야를 배회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눈(eyes)"은 일반적인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여기서 눈은 마음의 「눈」을 뜻한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의도적으로 마음의 눈을 감기도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로 옳은 것을 행하는 대신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행하고자 할 때 마음의 눈을 닫아 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만을 위했던 행동으로 인해 큰 시험에 부딪치게 되면 도움을 청하는 애원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 진다. 이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통곡하는 순간이다. 주님께서 하갈에게 샘을 보여 주신 것같이 그분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신다.

제 3반

우리가 우리의 동기들을 양심에 비추며 사고 할 때 우리의 추론력은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 그 이유는 양심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더 높은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 가축, 금 그리고 은을 많이 가진 큰 부자였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식이란 자연계, 성경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남쪽에 정착했는데 이곳은 초기에 유대 교회의 중심지였다. 아브라함과 헤브론은 유아기의 어린이가 가진 순진함과 순종을 상징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물려받고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사라와 아브라함은 2세를 갖지 못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내로 주어 아들을 갖게 한 것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나쁜 것이 아니었다. 세 번째 교회까지 내려 올 때는 인류에게 주어진 진리들이 모두 잊혀진 상태여서 진정한 결혼에 관한 의미 역시 잊혀져 있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주님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도록 하셨다. 이 아들이 이사악이다. 이사악이란 이름은 「웃음」을 뜻한다. 창세기 21장 6절을 찾아보면 이사악의 이름에 대해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사악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악이 태어 날 당시 이스마엘은 14살이었다. 이스마엘 또래의 소년들은 대체로 아기에 별반 흥미가 없다. 이 또래의 소년들에게 아기는 아주 약하고 어린 존재에 불과해서 어른들이 왜 아기에 대하여 백일잔치나 돌잔치 등을 하며 기뻐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스마엘 역시 이와 같은 소년이었다. 이스마엘은 이런 소년기에 사용되는 추론의 일부를 보여준다. 이들은 육체적 강함 즉 신체적 능력의 우월성을 중요시해서 나약해 보이는 것들은 무시해 버린다.

하같이 사라를 멀리하여 쫓겨났던 것같이 이스마엘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고 그를 쫓아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따르도록 하셨다. 사라는 천국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아들 이사악은 이스마엘로 표현되는 추론 능력보다 한 단계 높은 추론 능력을 의미한다. 더 높은 추론 능력이란 자연적인 것에 토대를 두지 않고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들 속에 있는 “이스마엘”은 스스로에게 확실하게 이익을 주는 것을 위해 행동하라고 하지만, 우리들 속의 “이사악”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 이스마엘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기고 이사악은 선한 인간이 됨을 성공으로 여긴다. 또한 이스마엘은 죽음을 최대의 비극으로 보고 이사악은 죽음을 진정한 삶의 시작으로 본다.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이사악과 같은 더 높은 추론 능력이 생겨나기 원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추론 능력인 이스마엘을 우리 안에서 그에 합당한 위치에 있도록 해야 한다. 이스마엘은 우리의 삶에 상당히 유용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스마엘이 살아서 번성하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이스마엘로 상징되는 낮은 추론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가나안은 천국적인 인격을 그리며 이집트는 기억 속에 있는 지식에 불과하다. 광야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자연적인 수준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할 때의 마음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광야 생활은 이리저리 배회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것은 곧 거처해야 할 영적인 집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활은 논쟁을 상징한다. 자연적 수준의 추론은 논쟁을 아주 좋아 한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했던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했던 논쟁들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본장의 이야기는 성경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참뜻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다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기본 상용 공부

헤브론 = 선에 관한 교회

광야 = 정착할 수 있는 집이 없는 영적 상태

아브라함 = 단순하며 순진한 상태 (유아적 상태)

이스마엘 = 추론하는 능력의 자연적 상태

이사악 = 추론하는 능력의 보다 높은 상태 (영적 상태)

활 = 논쟁에 쓰여지는 거짓들이나 진리들

제 4반

성경의 첫 부분은 인류 또는 개개인 속의 하늘과 땅을 발달시켜 가는 과정을 그린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대한 인식과 그 둘이 서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키신 것이 바로 사라가 이사악을 낳은 것이다. 이사악이 태어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100살이었고 사라는 90살이었다. 성경에서 아들의 출생은 진리의 새로운 발달 또는 새로운 지적능력을 의미한다. 이사악보다 14살 위인 아브라함의 첫아들 이스마엘은 이집트에서 온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났다. 그는 우리가 영적인 것들 없이 눈에 보이는 외관에 따라 주위의 세계를 판단하고 관찰하는 우리의 첫 추론능력을 상징한다. 추론 능력이 발달할 시기에는 스스로가 옳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갖기도 한다. 우리는 때로 논쟁을 즐기며 연장자들 또는 현명한 사람들의 충고와 사상에 냉소할 때가 있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들은 타인들로 하여금 우리를 멀리하게 한다. 이것은 사라가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기를 원한 것과 같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옳은 것을 진정으로 원하게 되면, 우리는 삶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보게 되며 단순한 세상적 관심에서 벗어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사악은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사라를 통해 출생된다. 그는 진정한 추론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제치고 그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는 재미있는 것, 육체적인 강함, 능력, 보기에 선한 것, 또는 착한 척하는 것 등이 바람직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가끔 운동선수, 댄서, 좋은 옷을 입는 사람들, 혹은 부자들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이러한 외면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동경심은 우리가 삶의 내면적 깊이를 추구하기 시작한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외면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더 훌륭해 보이고 실제로 선한 일을 하는 데에도 더욱 유용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이 어떠한 일을 하거나 원할 때에 그녀의 아름다움이 일을 더 쉽게 이루게 보이는 것처럼, 아름다운 미모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미모로서 우리의 인생을 보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그것은 결국 불행을 초래 할뿐이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스마엘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영적인 성장 즉 실질적인 성장을 못하는 이들도 많다. 그들은 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배에 참석도 잘한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그들 스스로와 그들의 교회를 위해 좋은 것을 행하는데 있다. 그들의 선행은 외적인 것(선) 즉 세상적인 견해에서의 선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제안한 선(선행)이 본질적인 선함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도 한다.

이스마엘은 이사악을 경멸하여 조롱했다. 이것은 하같이 사라를 경멸했던 것과 같다. 자연 과학에 바탕을 둔 우리의 낮은 추론능력은 영적인 것을 인정할 수 없기에

그것을 "조롱하고 경멸"한다. 그래서 만약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달하기 시작하면 자연적인 논리성은 목이 타서 죽는 것과 같이 된다. 처음에는 양쪽 모두 죽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스웨덴북은 우리의 낮은 추론능력을 자연적 합리성이라고 했으며 이것이 제 위치에 있을 때에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한다. 우리가 자연적 합리성이 우리의 영적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올바른 인도자인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자연적 합리성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고 배우게 해주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이것은 본문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젠 죽게 되었구나"하며 슬프게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주셔서 물이 있는 샘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 이해된다. 이때로부터 이스마엘은 주님의 보호를 받고 번성하였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 이집트인 아내를 구해 준 것도 속뜻으로 이해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자연적 지식에 사로잡힌 마음을 뜻하는 이스마엘의 이집트 출신 아내는 자연적 합리성과 상응되는 이스마엘의 진정한 배필이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계속 살았다. 이것은 자연적 추론이 여러 가지 다른 자연적 분야에 관심을 두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함을 뜻한다.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archer)가 되었는데 활은 논쟁을 의미한다. 자연적 추론은 외적 현상에 관한 논쟁을 즐긴다.

우리는 이스마엘족이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자연적 추론도 그에 합당한 자리를 지키게 되면 강건하여 쓸모가 있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 스스로는 물론 타인을 보호하고 우리의 세상적인 위치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하여 영적인 문제들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진정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주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에 기초 한다. 이러한 삶은 은거하는 삶도 아니며 몽상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박수보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더욱 생각하며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유용하고 실용적인 삶을 즐기게 된다.

제 5반

자연적 합리성과 영적 합리성을 구별하고 그것의 본성을 파악해 보자. 이스마엘은 세상 속에서 나는 추론이며 이사악은 교회 속에서 나는 추론으로 이해된다.

스웨덴북은 우리가 알고 있거나 믿는 것들을 나쁘게 되도록 유도해 나가면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옳은 일을 한다고 믿고 열심히 했는데 나쁜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결론만 놓고 보기에는 우리가 나쁜 일을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동기가 선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치는 것은 보호하여 막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삶이 보호되도록 늘 애쓰고 계신다. 주님은 인간이 더 이상 어떤 악들에 저항할 수 없음을 예견하실 때 “이러이러한 것은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는 지식들을 없애 버리신다. 결국 그들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옥이라는 더 낮은 수준에서 살도록 허락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면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다. 히브리 나라의 사람들의 내면이 닫혀 오로지 세상에 관련된 것들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지경에 이른 후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모든 영적 지식을 상실하고 태고교회나 고대교회에서 나쁜 것이라고 했던 많은 것들을 옳은 것처럼 보게 되었다. 이에 대한 예가 일부다처제이며 성경에는 복합적 결혼에 관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성경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도록 하셨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사라의 제안으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내로 취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이 나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식이 없어 대를 잇는 문제가 그들에게 큰 관심사였고 또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아 큰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까지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집트 출신 여종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14년 후에 기적을 베푸셔서 사라가 90세의 고령에 불구하고도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사악이 젖을 땀 후 이스마엘은 그를 놀려 댔는데 이에 대해서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더 빨리 문제의 핵심을 이해한다. 아브라함의 첫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집에 머무르도록 허락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라의 말을 따르게 하여 이스마엘과 하갈이 집에서 떠나도록 하셨다.

넓은 측면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사악, 그리고 야곱은 우리들 삶의 세 평면(단계) 혹은 세 층(겹)을 상징한다. 이 세 층은 천적(the celestial), 영적(the spiritual), 그리고 자연적(the natural)평면을 뜻한다. 어린 아이였을 때의 우리는 천적인 상태에 관한 지식이나 이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적인 상태에서 살았다. 그때의 우리는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어 스스로의 생각과 통제 없이 전적으로 주님의 돌보심에 의존해 있었다. (마태복음 18:10 참조) 우리의 이 시기는 아브라함으로 묘사되며, 이후 우리의 추론능력이 발달된 시기는 이스마엘과 이사악으로 묘사된다. 그 후 우리의 사상이 일상생활이나 직업분야를 통제하는 시기가 오며 그 사상들은 실용화되어 현실 안에 있게 된다. 이 시기는 모든 시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때인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로 묘사된다. 우리는 거듭남을 위해 이러한 발달의 단계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

충분히 성장하여 가장이 되었을 때의 이사악은 우리의 이성이 올바르게 발달했을 때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행동할 때에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된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지식은 표면적이며 그들의 새로운 능력을 타인에게 자랑하기만을 원하고 타인이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론능력의 형태가 이스마엘로 묘사된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능력들(자연적 추론능력과 영적인 추론능력)이 모두 주님께에서 오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에 단계별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집트 출신의 노예였다. 여인들은 애착 (affections)들을 의미하고 이집트는 표면적 또는 기억적인 지식(memory-knowledge)을 의미함을 상기 해보면 하같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상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모든 분야의 것을 열심히 배우며 정보들을 구별 없이 기억한다. 이러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열정 때문이다. 우리의 첫 추론능력인 자연적 합리성은 이러한 지식을 추구하는 열정으로부터 이뤄지며 많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하같은 단순히 노예였을 뿐이다. 이것은 무분별한 어린 아이의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이 자연적인 것으로 우리의 성숙한 사고나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은 되지 못하며 노예처럼 늘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제구실을 함을 의미한다. 만약 이

자연적인 애착이 제 분수를 모르고 날뛰게 되면 그것은 쉽게 영적인 애착들을 경멸해 버린다. 이것이 본문에서 하갈이 사라를 경멸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결국 자연적인 애착과 그로부터 비롯된 자연적 합리성을 상징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영적인 합리성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이삭)의 성장과 발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쫓겨나야만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하갈과 그녀의 어린애를 두 번씩이나 보호하셨다. 배움을 사랑하고 그 배움에서 나온 추론이 제 분수를 지키게 되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스마엘은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다. 이것은 자연적 지식을 사모하며 시작된 것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아내가 필요함을 뜻한다.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루었으나 아라비아 사막인 바란 광야에서 거주했다. 광야는 건조하며 바람과 밤낮의 일교차도 심했다. 우리의 자연적 합리성은 끊임없이 발달되어 우리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유용함에 있어서의 위치란 외적 삶의 변화무쌍한 환경가운데 있을 뿐 우리의 내적 사고나 느낌에 해당되는 가나안 땅은 아니다. 우리의 영적 발달은 영적 진리를 사모하는 이사악으로 상응되며 이는 보다 높은 합리성 즉 영적 합리성을 통해 이뤄진다.

이스마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자연적 합리성을 주시고 그것이 발전하여 우리의 외적 삶에 기여하기를 원하신다. 정확한 분별력, 예측능력, 집행능력 또는 설득력 등은 모두 이스마엘에 속한다.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사악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네 혈통을 이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 갖게 된 자식이 이사악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 합리성은 오랜 기간을 거쳐 발달된다. 그리고 이 영적 합리성에서 시작되는 생각이나 애착들은 이사악에게서 난 자식을 의미한다. 우리는 영적 합리성을 통해서만 주님과 연결될 수 있으며 천국적인 삶인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다.

우리는 이사악과 이스마엘의 차이점을 우리의 경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스마엘은 우리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잠깐 있게 되고 마는 것이니 가능한 한 빨리 돈도 벌고 명성도 얻고 쾌락도 즐겨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사악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은 잠깐 뿐이다. 허나 우리의 영원한 삶은 여기에서 발달한 인격이 살게 되는 것이다. 나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은 돈이나 명성, 쾌락 등등이 아니다”고 말한다.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였고, 스스로가 제일임을 내세우기 위해 날카로운 논쟁을

사용한다. 반면 이사악은 조용하게 가나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뜻을 배우려 하고 그분의 뜻을 일상생활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삭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라반의 딸 리브가이다. 그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주님께 의해 금해졌다. 이것은 영적 합리성은 가능하다면 모든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그의 고결함을 유지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2654항)」:

[4] “인간적 합리성은 감각적 능력을 통해 알게 되는 세상적인 것들의 유사성으로부터 태어나고, 과학적 그리고 인식적 지식에 의해 성장된다. 이러한 인간적 합리성에게 만일 “너는 삶이 너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진실은 아니야”고 말하면, 인간적 합리성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 말을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또한 인간적인 합리성은 삶이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을수록 그 사람은 더욱 현명하고 총명하게 되고, 더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야말로 천사들의 삶이며 특별히 주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삼층천(천적:celestial)의 천사들의 삶인 것이다. 그 이유가 삼 층 천국의 천사들은 생명은 여호와 주님 한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누구도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생명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5] 또한 이러한 인간적 합리성은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이들은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들이라 여기는 이들이요, 가장 지혜로운 이들은 스스로를 가장 미련하게 여기는 이들이요, 가장 행복한 이들은 다른 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나의 행복을 가장 나중으로 여기는 이들이라는 진리 또한 비웃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합리성은 천국은 다른 이들 모두를 높이며 자신은 늘 낮추는 겸손한 상태에 임하며, 지옥은 모두 위에 서려는 오만과 독선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부인 할 것이며, 그 결과 천국에 있는 영광스러운 지상의 신성화 로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 또한 받아들이지 못한다.”

질문 정리

- 1) 지상의 두 번째 교회의 종말을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는 무엇인가?
- 2) 그 속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
- 3)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어느 가정을 택하셨는가?
- 4) 그들은 어디서 살았는가?
- 5)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6)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던 중 멈춘 곳은 어디인가?
- 7) 누가 가나안으로 계속 갔는가?
- 8) 아브람이 제단을 쌓은 가나안의 두 장소는 어디인가?
- 9) 왜 그는 이집트로 갔는가?
- 10) 그는 이집트에서 돌아 온 후 어디에 정착했는가?
- 11)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 12)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 13) 사라는 아브라함의 대를 어떻게 잇게 했는가?
- 14) 하갈의 아들 이름은 무엇인가?
- 15) 주님께서 이스마엘에 관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 16)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는가?
- 17) 사라의 아들 이름은 무엇인가?
- 18) 이스마엘의 어떤 행동이 사라를 불쾌하게 했는가?
- 19)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는가?
- 20)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 21)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디로 갔는가?
- 22) 천사들은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가?
- 23) 이스마엘은 무엇이 되었는가?
- 24) 이스마엘은 어느 나라에서 자기의 아내를 구했는가?
- 25) 이집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6) 이사악과 이스마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 1) 바벨탑 2) 흘트려짐 3) 아브람(에벨, 데라) 4) 갈대아의 우르
- 5) 가나안으로 가라 6) 하란 7) 아브람, 사래, 롯 8) 세겜, 베델 9) 기근
- 10)헤브론 11) “바다의 모래같이 불어나리라” 12) 아들 13) 하갈을 그의 아내로
쥬 14) 이스마엘 15)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16) 백 세 17) 이사악 18)
이사악을 조롱했다 19)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 20) 사라의 말을 따라라 21) 사막(광야) 22)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 23) 활 쏘는 자 24) 이집트 25) 기억적인 지식
- 26) 이스마엘 - 자연적 또는 첫 번째 합리성, 이사악 - 영적 또는 두 번째 합리성

6

야곱과 에사오

머리말

본장에서는 쌍둥이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고 아브라함이 이사악의 아내를 하란에서 취해오는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5장 19-34절, 27장

25장: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악의 역사는 아래와 같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 이사악이 태어났는데, 20. 이사악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을 때 그의 나이는 사십 세였다. 리브가는 바탄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브두엘의 딸로서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21.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이사악은 야훼께 아기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야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시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22.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우므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하면서 야훼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23.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 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24. 달이 차서 몸을 풀고 보니 쌍둥이였다. 25. 선동이는 살결이 붉은데다가 온 몸이 털투성이였다. 그래서 이름을 에사오라 하였다. 26. 후동이는 에사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것은 이사악이 육십 세 되던 해였다. 27. 두 아들이 자라나, 에사오는 날쌔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질이 차분하여 천막에 머물러 살았다. 28. 이사악은 에사오가 사냥해 오는 고기에 맛을 들여 에사오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29. 하루는 에사오가 허기져 들에서 돌아 와 보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30. 에사오가 야곱에게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 좀 먹자”하였다.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도 부르는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31. 야곱이 형에게 당장 상속권을 팔라고 제안하자 32. 에사오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였다. 33. 그러나 야곱은, 먼저 맹세부터 하라고 다그쳐 요구하였다. 에사오는 맹세하고 장자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 34. 그리고 에사오는 야곱에게서 떡과 불콩죽을 받아 먹은 후에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오는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27장: 1. 이사악은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 어느 날 그는 큰아들 에사오를 불렀다. “얘야!”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2. “너도 보다시피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3. 그러니 너는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에 나가 사냥을 해다가 4.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 주리라.” 5. 리브가는 이사악이 아들 에사오에게 하는 이 말을 엿듣고는 에사오가 사냥하러 들에 나간 틈을 타서 6. 아들 야곱에게 귀뜸해 주었다. “아버지가 네 형 에사오에게 7. 사냥해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시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잡수시고 에사오에게 복을 빌어 주겠다고 하시더구나. 8. 그러니 야곱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9. 양떼들한테 가서 살진 염소 새끼 두 마리만 끌어 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 구미에 맞게 잘 요리해 줄 터이니 10.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잡수시고 세상을 뜨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 주실 것이다.” 11.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형 에사오는 털이 많고 저는 이렇게 털이 없습니다. 12. 아버님이 저를 만져 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버님을 놀리거나 한 것처럼 되어 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것 아닙니까?” 13.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야곱아, 내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며.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어서 가서 염소 새끼나 끌어 오너라.” 어머니의 말대로 14. 야곱은 염소 새끼 둘을 어머니에게 끌고 왔다. 어머니는 남편 구미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15. 리브가는 집에 보관해 두었던 큰아들 에사오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 염소 새끼 가죽을 매끈한 손과 목에 감아 준 다음, 17. 장만해 놓은 별미와 구운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18. 야곱은 아버지한테 들어 가 “아버지!”하고 불렀다. 아버지 이사악이 “오냐, 네가 누구냐?”하고 묻자 19. 야곱이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님의 맏아들 예사오입니다. 아버님 분부대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사악이 아들에게 물었다. “예사오야! 무슨 수로 이렇게 빨리 잡아 왔느냐?” “아버님의 하느님 야훼께서 짐승을 금방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사악은 “네가 정말 내 아들 예사오인지 만져 보아야 겠다”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22. 가까이 온 야곱을 만져 보고 이사악은 중얼거렸다. “말소리는 야곱의 소린데 손은 예사오의 손이라!” 23. 그는 야곱의 손에 형 예사오의 손처럼 털이 많았으므로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기로 하였다. 24. 이사악은 “네가 틀림없는 내 아들 예사오냐?”하고 다짐하였다.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하자 26. 이사악은 “예사오야! 사냥한 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 주리라”하였다. 야곱이 가져다 바치는 요리와 술을 먹고 마신 뒤 26. 아버지 이사악은 야곱에게 “예사오야, 이리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하였다. 27.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사악은 야곱이 입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 복을 빌어 주었다. “아! 내 아들에게서 풍기는 냄새, 야훼께 복 받은 들 향기로우나.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이슬로 땅이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술이 넘쳐 나거라. 못 백성은 너를 섬기고 못 족속들은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는 네 겨레의 영도자가 되어 네 동기들이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 주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30. 야곱이 아버지 이사악이 빌어 주는 복을 받고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형 예사오가 사냥에서 돌아 왔다. 31. 그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고 들어 가 권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해 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32. 아버지 이사악이 “대체 너는 누구냐?”고 물었다. “저는 아버님 맏아들 예사오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33. 이사악은 그만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누군가가 벌써 사냥해다가 만든 요리를 나에게 가져왔었다. 네가 오기 전에 나는 그 요리를 받아 배부르게 먹고 그에게 이미 복을 빌어 주었다. 그 복은 어쩔 수 없이 그의 것이다.” 34. 예사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35. “네 동생이 와서 속임수로 너에게 돌아 갈 복을 가로챘구나.” 36. 이 말을 듣고 예사오는, “나를 두 번씩이나 뒷발질하라고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이 었던가? 저번에는 내 상속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내가 받을 복마저 가로채는구나!” 하며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은 하나도 남겨 두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37. 이사악이 예사오에게 대답하였다. “도리에는 어긋나지마는 나는 야곱을 너의 상전으로 삼고, 모든 동기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에게는 곡식과 술도 떨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예사오야,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해 줄 수 있겠느냐?” 38. 그러나 예사오는 거듭 애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어 주실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입을 다문 채 말이 없는 이사악 앞에서 예사오는 목 놓아 울었다. 39. 아버지 이사악이 아들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은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칼만이 너의 밭줄이 되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 너 스스로 힘을 길러 그가 썩워 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 버려야 하리라.” 41. 예사오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 준 일로 야곱을 미워하였다. 예사오는 속으로 “아버지 상을 입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 때 동생 야곱을 없애 버리리라”고 마음먹었다. 42. 리브가는 큰아들 예사오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놓고 일렀다. “큰일 났다. 형 예사오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속이 풀리지 않을 모양이다. 43. 그러니 야곱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곧 하란으로 몸을 피해 라반 아저씨를 찾아 가거라. 44. 네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잠시 외삼촌 댁에 가 있거라. 45. 네 형의 노여움이 풀려 네가 한 일을 잊을 만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 오마. 한꺼번에 너희 두 형제를 잃고서야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46. 리브가가 이사악에게 호소하였다. “헛 여자들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저 따위 헛 여자를 아내로 맞는다면 무슨 살 맛이 있겠습니까?”

교리 요점

*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까지 선용하시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신다.

*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방해야 할 본보기들은 아니다. 오직 주님의 삶만이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이사악의 아내 리브가는 하란 출신이다. 하란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행 도중 나홀이 멈춰 정착한 곳이다. 리브가는 나홀의 손녀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정착한 곳에 있는 원주민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가문은 혈통이 순수하게 지켜질 수 있었다.

이사악과 리브가는 결혼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그 후 쌍둥이 형제 에사오와 야곱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쌍둥이었음에도 아주 달랐다. 에사오는 그의 다른 이름「에돔(Edom)」이 뜻하는 「붉음(red)」과 같이 살결이 붉고 온몸이 털인 반면 야곱은 매끈한 살결을 가지고 태어났다. 에사오는 사냥꾼이 되어 들판에서 살았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하여 양떼와 가축을 돌보면서 집에 머물렀다. 아버지, 이사악은 에사오를 더 사랑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본장에서 다루는 두 이야기는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하겠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야곱은 그의 형과 약속빠르게 흥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에사오는 인간적 결함이 야곱보다 더해서 자기의 일시적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장자의 권리를 쉽게 포기해 버린다. 에사오는 장자로서 상속권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의 꾀임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겨 화가 난 에사오는 아우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우리에게 에사오와 야곱 사이의 잘잘못을 따져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성경에서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한다. 가인과 아벨, 요셉의 두 아들, 유브라임과 므나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등의 이야기들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형제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많은 결실을 맺게 되며 이러한 결실들 안에는 두 가지의 특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도(intention)와 생각(thought)이다. 다른

말로 의지(will)와 이해성(understanding)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어린 시절의 순진한 마음을 표현하며 이사악은 우리 추론능력의 상향적 발달을 표현함에 대해 공부했다. 에사오와 야곱은 젊은이들이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는 시기 즉 직장을 구하거나 대학에 가는 것 등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는 첫 시기에 해당된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의지와 이해성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목적을 위해 강한 바람(소망) 또는 욕구(의도)가 있더라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로 현명해질 수 있는 것을 배워 옳은 방향으로 제대로 나아갈 때까지 충동적 추진력을 조절해야 함을 보여 준다.

제 1반

본장에서는 장자 상속권의 의미와 장자 상속권을 파는 이야기에 대해 다룬다. 에사오와 야곱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브라함, 이사악,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도 기억해 두자. 에사오와 야곱 모두 나뻐움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살펴 보자.

아브라함이 고향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을 때 그의 형제 나홀은 함께 여행을 시작했으나 하란에 정착했음을 공부했다. 이사악이 성장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사악이 가나안족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가장 충성된 늙은 심복을 하란으로 보내 자기의 가문 내에서 이사악의 아내를 찾도록 하였다. 이 심복은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데려왔고 이사악은 리브가와 결혼함을 기뻐했다. 이사악과 리브가는 20년의 결혼생활 동안 자식을 갖지 못했지만, 그후 쌍둥이 형제인 에사오와 야곱을 얻게 된다.

다음의 질문들을 떠올리며 더욱 상세히 공부하도록 하자.

- * 에사오와 야곱 중 누가 먼저 태어났는가?
- * 그 쌍둥이는 각각 어떻게 생겼는가?
- * 에사오는 야곱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는가?

- * 에사오와 야곱은 어떤 흥정을 했는가?
- * 이사악은 아들 중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
- * 리브가는 아들 중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
- * 이사악이 아주 늙었을 때 에사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에사오는 일시적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장자 상속권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였다. 야곱은 에사오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그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그 후에도 더 나쁜 행동을 했다. 에사오가 사슴고기를 갖고 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아주 당황하였다. 그 이유는 이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서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사악은 에사오에게 다른 축복을 내렸는데, 이것 또한 좋은 축복임은 창세기 27장 39-40절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에사오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언젠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한다. 이를 알아챈 리브가는 이사악을 설득해 야곱을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으로 떠나게 했는데 이것은 아주 길고 먼 여행이었다.

제 2반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던 여행경로를 성서 지도에서 찾아보자. 나홀이 정착한 지역을 상기해 보면 리브가가 나홀의 손녀였음을 기억하게 된다. 본장을 통해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할 경우 그것으로 인해 언젠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며 고통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을 통해 본장을 공부해 보자.

- * 이사악은 누구와 결혼했는가?
- * 이사악의 아내는 어디 출신인가?
- * 이사악과 리브가의 쌍둥이 형제 이름은 무엇인가?
- * 그들 중 누가 큰 아들인가?
- * 그들은 서로 어떻게 달랐는가?
- * 이사악은 아들 중 누구를 좋아했는가?
- * 리브가는 아들 중 누구를 더 예뻐했는가?
- * 이사악은 에사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 * 리브가는 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를 원했는가?
- * 리브가는 어떻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도록 했는가?
- * 하란은 어디에 있는가?
- *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에사오는 “털이 많음”을 뜻하며, 에사오의 다른 이름인 에돔(Edom)은 붉음을 의미한다. 그는 성경에서 몇 차례 이스라엘의 적으로 등장하는 에돔족의 조상이기도 하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을 보면 에사오와 야곱이 어떤 나쁜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영어 성경(King James Version)에는 우리에게 친숙치 않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중 진한 스프(pottage)란 냄비에 요리된 어떤 것 즉 죽(soup) 또는 몽글하게 끓인 음식(stew)을 뜻한다. 또한 소-드(sod)는 씨뜨(seethe)의 옛 과거 시제이며 “끓은(boiled)”을 뜻한다. 「장자 상속권」은 가정의 아버지가 죽게 되면 가족 중 만아들이 물려받게 되는 권리로서, 만아들이 그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뜻한다. 렌틸(lentils)은 콩 또는 팥류에 속한 붉은 것의 하나이다.

야곱은 형의 배고픔과 성격적 약점을 이용해 큰 이익을 취하는 나쁜 행동을 했고 에사오는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의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우리가 순간적인 궁핍함을 위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는 “팔죽 한 그릇을 위해 나의 특권(birth right)을 팔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특권이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31-34절까지 읽어 보자. 우리는 주님께 관해 배우고 순종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inheritors)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그분의 뜻에 비추어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나쁜 지를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와 달리 동물은 오로지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적 욕구로 스스로를 통치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동물의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의 특권을 파는 것”이다.

이사악이 아주 늙어 앓을 못보게 되자 그는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았다. 그래서 이사악은 장자에게 주는 특별한 축복을 에사오에게 주려고 했다. 이것은 고대인들의 특별한 관습이었고 그에 관련된 몇 가지 예들이 성경에 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사악에게 가까이 갔을 때 이사악은 매우 의아해 하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사오의 손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이사악은 야곱에게 축복을 내렸으며, 야곱이 물러가고 에사오가 사냥한 사슴고기 요리를 가지고 왔을 때 비로소 야곱이 그를 속인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사악은 정말로 축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 뿐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내린 축복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곱은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쓴 속임에 대해 어떤 벌도 받지 않았지만, 그는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쳐야 했고 오랜 세월동안 고향에서 떠나 있어야 했다. 먼 훗날 야곱은 결국 그의 형에게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다.

주님께서서는 각각의 연령과 비슷한 상태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교훈을 주시며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도 선용되도록 하신다. 우리는 본장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설령 누군가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더라도 그가 행한 모든 것을 옳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악삭빠르게 행동했던 것과 그러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에사오의 화급함을 볼 때, 주님의 축복하심이 꼭 그 사람의 인격에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야곱을 구하려는 리브가의 계획 역시 선용하셨다. 야곱은 화가 난 에사오에게서 구해지기는 하지만 아주 멀리 떠나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여 행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 시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명하고 올바른 삶을 선택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더 어렵고 긴 여정을 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제 3반

아브라함, 이사악,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이해를 위해 야곱과 에사오에 대한 일반적 상응 (correspondence)을 공부하자. 본장을 시작하기 전 이스라엘의 세 족장(patriach)들과 그들의 일반적 의미에 대해 명확히 알도록 하자. 야곱이 에사오보다 위 자리를 차지한 이유는 이사악에 대한 상응과 연결된다. 새교회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본보기(example)들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본장은 이를 더욱 확실히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단순한 순종심을 가진 어린 시절과 같은 상태가 사라져 버림을 뜻한다. 이사악은 합리성을 기본으로 하는 상태에 놓여 짐을 상징하며, 그는 유아기가 지나 마음이 성장해 스스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시기를 묘사한다. 이사악의 단계에서 우리는 삶을 보다 독립적으로 살게 되어 그러한 방향으로 발달 진보하게 되지만 유아기의 특징인 순수함과 무조건적 신뢰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우리 삶은 욕구(desire)와 지식(knowledge) 즉 에사오와 야곱으로 명백하게 구별된다. 주님께서는 우리 내에 있는 이 두 가지 부류를 인도하셔서 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태생이 이기적이며 지혜가 결핍되어 있다. 에사오와 야곱은 모두 결점이 있었고 서로 많이 닮았는데, 이것은 우리 안의 욕구와 지식이 서로 다투는 것과 같다.

이사악의 장자인 에사오는 애착 또는 욕구(desire)적 측면을 그리며 야곱은 진리 또는 생각하는 측면을 그린다. 이 둘은 행동 속에서 하나 되어 세상에 나타난다. 에사오가 장자였듯이 우리 안에서도 욕구(desire)가 먼저 일어난다. 욕구가 없으면 생각도 일지 않으며 행동 또한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려면, 우리는 그것을 현실화 시킬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한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이 에사오에 우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곱은 “책략가(supplanter)”를 뜻하는데, 그는 이름의 의미처럼 책략으로 형의 자리를 차지했다.

성경에서 야곱의 특성은 간혹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하고 번성케 하신 인물이라면 모두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보기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처럼 좋고 나쁜 두 가지 특성(qualities)들을 가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로부터 삶의 교훈을 얻는다. 이 교훈은 문자적 의미로도 충분히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큰 실수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자애로움으로 대하심을 보여준다. 야곱은 그의 형으로부터 야비하게 이득을 취했고, 에사오는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의

아버지의 뒤를 잇는 특권을 배고픔 때문에 포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는 그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고 확신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꾸준히 이런 종류의 일들을 되풀이 하게 되며 당장 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우리의 특권(birth right)이란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동물의 수준에서 벗어나 사람이 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그분의 나라를 상속 받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세상적 만족을 얻기 위해 우리의 기독교적 이상을 버리게 되면, 그것은 마치 팔죽한 그릇에 우리의 특권을 파는 것과 같다. 만약 예사오가 시험을 만들지 않았다면 야곱은 형을 속일 수 없었을 것이다. 예사오가 배고픔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느껴졌듯이, 우리 역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곧 죽을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이 예사오인 것처럼 행동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동기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설령 그 동기들이 옳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행복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그 이유는 비록 동기가 이기적이더라도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전혀 행하지 않는 것 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습관을 형성해 가면서 차차 선행을 사랑하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예사오는 장단점이 혼합된 인격이다. 그는 축복 받기를 간절히 원해 그의 아버지에게 가까이 순종하며 사냥하는 등의 고생을 했었다. 그러나 그는 동생이 자기를 속여서 실망시키자 그를 죽이려고 했다. 우리는 간혹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예사오와 야곱 또한 그들의 젊은 시절에는 다른 모든 인간들처럼 이기적일 뿐이었다.

야곱과 예사오가 재회할 때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으며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힘든 노력과 훈련을 거쳤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바램이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기본 상응 공부

예사오 = 자연적 삶의 수준에서의 선

야곱 = 자연적 삶의 수준에서의 진리

제 4반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으로 이어지는 직계 외에 방계에 속한 롯으로부터의 모압족과 아모리족, 이스마엘로부터의 이스마엘족, 그리고 에사오로부터의 에돔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들 부족들은 우리가 성장과 발달을 하면서 매 단계에서 갖는 생각과 느낌들을 의미하며 이것들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주님의 영향을 상기하며 방계적 족속들이 상징하는 것들 또한 주님의 법칙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창세기 25장의 문자적인 이야기를 통해 얻는 명확한 교훈은 “팔족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파는” 표현에 함축된다. 그 이유는 에사오가 어리석은 매매행위를 했음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냉정히 돌이켜보면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더 중요한 내면적 선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에사오와 야곱의 출생은 유아기에서 성인기까지의 성장과정 중 세 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마지막 단계임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며, 그 때의 순진하며 신뢰로 가득했던 아름다운 영혼을 회상하는 것을 즐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가야 하는 시기가 오게 된다. 우리의 발달과정 중 합리성의 단계 즉 이사악의 단계가 끝나면 우리는 마침내 세상적 삶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으며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다. 에사오와 야곱은 삶의 실용적 또는 외적인 것들(external)을 상징한다. 우리가 어떠한 실용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정황을 파악하고 우리의 목표를 보다 명확히 구체화시켜야 한다. 에사오와 야곱 형제는 우리의 영적 성장 단계에서 시작 부분을 상징하며 이 단계에서는 우리의 의지, 생각, 바램과 지식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의 의지와 바램은 선한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합리성을 상징하는 이사악이 자연적인 수준에서의 선한 의지를 뜻하는 에사오와 자연적인 수준에서의 지성을 뜻하는 야곱을 쌍둥이로 갖게 된 것으로 표현된다. 이 쌍둥이 형제는 서로 비슷해 닮음이 적을 것 같지만 실상은 자주 닮는다. 의지는 생각이 있기 전에 생각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동기가 됨으로 먼저 생겨남이 원칙이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이기적인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성이 먼저 생겨나야만 한다. 에사오로 표현되는 우리의 의지는 자연적 애착이나 충동들로 인해 쉽게 스스로의 미래를 현재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포기한다.

시간이 흘러 이사악이 늙고 그의 눈은 아주 어두워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기를 벗어나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일상 업무에 휘말려 우리 스스로를 명백하게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appearances) 현혹되기 쉬우며 우리의 의지는 이타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이다. 에사오가 그의 아버지를 위해 잡아 오는 사냥감은 스스로 만족하고 싶어 하는 선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의미한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를 위해 염소 새끼 두 마리로 대신 하도록 허락되어 졌다. 염소 새끼는 자연적 수준에서의 선이지만 순수한 선을 의미한다. 이 발달 단계에서는 진리가 선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지게 되어 우리의 마음을 돕게 된다. 야곱은 에사오의 옷을 입고 손과 목에는 염소 가죽을 감아 에사오인 것처럼 행동했다.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옳지 않았으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용 하셨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기적 의지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설령 진리를 이미 배웠다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 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며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사악의 “말소리는 야곱의 소린데 손은 에사오의 손이라!”라는 표현으로 상징되어 있다.

야곱은 성서의 이야기에서 보면 그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는 두 형제 중 집을 더 사랑했으나 그곳을 떠나야만 했고 긴 세월동안 타향에서 봉사한 후에야 그의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유산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그가 갔던 하란은 단순한 순종심을 의미한다. 우리가 스스로 어른이라고 믿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더라도 진정으로 삶을 이해하고 현명한 선을 행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굴곡들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선택하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삶, 즉 영원한 삶으로 이르게 하는 선과 진리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발달시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

제 5반

본장에서는 다양한 것을 토의해 볼 것이다. 에사오로 표현되는 자연적 선은 결코 순수하지 못하고 믿을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실질적 영적 진보는 야곱에 의존되어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진리에 흥미를 갖게 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에서 “모든 인간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 하는데 가장 깊은 속에는 속사람(internal man), 중간에는 합리적 사람(rational man) 그리고 겉에는 겉 사람(external man)이 있다. 주님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상징되어 진다. (AC 1893)”라고 언급했다. 우리들 측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유아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속사람에게 천국이 열려져 있고 주님께서 “남겨두신 것”들로 채워져 있다. 남겨두신 것들(remains)이란 주님께서 장차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 쓰시려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감춰 놓으시는 순진함과 신뢰하는 심정 상태를 의미한다. 그 다음 우리는 이삭으로 표현된 합리성을 갖고 발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쌓아 올린 지식과 애착 (affection, 끌리는 마음)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준비가 끝나게 된다. 만약 우리가 거듭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가져와서 천국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르도록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야곱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우리의 실질적인 영적 성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야곱 이전의 단계에서는 영적 성장을 위한 준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의 선조로서 보다 높은 차원의 것들을 상징하지만, 그들(세 사람)의 후손들은 “야곱의 씨” 또는 “이스라엘의 자녀”라고 불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후에 야곱에게 주님이 주신 이름임)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장의 주제는 야곱과 에사오이며 어떻게 야곱이 형 에사오 대신 족장이 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우리 삶의 두 영역, 두 개의 방(rooms) 또는 의지와 이해성에 대해서는 노아의 방주를 공부할 때 이미 설명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의 영적 평면(spiritual plane)에 속하며 에사오와 야곱은 우리의 자연적 평면(natural plane)에 속한다. 에사오는 자연적 평면에서의 선을 묘사하고

야곱은 진리를 묘사하고 있다. 이들이 쌍둥이 형제인 이유는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에 있어서 선과 진리 혹은 의지와 이해성은 처음부터 평행선처럼 나란히 가고 있기 때문이다.

에사오가 형으로 태어났는데 그 이유는 그는 의지를 상징하며 의지는 우리 행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근본적으로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주님으로부터 또는 지옥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에 유입되는 것이 우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같은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이해성을 상징하는 야곱이 의지를 상징하는 에사오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의지로 주관되는 바른 삶을 살기에 앞서 반드시 이해성이 주관하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이해성이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게 느끼도록 하시는 이유는 거듭남을 시작하는 우리 안에서 주(심성)과 객(이해성)의 순서가 바뀌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지의 근원인 심성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기심으로 가득하여 쉽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성이 강조되어 먼저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잘못된 심성을 바로 잡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러므로 심성을 상징하는 에사오 대신 이해성을 상징하는 야곱이 집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에사오가 언젠가는 야곱이 씌운 멍에를 떨쳐 버리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는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의지(new will)를 주실 때까지 계속됨을 의미한다. 그 이후에 우리는 새 의지에 의해 통치되면서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주님께서 아끼시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 삶의 본보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야곱의 이야기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기적인 이득을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의 열매가 잘 보관되게 하였고 급기야는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민족의 선조가 되도록 하셨다. 하지만 스웨덴북에 의하면 이렇게 언뜻 읽으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상 아직은 선과 악이 분명히 구분 되어있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거듭남의 초기단계를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주님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삶이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는 없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악한 이들 또한 많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타고난 심성의 안과 밖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경의 인물들의 악한 품성이나 행위를 선용하신 것이다. 이처럼 주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예견하여 우리의 심정 상태에 맞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의 악 조차도 선용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의 섭리는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주님의 신성화 하심과 공생애를 상징하는 말씀의 가장 깊은 속뜻은 진리와 아름다움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 영적 성장을 상징하는 말씀의 속뜻은 자꾸만 뒷걸음질 하려는 인간 본성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는 주님의 사랑과 진리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서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 안에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을 마치 아주 잘 그린 초상화처럼 상응으로 심어 놓으셨다.

우리가 야곱과 에사오의 이야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게 되는 것은 모든 악이 즉각적이며 명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관습적 반작용이다. 이러한 것은 주님의 의지가 아닌 아주 세상적인 것이다. 주님의 의지는 우리에게 모든 악이 보여지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악들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실 뿐 우리에게 벌이 내려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악은 그 안에 스스로를 향한 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벌은 때로는 즉각적이지만 대체로 명확치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악을 행한 결과는 언제나 확실하다. 야곱이 행했던 악의 결과는 형에 대한 공포로 즉각 나타났을 뿐 아니라 20년 후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그의 형과 재회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에사오 역시 우리 삶의 본보기로 삼을 수 없다. 그는 스스로의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주어진 장자의 권리를 팔아 버리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된다. 우리는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당장 스스로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우리의 인격과 장래의 가망성(prospect)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것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이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나감에 있음을 알면서도 때때로 부주의함, 게으름, 소심함, 그리고 이기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진보가 주님께 대해 배우고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이를 수 있는 것임을 알면서도 세상적 성취욕과 쾌락에 빠져서 성경을 읽거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기도 한다. 우리는 동물이 갖지 못한 영적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동물보다 나음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동물처럼 본능을 충족시키는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우리는 날마다 에사오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마음의 자연적 평면으로 볼 때 에사오는 선 그리고 야곱은 진리를 묘사함을 앞서 공부했다. 에사오는 형으로서 가족의 마땅한 우두머리이다. 우리는 야곱과 에사오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지니게 된다. 주님께서서는 왜 야곱이 에사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왜 진리를 배우려 노력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기대되는 바대로 되지 않는가 등의 의문이다. 이에 대한 진정한 답은 다음에 있다. 우리들 각자는 참으로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님께서서는 이것을 보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유전적으로 세습되어온 악들이 잠재해 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 없이는 우리 스스로 이에 대한 선, 악을 구별할 수 없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친성적으로 선하여 주님의 가르침 없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애매해져서 결국은 이기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 진리이고 스스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하다고 믿게 된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가 가진 결점을 볼 수 없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개선 할 수 없게 된다. 설령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잘 훈육 되었다하더라도 과오 없는 충동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행동의 경지에는 도달치 못한다. 그 이유는 '자아'를 기준으로 하는 어떤 것도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의지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 그 진리들을 적용해 가야 한다. 우리의 지상 생활이 끝날 때 까지, 이해성을 상징하는 야곱이 내 집의 가장이 되어야 하며 심정을 상징하는 에사오는 야곱을 섬겨야 한다. 거듭남이 완성되어 우리의 심정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기꺼이 만족하는 경지에 이를 때 즉 천국적인 곳에 도달할 때, 우리의 심정(에사오)은 원래의 위치 즉 형(상속자)의 위치를 되찾게 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하느님의 섭리(Divine Providence) 제 234항」: “허용의 법칙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섭리의 법칙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둘은 결국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어떠한 것을 허용하였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뜻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분의 목표이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막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섭리는 항상 인간의 의도와는 반대로 그리고 멀어지는 곳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섭리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위해 역사하심에 끊임이 없어서 매 순간 또는 매 단계에서 인간이 이러한 주님의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 감지되면 섭리의 법칙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되돌리기 위해 역사하시는 데 우리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멀어지고 선을 향해 가도록 하신다. 이러한 인간 구원의 섭리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한 연유로 마땅한 까닭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으며, 까닭들은 반드시 주님의 섭리의 법칙 안에서 발견되어 저야만 하는데, 이 때 주님의 섭리의 법칙은 우리에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준다.

질문 정리

- 1) 이사악은 누구와 결혼했는가?
- 2) 그 여자는 어디 출신이었나?
- 3) 이사악과 리브가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형은 누구인가?
- 5) 그들의 생김새는 어떻게 달랐는가?
- 6) 에사오는 야곱에게 무엇을 팔았는가?
- 7) 그는 무엇을 얻었는가?
- 8) 이사악이 예뻐한 아들은 누구인가?

- 9) 리브가가 예뻐한 아들은 누구인가?
- 10) 리브가는 이사악이 늙자 야곱이 그를 어떻게 속이도록 도왔는가?
- 11) 이사악은 에사오에게 주었어야 할 것을 야곱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 12) 이에 대해 에사오의 감정은 어떠했는가?
- 13) 에사오와 야곱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주님께서서는 왜 야곱이 에사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허용 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리브가 2) 하란 3) 에사오와 야곱 4) 에사오
- 5) 에사오는 털이 많고 붉음, 야곱은 매끈매끈 했음 6) 장자의 권리
- 7) 팔죽 8) 에사오 9) 야곱
- 10) 맛있는 고기 요리를 준비 시키고 야곱의 손에 염소 가죽을 씌워 주었다
- 11) 장자의 복 12) 야곱을 죽이길 원했다
- 13) 에사오는 자연적인 수준에서의 의지, 야곱은 자연적인 수준에서의 이해성
- 14) 우리가 이기적인 의지에 의해 이끌려서는 안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

7

요셉과 그 형제들

머리말

야곱이 20년간 하란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 즉 레아와 라헬에 대한 이야기, 아들들의 출생, 베델에서의 주님의 약속, 그리고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야곱의 간절함을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37장

37장: 1. 한편 야곱은 자기 선친이 유랑민으로서 머문 적이 있던 땅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다. 2.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요셉은 열 일곱 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빌하와 질바의 아들들을 거들어 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3. 이스라엘은 요셉을 늘그막에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장신구를 단 옷을 지어 입히곤 하였다. 4.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 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5. 한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6. “내가 꾸 꿈 이야기를 들어 봐요”하며 그는 이야기를 꺼냈다. 7. “글쎄, 밭에서 우리가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이 둘러 서서 내가 묶은 단에게 절을 하지 않겠어요?” 8. “네가 정말 우리에게 왕 노릇할 셈이냐? 네가 정말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셈이냐?”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9. 그 후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또 했다. “글쎄, 내가 꿈을 또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열 하나가 내게 절을 하더군요.”

10.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가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네가 꾸 꿈이 대체 무엇이나? 그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할 것이란 말이나?” 11. 형들은 그를 질투했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다. 12.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세겜으로 갔을 때, 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일렀다. “얘야,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네가 갔다 와야 하겠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 가지요.” 14. “네 형들도 잘 있고 양들도 잘 있는지 알고 싶으니 가서 보고 오너라.” 그는 이렇게 이르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요셉은 세겜에 이르러 15. 들판을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누굴 찾느냐?”고 요셉에게 물었다. 16. “저의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형들이 어디서 풀을 뜯고 있는지 알려 달라고 했다. 17. 그가 대답하였다. “벌써 여기를 떠났다. 도다인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다인으로 찾아 가 거기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 18. 형들은 멀리서 알아 보고 그가 다다르기 전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19. “야, 꿈장이가 오는구나. 20. 저 녀석을 죽여 아무 구덩이에다 처넣고는 들 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보자.” 21. 그러나 르우벤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 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하였다. 22. “피만은 흘리지 말아라. 그 녀석을 이 빈들에 있는 구덩이에 처넣고 손만은 대지 말아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 내어 아버지께로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23. 이윽고 요셉이 다다르자 그들은 요셉에게서 옷을 벗겼다. 그것은 장신구를 단 옷이었다. 24. 그리고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처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 없는 빈 구덩이었다. 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데, 마침 길르앗으로부터 낙타를 몰고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향고무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예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26.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래도 우리 동기인데 그를 죽이고 그 피를 덮어 버린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니? 27. 그러니 그 애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버리고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아무래도 우리 동지요, 우리 혈육이 아니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했다. 28.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이십 냥에 팔아 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29. 르우벤은 구덩이로

돌아 와 요셉이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30. 형제들에게로 돌아 가 “그 애가 없어졌다.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하고 부르짖었다. 31. 그러자 그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 그 피를 묻혔다. 32. 그리고 그 장신구로 꾸민 옷을 아버지께 보내며 말을 전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주웠습니다. 이것이 아버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잘 보십시오.” 33. 그는 그것을 곧 알아보고 외쳤다. “내 아들의 옷이다. 들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짐승들의 밥이 되다니!” 34. 야곱은 옷을 찢고, 베옷을 몸에 걸친 채 아들을 생각하며 날이 가도 달이 가도 울기만 했다. 35. 그의 아들딸들이 모두 일어나 위로했지만 그는 위로를 받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다, 나는 지하로 내 아들한테 울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여 울었다. 36.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그를 팔아 넘겼다.

교리 요점

* 스웨덴봄에 의하면 말씀의 가장 깊은 뜻은 주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 우리의 거듭남이란 시험, 투쟁 그리고 승리라는 회전의 연속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중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들 중의 하나로, 요셉과 주님의 삶은 비슷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타의에 의해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던 것,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한 것, 은전 몇 푼에 팔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믿음직스러웠고 용서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의 백성을 구원했던 것 등이 있겠다.

요셉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다, 그는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 머물렀던 하란에서 낳은 아들 중에서는 가장 막내이다.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은 야곱이 그의 형 에사오와 재회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 얻은 아들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과는 매우 달랐다. 그의 형들은 세상적 성공에만 관심을 두었지만 요셉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고 이타적인 성향이 짙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을 “꿈장이”라고 불렀다. 세상적인 것을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적인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몽상가 또는 이상주의자라고 부르며 조소한다. 그러나 천국적인 삶을 중시하던 사람들은 주님께 의해 중히 쓰여져 결국 인류 역사에 큰 인물들이 된 경우가 많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고, 요셉이 그의 형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이사악,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들 중에서 야곱은 우리가 세상적 삶으로 나아가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상태를 그린다. 야곱이 낳은 열두 아들들은 독립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질들을 뜻한다. 열두 아들들을 두 부류로 분류하자면, 요셉 전에 태어난 열 명은 우리의 실질적이며 세상적인 삶의 능력들이며 요셉과 베냐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보다 높은 것 즉 영적 자극과 생각들을 상징한다.

세상적인 성공에 분주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한 쪽으로 치워놓고는 때로 이러한 것들이 아예 죽어 없어진 것 같이 착각하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요셉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자질들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보존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진리와 선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신다. 요셉은 주님께서 주신 자질 곧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인해 감옥으로부터 이집트의 고관의 자리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후에 그의 형들이 기근을 당해 요셉을 찾아오게 된다.

제 1반

야곱이 낳은 아들의 숫자와 야곱이 가장 예뻐한 아들인 요셉의 이름을 기억해 두자. 주님께서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여 요셉이 죽지 않도록 하심과 요셉을 큰 인물로 만드셔서 마침내 그의 전 가족을 구원 시키셨음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본장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결국 그 사람을 해치는 행동까지 하게 된다는 도덕적 교훈이 들어있다.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에서 20년 동안 머무르며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후 목축과 양떼를 많이 가진 부자가 되었다. 그는 11명의 아들을 하란에서 낳았고 1명의 아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간 후 태어나 모두 12명의

아들을 가졌다. 그는 가나안에 돌아오면서 형 에사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에사오 역시 부유해져 있었고 동생을 용서한지 오래되어 다시 만나게 됨을 무척 기뻐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로 보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가드, 아셀, 이사갈, 스블론, 요셉, 그리고 베냐민이다. 그리고 그는 디나(Dinah)라는 딸도 있었다. 르우벤이 맏형이고 요셉은 거의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을 가장 귀여워했다. 그 이유는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이다.

형들은 요셉을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셨고 그가 이집트에서 큰 인물이 되게 하셨다. 오랜 후에 그는 흉년으로 그의 가족이 죽게 됐을 때 큰 도움을 준다. 그는 언제나 주님께 순종했으며 어린 시절에 고생했던 것은 주님께서 좋은 목적을 위함이었음을 실감한다.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본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 *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입혀 주었는가?
- *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가?
- *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 *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던 형은 누구인가?
- * 형들은 결국 요셉을 어떻게 했는가?
- * 이스마엘족의 선조인 이스마엘은 누구인가?
- * 그들은 어디서 요셉을 꺼냈는가?
- * 요셉은 누구에게 팔려졌는가?

제 2반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 세겜이 다시 등장한다. 성경 이야기 중에서 세겜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요셉을 구하는 주님의 섭리를 떠올리거나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게 되면, 마치 우리 스스로가 복을 받지 못한 존재와 같이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이 시험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본장의 공부를 위한 질문정리

- *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입혔는가?
- * 본문 2절은 무엇인가?
- * 요셉이 꾸 꾸 두개는 무엇인가?
- * 두 꿈의 의미는 무엇인가?
- * 야곱은 요셉을 어디로 심부름을 보냈는가?
- * 우리는 세겜을 기억하고 있는가?
- * 요셉은 그의 형들을 어디서 찾았는가?
- *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은 무엇을 토의 했는가?
- * 누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다른 형제들을 설득했는가?
- * 그들은 요셉을 결국 어떻게 했는가?
- *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며 이스마엘족의 선조는 누구인가?
- * 요셉은 결국 누구에게 팔렸는가?
- * 이스마엘 상인은 요셉을 얼마에 샀는가?
- *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죄를 어떻게 감추려 했는가?

야곱은 약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았고 또 거기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라반의 딸과 결혼했고 하란을 떠나기 전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 르우벤이 맏형이고 요셉이 막내이다. 그 후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에사오와 재회했고 아버지 이사악도 만났다. 그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났다. 야곱은 12아들 중 베냐민과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되었고 그들은 또 다른 이유로 요셉을 미워했었다.

요셉의 형들이 아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우리 역시 자신의 의견에 상반되는 의견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를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다 결국 그를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1-22절과 요한 1서 3장 15절을 읽어 보자. 살인이라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도 그 시작은 작은 시기심, 분노, 또는 미움에서 비롯되며

이런 것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이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3반

요셉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며 공부하게 된다.

야곱은 에사오의 분노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하란으로 보내진 후 그곳에서 20년 정도 머물렀다. 그는 삼촌 라반을 섬기며 세월을 보내는 동안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해 그들로부터 일곱 아들을 가졌고 두 아내의 몸종 들인 빌하와 질바로부터 네 아들을 가진 후에 가나안으로 되돌아 왔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른 후 라헬은 야곱의 열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았다.

야곱은 인생의 자연적 평면을 뜻한다. 이스라엘 교회는 야곱의 후손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표현적인 교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 안의 자연적인 평면이 거둬나가는 과정을 그린다. 먼저 출생한 아들들은 우리에게 처음 발달되는 낮은 수준의 진리를 향한 애착들을 상징하며 후에 출생한 아들들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향한 애착들을 그리고 몸종들이 낳은 아들들은 보다 낮은 수준의 지리, 즉 지식에 대한 애착들을 의미한다. 야곱은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을 가장 사랑했다. 이 두 아들은 우리의 발달과정 중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깊은 영적 애착과 사고들을 의미하며, 이것들을 우리 삶의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되면 아주 유용하다.

우리는 걸 사람에게 속하는 자연적 사상이나 욕구가 속사람에 속하는 보다 높은 사상에 종속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처음 성장하기 시작할 때에는 주로 종교에 대한 외향적 지침에 중심을 둔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 친구가 내가 가진 종교에 대해 비웃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들 내면의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바로 “남겨져 있는 것(remains)”으

로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혹은 이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도와준다. 요셉과 베냐민이 여기서 “남겨져 있는 것”을 상징한다. 요셉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 (affection)을 뜻하고 베냐민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성(understanding) 또는 영적인 것을 배우고 싶어 함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에 굉장한 비유(parable)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요셉은 그의 형들과 많이 달랐고 이 다른 점들 때문에 형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가 형들과 부모보다도 더 위대해지는 꿈을 계속해서 꾸게 되고 그것은 결국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된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이 막 생겨나서 시련을 겪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예를 들어,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젊은 시절에 미래를 꿈꾸고 원대한 이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초지일관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 이유는 우리 안의 외적(표면적인) 추론이 이 꿈과 이상을 비웃고 이들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요셉이 가족으로부터 버려져 이집트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의 외적 추론은 영적인 것을 향한 우리의 애착을 기억적 지식이라는 창고를 상징하는 이집트에 억류 시킨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거라고 아예 단정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장차 그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의해 보호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이 처음에 가지는 종교에 대한 순수한 느낌과 생각들을 깊은 기억 속에 보존 하셔서 장차 우리의 필요 즉 기근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될 때 그것들을 재발견하도록 해주심과 같다.

구약 성경의 가장 깊은 의미는 주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로 추측된다. 요셉은 성경에서 주님을 가장 잘 묘사하는 인물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구분되었던 것처럼 주님 또한 사람들과는 달랐다. 요셉은 어려서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결국 장성한 후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여 이집트의 총독이 됨으로 그 꿈이 이루어 졌듯이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오심과 그 목적에 대해 예언을 주셨고 또한 그것을 이루셨다. 서로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기는 하지만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타의에 의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은 몇 십 냥에 팔려졌고 예수는 가롯 유다에 의해 은 몇 십 냥에 팔려졌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겹옷을 그의 죽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였듯이 예수의 겹옷은 그분이 죽었음을 입증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요셉이 죽지 않고 결국은 이집트의 총독이 되었듯이 예수는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주가 되셨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지성 안에 말씀의 가장 깊은 의미들이 간직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 상응 공부

야곱의 열두 아들 = 인간 발달 과정에 필요한 모든 생각들과 애착 들

요셉 = 영적인 것에 대한 애착들

베냐민 = 영적인 것을 배우고자 하는 애착들

야곱의 가족구성도

야곱의 아들들을 출생순서로 보면 르우벤(Reuben), 시몬(Simeon), 레위(Levi), 유다(Judah), 단(Dan), 납달리(Naphtali), 가드(Gad), 아셀(Asher), 이싸갈(Issachar), 스블론(Zebulun), 요셉(Joseph), 베냐민(Benjamin)이다.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			
라헬	레아	빌하	질바
		라헬의 몸종	레아의 몸종
요셉	르우벤	단	가드
베냐민	시므온	납달리	아셀
	레위		
	유다		
	이싸갈		
	스블론		

※야곱은 레아로부터 딸 디나도 낳았다.

제 4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고는 성경과 우리의 삶이 서로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됨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을 우선으로 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 마태복음 6장 24-34절을 읽어 보자. 요셉과 베냐민은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 의욕과 생각을 표현 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배우는 것 또는 직장생활 가운데 자신을 위한 욕구와 생각들이 우선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요셉”을 주시고 이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보존 하시면서 우리가 영적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 마다 이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 사람들이 궤변을 주장하고 종교적 사고를 부끄럽게 여길 때 이것은 “요셉을 팔아 그를 이집트에 억류 시키는” 것이 상징하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사람들은 말씀의 깊은 뜻을 공부해 갈 때 가상적으로 나타나는 끝없는 반복 즉 시험의 반복으로 일어나는 죄를 지음, 회개, 회복, 그리고 평화가 반복되는 것에 혼란해 할 수도 있다. 그 예로 야곱은 에사오와 재회하고 나서 헤브론에 정착하여 평화를 찾았으나 그 후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가 편애하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다. 그렇게 그와 그의 가족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이 시험이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삶에도 마찬가지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 내의 악을 인식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아 악과 싸우고 그것을 극복한 후 승리의 평화를 경험한다. 하지만 승리의 평화는 순간적인 것으로 이것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안의 더 깊은 악을 발견하여 더 어려운 시험으로 가기위한 준비로서의 휴식이다. 우리는 가끔 현자들이 “나는 해가 갈수록 더 선해지기 보다는 더 악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이것은 아주 사실적이며 정확한 표현이다. 그 이유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맡겨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욱 더 깊은 악들이 발견 되어지며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힘든 시험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모든 악을 단번에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악과 싸워 이기면 주님께서는 또 다른 악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게 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해 한걸음씩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

야곱은 삶 가운데에 자연적 평면을 뜻하며, 특별히 세상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는 시기 즉 가정을 이루며 생업에 종사함에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시기에 해당된다. 야곱이 이스라엘(창세기 32:38 참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땅에 정착하는 대목은 우리의 인생과정이 단순히 세상적이지만은 않고 신앙심도 갖게 됨을 표현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옳은 것을 시도하고 싶은 우리의 바램으로 우리들 내부에 많은 동기(motives)들을 가지게 된다. 이 동기들은 야곱의 열 두 아들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동기들이라도 언제나 조화를 이룰 수는 없다. 요셉과 베냐민으로 표현된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와 사랑은 우리의 가장 높고 가장 성숙된 자질이다. 이것은 창세기 제 37장 3절에서 “이스라엘은 요셉을 늘그막에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낮은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것과는 아주 달라서 영적인 것을 파괴해 버리려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요셉은 꿈과 선견지명(vision)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의 영적 본성은 세상적인 가치보다는 내적인 것에 가치를 둔다.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우리의 외적 자이는 감각들을 통해 지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인 요셉을 외적 자아안의 애착들을 상징하는 형들이 시기하고, 파괴하여 매장시키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우리의 외적 자이는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을 인생에 스쳐 가는 별볼일 없는 지식의 일부분 정도, 또는 그저 어린 시절의 경험 정도의 수준으로 격하시켜 버리려 노력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한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거나 혹은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주일학교에 다닐 때가 참 좋았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순수하게 믿을 수 있었으니까. 사실 그때 배운 것들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때 배운 많은 것들이 잊혀질 확률이 많지...” 이것이 은 이십 냥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가는 모습이다. 진리를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도 깨우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휩쓸리게 되면서 진리는 기억적인 지식 안에 묻혀 버리는 것이다.

요셉이 실제로 죽지 않았음은 그의 형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행운이 되었다. 훗날

온 땅에 큰 가뭄이 들 때 그의 형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크게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요셉을 보호하셔서 그가 이집트의 권력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하셨다. 이처럼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택했던 세상적인 원리가 희망 또는 생명을 잃게 되거나 실패 또는 큰 손실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이러한 세상적인 원리로 는 우리가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고 인식할 때를 대비해 우리 초기의 영적 상태들 속에 있었던 것 즉 “남겨 두신 것(remains)”을 우리들 속 깊은 곳에 보존되도록 섭리하신다. 스웨덴봄은 “천국의 신비(Arcana Coelestia)”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성서의 가장 깊은 뜻인 주님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제 5반

야곱이 하란에 머물렀음과 가나안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간략하게 복습한다. 또한 야곱의 열두 아들에 관한 상응과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가는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야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의미하며 그의 열두 아들은 이러한 노력 과정 중에서 발달되는 모든 선한 애착들을 뜻한다.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인 것들에 대해 알기 위해 정신적이고 의지적인 과정을 분석하려는 심리학자들의 보고서들을 읽는다. 하지만 우리는 스웨덴봄을 통해 주님께서 밝히신 야곱의 열두 아들이 갖고 있는 의미에 의해서도 심리학적인 윤곽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외적 생활 가운데서 더 높거나 더 낮은 애착들을 식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사랑함과 친구를 사랑하는 것을 비교하면 분명히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음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애착이나 음식 역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으로 음식에 대한 애착 또한 선한 애착 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주님에 대한 애착과 천국적 지식에 대한 애착은 다른 모든 애착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중요성에 따라 몇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헬의 두 아들은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애착이고, 레아의 아들들은 제일 높은 애착쪽으로 점차 유도되는 바깥쪽 애착이다. 그리고 몸종들의 아들들은 위의 두 애착들을 보조하게 될 가장 바깥쪽의 애착들이다. 베냐민을 제외한 11명의 아들은 하란에서 태어났고

베냐민만이 가나안에서 태어났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가장 사랑 받는 이야기들 중 하나이다. 요셉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며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기도 해서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혀 주었다. 색깔(colors)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영적 진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사용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상징한다.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는 형들의 시기심을 일으키게 되고, 형들의 나쁜 감정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들의 잘못을 고함으로 미움이 된다. 후에 형들은 요셉이 그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것으로 인해 크게 분개한다. 야곱은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그들의 안부에 관해 알아봐서 자신에게 보고 하도록 심부름을 보낸다. 그때 요셉의 형들의 첫 마디는 “보라, 꿈장이가 오는 구나” 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를 알잡아 보는 경향이 있으며 요셉의 형들처럼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망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이상적인 것을 한쪽으로 밀어두기도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악을 들추어내자 그분을 저 버린 것 또한 같은 것이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주님의 생애를 예시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AC 제 4669항)에서 “요셉은 주님의 인성 중 신성한 영적 부분, 즉 주님의 신성한 영적 인간(Lord's Divine Spiritual Human)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보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분의 신성한 인성(His Divine Human)이 표현 하는 신성한 영성(Divine Spiritual)” 또는 “천국과 교회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하느님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요셉의 이야기는 실화로, 그의 형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고 결국 요셉은 이집트에 노예로 팔리게 된다. 주님께서서는 이 실화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실용적인 교훈을 주신다. 주님께서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시험을 통해 그가 더욱 위대해지도록 하셨고 후에 그의 가족까지 구원되도록 배려하셨다. 앞서 공부했듯이, 이집트는 우리의 기억적 지식을 상징한다. 기억적 지식은 세상에서의 삶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기억적 지식을 쌓기 위해 열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이란 표현은 이 사실에 대한 예이다. 주님께서서는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될 때까지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긴 어린 시절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 또한 이집트에 내려 가셨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삶의 질서라는 것과 그분이 입으신 인성(Human)은 「배움(learning)」-즉 성경의 글자-이였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다. 공생애 기간 동안 주님은 많은 성경을 인용하셨고 그분 역시 어린 시절에 모든 성경을 그분의 외적 기억(external memory)속에 저장해 두셨다. 스웨덴북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직접 흘러가지 않으며, 또 이 진리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선용할 수 있도록 기억적 지식 안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이 기억적 지식이란 우리가 외부로부터 습득한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라고 설명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는 말씀의 글자를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함을 우리에게 상기 시켜 주신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자기의 이론 혹은 연설을 보조하는 자료로써 읽거나 성경의 어느 구절이 내 주장과 일치해 그것만을 반복해 읽는다면, 그것은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라”고 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말씀의 모든 이야기들은 아주 깊게는 주님의 생애와 직결되어 있으며 우리 개개인의 인생 또한 말씀의 속뜻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애착들을 상징하며 이 애착들이 잘 사용되면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애착들은 때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들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나쁜 방향으로 움직여진 애착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최선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우리들 안에 있는 요셉은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부분 즉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에 대해 생각하기를 즐겨하는 마음 부분이다. 이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의 어린 시절의 심정 상태 때부터 계속 저장해 두신 “남겨 두신 것(remains)” 중의 하나에 속한다. 주님께서 요셉이 꿈을 꾸고 꿈들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순수한 애착으로 주님에 대해 생각하면, 세상적인 것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종속되어 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적인 것 위에서 또는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세상적인 애착들(요셉의 형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 (요셉)을 그에게 있는 보다 더 나은 것을 뺀 후 기억적 지식이라는 영역(이집트)에 처

박아서 감옥 생활을 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은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장차 우리가 요셉을 필요로 할 때를 위해 요셉을 보호하고 강건케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시도하면서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완전한 실패로 이르게 되면 요셉을 찾거나 재발견하려고 한다. 이 때 우리는 요셉이 더 이상 약한 어린애가 아닌 권위 있는 통치자로 그 권위 하에 보호 받아야 함을 발견하게 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4669항)」: “요셉은 주님의 영적 인간(Divine Spiritual Human)을 상징 한다. 말씀의 가장 높은 뜻에서 보면 요셉은 영적 측면에서의 주님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주님이 요셉으로 상징되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천국적인 요셉을 말할 때 주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상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의 어떤 면이 요셉에 의해 상징 되는지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요셉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영적 측면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영적 측면은 주님에게서 비롯되어서 천국과 교회에 있는 신성한 진리이다. 주님의 영적 측면 또는 신성한 진리는 주님의 왕으로서의 위엄이라 불리우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의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요셉이 이집트의 왕처럼 되었고 그러므로 주님의 왕의 위엄을 상징한다.”

질문 정리

- 1) 하란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인가?
- 2) 아들 중 맏형은 누구인가?
- 3) 하란에서 태어난 아들 중 막내는 누구인가?
- 4) 가나안에 돌아온 후 태어난 아들은 누구인가?
- 5) 라헬의 아들은 누구인가?

- 6) 야곱은 어떤 아들을 가장 사랑했는가?
- 7)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입혀 주었는가?
- 8) 요셉의 형들은 왜 그를 미워했는가?
- 9) 요셉이 꾸 두 가지 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가?
- 10)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켰는가?
- 11) 요셉은 어디서 형들을 찾았는가?
- 12)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 13) 누가 요셉의 생명을 구해 주었는가?
- 14) 형들은 결국 요셉을 어떻게 했는가?
- 15) 요셉은 어느 나라로 팔려 갔는가?
- 16) 야곱의 열 두 아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요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 1) 열한 명 2) 르우벤 3) 요셉 4) 베냐민 5) 요셉과 베냐민
- 6) 요셉 7) 다양한 색깔의 채색 옷 8) 아버지가 특별히 예뻐했고 그의 꿈 때문이다
- 9) 곡식 단, 해, 달, 별들 10) 형들을 찾아보라고 11) 도다인 12) 죽이기로
- 13) 르우벤
- 14)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15) 이집트로 16) 기본이 되는 모든 정신적 자질
- 17) 영적 원리
- 18) 영적 원리가 우리의 외적 기억 속으로 추방당하는 상황

8

모세의 출생

머리말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집트에 안락하게 정착했고 또 요셉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경외심이 살아 있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어 히브리족의 숫자가 불어나자 이집트인들의 경계심이 고조되었고, 마침내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하여 히브리인들에게서 난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명령까지 떨어지게 됐다.

성서 본문: 출애굽기 1장, 2장 1-10절

1장: 1. 야곱을 따라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2.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3. 이싸갈, 즈불룬, 베냐민, 4. 단, 납달리, 가드, 아셀. 5.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칠십 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내려 가 있었다. 6. 얼마 뒤에 요셉이 죽고 그의 동기들과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으나 7.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 찰 만큼 무섭게 불어났다. 8. 그런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의 왕이 되어 9.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 무섭게 불어나니 큰일이다. 10. 그들이 더 불어나지 못하게 기회를 보아 손을 써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원수의 편에 붙어 우리를 치고 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11. 그리하여 그들은 공사 감독들을 두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파라오의 곡식을 저장해 둘 도성 비돔과 라므세스를 세웠다. 12. 그러나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불어났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13.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14. 그들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밭일 등,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 15. 한편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 한 사람은 시브라였고 또 한 사람은 부아였다-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16.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사타구니를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 버리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17.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 주었다. 18. 에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들여 “사내아이들을 살려 두다니,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꾸짖었다. 19.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 전에 얘기를 낳아 버립니다.” 20.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무섭게 불어 나갔다. 21. 산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22. 마침내 파라오는 온 백성에게 명을 내렸다. “히브리인들이 계집 아이를 낳으면 살려 두되 사내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집어넣어라.

2장: 1. 레위 가문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같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2. 아내가 아기를 배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잘 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 3. 그러다가 더 숨겨 둘 수 없게 되자 왕골상자를 얻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넣어 강가 갈대숲 속에 놓아두었다. 4.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형편을 살피고 있었다. 5.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하나를 보내어 건져다가 6. 열어 보았더니,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 아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하고 증명거렸다. 7. 그 때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아기에게 젖을 빨리게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하나 데려다 드릴까요?” 8. 파라오의 딸이 “그래, 어서 다녀 오너라”하고 대답하자 소녀는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 왔다. 9.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값을 줄 터이니 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길러다오.” 그리하여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다. 10. 아기가 꽤 자란 뒤에 어머니는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 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 냈다고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교리 요약

*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가나안의 땅이 천국 또는 천국적 인격을 의미함은 폭넓게 인식되어 있으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가 우리들 마음의 특별한 상태 또는 특별한 평면을 그리고 있음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별히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나라는 가나안, 아시리아 그리고 이집트인데, 이 세 나라는 우리의 마음이 갖는 세 가지 중요한 층면들을 뜻한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느끼는 곳이 가장 깊은 층면이며 우리의 합리성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층면은 그 다음에 속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연적 지식과 생각에 속하는 층면은 바깥 또는 제일 아래층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나안은 가장 깊거나 높은 층면, 아시리아는 합리적 층면 그리고 이집트는 가장 바깥쪽 또는 자연적 층면을 의미한다. 우리의 모든 감각적 영향(인상)이 있는 곳은 가장 바깥 또는 자연적 층면이다. 이 자연적 층면 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읽은 것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배운 것 등의 모든 것이 축적되어 있다. 요셉이 흉년에 대비해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지식의 필요성을 대비해 우리의 기억 속에 모든 것이 저장되는 것을 묘사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이집트로 내려간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변 상황에 대해서 배우는 여러 시기를 그린다. 그러나 배움 그 자체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며 배움이 특정한 용도로 쓰여 질 때 그 가치가 있게 된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흉년이 지난 후에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풍성함과 안락함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하였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고향을 잊어버리게 되고 마침내 하느님 대신 이집트인들의 신들을 예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발견된다. 우리는 전문가, 무역가 혹은 사업가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한다. 그 후 우리는

지식 그 자체에 몰두하거나 단순히 그 지식을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어 우리가 그 지식들을 이웃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게 된다. 어떤 남자는 자기의 사업에 몰두하여 자기 가족, 친구, 심지어 교회에는 시간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여기며 때로는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어떤 여자는 자기 가족을 위한 집과 집을 가꾸는데 온 열정을 쏟으며 그 집이 가장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전함과 행복함을 찾으려 하고 그곳에서 세상에 유용한 것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이와 같은 남녀는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노예 상태에 놓인 것과 같은 모습이다.

주님께서서는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세를 선택하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셨다. 특히 주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살리셔서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로 양육되게 하신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하느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소량이나마 담아두심을 뜻한다. 이것은 대체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우는 것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속 깊숙이 담겨진 지식을 돌보시고 우리가 자아반성을 통해 스스로의 오만과 이기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었음을 실감할 때 이 지식을 우리의 의식적인 기억으로 들어 올리신다.

모세는 주님의 섭리 하에 모든 이집트인의 학식이 모여 있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훈육되었다. 하지만 주님의 섭리에 의해 모세를 구한 이집트의 공주는 모세의 양육을 그의 친어머니에게 위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모세는 왕자에 준하는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이집트의 황실에서 받았고, 히브리인으로서의 교육은 그의 친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것은 모세로 상징되는 지식 또는 진리가 우리의 영적성장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가 되어 받는 압박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여정을 통해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성공적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이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한 긴 방향을 마치고 우리 속의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모세”로 상징되는 지식 또는 진리가 있어야만 한다. 주님께서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를 미리 선택하시어 키우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

지식을 키우고 욕망에 휩쓸려 사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어린 시절에 심어 놓으신 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양육하시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신다.

제 1반

본장의 이야기는 굳이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될 것이다. 아기 모세가 강물에 띄어진 순간, 파라오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 내도록 섭리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년이 끝났음에도 주님이 주신 땅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이집트에 머무르며 행하게 된 실수와 이 실수의 결과가 가져온 고생은 모세의 출생으로 직접 연결된다.

요셉의 시대 때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에게 살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주었고 그들은 거기서 번성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홍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되돌아가야 됴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실수였다. 요셉이 죽은 후, 이집트의 왕들은 점점 히브리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적대 민족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만들거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 그들의 인구를 줄이려 했다.

출애굽기 1장 6-22절, 2장 1-10절을 읽고 이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 장에서는 모세에 관해 더 많이 언급됨으로 그의 이름을 확실히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셉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모세도 보살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요셉에 대해 기억해 보자.

- * 요셉이 죽고 난 후 200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 새 파라오는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 * 어느 아이가 구원되었는가?
- * 그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 누가 그를 건졌는가?
- * 그의 유모는 누구였는가?

제 2반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늘게 되자 파라오가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남자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것과 주님께서 아기 모세를 보호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본장의 핵심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진 이중 교육 즉 이집트의 학식과 히브리인들의 전통이 히브리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아야 한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장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자.

- * 성경 이야기에는 요셉 외에 누가 이집트로 갔는가?
- * 파라오가 내린 아주 잔인한 명령은 무엇이었나?
- * 어떻게 그의 어머니는 모세를 구하려고 했는가?
- * 궤란 어떤 귀중한 것을 보관하기 위한 일종의 상자(chest)인데, 첫 번째 궤는 무엇인가?
- * 세 번째 궤는 무엇인가?
- * 누가 강에서 모세를 발견했는가?
- * 공주는 어떤 결정을 했는가?
- * 그 누이는 모세에게 젖을 빨리기 위해 누구를 데려 왔는가?

처음에 요셉은 이집트에서 아주 심한 고생을 했지만,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셔서 그가 이집트 왕에 다음가는 통치자로 군림하는 큰 인물이 될 때까지 그를 도우셨다. 요셉의 형제들은 흉년이 들자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갔으며 그들이 죽이려 했던 요셉이 그곳의 통치자임을 발견하고 매우 두려워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파라오의 동의하에 그의 전 가족을 흉년동안 이집트에서 머무르도록 초대했다.

파라오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살기 좋은 지역을 주었고 그들은 그것에 아주 만족했다. 그래서 그들은 번성하고 흉년이 끝났음에도 돌아가는 것을 잊어 그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때까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창세기 46장 26-27절을 보면, 요셉의 초청으로 66명의 남자가 이집트로 갔는데 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는 (출애굽기 12장 37-40절) 성인 남자만 약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에 있던 히브리인들의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

본 장을 보면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의 왕이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대대로 세워진 왕들의 전체에 해당되는 말이다. 새 왕들은 히브리인들을 더 이상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인이 아니며 언젠가는 그들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파라오들은 히브리인들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피라미드와 같은 큰 무덤이나 신전들의 건축은 히브리인들을 사용해 세워졌다. 그 당시는 현대의 기구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무거운 건축 자재들을 스스로 운반해 쌓아야만 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갖은 방법으로 그들의 자녀를 살리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며 주님 또한 그들을 도우셨다. 주님께서서는 이집트로부터 히브리인들을 해방 시키시는데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시자 파라오의 거칠고 사나운 명령을 역으로 이용하셨다. 성경에는 세 개의 유명한 궤가 있으며 그 중에서 모세를 살리는 궤는 두 번째에 해당된다. 아기 모세를 담은 궤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인 왕골로 만들어졌으며 이 식물로 종이를 만들었다. 노아의 방주처럼 모세를 살리는 궤도 역청을 발라 물에 잘 뜨도록 되어 있었다. 모세의 누이는 멀찍이 서서 그 궤를 살폈다. 모세는 성장하면서 그의 친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의 전통과 그의 족보에 대한 지식을 얻었으며 그 당시의 최고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배웠다. 그리하여 주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해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 내시고 그들을 하나의 국가 형태로 조직화시켜 그들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도록 섭리 하셨다.

제 3반

우리들은 각자 다양한 본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항상 즐겁게 살며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순수하게 좋은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십계명은 천국 그리고 지상에서 우리가 선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되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이다. 만약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NO”라고 말할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노예와 같이 되는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후손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머물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창세기 15장 13절과 사도행전 7장 6절에서도 400년간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집트 체류의 실제 기간을 200년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천국의 비밀 제 1502항」에서 430년이란 기간은 야곱이 이집트로 갔을 때부터가 아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을 때부터 계산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말씀 속의 숫자는 역사적 정확성 보다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하다.

요셉을 등용한 파라오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기거함을 환영했고 그들에게 살기 좋은 비옥한 나일강 삼각지를 내주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후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계속 늘게 되자 (기록상으로는 칠십여 명에서 성인 남자만 육십여 만으로 불어났음) 새로운 파라오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본문에서 읽는 바와 같이, 파라오들은 결국 아주 강력한 수단인 산아제한 정책으로 히브리인의 남자 수를 줄이려 했다.

말씀 속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주님에 의한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이 역사는 우리와 주님과 의 관계나 인간 안에 존재하던 교회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족은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 양식을 구했고 그들은 요셉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 요셉을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운 「파라오」는 우리의 외향적 기억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질 때를 묘사한다. 흉년을 만나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은 우리의 순수한 영적 애착들이 잘 보호되면서 지식을 획득해 가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다.

요셉은 사후 썩지 않도록 관에 넣어져 이집트에 안치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이기적인 이득을 위한 지식만을 추구하고 그러한 지식들이 우리의 삶에 가지는 영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잊어버린다. 그 결과 세상적인 것들만을 목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욕망에만 집착하는 것을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출애굽기 1:8)” 파라오가 등장하는 구절이 상징하고 있다.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맹점은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그 사람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돈도 벌고 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가니까 성공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이기심과 욕망이라는 거친 주인 밑에 있는 노예와 같아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더 큰 욕망을 향해 끝없이 달리게

된다. 돈이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듣던 이야기들이나 어른이 되어서 보는 T.V.의 드라마에서 아주 흔히 등장하는 소재이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속성이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망에 이끌리기가 쉽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기심이나 세상적인 욕망에 끌리는 삶은 결국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스웨덴뵘은 강조한다. “주님에 의하여 인도되어 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말씀 중에 ‘아들의 출생’은 어떠한 상황에서 있게 되는 새로운 진리의 발달을 상징한다. 신생아들 중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은 세상적인 욕망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의 이기적인 원리(파라오)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어떠한 새로운 진리의 발전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모세가 구원된 이유는 그가 그의 민족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하고, 또한 주님께서 계명을 내리시기 위한 그분의 도구로 쓰여야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세는 하느님의 법을 의미한다. 주일 학교를 다닌 사람이면 어린 시절부터 십계명에 어느 정도 친숙했을 것이다. 십계명을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그것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세상적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닥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질서가 십계명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빠져 나오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다. 모세의 친어머니는 이스라엘인이었고 양어머니는 이집트인이었다. 이것은 하느님의 법은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지만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는 우리의 욕망들도 때로는 바람직하게 보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왕골 상자(the ark of bulrushes)를 물 위에 잘 뜰 수 있도록 역청과 송진을 발랐다는 기록 역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의미를 그린다. 노아의 방주 역시 역청으로 발라져 있는데, 역청이란 우리의 이기심을 표현한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가 받게 될 손해가 두려워서 잘못된 행위를 스스로 금하기도 한다. 그 예로 운전 중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는 불이익 때문에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이 이와 비슷한 것이다. 나일강의 강가에 자라는 왕골(골풀) 즉 이집트의 파피루스는 진리로부터 비롯된 낮은 차원의 것들을 상징한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왕골상자는 말씀의 글자를 의미한다. 이런 시각에서 「파라오」의 딸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본능적 열정을 상징하며 그것은 때때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인도한다. 하지만 주님의 섭리로 아기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 구해진 후에도 친어머니에 의하여 보호되고 양육되어진다. 이것은 하느님의 진리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주님과 그분의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수단으로 하여 유아기와 어린 시절에 뿌려진 씨 즉 “남겨 두신 것(remains)”을 소중하게 키우신다는 것을 묘사한다.

모세가 「파라오」의 궁전에서 성장하는 것은 말씀이 세상에서 교육의 한 부분으로 우리 안에서 성장되는 과정을 묘사한다. 모세는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주님의 섭리 하에 입양되어진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왕골(rush): 올바름에 대한 가장 단순한 생각

송진(pitch): 이기심

모세(Moses): 하느님의 법

제 4반

식욕, 사업, 집안 일, 지식 추구 등에 노예가 된 사람들은 많다. 본장을 통해 최근 자신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어떤 것을 가치 없이 소홀히 여기는지에 대해 되돌아보자. 우리 안에 요셉이 죽게 되면, 우리는 결국 외향적 관심의 노예가 된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창세기」가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라고해서 창세기 전체가 우리 삶의 시작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유아기였을 때의 우리는 가장 높은 제 3층 천국의 천사들에 의해 둘러싸여 보호된다. 따라서 그 때 우리의 삶은 천적인 기운(sphere) 안에 있게 된다.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자신을 의식, 생각, 혹은 추론하게 될 때는 천적 천사들이 물러가고 영적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싼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양친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 때는 자연적 천국에 거주하는 천사들과 연관을 맺게 된다. 그 이유는 성인들의 가장 관심 있는 느낌과 사고가 자연적 평면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 우리의 생각과 느낌들은 외향적 활동이나 효용에 집중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집트에 머무른 상태이다. 스웨덴붉은 요셉의 몸을 찌지 않게 만들어 관에 넣어 (창세기 50:26) 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께 의해 저장되어 없어지지 않는 것들을 일컬어 "남겨 두신 것(remains)"이라고 이름 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우리를 에워싼 천국적 환경으로부터 얻은 모든 천적 혹은 영적 특질에 대한 지식과 심정 상태들을 뜻한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야 함을 일러두었다. 인간이라면 세상적인 삶 만 있는 상태에서는 장기적인 만족을 찾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자기 안에 보다 높은 것들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찬송가의 가사 중에 “여기서는 객일 뿐 천국이나 나의 본향”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진리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함을 뜻한다. 이집트에 머무른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그곳을 떠나는 최후까지 손님에 불과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한정적이며 일시적인 것으로 결국은 공수레공수거인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성취감이나 또는 세상적인 쾌락에 깊이 빠져 살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이 결국은 삶의 본질을 놓치고 헛된 것들의 노예로 산 것임을 느낄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줄 대상을 찾게 된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새로운 파라오의 억압과 폭정에 대해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를 준비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속박을 깨고 우리를 진정한 고향으로 인도할 진리(모세)를 우리 안에 준비해 주신다.

모세는 하느님의 법을 표현하지만 이 법도 처음에는 인간에게 제 몫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망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나일 강가 왕골상자 안에 들어 있는 모세로 상징되는 순수한 어린 시절 그의 기억 안에 주님께서 저장하신 옳고 적절한 것에 관한 단순한 진리들을 재조명을 하게 된다. 이 재조명을 이루는 계기는 대개 어떤 어려움에 의해 삶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혼란스럽고 어려워 졌음을 느낄 때 이다. 나의 삶이 나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떤 욕망이나 다른 것에 의해 어렵게 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우리가 자아성찰을 시작하여 삶을 참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여기서 「파라오」의 딸은 이 새로운 경각심을 가진 삶을 검사해 보고 싶은 욕구를 상징한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에 의해 이 새로운 삶은 더 깊고 더 순수한 애착 (모세의 친어머니)

에 의하여 양육되어 진다.

모세는 한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40년의 여정이라는 대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것 즉 히브리 친어머니로부터 양육과 이집트인들로부터 학문적인 교육과 지도자로서의 훈육을 받았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세상적이고 이기적 삶이 노예적인 삶을 깨닫고 영적 삶과 자유를 갈망하게 되면 그의 마음 깊은 곳의 사고가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아 새로운 사고를 낳고 이 새로운 사고가 키워 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이 주님에 의해 공급되고 보호되는데, 이것은 이 새로운 사고(thought)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실지로 쓰일 때까지 계속된다.

영적 특질의 발달은 세 가지 명확한 단계를 거친다. 스웨덴북은 이것을 회개, 재구성,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부른다. 회개(repentance)란 우리가 잘못된 가운데 있었음과 이 상태를 바꾸려는 진지한 노력이 결합되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재구성(reformation)이란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삶의 행실을 고쳐가는 가운데 우리 속의 악이 선으로 재구성 되는 단계를 말한다. 그리고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새 의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거듭남의 단계는 우리 스스로 이를 수 없으며, 그것의 준비 단계인 회개와 재구성을 오랜 세월 동안 거친 후에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회개와 재구성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며 거듭남은 주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로 인해 통곡했고, 그들이 속박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노력을 완료하고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할 때까지 그 통곡이 계속 이어진 것을 통해 이해된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길고 고된 여정을 거친 후에 마침내 진정한 고향 즉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다.

제 5반

요셉의 업적을 아는 「파라오」와 요셉의 업적을 모르는 「파라오」사이의 차이점과 그것의 의미를 명확히 살핀다. 그 다음으로 해석의 기본이 되는 모세의 상응에 대한 설명, 모세의 삶에 대한 일반적 사실 그리고 모세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거론한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파라오」의 요셉에 대한 신임으로

인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비옥한 땅을 얻었다. 이 이야기 줄거리는 주님이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모든 사실이 주님의 방향에 맞춰 질서 정연해짐을 보여준다. 이것은 평화롭고 행복하며 아주 유익한 상태로 우리의 유아기가 이런 상태라고 스웨덴북은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말씀을 읽고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을 통해 특별히 주님과 이웃에 어떻게 해야 유익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산다면, 우리는 천국적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 또한 우리가 말씀이 생각의 방향을 잡는 기초임을 염두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끊임없이 새로이 하면 이러한 상태는 지속될 수 있다.

배우는 상태가 진보를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구적으로 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하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다. 요셉 역시 그가 죽기 전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서 옮겨다오”라고 후손에게 단단히 다짐 했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의 진정한 고향이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되풀이 하여 약속 하셨다.

가나안은 “약속된 땅”으로 불리며 천국을 상징한다.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상속물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죽을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의 가나안은 천국적 인격이며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정착하고 번영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을 때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이것은 이집트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노력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가 세상적 부귀신성화에 전적으로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높은 영적 지각을 우리의 기억 속에 버려두고 더욱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집중한다. 이것은 요셉이 썩지 않게 관에 넣어져 이집트에 보관되는 모습이다. 이스라엘 후손은 이집트에서 번영하였지만, 요셉을 알던 「파라오」가 죽은 후에 새로운 「파라오」들은 점점 요셉을 모르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하느님이 “여호와”임도 잊어 버려서 주님 스스로 불붙은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주님의 이름을 가르쳐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위한 세상적 지식만 추구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임을 잊고 이기심과 세상적 원리 밑에 놓이게 되어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만다. 이것은 곧 우리의 높은 속성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섬기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교리를 표현하도록 주님에 의해 선택되어졌고 마음이 영적 교훈에 근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도록 주님에 의해 규율되었음을 염두해야 한다. 「파라오」들의 억압이 고조됨에 따라 노예화된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소리는 높아졌고 노예로부터 풀려나고 싶은 그들의 소망이 간절해졌다. 이것은 선한 생활을 진실로 원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것에 노예화 되어버린 스스로를 자각하고 불만족해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히브리족에게서 출생하는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은 「헤로데」왕이 베들레헴의 사내아이들을 살해하는 과정을 연상시킨다. 또한 그 명령은 우리 안의 세상적 본성이 갖는 발악의 정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의 세상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진리의 씨앗의 성장을 두려워하여 아예 그 씨앗을 없애 버리려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요소는 보존되어야 함을 알고 계신다. 그 요소란 주님의 법에 관한 지식을 뜻하며 그것은 모세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필수 요소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이 지식을 간직하려는 순수한 마음(애착)이며 모세의 친어머니를 통해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어린 시절과 유아기에 주님에 의해 우리 안에 이미 심어져있는 즉 “남겨 두신 것(remains)”에 저장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며 타인의 자존심을 인정하고 지켜줌으로써 물질적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애착)이며, 이것은 「파라오」의 딸로 묘사된다.

모세를 담은 왕골 상자는 법을 이해하는 기본이 되는 것 즉 역청이 칠해진 노아의 방주처럼 주님의 법을 글자로만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지식은 법을 이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왕골 상자는 역청으로 인해 보존되며, 역청은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 주님의 법이 보존됨을 뜻한다. 그 이유는 법에 대한 무지 역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오는

순간과 모세를 담은 왕골상자가 강가에 내 버려지는 순간이 일치되는 순간은 가장 적절한 기회로 주님께 의한 것이다. 이처럼 주님의 섭리는 우리가 잘못을 수정할 가능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때를 만든다.

모세의 일생은 크게 40년씩 세 시기로 구분한다. 첫 시기는 이집트에서 보내졌으며, 그것은 그의 출생과 더불어 왕골 상자 안에 보존됨으로부터 시작된다. 왕골상자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아주 단순한 지식을 뜻한다. 왕골 상자를 물 위에 잘 뜨게 해주는 역청의 의미 중 하나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적 지식으로 양육되어지만 우리 내에는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다. 이것은 모세가 이집트인에게서 양육되었으나 히브리인의 전통 역시 간직하고 있었음과 같다. 모세의 첫 시기는 히브리인을 때린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하며 끝나는데, 이는 스스로의 느낌들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첫 충동적인 시도와 우리와 영적 생활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준다. 두 번째 시기는 모세가 미디안의 땅에 머무른 시기이며, 이때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있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 얻은 「크투라」에게서 난 아들이다. 좋은 의미에서 미디안은 단순한 선(good)에 속한 심정 상태와 생각들이며 모세는 거기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더욱 수련이 된다. 모세의 미디안에서의 삶이 상징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가졌던 순수함과 단순한 선한 의지가 옳다는 확신이 우리의 영혼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목자로 살았다는 것은 단순한 선일지라도 삶으로 살아 내는 것이 쉽지는 않는 일이라는 것이 40(시험의 완결)이라는 수로 상징되며 단순한 선일지라도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 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 주님께 가깝게 한다는 것이 목자로 상징된다. 그래서 이 시기는 모세가 불붙은 떨기 나무에 임하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에 끝난다. 세 번째 시기는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시기이며 그들을 이끌고 이집트로부터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다.

출애굽 이후 히브리인들의 역사는 우리의 인격이 천국적인 상태에 도달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즉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선하고 진실한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기억 창고 안에 방치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영적 성장을 반추해 봄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오랜 세월을 요구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광야의 여행은 우리의 인격이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재구성되는 과정을 그리는 것으로 막연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아는 진리들(십계명)을 실천하겠다는 원칙하에 우리의 외적 생활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우리를 천국적인 상태(가나안 땅)로 이르게 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을 상징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6751항)」: “하느님의 법은 폭 넓은 의미에서 말씀 전체를 의미하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말씀의 역사적 부분에 해당된다. 그 보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모세를 통해 쓰여진 말씀들이며, 아주 좁혀 생각하면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세는 어느 면에서나 법(law)을 표현 한다.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6723항)」: “그 여자는 왕골상자를 얻어다가” (출애굽기 2장 3절)라는 구절은 진리에서 파생은 되었으나 간접적인 낮은 수준의 것들을 의미한다. 상자는 어떤 것을 담을 수 있게 주변을 둘러싸서 만든다는 것 즉, 내부의 내용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왕골이 가치가 낮은 물건이나 진리에서 파생되어 있는 것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모세는 법으로서의 신성 또는 말씀 (특별히 역사적 측면에서의 말씀)을 표현하도록 섭리되었다. 모세는 유아기 때 작은 께 안 즉 낮은 가치를 가진 것들 안에 놓여지게 되는 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 역사적인 측면의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의 시작이 진리로부터 파생된 낮은 것들을 상징하는 께안에서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둘째, 모세는 법으로서의 신성을 상징함으로, 왕골상자에 담긴 모세는 신성이 글자적인 의미의 법안에 담겨 있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 법으로서의 신성 그 자체가 시내 산에서 빛을 발할 때 이 법은 “언약의 께”라 불리는 상자 안에 놓여 지게 된다.

질문 정리

- 1)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처음 정착할 때 이집트인들의 대접은 어떠했는가?
- 2) 해가 거듭될수록 그 대접은 어떻게 변했는가?
- 3) 파라오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 4)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이 증가를 어떻게 막으려 했는가?
- 5) 구원된 아기의 이름은 무엇인가?
- 6) 그의 어머니는 그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7) 누가 아기를 발견했는가?
- 8) 그 여자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 9) 모세를 젖 먹이기 위해 누가 불리어졌는가?
- 10) 이집트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1) 이집트에서의 속박은 무엇을 그리는가?
- 12) 모세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존경하는 손님' 2) 노예가 되는 것으로 변화 3) 히브리족이 강해짐을 두려워했음 4) 새로 태어난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 5) 모세 6) "상자를 만들고, 갈대 숲 속에 놓아 둬" 7) 파라오의 딸 8) 그를 양자로 삼는 것 9) 모세의 친 어머니 10) 지식을 획득하는 상태 11) 세상적 지식, 사업, 쾌락 등의 노예가 됨 12) 하느님의 법(Divine Law)

9

홍해를 건너다

머리말

홍해를 건너는 광경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나 과월절에 관한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과월절(Passover)이란 단어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과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 머릿속에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3장 17-22절, 14장

13장: 17. 파라오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장 불러 새 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닥쳐 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후회가 되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염려하셨던 것이다. 18.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바다에 이르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단히 무장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19. 이 때, 모세는 요셉의 유태를 모시고 떠났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찾아오실 터이니, 그 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에서 옮겨다오”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다짐해 두었던 것이다.

20. 그들은 수곳을 떠나 광야 접경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21. 야훼께서는 그들이 주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22.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14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 므딕들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히룻으로 돌아 와 그 근처 바알스본 앞 해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3.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이 막혀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4.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쳐서 내 영광을 드러내어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5.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정보가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려 먹지 않고 풀어 보내다니, 안 될 일이다.”라고 하였다. 6. 파라오는 병거에 말을 메워 백성을 거느리고 나섰다. 7. 특수 병거 육백 대로 편성된 정예부대를 앞세워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나섰다. 8. 야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그는,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었다. 9. 이리하여 파라오의 병거와 기마, 기병, 보병 등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뒤쫓아 비하히롯 근처 비알스 본 앞 해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 잡았다.

10. 파라오가 다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이집트인들이 덮칠 듯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질겁을 하고 야훼께 부르짖으며 11. 모세를 원망하였다. “이집트에는 문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에서 죽이려는 것이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느냐? 12.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13.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두려워 말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14.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15.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16.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여라. 17.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를 뒤따라 들어서게 되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을 쳐서 영광을 드러내리라. 18.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이 비로소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19.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던

하느님의 천사가 뒤로 돌아 가 호위하자 그들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가 20. 이집트의 진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섰다. 그러자 구름 때문에 캄캄해져서 서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밤을 새웠다. 21.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야훼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 붙여 바다를 말리셨다. 바다가 갈라지자 22.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23. 이집트인들이 뒤쫓아 왔다.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섰다. 24. 새벽녘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자 이집트 군대는 갈팡질팡하였다. 25. 또한 야훼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들을 얽어 놓아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야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군대를 치신다”하고 소리쳤다. 2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에 물이 도로 덮이게 네 팔을 바다 위로 뻗쳐라.” 27. 모세는 팔을 바다 위로 뻗쳤다. 날이 새자 바닷물이 제 자리로 돌아 왔다. 이집트인들은 물결을 무릅쓰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야훼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속에 처넣으셨다. 28. 물결이 도로 밀려오며 병거와 기병을 모두 삼켜 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에 들어섰던 파라오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29.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30. 그 날, 야훼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 군대로부터 건지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해변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31.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께서 그 큰 팔을 펴시어 이집트인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 야훼를 두려워 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을 언제나 보호하신다.
- * 선은 사랑되어야 하는바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르게 해서 안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스스로 실감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꺼내기 시작하신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축해 두신 하느님의 말씀을 꺼내셔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세상이 아닌 천국임을 알려 주시며, 우리가 세상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어린 아이들 처럼 되어 재출발하는 지점에 위치해야 함을 상기 시켜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것은 세상적 욕망과 추론이 우리를 잡아 두려고 재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역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때란 우리가 세상적인 것 속에 파묻힌 영혼을 해치는 재난들을 더욱 더 실감하게 될 때 가능하다. 이것은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을 이집트인들에게 하나씩 내려 마지막으로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가도록 허락할 때까지 그것이 계속되는 것과 같다. 이집트를 떠나는 저녁을 기념하는 과월절 축제란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꺼내 주셨음을 감사하는 축제이다.

어떤 교파는 「개종(conversion)」이란 단어를 크게 강조하며, 각 개인의 개종을 위한 프로그램도 꽤 다양하다. 개종이란 이 방향에서 저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turning)을 의미한다.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환이 꼭 필요하며, 우리의 마음이 “이집트를 떠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결심은 과월절을 기념하는 순간과 같은 것이며, 이 순간은 천국을 향한 여정의 첫 단계가 된다. 하지만 개종의 계기가 어느 유명하다는 부흥사의 감정적인 호소와 같은 순간적인 감정의 격화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의 천국을 향한 여정은 오히려 퇴보(backslide)해 버리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결심은 즉각적인 개종이라는 행동과 동시에 모세로 표현된 하느님의 말씀을 스스로의 안내자로 삼아 삶의 새로운 길 안에서 꾸준한 진보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안내와 보호 하에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한 것에 해당된다.

본장의 이야기는 이 여행 중에 만나게 되는 첫 시험과 그 시험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민족을 예전의 노예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그들을 추격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의 나쁜 생활 습관을 버리기 위해 여러 가지를 분석하며 충분한 다짐과 열성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의 나쁜 습관이 곧바로 우리를 뒤쫓아 붙잡으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아예 시작 초부터 과거의 습관이 지닌 강한 힘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들은 홍해라는 바다로 상징되어 있다. 주님에 의해 잘 훈육되어 있는 모세가 자기 팔을 바다 앞에 뻗치자 바다가 갈라졌다. 이처럼 우리 역시 시험에 다칠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 그들을 뒤쫓아 오던 이집트 군대를 삼켜버린 바다를 바라보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시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경험으로서의 확신에 해당되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다. 모든 시험은 주님의 권능 아래서 극복되며 그분은 우리에게 있던 악들의 실질적인 무능력이 보여 지도록 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순종하면 그분은 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제 1반

파라오, 모세, 과월절, 그리고 홍해바다에 대해 기억하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노예가 된 이유는 그들이 홍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으며 홍년이 끝났는데도 가나안으로 되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기억하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모세의 팔을 통하여 드러내신 권능과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보호하시는지에 대해 설명하자.

모세는 이집트인에 대응하면서까지 그의 백성을 옹호하여 파라오를 화나게 했고 그로 인해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서 도망가야만 했다. 그는 미디안의 땅으로 갔고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그의 딸 시쁘라와 결혼했다. 모세는 어느 날 시내산 근처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중에 수풀에 불이 붙어 있었으나 그 수풀이 타고 있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모세가 그 광경을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서자 주님께서 불붙은 가지땀불 사이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질문 및 요점정리

- * 주님은 모세에게 이집트로 되돌아가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다.
- *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이 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열 가지 재앙을 차례로 이집트에 내렸고 결국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이 떠나도록 했다.
- * 이집트인들은 금, 은, 보석,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까지 히브리인들에게 내주면서 그들이 가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
- * 그들은 출발 직전 축제를 가졌는데 이것이 과월절이다.
- * 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 나오기 전에 파라오의 마음이 변해서 그들을 추격했다.
- *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을 어디에서 뒤따라 잡았는가?
- *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집트 군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 *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 했다.
- * 그런 다음 주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 이스라엘 후손들은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는가?
- * 뒤쫓아 온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제 2반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는 것과 열 가지 재앙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며, 본장을 통해 우리 각자가 이 이야기들을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자. 과월절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명확히 알고 매년 이 날을 기념하라는 명령이 있었음도 알아 두자. 그리고 성서 지도를 보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었음도 확인해 보자. 또한 우리가 옳다고 인정하는 일들을 주님에 대한 신뢰와 그의 보호하심을 믿는 가운데 굳건히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특별히 강조 하자.

질문 정리

- *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념한 축제가 왜 과월절(passover)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 * 이 축제를 일 년에 몇 번 기념하도록 명령받았는가?

- * 이 축제를 어떻게 기념하였는가?
- * 그들은 과월절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먹었는가?
- * 그들은 어디로 행군했는가?
- * 이스라엘 후손들이 위의 것들 외에 또 무엇을 가지고 떠났는가? (출애굽기 12:37)
- * 파라오는 그들을 어떻게 추격했는가?
- * 파라오는 어디서 이스라엘인들을 따라 잡게 되었는가?
- * 그들은 누구를 원망했는가?
- * 모세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 주님께서서는 밤새도록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 * 주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 *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 * 이집트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집트에 내려진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었으며 특별히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서는 과월절의 달이 매 년 첫 달이 되도록 그들의 달력을 바꾸라고 말씀하셨다. 이 첫 달은 봄철에 속하며, 이 달력은 달의 변화에 따라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태양력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태양력으로 보면 과월절은 3월이나 4월 중에 해당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때가 과월절 주간이었기 때문에 부활절은 특정날짜를 정하는 대신 유대인들의 과월절이 끝난 직후에 기념하게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광야 여행 동안 인도하기 위해서 낮의 구름기둥과 밤의 불기둥을 설비하셨다. 이 기둥은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는데, 이것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고 이것이 움직이면 그들도 따라 움직였다. 이 지역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지중해를 따라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하면 그들의 여행 거리가 단축됨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새화된 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투력 또한 강해보였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출애굽기 13장 17-18)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이 떠나는 것을 무척 기뻐해 그들에게 금, 은, 보석,

먹을 것, 입을 것 까지 내주었다. 그러나 파라오는 노예인 히브리인들을 잃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들이 출발한 직후 마음을 바꾸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은 짐 보따리, 가축 떼, 부녀자,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였으므로 빨리 행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 군대와 홍해 사이에 놓이는 곤경에 처했고 그들은 배마져 없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항상 보호될 것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었듯이, 주님의 진리는 우리와 악 사이에 존재한다. 우리는 간혹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 지적 받기도 한다. 우리의 삶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시험 혹은 위험을 겪게 될 때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신다.

제 3반

유대인에게 과월절과 우리들에게 과월절의 의미 그리고 기독교가 왜 과월절 대신 성찬식을 갖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어떤 어려운 일에 좋은 해결점이 발견되면 비록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하더라도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유사유종을 이룰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야 됨도 강조할 사항이다.

부활은 주님께서 악의 영향력에 노예화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탄생(Advent)보다도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절을 교회 달력의 시작으로 삼았다. 과월절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월절을 그들의 달력의 시작으로 삼았다. 후에 유대교로 불리는 종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떠난 달을 그들 달력의 첫 달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기에 맞추어 그들의 종교의 달력을 작성한다. 그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달력 이외에도 태양력과 다른 달력을 사용하였다. 이 달력은 초가을을 새해로 삼는다. 과월절은 유대인의 종교 달력의 첫 달 14일부터 21일까지로서 일주일간 기념된다. 주님께서도 과월절을 기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주님께서

기념하신 마지막 과월절은 그분의 마지막을 준비하기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과월절은 부활절 앞 주간 즉 우리의 고난 주간(Holy Week)에 해당된다. 과월절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셨다. 이것이 기독교가 과월절 대신 성찬식을 기념하는 이유다.

과월절이란 명칭은 열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어가던 날 밤에 히브리인들의 집은 재앙이 건너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재앙은 열 번째로 마지막 재앙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차서 더 이상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때 오게 되는 마지막 결과에 대한 묘사이다. 과월절 축제는 이집트의 속박에서 유대인들이 해방됨을 기념하기 위한 것같이 우리가 세상적이며 이기적인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늘 인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Lamb)은 순진함을 상징하며, 이 순진함은 우리들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사랑되어야 함을 뜻한다. 「순진 (innocence)」이란 단어는 글자적 뜻으로는 「무해 (harmlessness)」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생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기회가 있으면 악한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다분한 것이 우리 자신임을 인식하여 주님을 자신의 안내자와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삼아 그분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존하는 것을 뜻한다. 양을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은 사랑이 순진함의 심장에 해당됨을 의미하고, 누룩 없는 빵이란 거짓 사상이 혼합되지 않은 선함(Goodness)을 의미한다. 쓴 나물이란 천국으로 향한 여정에는 고난이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 히브리인들이 과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도록 했던 것 같이 주님께서는 천국을 향한 여정의 출발을 완료한 좋은 결의가 우리의 삶에 즉시 있어야 한다고 권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거쳐야만 되는 영적 성장의 여정을 묘사한다. 그 여정이 담고 있는 상징성은 세상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을 삶의 기준으로 했던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단념해간다는 것이다. 천국적 인격인 가나안 땅의 근처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유혹을 물리치고 많은 적들을 무찔러야만 한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 묘사된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여정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스웨덴북은 이

기둥들에 대해 그들 사이에 있었던 천사들의 군대 또는 천사들의 집단이라고 설명한다. 주님의 천사들이란 진리의 전달자로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며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주님이 살아계시는 말씀(성경)을 의미하며 이것이 우리를 늘 인도한다. 낮은 우리의 영적 수준이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때를 의미하며 밝은 의심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때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여행을 떠남에 있어서 담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행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기적인 삶에 대한 미련들이 전진하고 있는 우리를 뒤쫓아 과거의 삶으로 되돌려 놓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의혹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에는 난관들로 인해 여행을 포기하려 들기도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에는 물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에서 죽이려는 것이냐?”하며 모세와 여호와를 원망하며 부르짖는 것을 통해 묘사된다. 그러나 주님은 모세를 통해 “두려워 말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첫째 덕목은 꾸준함과 주님에 대한 신뢰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했을 때 주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주위를 둘러싸게 하여 그들을 보호하셨고 이집트 군대에게는 캄캄하게 하여 꼼짝 못하게 하셨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안내자일 뿐만 아니라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악이 말씀 속의 진리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악한 마음은 자아 속으로만 방향을 잡고 있어서 늘 어둡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9-21절을 읽어 보자. 홍해는 악과 거짓이 축적된 상태를 묘사하며, 스웨덴붉은 그것이 곧 지옥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과감하게 전진하려고 하면 주님은 모세의 팔을 쓰셔서 우리 앞의 어려운 장벽, 홍해를 갈라 주신다. 모세의 팔은 하느님의 법을 의미한다.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서서 주님이 길을 여는 대로 곧장 전진해야 한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난관들을 물리친 후 돌이켜 보면, 주님 앞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알게 된다.

기본 상응 공부

빵 = 선함

누룩 = 거짓

불 =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진리

구름 = 지상에 형체를 가지고 있는 진리 또는 말씀을 담은 글자

홍해 = 악으로부터 나와 축적된 거짓 또는 지옥

제 4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결심은 과일절이라는 기념행사로 이집트에서 나가는 신호가 울리는 것과 같다. 우리의 외적 행동 지침이 재정리되어 재형성되는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에 속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으로부터 새 의지(New Will)를 받는 것 또는 거듭나는 과정은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기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한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그에 대한 상응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집트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는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시작하는 때에 끝나는데, 이것은 노예 상태라는 하나의 고난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기는 하지만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자. 또한 열 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지고 마침내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은 후에야 「파라오」가 항복하는 것을 기억해 보자. 장자는 믿음을 상징한다. 만약 누군가가 「파라오」처럼 세상적이며 이기적인 것만 고집 부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클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마저 잃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물질적 세계를 초월한 존재들을 믿지 못한다. 이스라엘인들은 이집트를 떠날 때 금, 은으로 만들어진 값진 장신구들을 이집트인들로부터 취한다. 이것은 최후의 순간이 오면 각 개인의 영적 생활에 속한 것들은 비록 이것들이 악한 것과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섭리에 의해 선에 속하는 것들이 악에 속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12:35-36).

이스라엘인은 모든 재앙을 이집트인들처럼 겪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인들의 삶에 무서운 재난이 있음을 보고 이집트를 빠져 나오기 위해 모세를 따르려 했다.

그들이 마지막 큰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순종한다는 일련의 표시가 있어야 했다. 이것이 바로 과월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좌우 문설주와 문상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 축제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양은 순수하고 순진한 애착들을 상징하며 양의 피는 그 순수한 애착에서 나오는 진실한 생각들을 뜻한다. 집의 문설주나 문상인방은 마음의 입구를 뜻한다. 그리고 피를 바르는 행동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생각이 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수호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양은 물에 삶거나 생으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도록 했는데, 이것은 선은 꼭 사랑 되어야하며 생각 안에서만 맴돌지 않아야 됴을 표현한다. 누룩 없는 빵은 낡은 거짓 사상과 선이 혼합 되서는 안 됴이 원칙이라는 것을 묘사한다. 그 이유는 그 시대에 누룩(leaven, yeast)을 얻는 방법이 앞서 부풀린 빵의 일부를 떼어 저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쓴 나물은 우리가 영적 생활에 이르는 동안 반드시 맞게 되는 시련들을 묘사한다. 과월절 기념 음식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즉 여행 준비를 완료하고 먹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채택되어 지는 새로운 원리들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생활에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속하는 것들도 병행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를 빠져 나올 때 이집트인들의 금, 은, 그리고 의복들을 취한 것으로 묘사된다.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인도하신 광경은 아주 아름다운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구름은 말씀을 담은 글자(letter)를 뜻한다. 주님은 이 글자 안에 그분의 진리를 베일로 덮듯 담고 계시면서 우리의 미약한 영적 시야에 맞춰 진리의 강도를 조절하여 주신다. 우리의 신체적 눈이 태양을 똑바로 응시 못하듯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주님을 직시할 수 없다. 낮은 우리의 심정 상태가 아주 깨끗이 되는 순간에 해당되며, 이때에 주님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성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신다. 밤 즉 우리의 심정 상태가 탁하고 어두울 때에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통해서 어둠을 극복하게 해 주신다. 우리는 가끔 왜 자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시련을 겪게 되는지 의아해 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고 믿고 시련에는 주님

의 좋은 뜻이 숨겨져 있다고 여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실망과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나 친절함 등이 스스로에게서 파괴되지 않도록 애써야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 중에 밤이 점점 지나가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더 깊고 높게 발전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주님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기둥은 「버팀」을 뜻한다.

홍해를 건너는 극적인 광경은 각 사람이 자아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바꿀 때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큰 유혹을 물리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 유혹은 영적 여정의 초기 단계에 오게 된다. 부흥집회 등등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인 계기로 심령이 변화되었다고 믿던 사람들은 이 초기 단계의 유혹, 즉 세상적 욕망이 자신의 중심에 다가서게 되면 바로 이집트로의 속박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가 이 바다는 그냥 건너가기에 너무 깊게 보이며 우리의 의지만으로 바다를 건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바다를 건너가기 원한다면, 주님의 능력 즉 모세의 오른팔은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다. 신앙인의 삶에는 늘 많은 시련과 유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미 이집트를 떠남으로 한 번의 큰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결코 다시 세상적인 욕망과 이기심의 노예로는 돌아가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위해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다.

제 5반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려 노력하고 그분을 기꺼이 신뢰하면, 그분은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심을 반드시 기억하자. 주님 대신 자아만을 신뢰하는 징조가 불안(anxiety)임을 인식하고 예견(foresight)과 걱정(worry)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과월절과 그 의미를 재정리하며 시작하도록 하자. 먼저 이와 관련된 민수기 9장 1-5절, 여호수아 5장 10-12절, 열왕기하 23장 21-23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7-30절을 읽어보자. 이 구절들은 과월절의 첫 기념이 「시나이」광야에서 있었다는 것,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거룩한 땅에 입성한 직 후 길갈에서 기념되었다는 것,

잃어 버렸던 율법 책을 발견한 직후 「요시아」왕 아래서 과월절 행사가 있었다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저녁 때 주님에 의하여 과월절 기념이 있었다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이 네 군데에 있는 과월절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과월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 "개종(conversion)"과 연관이 깊다. 일부 기독교 교파는 개종, 즉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현상을 모두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교의 목적으로 삼아 이를 위해 부흥회와 같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에 호소하는 수단들을 동원한다. 하지만 새교회는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개종이라는 단계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지만, 새교회가 강조하는 개종의 의미는 다른 기독교 교파들과 많이 다르다. 새교회에서의 개종이란 자아 중심적인 삶의 한계와 악함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첫 단계로 어떤 감정적인 감화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기반성과 자아성찰의 결과라고 스웨덴북은 설명한다. 따라서 개종은 거듭나는 삶을 내딛기 위한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 우리는 모두 세상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영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으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애착들의 굴레를 벗어나야겠다는 것을 깨닫고 그와 동시에 나의 인격이 천국적인 인격이 되도록 재구성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긴 여정에 첫발을 내딛어야만 한다. 과월절은 이 결정을 상징해 주고 있다.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는 사건은 어떤 영적 생활도 자연적 생활 그 자체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묘사한다. 과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재앙이 건너가는 것은 모든 영적 삶을 위한 지식과 힘을 주님으로부터 찾아야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묘사한다. 이러한 경험은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하므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기억 속에 늘 되새길 필요가 있다. 특히 삶의 변덕으로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시기 때마다 과월절로 상징되는 바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깨우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성찬식에 경건하게 참석하여 몸과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 또한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선하게 되는 참된 길을 주님과 말씀에서 찾으며 또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보면 세월이 많이 흐른 후 돌아보았을 때 스스로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풍요로웠음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아주 멀어져 더 이상 주님과 내적 결합이 불가능해지자, 주님은 말씀의 상응을 통해 그분과 인간이 연결되는 시기가 올 때까지 유대교회를 통해 비록 걸 부분에 불과한, 즉 표현적인 의미에 불과할지라도 과월절의 모든 행사를 유지하도록 하셨다.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는 그분 스스로 이 빈자리(gap)를 채우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심으로써 과월절이라는 형식적인 행사를 지킬 필요가 없었다. 그리하여 주님은 제자들과 과월절 음식을 드실 때 잔을 드시고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분부 하셨다. 스웨덴북은 이것이 유대 교회의 마지막 과월절이며 기독교회의 첫 번째 과월절이라고 설명한다. 즉 과월절은 유대인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됨을 기념하는 것이고, 성만찬식은 주님께서 지옥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해방됨을 기념하는 것으로 구원이 실재임을 기념하는 것이다. 주님의 만찬 가운데 빵은 과월절의 어린 양 고기에 해당되며 포도주는 양의 피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다. 주님께서 빵과 포도주는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고 과월절의 어린 양이라고도 부르셨다.

주님은 히브리인들에게 과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는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완료하도록 명령하셨다. 우리는 어떤 난관을 극복할 해결점을 찾는 첫 순간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계획 또는 생각들로 인해 기뻐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첫 번째 열의가 생각보다 길게 지속되지 못했던 경험도 있다. 그 이유는 이 해결 방안을 찾은 순간, 그 자체는 우리의 인격의 재구성을 위한 길고 긴 시기의 한 점, 즉 한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 생활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의 근처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법도에 따라 우리의 외적 삶을 순리 안에 정돈해 놓아야 한다. 이스라엘 후손들의 40년간 여정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를 보호해 주며 인도해주는 말씀을 담은 성경의 글자를 의미한다. 구름기둥은 우리의 마음이 아주 깨끗한 낮의 상태를 그리고 불기둥은 의심과 의혹으로 짙은 밤의 상태를 인도하는 주님의 배려임도 알아야 한다. 스웨덴북은 히브리인들과 함께 한 그 두 기둥들을 하느님의 천군 천사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구름은 말씀을 담은 글자를 의미하며 불을 가진 구름(불기둥)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글자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즉 우리의 심정에 와 닿는 하느님의 진리를 뜻한다.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하느님의 법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 큰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결심에 대해 처음으로 오게 되는 시험과 같다. 우리가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재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시험을 통한 자신의 검증은 우리의 긴 영적성장의 여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경험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입증해 주는 생생한 증거의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성급하고 조급했던 모습은 이렇게 대단한 기둥들에 의해 인도되는 모습과는 대비된다. 그들이 고센 땅을 서둘러 떠날 때만 해도 그들은 가나안을 향한 기쁨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갑작스럽게 길을 가로막은 홍해와 뒤쫓아 오는 파라오의 군대를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건널 수 없이 깊게 보이는 홍해를 건너거나, 이집트 군대에 잡혀 죽임을 당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보다 높은 곳으로 발전시키려 하면, 과거의 습관은 재빨리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옛 습관 들의 힘은 곧 바로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짓누른다. 만일 우리가 이 상황을 즉시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와 똑같은 상황으로 되돌아 가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결정한 옳은 길로 가는 것을 건너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홍해처럼 느낀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을 신뢰하고 앞으로만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한다. 홍해란 세상적 혹은 이기적인 삶에 있는 악과 거짓이 바닷물 같이 모여 있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곧 지옥을 상징한다. 그러나 모세의 팔 즉 하느님의 법이 홍해 위에 이르자 위협적으로 보였던 바다가 주님이 일으킨 동풍에 휘말려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그들은 선한 인격의 단단한 기초를 구축하게 된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자마자 자신들이 극복한 유혹이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는 얼마나 무기력한 과거의 습관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는 홍해 안에 침수되는데, 이집트인의 병거는 세상적 사람을 움직이는 거짓 원리를 뜻하며 병거 바퀴는 우리의 영적인 목적에 대항해 전진하려는 힘을 뜻한다. 우리는 본장의 내용과 우리의 새로운 결심에 뒤따르는 첫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생활 중에 이집트에서 그들이 즐겼던 “좋은 것”(민수

기 11:5)을 갈망하며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결코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았음도 기억해야 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8192항): “하느님의 천사가 뒤로 돌아가” (출애굽기 14:19). 이 부분의 의미는 하느님의 진리로 정리정돈 된다는 것이다. 「뒤로 돌아가 (setting out)」가 「정리정돈 (a setting in order)」을 명시하는 이유는 천군 천사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앞에서 전진하다가 이스라엘 진영과 이집트 진영 사이로 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주님은 이집트인들에게는 어둠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빛을 주셨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일을 천군 천사 즉 기둥을 뒤로 옮기시는 순서로 정돈하셨다. 이렇게 주님은 양 진영의 중간에 끼어들어 방해하시는 방법을 쓰셨으므로 「뒤로 돌아가」란 「질서대로 놓으심」 즉 마음이 정리정돈 되는 상황을 뜻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알아야 할 것은 말씀 안에 천사들의 등장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늘도 하느님의 천사라고 말하여지고 이 천사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 앞에 서서 전진한 기둥으로 상징된다. 그리고 이 기둥은 많은 천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 안에서 이름으로 붙여진 천사를 예로 들면, 미카엘 그리고 라파엘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들 천사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 받은 천사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천사들의 이름은 어느 개인적 천사들이 아니라 천사들의 기능 자체를 뜻한 것이며 주님의 신성이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8215항):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들을 엮어 놓아 혹은 병거 바퀴들을 벗겨서” (출애굽기 14:25). 이 문단은 거짓들이 가하는 힘이 제거됨을 의미하는데, 「벗김(take off)」이란 「제거됨, 물러감, 줄어듦(take away)」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바퀴(wheel)」는 전진하는 힘을 의미하고 「과라오의 병거(chariots)」들은 거짓이 만들어 낸 교리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마차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물건을 운반하는 짐마차며 다른 하나는 전쟁에 쓰이는 전차이다. 짐마차는 거짓이란 짐을 운반하는 것 즉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전차는 좋은

면이든지 나쁜 면이든지 양쪽 면에서 교리적 사항에 속하는 것들을 의미하며 거짓과 진리 모두 다 싸움을 위해 준비된다. 이것을 통해 「병거 바퀴」는 전진하는 힘, 여기서는 거짓들이 밀어붙이는 힘 또는 진리에 대항해 싸우려는 힘을 뜻함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면에서 보면 이 힘은 지적 부분에 해당되므로, 「바퀴」란 교리 속에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함하는 지적 부분을 의미한다. 저 세상에도 마차들은 자주 나타난다. 천사들에게 교리에 대한 강연이 천국에서 열릴 때 이러한 마차들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

질문 정리

- 1)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파라오에게 히브리인들을 가게 해달라고 했는가?
- 2)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출발하는 저녁에 했던 큰 축제는 무엇인가?
- 3) 히브리인들이 떠날 때, 이집트인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4) 주님은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 5) 히브리인들이 떠난 후 파라오는 무엇을 했는가?
- 6)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을 어디서 따라 잡았는가?
- 7) 주님은 히브리인들을 밤새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 8) 아침에 히브리인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 9) 히브리인들을 바다 안까지 뒤쫓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 10)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를 떠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 11) 홍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2) 이집트 군대가 파멸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질문의 답

- 1) 재앙들을 내림 2) 과일절 3) 금, 은 그리고 의복 등을 주었음 4)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
- 5) 히브리인들을 뒤쫓았다 6) 홍해 근처에서 7) 양 진영 사이에 기둥을 두심

- 8)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 건넌음 9) 물에 빠져 죽음
10) 세상에 속한 것만을 하다가 그것을 멈추기로 결심하여 영적 생활을 추구함을 묘사한다.
11) 악에서 나오는 거짓이 축적된 상태 12) 세상적 삶의 노예가 되었던 것과 영원히 이별함

10

십계명

머리말

먼저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광경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검토해 보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며 많은 곤란과 위험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심과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3개월째에 시나이 반도에 도착했음도 기억하자. 본장의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출애굽기 제 15장부터 19장까지를 자세히 읽어 두자. 본장은 19장에서 언급된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9장 16-25절, 20장 1-21절

19장: 16. 셋째 날 아침,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시나이산 위에 짙은 구름이 덮이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지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17.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만나 보게 하려고 진지에서 데리고 나와 산기슭에 세웠다. 18. 시나이산은 연기가 자욱하였다. 야훼께서 불 속에서 내려 오셨던 것이다. 가마에서 뿜어 나오듯 연기가 치솟으며 산이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19.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느님께 말씀을 올리자 하느님께서 천둥소리로 대답하셨다. 20. 야훼께서 시나이산 봉우리에 내려 오셔서 모세에게 산봉우리로 오르라고 하시자 모세가 올라갔다. 2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이 백성에게, 야훼를 보려고 마구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 두어라. 22. 야훼에게 가까이 올 사제들도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훼가 내려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 23.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 백성은 시나이산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 산 둘레에 표시를 해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24. 야훼께서 그에게 “그러면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 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나 백성은 야훼를 보러 마구 올라 와서는 안 된다. 올라오면 야훼가 내려 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하고 말씀하시자 25.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 가 그 말씀을 전하였다.

20장: 1. 이 모든 말씀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2. “너희 하느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하느님이다. 3.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4.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 따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5.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삼 대에까지 갚는다. 6.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7.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9. 옛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10. 이렛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 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 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11. 야훼께서 옛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레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훼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12.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13. 살인하지 못한다. 14. 간음하지 못한다.

15. 도둑질하지 못한다. 16.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네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18. 온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자욱한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19.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잘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20.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주었다. “두려워 말아라. 하느님

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21. 모세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맥구름 쪽으로 나아가는 동안 백성은 멀리 서 있었다.

교리 요약

* 십계명은 하느님의 법이며 사람이 지어낸 법이 아니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은 40년간 지속 되었으며 그들은 처음에 이렇게 긴 여정을 짐작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집단은 무려 장정만 60여만 명에 많은 가족 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의 여행이 길었던 것은 여행경로가 길거나 험난했기 보다는 집단내의 불평, 배반, 그리고 소심함으로 인해서였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여행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과거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버리기로 결심한 후,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버리며 좋은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불평과 반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때로 앞에 있는 압박감을 헤쳐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뒤만 더 돌아보게 되는 것에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셨음을 알고 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이 임하신다. 우리가 새로운 진리가 쓰다고 느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라」에서 쓴 물을 발견할 때와 같은 것이다. 주님은 이 쓴 물을 달게 해주는 나무를 보여 주시는데, 이 나무는 섬김을 사랑하는 것을 원리로 삼아야 함을 뜻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휴식과 만족감을 갖는 시기도 주시며, 이것은 「엘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친 상태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불행하다고 느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한 즐거움도 가져다주신다. 이것이 저녁에 이스라엘 진영을 뒤덮은 메추라기 때로 의미된다. 우리는 아침 즉

새로운 심정상태에서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위한 빵 조각을 항상 발견하게 되며, 주님은 또한 말씀의 글자라는 큰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도 해주신다. 아말렉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것처럼, 실망과 의심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른 손을 그분을 향해 들고 하시며 그분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여 그것을 극복하도록 해준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법 뒤에 있는 진정한 목적과 더 상세한 그분의 가르침을 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보다 조직화할 준비를 하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나이 산 밑에서 거의 일 년을 야영하면서 보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있어야 할 도덕적, 시민적, 그리고 종교적 생활을 규율할 완전한 법전을 주셨다. 이리하여 비조직적인 유목민에 불과했던 그들은 그들 삶의 중심에 성막(tabernacle)을 가진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

성막의 지성소에는 「궤(ark)」가 놓여 있고 그 궤 안에는 하느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놓여 있었다.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관련된 첫 계명은 첫째 돌판에, 이웃들에 관련된 의무는 둘째 돌판에 쓰여 있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째로 큰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로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계명은 생생한 하느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어졌다. 그 이유는 이 계명이 우주 만물에 관한 기본법이며 하느님의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이 이 계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 무시하거나 그 일부분을 잊어버리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을 간직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가는 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해 잘 알고 스스로 그것을 반복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 1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도중에 그들이 어떻게 인도 되었으며 그들의 지도자는 누구였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본장에서는 「시나이」라는 지명이 나온다. 시나이 산은 높은 산이었고 이 산 꼭대기에서 주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셨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20장 1절을 강조하면서 십계명의 각 계명들을 외워보자.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군대로부터 구원하셨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그 뒤를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했을 지를 짐작할 수 있다. 모세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했으며, 그의 누이 미리암과 다른 여인들 또한 기뻐 노래를 부르며 춤추었다.

그 후 그들은 광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의해 인도되었다. 그들은 오늘날 웅만한 도시 인구 만큼이나 많은 집단이었고 돌보아야 할 가족 때도 있어서 그들의 여행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한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야 하며, 그것들이 움직이면 텐트를 거두어 그 뒤를 따랐다.

한번은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 메추라기 떼를 주셨다. 또 그들은 빵을 만들기 위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므로 주님은 「만나(Manns)」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이를 모아서 케이크를 만들었고, 이것은 꿀같이 달았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물리치도록 도우셨다.

질문 및 요점정리

- * 그들은 평탄치 않은 여행으로 인해 종종 불평했으나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돌봐주셨다.
- * 석 달 쯤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큰 산 근처에 멈춰서 그들은 그 산 밑에 천막을 지었다.
- *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인가?
- * 그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내리실 것이라고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 셋째 날 번개와 우뢰 소리가 나고 두꺼운 구름이 그 산을 덮으며 나팔 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천막 안에서 벌벌 떨게 되었다.
- * 주님은 맨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 그 후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 * 십계명은 하느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것을 배우고 지켜야 한다.
- * 십계명을 깨트리는 자는 누구도 행복해 질 수 없다.

- * 주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속의 선을 위해 즉 우리를 불행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이다.

제 2반

계명들을 배우고 암기하는데 주력하자. 주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계명들을 주셨음이 강조된다. 모든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의 법인 이 계명에 순종치 않음으로 비롯된다. 우리는 계명들의 하나하나의 글자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음도 알아야 한다.

질문정리

- * 석 달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한 산 이름은 무엇인가?
- * 그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어떤 유명한 법이 그 산에서 주어졌는가?

십계명은 주님의 법으로 주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법이다. 이러한 십계명을 사람들은 마치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였지만 사실 사람들은 이 법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님을 잊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나이산의 꼭대기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로 이 계명들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 마음에 잘 보관할 때만이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으므로 심령으로 이 계명들을 알고 늘 스스로 그것들을 되새겨야 한다. 이 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졌다.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계명은 첫 돌판에 (출애굽기 20:1-11) 속하고 다섯째(제 12절) 계명은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 양쪽에 속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1-4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며 6-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다섯째 계명은 이 두개의 의무를 묶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상에서의 부모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천국적 아버지와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 즉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장 34-40절을 읽어 보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의 어구 “하지 말라”에 불평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렇게 강제적으로 나마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주님께서서

이사야서에서(1:16-17)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착한 길을 익혀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진정으로 옳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나쁜 행실이 먼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계명을 글자 그대로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이 계명의 깊은 의미를 찾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 “도적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돈이나 소유물을 취하는 행동을 도적질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옳은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동료를 조롱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 사람들의 명예를 흠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해진다고 여기고 뽐내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흠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계명들은 잘못된 행동으로 가려는 우리를 보호해 주므로 계명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둘째 돌판의 계명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라는 첫째 돌판의 계명은 소홀히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 선해질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자기만족에 도취되어 옳고 그름을 배우는 것까지 멈추게 될 것이다. 첫째 계명이 처음에 있는 이유는 모든 다른 계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자.

질문정리

- * 열 계명이 시나이 산에서 어떻게 주어졌는가?
- * 어디에 이 계명들은 쓰여졌는가?
- * 첫째 돌판에 쓰여진 계명은 무엇인가?
- * 위의 계명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 * 어느 계명들이 둘째 돌판에 새겨졌는가?
- * 이 계명들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 * 다섯째 쓰여진 계명은 무엇이며, 왜 다섯 번째에 쓰여 졌는가?

제 3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의 첫 두 달간의 여행 동안 그들은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라는 인식만 갖고 있는 단순한 유목민 수준이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이동했을 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방향과 질서도 없었음을 알아본다. 석 달째 되는 날 그들은 시나이 산 밑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11개월을 보냈다. 그 때에 그들에게 십계명, 작은 법령들, 성막의 건축, 그리고 예배의식들이 주어지면서 그들은 먼 여행길과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한 준비와 함께 하나의 국가 체제도 갖추게 됨을 설명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 군대가 몰살당하는 광경은 우리가 좋은 의도를 결심하면서 그에 따라오는 첫 유혹을 극복해내는 상황을 묘사한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에게만 도움을 청할 때 우리의 이기적인 나쁜 습관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실감하게 되는 것을 묘사한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는 큰 기적을 통해 주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에 대해 알게 되어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의혹이 없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시나이 산으로부터 삼 일간의 광야 여행 후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에서 쓴맛이나 마실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즉시 실망하여 불평을 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각오에서 시작된 새 생활은 처음에는 메마르고 쓴 맛 뿐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이기적 습관과 사고방식을 그리워하게 된다. 주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나무를 보여 주심으로써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다. 또 그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짐으로써 달게 만들었다. 나무는 섬김을 사랑하는데서 나오게 되는 원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도착지는 그들과 물이 있는 오아시스였다. 이처럼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평화와 만족감을 갖도록 해 주신다.

그 후 그들이 배고픔을 겪으면서 이집트에 있는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게 되자 주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 주셨고 모세를 통해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지도 보여 주셨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첫 번째 적인 아말렉족과 대적했는데, 모세가 언덕 꼭대기에 앉아서 팔을 들고 아론과 후르가 모세의 팔을 떠받침으로 인해 승리하게 된다. 아말렉족의 공격 수법은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덤벼드는 것 이었다. 아말렉족은 의심과 실망을 상징하며,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걱정에 놓일 때 갑작스럽게 우리를 습격한다.

우리는 십계명에 친숙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실감하지 못한다. 성경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 없이 양육되는 사람들도 도둑질, 살인, 그리고 거짓 증언 등이 나쁘다는 것쯤은 학교 또는 경험을 통해 배워서 안다.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더 앞선 법전에서도 이 계명의 내용이 발견되어 어떤 이들은 시나이 산에서 일어난 성경의 이야기를 신화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은 십계명이 신성한 것이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아주 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지고 있다. 십계명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십계명 중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1-4계명이 나머지 다른 계명을 이끌고 있음을 소홀히 여겨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이웃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한 선이 스스로의 것이 되어서 자기만족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중독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옳지 않다. 주님께서는 “나 없이 너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계명의 글자 안에 있는 더 깊은 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혈육의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며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는 교회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천국적 삶을 발견한다. 따라서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교회와 주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 영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본질이 천국적이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흠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하지만 흠치는 것에도 그 정도가 있는 데 그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주님으로부터 흠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선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행했다고 믿고 모든 선들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타인의 인격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것 또한 타인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계명을 주의 깊게 통찰하고 그것의 더 깊은 의미를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한다.

우리는 각 계명을 글자 그대로만 따르더라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선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될 때를 위해서 열 개의

말씀(Ten Words, 혹은 The Decalogue)의 의미를 더욱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보다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은 마치 굳건하고 단단한 반석 그리고 도시를 에워싼 튼튼한 성벽과 같이 되어서 많은 적들로부터도 안전하게 된다. 우리는 계명들을 배우고 반드시 지켜야하며, “나는 이 계명을 따르지 않아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는 식의 오관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우리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어머니: 교회

제 4반

계명은 하나님의 법으로 글자조차 변질될 수 없다는 것, 건전한 생활을 위해 기본적 규범으로 있어 왔고 계속 존재한다는 것, 천국의 법이라는 것, 심령으로 이 계명을 알고 꾸준히 반복 암기해야 된다는 것, 글자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서도 계명을 언제나 명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격이라는 각자의 집을 짓는 청사진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십계명은 신앙생활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며 주님께서도 복음서에 몇 번이나 계명에 대해 언급하셨다. 예를 들자면, “만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계명들을 지켜라”고 하셨다. 스스로가 신앙인이요 또한 주님을 섬기는 교회 일원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있는 계명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다. 최소한 십계명의 내용과 그것이 말씀의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 무엇인지 정도는 늘 마음에 새기고 다녀야 할 것이다. 계명을 자세히 알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삶으로 지켜낼 수 있겠는가? 신앙으로서 범하기 쉬운 잘못 중의 하나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좋은 사람”이 계명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경향이다.

계명들은 글자에서도 특별한 것을 요구하며, 광범위하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의 삶이 그것들을 따라야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삶의 최고 목표를 주님을 섬기는 것 외에 또 다른 무엇으로 삼거나 혹은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순종심과 경외심이 없다면, 이것이 곧 살인, 간음, 훔침, 거짓 증거, 그리고 탐내는 것으로 이웃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계명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다섯 계명들이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주님 스스로 함축하셔서 “첫째 가고 가장 큰 계명은..... (마태복음 22:38)”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나중 다섯 계명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외형상의 결과만을 강조하는 오관일 뿐이다. 따라서 처음에 오는 다섯 계명들 안에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결과는 실재적으로 더욱 심각하다,

우리가 모든 계명이 가진 더 깊은 의미를 고려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자기 반성과 자기 훈련이 저절로 뒤 따른다. 그 이유는 계명이 우리의 생각과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외향적 질서 생활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1.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은 크든 작든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있게 되는 우리의 동기(motives)와 그것의 근원이 되는 원리(가치관)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찬양하지 말라”는 것이다.

2.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함은 우리의 사고나 뜻함의 기준을 하느님에 속한 것에 두어야 하며 인간이 만든 사상이나 감정에 속한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하느님의 속성들(qualities), 특별히 하느님의 말씀을 내향적으로 경외하며 사랑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것을 단지 인간이 쓴 책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4.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함은 주일은 우리의 주간 중 가장 중요한 날로서 우리의 영적 양식과 성장을 추구하는 날임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5.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 인식의 세계를 열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며 우리의 영적 어머니인 교회를 후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6.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의 뿌리인 미움, 복수,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우리의 심정을 뿌리 뽑아야 함이며 이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다.

7.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의 사고, 언어, 그리고 지침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며, 깊은 뜻으로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의 사상을 섞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8. “훔치지 말라”는 우리 이웃을 무시하거나 해로운 잡담을 금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이웃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어떤 것, 깊은 의미로는 선과 지혜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예를 획득하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훔치는 결과이다.

9.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스스로도 정직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웃이 가진 선(the good)을 인정하고 옹호해 주어야 하며, 우리의 이웃이 가진 악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더 큰 규모는 우리가 소속된 사회, 나라, 그리고 교회로 우리는 더 큰 이웃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

10. “탐내지 말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용하도록 주신 재능과 기회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또는 직업 등이 주님을 섬기기 위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 5반

과거에도 있었던 계명이 그대로 다시 주어진 이유와 첫 돌판에 있는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4반에서 제시된 것을 기초하여 십계명의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본다.

본장의 말씀은 이집트를 뒤로 하고 삭막하고 생소한 광야에 진입해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삶의 변화를 위해 나쁜 습관을 한번 깨뜨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전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다만 용감히 돌진하게 되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만 얻었을 뿐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두 달 동안 여행하는 모습은 우리가 인격을 재구성하는 초기 단계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묘사한다. 이것은 그들이 국가적 형태를 갖추며 국가의 근본이 될

법을 얻게 되는 시나이 산에 도착하기 전에 겪어야만 했던 것들이다.

십계명이 외형상으로 구체화 되었던 때는 모세 시대 훨씬 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것은 아주 오래된 법전들의 기초였다. 성경을 인간에 의해 기록된 책으로만 인정하는 사람들은 시나이 산에서 계명이 주어지는 이야기가 진정한 역사가 아니라 신화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스웨덴북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왜 그렇게 그들의 머리에 박히도록 아주 인상 깊은 방법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계명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계명이 하느님의 법임을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오래 전에 만든 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중의 하나인데 그이유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읽어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에 의해서 써진 역사적, 종교적 기록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어느 목사는 계명의 어떤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음을 입증하려고 책을 쓴 일도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명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이에 대해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천둥과 번개가 있게 하였고 시나이 산을 연기로 뒤덮으셨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계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후 하느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두 돌판 위에 계명들을 쓰셨다. 계명들은 모든 율음과 행복한 삶의 반석인 하느님의 법이며 그것은 개인이나 사회 어느 곳에서도 해당된다.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개의 돌판들을 발견한다. 첫째 돌판의 법들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사항들이며 둘째 돌판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들을 말해 주고 있다. 계명은 대부분 금지 사항들이다. 계명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어투가 눈에 거슬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적인 어투는 거듭남을 시작하여 영적인 여정에 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인격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또는 어떤 시기에 우리는 십계명이 가르치는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단계에 있을 것이고 그러한 때에 이 명령적이고 단호한 어투는 우리가 거짓과 악에 속한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한다. 본문 중의 사람들은 시나이 산 꼭대기에서 취해진 돌판 위에 주님이 손수 새기신 이 진리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우리는 때로

친구나 가족이 주는 조언 또는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이거나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즐겁게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때도 많다. 우리가 이와 같을 때는 똑같은 사랑으로 격려하는 똑같은 충고도 강경한 명령형이나 거친 금지 조항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행동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된다. 다시 써진 돌판은 시나이 산 밑에서 준비된 것으로 모세가 다듬은 돌판이었다. 이것은 생활 속의 진리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이를 수 있는 형태로 놓여 짐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볼 준비가 되기 전에는 강경한 글자의 어조를 통해서라도 계명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기 전에 악한 행실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사야 1:16-17).

주님은 우리가 행복해 지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만약 우리가 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거나 계명의 요구대로 살지 않으면 행복해 질 수가 없다. 계명은 곧 행복한 삶의 반석이다. 우리는 운전 중 도로 표지판들을 통해 가고자 하는 길을 찾게 되거나 가는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지표지판과도 마주치게 되는데, 우리는 때로 그것이 운전엔 불편함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지표지판은 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것이다. 우리가 현명하다면 그것을 지키며 운전할 것이다. 앞서 배웠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은 우리의 타고난 인격이 천국적 인격인 약속된 땅으로 가는 여행을 상징한다. 계명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내자로 주어졌다. 계명은 그들에게 그것에 순종하면 번영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곤란함을 피할 수 없게 됨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우리에게도 계명이 주어져 있다. 우리가 계명을 늘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것을 간직하게 되면, 주님께서서는 이 계명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짓에 유혹되어질 때, 또는 사고가 빈번한 십자로로 질주하기 전에 가까스로 멈춤 표지판을 보아 사고를 예방하는 것처럼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이 아주 위험한 영적인 십자로에 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억된 계명 하나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게 된다.

주님은 계명이 우리의 복지와 행복에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역사의 증언이나 이성적인 추리, 그리고 우리 일상의

경험들에 비추어 보아도 계명이 깨어지면 그러한 삶에는 어떤 평화도, 행복도 없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계명들과 더불어 신명기 6장 24절을 함께 마음에 담아 두도록 하자. “우리를 언제까지나 오늘처럼 이렇게 복되게 잘 살도록 하시려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하느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규정들을 지키라고 분부하신 것이다.”

위의 모든 것은 계명의 글자에서 보여지는 진리이지만, 사실 계명들은 글자 안에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예로 셋째 계명을 생각해 보자.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첫 번째 명확한 의미는 우리가 신성을 더럽히는 언행에 빠져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면 신성을 더럽히는 언행이 잘못된 것이며 그것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왜 중요한지는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더 잘 이해 할 수 있다. 이 계명에서 이름이란 사람 또는 사물이 가진 속성(quality)을 뜻한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호칭 이상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모든 속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나타나 있는 말씀을 의미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단지 그것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책의 일부로 여기며 말씀의 이야기들을 일상 중의 농담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을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생각에 머무르게 된다. 이것은 결국 계명을 깨트리는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신성을 모독하게 되고 그러한 자신의 행위를 자기 합리화로 변호하게 되는 데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해칠 뿐 아니라 남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신성 모독은 특별히 새교회인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인데 그 이유가 새 교회인들은 상응을 통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공부하고 깨우치는 것을 중요시하므로 그것을 악용할 때는 더욱 큰 거짓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말씀이 얼마나 거룩한지 강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고 경외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계명의 전체 내용을 통달해야 한다. 스웨덴북의 천국의 신비 제 8859-8912항을 찾아보면 오늘의 본문이 다뤄지고 있으며, 「진정한 기독교 제 283-331항」에서도 그 깊은 의미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계명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위업과 의미들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진정한 기독교 종교 (True Christian Religion 제 412 - 416항)」: 이웃이란 용어가 진정한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웃이란 상대방 즉 개인 외에 무슨 의미가 더 있느냐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함은 이웃에게 혜택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이웃과 이웃을 사랑함은 개개인이 모여 사회와 국가를 이루듯이 그 안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공동체도 그것의 크기와 관계없이 집합된 사람들이므로 하나의 이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들도 사랑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공동체에 대하여 옳게 뜻하고 행동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있는 선을 참작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의 국가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보다 더 큰 이웃이 된다. 국가를 사랑함이란 공적 복지를 사랑함이 된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며 그 나라에 대해 선한 뜻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사후에도 하느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된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사랑이 진실 된 것으로 그 사랑 안에는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또한 사후 그들은 천국을 자신의 나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내 나라를 사랑하듯 주님의 나라(천국)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은 천국을 이루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영원한 삶을 위하여 태어나는 것이며 영원한 삶은 교회를 통해 인간에게 소개되므로 교회는 보다 높은 측면에서의 이웃으로서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사람들의 모임 또는 건물로서의 교회 그 자체를 사람보다 더 높은 측면에서의 이웃으로서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를 섬기는 성직자가 다른 사람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웃은 아닌 것이다. 성직자는 단지 섬기는 자일뿐이다, 잘 섬기는 만큼 존경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나라는 최고로 높은 측면에서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향한 선행 와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을 인식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정도만큼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있게 된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지역을 통해 가나안으로 여행해야만 했는가?
- 2) 그들이 배고팠을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무엇을 그리워했는가?
- 3)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 4) 석 달 쯤에 그들은 어느 산에 도착했는가?
- 5) 주님으로부터 계명이 내릴 때 그들은 산에 올라가도록 허락 되었는가?
- 6) 셋째 날 아침 그들을 무섭게 만든 광경은 무엇인가?
- 7) 그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는가?
- 8) 맨 처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9) 그 다음 주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 10) 계명은 어떻게 두 그룹으로 구분되는가?
- 11) 첫째 돌판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 12) 둘째 돌판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 13) 이러한 계명은 본문 시대 이전에도 있었는가?
- 14) 주님은 왜 시나이산으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 15) 광야의 여행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질문의 답

- 1) 광야 혹은 사막 2) 양식(고기), 물 3) 만나, 메추라기, 바위로부터 물 4) 시나이산 5) 아니다 6) 천둥과 번개 7) 하느님의 음성 8)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 9) 십계명 10) 첫째 돌판은 1-5계명; 둘째 돌판은 6-10계명 11) 하느님에 대한 의무 12) 이웃에 대한 의무 13) 예 14) 이 계명들이 하느님의 법임을 보여 주시려고
- 15) 재형성 - 영적 삶을 위한 준비시기

11

나답과 아비후

머리말

본과에 앞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산 밑에서 머무는 동안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과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 특히 주님께서 예배 의식에 관한 법을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본과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다. 또한 성막에 관한 내용, 성막에 두개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어긴 분향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성 서 본 문: 레위기 10장

10장: 1.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들고 있는 향로에 불을 담고 그 불에 향을 피우며 야훼께 바쳤다. 그러나 그 불은 야훼께서 지시하신 것과는 다른 불이었다. 2. 야훼 앞으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자 그들은 야훼 앞에서 죽었다. 3. 이것을 보고 모세가 아론에게 일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까이에서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온 백성 앞에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아론은 다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 4.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찌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놓고 “어서 가서 너의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지 밖으로 끌어내어라” 하고 일렀다. 5. 그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들어가서 조카들의 속옷을 잡고 진지 밖으로 끌어내었다. 6.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르아잘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시오. 그러다가는 죽을 것이요. 야훼께서 분노하신 것은 온 회중에게 하신 것이니, 야훼께서 태워 죽이신 자들을 위하여 한 겨레인 이스라엘 온 가문이 곡해야 할 것이요. 7. 그대들은 만민의 장막

문간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나가면 죽을 것이요. 그대들은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해 주신 사람들이 아니오?” 그들은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8.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9. “네가 아들들을 거느리고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 갈 때에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면 죽으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정이다. 10.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간할 때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간할 때에도 마시면 안 된다. 11. 또 야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때에도 마시면 안 된다.” 12. 모세는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야훼께 살라 바치고 남은 곡식예물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을 제단 옆에서 먹으시오.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이요. 13. 거룩한 자리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야훼께 살라 바친 제물 중에서 이것이 형의 몫이요, 형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나는 받았소. 14. 또 흔들어 바친 갈비와 받들어 바친 뒷다리는 형의 아들과 딸들이 형과 함께 깨끗한 자리에서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친교제물에서 형과 형의 아들들에게 돌아 갈 몫이요. 이것이 야훼께서 지시하신 영원히 지킬 규정이요.” 16. 모세는 그들이 속죄제물로 바친 수염소가 어찌 되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이미 불에 태워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추궁하였다. 17. “어찌하여 속죄제물을 거룩한 자리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으로서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회중의 죄악을 치위 버리고 야훼 앞에서 그들의 죄를 벗겨 주려는 것이었다. 18. 그것은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 가는 제물이 아닌 까닭에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 그것을 성소에서 반드시 먹었어야 했다.” 19.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하였다. “그 아이들이 바로 오늘 야훼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다. 그런데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데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야훼께서 좋게 보아 주시겠느냐?” 20. 모세는 이 말을 듣고 그도 그렇겠다고 생각하였다.

교리 요점

* 이기적 동기에 근거한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시킨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레위기는 레위인들에 관한 법을 포함한다. 이 법은 레위인들의 생활지침으로서 그들이 주도하는 성막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이 포함되어 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졌다. 아론의 네 아들은 아론의 보조자가 되었고 아론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는 그의 후손들이 계승하도록 되었다.

성막은 레위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다. 성막의 건축 및 장식물의 세세한 지시는 주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시나이 산에서 내려졌다. 성막은 가장 깊은 방 즉 지성소(Holy of Holies), 바깥방 즉 성소(Holy Place) 그리고 바깥뜰 즉 성막 뜰(Outer Court)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궤(ark)는 지성소 안의 유일한 가구로 하느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놓여져 있었다. 성소 안에는 분향단, 빵을 놓는 테이블 그리고 일곱 가지가 있는 금 촛대가 있었다. 그리고 성막 뜰에는 큰 희생제단과 손을 씻는 큰 놋그릇이 있었다.

두 제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제물은 다양한 이유로 수없이 바쳐졌기 때문에 제단 위의 불은 언제나 타고 있어야 했다. 주님은 이 불이 절대 꺼져서는 안된다고 명령하셨다. (레위기 6:13) 제물은 실질적으로는 “정결하게 만듦”을 의미한다. 다양한 제물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다양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표현한다. 제단 위의 불은 주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을 표현한다. 첫 계명을 통해 배웠듯이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큰 제단에서 불을 취해 향로에 담아 분향단이 있는 성막 안으로 운반했으며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분향 즉 향을 피운다 함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들어 올림을 묘사하는 것이다.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을 읽어 보면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론의 맏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께 이상한 불 (거룩하지 않은 불)을 드렸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나온 불을 삼켜 죽게 되었다. 이상한 불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의 사랑 즉 자아를 사랑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가면, 우리는 이상한 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 우리가 이상한 불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닌 그 이기적 용도에 맞는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와서 결국 우리의 영적 생명이 파괴되어 진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나온 불은 파괴적인 불이 되어 버린다.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캠프 밖으로 운반 되었다.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 안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곡하지 말 것을 명령 받았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의 온 가문이 곡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악이 행해졌을 때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으며 벌은 죄가 가진 필연인 것이다. 우리는 때로 벌의 고통으로 인해 통곡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섬긴다면 벌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통곡해야 할 것이다.

제 1반

「아론(Aron)」은 모세의 형이며 제사장이었다. 그는 네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 2명은 순종적이었고 나머지 2명은 불순종적이었다. 향로에 관한 것과 그것의 용도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행한 일이 용서 받을 수 없었음은 이를 통해 이해될 것이다. 본장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올바르게 행함이 중요한 것임을 배우게 될 것이다.

주님이 시나이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와 그것을 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상기해 보자. 주님은 모세를 산꼭대기로 오도록 부르시고 두 돌판 위에 십계명을 친히 적으셨다. 이 외에도 주님은 모세에게 다른 법령도 많이 주셔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것들을 지키며 규율되도록 하셨고, 특별히 예배에 대한 법칙도 마련해 주셨다.

그들은 특별한 텐트 즉 “성막”이라 불리는 텐트를 지었고 그것이 그들의 교회였다. 주님은 그 성막 안에 있어야 할 가구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성막에는 또 다른 제단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분향단이다. 분향단은 성막 안에 있는 네 가구 중의 하나이다. 이 제단은 나무로 된 것으로 금으로 덧씌워져 있었고 꼭대기 주위는 순금으로 된 판으로 씌워져 있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단에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었다. 이 향을 피우면 아주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각 제사장들은 불이 잘 타도록 향이 뿌려진 숯을 담은 향로를 운반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번제 제단으로부터 숯을 가져다가 자기 향로에 담았다.

요점 및 질문정리

- * 성막 안의 두 방에 있는 가구는 어떤 것인지 기억하는가?
- * 바깥 뜰에는 손을 씻기 위한 큰 놋쇠로 된 물그릇과 제물을 바칠 큰 놋쇠제단이 있다.
- * 모세의 형인 아론은 제일 높은 제사장이었다.
- * 그의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잘, 이다말은 제사장을 보조했다.
- * 엘르아잘과 이다말은 충성스런 제사장 이었으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 못했다.
- *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 * 불은 바깥뜰에 있는 큰 제단에서 가져 오도록 되어 있었다.
- * 예배에 대한 모든 행동은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수행되었다.
- *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이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 * 그들은 어떻게 잘못을 했는가?
- * 그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의 친척이 죽었을 때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관습이 있었다.
- * 주님께서는 아론과 남은 아들에게 위의 관습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 * 이 사건은 그들이 성막 안에서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었음을 그들의 백성에게 주지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벌을 받아야 마땅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식시켜 주었다.

제 2반

본장에서는 우리가 고대 히브리인들의 예배를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 큰 제단에서 오는 불과 “이상한” 불 또는 거룩하지 않은 불의 의미, 그리고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본다.

주님은 모세에게 시나이 산에서 각 개인,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종교생활을 통치할 법을 주셨다. 또한 성막을 짓고 그 안의 가구를 만드는데 따르는 특별한 지시도 내리셨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의 각종 임무와 예배를 위해 따로 구분되어 졌다. 모세의 형인 아론은 제일 높은 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그를 보조했다. 그의 네 아들의 이름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잘과 이다말이다. 시나이산에서 주어진 많은 법들은 레위기 책 안에 보존되어 있으며, 성막에서의 모든 예배절차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30장 1,7,8절 그리고 레위기 16장 12절을 통해 분향을 위한 법을 알 수 있다.

향로란 향을 피울 불을 운반하는 그릇이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성냥 같은 재료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행을 하면서 불도 계속 운반해야 했다. 큰 제단에 있는 불은 그들이 제물을 바치는 것에 상관없이 언제나 켜져 있도록 보존했다. 레위기 6장 6절 (혹은 개역 성경의 6장 13절)을 읽어 보자. 불은 사랑을 상징하며, 특히 제단 위에 있는 늘 타고 있는 불이란 메시에 있게 되는 동기(motive) 속에는 반드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향이란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기도를 표현한다. 계시록 5장 8절을 읽어 보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 때로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로 교회에 참석한다. 즉 우리의 윤택한 생활, 이성과의 만남, 혹은 자신의 사업 선전을 위함 같이 순수한 예배 이외의 어떤 것을 병행하여 교회에 참석하기도 한다. 자아를 사랑함은 주님을 사랑함과 정반대이며, 이것은 “이상한” 불 또는 거룩하지 않은 불을 뜻한다.

우리는 예배의 의미가 고대 히브리인의 외형적 제례행위로 표현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구약성서를 기록하시기 위해 아주 외적인 것만을 집요하게 고집하는 고대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들 예배의 모든 상세한 절차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것과 똑같이 지켜졌다. 이것은 그 상세함이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의 내적 의미가 형식이 변함으로 인해서 상실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 그 외적 질서를 보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목적을 위한 용도에 맞지 않아 존재할 가치가 없었으므로,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했을

때 참혹한 변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지휘자에 호흡을 맞추지 못하는 연주자가 몇 번의 연습을 거친 후에도 시정되지 못할 때, 결국은 지휘자가 그 연주자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과 같다. 우리가 이기적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참석한다면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 주신다. 하지만 우리의 이기심은 주님의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 바꾸어 버린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의 결과는 스스로의 편리나 스스로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해 행동에 옮겨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 삶은 파괴되어 진다. 어떤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행한 일이 화형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주님에 대한 불순종임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된 것을 시도했던 것이 결국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들의 친척이 죽으면 슬픔의 표현으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깎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혹하게 타 죽은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 슬퍼했어야하나 주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걸치고 기쁨 부어 성별(聖別)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벌을 받게 될 때 불행하게 느낀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받은 벌로 인해 불행해 하지 않으며 잘못으로 인해 받는 벌을 당연하게 여긴다.

악한 행동은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할 때에도 늘 일련의 대가(벌)를 치른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지성과 심정이 받는 피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보다 더 심각하다. 주님이 우리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들의 결과가 곧 벌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간직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3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무척 깊고 중요하다. “부정한 불”의 의미와 레위기서의

특성에 대해 공부한다. 또한 우리가 설령 주님의 명령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께 순종하며 작은 일도 옳게 행하려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받는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성경 글자대로의 법칙 즉 외적 예배를 중요시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외적 예배를 드리도록 보존하셨다. 그들에게 예배에 대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는 것은 마음속에 감추어진 악을 행실로 드러난 악보다 심각하게 여기는 것만큼 중대한 일이었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악은 그 정도에 상관없이 그에 맞는 벌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영원한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과실 또는 악행에 따르는 마땅한 책임에 대해 억울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과실이나 악행이 진정으로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벌이기 때문이다.

향을 피우는 법은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이 시나이 산에서 내리신 명백한 법과 훈령 가운데 있는 항목 중 하나이다. 이 법은 특별히 레위인들이 주목해야 할 법이었다. 향은 지성소 입구에 위치한 베일 앞방의 성소에 놓인 분향단에서 피우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그것은 아침저녁으로 피우도록 지시되었다. 이 향은 때죽 나무, 향조 껌질, 풍지향 그리고 순수한 몰약으로 구성되었다. 향로에 담는 불은 성막 뜰에 있는 큰 제단의 계속 타고 있는 불로부터 취하도록 했었다. 이 불은 우리가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음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모든 예배가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이 “불”로부터만 분향단에 불이 부쳐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동기(motive)로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광경과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예가 그것이다. 이러한 이기적인 동기가 바로 “부정한 불” 또는 거룩치 않은 불이다. 이러한 동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종 선함들이 이기적 마음의 통로를 지나면서 변질되어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적 생명을 파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거룩한 것이 이기적 용도 또는 스스로의 욕구를 위해 이용될 때 신성모독(profanation)이라고 하며 이것은 모든 선한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향로에 부정한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불이 그들을 파괴시켜 버린 것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속옷을 입은 채”로 진지 밖으로 끌어내졌다. 제사장들의 속옷(tunic)은 말씀 속에 있는 진리(뜻)을 표현 한다. 시나이 산에서 지시된 대로 배치된 이스라엘의 캠프는 천국의 배치도며 천국적 인격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캠프 밖으로 끌어내어짐은 바로 지옥으로 던져짐을 뜻한다. 특히 속옷을 입힌 채로 끌어내어짐은 외적 예배를 모독할 때 내적 예배 역시 더럽혀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혹 사람들은 교회 조직이 궁극적인 참된 교회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비난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 조직은 참된 교회가 지상에 있게 해주는 몸이며 교인들인 우리는 그 몸의 일부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교회를 비난함은 곧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며 교회를 떠남은 외적 형태의 교회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을 차단하는 것이다.

스웨덴봄은 그의 저서 계시록 설명 제 324항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 즉 번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불로 예배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타 죽었듯이 저 세계에서도 불로 태워져 버렸다”고 설명한다.

기본 상응 공부

- 불 = 사랑 또는 미워함
- 큰 제단위의 불 = 주님을 사랑함
- 이상한 불 = 자아를 사랑함
- 향 = 기도 또는 공적예배

제 4반

본문의 의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 동기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해가 되는 상황들을 떠올려 보자.

레위기서에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주 드물다. 대부분의 내용이 고대 히브리인에 대한 지침 특히 그들의 예배, 제물, 헌납문제 그리고 기념축제 등에 관한 규정들이어서 개인적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중요하지 않은 말씀들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 책의 이름은 레위 지파로부터 붙여진 것이며, 내용은 성막에서의 예배와 직무를 위해 타지파와 분리된 레위지파와 관련된 사항이 많다. 모세의 형 아론은 주님께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이 직무를 맡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론의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잘, 이다말-도 보조 제사장들로 임명되었다. 후에 엘르아잘은 아론의 후계자가 되었다. (민수기 20:22-29)

고대 히브리 교회는 단지 표현적인 교회 (representative church)였다. 히브리인들은 진정한 내적 예배에 관한 지식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외적 예배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주님께 의해 선택되었다. 즉 그들은 주님이 내적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시는 시기가 될 때까지 상응(correspondence)으로 인간과 주님 사이를 연결시켜 외적 형태를 보존하며, 처벌에 대한 공포와 순종에 따른 보상으로 이끌어 지기에 아주 적합한 민족이었다고 스웨덴북은 설명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러한 법에 대한 원칙성은 구약성서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으로, 별로 중요치 않은 규정을 어겼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엄히 심판하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벌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처벌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임 또한 주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상징하는 것이 표현적인 교회이기 때문이다. 표현적인 교회는 가시적인 형태로 그 안에 담긴 천국과 영적인 교회에 대한 것들을 상응으로 담고 있으므로 조그만 규정을 어기는 것 또한 상응으로 본다면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표현적인 교회의 또 다른 특성은 이 교회에 속한 이들은 모든 것을 흑.백의 논리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계명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본문에 있는 아주 깊은 교훈 몇 가지를 레위인들에 대한 법에서 찾아보자. 레위기 16장 12-13절을 보면, 향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에 의해 바쳐질 때 그들의 향로들은

성막 뜰에 설비된 큰 번제단의 타고 있는 숯불로 채워지도록 했었다. 큰 제단이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의미하며, 모든 것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쓰여야 함을 인식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 큰 제단의 불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다. 향로에 담은 숯불 위에 뿌려져 바쳐지는 향은 우리의 기도, 예배, 혹은 감사드림을 표현한다. 계시록 5장 8절,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네 생물과 스물 네 장로는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섰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를 통해 우리는 향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향을 바치는 것에 관한 이 법은 우리의 기도와 감사함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의 가치 없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 있음을 뜻한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담은 “부정한” 혹은 거룩하지 않은 불이란 예배 안에 있는 이기적 동기들을 뜻한다. 만일 우리가 존경받고 싶음, 사업의 발전,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선하다고 여기게 하기 위함 등의 이유로 교회에 참석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부정한 불을 바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한 불에 대한 벌을 설사 죽어 저 세계로 갈 때까지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답과 아비후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즉각적이며 철저하다. 이러한 원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그대로 작용하게 된다. 제단 위의 불이 두 사람을 삼켜버렸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구하였으나 그것이 이기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불에 삼켜졌듯이 그들의 영적 생명은 소멸하고, “성소에서 진지 밖으로” 끌어 내어지는 것처럼 천국 밖으로 내쳐지게 된다.

마태복음 8장 10-12절과 마태복음 23장 23-33절을 참조하여 본문과 대조해 보자. 주님께서 아주 강경하게 꾸짖으신 죄는 위선이다. 나답과 아비후의 변사는 위선적 예배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경고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도록 허용되었지만, 아론과 나며지 두 아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도록 명령되었다. 인간적 측면에서는 악한 것을 행한 자가 대가를 치르는 모습도 애처롭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높은 이해성이 공의를 인식하면, 우리는 악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하느님의 법은 창조된 모든 세계를 유지하

는 기본적인 법이다. 만약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지낼 수 있게 된다면, 삼라만상의 질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며 진정한 행복과 평화에 대한 어떤 희망과 그것에 대한 가능성도 잃게 될 것이다.

제 5반

공적예배와 장차 우리가 어떤 영(spirit)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과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도 알아본다.

1884년경 주일 성경공부를 위해 출간된 책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해이든(Wm. B. Hayden) 목사는 레위기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히브리인들은 레위기서를 「와이이크라(Vayyikra)」라 불렀는데 이 단어는 레위기서의 첫 말씀으로부터 인용한 것이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야훼께서 만민의 장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야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사실상 이 레위기서의 요점이다. 하느님의 음성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름(call)”은 성경의 여러 곳에 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은 레위기서의 모든 항목과 법령의 첫 머리에서 반복되며, 사실상 거의 전 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야훼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시키시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계명이다”로 레위기서를 마침으로,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근원되었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책명 레위기(Leviticus)는 그리스어의 레위티케(Leuitikon), 의미상으로는 레위인에 속한 것(Levitical, or that pertains to the Levites)에서 파생된 라틴어이다. 레위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의무에 대해서 아주 폭 넓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봉직되고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 앞에 이상한 불을 바치는 것에 관련된 8-10장까지의 역사적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내용이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들은 제물과 헌납, 순수함과 불순함, 거룩한 날과 기념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교도 국가를 구분하는 규정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26장에는 야훼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음이 기록되어 있고, 27장에는 서약에 관한 규정이 쓰여 있다.

출애굽기 3장을 상기해 보자. 주님이 모세를 불붙은 가시덤불 사이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주님이 내리시는 사명을 사양한 이유는 “말재간(설득력)이 없는 것과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느님의 법을 표현하며 이것은 인간의 심정이나 감성에 즉각적으로 호소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이 그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4장 14-16절에서 “레위 사람인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알기에 그는 말을 썩 잘 하는 사람이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만나 기뻐할 것이다. 네가 할 말을 그에게 들려 주고 그의 입에 넣어 주어라. 나는 네가 말할 때나 그가 말할 때나 너희를 도와 주리라. 너희가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해 줄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느님처럼 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모세와 아론은 언제나 함께 있었다.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성막과 성막에서의 예배에 대한 지시를 시나이 산에서 받았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은 보조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모든 레위족은 성막과 성막에서의 예배에 관한 봉사를 위해 따로 분리되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이 물려받도록 지시되었다. 아론의 네 아들 중 첫째 아들은 나답, 둘째 아들은 아비후, 셋째 아들은 엘르아잘 그리고 넷째 아들은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엘르아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가장 깊은 뜻으로는 주님의 속성 중 신성한 선(Divine Good)을 상징한다. 그러나 영적 측면에서 그는 “영적 교회(Spiritual Church)의 외부에 나타나는 것”을 상징한다. 반면 모세는 “내부에 있는 것”을 표현한다. 아론의 아들들은 말씀에 근거한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를 표현한다. 제사장의 직무는 예배를 인도하며 주님께서 산에서 보여 주신대로 가르치고 하느님의 법도에 의해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이었다. 고대 히브리 교회는 단지 참된 교회를 표현 할 뿐임을 상기해 보자. 이 표현적 교회란 인간들이 예배의 깊은 의미를 모두 잃은 후 주님이 이 교회가 가지는 표현성에 상응으로 깊은 의미들을 담아 주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시던 과도기적인 교회를 말한다. 이 교회는 고대 교회 이후 주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상에 오시는 시기까지 존재했는데 예배를 이루는 외적인 형태만을 유지했으므로

외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그들은 예배에 관한 세부사항 조차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유지해야 했으며, 세부사항을 소홀이 하는 것에 따른 처벌 역시 엄격하게 실천되었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내려진 처벌의 공의로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한 명령 역시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주님이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과 백성들은 슬퍼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연적 혹은 외적 상태로는 악의 결과를 보고 무서워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다 높은 이해성은 이러한 처벌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데 그 이유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것을 악용했을 때의 결과 또한 스스로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 안에서 향이 바쳐질 때 향로에 담을 숯불이 성막 뜰에 있는 큰 제단으로부터 취해져야 된다는 규율을 어겼다. 제단은 사람이 스스로의 자아는 악하며 무지해서 선을 행하기에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모든 선과 진리는 주님의 것이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겸손한 마음을 뜻한다. 제단 위의 불은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일어나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의미한다. 향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기도나 찬양을 의미하나 특별하게는 공적 예배 때에 드리는 기도나 찬양을 표현한다. 따라서 이 법은 우리의 무가치성과 주님의 절대 필요성의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예배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이 그것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한” 또는 기록치 않은 불은 우리의 예배를 자극시키는 이기적 동기들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함”,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 “사업적 영리를 위함” 혹은 “이성적 만남을 위함” 등과 같은 동기들로 주님 대신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목적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향로에 부정한 불을 담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배는 자아사랑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하고 이것이 예배를 관장하게 되어 결국 우리의 영적 생명을 파괴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의 불로 타 죽었다고 쓰여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캄프는 항상 시나이 산에서 명령된 대로 배열되어 있었다. 이 배치도는 천국 또는 천국적 인격을 상징한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불순한

동기로 예배를 보게 되면 우리 역시 캠프 밖으로 속옷을 입은 채 던져진다. 여기서 사제의 겉옷이 아닌 속옷임을 강조하고 있음이 보인다. 이것은 외적 예배(겉옷)가 모독될 때 내적 예배(속옷)에 내려 올 모든 가능성도 함께 파괴되어짐을 뜻한다. 본문의 끝부분은 문자적으로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을 속뜻으로 보면 이 이야기의 연속성이 보여 말씀이 얼마나 질서 정연한 지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성막으로 들어갈 때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말라”는 명령은 주님을 예배할 때에는 영적 혹은 천적을 막론하여 진리로 예배해서는 안 되며 오직 선으로만 예배해야 함을 뜻한다. 이후의 내용에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예배를 파괴하거나 모독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서의 내용이 현대의 생활과 필요성으로 볼 때 시대와 뒤쳐지고 무관한 것처럼 여기며 소홀히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아주 깊고 가장 필수적이며 실용적인 것에 대한 내적 가르침을 담고 있다. 특별히 본문의 이야기는 그 상징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쉽게 기억되고 글자적인 것만으로도 우리의 심정에 와 닿을 수 있으면서도 레위기가 주는 가르침의 중심을 담고 있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INIQUITY

「천국의 신비 제 9965항」: “부정을 범해 죽는 일은 면할 것이다’ (출애굽기 28:43). 이 절의 의미는 예배의 전체가 소멸되어 짐을 말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사제로서의 직분이 상징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온 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있는 악들과 거짓들의 제거됨이라는 것을 언급할 때 설명한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정함을 짚어지는 것’이 뜻하는 바를 참조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천국의 신비 제 9937항 참조) ‘부정을 범해 죽는다’고 말해질 때는 모든 예배가 소멸되어 짐을 의미하는 이유는 그 교회의 어떤 것도 더 이상 천국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표현적인 교회가 죽은 것이 되는 것이다. 또한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부정한 불을 가지고 와서 향을 태웠을 때 그들이 벌을 받아 죽었다는 것은 표현적인 교회가 법규에 따르지 않는 순간 이미 죽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제단 위의 불은

신성한 사랑 즉 주님으로부터만 온 사랑을 상징하고, 부정한 불이란 지옥에서 나온 사랑을 표현한다. 예배가 소멸되어짐이란 부정한 불로 향을 태우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 주님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곧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내리는데, 저주는 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씀의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부정한 불을 사용한 부정한 행위 그 자체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전형적인 예배가 소멸되어 버렸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그들은 죄 가운데 남아있어 저주를 받은 자들의 전형이 되었다. 어느 누구도 외적 규정을 소홀히 했다고 저주 받지 않으나 심령 속의 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저주받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성막이란 무엇인가?
- 2) 대제사장은 누구였는가?
- 3) 아론의 보조자들은 누구였는가?
- 4)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제단은 무엇인가?
- 5) 성막의 어느 곳에 큰 제단이 있었는가?
- 6) 큰 제단은 어떤 때에 사용되었는가?
- 7) 성막의 어느 곳에 분향단이 있었는가?
- 8) 하루에 몇 번씩 분향하였는가?
- 9) 향을 피우기 위한 숯불을 운반하는 그릇은 무엇인가?
- 10) 숯불은 어디서 취했는가?
- 11) 아론의 보조자 중 첫째, 둘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 12) 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 13) 불이 “이상하다”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4) 나답과 아비후에게 무슨 변이 발생했는가?
- 15) 죽은 그들의 몸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 16)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었는가?
- 17) 모세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했는가?
- 18) 향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9) 큰 제단 위의 불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0) “이상한” 또는 기록하지 않은 불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질문의 답

- 1) 운반용 교회 2) 아론 3) 그의 네 아들들 4) 큰 제단(번 제단, great bronze); 분향단 (incense)
- 5) 성막 뜰 (Outer Court) 6) 제물을 바칠 때 (Sacrifices) 7) 성소 (Holy Place)
- 8) 아침과 저녁에 한번씩 9) 향로 (a censer) 10) 큰 제단 11) 나답과 아비후
- 12) “이상한” 불 또는 기록치 않은 불을 드렸음 13) 타당치 않음 14) 불이 그들을 죽임 15) 진영 밖으로 끌어내졌음 16) 슬퍼하지 말라 17) 불에 타 죽은 자들을 위해 통곡하라고 18) 기도 19)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20) 이기적인 목적으로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

12

발람

머리말

본과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며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다는 것,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생활을 마치게 되는 것, 별을 가지고 점을 쳤던 것, 발람과 동방박사가 같은 고향 출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고대 말씀을 계속 받아왔다는 것 등을 알아본다.

성 서 본 문: 민수기 22, 23, 24장

22장: 1. 이스라엘 백성은 또 길을 떠나 예리고 근방, 요르단 건너편 모압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2. 시뵘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3. 모압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효가 너무나 많아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몹시 겁에 질려 4. 미디안 장로들에게 대책을 물었다. “소가 들풀을 뜯어 먹듯이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 버리겠습니까.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때 모압 왕은 시뵘의 아들 발락이었다. 5. 그는 큰 강 가, 아마윗 사람들의 땅 브돌로 사절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오게 하였다. “이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지금 나의 접경에까지 와서 온 땅을 뒤덮고 있소. 6. 어찌나 많은지 나로서는 당할 수가 없으니, 곧 와서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대가 복을 빌어 주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아오.” 7.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복채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자 8. 발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하룻밤 묵으시오.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가부간 대답해 드리리다.” 그래서 모압의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묵었다. 9.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물으셨다. “너를 찾아 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10. 발람은 “시뿔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하며 하느님께 아뢰었다. 11.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뒤덮었으니 어서 와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쳐서 쫓아 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12.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따라 가지 말라. 또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면 안 된다.” 13.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일렀다. “어서들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야훼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을 따라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소.” 14. 그리하여 모압의 고관들은 길을 떠나 발람에게 돌아 와서 발람이 따라 와 주지 않겠다고 보고하였다. 15. 발람은 다시 그들보다도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16.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을 전하였다. “시뿔의 아들 발락의 전갈입니다. ‘나의 청을 거절하지 말고 부디 와 주시오. 17. 잘 대우해 드리리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 줄 터이니 부디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그의 궁궐에 가득 찬 금과 은을 준다고 하여도 나는 갈 수가 없소.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나는 절대로 나의 하느님 야훼의 명령을 어길 수 없소. 19. 그러나 하룻밤만 여기에 묵어 보시오. 야훼께서 다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다.” 20. 그 날 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21.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 나섰다. 22. 하느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보시고 몹시 화가 나셨다. 야훼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의 길을 가로막고 섰다. 마침 발람은 나귀를 타고 두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23. 야훼의 천사가 칼을 빼든 채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은 나귀를 때려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24. 그러자 야훼의 천사는 다시 포도밭 사이 길을 막고 섰다.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는데, 25. 나귀가 야훼의 천사를 보고 벽에 몸을 비비는 바람에 발람의 다리가 벽에 긁히자 그는 다시 채찍질을 하였다. 26. 야훼의 천사가 더 다가서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몸을 뺄 수 없는 좁은 골목으로 몰아 세웠다. 27. 나귀가 야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털썩

주저앉자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28. 마침내 야훼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29. 발람이 나귀에게 “네가 이렇게 나를 놀리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하고 말하자 30.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당신은 나를 줄 곧 타고 다니셨는데 내가 언제 주인께 이런 일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없었다.” 31. 그 때에 야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제야 야훼의 천사가 칼을 뽑아 든 채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본 발람은 고개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 32. 야훼의 천사가 입을 열었다. “어찌하여 너는 네 나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렸느냐? 너는 지금 내 눈에 거슬리는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와 너를 막아 선 것이다.

33. 나귀가 나를 보고 세 번이나 내 앞을 피했기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는 나귀만 살려 주고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34. 발람이 야훼의 천사에게 아뢰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아서 계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눈에 거슬리는 길이라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35. 야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 사람들을 따라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한다”하고 말하자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 발길을 옮겼다.

36.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르논강 가 국경 도시 아르모압에 이르러 그를 맞으며 37.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도 왜 오지 않으셨소? 내가 당신을 잘 대우해 드리지 못할 줄 아셨소?” 38.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못합니다.” 39. 발람은 발락과 동행하여 후셋 마을에 이르렀다. 40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람과 그를 따라 온 고관들에게도 보내 주었다.

41. 아침이 되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지가 끝까지 내려다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23장: 1.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일곱을 쌓고 중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잡아 오시오.” 2. 발락은 발람이 시키는 대로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3.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부탁하였다. “자리를 뜨지

마시고 이 번제물들 옆에 서 계시오.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 주시든지 그대로 알려 드리리다.” 그리고 그는 꼭대기로 올라갔다. 4. 마침 하느님께서 발람을 찾아 오셨다. 발람이 아뢰었다. “일곱 제단을 쌓았고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5. 야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이르셨다. “발람에게로 돌아 가 이리이러하게 일러라.” 6. 발람이 발람에게 돌아 와 보니, 그는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켜 서 있었다. 7.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발람이 나를 아람에서 데려 왔겠다. 모압 임금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 왔겠다. 와서 제 편이 되어 야곱을 저주해 달라고, 와서 제 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욕해 달라고 하였지만 8.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야훼께서 욕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욕하랴. 9. 이 바위 봉우리에서 내려다보고 이 언덕에서 굽어보니, 아, 저 백성, 남과 섞여 살지 않는 민족, 과연 만방에 견줄 데 없는 민족이구나. 10. 야곱은 티끌 같아 헤아릴 수 없고 이스라엘은 먼지 같아 셀 수도 없구나. 내 목숨이 올바른 사람처럼 끝났으면! 내 여생도 그들과 같았으면!” 11. 발람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웬일이오?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청해 왔는데 도리어 복을 빌어 주다니!” 12. 발람이 발람에게 “야훼께서 내 입에 담아 주신 말씀 말고 무슨 말을 하란 말이오?” 하고 대답하자 13. 발람은 그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다. “저자들이 다 보이지 않고 조금만 보이는 곳으로 갑시다. 거기에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14. 그러면서 그는 비스가산 꼭대기 감시소가 있는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갔다. 거기에서도 그는 제단 일곱을 쌓고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15. 발람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저리로 가서 야훼께서 나타나 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자리를 뜨지 말고 이 번제물들 옆에 서 계시오.” 16. 야훼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어 그의 입에 말씀을 담아 주시면서 “발람에게로 돌아가서 이리이러하게 말하여라”하고 일러 주셨다. 17. 발람이 그에게로 돌아 와 보니, 그는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을 떠나지 않고 지켜 서 있었다. 발람은 야훼께서 뭐라고 하시냐고 발람에게 물었다. 18.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발람이여, 일어나 들으시오. 시뵐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19. 하느님께서 사람처럼 거짓말하실 리도 없고 사람의 아들처럼 변덕을 부리실 리도 없으시다오.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실 리 없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리 없으시다오.

20. 그런데 여보시오. 그가 복을 주시는데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가 복을 주시는데 뒤엎을 수 없는 노릇 아니오?

21. 야곱에게 재앙일량 보이지도 않는군요. 이스라엘에게 불행일량 비치지도 않는군요. 그들을 보살피시는 야훼 하느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소리 우렁차군요. 22.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하느님께서 들소 빨처럼 그들을 지켜 주시는군요. 23. 야곱을 꺾을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칠 술법이 없소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에게 말하리다. ‘하느님께서 이렇듯이 큰일을 하셨구나’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리다. 24.보아라, 사자처럼 일어나는 백성을! 사자처럼 한번 몸을 일으키면 잡아먹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잡은 짐승의 피를 다 핥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25.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었다. “좋소! 그들을 저주하지 마시오. 그러나 축복도 하지 마시오.” 26. 발람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일러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7.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청하였다. “내가 당신을 다른 데로 모시겠소. 그리고 갑시다. 행여 그 곳이 하느님의 눈에 들어, 그들을 저주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28.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브올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29. 발람이 발람에게 일렀다. “여기에 일곱 제단을 세우고 중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마련해 오시오.” 30.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24장: 1.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을 야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전처럼 징조를 찾아 나서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2. 발람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3. 그는 푸념하듯이 이렇게 읊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천리안을 가진 사내의 말이다. 4.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환상으로 뵈고 엮어지며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5.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과연 좋구나! 이스라엘아, 네가 머문 곳이 참으로 좋구나!

6. 굽이굽이 뻗은 계곡과 같고

강물을 끼고 꾸며진 동산 같구나. 야훼께서 손수 심으신 느티나무와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송백 같구나. 7.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 나와 땅에 뿌린 씨가 물을 듬뿍 먹는구나. 임금은 아각을 누르리니 국위를 널리 떨치겠구나. 8.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것들을 이끌어 내신 하느님께서 들소 빨처럼 지켜 주시어 적국을 집어 삼키고 그 뼈들을 짓부수고 옆구리를 찌르는 구나.

9.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데 그 사자 같은 자들을 누가 감히 건드리랴! 누구든지 너에게 복을 빌어 주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10. 발락은 율화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너를 불러 왔는데, 너는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11. 당장 너 살던 데로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잘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너는 야훼 때문에 부귀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12.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에게 보낸 사절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 않았습니까? 13. 발락이 궁궐에 가득 찬 은과 금을 준다고 하여도 나는 그것이 좋은 삶든 간에 야훼께서 몸소 주시는 말씀을 어기면 서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4. 이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마당에, 후일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나 알려 드리리다.” 15. 그리고 나서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천리안을 가진 사내의 말이다. 16.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지존하신 이의 생각을 깨치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환상을 뵈고 엿어지며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17. 이 눈에 한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그러나 당장 있을 일은 아니다. 그 모습이 환히 보이는구나. 그러나 눈앞에 다가 온 일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솟는구나.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권이 일어나는구나. 그가 모압 사람들의 관자놀이를 부수고 셋의 후손의 정수리를 모조리 부수리라. 18. 에돔은 그의 속국이 되고 세일은 그의 차지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힘이 뻗치고 19. 야곱은 원수들을 지배하며 아르에서 빠져 나온 피난민을 멸절시키리라.”

20.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읊었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첫째라더니, 결국은 아주 망하고 말겠구나.”

21. 또 그는 켈족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읊었다. “네가 사는 곳은 견고하건만, 바위틈

에 보금자리를 틀어 올렸건만,

22. 카인은 타 죽고 말리라. 끝내 아시리아에게 털리고 말리라.” 23. 그는 또 푸념하듯이 읊었다. “아, 누가 과연 살아 남으랴! 24. 함대가 기뻐 쪽에서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누르고 에벨을 누르겠지만 그들도 결국 망하고 말리라.”

25. 그리고 발람은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발락도 자기 길을 갔다.

교리 요점

- * 고대 교회의 말기에 상응에 관한 지식이 악용되었는데 그것이 성서에 등장하는 마술의 시작이다.
- * 우리가 주님의 법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르게 살기위해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민수기(Numbers)라는 책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산으로부터 출발하기 전, 주님이 사람들의 수를 세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 책의 첫 부분은 사람의 수를 세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제 10장부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서 걷히고 캠프를 거둬서 행군을 시작하게 된다. 나머지 부분은 그들의 여행에 관한 내용이다. 주님에 대한 불평, 반역, 그리고 불신으로 인해 그들은 마지막 캠프인 “예리고 근방, 요르단 건너편 모압 평야”에 도착 하는데 까지 무려 40여 년이 걸렸다.

그들은 여정 동안 많은 적을 무찔렀다. 그들은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족은 해치지 않도록 주님에 의해 명령되었는데, 이것은 그 백성들이 그들의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압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백전백승함을 알고 그들을 두려워했다.

많은 교인들이 발람과 그의 나귀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주는 깊은 교훈을 알기 위해 세심하게 읽는 이는 드물다. 발람은 아람 (시리아) 즉 “동편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 출신이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 역시

이 지역 출신이다. 이곳은 고대 말씀에 관한 지식이 보존되어 온 지역이기도 하다. 성경의 제 11장까지의 말씀은 고대 말씀으로부터 취해져 있다. 본문 24장 17절에서 발람이 별(star)로 예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방박사들도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 경배하러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고대 말씀에서 온 지식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러나 발람은 이러한 지식을 이기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말씀의 진정한 목적 대신 스스로의 명예나 영향력을 얻기 위해 성서로부터 온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발람은 발람이 제공한 대가(보수)에 솔깃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어떤 능력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게 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 알게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옳은 선택만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시지는 않는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기 전에 명백하게 알게 해주신다. 그 후에 우리가 만약 해서는 안 될 것을 선택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주님은 경고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결정한 해서는 안 될 일들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잠깐 멈추고 생각하게 해 주신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이기적 노력의 방향이 바뀌게 하거나 우리의 이기적 노력으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앞서,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했다. 나귀는 우리의 자연적 추론 또는 상식에 해당 된다. 만일 우리가 귀를 늘 열어두고 산다면 말씀에 대한 깊은 공부가 없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기적인 노력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오늘 성서의 본문에서와는 달리 나귀는 인간의 말을 하지는 못한다. 다만, 나귀가 갖는 상응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노새의 입을 통하여 발람에게 들린 것이다.

제 1반

나귀와 천사의 이야기는 가장 흥미 있는 대목으로 본과의 절정에 해당한다. 발람이 십계명을 담은

케를 중심에 두고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왜 그들을 저주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한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없음을 표현한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예배를 규율하는 모든 법을 주셨다.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하자 텐트를 걷어 성막을 가지고 그 기둥들을 따라 나섰다. 두 기둥은 40년 동안 그들이 요르단 강가 거룩한 땅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의 이곳저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갔다.

그들은 광야생활동안 여러 적들과 싸웠지만, 주님께서 당부한 세 민족과는 싸우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 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혈연이었기 때문이다. 이 세 민족은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족이다. 하지만 이들 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모압의 왕 역시 그러했다. 모압의 왕「발락」은 자기 나라 국경 근처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겁에 질려 「발람」이라는 마법사를 초빙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준다면 큰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본문의 요점 및 질문정리

- * 발람은 아람, 즉 시리아에 살았다. 이 지방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다.
- * 발람은 점쟁이로 마법을 가졌다.
- * 모압인과 발락은 발람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했는가?
- * 주님은 발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 발람은 주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그에게 힘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 * 발람은 왜 발락이 요청한 일을 꼭 하고 싶었는가?
- * 발람이 가는 길을 누가 멈추게 했는가?
- * 발람은 몇 번 멈췄는가?
- * 발람을 멈추게 한 것은 주님이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해야 함을 그에게 보여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 * 발락은 어디로 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발람에게 보여 주었는가?
- *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을 몇 번 저주하려 했는가?
- * 그럴 때 마다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 발람은 발락이 요청한 것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민족 일부를 해하게 할 수 있도록 조언했음을 알 수 있다.
- * 발람은 미디안족과 이스라엘족의 전투 중에 살해되었다.
- *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발람과 같은 지역 출신인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다.

제 2반

발람의 배경, 발람의 인격, 고대 말씀과의 연결, 그리고 동방박사 등을 연관하여 생각해 보자.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제로 주었던 피해(harm)와 그의 죽음에 관한 내용도 성경에서 찾아보자.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긴 여행의 마지막 시기에 해당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40년간 그들의 광야여행을 인도했다. 민수기 33장에는 그들이 광야여행 동안 진을 친 장소가 열거되어 있다. 그들은 사해 바다의 꼭대기에서 멀지 않은 요르단 강의 동쪽이며 강만 건너면 예리고인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곳은 원래 모압족의 땅이었으나 아모리족이 빼앗아 차지했던 땅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족과 싸워 이겼으나 혈연관계상 암몬, 에돔족, 그리고 모압족과는 싸우지 말라고 주님으로부터 명령 받았다. 에돔은 에사오의 또 다른 이름 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두 아들이다.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평화스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했다.

발람은 아람 즉 시리아에 살았다.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불리는데, 의미는 “강들 사이에”이며 강들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뜻한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고대 말씀(Ancient Word)을 갖고 있었고 그것에 쓰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상응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었다. 이 지식의 일부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그들 중 일부는 이 지식의 빛을 이기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발람은 악인이었다.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자, 발람은 발락이 제공한 보수에

솔깃하여 그것을 수행하고 싶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힘은 주님으로부터만 오며 그분이 반대하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발람의 여행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통해 상기되고 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가는 동안 발람의 나귀는 천사를 보았다. 나귀는 우리의 자연적 총명(natural intelligence)을 상징한다. 나귀란 동물은 길을 걸을 때 느리지만 실수 없이 걷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의 자연적 총명 역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수 없도록 해주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발람은 천사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 그 이유가 그가 나귀를 타듯이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연적 총명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기적 마음이 가자고 하는 대로 그의 마음이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가 가는 길에 세 번씩이나 장애물을 놓아서 그로 하여금 멈추어 생각하도록 했지만, 그는 그것에 귀 기울이기를 원치 않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그릇된 일임이 분명함에도 그것을 행하려는 쪽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람이 그의 나귀가 다른 길로 들어설 때 원하는 길로 가라고 그것을 때리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릇된 방향으로의 자기합리화이다. 그 후 주님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귀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발람은 그 때에야 천사를 보게 되었다.

주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강요로 인해 행하게 되면 노예와 같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 발람을 막았던 것처럼 길에 장애물을 놓아 우리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해 보도록 배려하신다. 이런 때에 우리는 단순히 장애물을 넘기 위해 애쓰는 대신 다시 한 번 우리가 행하려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나 친구들을 주시고 그들이 본문의 천사처럼 우리가 행하려는 것이 옳은지 혹은 그릇된 것인지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신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주님은 그 행동이 야기하는 결과를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의 대상을 위한 축복으로 바꾸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을 초래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신다.

높은 곳에서 계곡을 바라보던 발람과 발락은 이스라엘의 진영을 훤히 볼 수 있었다. 발람은 숫자, 동물들 그리고 제물에 관한 상응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영계와의 연결을 구축하여 주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이 구원된 것은 이스라엘 진영의 질서 때문이었으며 특히 그 진영의 중심에 성막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도는 천국 또는 천국적 인격의 진정한 질서를 뜻한다. 질서란 스스로의 중심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두면서 그 외의 다른 애착 과 사고가 그 중심과 상호 연결되어 적당한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면 그 어떤 악도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과식 즉 마구 먹고 싶어 하는 유혹 같은 아주 단순한 악을 예로 들어 보자. 우리의 육체는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되도록 주어져 있다. 육체는 적당히 돌보아 주어야 하고 잘 쓸 수 있도록 양분도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좋은 애착 중의 하나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이 애착 (먹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에 왜 먹어야 하는가와 먹는 것의 진정한 목적을 늘 염두에 두면,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의 한쪽 혹은 적당한 위치에 있게 되어 과식하게 되는 유혹 자체가 없어 진다. 우리의 모든 다른 애착도 이처럼 설명될 수 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라도 빼내서 우상숭배나 다른 악으로 빠지게 되도록 하는 정보를 발람에게 주었다. (요한 계시록 2:14) 이것으로 인해 발람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 중에 살해되었다. (민수기 31:8)

본문 24장 17절에 있는 예언들을 살펴보자. 여기서 떠올리게 되는 것은 베들레헴과 별이다. 아주 오랜 후에 별을 따라 온 동방박사도 이 지역 출신이다. 그래서 이들 역시 고대 말씀으로부터 온 지식의 일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이 갖는 예언의 의미도 알고 있었다. 동방박사들은 이 지식을 주님을 발견하며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했다.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질문들

- * 모압왕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 * 발람은 발람에게 몇 번이나 사신을 보냈는가?

- * 발람은 길을 가는 도중 왜 멈췄는가?
- * 발람은 천사를 보기 전 몇 번 멈췄는가?
- * 발람은 발락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 * 발람은 몇 번이나 발락이 원하는 것을 해보려고 했는가?
- * 그때 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 3반

나귀가 갖는 상응에 대해 알아본다. 이스마엘과 나귀의 의미는 서로 비슷하여, 이스마엘은 야생나귀(wild-ass)라고 불리어 진다.(창세기 16:12) 그러나 발람의 나귀는 야생나귀가 아니며 그것은 천사를 보았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애썼던 반면에 발람의 말들이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되어 버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때 우리를 해치려는 악은 무능해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신약성서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주는 교훈과 같다.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도는 시나이 산에서 주님에 의해 지시되었다. 이 배치도는 삶의 진정한 질서로서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다른 모든 욕구나 기쁨은 그분에 관련되고 종속되면서 적당한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을 뜻한다. 질서가 잡힌 삶은 시련이나 시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며, 설사 공격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뀐다. 이 삶은 악의 공격이 있게 되면 그것을 연습이라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서 그 인격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발람은 상응에 관한 지식을 악용했다. 그는 숫자 일곱이 거룩하다는 것과 영계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제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이 제물과 더불어 성립 되었을 때도 악령은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도에 담긴 능력을 깨트릴 수 없었다.

거룩한 것들 즉 성경이나 교회 등을 이기적 용도로 악용하는 사람은 발람으로 상징된다. 발람의 악함의 결과는 이스라엘을 해하는 대신 그에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족과 싸울 때 그는 죽게 된다.(민수기 31장 8)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라도 반역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계시록 2장 14절) 이것은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진정한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하면 금방 허술해지는 인간의 약점을 가르쳐준 것이다.

앞서 배웠듯이, 동물은 애착들(이끌리는 마음)을 표현한다. 그 중에 말은 깊고 높은 원리들을 추론하려는 애착을 뜻하고 나귀는 외적인 지식으로 추론하려는 애착(마음)을 뜻한다. 스웨덴붉은 나귀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상식(commmonsense)”이라 할 수 있는 자연적 추론능력을 상징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자연적 추론능력들을 삶의 유일한 길잡이로 여길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적당한 위치에서 활용되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다. 만약 우리가 이 능력들을 삶의 유일한 길잡이로 착각하면, 우리는 아기 이삭을 조롱한 이스마엘처럼 야생나귀가 될 것이다.

발람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귀는 주인을 성심으로 섬기며 잘 길들여져 있었다. 이 나귀는 주인 발람에 앞서서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주님은 발람을 멈추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스스로의 잘못된 방향과 행동을 계속 고집하게 될 때, 우리 안의 상식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가 실수하고 있음을 말해 줄 때가 흔히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옳은 것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경고하시고 우리의 방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려 주시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신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의 예언은 우리에게 베들레헴의 별에 관한 것,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았고 그들은 별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발람이 출생한 지역의 사람들 등등에 관한 것들을 상기시켜 준다. 이 지역은 아람 또는 시리아라 부른다. 메소포타미아 역시 이 지역에 해당되며, 그 지명은 “강들 사이에”라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두 개의 유명한 강 즉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이 합쳐지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고대 교회의 ‘고대 말씀’을 구전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종교 또한 구전된 ‘고대 말씀’에서 파생되어졌음으로 고대 교회로부터 남겨진 자들이라 부른다. 별(star)로 된 예언은 의심의 여지없이 고대 말씀의 일부이다.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의 주된 기쁨은 상응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고대 교회가 깨지고(성경에서 바벨탑 이야기로 기술된 부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상응에 관한 지식 일부가 메소포타미아지역에 남아 있었다. 이것은 본문에서 발람이 보수 때문에 발락

을 위해 여러 가지 제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구절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응에 관한 지식은 주님이 탄생하는 때까지도 계속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바친 예물이 상응적 예물이었기 때문이다. 스웨덴북은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상응에 관한 지식에서 주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법을 발견했다고 설명한다. 고대 교회의 나머지에 속하는 동방박사들은 주님에 대해 배우려는 마음과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지식을 갖고 싶어 했다. 반면, 발람은 이 상응의 지식을 이기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악한 사람들 중의 한 명이다.

기본 상응 공부

- * 일곱 = 거룩한 것들
- * 나귀 = 자연적 추론

제 4반

본장에서는 발람의 인격과 기원, 발람을 경고하는 하느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도가 주는 권능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속뜻을 풀어 이해 하게 되면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언사라던가 뜻밖의 시험에 빠져 버려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게 될 것이다.

스웨덴북은 “발람은 위선자요 마법사였다. 그 이유는 그는 말로는 이스라엘을 좋게 말했으면서도 그의 속마음은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했었다. 그는 발람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어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을 통해 그의 일이 위선적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발람에 대해 말한다. (계시록 풀이 n. 114) “발람은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죄짓게 하였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으며 음란한 짓을 하게 하였던 자다”(계시록 2장 14절)라는 구절을 통해 발람이 발람을 돕는데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발람에 관한 이야기의 첫 부분은 점쟁이로서 그의 인격 측면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주님이 말하라는 것만 말해야 함인데 주님께서서는 이것을 아주 강렬한 방법으로

명확히 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영적 의미로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기적 욕망으로 휩쓸릴 때 나귀라는 우리의 자연적 이성 또는 우리가 인정하는 상식들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멈추고 다시 한 번 고심해 보도록 만드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큰 교훈을 얻는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 우리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의 악한 노력에 의해서 다칠 염려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진영 즉 성막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각 지파가 에워싸면서 적당히 위치한 이 배치도는 천국의 질서 또는 각 개인의 천국적 인격을 묘사하고 있다. 천국적 인격은 자기의 가장 깊은 동기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 있고 그 외의 모든 애착이나 능력들은 가장 깊은 동기를 중심으로 해서 연관되어 각각의 위치를 확보하여 움직이는 상태이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동기와 질서 하에 있게 되면, 우리는 시험을 쉽게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좋은 운과 기회를 가져서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삶을 비판하는 시험을 겪게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는 외적환경이나 생활에 관계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가득함을 발견한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 (마태복음 25:21)라고 표현하고 계신다.

다른 하나는, 입으로만 선을 행하고 행실에 있어서는 선함을 오히려 해치는 위선적인 생활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인인 사업가가 예배와 교회에 대한 헌금에는 정성을 다하지만 자기 회사의 종업원들에게는 불합리하게 적은 임금을 지불하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영리를 취하려고 한다면 그는 위선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시는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한 것이다”(16:10)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발람에게 적용하면, 그가 주님께서 명하신 말을 할 때에는 축복된 말씀을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자신의 의지로 말을 할 때는 그의 심령 속에 있었던 악이 나타남으로 발람의 위선을 증거한다.

이와 같은 교훈은 이스라엘의 진영이 진을 치고 있을 때는 발람이 그들에게 어떤 피해도 줄 수 없었으나, 후에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발람이 발람에게 가르쳐 주었던

유혹에 빠져서 주님의 법도에 따르지 않고 타락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단지 표현적 상태였을 뿐 이스라엘 민족 개인의 영적 상태에는 이스라엘 진영의 진정한 의미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스웨덴북은 “발람이 간교한 수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하게 유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특질이 심령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계시록 설명 n. 140-5)

발람이 이스라엘족과 미디안족과의 전투 중에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살해됨도 의미 있는 것이다. (민수기 31:8). 미디안족은 좋은 의미로 이드로(미디안 제사장)가 모세를 보호하고 충고하는 측면에서 “단순한 선으로부터 진리를 가진 자들”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들은 나쁜 면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을 때) “진리를 가지고는 있으면서 그에 따른 삶이 없는 사람들”로 표현된다.

제 5반

이스라엘 민족이 요르단 근처에서 40년 동안의 광야생활 중 진을 친 상황으로부터 이야기가 전개된다. 본문의 중요한 논제는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 회방되도록 역사하지만 그 길을 바꾸기 위한 강제성은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일치되도록 삶을 질서 있게 하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된다.

발람의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것이 많다. 일반적으로는 나귀에 관한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일 것 같지만, 이것은 단지 진정한 가르침의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본문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여행을 끝내는 곳 즉 “에리고 근방, 요르단 건너편 모압 평야”에 진을 쳤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므로 무력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요술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후 동쪽에 사는 유명한 마법사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했다. 모압은 좋은 의미로 이스라엘과 혈연관계가 있고 이스라엘이 해치지 말라고 명령받은 나라 중의 하나로 자연적 선을 표현한다. 그러나 나쁜 의미에서의 모압족은 스스로 높은 영적인 것에 맞서려고 일어날 때에 선을 간음질(섞음질)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자연적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친절한 삶을 살면서 그것으로 인격을 재구성하고 자비롭게 되는 데 충분하므로 굳이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이러한 자기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그들을 반쪽 진리로 이끌게 되어 결국에는 이렇게 주장하게 만든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낫다.” 이것이 반쪽이나마 진리인 이유는 이러한 주장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그동안 행해진 또는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 많은 위선들에 대한 일반적인 반발심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쪽의 진리로는 참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외적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며 언뜻 보기에는 거룩한 듯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내적 예배가 결여되어 있다. 즉 이들은 외적 예배로부터 선과 진리를 찾아내면서 내적 예배에 속한 것들은 거절하거나 무시 한다”라고 말한다. (AC 2468)

본문의 이야기에서 발람의 위선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것은 그의 위선이 주님께서 해야 할 말을 주지 않으시면 말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위선은 발락을 만족시키고 발락이 제공한 보상을 얻기 위해 여러 번 상응을 악용하여 저주를 시도하는 것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친 자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 절에 대해 스웨덴북은 이렇게 설명한다. 발람은 아람, 시리아 또는 메소포타미아라 부르는 지역의 출신이다. 이 지역에는 고대 말쑤에서 내려 온 지식의 일부와 고대 말쑤로부터의 상응에 관한 지식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다. 선한 자들은 이 지식을 소중히 간직했으며, 이것은 새로 태어난 왕을 찾기 위해 베들레헬에 온 동방박사들로 인해 절정을 이룬다. 이 지식은 악한 자들에게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마술이나 점술과 같은 것으로 변해 버렸는데, 발람이 그 대표적 인물이라 하겠다. 발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음과 주님의 권능이 역사 될 때는 상응을 통하여 이뤄짐을 알고 있었다. 발람은 이러한 상응에 관한 지식으로 발락을 시켜 일곱 제단을 쌓게 하여 각 제단 위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발람은 주님이 상응을 통하여 자기에게 예언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헤아리고 있었다. 발람의

예언 가운데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그가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다. (민수기 24장 17절) 별은 진리로서 오실 주님을 뜻하며 왕권은 왕으로써 오실 주님을 뜻한다. 주님이 모압 사람들의 관자놀이를 부수고 세 후손의 정수리를 부순다 함은 자연적 인간에 있는 악과 거짓을 주님께서 완전히 정복하실 것임을 보여준다.

발락이 발람의 도움을 받아 가나안 땅의 근접까지 도달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해하고 전복시키려고 했던 시도는 영적인 것들에 대항하려는 자연적 인간의 마지막 발악을 그려주고 있다. 우리 마음의 지상적이며 자연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천국적 인격형성을 위한 외적인 재구성을 완료했을 때 즉 주님께 순종함을 원칙으로 하여 우리의 삶을 정착 시켰을 때, 우리 내에 영적 원리를 건설할 마지막 단계를 취할 준비가 완료 되어 주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에서 주님의 친구로서 천국적 삶에 “나의 분향”을 만들 때, 곧 이러한 모든 일이 완료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꿈틀거리며 빠져나오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지상적이며 자연적인 모든 것은 우리의 확고한 결의를 침식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며 말씀으로부터 논쟁을 찾아내 외적인 삶이 내적인 삶보다 훨씬 중요함을 확증하려는 시도까지 한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정한 축복이 자연적 빵과 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발람과 나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위에 있게 됨을 명확하게 묘사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경고들을 주신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의 목적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경고한다. 본문에서 “하느님이 발람에게 오시어 물으셨다”가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의 경고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말씀하셨다”이다. 하지만 이런 경고들을 무시하고 나쁜 것을 행하길 주장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여 이를 허용하시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로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뒤를 따라 오시며 우리의 더 낮은 마음에 호소할 방법을 찾아 우리 앞에 놓으신다. 우리가 그분의 충고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더 높은 층의 마음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낮은 차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다. 나귀는 자연적 이성(추론, reason)을 상징 한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본다면 우리 스스로의 자연적 추론이 우리가 계획한 악한 행위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발람의 발이 벽에

굽히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곤경의 일부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를 세 번씩이나 나귀 앞에 세우시면서 까지 발람에게 그 여행의 목적을 재검토할 기회를 주셨다. 천사의 경고가 뜻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고집하는 악한 길의 여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그 결과까지 추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이다. 나귀는 물론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이 나귀의 입을 통하여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자연적 이성애 호소하는 것을 상징한다. 발람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그의 영적 눈은 길 가운데 있는 천사를 보도록 열렸다.

발람은 이러한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갔고 이스라엘을 세 번이나 저주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진영을 봤을 때 그의 저주는 막상 입에서 나왔을 때는 축복으로 변하여 버렸다. 이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각 지파가 배열되어 있던 이스라엘 진영이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진영은 천국적인 질서에 따라 조직화된 삶을 의미하며 천적인 질서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중심에 종속되어 우리의 애착들과 생각들이 적당히 배치되는 상태이다. 발람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느님이 주신 모형에 따라 조직화 된다면, 영적 삶인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외적 요인이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유혹되어지며 유혹 당할는지도 모른다. 발람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민수기 31:8),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인들의 측면에서 해석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악(발람)을 식별할 수 있는 빛이 주어져서 결국 그 악을 짚어 넘기게 된다는 뜻이 된다. 마음속 깊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바램을 가진 선한 사람은 지속적인 거짓 예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또 여기 저기 존재하는 외적 악들에도 빠지지 않는데 그것은 주님의 권능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어 진리의 빛을 주어 악과 거짓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극복할 힘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발람의 이야기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속뜻에 의해 마음 속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발람의 이야기 중의 일부를 내세워 성경을 인간이 만든 책으로 격하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발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 글자 그대로의

뜻만 받아들여 이것을 오히려 말씀을 불신용 하는 수단으로 만든다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까지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게 되는 비극을 초래 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럼으로 우리는 누군가가 말씀을 이렇게 모독한다면 그들을 향해 바른 뜻을 외칠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들을 도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 보다 진실 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3762항)」: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Jacob lift up his feet, and went to the land of the sons of the east)-(본 단원은 위의 밑줄 친 부분만의 주석임.) 이 부분은 사랑에서 나오는 진리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 가지는 의미에서 파악할 수 있다. 아람 또는 시리아가 동방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불리어지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향한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시리아는 선에 관한 지식들을 의미하나, 특별히 큰 강가의 시리아 (Aram-Naharaim, Syria of the rivers)는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진리들, 즉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지식들은 인간이 거듭날 가능성이 보여지기 전에 이미 습득 되어 있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이 진리들이 인간의 마음에 인식되어 믿어지고 있었음 또한 명백하다. 즉 인간은 이 진리들을 인식하고 믿어 생활 안에 실천한 만큼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만큼 진리를 인간의 자연성 즉 자기 고유의 터(ground)에 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야기 예수가 태어날 때 경배하러 온 박사들도 동방에 사는 사람들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주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지식을 가졌고 또 동방에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주님의 탄생을 알았던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고대시대 때부터 이와 같은 예언적 지식이 시리아 지역 즉 동방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했었음은 주님의 강림에 관한 발람의 예언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민수기 24:17). 발람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 즉 시리아로부터 왔음은 다음의 말들로서 명확해 진다: “발람은 푸념하듯이 읊었다. ‘발람이 나를 아람에서 데려왔겠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

왔다' (민수기 23:7).”

질문 정리

- 1) 광야 여행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인도한 것은 무엇인가?
- 2) 이스라엘 후손들은 몇 년간 광야에서 배회했는가?
- 3) 광야에서의 마지막 진영 지는 어디인가?
- 4) 이스라엘 후손들이 오는 것에 두려워했던 왕은 누군가?
- 5) 발락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 6) 발락은 발람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 7) 발람은 그의 힘을 누구에게서 구했는가?
- 8) 주님은 발람에게 맨 처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9) 발락이 두 번째 사신을 발람에게 보냈을 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0) 길을 가는 도중 발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11) 발람은 발락에게 어떤 준비를 하라고 했는가?
- 12) 발람은 이러한 제단이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 13) 발람은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저주하려 했는가?
- 14) 그때 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15) 발람은 이스라엘을 왜 저주할 수 없었는가?
- 16) 발람은 어떤 특별한 예언을 했는가?
- 17)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었는가?
- 18) 발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가?
- 19) 나귀는 무엇을 표현 하는가?
- 20) 이스라엘 진영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질문의 답

- 1) 구름기둥과 불기둥 2) 40년간 3) 모압 평야 4) 발락(모압왕) 5) 발람

6)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7) 하느님으로부터 8) 저주하러 가지 말라고 9) 내가 주는 말만 말하라고
10) 천사가 그의 나귀를 놀라게 했다 11) 일곱 제단과 제물로서 증송아지와 수양들
12) 상응에 관한 지식으로 13) 세 번 14) 저주가 축복으로 바뀜 15) 악한 의도 속에는 진정한 힘이 없기 때문 16) 별에 관한 예언 17) 이스라엘을 유혹시키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18)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 와중에 살해 됨 19) 자연적인 이성이나 상식으로 추론함 20) 진실로 잘 정렬된 삶 즉 삶의 중심을 주님을 예배하는데 두는 상태

13

예리고 성의 정복

머리말

요르단 강을 건너는 광경을 홍해를 건너는 것과 비교해 본다. 길갈에서 돌을 세우는 것, 과월절 축제 그리고 만나의 공급이 중지된 것 등도 염두 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어 두면 본과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성서 본문: 여호수아 6장

6장: 1. 예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굳게 닫혀 있어 드나드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었다. 2.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예리고와 그 왕을 네 손에 붙인다. 굳센 용사들아, 3. 너희 모든 군인들은 날마다 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돌아라. 4. 사제 일곱이 각기 수양뿔 나팔을 들고 궤 앞에 나서라. 이렛날에는 이 성을 일곱 번 돈 다음 사제들이 나팔을 불어라. 5. 그 수양뿔 나팔 소리가 나면 백성은 다 같이 힘껏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때 전군은 일제히 쳐들어 가거라.” 6.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사제들을 불러서 일렀다. “계약궤를 메고 나서시오. 일곱 사제는 수양뿔 나팔 일곱 개를 가지고 야훼의 궤 앞에 나서시오.” 7.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행동을 개시하여라. 이 성을 돌아라. 정예부대는 야훼의 궤 앞에 나서라.” 8.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일곱 사제가 수양뿔 나팔 일곱 개를 가지고 야훼 앞에 나서서 불었다. 그 뒤를 야훼의 계약궤가 따랐다. 9. 나팔을 부는 사제들 앞에는 정예부대가 행군하고 그 뒤를 후위부대가 따라 가는데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고함을 지르지 말라. 작은 소리도 내지 말라.

한 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있다가 내가 고함을 지르라고 하거든 그 때 고함을 질러라.” 11. 그는 야훼의 궤를 모시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 진지로 돌아와 그 밤을 진지에서 보내게 하였다. 12.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사제들은 야훼의 궤를 메고 나섰다.

13. 일곱 수양 뿔 나팔을 가진 일곱 사제가 야훼의 궤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면, 정예부대가 그들 앞에 서서 행군하였고 후위부대는 야훼의 궤 뒤를 따랐다.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14. 둘째 날도 그들은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지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기를 셋새 동안 하였다. 15. 이렛날이 되어 새벽 동이 트자 그들은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일곱 바퀴 돌았다. 그 날만 성을 일곱 바퀴 돈 것이다. 16. 일곱 번째 사제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쳤다. “고함을 질러라. 야훼께서 저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17. 저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야훼께 바쳐 없애 버려라. 다만 창녀 라합의 목숨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만은 살려 두어라. 그 여자는 우리의 사명을 띠고 갔던 사람들을 숨겨 주었다. 18.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라. 없애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없애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지 말라. 그랬다가는 전멸당하는 운명을 이스라엘 진영에 스스로 불러들이게 된다. 19. 은이나 금이나 동제품이나 철제품은 모두 야훼께 드릴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야훼의 금고에 넣어야 한다.” 20. 백성들은 고함을 지르고 나팔 소리는 울려 퍼졌다. 나팔 소리가 울리자 백성은 “와”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백성은 일제히 성으로 곧장 쳐들어 가 성을 점령하였다. 21.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소견 양이건 나귀건 모조리 칼로 쳐 없애 버렸다.

22.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일렀다.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려 오너라.” 23. 정탐원으로 갔던 젊은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 라합과 그의 부모와 오빠들뿐 아니라 그에게 딸린 일가친척을 모두 이스라엘 진 바깥 안전한 곳으로 데려 내 왔다. 24. 그리고는 성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태워 버렸다. 그러나 은과 금, 동제품과 철제품은 야훼의 금고에 넣었다. 25. 창녀 라합과 그의 가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만은 여호수아가 목숨을 살려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여자가 예리고를 정찰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들

을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26. 그 때 여호수아가 맹세하였다. “이 성을 다시 짓겠다고 나서는 자는 야훼께 저주를 받으리라. 만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기초를 놓지 못하고 막내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성문을 달지 못하리라.” 27.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 주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교리 요약

- * 모든 선과 진리는 주님에게만 있으며 심정으로 이를 인식하는 것이 거듭나는 삶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이다.
- * 시험에 부딪친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 * 우리는 옳은 것을 행함에 있어 지속적이며 신실한 자세로 행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여호수아서는 신명기 다음에 나온다. 신명기서의 이름은 “두 번째 법” 또는 “법을 반복함”이라는 의미이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후손을 위하여 주었던 법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그들이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상기하며 엄숙한 자세로 법을 지켜 나갈 때 번영하며 주님께 의해 보호받고 축복되므로 죽음과 악 대신 생명과 선을 선택하라는 의무가 담겨 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 약속되어진 땅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이스라엘 후손의 마지막 진영 근처인 느보산 꼭대기로 인도되었고 그 아래 펼쳐 있던 약속된 땅을 보게 된 후 죽었다.

모세의 지도권은 여호수아에게 승계 되었다. 여호수아는 광야여행 때에 모세의 보조자였으며 전투가 있을 때 마다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였다. 여호수아가 주님의 엄숙한 임무를 이스라엘의 후손들 앞에서 받는 광경을 떠올려 보자. 여호수아는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땅을 정복했고 각 부족의 위치를 구역별로 할당하여 새로운 정착지를 건설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에 대한 간략한 줄거리이다.

요르단강은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이 주님께 의해 갈라졌고 주님의 능력은 하느님이 직접 새긴 돌판을 담은 궤를 통해 그 순간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 후 그들은 견고한 예리고성에서 멀지 않은 길가에 진영을 만들고 주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와 더불어 과월절을 기념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게 되어서 매일 내리던 만나가 그들에게 중지 되었다.

다음으로는 예리고성이 주님의 기적으로 함락되는 놀랄만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기적은 주님이 그들의 정복 초기에 모든 힘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며 그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주고자 하신 배려이다.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면 승리했고 불순종하면 패배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후에도 여러 번 그들에게 입증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약속된 땅 즉 천국에 두고자 희망하며, 이 땅은 우리에게 정복되어 지도록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유전적 이기심 즉 자아중심적인 마음으로 인해 이 정복은 긴 투쟁에 의해서만 이뤄진다. 그 땅에 있는 적들은 악으로 향하는 우리의 자연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튼튼한 거짓이라는 성벽과 시험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궤를 따른다면 즉 주님으로부터 극복할 힘을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여 계명을 성실하게 지켜간다면,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을 것이다.

제 1반

궤가 무엇인가와 그것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궤에서 나오는 힘으로 인해서 예리고성이 함락됨을 기억하자.

이스라엘 후손들은 길갈이라 부르는 요르단 강 근처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상태에서 해방되고 약속된 땅으로 가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하는 표시로 과월절을 기념했다. 그 후, 그들은 가야할 경로에 있던 첫 번째 성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했다. 그 성은 튼튼한 벽으로 둘러싸여 아주 견고했다. 예리고성을 정복한 것은 사실 주님이

시며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아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심을 알 수 있다.

내용공부를 위한 질문 및 요점 정리

- * 이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주님은 예리고 성을 즉각 공격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가?
- * 육일 동안 무엇을 가지고 그 성 주위를 돌았는가?
- * 궤 앞에 선 사람은 누구인가?
- * 칠일 째에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 * 여호수아가 고향치라고 백성에게 말했다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 예리고성에서 취득한 모든 금, 은, 동 그리고 철은 주님에게 바쳐졌다.
- * 창녀 라합과 그의 집에 속한 것 외에는 모두 다 없애 버렸다.
- * 여호수아의 사람들이 예리고성에 스파이로 갔을 때 라합이 그들의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그들 가족과 집은 남게 되었다.
- * 예리고는 불에 타 없어지고 그 성에는 저주가 내려졌다. 26절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제 2반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되새겨 보자. 그리고 본문에 언급된 기적을 낱개 한 사건들을 간단한 방식으로 엮어 본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도착하여 첫 진영을 쳤다. 그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요르단 강에 있는 열두 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과일절을 기념했다. 길갈(Gilgal)이란 이름은 “말아 올림, 벗김(a rolling)”이란 뜻이다.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이 이름이 왜 주어졌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40년간 먹었던 만나를 받지 못하게 되어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했다.

예리고는 거룩한 땅을 소유하려는 과정에 있던 첫 번째 성이었다. “거룩한 땅(Holy

Ground)” 라는 책에서 워체스터(William L. Worcester) 목사는 이 성에 대해 “복음 시대 때의 예리고는 켈트(Kelt)시냇가와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 언덕으로 보이는 그 평야의 끝을 뒤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때의 예리고는 북쪽으로 1마일 가량 더 멀리 위치해 있었다. 아직도 거기에는 엘리사의 샘이라고 불리는 샘이 있다. 이 샘은 옛 성이 황폐되어 부분적으로 형성된 언덕의 발꿈치에 해당되는 곳에 드러나 보인다. 이 황폐된 언덕에서는 넓은 평야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도자가 사는 동굴을 가진 절벽이 있는데, 그것은 비바람에 단련되어 있었다.”라고 말한다. 예리고는 이스라엘족이 공격해야만 했던 첫 번째 성으로 단단한 성벽을 가진 성이었다. 주님은 이 단단한 성벽을 이용하셔서 그들의 승리가 그들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인한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매년 알려 주셨다.

창조의 이야기에서 주님은 육 일 동안 일하셨고 칠 일째에는 쉬셨다. 따라서 숫자 6은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투쟁을 표현하며 숫자 7은 시험을 극복한 후 오게 되는 평화로움, 행복함, 그리고 거룩한 상태를 표현한다.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일곱 번 하도록 명령되는 것은 옳은 것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혹은 옳은 것을 행하되 끝까지 그것이 지속되어야 함을 뜻한다. 예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숫자 일곱이 몇 번 사용되었는지 찾아보자. 계명이 시나이 산에서 주어진 후 유대인들과 더불어 주님이 직접 쓰신 두 돌 판은 궤 안에 놓여졌다. 주님의 권능은 이 궤를 통하여 발휘될 수 있었다.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심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제 2장을 보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모압 땅 시뻘에 진을 쳤을 때 두 명의 스파이를 예리고 지역을 살피기 위해서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발각되어 죽음에 처하게 됐을 때, 창녀 라합은 쌓아놓은 지붕 위 삼대 속에 이들을 숨게 해주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쪽에 지어져 있었다. 그녀는 어두워진 후 창문을 통해 밧줄을 내려서 그들을 도망가게 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라합에게 예리고가 함락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지키는 구절을 찾을 수 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여기서의 라합(Rahab)이 바로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다윗의 선조 라합(Rachab)이라고 한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저주가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 졌는지 알 수 있다. 예리고

를 나타내는 두 이야기를 신약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9장 1-10절 그리고 본문의 18절을 자세히 읽어 보자.

본문의 내용공부를 위한 질문정리

- * 이 축제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 * 그들은 성 주위를 무엇을 가지고 돌았는가?
- * 누가 궤 앞에 섰는가?
- *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 그들은 6일 동안 하루에 몇 번씩 성 주위를 돌았는가?
- * 일곱(7)이란 숫자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처음 나오는가? 라합과 그녀의 가족 외에 무엇이 보존되었는가?
- * 보존된 것들은 어디에 쓰였는가?
- * 이 외에 성에 있던 모든 것은 어떻게 했는가?
- * 이 성에 어떤 저주가 내렸는가?

제 3반

이야기 자체가 갖는 상응에 대해서 알아본다. 주님께 순종하며 신뢰하는 마음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옳지 않음을 강조한다.

여호수아 5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땅에 첫 밭을 딛고 난 후의 첫 진영인 길갈이란 지역과 관련된 네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다. 첫째는, 그들이 요르단 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 요르단 강 바닥에서 취한 열 두 개의 돌을 세웠다는 것이다. 둘째는, 거룩한 땅에 들어간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의 세례와 같으며 순결함과 자기의 삶을 주님을 섬기는데 헌정함을 표현한다.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은 광야여행으로 인해 이 예식을 갖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할례를 받았고, 이들만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는, 과월절이 기념되어 진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미 자유와 성공에 대한 축복을 부여 받았음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초기에 상기하여 이스라엘인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하시려는 배려이다. 넷째는, 만나의 공급이 중단되고 거룩한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만나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없이 인격이 재구성되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계유지를 위한 음식물과 같은 영적 양식을 표현한다. 이러한 양식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데는 필요치 않으므로 저장될 수 없다. 우리가 거둬나오는 시기로 접어들면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배양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로 만족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은 “거룩한 땅의 소출”을 먹으면서 만나의 공급이 중지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예리고는 거룩한 땅에 있던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첫 번째 성이다. 성이란 체계가 있는 교리나 믿음을 상징한다. 요르단 평야 즉 거룩한 땅에 있는 첫 번째 성인 예리고는 좋은 의미로는 영적 삶에 필요한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는 상태를 뜻한다. 예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은 성”이라고 불려진다. 종려나무는 주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원칙으로 삼음을 표현한다. 하지만, 적의 수중에 들어있는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부정 또는 옳은 것을 이해하고 행하는 모든 힘이 스스로에게서 비롯된다는 원리가 마음 깊숙이 박혀 있어 진리처럼 믿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거룩한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러한 거짓 사상으로 향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원리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순간 우리를 전복시켜 버린다. 자만과 자아 확신이 마음속에 남아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 예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상징된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 외에는 예리고 성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리고성의 정복은 우리 내의 자만을 정복하는 길을 보여준다. 이 길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힘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진리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확증해 나가는 것이다. 일곱 사제가 일곱 수양나팔을 가지고 케 앞에 서서 예리고성을 돌았다. 양(lamb)은 우리의 순진함 또는 주님을 신뢰함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어린 아이들 특히 자신을 뽐내려는 시기 이전의 어린 아이들이 소유한 순진함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특질이 간직되어 발전되면, 순수하고 선한 모든 것을 보호하길 원하는 성숙한 인격을 지니게 되어 아름답고 강건한 특질이 된다. 양 중에서도 수양(ram)은 위와 같은 강건한 순진함을 표현하며 수양의 뿔은 순진함이 나타내는

힘을 뜻한다. 우리의 악 혹은 타인의 악에 대항하여 옳은 것을 “고함쳐라(speak up)”라고 하는 것은 수양의 빨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것과 같다. 숫자 일곱은 거룩함과 의를 행하기 위한 끈질긴 투쟁 끝에 오는 성취 또는 완료를 뜻한다. 자아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강한 결심만이 우리의 타고난 이기심을 잠재울 수 있다.

예리고에 대한 저주는 우리가 옛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성경은 우리가 참으로 인식했던 어떤 진리에서 후퇴하게 될 때 스스로에게 이롭지 못함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신성모독(profanation)”이라고 표현된다. 예리고에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알 수 있다.

기본 상응 공부

여호수아 = 싸우는 진리 (truth fighting)

성 = 체계적 교리 (a system of doctrine)

예리고 =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진리에 대한 아주 단순한 이해성
나쁜 면에서는 이러한 진리에 대한 부정

종려나무 = 악을 극복하는 승리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원칙

수양 = 차차 성숙해 져서 강건함을 가진 순진함

수양나팔 = 옳은 것을 외침

제 4반

각 사건의 전반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영적인 뜻을 고찰한다. 인격의 재구성에서 인격의 거듭남으로 변화되어 발전되는 상황을 알아본다. 본과 내용의 절정부분은 금, 은 그리고 다른 금속들은 보존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써야 하며 기타 성 안의 모든 것은 파괴하라는 구절이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이스라엘 후손이 요르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스파이를 예리고로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 스파이들은 창녀 라합에 의해 목숨을 건지게 되어서 예리고가 함락할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이행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예리고에서 발견된 금, 은, 놋 그리고 철 등의 제품이 주님을 섬기는데 헌납되도록 명령된 것이다.

우리가 영적 삶인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첫 번째 적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주님과 영적인 것에 대한 거짓 사상이다. 거짓 사상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총명으로는 극복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과 힘을 주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이것은 예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묘사된다. 우리가 설사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면 우리는 거짓된 사상을 정복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해 온 것이다. 스파이에 관한 내용과 예리고성에 있는 금속들의 처리에 대한 명령은 이러한 준비에 대한 일부를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의 자연적 이기심 속에서도 선을 향한 가능성을 찾아야 하고, 주님을 안내자로 삼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포기했다고 생각될 때도 선을 향한 가능성은 지켜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선한 판단과 행동에는 자기만을 걱정하는 타입과 자기를 조절해 가는 타입이 있다. 스웨덴북은 자기를 조절해 가는 타입은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목적을 위한 가능성을 최대한 발달시키려 하며 현명한 순종을 위해 주님의 가르침을 더욱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한다. 모세가 거룩한 땅을 정탐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듯이, 스파이들이 예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보내졌다. 이러한 정탐 과정은 우리의 거듭남을 위한 행동들이 실제화되기 전에 가능성을 탐색하며 성사여부를 따져보려는 우리의 생각들을 묘사한다. 창녀 라합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 나쁘게 보이는 것도 내면에는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라합은 구원되었고 이스라엘족과 함께 살도록 조처 되었다. 구전에 의하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다윗의 선조로 기록된 라합(Rachab, Rahab)이 바로 이 여자라고 말한다. 우리는 외향적 면으로도 질서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하지만 우리의 심정 또한 주님께서 꿰뚫어 보심을 알아야 한다.

정복을 위한 또 다른 준비 사항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상기하기 위해 길갈에 돌을 세운 것과 5장에 기술된 몇 가지 사건들이다. 5장에서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할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순수함과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며 기독교인들의 세례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과월절이 기념되어 졌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억압된 상태로 있던 것을 주님이 구해 주심을 기념하는 것이며 그들이 다음

날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해 만나가 중지 되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중지되고 땅의 소출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협력한 결과로 생산되는 새로운 영적 자양분을 상징 한다. 위의 모든 사건들은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새로운 자발적 의지를 고무시키고 강건케 하는 과정이며 그것은 예리고성의 정복으로 마무리 된다.

사실 예리고의 정복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성취되어진 것이다. 레는 계명에 대한 순종을 말하며 수양의 뿔로 부는 나팔소리는 이타적 사랑의 힘을 외치시는 주님의 소리를 뜻한다. 그리고 숫자 일곱은 우리의 의지가 기꺼이 주님을 섬김 즉 거룩한 상태에 도달될 때까지 주님께 끊임없이 순종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후에 사람들은 “와”하고 큰 고함을 지르고 그에 따라 예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심에 의해 주님과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연적 자만심과 자아애로 우리를 내부에 지어졌던 성벽이 무너져 내려 “일제히 성으로 곧장 쳐들어 갈” 수 있게 됨을 뜻한다. 시편 제 5편 8절의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는 구절을 되새겨 보자. 예리고성의 함락에 대한 더 깊은 공부를 위해서는 스웨덴북의 「계시록 풀이」에서 발췌된 인용문을 참고할 수 있다.

제 5반

모든 선, 진리 그리고 의를 행하는 능력은 주님으로부터만 오게 됨을 우리가 인식해야하며, 이러한 인식은 거듭나는 삶에 있어야 할 항구적인 요소로서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거듭남도 없음이 강조된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질서가 있는 삶을 살며 자선적인 친절과 더불어 종교적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자만심으로 가득차 있다면, 우리 안의 예리고성은 정복될 수 없다는 것이다.

거룩한 땅의 점령은 영적인 삶에 대한 성취를 표현한다. 이 점령 과정의 첫 단계는 요르단 강을 건너는 것과 예리고를 정복하는 것이다. 영적인 삶과 자연적인 삶의 차이점을 알기란 꽤 힘든 일이다. 특히 자연적 삶이 선행으로 가득하고 질서까지 있는 경우에는 그 구별이 더 어렵다. 자연적 삶은 자연적 생활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지만, 이것은 물질적인 기쁨과 만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자연적

인식과 이에 따른 예배의 주된 동기는 악한 행실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선한 행실에 뒤따르는 보상을 기대하여 순종하는 원리에 국한된다. 영적인 삶은 주님과 그분의 목적을 삶 속에서 의식하고 일시적인 가치를 영원한 것으로 대체 시킨다. 그리고 심정과 지성이 영원한 가치들을 간직하려 애쓸 뿐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삶도 주님이 보시기에 순수하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어, 자연적 사람은 세상에서의 고난을 자기를 벌하기 위해 주님이 보내신 것으로 간주하고 죽음을 비운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정도로 성공을 측정한다. 또한, 자연적 사람은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자기를 해치는 자는 적이며 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친구로 판단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영적인 빛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영적인 사람들은 고난을 그들 안에 있는 악을 보고 정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죽음을 질서에 따라 참된 행복을 얻는 하나의 단계로 여긴다. 그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를 성공의 척도로 삼으며 예배는 주님이 내리신 특별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긴다. 또 그들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나 자기를 좋아하는 자나 모두 주님의 자녀로 간주하며, 잘못된 것을 가진 자는 방향을 바꿔 의를 행하도록 도와야 함을 인식한다. 자연적 인간은 주님에 관한 일반적 지식으로 만족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배우기를 원한다. 자연적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삶이 질서에 맞으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여기지만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자기 안의 악들을 성찰하며 이 악들을 모두 다 제거하려 애쓴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스웨덴북은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은 순종함으로 행동하나, 거듭난 후는 애착(affection)으로부터 행동한다”고 말한다. (AC 8505참조) 찬송의 한 구절인 “천사들이 생각하듯이 우리도 생각하게 해 주시고 천사들이 느끼는 것 같이 우리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는 영적으로 되기 위한 우리의 바램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일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것 같이 천사들도 느끼고 생각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겠다. 물론, 현실적으로 인간인 우리가 느끼는 것과 이미 천국의 백성들인 천사들이 느끼는 것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신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좋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 주었다” (요한복음 15:15). 즉, 천사들은 이미 영적으로 주님의 벗에 준하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라면 인간인 우리는 아직 종의 단계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 된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천국적 인격인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악과 거짓으로 향하는 유전적 경향성(all sorts of inherited tendencies)을 지니고 태어났다. 이것은 거룩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적개심에 불타는 사람들과 같으며 정복해야 하는 성벽을 두른 성들에 속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타인을 적처럼 대하는 것 대신 순수한 종교적 측면으로 타인을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타인으로 인해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되고 스스로의 적들 즉 결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적대시 당한 느낌이 성벽과 같이 내 마음에 들어서지 않도록 배워 가는 것과 나아가서 마음의 응어리를 상징하는 성벽의 그림자조차도 내 마음에 드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적대시한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여 내가 그를 도울 어떤 방법이 있을까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라고 하셨다.(마태복음 10:36) 우리는 말씀에 언급된 악한 사람들이 상징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성실히 자기반성과 자아 성찰을 행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성서의 “거인들”로 상징되는 우리안의 악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성서의 “단단한 벽을 가진 성”이란 우리 안의 악들을 방어하려고 하는 거짓 추론이 만든 보호벽 같은 것이다. 오늘 예리고성의 정복이라는 이야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명백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룩한 땅에 들어서기 위해서 우선 요르단 강까지 이르러야 한다. 요르단 강은 “내려오는 사람(물건, descender)”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헤르몬(Hermon)산의 눈이 녹은 다음 돌진하듯이 흘러내려 가 사해에 이르러 증발된다. 이 강은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진리를 묘사한다, 즉 주님의 진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와 천국을 통해 내려와서 다양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통해 삶의 아주 낮은 상태에 접촉될 때까지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적 생활을 알려 주는 단순한 진리들은 거룩한 땅의 경계선으로 묘사된다. 거룩한 땅이 악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요르단 강이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군대를 막는 것처럼 보여 질 때는 진리가 거꾸로 된 상태 즉 거짓들이 우리 안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 우리가 전투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거짓들로 인해 우리는 “나는 그 친구를 도울 수 없어”, “내가 이런 식으로 태어난 걸 어찌란 말인가!” 혹은 “인간 본성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거룩한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중지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여호수아 5:10-12) 만나란 시련의 시기 동안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천국적으로 이뤄진 충분한 만족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충분한 만족은 가나안에서의 과월절과 소출로 표현된다. 사람들이 소출을 먹게 되었을 때 만나가 중지 되었다. 우리의 마음이 재구성(reformation)될 때에 갖게 되는 영적 만족은 천국적 삶에 있는 영원한 기쁨(joy)을 잠깐 맛보는 것에 불과하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연적 만족감이 줄 수 없는 깊고 연속적인 행복으로 산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상기해 보라. (요한복음 15:11)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임무를 주셨다. (여호수아 1:6-9) 그것은 법을 성심껏 지키라는 것, 힘을 내어 용기를 갖고 적을 공격할 것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그들을 승리하게 해 줄 것을 믿는 것이었다. 이러한 임무는 요르단 강을 건널 때와 예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잘 이행되었다. 요르단 강을 건너도록 인도했던 것은 계명을 담은 궤이다. 요르단 강 바닥에서 가져온 열 두 개의 돌은 모든 입문적인 진리들을 뜻하며, 그 돌들은 후세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길가에 세워졌다. 그들이 예리고성을 돌 때 그들 앞에 간 것 또한 궤였다. 궤를 멘 사제들은 강 앞으로 똑바로 가도록 명령되었다. 그리고 사제의 발이 강물에 닿을 때까지 강물은 갈라지지 않았다. 예리고성을 일곱 바퀴 돈다는 것은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악들을 방어하는 거짓들을 완전히 정복해야함을 표현 한다. 요르단 강은 기적으로 갈라졌다. 과월절을 지내도록 명령된 것은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됨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일곱 수양 나팔을 가진 일곱 사제는 하느님의 선에서 나온 그분의 진리가 발휘하는 권능을 의미한다. 그들이 예리고를 돌 때 앞장 선 것은 궤이며, 예리고는 기적에 의해 그들에게 넘겨졌다. 예리고의 정복은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만 안전할 수 있다는 진리를 부정하고

주님의 보호 없이 무사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모든 악을 탐닉하려는 상태가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임으로서 다르게 바뀌는 것을 의미 한다. 예리고는 “종려나무성”이라고도 불려진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영적 삶을 위해 배워야하는 일차적 교훈을 말한다. 자만심과 자존심으로만 향하는 경향은 우리의 타고난 속성으로 우리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 우리는 더 전진하기 전에 이를 인식하고 극복해 모든 악들을 제거하고 약속된 거룩한 땅에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을 발견해야 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700항 15번- 17번」: "예리고성이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다. 그 이유가 예리고는 요르단 강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으며 요르단 강은 교회로 들어가는 입문적인 가르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의 모든 장소들은 교회에 속한 천적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데 이것은 태고시대 때부터 그러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교회를 표현하게 됨으로서 그들 지역에서 말씀이 기록되었으며 가나안 지역의 장소들은 천국과 교회 속에 있는 것들을 상징하도록 언급되어졌다. 이러한 연유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말씀이 가르쳐 졌다. 그들이 말씀에 입문하는 것이 「요르단 강」으로 상징되고, 그에 대한 가르침이 「예리고」에 의해 상징된다. 「예리고」는 가르침(instruction)을 상징함으로 생활의 선도 상징한다. 그 이유는 삶에서의 선이 없는 사람은 교리에서 비롯되는 진리를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나안의 땅이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들에 의해 장악된 상태에서는 그 땅에 있는 성들이나 지역들의 의미가 정반대로 되어 버린다. 이때의 예리고는 선과 진리에 대한 모독을 상징한다. 이렇게 됨으로서 가나안 땅의 도시는 교회의 선과 진리를 악용하고 모독하는 악과 거짓으로부터 비롯된 교리를 상징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리고의 성벽은 그릇된 교리를 수호하는 악으로부터 나온 거짓들을 상징한다. 그곳의 거주민들은 신성모독을 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모든 신성모독은 선과 진리를 인식한 후에 있게 되는 지옥적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성은 불에 태워졌고, 주민들은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성벽은 허물어져야만 했는데 그이유가

불은 지옥적인 사랑을, 저주는 완전히 소멸됨을, 그리고 성벽이 무너짐은 악과 거짓이 드러남을 뜻하기 때문이다. 사제들이 부는 나팔 소리란 하느님의 선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진리가 선포됨을 의미한다. 사람의 환호와 고함은 만족과 확증을 의미한다. 성을 도는 것은 우리 안의 악과 거짓을 성찰하고 주님으로부터 있는 하느님의 진리가 유입되어 악과 거짓이 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입(influx)의 의미는 유입물을 담은 레를 메고 성을 도는 것이다. 일곱 사제가 그 성을 칠일 동안 돌고 칠일 째 되는 날 일곱 번 돌았다는 구절은 거룩한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것은 하느님의 진리의 거룩한 선포인 것이다. 숫자 칠은 거룩을 의미하고 이것의 반대는 신성모독을 뜻한다. 금, 은, 동 그리고 철기들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금고에 넣어졌는데, 이것은 금속이 영적 또는 자연적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과 은은 영적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므로 모독을 일삼는 자들이 이것들을 사용하면 혐오스러운 악과 거짓으로 둔갑된다. 하지만 이 지식이 비록 악에 이용되었더라도 선한 것에 다시 응용되면 선을 섬길 수 있게 되므로 여호와의 집에 있는 금고에 넣어진 것이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과 거룩한 땅을 분리시킨 강은 어떤 강인가?
- 2) 그들은 어떻게 이 강을 건넜는가?
- 3) 거룩한 땅에서의 그들의 첫 진영은 어디인가?
- 4) 그곳에서 어떤 축제가 있었는가?
- 5) 그들이 먹던 음식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 6) 그들이 정복해야 하는 첫 번째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7) 그 성 주위를 돌 때 무엇을 메고 돌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 8) 케 앞에 선 사제들은 몇 명이었는가?
- 9) 사제들은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 10) 육일 동안 하루에 몇 번 성을 돌았는가?
- 11) 칠일 째 되는 날 성을 몇 번 돌았는가?

- 12)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자 어떻게 되었는가?
- 13) 그 성안에서 살아남은 것은 무엇인가?
- 14) 그 밖의 성에 있는 것을 어떻게 되었는가?
- 15) 여호수아에 의하여 말해진 저주의 내용은 무엇인가?
- 16) 거룩한 땅에 들어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7) 예리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 18) 주님은 왜 예리고성을 정복하게 해주셨는가?

질문의 답

- 1) 요르단강 2) 기적에 의하여 3) 길갈 4) 과월절 5) 만나가 중지되고
그 땅의 소출을 먹음
- 6) 예리고 7) 케 8) 일곱 명 9) 수양 뿔 나팔 10) 하루에 한번 11) 일곱
번
- 12) 성벽이 무너짐 13) 라합과 그녀의 가족 및 금속들 14) 파괴해 버렸음
- 15) “이 성을 다시 짓는 자는 두 아들을 잃을 것이다” 16) 거듭나는 생활의 시작
- 17) 자연적인 자만
- 18) 자만으로 빠지려는 경향은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정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14

드보라와 바락

머리말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자취를 살펴보고 판관기 시대의 특성을 설명한다. 본장을 공부하면서 꼭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은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꾸준히 배우지 않고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나는 충분히 알고 있음”은 남녀노소를 불문 하고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성 서 본 문: 판관기 4장

4장: 1. 에훗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2. 그래서 야훼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 주셨다. 그의 군대 지휘관은 하로셋하고임에 사는 시스라라는 자였다. 3. 야빈은 철병거를 구백 대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이십 년 동안 심하게 억압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울부짖었다. 4. 그 때 이스라엘을 다스린 판관은 라삌돏의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였다. 5. 그가 에브라임 산악지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자리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6. 이 드보라가 납달리 케데스에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 놓고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즈불룬 지파에서 만 명을 뽑아 다불산으로 이끌고 가거라. 7. 그러면 나는 야빈의 군대 지휘관 시스라를 키손강으로 유인해 내겠다. 내가 그의 전군을 병거대까지 유인해 내다가 네 손에 붙이리라.’” 8. 바락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가겠지만, 함께

가지지 않는다면 못 가겠습니다.” 9. 드보라는 “내가 꼭 함께 가겠소. 하지만 이번 길에서 그대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알아 두시오.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오”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케테스로 갔다. 10. 바락이 즈불룬과 납달리 지파를 케테스로 출동시켰다. 만 명이 되는 부대가 그의 뒤를 따라 올라 가는데,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11. 모세의 장인 호باط의 자손 가운데 켄 사람 헤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문중에서 떨어져 나가 케테스 근처 사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12.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불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전해들은 시스라는 13. 구백 대나 되는 철병거까지 합친 전 군대를 하로셋하고임에서 키손강으로 출동시켰다. 14.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렀다. “행동을 개시하십시오. 이 날은 야훼께서 시스라를 그대 손에 붙이시는 날이오. 정녕 야훼께서 그대 앞에 서서 전진하실 것이오.” 그리하여 바락은 만 명 부대를 이끌고 다불산에서 쳐 내려갔다. 15. 야훼께서 시스라가 거느린 그의 전병거대와 군대를 바락 앞에서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쳤다. 16. 바락은 그 병거대와 군대를 하로셋하고임까지 따라 가며 추격전을 벌였다. 시스라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칼에 맞아 쓰러졌다. 17. 한편 시스라는 켄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을 향해 뛰어 도망쳐 갔다. 하솔 왕 야빈과 켄 사람 하벨 가문은 서로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18. 야엘이 시스라를 나와 맞으며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나리. 어서 들어오십시오. 마음 놓으십시오.” 시스라가 그의 천막에 들어오자 야엘은 담요로 그를 덮어 주었다. 19. 시스라는 목이 마르니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하였다.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부대를 열어 좀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 주자, 20. 시스라는 야엘에게 부탁하였다. “천막 문에 섰다가 누가 와서, 여기에 누가 없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해 주오.” 21. 헤벨의 아내 야엘은 천막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그의 관자놀이에 들이박았다. 시스라는 기진맥진하여 정신없이 자다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22. 때마침 바락이 시스라를 추적하여 왔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입을 열었다. “들어 와 보십시오. 장군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락이 들어 가 보니 시스라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죽어 쓰러져 있었다. 23.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그 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기세를 꺾으셨다. 24. 그 후로 가나안 왕 야빈은 점점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눌리다가 마침내 망하고 말았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통해 구원하신다.
- *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지 않고도 의를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시련에 빠지게 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땅에서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정복 전쟁을 하였는데 중앙, 남쪽 그리고 북쪽 세 곳으로 나누어 수행했다. 전쟁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적들을 복종시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 뒤 그들은 땅을 분할하였고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할당하였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시험을 어느 정도 이겨내어 거듭남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 했을 때, 우리 안의 모든 자질들이 삶의 설계에 따라 각기 적당한 위치에 앉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시점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것은 누구나 범하기 쉬운 실수이다. 그들은 적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고 승리를 과신하여 더욱 굳건히 스스로를 단속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이와 더불어,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 적이었던 사람들과 결혼을 허용했고 또한 이방인들의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여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며 시정함을 멈추게 됨으로써 부주의함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다.

우리의 영적 부주의함은 이미 극복해 버렸다고 인식하고 있던 악들이 예전보다 더 강하게 자라서 튀어나올 기회를 준다. 이것이 가나안 땅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적들이 차례로 일어나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상징된다.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움을 원한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매번 곤경에 처하면 주님에게로 돌아갔고, 주님은 그들을 언제나 도우셨다. 적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지도자를 세우셨다. 지도자들은 지방적이며 일시적이었으며 판관(Judge)이라 불렸다. 판관은 어떤 특별한 진리를 의미한다. 이 특별한 진리는 주님께서 하나의 시험에 처한 우리를 위해 그 상황에 맞게 보내시는 진리를 말하는데 이 진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이미 들어 있는 말씀에서 끄집어내신 진리로 우리가 처한 시험을 유발한 악과 거짓에 대항하여 싸우게 될 특별한 진리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판관 드보라는 전투를 직접 지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대장군인 바락을 지도 감독하고, 그를 축복하여 그로 하여금 적을 이기게 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의를 구하려는 단순한 바램이 우리들 속에서 올라오고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실감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진리는 우리를 지도 감독하며 축복하여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험에 이기도록 우리를 노력시키며 천국적 삶 안에서 우리를 재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

야엘(Jael)의 단호하고 잔혹한 행동과 그것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잔혹한 행위 자체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가져온 결과를 축복하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주님은 이러한 잔혹한 행위를 선용하셔서 악한 경향성과 심정과 지성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사고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없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악한 경향성이 일어나려 할 때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야엘처럼 때려 눕혀야 한다. 그래서 계명에 사용된 어귀 “.....하지 말라”는 야엘의 손에 든 천막 말뚝과 같은 의미이다.

제 1반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약속된 땅에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그들 자신의 본향에 정착했다. 그들은 삶이 편해지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해야 함을 잊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의 적들과 대적하여 싸우고 나면 또 다른 적들과 싸워야만 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님의 도움에 의해서면 적을 무찌를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후손은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가나안땅의 적들에게 입증하고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 수많은 전투를 해야 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군대를

해산하고 각자의 땅을 일구기 위해서 흩어져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여호수아는 전투의 승리를 위해 성실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었다. 그리하여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열 두 지파 사람들이 정착된 가정을 꾸릴 땅을 분할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다. 이것은 이집트를 떠난 후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없는 곳 즉 그들 스스로 생활해 가는 곳을 소망함이 이뤄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아주 평화롭게 살았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주님을 늘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킬 것이라고 여호수아 앞에서 다짐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자 주님은 그들의 적들이 다시 강해지도록 허락하셨다. 판관기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전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없었다. 판관기 17장 6절을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 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고 적혀 있다.

주님 앞에서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서는 세상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 약속을 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자주 범하는 판관기에서 말하는 죄들이다. 약속을 잊는 것으로 부족해서 주님께 순종해야 함마저 잊어버린다면 그 때는 주님께서도 그들을 도울 수 없게 된다.

우리는 곤란한 일을 겪게 될 때 도움을 줄 누군가를 찾거나 혹은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줄 것을 기대 한다. 이스라엘에는 과거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잘못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그들에게 고난을 헤쳐 나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셨다. 이러한 사람을 판관(사사)이라 부르는데, 모두 16명이 있었다.

본문의 이해를 위한 요점 및 질문정리

- * 처음 세 명의 판관은 오드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이다.
- * 본문에서는 어떤 적이 공격했는가?
- * 이 적의 대장은 누구인가?
- * 당시 이스라엘의 판관은 누구였는가?
- * 여판관은 어디에 살았는가?
- * 드보라는 전투를 누가 이끌도록 했는가?
- * 어느 지파가 군대로 편성되었는가?

- * 어느 강가에서 전쟁이 치러졌는가?
- * 5장 21절을 통해 주님께서 바락이 이기도록 또 다른 방법을 쓰셨음을 알 수 있다.
- * 기손 강이 적들을 끌어 버렸다고도 말한다.
- * 누가 전투에 승리했는가?
- * 시스라는 누가 죽였는가?
- * 어떻게 그 여자는 그를 죽였는가?
- * 켈 사람들은 미디안 족으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다.
- *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 후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했다.

제 2반

성서 지도를 참작하여 본문 내용을 입체적으로 공부하자. 또한 성서 참고문헌을 찾아보아 등장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문 공부를 위한 질문정리

- * 본문에서는 어떤 적이 위협했는가?
 - *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는 민족은 어느 구역의 땅에 살았는가?
 - * 그 당시의 판관은 누구였는가?
 - * 그 여판관은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 * 드보라는 누구에게 야빈을 대항해서 싸우도록 요구했는가?
 - * 어느 지파로부터 드보라는 군대를 편성했는가?
 - * 바락은 드보라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
 - * 그 여자는 바락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가?
 - * 야엘은 어떤 사람의 후손인가?
 - * 그 당시 이 여자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왔는가?
-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거룩한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줄 때까지 그들을 이끌었다. 성서 지도를 보면, (성서 뒷면 참조) 각 지파가 자리 잡은 장소를 알 수 있다. 두 지파 반이 요르단 강의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 요르단 강 서쪽의 거룩한 땅은 각 지파에서 뽑힌 남자들이 조사했고 열 부분으로 구획 되었다. 이후에 이렇게 구획된 땅의 주인을 제비뽑기를 해서 결정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전통으로 주님께서 각 지파가 정착할 적당한 장소를 결정하셨음을 의미한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성심껏 주님을 섬기며 남아있는 모든 적이 소탕될 때까지 각 지파가 각자의 영토 안에서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약속대로 정복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할당 받은 땅에 정착하는데 집착하여 전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의무를 일깨워 줄 지도자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의 적들은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진 채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과 협정을 맺고 그들과의 결혼도 허용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적들의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까지 있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더 쉽게 여기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적이 섬기는 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적은 강해져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복종 시켜 간섭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주님은 각 지역 지파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돌아설 때까지 각 지역에서 적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허용하셨다. 하지만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스라엘 지파가 주님께 울부짖으면, 주님은 각 지파가 겪는 고난을 해결해 줄 지도자를 세우셨다. 이들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의 민족 모두 위에 세워진 지도자가 아닌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지도자로 판관(Judge)이라고 불렸다. 주님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섭리하셔서 도움을 주시고자 하신다. 즉, 주님은 우리가 겪게 될 시험에 대비하여 우리를 이끌어 줄 특수한 진리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양육되도록 하신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허점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허점과 싸우기 위해 우리를 분발시킬 필요가 있기 전에도 곤경에 처한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 제 2장 20-23절을 읽어보면 이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판관인 오드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에 대항하여 사람들을 이끌었다. 두

번째 판관은 베냐민 지파의 에훗으로 모압왕 에글론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냈다. 그리고 세 번째 판관인 삼갈은 블레셋 사람과 싸워 승리했다. 지도에서 베델과 라마를 찾아보자. 베델은 아브라함이 거룩한 땅에 들어섰을 때 두 번째로 멈췄던 지역이며 야곱이 사다리에 관한 꿈을 꾸었던 곳이다. 라마는 사무엘이 태어난 고향이다.

이스르엘(Esdraelon)평야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지도를 보면, 스블론 지파의 남쪽 경계선에 있는 해안선을 따라 꼭지같이 나와 있는 갈멜(Carmel)산을 찾을 수 있다. 이 산으로부터 키손강이 남동쪽으로 흘러 이스르엘 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이스르엘 평야는 거룩한 땅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 군대들이 접전하기 좋은 장소로 많은 전투가 그곳에서 있었다. 이 평야 지대에서 키손강의 물줄기가 끝난다.

본문의 못(nail)은 나무로 된 천막 말뚝이었다. 여인이 말뚝을 사람의 머리에 박아 죽였다는 행동은 매우 잔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주님은 말씀의 상응적 의미를 위해 이렇게 가혹한 행위를 사용하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는 주님께서는 무지에서 오는 잘못된 행위는 나무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엘의 행위는 살인이라는 잘못된 것이었으나 그녀의 동기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함이었으며 그녀는 미디안 사람으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몰랐다. 주님은 언제나 동기(motives)로서 우리를 판단하신다. 17-22절을 읽고 주님께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주님은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는 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언제나 노력하셨다.

제 3반

판관시대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에게 주님께 순종하려는 자세가 충분치 않으면, 주님은 종종 어려운 시험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심이 강조된다. 그리고 마음과 의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부분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본다.

아브라함부터 판관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유아기 때부터 부모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시작하기까지 우리의 영적 발달의 모습들로 볼 수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치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삶의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듯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중재하며 이스라엘 후손들의 삶을 이끌었다. 그들의 후손들은 그 땅에 집들을 건설하며 그들 스스로 자립하게 되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자립된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 자립된 삶을 시작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해나가야 한다. 이 때 우리는 스스로 느끼기에 자신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 같아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배운 여러 교훈들을 무시하거나 잊게 되는 데 그 결과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여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예상보다 훨씬 강한 시험을 만나기도 한다. 열두 지파가 각자 땅을 차지하고 각자의 삶을 위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분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과거에 받은 교훈적인 가르침들을 기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강압적이고 지키기 귀찮은 의무조항처럼 여긴다. 그리고 다른 세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다 쉽고 더 현명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 즉 돈, 출세 그리고 쾌락을 달콤하게 느끼게 된다. 우리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기적 경향성은 기회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잠복해 있다가 이윽고 강건하게 자라서는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한다.

판관의 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제 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17장 6절)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계속 찾고 끊임없이 그분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도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 해당 된다. 하지만 이는 곧 바로 시련과 고난의 때로 연결된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를 행하고는 그것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허용 하신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미약하고 좁은 시야를 가졌음을 인식하고 주님을 진정한 우리 삶의 안내자로 찾도록 하기 위함이다.

판관은 주님이 그 당시의 특수한 적들에 대항해 이스라엘 후손들을 이끌기 위해서 곳곳에 일으켜 세운 한시적인 지도자이다. 이들은 우리가 역경에 처하여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상기 시켜주시는 개별적인 진리들을 상징한다. 제 3장은 처음의 세 판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오드니엘은 갈렙의 동생 크나즈의 아들인데 메소포타미아 왕을 쳐서 이겼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로 모압왕 에글론을 지략을 써서 암살하고 그 왕의 군대를 완전히 쳐부수도록 사람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육백 명을 죽였다.

이들 세 판관 다음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판관 드보라다. 그녀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그녀에 대해서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 자리 잡고”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베델은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을, 라마는 영적인 것들을 그리고 종려나무는 모든 선함과 모든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원리를 뜻한다.

당시 적들은 판관이 살고 있는 근처나 중심부 혹은 남쪽 부분이 아닌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시험 중에서 이해성 안에서 거짓을 산출해 내는 것을 뜻한다. 드보라는 군대의 지휘자로 북쪽에 위치한 납달리 지파의 바락을 임명하였고, 군대는 납달리와 북쪽 방향에 있는 스블론 지파에서 뽑으라고 했다. 거짓 추론은 반드시 진정한 추론과 부딪쳐야만 하는데, 이것은 이 싸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반드시 치러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바락이 드보라가 동행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겠다고 하자 드보라는 전투에 참가 하겠다고 했다. 이 전투는 주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주님께서서는 적들의 말과 철병거를 키손 강에서 쓸어 버리셨다. (판관기 5:21-22) 이처럼 주님과 천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은 거짓에 대항해 추론하는 우리의 노력을 후원하고,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끄신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야빈 군대의 장군인 시스라가 강력한 힘에 의해 파괴됨을 보여준다. 시스라는 우리의 거짓 추론을 지휘하고 명령하는 거짓된 원리를 의미한다. 거짓된 원리들은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도 교묘하게 피해 달아나기도 한다. 여인 야엘은 켈 출신이다. 켈족은 고대 교회로부터 남아 있는 선한 자들로, 우리 속에 있는 어린 시절의 교훈적 가르침으로 되돌아가도록 우리의 심정(hearts)을 자극하는 선한 자극을 의미한다. 텐트는 예배에 있는 어린 시절 같은 심정상태를 뜻한다. 텐트를 지상에 부착시켜 단단하게 서도록 해주는 말뚝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생활을 연결시켜 주는 말씀 속의 단순한 진리들을 뜻한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잔인한 행동이 묘사하는 바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워둔 단순한 계명을 가지고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그의 관자놀이에 들이 박아...”진 것 같이 되어서 거짓추론의 뒤에 있는 원리들을 이겨내는 우리의 능력을 의미한다.

기본 상응 공부

베델 =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라마 = 영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텐트 = 예배 속의 어린 시절 같은 상태
 야엘 = 이스라엘 돕는 자, 즉 천적인 천국을 돕는 자, help for Israel, help for the Celestial

제 4반

상응(correspondence)이 주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 예로, 드보라의 주변 환경에 대해 검토해 본다. 그리고 켈족의 역사와 그것의 의미가 강조되고 전쟁의 결과와 그 본성도 알아본다.

거룩한 땅의 정복과 정착은 한 사람이 성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즉 부모의 지시를 따르는 시기가 끝남과 비슷하다. 판관기 1장에서는 양친의 품을 떠나 한 인격체가 형성된 상태를 열 두 지파와 그 지파가 자리 잡고 정착한 모습을 통해 묘사되고 있다. 우리의 의도 또는 의지 부분은 남쪽 부분에 해당되며, 이것은 시므온과 유다 지파로 묘사된다. 이 두 지파는 갈렙의 지휘 아래 거인족 아나김의 세 아들을 포함하는 모든 적을 소탕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의도(심정)가 선함을 뜻한다.

북쪽 부분은 우리의 이해성을 묘사하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싸움은 부분적인 승리에 불과했다. 이 지파도 적들로부터 공물을 받아낼 만큼 충분히 우세했다. 하지만 그들은 적들을 완전히 소탕하지 않았고 적들 사이에 정착해 살며 그들의 우상까지 숭배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회의 통상적인 생각 속에 있게 되는 수많은 오류를 꿰뚫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자립성을 갖추지 못한 것과 같다. 우리가 종종 세상적 추론과 타협하며 이로 인해 셋길로 빠지게 됨을 보여준다.

판관기 2장 7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수아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줄곧 야훼를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해 주신 큰일을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줄곧 야훼를 섬겼다”고 했다. 이는 우리의 독립적 삶이 시작되어서도 아직은 과거 부모 밑에서의 가르침이나 훈육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상태를 말해준

다. 그러나 이 상태가 퇴보하여 가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즉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들을 섬겨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못할 짓들을 하였다”와 같은 상태로 우리 역시 빠져 버린다.

17장 6절의 “그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 멋대로 하던 시대였다.”라는 구절은 판관 시대의 상태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해야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사는 상황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자아 중심적인 사상이 거듭남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아님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타민족들의 빈번한 침략으로 고생을 했듯이 이러한 사람들 또한 반복적인 쓴 경험들을 겪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정복이 승리로 끝났다고 여기며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했고, 살아남은 적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자 그들을 공격했다.

판관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세운 인물들이다. 우리가 시험과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면서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울 특별한 진리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끌어 내신다. 판관의 각 적들과 판관은 우리의 특성을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북쪽 부분에 있던 적은 우리속의 거짓 추론에 해당된다.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 두 여인들에 의해 구원되었다. 첫 번째 여인 드보라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의 종려나무 아래 있던 예언자이다. 야곱의 막내아들 베냐민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자질을 뜻한다. 종려나무는 선함 그 자체는 주님에게만 있으므로 그분의 진리가 우리를 규율해야 한다는 원리를 뜻하며, 여인은 애착을 표현한다. 따라서 거짓 추론이라는 시험에 대처하여 일으켜지는 우리의 판관은 우리의 사고가 주님을 지도자로 찾는 애착을 의미한다.

드보라는 전투를 위해 가장 북쪽에 자리 잡은 두 지파를 선정했다. 이것은 거짓 추론에 대항하는 전투는 심정 쪽에서 보다는 지성 쪽에 전투임무가 맡겨져야 함을 암시한다. 우리가 주님이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심을 확신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적은 홍수 속에 사로 잡혔고 적의 말과 철병거는 그 홍수에 휩쓸려 졌다. 이는 5장 21절의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다.

전투가 혼란에 빠지게 되자 적의 장군 시스라는 도망갔다. 시스라는 거짓 추론을 지휘 감독하며 그 뒤를 밀어주는 거짓 원리를 뜻한다. 이것은 즉 우리가 어떤 논쟁에 휘말려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논리를 뒤엎거나 논리의 근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으면 승리한 것으로 오판하는 것과 같다.

야엘은 켄 사람 헤벨의 아내이며, 광야에서 모세를 도운 모세 장인의 후손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Reuel 또는 Raguel)는 어린 시절 받은 훈육의 결과로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 남아있는 단순한 선들을 뜻한다. 미디안은 사라가 죽은 후 아브람이 다시 장가들어 게투라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다. 대부분의 미디안족은 이스라엘에 대항하였지만, 켄족만은 이스라엘과 우호관계가 있었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거룩한 땅에 왔다. (민수기 10:29-32, 판관기 1:16, 4:11참조) 텐트는 단순한 믿음에서 오는 예배를 상징한다. 텐트 말뚝(nailor wooden tent pin)은 땅에다 텐트를 팽팽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일상의 삶과 연결되도록 하는 단순한 명령들에 해당된다. 야엘의 잔인한 행동은 어린 시절에 기억한 “너희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사용하여 거짓 추론을 그 뿌리까지 뽑아내 버리는 것을 뜻하며, 적에 대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천막말뚝을 박았을 때 그 여자는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즉 “너희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어구가 우리의 일상 속에 단단히 박혀져있어야만 함을 암시하고 있다.

드보라와 야엘 없이는 바락과 북쪽의 두 지파의 군대가 승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인간적인 총명만으로는 세상적인 추론이 가하는 습격에 대항할 수 없음을 뜻한다. 여호와께 예배함을 잊고 있던 이스라엘은 하솔을 다스리는 왕의 손아귀에 잡히게된다. 그리고 주님께 고통을 호소하자 주님께서는 판관 드보라를 세우시어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러한 과정은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러하다. 이 과정은 자만 -> 노예화 -> 주님을 기억함 -> 건져내심이라는 순서로 연결된다. 시편 107장 6절을 보면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울부짖자, 야훼께서 사경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신 것이 그 한 예이다.

제 5반

본문의 내적 의미는 우리 모두의 경험과 직결된다. 본문의 이야기와 간단한 해석으로 서두를 시작한다. 관관기 17장 6절의 구절은 관관시대에 대한 요점이다.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고도 올바른 것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의 위험성이 재차 강조된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여전히 관관시대에 머물러 있는 이가 많다. 이들은 자신의 관심분야 혹은 사업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종교생활 분야에는 최소한의 지식이면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신명기 6장 10-12절에서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써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에 너희를 이끌어 들이실 때가 되었다. 거기에는 너희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너희가 채우지 않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이 있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이 있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다. 너희는 그것을 마음껏 먹게 되리라. 그리 되더라도 너희는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신 너희 하느님 야훼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관관 시대는 신명기에서 예견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된 땅에 들어와서 주님의 권능으로 인해 그 땅의 소유권을 획득했다.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있었던 그 땅에 대한 정복 전투는 그들에게 잠깐의 평화를 주는 데는 충분했다. 그들은 자유로이 자신들의 새로운 고향이 될 마을과 도시들을 건설하며 그 땅의 소출을 즐겼다. 이것은 그들이 늘 갈망하던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삶속에서 주님이 염려하여 오래 전부터 당부한 것에 대한 시험으로 빠지고 말았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던 동안과 주님의 기적들을 목격했던 장로들이 살아 있던 동안은 주님에 대한 신뢰심이 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떠나게 되자 그들은 이방인들과 섞이기 시작하고 그들과 결혼했다. 마침내 그들은 이방인들의 우상까지 숭배했다. 이것은 거둬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오는 시험에 관한 묘사다. 영적 생활을 하려고 결심한 우리는 처음에는 무언가 잘 해보겠다는 열정을 갖고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여호수아(싸우는 진리를 상징함)가 살아있고 주님이 시험에서 건져 내신 여러 증거들을 기억 속에 뚜렷하게 간직한 이스라엘 후손들과 같다. 따라서 열정을 가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승리해 나가며 영적 동기들로부터 사는 삶에서 오는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그 후 우리는

마치 올바른 삶에 정착된 듯 느끼며 긴장감을 잃게 된다. 즉 우리는 우리와 싸워왔던 적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님을 잊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승리감에 취해 새롭게 발견한 안전과 평화로 자신만만해 하는 동안 적들은 다시 일어나 세력을 얻어간다. “많은 전투의 경험이 있으니 적의 심중은 간파하고 있다”는 식의 과신은 과거의 무자비한 악한 감정, 또는 세상적 추론과 타협되도록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 결과, 주 우리의 하나님 대신 세상이 승배하는 성공, 쾌락, 돈, 권력 등등 진짜 우상들이 마음속에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관시대이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되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뒤에서 주춤거리며 역시 동행을 한다. 그러다가 우리는 소멸됐다고 생각했던 적들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사실에 놀라게 되며, 한동안 적을 스스로 무찔러 볼까하고 투쟁하다가 스스로 자신의 약함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특수한 진리들을 상기시켜 주신다. 이것은 주님이 관관들을 지도자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의 의미이며, 한 명의 관관의 지휘 하에 적들을 토벌하게 되고 다른 적이 등장 할 때 까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지는 못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경향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주님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악을 침묵시키시므로 우리는 더 이상 투쟁할 필요가 없다. 관관기 2장 22절을 통해 주님이 왜 거룩한 땅에 이러한 적들이 남아 있도록 허용하셨는가에 대해 알 수 있다. 즉 “그들을 시켜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리라. 이 백성이 조상들처럼 내가 가르쳐 준 길을 명심하고 바로 가는지 시험해 보리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 가운데 강인한 인격을 얻게 됨을 뜻한다. 시편 55편 19절의 “그들은 마음을 고치지 않고 하느님 두려운 줄을 모르웁니다.”라는 기록은 백성들의 사악함을 표현한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꾸준한 운동으로 단단한 근육을 얻듯이 시험을 통해 강인함을 길러 나간다.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빛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 스웨덴북은 주님이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심에 대해 사도 바울과 같은 의견을

갖는다. (고린도전서 10:13) 이와 더불어, 주님은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을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시험을 강한 인격을 갖추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겨야 하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더욱 깊은 악의 뿌리를 보고 실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스웨덴볼의 저술에는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시스라가 등장한 이 전투의 줄거리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다. 그러나 「계시록 설명 제 477-484항」편에서 이 전투는 “악에서 나온 거짓과 선에서 나온 진리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계시록 설명 제 434-438항」에서 시스라는 “교회를 파괴하는 악에서 나온 거짓”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북쪽에 있는 적들은 이해성 부분에 해당되는 거짓들이다. 이 거짓들은 계속해서 자라서 우리가 그 성장의 빠름을 눈치 채기도 전에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된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굳이 교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예로 들어 보자. 신실한 신앙인들이 보기에 이 주장은 아주 명백한 거짓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멀고 가까운 데 있는 교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런 경우 우리는 대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썩 마음 내켜 하지 않거나 한번쯤 참석해 보고는 다시는 참석하기 싫어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한다. “내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교회의 설교를 듣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해가 될 뿐이야, 그러니 교회에 안 가느니만 못한 것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주장한다. “나는 일주일 내내 힘든 일을 하니 주일만큼은 꼭 자거나 아니면 차라리 교외로 나가 다음 주일의 힘든 일을 위해 좀 쉬어야만 해.” 이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교회에 가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며 교회에 참석 안 해도 세상에서 잘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거짓인 이유는 세상의 삶이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며 거듭남을 통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이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상징하는 영적인 거듭남의 중요성을 무시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드보라는 여관관으로 예언자였고 “라마와 베델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살았었다. 라마는 천적인 것에서 나오는 영적 진리에 속한 것을 상징한다. 베델은 내적인 것에 관한 지식을 뜻한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

심을 원리로 삼음을 뜻한다. 따라서 드보라에 관한 내용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서 찾는 내적이며 영적인 진리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표현한다. 이 애착은 거짓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우리를 이끈다. 지휘자와 군대가 선발된 두 지파는 북쪽에 자리 잡았는데, 이는 우리를 공격하는 적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부딪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해성 안에 있는 진리들임을 의미한다.

야엘에 의해 시스라가 죽는 모습은 옛 화가들이 그리기를 즐긴 주제이다. 이 장면은 아주 격렬하며 잔인한 그림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읽는 이들의 이해성에는 하나의 큰 장애물과 같을 것이다. 제 5장의 드보라의 승전가에서 야엘이 어느 여인보다도 복을 받은 자로서 표현되며 마치 살인 행위가 기쁨에 넘치는 행위인 것처럼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주님이 잔인한 행위를 어떤 좋은 예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며 잔인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도 아니다. 스웨덴북은 이를 주님이 최하로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분의 말씀이 와 닿도록 하기 위해 그분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한다. 우리 주위에는 두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보다 높은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속뜻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 야엘은 켈족 헤벨의 아내며,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의 후손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야엘은 거짓에 속하면서도 어린 시절의 심정상태에 존재하며 꿈틀거리는 애착을 뜻한다. 야엘의 마지막 타격을 살펴 보자. 타격을 가하는 야엘이란 우리 안에 있는 야엘 즉 주일 성경 학교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던 어린 시절 속에 있던 애착이 시스라를 강타하게 되는 것이다. 텐트는 거룩한 것을 표현한다. 텐트의 말뚝은 선한 삶 즉 거룩한 것들이 보편적 상태 안에 정박(anchor)하는데 쓰이는 특수적 진리를 말한다. 이러한 특수한 진리는 계명의 하나 또는 어린 시절에 암송했던 어느 성경 구절에 해당될 수도 있다. 강타(a blow)란 위협하던 거짓이 안심하며 잠든 짧은 순간에 “팡”하고 일격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적(enemy)이라는 개념이 우리 속의 악과 거짓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 가면 전쟁에 관한 것, 적을 전멸시키는 장면, 정복, 각 성읍의 파괴 등등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남의 과정에서 많은 시험들을 만나게 되고 이것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특별한 교훈임을 알게 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5280항 2번과 3번)」: “인간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재구성이 있어야 하며, 재구성은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이유가 사람은 말씀에서 또는 교리로부터 선(good)이 무엇인지 배워야하기 때문이다. 말씀 또는 교리로부터 비롯된 선에 관한 지식을 다른 말로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들(truths of faith)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믿음에서 비롯된 모든 진리는 선에서 흘러나와서 선으로 흘러가게 되며 진리들은 선을 그 궁극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거듭남 이전에 있어야 하는 재구성의 상태를 첫 번째 상태라고 한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들은 초등부와 중, 고등부 때에 자연스럽게 이 재구성의 상태로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아주 소수만이 거듭남을 이룬다. 그 이유가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들을 배움에 있어서 명성, 명예 또는 어떤 이득을 위해서 배우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또는 이기적인 애착이 가득한 사람은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를 배우게 되더라도 이러한 잘못된 애착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거듭나지거나 새로 태어날 수가 없다. 잘못된 애착들이 제거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험(temptation)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세상적인 또는 이기적인 애착은 지옥에 사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지옥의 악령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면 활발해 진다. 반면에 유아기의 순진한 상태 안에 주입되어졌고 그 후 내면 깊은 곳에 저장되어지고 시험의 상태에 들게 될 때를 위해 보존 되어진 선과 진리에 대한 애착(affections)들은 천사들에 의해 활성화 된다. 그 결과가 악한 영들과 천사들의 충돌(conflict) 즉 전쟁으로 인간에게는 이것이 시험으로 느껴진다.”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는 일생동안 무엇을 성취했는가?
- 2) 거룩한 땅은 어떻게 지파 별로 분할 되었는가?
- 3) 여호수아를 바로 계승한 지도자가 있었는가?

- 4)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 5) 그 결과는 무엇인가?
- 6) 그들이 주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 가?
- 7) 주님께서 일으켜 세운 지도자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 8) 여판관은 누구인가?
- 9) 여판관 당시 어떤 적이 공격했는가?
- 10) 그 적의 대장은 누구였는가?
- 11) 드보라가 세운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 12) 어떤 조건하에 그는 군대를 이끌었는가?
- 13) 어떤 지파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뽑았는가?
- 14) 전투는 어디서 벌어졌는가?
- 15) 누가 승리했는가?
- 16) 시스라는 어디로 피신하여 누구에게 숨겨 달라고 했는가?
- 17) 그 여자는 시스라를 어떻게 했는가?
- 18) 판관 시대는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을 묘사하는가?
- 19) 북쪽에 있는 적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 20) 천막 말뚝은 무엇을 뜻하는가?
- 21) 야엘의 영적 뜻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거룩한 땅을 정복했다 2) 제비 뽑아서 나누어짐 3) 없다 4) 주님을 잊어버림
 5) 많은 적들이 그들을 괴롭힘 6) 지도자를 세워 주셨다 7) 판관 8) 드보라
 9) 야빈 10) 시스라 11) 바락 12) 만일 드보라가 함께 간다면 13) 납달리, 스블론
 14) 키손강 근처 15) 이스라엘 16) 야엘 17) 그를 죽였음 18)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모습
 19) 거짓 사상을 생산해 내는 시험 20) 예배와 일상생활을 묶어주는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단순한 진리
 21) 이스라엘(천적인 천국)을 돕는 사람, Help for Israel, Help for the Celestial.

15

사무엘의 출생

머리말

판관시대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재정리한다. 판관시대의 마지막 판관으로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인정한 판관은 사무엘이었음을 기억하자. 또한 어린 시절 사무엘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의 후기 업적들이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음도 유의하자.

성서 본문: 사무엘상 1, 2장 1-11절

1장: 1.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엘카나라는 수브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라마다임 출신으로서 에브라임 사람 수브의 현손이요, 도후의 증손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여로함의 아들이었다. 2. 그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을 두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3. 엘카나는 해마다 자기의 성읍을 떠나 실로로 올라 가 만군의 야훼께 제사를 드려 예배하였다. 실로는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야훼를 모시고 사제 일을 보고 있는 곳이었다. 4. 제일이 되면 엘카나는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을 몹몹이 나누어 주었다. 5. 그러나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는 한 몹밖에 줄 수가 없었다. 야훼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6. 게다가 적수 브닌나는, 야훼께서 잉태하게 해 주시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는 한나를 더욱 괴롭혔다. 7. 엘카나가 매년 야훼의 신전에 올라 갈 적마다 그렇게 하였으므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는 목이 메어 먹지를 못했다. 8. 남편 엘카나는 한나를 보고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슬퍼만 하오?”

내가 당신한테는 아들 열보다도 낫지 않소?”하며 위로해 주었다. 9. 실로에서 젓상을 물리고 나자 한나는 일어나 야훼 앞에 나아갔다. 그 때 마침 사제 엘리가 야훼의 성전 문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10. 한나는 마음이 아파 흐느껴 울며 야훼께 애원하였다. 11. 그는 서원을 하며 빌었다. “이 계집종의 가련한 모습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계집종을 저버리지 마시고 사내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야훼께 바치겠습니다. 평생 그의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 한나가 야훼께 오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13. 한나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술취한 여자로 알고, 14. “언제까지 이렇게 주정을 하고 있을 참이나? 어서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겠느냐?”하고 꾸짖자 15.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사제님! 저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포도주도 소주도 마시지 않았습니 다. 저는 야훼께 제 속을 털어 놓고 있습니다. 16 사제님, 이 계집종을 좋지 못한 여자로 생각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7. “그럼,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는 하느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 엘리가 이렇게 말하자, 18. 한나는 “그렇게까지 보아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하면서 물러나와 음식을 먹었다. 그 얼굴에는 어느덧 수심이 걷히었다. 19. 엘카나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식구들과 함께 야훼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 왔다. 엘카나가 아내 한나와 한자리에 들자, 야훼께서 한나를 마음에 두시어 20. 임신하게 해 주셨다. 한나는 달이 차서 아들을 낳자 “야훼께 빌어서 얻은 아기”라고 하여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21. 엘카나, 그 사람이 식구들을 이끌고 다시 야훼께 주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22. 한나는 따라 나서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기가 젖을 떼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야훼를 뵈겠습니다. 그리고 영영 거기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23. “당신 좋을 대로 하구료. 젖 떼 때 까지 집에 남아 있으시오. 야훼께서 부디 당신의 서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는 남편 엘카나의 허락을 받고 아들이 젖을 떼 때까지 집에서 키우게 되었다. 24. 이윽고 젖을 떼자 한나는 아기를 데리고 나섰다. 삼 년 된 황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에다가 죽부대에 포도주를 담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야훼의 성전으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다. 25. 일행은 소를 잡고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 갔다. 26.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사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바로 이전에 여기 사제님 앞에서 야훼께 기도를 드리던 여자입니다. 27. 이 아이는 기도해서 얻은 아이입니다. 제가 야훼께 애원했더니, 야훼께서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28.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야훼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야훼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자 일행이 거기 야훼 앞에 엎드리고,

2장: 1.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 “내 마음은 야훼님 생각으로 올령거립니다. 하나님의 은덕으로 나는 얼굴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내 가슴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 주시니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2. 야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당신밖에는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바위는 없으십니다. 3. 잘난 체 지껄이는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거만한 소리를 입에 담지 말아라. 야훼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4. 힘있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비틀거리던 군인은 허리를 묶고 일어나게 되리라. 5. 배불렀던 자는 떡 한 조각 얻기 위하여 품을 팔고 굶주리던 사람은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되리라. 아이 못 낳던 여자는 일곱 남매를 낳고 아들 많던 어머니는 그 기가 꺾이리라. 6.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사를 쥐고 계시어 지하에 떨어뜨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7. 야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멸지게도 하시며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신다. 8. 땅바닥에 쓰러진 천민을 일으켜 세우시며 잿더미에 뒹구는 빈민을 들어 높이셔서 귀인들과 한 자리에 앉혀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밀동은 야훼의 것, 그 위에 세상을 지으셨으니 9. 당신을 따르면 그 걸음걸음을 지켜 주시지만 불의하게 살면 앞이 캄캄해져서 말문이 막히리라. 사람이 제 힘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법, 10. 야훼께 맞서는 자는 깨어지리라. 지존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천둥소리로 우렁차게 호령하신다. 야훼는 땅 끝까지 심판하시는 분, 당신께서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의 이름을 떨치게 하신다.” 11. 한나는 사제 엘리 밑에서 야훼를 모시도록 아이를 거기에 남겨 두고 라마로 돌아갔다.

교리 요점

- * 주님을 예배함을 중심으로 인생을 체계화해야 한다.
- * 우리는 단순한 믿음과 순종에 관한 우리 어린 시절의 심정상태를 회복시켜 보존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는 구약성서 중에서 아주 사랑 받는 내용에 속한다. 아기를 낳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인의 심정과 만약 아이를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약하는 장면은 모든 여인들에게 쉽게 공감될 것이다. 또한 어린이가 가진 순종적이며 신실한 본성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감동적인 부분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이야기가 전개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소홀함으로써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관관기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했던 것을 얻게 되자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느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보았다. 계약의 궤와 성막은 관관기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그 땅의 중심인 실로에 성막을 세웠고, 또한 백성들에게 항상 주님을 섬기라고 엄히 당부했다. 본문을 보면, 실로에 성막이 있고 아론의 계보로 내려온 제사장이 거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정기적으로 성막에 제물을 바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들에게 예배하는데 빠져 있었고, 보조 사제인 엘리의 아들까지도 부패해져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삶에서도 엿볼 수 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따라 주일 학교에 참석하고 말씀과 선한 삶에 대해 배우며 훈육되어진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자립하여 살게 되는 데, 그때 우리는 그동안 주일 학교와 부모님께 배운 바른 삶을 살기 보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를 체험한다고 주장하며 방탕하거나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삶 가운데 있는 선한 모든 것이 주님께에서만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즉 주님에 대한 예배로부터 떨어져 나가 표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우리의 독선적인 마음은 삶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 이미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는 정말로 극복하기

힘든 심각한 시련에 부닥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스스로 느낄 때 까지 계속된다.

우리는 심각한 시련을 맞게 될 때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것과 믿었던 것들을 떠올리거나 우리의 단순한 믿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엘이다. 그는 역전의 용사는 아니었지만 순종적인 아이였다. 그는 후에 실로에 있는 성막의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되었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지도자로서 전 국토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관관이었다. 그리고 주님은 늘 그와 동행하셨고 그를 통해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두 왕(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와도 늘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과 능력에 의존하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주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와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뤄짐을 인식해야 한다. 사무엘 시대 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주님은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 1반

한나의 기도와 서약을 통한 교훈과 실로에 있는 성막에 중점을 둔다. 성막이 계속 실로에 있었다는 것은 아론의 후손 엘리가 제사장으로 계속 있었음을 뜻한다.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에 대해 살펴보고, 두 여인의 차이점도 간략하게 다룬다.

궤는 금으로 덧씌워진 상자로 주님이 손수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교회였고,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보관한 궤를 안치하기 위해 시나이 산 아래에서 만들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이 주어진 시나이산을 떠난 때부터 궤와 성막은 늘 그들 행렬의 중앙에 있었고, 야영할 때는 모든 텐트가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진영을 갖추었다. 그들이 거룩한 땅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는 실로에 성막을 세웠다. 사제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수행했으며, 제사장은 항상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졌다. 모세의 형

아론은 첫 번째 제사장이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본문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그는 나이가 많았다. 사무엘은 성막에서 엘리를 도왔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전 국토를 다스리는 판관이 되었다. 주님은 그를 통하여 말씀하셔서, 그는 예언자이기도 했다. 우리는 사무엘이 마지막 판관임을 기억해야 한다.

본문의 내용 요약 및 질문정리

- * 성막에 대한 내용을 상기해 보자.
- * 본문에서는 거룩한 땅의 중심지인 실로에 세워졌던 성막이 다시 등장한다.
- * 마지막 판관이며 판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는 사무엘이다.
- * 사무엘만이 전 국토가 인정한 사람이었다.
- * 사무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 * 그 여자가 실로에 있는 성막에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 * 만약 기도가 응답되면 무엇을 하겠다고 주님에게 약속했는가?
- * 그 여자는 약속을 지켰는가?

제 2반

여호수아 18장 1절을 읽고 성막을 지은 이유와 그것의 목적을 재정리하자. 판관 시대의 일반적 특성과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에 대해 설명한다. 한나의 서약(11절)과 더불어 판관 삼손이 「나지르」인 이었음을 상기하자. 민수기 6장 1-5절을 읽고 「나지르」인에 대한 규칙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후기 업적이 강조된다.

본문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 * 여호수아서 다음의 성경은 무엇인가?
- * 판관들은 누구누구였는가?
- * 본문의 시대와 그 이전 시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 여호수아는 성막을 어디에 세웠는가?
- * 사무엘이 출생할 당시는 누가 제사장이었는가?
- * 누가 최초의 제사장이었는가?
- * 한나는 주님께 무엇을 소원했는가?

- *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는 그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 * 한나는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서약했는가?
- * 그녀는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가?

판관시대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다. (판관기 17:6) 따라서 판관기에서는 궤와 성막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주님께 향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향해 있었다. 우리가 선 혹은 악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충분히 현명하다고 착각하게 되면, 주님과 교회는 우리들 마음에서 멀어져 버린다. 따라서 주님과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들의 심정과 지성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게 된다. 궤와 성막이 아직 거룩한 땅의 중앙인 실로에 있는 것으로 시작되는 사무엘상서는 우리 깊숙이 감춘 듯이 놓인 하느님의 법을 우리가 재발견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주님을 잊어 버렸지만, 그들 중 소수는 모세의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며 정기적으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다. 사무엘의 부모가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에 속했다.

한나가 아이 낳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겨우 낳은 아이를 포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된다. 2장 18-21절을 보면, 한나가 그녀의 아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주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주님이 어떤 축복을 더해 주셨는지 알 수 있다.

「거룩한 땅(On Holy Ground)」라는 책에서 워체스터(William L. Worcester)는 사무엘서의 실재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다음에 오는 내용이 바로 그러하다: “우리 스스로 실로를 상상해 보아야 한다. 실로란 ‘쉬는 곳(the place of rest)’이란 뜻이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다. 실로는 풀밭을 가진 작은 언덕으로 높은 언덕들에 둘러 싸여 있고 여행자들의 발길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언덕 위는 황폐하다. 당시에는 조그만 읍이 그곳에 있었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한 후에 성막을 세웠다. 성막은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만들어진 거룩한 천막 즉 성막(tabernacle)임을 기억할 것이다. 바깥뜰에는 큰 번제단과 놋그릇이 놓여있고, 성막벽은 곧게 세운 널빤지로 되어있다. 그 안은 커튼으로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the most Holy Place)에는 계명을 적은 두 석판을 담은 궤가 놓여있다. 늙은 제사장 엘리가

그 성막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는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눈이 아주 어두웠다. 일부 사람들은 해마다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으로 왔는데, 그때는 과일절이 있는 봄철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제인 엘리의 아들들은 선하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제물을 착취했다. 어린 소년이 성막에서 늙은 제사장을 돕고 있었다. 그는 머리카락이 길고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어서 사제복과 같은 차림새였다. 그는 제단에서의 일들을 돕기 위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테이블 위의 빵을 정리했다. 또한 등불을 정돈하고 저녁에는 등에 불을 켜서 어두운 동안 주님의 집이 밝을 수 있도록 하였다. 등불이 타는 동안 엘리와 사무엘은 성막에서 잠들었다. 그리고 아침이 밝으면, 사무엘은 문을 열거나 성막의 커튼을 열어 아침 햇살이 들도록 했을 것이다.”

사무엘은 「나지르인(a Nazarite)」이 되었다. 민수기 6장 1-5절을 보면, 나지르인에 대한 법을 알 수 있다. 머리털은 우리의 신체 중 가장 바깥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성서의 가장 바깥 즉 글자에 해당된다. 성서의 글자는 하느님의 말씀의 가장 바깥 쪽에 해당된다. 나지르인은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깎지 말도록 명령되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주어진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사무엘은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면서 성장했다. 그는 관관 중에서 가장 위대했으며 마지막 관관이었다. 그는 다른 관관들 같이 용사는 아니었지만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였다.

제 3반

관관기에서는 예배의 남용 또는 게으름 등의 결과로 온 방만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며 성막에 갈 필요성이 강조된다. 성서의 책 중에는 흥미롭고 가치는 있지만 내적 의미가 없는 것도 있음을 지적한다.

관관기의 모든 이야기는 일률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시리즈의 형태와 같다.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주님께에서 찾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를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주님께에서 삶의 방향을 찾지 않은 우리의 삶은 두드러진 경향이 없는 사건의 연속이어서 질서적인 발달이 없다.

사무엘상에서 성막이 재등장한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을 보면, 거룩한 땅의 정복이 끝나자마자 그 땅의 중심인 실로에 성막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판관기서에서는 성막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 활동분야 혹은 자신의 사상에 빠지게 되면, 교회에 관한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

우리가 늘 배웠듯이, 주님은 우리의 어린 시절에 익힌 선과 진리에 관한 것 중 남겨 두신 것들(remains)을 우리의 깊은 곳에 보관되게 하신다. 이것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그 땅의 중앙에 있는 실로에 성막이 존재함과 아론의 후손 엘리가 제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해마다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고 있는 모습 등이 이를 묘사한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친숙하며, 삶의 질서 있는 시작과 발달을 그려주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은 모든 어린이가 사무엘처럼 태어나기 전에 주님께 헌납되어야 하고 교회로 일찍 데려가 교회를 섬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기꺼이 하도록 가르쳐져야 한다. 그 후에,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와 주님의 어린 시절과는 유사한 점이 있다. 주님이 여덟 살 때에 “부모들이 매년 과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기록 되어있고, 또 성전에 나가기도 했고 12살 때에는 성전에서 머무르면서 학자들과 대화도 나눴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간 말씀과 마찬가지로, 아주 깊은 속뜻으로는 주님의 생애를 말하고 있다.

한나의 서약(1:11)을 보면, 사무엘의 일생은 글자그대로의 수준에서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기초했다. 그 이유는 머리털은 가장 바깥쪽에 상응하고 예언자는 말씀의 글자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삼손 또한 나지르인이었고, 그의 힘은 머리털에 있었다. 민수기 6장 1-21절을 보면, 나지르인의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무엘의 힘은 성막 안에 있었으므로, 그의 힘은 영적이며 지속적이었다. 따라서 그는 삼손의 신체적 승리보다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결과들을 낳게 되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고 주님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면, 주님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순수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갖는 의미이다. 판관시대와 같이 혼란하고 방만한 시기가 지난 후에야 우리는

삶 안에 질서를 가져오고 마음을 통일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고, 두 번째 왕, 다윗도 기름 부어 세운 마지막 판관이었다. 사무엘이 사울이후,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때가 되면 우리는 영적 성장에 필요한 새롭고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새로운 차원의 진리는 우리를 이끌어서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한다.

판관 중에서는 사무엘만이 주님을 대변하는 자로서 모든 백성에게 인식되었다. 그가 출생 전부터 주님을 섬기기 위해 바쳐진 사실과 어린 나이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실은 아주 어린 시절 우리가 받은 좋은 가르침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표현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마태 18:3).

기본 상응 공부

사무엘 = 주님이 성인들에게 어린 시절에서 같은 믿음 상태를 통해 말씀하심
머리털 = 가장 바깥 측면(행동), 말씀의 글자

제 4반

판관시대에서 열왕 시대로의 변화를 연결해 주는 것은 사무엘 즉 순진하며 순종적인 어린 아이의 상태이다. 5반에서 제시된 사무엘의 어린 시절과 주님의 어린 시절을 비교해보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무엘은 판관 시대에서 마지막 판관이었다. 그의 일생과 업적은 통일과 발달이라는 새로운 시기를 낳는 것에 있다. 사무엘의 출생과 더불어 우리는 마치 성막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느끼게 된다. 판관기에서는 케나 성막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뜻 깊은 것이다. 본문을 보면, 그 땅의 중앙은 실로임을 알 수 있다. 그곳은 여호수아가 성막을 세웠던 자리로서, 그 당시 성막이 존재했던 곳이다. 그곳은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으로 있었고 성막에서의 제반 예식도 수행되어 졌다. 또한 진정으로 하느님을 예배하며 제물을 바치러 오는 신실한 사람들도 발견된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도 발견된다. 우리가 주님의 허락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영적 삶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 안에서 결코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속 깊은 곳에는 주님께서 아껴두신 것(remains)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판으로 선택하면 궁극적으로는 영적 삶에 이르게 된다.

사무엘 시대의 일반적 모습은 주님을 소홀히 여김이다. 즉 사제들까지도 부패해 있었다. 엘리는 제사장이며 착했지만 우유부단(優柔不斷)했다. 그의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는 그를 돕고 장차 사제직을 승계 받을 인물들이었지만 매우 악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강탈했고 그 외에 많은 악한 일을 행했다. 이러한 상황은 수백 년 후 주님이 탄생하는 시기의 교회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주님의 어린 시절을 명확히 연상케 하는 대목들은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에서도 발견된다.

엘카나의 두 아내인 한나와 브닌나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을 연상시킨다. 이 여섯 아내들의 같은 점은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는 아이를 늦게 갖고 덜 사랑하는 아내는 아이를 낳아 그렇지 못한 아내를 조롱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열매(아이)들을 생산하는 과정의 느낌에 대해 물질적 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만해 하는지를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는 먼저 태어난 아이들 보다는 사랑 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삶을 이루는 근본의 원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그로부터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무엘은 스스로의 약함을 의식하고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우리의 성숙한 자각(의식) 세계의 시작을 표현한다. 고대 히브리 국가의 이야기는 성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에 대해 보여준다. 성인이 되면 사람은 물질 만능에 대한 것, 이런 저런 종류의 우상에 대한 예배, 자기만족에 대한 것, 완고한 고집,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일, 그리고 동료들의 죄악을 묵인하는데 습관적으로 된 것 등의 모든 것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즉, 어른이 되어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하느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모두 잃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어린 시절 우리가 가졌던 신뢰함과 순종심이 잘 저장되어 보존된 이러한 상태들을 상징하는 사무엘은 주님의 보호 하에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때가 되면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하신다는 것이다.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른이 된 후 진정한 거듭남을 시작하기 위해 꼭 거쳐야할 첫 번째 단계이다. 만약에 우리 안에 “사무엘적 심정 상태”가 없다면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 속에서 완전히 꺼져 버릴 것이다 (사무엘상 3:3).

제 5반

본문의 내용을 토론 형태로 자기 과신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 토의하되, 특별히 예배에 관한 측면을 주제로 삼는다. 즉 우리가 예배를 남용하거나 소홀해 버림으로 우리에게 오는 해로움과 그것이 타인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 아이처럼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갖는 의미와 무지함에서 비롯된 순진함과 지혜에서 비롯된 순진함의 차이도 살펴본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 거듭나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과 역사적인 흐름에 있어서 스웨덴북이 말하는 이스라엘 교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을 보게 된다. 판관기의 전쟁들은 거룩한 땅에서 고향을 발견한 이들 즉 하나님의 법도에 따른 삶과 바램을 정착시킨 이들을 습격하는 시험들을 묘사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과신으로 빠져 하나님의 법에 부주의함으로써 세상적인 유혹들에 빠져 영적으로 퇴보해 내려감을 그려주고 있다. 이러한 시험이나 유혹은 내, 외의 모든 측면에 있으며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부주의함은 자기 과신의 산물로서 처음에는 거의 무의식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부주의함을 유혹에 복종한 뒤에서야 발견하게 되고, 이를 타파해야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때까지 이것은 우리 안에서 성장한다. 판관기에서는 영적 진리를 뜻하는 베냐민지파까지 전복되어 거의 파괴될 지경에 도달할 정도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나빠져 간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때때로 미미한 사건이라 방심하다가 우리를 퇴보하게 하는 거짓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퇴보는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나쁜 상태에 있음을 지각할 때 까지 계속된다. 심지어는 우리와 주님의 결합을 가능하게 해 주는 삶의 내적 의미에 대한 감각이 강탈될 때 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미 퇴보해 버린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발점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시발점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주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와 순종을 일시나마 회복해야만 우리의 영혼은 영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는 성경 중에서 사랑 받아 온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The Sower」라는 책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모든 시대의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 있음이 지적된다. 부모에게 자녀란 그들이 바르게 자라서 장차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양육하시게 하기위해 주님이 부모들에게 잠깐 빌려주듯이 주신 선물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듯이 부모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 그들의 자녀들을 바쳐야 한다. 또한 어린이들은 사무엘로부터 단순한 순종심과 신뢰심 그리고 기꺼이 섬기는 자세에 대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무엘의 삶의 초기는 주님의 생애 초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 사무엘상 2장 26절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자.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누가복음 2:52).

본문은 어린 아이의 이야기 이상의 넓은 의미를 내포함을 알아야 한다. 순진, 신뢰 그리고 순종과 같은 어린 아이의 상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려져 있을 뿐 없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부터 멀어져 배회하더라도 우리의 상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석녀와 같음을 깨닫고 한나처럼 새로운 헌신을 서약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면, 어린 아이의 상태는 우리 안에서 되살아서 우리를 영적 삶의 새로운 발달로 인도하게 된다. 이것은 주님이 뜻하신 바인데,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18:3-4)라는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 사무엘의 초기 목회생활 즉 섬기는 생활은 우리가 겸손한 심정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한 묘사이다. 우리는 이러한 심정상태에서만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가듯이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순수한 신실함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삶의 길잡이로 교회를 찾게 된다. 그리고 3장 19절의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라는 구절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를 놓아두며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어서 그 감동적인 상황의 어두운 배경은 경시 될 때가 많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 그 배경을 살펴보자. 엘리는 아론의 후손으로, 나이 들어 눈이 잘 안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성막에서의 예배 순서를 그의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망나니로서 야훼를 몰라보는 자”였다. 그들은 제물이 주님에게 바쳐지기도 전에 빼앗고 제물에 대한 그들의 몫 이상을 착복하여 신실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을 모독하였다. 이것은 2장 17절의 “이렇게 그들이 시종들을 시켜 저지른 잘못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심하였다. 그들은 야훼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모독하였던 것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엘리는 그의 가문을 사제직에서 철회하겠다는 경고를 하느님의 예언자를 통해 받았다. 그는 그의 아들들을 몹시 혼냈지만, 그들의 악행을 멈추게 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했고 권위도 없었다. 엘리는 그의 자식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예배를 사리사욕과 스스로를 높이는데 이용하여 예배의 의미가 격하된 상태를 묘사한다. 제사장이란 우리와 주님을 연결하는 내적 지령(inner dictate)을 의미하지만, 엘리가 아들들의 추행을 제거 못했듯이 이 제사장은 악을 시정하려는 조치를 취하는데 너무 무력한 우리 안의 제사장의 상태를 묘사한다. 이것은 엘리가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며 더 이상 주님의 소리를 직접 받을 수 없게 된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앞서 인용한 2장 17절은 이 같은 상황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가 됨을 암시한다. 교회 내의 소수가 행한 위선과 자기욕구 충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등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배를 성실하게 지키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의무는 한 개인의 구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마음 밖에 놓아두어야만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방지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말씀의 글자 그대로 보면, 주님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사제직을 영원히 맡기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 야훼가 말한다. 내가 일찍이 네 집과 네 가문이 영원히 나를 섬기리라고 했지만 이제 분명히 말해 두거니와 나는 그 약속을 철회한다. 나를 존대하는 자는 소중히 여겨 주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천대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다” (사무엘상 2:30)라고 말씀하셨다. 예배가 타락된 상태는 주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 즉 사무엘의 순종의 섬김과는 직접적으로 대조된다. 사무엘의 부모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사제들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성막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 그들은 우리 안의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오게 하는 것 즉 주님을 섬기고 싶은 바램을 표현한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비교하면 그들은 무지해 보인다. 그러나 사무엘의 부모들은 진정한 종교의 근본이 되는 겸손과 순종을 지녔다. 「천국의 신비 제 9325-8항」에는 한나의 예언적 감사 찬양 (사무엘상 2:5)과 관련된 흥미 있는 상응이 있는데, “아이를 못 낳음”이란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선 가운데 있지 못한 이들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선 가운데 있고 싶어 진리를 갈망한다는 것이다.

이사야 54장 1절, 시편 113편 7-9절 그리고 사무엘상 2장 5절을 보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구절들의 “아이 못 낳는 여인”이란 새로운 교회 안으로 부름 받아질 이방인들을 의미한다. 옛 교회가 교회로의 의미를 잃게 될 때 즉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더 이상 진정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선행이 없는 믿음이 되었을 때,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이양될 것임을 의미한다.

성경 전체의 어린이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결 같은 내용을 가르친다. 즉, 겸손과 순종만이 주님과 우리가 결합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야훼께서는 실로에서 당신을 거둬 나타내 보이셨다. 야훼께서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사무엘 상 3:21)”하여 다시 한 번 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6148항 5-6번)」: “표현적 교회가 야곱의 후손들에 의해 설립되었는 바, 하느님의 선과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진행될 때는 하나 같이 연합하여 표현되었었다. 그러나 전쟁들과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인해 두 가지의 직무들 곧 통치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들은 처음으로 분리되었다. 사람들을

통치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지도자들, 나중에는 판관들이라 불렸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사제들이라 불렸는데 사제들은 아론의 직계 후손들과 레위지파로 이루어졌다. 이후에 두 직무들은 다시 한 사람 안에서 합쳐졌는데, 이 사람들이 엘리와 사무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은 표현적 교회가 그들 안에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단지 교회의 표현만이 가능했는데 그 까닭이 그들 중에는 이미 우상 숭배가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두 직무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허락되어 졌고 하나님의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은 왕들에 의해 표현되며, 하나님의 선에 관한 측면에서의 주님은 제사장에 의해 표현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으로 주님께서 기꺼워하지 않으셨음을 사무엘에게 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다. (사무엘상 8:7 참조) 두 직무들이 원천적으로 분리되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을 저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과 결합된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질문 정리

- 1) 누가 마지막 판관이었는가?
- 2) 사무엘의 부모는 누구인가?
- 3) 당시에 성막은 어디에 있었는가?
- 4) 제사장은 누구였는가?
- 5) 한나는 어떤 서약을 했는가?
- 6) 그 여자는 그것을 어떻게 지켰는가?
- 7) 사무엘은 어디서 자랐는가?
- 8)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관기 당시 왜 그토록 곤란을 겪었는가?
- 9) 사무엘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1) 사무엘 2) 엘카나와 하나 3) 실로 4) 엘리 5) 만일 아들을 갖게 해 주신다면

주님에게 바치겠다고 서약했음 6) 사무엘을 엘리에게로 데려다 주어 살게 했음
7) 실로 8)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9) 어린 시절 우리의 상태 속에 주님이
아껴두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주님의 말씀

16

사울을 선택함

머리말

앞서 했던 성경 공부를 통해 판관시대의 특성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왜 곤란을 겪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무엘상 8장을 읽어 두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이 많은 노인으로 큰 인물이 되어 주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즉 예언자 또는 선견자가 되었음을 염두 하자.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9:10장

9장: 1. 베냐민 지파에 키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비아의 현손이요 브고랏의 중손이요 스롤의 손자요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유지였다. 2.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잘생긴 아들이었다. 누구든지 그의 옆에 서면 어깨 아래에 닿았다. 3. 하루는 아버지 키스가 기르던 암나귀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는 아들 사울에게 종 하나를 데리고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였다. 4. 그는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넘어 살리사 지방으로 가 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시 사알림 지방으로 건너 가 보았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 5. 수브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은 데리고 가던 종에게 “아버지께서는 암나귀 생각보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고 하며 그만 돌아가자고 하였다. 6. 그러자 종이, “이 성읍에는 하느님의 사람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어른이신데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다 들어맞는다고 하더군요. 그에게 가면 우리가 찾는 것을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을지 알려 줄지도 모릅니다”하고 말하였다. 7. 사울이 종에게 물었다. “간다면 그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그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릴 복채가 없으니, 무엇을 드리면 좋겠느냐?” 8. 종이 대답하였다. “여기 저에게 은 사분의 일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지 알려 줄 것입니다.” 9. 그러자 사울은 종에게, “됐다. 네 말대로 어서 가자”하며 하느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갔다. 10.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느님께 물어 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선견자에게 가자고 하였다. 오늘날 예언자라는 사람을 전에는 선견자라고 하였다.

11. 사울은 종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 그 성으로 가다가 물을 길으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여기에 선견자가 한 분 계시는지?” 하고 물었다. 12.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예, 그분이 저 앞에 가십니다. 오늘 산당에서 이 성의 제사가 있어서 방금 도착하였습니다. 13. 성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산당으로 음복하시러 올라가시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지 않고 그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다음에야 손님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올라가시면 곧 만나실 것입니다.”

14.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성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성 안에 막 들어서려는데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 가다가 그들과 맞부딪치게 되었다. 15. 그런데 사울이 오기 전날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당신의 뜻을 밝히셨다. 16.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방에서 사람 하나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셋 사람에게서 구해 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17. 사울이 사무엘의 눈에 뜨이는 순간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바로 너에게 말해 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지배할 사람이다.” 18. 사울이 성 문간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여기 선견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맥이 어딘지 가르쳐 주십시오.” 19.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하고 사무엘이 말하였다.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눕시다. 내일 아침에, 그대가 걱정하고 있는 일을 다 일러 준 다음 떠나도록 해 주리다. 20.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 일로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오. 나귀는 찾았소.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의 어깨에 걸려 있는지 아시오?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걸려 있소.” 21. 사울이 대답하였

다. “그렇지만 저는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저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저의 문벌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초라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22.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 가 삼십 명 가량 모인 손님들의 상좌에 앉혔다. 23.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잘 간수하라고 맡겨 두었던 그 제사 음식을 가져 오너라”하고 이르자, 24. 요리사가 제물의 다리와 꼬리를 들어다가 사울 앞에 차려 놓고 말하였다. “당신께 드리려고 따로 떼어 둔 몫입니다. 어서 잡수십시오. 이 손님들과 함께 잡수시라고 떼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 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25. 그들이 산당에서 성으로 내려 와 보니 사울의 잠자리가 옥상에 마련되어 있어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26. 날이 새자 사무엘이 옥상에 대고 “일어나 길을 떠납시다”하고 사울을 불렀다. 사울은 일어나 사무엘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27. 그들은 성읍의 끝까지 걸어 내려갔다. 거기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렀다. “종을 먼저 보내고 그대는 잠깐 여기에서 있으시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리다.”

10장 1. 사무엘은 기름 한 병을 꺼내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선언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성별해 세우시는 것이요. 그대는 야훼의 백성을 지배하시오. 그대는 사방에 있는 적의 세력으로부터 이 백성은 구해 내어야 하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몫인 이 백성의 수령으로 성별해 세우신 표는 이것이요. 2. 오늘 그대는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그대가 찾아다니던 암나귀를 찾아냈으므로 나귀 걱정은 놓았지만 그대들이 걱정되어 ‘내 아들이 어찌 되었느냐?’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알려 줄 것이요. 3. 거기에서 다시 다볼에 있는 상수리나무 쪽으로 건너가시오. 거기에서 그대는 하느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과 마주칠 것이요. 한 사람은 염소새끼 세 마리를 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술 한 자루를 메고 올 것이요. 6. 그 때 야훼의 기운이 갑자기 내리덮쳐, 그대도 그들과 함께 신이 들려 아주 판사람이 될 것이요. 7.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8. 그대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시오. 나도 뒤따라 그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리다. 나와 만날 때까지 칠 일간 기다리시오. 그 때에 가서 그대가 할 일을 가르쳐 주겠소.”

9. 사울이 사무엘을 뒤에 두고 길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새롭게 하였고, 그 날로 이런 조짐이 모두 일어났다. 10. 사울은 종을 데리고 그 언덕에 이르렀을 때 과연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기운이 사울에게 내리 덮쳐 그도 신이 들려 그들과 함께 신들린 것을 보고는 서로 “키스의 아들이, 저게 어찌 된 일이나. 사울도 예언자들 중의 하나던가?”하며 수군거렸다. 12. 거기에 있던 사람 하나가 “이들이 도대체 누구네 집 아들이냐?”고 묻는 바람에 “사울도 예언자들 중 하나더냐?”하는 속담이 생겼다. 13. 사울은 이렇게 신이 들렸다가 풀러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14. 사울이 종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그의 삼촌이 “어디를 갔다 왔느냐?”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암나귀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고 사무엘 어른께 갔다 오는 길입니다.” 15. 이 말을 듣고 사울의 삼촌이 다시 물었다.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더냐?” 16. 사울은 “암나귀는 이미 찾았다고 알려 주시더군요”하고 대답하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만은 하지 않았다. 17.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야훼 앞에 모아 놓고 18.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집트뿐만 아니라 너희를 못살게 구는 모든 나라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구해 주었다.’ 19. 그런데도 당신들은 오늘날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당신들을 살려 주신 당신들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안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하니, 이제 지파별, 씨족별로 야훼 앞에 나와 서시오.”

20.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지파를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다시 베냐민 지파를 갈래별로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그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22. 사람들이 야훼께,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하고 묻자 야훼께서 “그렇다, 저기 짐짝들 틈에 숨어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 가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들의 키는 모두 그의 어깨에도 차지 못하였다. 24. 사무엘이 백성에게 “야훼께서 뽑으신

이를 보아라. 이 나라에는 이만한 인물이 없다”하고 선포하자 온 백성이 “우리 임금 만세!”하고 외쳤다.

25. 사무엘은 백성에게 군주제도를 설명하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야훼 앞에 보관해 두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26. 사울도 역시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때 하느님께서 마음을 내키게 하시어 그를 따라 나선 군인들이 있었다. 27. 그러나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하고 멸시하는 못된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사울을 얹잡아 보고 선물도 바치지 않았다.

교리 요점

*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체계화 하는 첫째의 원리는 그것의 표면적인 판단 능력으로 인해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제한을 받게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했다. 첫 번째는 열조 형태 즉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후손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있었다. 두 번째는 지도자 형태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시기이다. 세 번째는 관관시대로 지속적인 통치자나 지도자가 없는 상태로서 곤경을 겪을 때만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를 찾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관 사무엘이 등장한다. 사무엘은 주님이 선택하신 예언자로 그들에게 입증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선택의 방향을 구했다.

사무엘은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심판하는 직무를 수행 했다. 그는 언제나 현명하고 의로웠으며 주님께 온전히 신신했다. 그는 늙어서 직무의 일부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했지만, 그들은 물려받은 권한을 남용했다. 결국 사람들은 이에 대해 불만족하게 되어 다른 국가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고 나면 자신이 그들을 위해 해왔던 모든 것을 잊을 것으로 여겨서 이에 대해 좋지 않게 느꼈다. 그들이 사무엘이 행한 일을 잊는 것은 사실 그들이

주님을 잇는 것과 같다. 그 이유는 그들은 주님이 세우신 예언자가 사무엘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왕을 가지도록 허락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주님은 왕이 누가 될 것인지도 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때가 바로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본문은 주님이 사울에게 왕으로 선택된 것을 처음 입증함과 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사울을 첫 왕으로 승낙하고 인식하도록 인도되는가를 보여준다.

우리는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기쁘게 승낙하게 된 본문의 구절에 유의해야 한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들의 키는 모두 그의 어깨에도 차지 못하였다” (10:23)라는 구절을 통해 그들은 사울을 외모로만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역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보편적 원리를 찾을 때 이러한 판단을 한다. 젊은 사람들은 때로 스스로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들은 타인이 자기의 생각에 따를 때만 그들을 옳다고 인정한다. 또한 젊은 사람들은 사물의 표면만을 직시하여 사물의 더 깊은 측면, 사물이 함유한 힘 그리고 그에 대처하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호의적이며 정열적이지만, 현명하지는 못하다. 반면,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본문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 담겨 있다. 주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명한 지도자를 승낙할 준비가 안 되어서 그를 추종하지 못함을 알고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로부터 고개를 돌림으로 이를 입증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현명한 충고를 거절할 때와 같은 상황이다.

제 1반

기름 부음의 의미와 사람들이 왜 사울을 자기들의 왕으로 기쁘게 받아들였는지 알아본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물을 판단하지 말아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통치하는 업무의 일부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겼다. 하지만 그들은 선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공정하게 규율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나라처럼 자기들을 통치할 왕을 세워 달라고 사무엘에게 청했다. 사무엘은 이것을

불쾌하게 받아들였지만, 주님은 그에게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사무엘에게 누가 왕이 될 것인지 보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본문공부를 위한 질문 및 요점정리

- * 주님은 사무엘에게 누가 첫 왕이라고 보여 주셨는가?
- * 사울은 어느 지파에 속했는가?
- * 그의 외모는 어떠했는가?
- * 사무엘이 사울을 발견했을 때, 사울은 그의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있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네가 찾던 나귀는 찾아졌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 그 후에 그는 사울을 기름 부었다.
- *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올리브유를 부은 것이며, 주님이 그와 동행하신다는 표시다.
- * 사무엘은 사울을 집으로 보냈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다.
- *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왕을 선출했는가?
- * 누가 제비 뽑히는 길을 통치했는가?
- * 사람들은 왜 사울을 보고 기뻐했는가?

제 2반

성서 지도를 통해 사울과 그의 종이 나귀를 찾으러 다녔던 곳을 살펴보면, 본문의 줄거리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다. 주님께서 왕이라는 직책을 승낙하도록 사울을 인도하신 방법과 그에게 확증 시킨 일들을 살펴본다. 또한 제비뽑는 일과 사울이 뽑히도록 한 주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의 용모에 관련된 교훈도 언급한다.

본문을 공부하면서 다음의 질문들에 답해 보자.

- * 누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는가?
- * 첫 왕은 어느 지파에 속했는가?
- *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사무엘은 사람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는가?

* 사울은 어떻게 뽑혔는가?

* 사람들은 왜 사울이 뽑힌 것을 기뻐했는가?

사무엘은 주님의 예언자로서 인식되었고, 성장해서는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판관의 위치에 섰다. 그는 오랫동안 신실하게 봉사했고 주님께 늘 순종했다. 그는 늙게 되자 그의 아들들에게 직무의 일부를 맡겼다. 그들은 선하지 못하여 돈에 관심을 갖고 뇌물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다른 국가처럼 되도록 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다. 사무엘은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였지만,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도록 그에게 분부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첫 왕이 누가 될지 보여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울의 일생을 감독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울이 공개적으로 왕으로 선포되기 전에, 그는 어느 정도 준비 되어져야 했다. 그의 겸손함은 사무엘이 그에게 "네가 뽑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는 자기의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고 그 중에서도 자기는 더 작은 자라고 대답함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뒤, 주님은 사울에게 그가 정말로 뽑힌 자임을 입증시켜 주려고 몇 가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 주셨다. 우리는 제 10장 첫 부분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알게 된다. 주님의 섭리는 옛날 사울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는 각기 특별한 장소를 채우고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들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러한 경험들이 모두 우리가 가지는 어떤 특별한 직분을 위해 준비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울은 재비가 자기에게 떨어질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해야 할 것은 주님의 선택이 사울이었다는 것이다. 사울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스스로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순간 까지도 사울의 마음은 겸손하여 감히 자기가 높은 직책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울은 속으로 큰 자가 아니라 겉으로 키가 큰 자였음으로 그의 겸손한 마음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면의 깊은 것을 보기 보다는 쉽게 파악되는 표면만으로 사람의 품성을 판단하는 일이 흔하다.

오늘날도 왕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이 거행된다. 이 예식은 아주 오랜 관습으로서 고대인들이 고대 말씀으로부터 가졌던 상응에 관한 지식에 근원한다. 기름(oil)은 사랑을 상징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은 사울이 왕이 되면 주님과 이웃을 섬김을 원칙으로 삼아 백성을 통치해야 함을 의미한다. 권력자들이 심령에 이러한 원리를 담아 실천해 왔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아주 다른 모습일 것이다.

제 3반

본과에서는 상응에 관해 배운 지식을 활용한다. 즉「발람」에서 배운 나귀에 관한 상응이다. 그리고 사울이 그의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 중에 부름을 받게 된 의미를 생각해 본다. 우리는 말씀의 어느 곳과 어느 구절도 우연히 된 것이 없음을 항상 염두하고, 모든 단어와 이야기를 내적 의미로 파악하여 그것들이 이치에 맞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울에 관한 일반적 의미는 본문을 통해 쉽게 파악된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도 엘리와 같이 늙게 되자 그의 아들들에게 직무의 일부를 수행토록 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의 아들들도 부패하여 백성들이 불만족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백성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즉, 그들도 다른 나라처럼 될 수 있도록 왕을 원한다고 말한 것이다. 왕이란 통치하는 진리를 뜻한다. 제사장 혹은 사제들은 사랑을 뜻하므로, 그 땅이 사무엘에 의해 통치되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함을 첫 원칙으로 삼는 상태를 묘사한다. 이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8장 6-9절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주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며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것 또한 하고 계신다.

왕을 세워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우리가 스스로를 통치하는 원리를 선택하겠다는 것을 묘사한다. 우리는 의를 행하기 원하고 그것이 왜 옳은 것인지 이해해야 한다. 즉, 주님 혹은 누군가가 옳다고 한 것이어서 무조건 행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는 종종 스스로 잘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진리가 실생활에서 응용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요구된다. 우리는 외양에 따라 판단하고 외관상으로 보기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 세월이 흐르면 오게 될 좋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면의 깊은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꺼린다.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 혹은 사회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사울은 우리의 판단 과정에서 첫 번째 기준을 외면적인 차원에 두는 것을 묘사한다. 그가 사무엘에게 처음 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있었다. 나귀란 자연적 이성(natural reason) 혹은 상식(common sense)을 뜻한다. 나귀는 타박타박한 걸음씩 확실히 땅을 딛고 걷는다. 나귀의 성질은 아주 고집스러워서 자기가 가려는 길 외에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 장면은 문제의 해결책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발견하려는 우리의 시도를 표현한다. 즉, 우리는 어떤 문제들로 인한 즉각적인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변화가 더 나은 것임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그것을 보려고 기다리지도 않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사울의 건장하게 보이는 외관을 좋아했다. 사울은 사람들이 올려다보아야 할 정도로 키가 컸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의지하는 이성이 무언가를 찾는 방법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면 세상살이가 편할 것으로 여기지만, 세상이치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사울은 주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었다. 주님은 우선 사울을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 후, 주님은 사람들이 던지는 제비를 통해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하셨다. 주님은 사울의 약함을 알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은 경험을 갖게 될 때까지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왕은 사울뿐이라고 여기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주님께서서는 청년기의 우리에게 스스로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기를 지배할 원리를 마음에 고정 시켜 보겠다는 우리의 첫 노력 속에도 의로운 것을 행하겠다는 순수한 바람 또한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기름은 사랑을 뜻한다. 우리 삶을 지배할 가치가 있는 원리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욕구일 뿐이다. 사울은 현명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는 순수한 바람이 있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첫 시도의 기본적인 소원이 선을 행함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의를 행하기 원하며 높은 이상을 갖는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워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를 원한다. 또한 그들은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심도 한다. 이러한 이상과 열정은 삶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만약 젊은이들이 스스로에 대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충분히 현명하다고 착각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움이 요구될 때 주저하지 않아야 하며, 교회 또는 기타 모든 활동분야에서 무엇인가를 해 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인내심 있게 오랜 시간을 들인 결과에 의해서만 실질적인 지혜가 획득됨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권고에 기꺼이 귀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은 격렬하고, 이것은 성급한 젊은 시기를 보여준다. 또한 그는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승리를 거뒀지만, 심각한 실수도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본 상용 공부

기름 = 사랑

왕 = 이끌어 가는 진리

사제(제사장) = 지휘 감독의 원칙은 사랑임

사울 =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통치함

제 4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의 의미와 왕이 있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사무엘의 말들(사무엘상 8:10-18)을 중심으로 한다. 이것은 사랑 없는 진리가 우리 삶을 통치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첫 왕이 사울인 것에 대한 의문점과 예증을 통해 그에 관한 의미를 찾아본다.

사울의 이야기는 한 개인 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우리는 젊은이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판도를 결정짓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젊은이들 중에는 지금 당장 자신들이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성급한 생각을 가진 이들도 없지 않아 있다. 젊은이들은 “저 보라, 연장자들이 한다고 애쓴 것이 겨우 이런 꼴인가? 젊은이는 이상을 가지고 있다. 젊은이는 정열적이다. 젊은이에게 통치권을 넘겨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외친다.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울의 이야기는 이러한 성급한 이상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모두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20-30대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 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세상만사를 아주 쉽고 단순하게 보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만 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긴다. 주님은 젊은이들이 이 시기를 거쳐야 하며, 이 시기의 경험들을 가져야 함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이상, 정열 그리고 불만족은 우리 마음을 동요하여 낡은 습관에 안주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효과가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변화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한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판단은 성급하며 표면적이어서 개인 혹은 사회적 측면에서 인간 본성에 잠재된 깊은 문제점들을 소홀히 하기 쉽다. 그들은 개인의 거듭남이 길고 느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닥치는 모든 조건들의 몇 가지 외적 방법만 고치면 빠르고 쉽게 이뤄진다고 간주한다.

우리들이 선택하는 마음의 첫 통치자(진리)는 젊은이들이 순수한 진리보다는 외관에 기초하여 선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선택된 진리는 우리의 “자연적 합리성 (natural rational)”에 의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로 표현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처음 왔을 때, 사울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던 중이었다. 믿음직하고 강직한 나귀는 자연적 이성(natural reason) 혹은 상식(common sense)을 표현한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이러한 상식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의 명확한 답을 찾으려 한다. 그리고 그러한 해결방안에 어떤 의미가 부여된 것처럼 여기며 좋아한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찾아낸 문제의 해결방안이 유용한지 입증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인내심을 갖지 못한다. 젊은이들의 해결안은 항상 빠른 결과를 약속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용모에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그를 왕으로 환영했다. 사무엘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정화됨을 뜻한다. 즉, 사울은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무를 알게 되는 혈연관계로 진입된 것이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명한 지도자를 인식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그들의 첫 왕으로 선택하셨다. 사울은 첫 승리를 얻게 되자 겸손함을 잃고 많은 실수를 행하였다. 그는

주님의 예언자인 사무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여 진실한 통치 방법을 얻지 못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젊은이들이다.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큰 권한이 주어지면 처음에는 많은 실수를 범하기가 쉽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주도적이고 효과적인 리더십은 더 깊은 원리들, 즉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혜에 기초를 두어야 함을 많은 난관들을 헤쳐가며 배우게 된다. 빨리 얻어지는 것은 지혜가 아닐 때가 많다.

제 5반

우리 사회 내에서 두 부류 즉 청년들과 장년들 사이에 있는 분열은 모두에게 이롭지 못하며, 이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장자들이 젊은이들을 더욱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두 부류의 분열은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다.

본문은 고대 히브리 역사의 새로운 국면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의 역사적 윤곽을 정리하여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 시기는 족장 계열로 이어지며, 이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뜻한다. 이 족장들의 삶은 우리의 유아기,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표현한다. 이러한 세 시기 동안 우리는 부모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며 우리의 이해성과 독창성은 점진적으로 발달해 간다. 두 번째 시기는 이집트에서 체류한 후로 법을 상징하는 모세라는 새로운 지도자 형태가 도입된다. 이 시기는 스스로 강박감을 느끼는 심정상태이다. 이것은 도둑질을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않는 심정상태와 같다. 이 시기에는 질서 있는 생활 혹은 순리적인 생활의 결과와 불순종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확신하게 되어 계명에 대한 외적 순종이 모든 일상생활의 당연한 귀결로 된다. 이후에 우리는 다음 단계를 취할 준비가 완료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내적 삶에 있는 악을 공격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다. 앞서 배웠듯이, 여호수아는 싸우는 진리이다. 우리는 선한 생활을 이룰 때까지 즉 거룩한 땅을 정복했다고 느낄 때까지 여호수아를 따라야 한다.

판관기는 아직도 가나안 땅의 정복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만약 시험과 싸우는 것과 자신을 점검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 적들(악들)이 우리의 안팎에서 기세를 다시 얻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각기 다른 진리를 앞세워 각기 다른 안과 싸우는 갖가지 전투들의 연속인 것이다. 이것은 판관기에서 한 명의 판관(특수한 진리)이 하나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잠시 동안 평화와 휴식의 시대가 이어지다가 또 다른 판관의 지휘 아래서 전쟁을 치르어야만 하는 것으로 묘사 된다. 모세로부터 판관기까지는 제사장의 직무와 지도자의 직무가 분리되어 있었다. 제사장의 직무는 선 그리고 지도자의 직무는 진리를 표현한다. 두 직무가 서로 협력하는 동안은 리더십이 공고해서 일이 잘 진행된다. 그러나 둘의 조화가 깨지게 되면 즉 어느 한쪽이 부패해지면, 결과적으로 방만함과 그에 따른 재난이 온다. 사무엘의 지도하에 두 직무는 한동안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다. 하지만 8장 1절에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자 두 아들을 판관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결합되어 있던 직무들을 다시 나누어 일부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부패하였다. 우리가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언제나 끊임없는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타고난 인간적인 사상들은 마음속에서 서서히 움직여 우리가 잘 세워 놓았다고 생각한 하느님의 질서를 썩게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 즉 출발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바란다는 것은 청년기의 반항과 자기 과신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청년들은 부모님들이 그들의 어떤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심하게 반대하실 때 그 뜻을 몰라 난감해 할 때가 종종 있다. “왜 우리 어머니는 이것은 하지 말라 하시고 저것은 꼭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나는 저것이 이것보다 더 나은지 어떤지 알 수가 없다. 저것을 꼭 해야 한다고 하시지만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일들을 시원하고 명확하게 이해시켜줄 부동적인 행위의 원리이다. 이것은 그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뜻한다. 젊은이들은 부모 또는 타인에게 그들 행동의 타당성에 대한 여부를 물어 보는 것을 꺼려한다. 이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영적 발달의 한 단계이다. 주님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러한 행동을 예견하셨다. 주님은 신명기 17장 14-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고 주님이 선택한 왕을 받들도록 명령되어짐을 미리 말씀하

셨다.

제사장의 권위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바램은 손실이 있게 된다. 천적인 상태는 아주 어린 아이와 부모의 관계처럼 주님만을 찾는 바램이다. 설령 자기 신뢰(자립)의 바램이 진리를 순종하는데 있다하더라도 무지, 실수 그리고 재난이 뒤따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그가 걱정했던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가 이 단계에 이를 때 한숨을 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다. 주님은 이 단계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고,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그들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라고 하셨다. 또한 주님은 인간 왕 아래서의 생활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도록 하셨다. 왕이란 판결하는 진리를 표현한다. 이 진리는 선으로부터 분리된 진리여서 언제나 어렵고 고된 상전과 같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에서 이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AC 8770-2) 즉, 판관들의 왕국은 하느님의 선에 근거해서 통치하는 하느님의 진리를 표현하고, 판관이면서도 제사장인 엘리와 사무엘의 시대는 하느님의 진리에 근거한 하느님의 선이 통치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제왕들의 왕국은 하느님의 선을 포함하지 않은 채 하느님의 진리가 통치하는 것을 표현한다. 스웨덴북은 AC1672항에서 “국가(nation)”와 “백성(people)”의 차이점을 규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전에는 그들은 나라였다. 그래서 나라로서의 그들은 선 또는 천적인 것들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을 원해 왕이 들어서면서 그들 모두가 하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선 또는 천적인 것을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진리 또는 영적인 것을 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을 구한 것이 하나의 과실로서 그들에게 짐으로 지워진 이유이다.”라고 설명한다. AC2015-11항 또한 참조해 보자. 주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 주어라.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자립적으로 판단하고자하는 바램은 부모의 권위와 자기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모든 권위에 대한 배척을 초래한다. 부모들은 이를 억제할 수 없다. 부모들은 단지 그러한 배척에 따른 위험을 알려주고 주님이 선택한 왕 즉 하느님의 질서에 일치되는 원리를 자녀에게 주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주님이셨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기름 붓도록

명령하셨고, 미스바에서 벌어진 제비뽑기에서 제비가 사울에게 떨어지도록 하셨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한 사울의 시대는 짧았고, 전투에서의 그의 승리 역시 몇 건에 불과해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왕으로서의 자격은 부적당하였다. 우리는 주님이 왜 사울을 선택하셨는가와 그분이 왜 단번에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더 현명한 지도자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벨리알(Belial)의 아들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사울이 왕이 됨을 기쁘게 승낙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젊은이들은 행동에 있어서 모순 없는 원리들을 요구한다. 이러한 원리는 사랑에 근거한 법칙밖에 없다. 문제는 젊은이들은 이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랜 기간의 노력과 피땀 흘린 경험의 병행한 결과로 사랑의 법칙을 재고하고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때로 자연적 선한 충동을 따르는 것이 사랑의 법칙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대부분의 우리는 선에 대한 피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랑의 법칙은 하느님의 사랑의 법칙이며 하느님의 사랑은 하느님의 지혜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는 사물의 외관 또는 자연적 충동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가진 탁월한 걸모습 때문에 그를 왕으로 쾌히 받아 들였다. 하지만 그들은 사울이 그들에게 적합한 왕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다.

사울은 자기 직책을 잘 수행하려 했고, 몇몇 적들도 멋지게 무찔렀다. 젊은이들에게는 아직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 지혜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기대해볼 수 있다. 외양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의 원리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들은 그럴듯한 논리를 앞세우는 교회의 교리, 논쟁 혹은 직접적인 결과들 즉 부흥회에서 절름발이가 걷게 되는 광경이나 암 치료 등의 눈으로 확인되는 결과에 현혹되어 잘못 인도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울이 가진 체격 즉 큰 키에서 풍기는 압도감이 그들을 사로잡을 뿐이다. 우리는 많은 상황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젊은이들이 그들이 지식으로 배운 것을 넘어서서 지혜를 얻기 위한 경험들을 위해 준비되도록 그들을 잘 이끌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2015항 11번)」: “왕들은 명령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진리들을 표현하는 데 그 이유가 선에서 분리된 진리들은 비난밖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왕들을 가지고 싶은 욕망은 주님의 꾸밈음을 부를 만큼 매우 불쾌한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선으로부터 떨어져 홀로 있을 때, 그 진리의 성질(性質)이 사무엘상 8장 11-18절에서 이런저런 왕의 권리들로 묘사되고 있다. 신명기(17:14-16)를 보면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들은 선으로부터 비롯된 참된 진리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위조된 진리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참된 진리를 추론들과 기억적 지식들(memory-knowledge, scientia)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에 의해 주어진 왕에 관련된 지침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말씀의 글자만으로는 누구도 파악할 수 없는 것이지만, 속뜻에 내포된 몇 가지 사항들을 참고하면 그 의미가 명백해진다. 그러므로 왕 또는 왕권은 진리를 표현하거나 의미함도 확실해진다.”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8770항 2번): “야곱의 후손들 중에 있었던 표현적 교회에는 첫 째로 관관들의 왕국이 있었고 이후에 제사장들의 왕국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들의 왕국이 있었다. 관관들의 왕국은 하느님의 선에서 비롯된 하느님의 진리를 표현하며, 관관들이면서 제사장들이자 이들의 왕국은 하느님의 진리에서 비롯된 하느님의 선을 표현한다. 그리고 왕들의 왕국은 하느님의 선 없이 하느님의 진리만 있는 것을 표현한다.”

질문 정리

- 1) 사무엘이 늙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왕을 요구했는가?
- 2) 그 요구에 대해 사무엘은 어떻게 느꼈는가?
- 3) 주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가 무엇을 말한다고 하셨는가?

- 4) 주님이 뽑은 첫 왕은 누구였는가?
- 5)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보았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6) 사무엘은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어떻게 입증했는가?
- 7) 기름부음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 8) 주님은 사람들을 어디에 모으라고 하셨는가?
- 9) 사울은 그곳에서 어떻게 뽑혔는가?
- 10) 실제 제비가 뽑혀지도록 한 이는 누구인가?
- 11) 사람들은 왜 사울이 왕으로 됨을 기뻐했는가?
- 12) 왕은 무엇을 뜻하는가?
- 13) 사울의 통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는 왜 통치했는가?

질문의 답

- 1)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했기 때문이다. 2) 불쾌하게 여겨 거절했다. 3) “그들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 4) 사울 5)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있었다. 6) 그에게 기름을 부음 (사무엘상 10:2-6)
- 7)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음 8) 미스바 9) 제비로 뽑힘 10) 주님
- 11) 키가 크고 힘이 세게 보였기 때문 12) 통치하는 진리
- 13)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되는 진리가 통치함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받아야 할 통치 수준이 상식적 즉 자연적인 수준에만 머물렀기 때문

17

다윗을 기름붓다

머리말

사울의 약함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읽도록 하자. 아주 어린 사람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불순종했던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외모 또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사울의 성향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가는 변화의 연결점은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6장

16장: 1.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켰다고 해서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셈이냐?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보낸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 보아 두었다.” 2. 사무엘이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텐데 어떻게 갑니까?”하고 여쭙자 야훼께서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거라.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3.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내가 알려 주리라. 너는 내가 지적하여 일러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시켜 나에게 바쳐라”하고 이르셨다. 4. 사무엘은 야훼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안절부절못하고 그를 맞으며 “언짢은 일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하고 물었다. 5. “아니오. 좋은 일로 왔소.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모두들 목욕재계하고 함께 제사 드리러 갑시다.”이렇게 일러 놓고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목욕재계시킨 다음 제사에 나오라고 초청하였다. 6. 그들이 나타나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하고 생각하였다. 7. 그러나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말라. 그는 이미 내 눈 밖에 났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하고 이르셨다. 8. 다음으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나와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오”라고 하였다. 9. 이새가 다시 삼마를 보여 드렸지만, 사무엘은 그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10. 이렇게 이새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에 나와 뵈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 가운데는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없소”하고

11. 이새에게 그 밖에 아들은 또 없느냐고 물었다. 이새가 “막내가 또 있긴 하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데려 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하고 일렀다. 12.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 온 그는 불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 야훼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13. 그리하여 사무엘은 기름 채운 뿔을 집어 들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 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사무엘은 길을 떠나 라마로 갔다.

14. 야훼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야훼께서 내리신 악령이 그를 공포에 넣자 15. 그의 신하들이 말하였다. “삼가 아뢰입니다. 하느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16. 부디 소인들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 오도록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악령을 내리실 때마다 그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하시면 마음이 개운해지실 것입니다.”

17.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18. 시중들던 한 젊은이가 말하였다. “소인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알고 있는데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씩씩하고 날랜 용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데다 야훼께서 함께 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19. 그리하여 사울은 이새에게 전갈을 보내어 양을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보내라고 하였다. 20. 이새는 빵을 나귀로 한 바리, 술을 가죽부대로 한 부대 그리고 새끼양 한 마리를 마련하여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21. 이리하여 다윗은 사울을 찾아 와 그를 시중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의 무기당변으로 삼았다. 22. 그리고 이새에게 전갈을 보냈다. “너의 아들이 마음에 들었다. 다윗으로 하여금 내 앞에서 시중들게 허락하여라.” 23.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뜬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되어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교리 요약

*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야기는 해야 할 것 혹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사울은 호의적이고 힘도 세며 열성 있는 지도자였다. 하지만 그는 현명하지 못했다. 많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든 사람들도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행위의 결과에 성급하며, 주님이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사울은 사무엘을 주님의 예언자로서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무엘의 훈계나 그 훈계에 순종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그분을 꾸준히 기다려라”라는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아주 힘겹게 배운다. 주님은 언제나 일에 대한 적절한 때와 방법을 알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배우고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에 대해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성경 한 구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주님은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말라, 그는 이미 내 눈 밖에 났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라고 하셨다. 주님은 그분이 주신 모든 선한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 또한 우리가 별로 좋지 않게 여기던 선한 것들도 옳은 방법으로 옳은 곳에 사용하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의 심령이 더 나은 상태가 되도록 유도하신다.

깊은 변화는 단번에 거행되지 않는다. 다윗이 기름 부어진 후에도 사울은 오래도록 왕좌에 앉아 있었다. 사울은 다윗을 처음에는 크게 사랑했지만, 후에는 그를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경험이 적은 시기에 형성된 사고와 느낌들과 세월이 지난 후에 우월하고 보다 현명한 방법들과의 대립으로 우리는 후자가 더 나음을 인식하면서도 과거의 것들을 버리는 것에 힘겨워한 다는 것을 묘사한다.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은 더 나은 변화에 반대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높은 원리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들어감”같이 되어서 승리하게 된다.

다윗은 많은 결점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의 음성에는 절대 순종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소탕하였고 예루살렘도 회복했다. 또한 그는 주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이기도 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그를 통해 주어졌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윗의 계보를 통해 다윗의 성 베들레헴에서 주님은 인간 몸을 입으셨다.

제 1반

사울이 호의적이었으나 성급하여 사무엘의 지시들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그로 인해 왕권을 지킬 수 없게 됨을 살펴본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그리고 다윗의 직업이 목자였던 것과 그가 하프를 연주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의 의미도 재고해 본다. 사무엘상 16장 6-7절을 보면, 사무엘조차 외모로 판단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왕이 되지 못했던 것, 후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던 것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존중하였고 그가 죽었을 때 매우 슬퍼했던 것을 살펴본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처음 말했을 때, 사울은 매우 겸손해하며 자기가 왜 뽑혔는지 궁금해 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그를 왕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자 그는 스스로가 꽤 잘난 존재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가 돌았다"라는 것은 그가 성취한 작은 성공으로 인해서이다. 그는 사무엘이 주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임을 잊고, 사무엘에게 굳이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까지 착각하게 되었다.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은 후에도 오랫동안 왕이 되지 못했다. 사울이 보좌에 앉아 있었고, 다윗은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 전에 스스로를 그들에게 입증해야 했다. 사무엘상 16장 14-23절을 보면, 다윗이 스스로를 입증하는 출발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요점 및 질문정리

- * 주님은 사무엘에게 새 왕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다.
- * 사무엘은 어디로 보내졌는가?
- * 베들레헴에 관한 각자의 지식을 떠올려 보자.
- * 사무엘은 왜 이새의 큰 아들이 새 왕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는가?
- * 주님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 이새의 아들 몇 명이 거절되었는가?
- * 이새의 마지막 아들 다윗이 왜 나타나지 않았는가?
- * 다윗의 용모는 어떠했는가?
- *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 이와 더불어 사울에게는 무슨 변이 일어났는가?
- * 다윗은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이라고도 불렸다.
- *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을 통해 주어졌다.

제 2반

우리는 성서의 지도를 통해 베들레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곳이 주님의 탄생과 연결된 것도 알고 있다. 누가복음 2장 1-4절까지 읽고, 기름부음의 의미를 재정리해 보자. 다윗은 양치는 목자로서 등장하며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모습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나귀와 양의 상응을 알아본다. 그리고 왕권에 관련된 사울과 다윗의 속성을 비교하고, 다윗은 시편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언급한다.

사울은 용감하고 호의적이었으나 한편으론 성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했다. 그는 사무엘이 예언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무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사울은 처음에는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후에는 전투에서 패하였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의 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그에게 알리기

위해 보내진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새 왕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새 왕은 사울과는 아주 다른 인물로서, 그분의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해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상 13:14) 다윗은 사울보다 더 용감했고, 사울에게 없었던 다른 특성들도 가졌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으로 갔는지 알게 된다. 이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동물은 우리가 가진 다양한 애착들과 “유사성 (likings)”을 표현하거나 상응하고 있다. 나귀는 바깥쪽에 속한 방법으로 추론하는 것과 유사함을 묘사한다. 양은 순진함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주님을 인도자로 삼고 그분에 의존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부게 됨은 주님의 권능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 감을 표현한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기 전까지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다. 다윗이 사울의 충복으로 있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어 사울은 그를 시기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도왔지만, 사울은 그를 미워하여 여러 번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

본문에는 하프(harp)가 등장하는데, 이는 현악기의 일종이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언급된다. 스웨덴북은 악기들이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치렀다. 다윗 하에 가나안 땅의 모든 적들은 정복당했고 이스라엘의 국경은 어느 때 보다 넓었다. 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고, 그곳은 나라의 수도가 되었다. 그리고 궤가 그곳으로 운반되어 시온산에 있는 새로운 성막에 안치되었다. 다윗은 음악가이기도 했고, “달콤한 이스라엘의 시인”으로도 불렸다. 많은 시편들이 그를 통해 주어져서 시편들을 “다윗의 시”라고도 부른다. 우리는 그가 죽을 때, “야훼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어 말씀하셨다. 당신의 말씀을 내 혀에 담아 주셨다”(사무엘하 23:2)라고 말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본문공부를 위해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 몇 가지 요점을 정리해 보자.

- * 다윗의 고향은 어디인가?
- * 오랜 후에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는가?
- *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보았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가?
- * 사무엘이 다윗을 발견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 다윗이 사울을 도운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 * 이와 더불어 사울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 * 예리고성을 점령할 때 사용된 악기는 무엇이었는가?
- * 그 악기는 줄로 된 악기 즉 현악기이었는가?

제 3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한 판단은 오류가 따름이 강조된다. 사울의 실수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판단하는데 근간이 되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는 사울의 성급함과 현명치 못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연적 이성이 결정적 순간에 실패함을 알 수 있다. 사울이 했던 모든 것은 그에게는 아주 현명한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그는 사무엘이 지시했던 것들이 진정으로 현명한 것임을 보지 못했다. 우리의 자연적 이성은 밖으로 드러난 현상(appearance)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고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점검함에 있어서 즉각적인 외부적 결과만을 찾는다. 또한 그것은 깊은 문제들을 다루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에 담긴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영적 진리들에 대해 “나는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와 같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덮어 버린다.

왕으로서의 다윗은 진리에 의한 통치(the rule of truth)를 표현한다. 여기서 진리는 더 깊게 이해된 것이며 영적 방법이 동원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 이성이 어떤 결점을 들어낼 때,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보다 더 깊은 이해성을 구하게 된다. 이러한 더 깊은 이해성의 특징은 다윗에 의해 표현되며 다윗의 초기 직업이 목자였던 것으로부터 나타난다.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성은 순진함을 보호하며 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기초 한다. 이러한 깊은 이해성은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뜻함이 필수 요건이다. 그래서 사울에 의하여 그려진 자연적 이성처럼, “상식”적인 것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하지 않는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사울은 그의 아버지의 나귀를 찾고 있었다. 나귀와 양에 관한 상응을 풀어 보면

왜 나귀를 찾는 사울은 자연적인 이성을 상징하고 양을 돌보던 다윗은 더 깊은 이해성을 상징하는 지 이해가 될 것이다.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게 되자 주님께에서 오는 힘은 사울로부터 빠져 나왔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원리들로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순간 상식적인 것에 의해 판단한 오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진 후에도 왕으로서 군림함은 우리가 변화를 인식하면서도 단번에 과거의 습관을 바꾸지 못함을 표현한다. 사울은 악령이 들리는 체험을 함으로서만 그가 처한 새로운 위치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음악으로 그를 진정시켰으며 또한 사울의 무기당번병을 겸하였다. 성경에서는 여러 악기들이 언급된다. 스웨덴북은 악기들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바람을 이용한 악기인 관악기는 애착(affection)을 표현하는데,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함을 상징한다. 반면, 현악기는 진리를 이용해 애착이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으로도 불렸다. 많은 시편들이 그를 통해 쓰였기 때문에, 스웨덴북은 시편을 다윗의 책이라고 칭했다.

사울 앞에서의 다윗의 연주란 사랑에 기초한 추론의 형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많은 “악령들”을 이겨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말씀을 꾸준히 읽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있게 되는 하느님의 은총 중의 하나이다. 다윗의 연주, 즉 사랑에 기초한 추론은 사울을 미혹하는 악령들을 물리치는데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이것은 사랑에 기초한 추론만이 진실 된 것이며 모든 이기적 추론은 아주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느님의 진리에 의한 것이며,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주님은 다윗의 계보 가운데서 태어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불렸고, 다윗의 출생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Bethlehem)”은 “빵의 집(house of bread)”이라는 뜻이다. 스웨덴북은 베들레헴이 “선으로부터의 진리(truth from good)”에 상응한다고 말한다.

다윗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본문 18절은 매우 흥미롭다. 기름부음을 받던 시기의 다윗은 소년에 (11-12절) 불과했지만, 여기서 그는 “씩씩하고 날랜 용사”로 묘사된

다. 세상적인 사람에게 영적 진리는 어떤 실질적인 효용도 없는 어린 아이의 귀여움 정도의 가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울이 악령이 덮쳤을 때 무언가 필요함을 인식했듯이, 우리는 불쾌감을 느끼고 누군가의 도움이나 위로가 필요로 할 때서야 비로소 영적 진리의 힘을 느끼게 된다. 다윗은 거룩한 땅 내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적을 무찌르는 왕이 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 대신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의 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그분은 모든 우리 내부에 있는 적들과 싸워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기본 상응 공부

다윗 = 우리의 영적 이성으로 통치하는 하느님의 진리
 베들레헬 = 선에서 나오는 진리
 악기들 = 말로 표현하듯 진리들로 표현함

제 4반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가는 변화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자. 그리고 하프의 상응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우리가 영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왔던 자연적 이성에 대해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게 됨을 인식하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새로운 왕” 즉 더 깊은 진리의 이해 즉 영적으로 진리를 이해하여 자신의 영적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줄 새로운 이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이유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주님에게서 직접 전해지는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이성의 필요성을 느낀 우리는 자연적 이성이 지배하고 있음으로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해로움을 명백히 알기 때문에 자연적 이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게 된다. 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선한 의지)은 자아 대신 주님에 의해 인도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을 때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중이라는 묘사에서 표현된다. 반면, 사울의 왕권이 갖는 특성은 그가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기초한 우리의 이해성은 더 깊은 곳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잠복한 적들과 싸우는데 성급하며 인내심이 없고, “좋게 보이는 (looks good)” 어떤 것이 악한 것임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사울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는 13장과 15장에서 다뤄진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house of bread)”이라는 뜻이다. 스웨덴붉은 그것이 “선으로부터의 진리(truth from good)”를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은 진리를 더 깊게 보고, 자연적 이성이 간과하는 마음 속 더 깊은 곳에 있는 악들을 간과하고 일소해 버린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원리에 의해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어떤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정말 옳을 것일까?”하고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 대한 결정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다윗의 기름부음은 자연적인 것보다 더 깊은 합리성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첫 인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윗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왕이 되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 속에 있는 오랜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음을 표현한다.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후에도 사울은 보좌에 앉아 있었다. 즉,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있었다. 성경을 보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오랜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젊은 세대에서 성숙한 세대로 변화되는데 따르는 특성을 설명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발달에 있어지는 참된 질서를 볼 수 있다.

사울의 우울함(dark moods, 악령)으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 이성의 약함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더 높은 이성이 주는 위로를 환영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윗은 사울의 무기당번이 되었고 하프를 쳐서 그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우리의 자연적 이성은 보좌에서 밀려나야 하고 더 높은 이성이 그곳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우리 내의 모든 지옥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을 파괴하려고 한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사울을 도왔고, 사울이 죽었을 때는 매우 슬퍼했다. 연장자들은 삶을 되돌아보며 그들의 젊은 시절에

가졌던 정열과 자존심을 그리워하고 더불어 성숙함에서 오는 지혜 또한 바란다. 그러나 그 바램은 이뤄지기 어려우며, 두 상태는 서로 구별되어 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 아니면서 왕이 되었음을 고려해 보면 이해될 것이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반쪽 형제였지만, 다윗과 사울은 서로 다른 족보에 속했다. 우리는 이러한 두 타입이 우리의 삶에서 각각 때와 장소를 갖고 우리 내에서 통치하고 있음을 알아채야 한다.

제 5반

본반의 토론 주제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다. 특히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후에도 사울의 통치가 지속됨의 의미와 다윗이 사울의 족보가 아닌 사실도 살펴본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에서 “다윗은 하느님의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계시록 설명(Apocalypse Explained) 205항 및 다른 여러 저서를 통해 다윗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구약성서는 깊은 의미로는 주님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이며, 구약 안에 있는 모든 주도적인 상징들(인물, 사건 등등) 역시 주님의 여러 가지 면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윗 역시 이런 측면으로 해석해야 하고, 기타 사물이나 사람들도 표현적 상징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표현되는 상징들 즉 사건과 인물들의 외적인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느님의 섭리가 크게 작용되어 있는 것들로서 그것들이(figures) 갖는 내적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다. 다윗은 실존했던 인물로서 우리처럼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었다. 주님은 우리 하나하나의 영혼을 아끼듯이 다윗도 아끼셨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 다윗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 주님과 연결되는 다윗에 대한 성경 속의 많은 예언들은 다윗이 주님에 대한 “표현적 인격”을 상징한다는 것을 참고하면 주님을 “다윗의 아들” 또는 “다윗의 계보”라고 예언한 말씀들에 대해 이해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41-46절을 읽어 보면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성경공부를 통해 우리의 삶과 주님의 생애가 어떻게 관련 되는가를 꾸준히

연구하게 된다. 우리는 다윗이 우리들 속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해야 한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세 왕들은 통치하는 하느님의 진리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앞서 공부한 바와 같이, 사울왕은 외모에 의해 선출된 왕이므로 외적 즉 표면적인 방법으로 이해되는 하느님의 진리이다. 한편, “주님은 심중을 헤아리시는 분”라는 구절처럼 하느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겉을 보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겉이 아닌 속을 보고 선택하신 다윗왕은 영적으로 진리를 이해함이다. 따라서 다윗에 관한 모든 것은 마음의 영적 수준 위에 모든 의미가 있게 된다. 그리고 다윗은 씩씩하고 용감한 용사로서 모든 문제(언어까지도)들에 있어서도 사리 분별했다. 그럼에도 그가 양을 지키는 목자였을 때는 순진한 애착들을 보호함을 뜻하기도 한다. 다윗은 또한 “하프 연주자”였는데, 이때는 “영적 진리”를 상징한다. (AC 419)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내부에 있는 적을 소탕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그곳으로 궤를 옮겼다.

하느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이해성은 그 진리에 대해 변한다. 우리는 첫 번째 단계인 자연적이며 외적인 이해성을 거치면서 뭔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의 이해성을 끌어 올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영적 이해성은 더 깊은 악들을 노출시켜 그것들을 올바르게 고쳐서 우리 마음의 집이 질서 있게 건축되게 한다. 우리는 진리를 삶에 적용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게 될 때,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적당함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꾸준히 보존한다면, 우리는 베들레헴 즉 “빵의 집”에 계신 새로운 왕을 찾도록 인도될 것이다. 스웨덴북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새 왕이 “천적인 것에 근거한 영적인 것들 (the truth of good)”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AC 4594) 그곳은 동방박사가 육이 된 말씀(Incarnate Word)을 찾도록 인도된 곳과 같은 장소이다. 즉, 우리의 꾸준한 노력은 주님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의 선한 바램이 좋은 결과와 부합되는 성취를 얻게 될 것이다.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 이러한 변화는 한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서는 “야훼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다가 후회하신...”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현상(現狀) 즉 겉모양에 해당됨을 알고 있다. 주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지침에 관련된 주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자적 이야기에서도 주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고 기름을 뿔에 채워 새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피상적으로 이해하여 지속적으로 실수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이해성을 필요로 함을 표현한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이를 발견하도록 일하고 새“왕”을 기름 붓는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가 해왔던 판단의 습관이 나쁜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안의 사울을 즉시 제거하지 못한다. 이러한 과거의 습관은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우리를 여전히 지배한다. 우리는 단지 비관적인 상황에서만 새 지도자에 의존하고 그를 통해 문제들의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는 우리의 새로운 이해성이 우리를 통치하기에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로운 이해성을 진정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요구된다. 즉, 다윗이 기름 부어져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 통치했고 다윗이 왕으로 인식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옛 이해성의 결점을 인식하고, 통치의 권한을 새 이해성에게 이양해야 한다. 또한 권한의 이양을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함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울과 다윗 사이의 첫 연고 관계에 관련한 스웨덴북의 설명 중 다음 대목은 매우 흥미있다. “하프(harp)는 영적 진리들(spiritual truths)에서 오는 고백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적 진리들은 주님의 영적 왕국(Lord's spiritual kingdom)안에 있는 천사들을 감화시키는 진리들을 뜻하며, 그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짓들을 무능하게 만들며 gm트려 버린다. 따라서 사울 안에 있었던 악령은 다윗이 하프를 연주함으로써 사울에서 떠나 버렸다”라고 설명한다. (AE 323-12)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몹시 사랑했고 자기의 무기당번으로 삼을 정도로 신뢰했다. 이것은 옛 이해성과 새 이해성이 언뜻 보기에는 서로 도와서 선악시비를 가리는데에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옛 이해성은 새 이해성을 이용해 자신을 괴롭히는 명백한 거짓을 없애거나 또는 명백한 악들이 그를 덮쳐 오는 경우 숨통을 트여줄 도구로만 사용한다. 예를 들면, 성경을 글자대로만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구절들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겪게 될 때 말씀의 영적 해석을 수궁하며 시험이 주는 어려움과 고난스러움을 넘여가려는 경우가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그들에게 만족을

주었던 그들의 옛 사상인 직해석 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한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에 따라 전체의 말씀이 해석되어 져야 한다는 원리를 거부한다.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한번 형성된 습관들을 깨뜨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후에도 오랫동안 보좌위에 머물렀다. 처음에 그는 다윗에게 친절했지만, 나중에는 다윗이 자신을 보좌에서 밀어내려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다윗을 적대시하였다. 그러나 기름부어 진 후 다윗의 능력은 점차 커졌고 사울의 힘은 점차 쇠퇴해 갔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매우 관대했으나 보좌를 차지하지 못했다. 즉 우리의 자연적 이해성이 최상의 것을 낳더라도 그것은 더 높은 판단력을 건설함에 있어 일시적인 도움만 줄 뿐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를 기억해야 한다. 진리에 대한 자연적 이해와 영적 이해 사이에는 불연속적 등차(discrete degree)가 있으며, 재구성(reformation)과 재탄생(regeneration)의 관계도 이와 같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205항 1번과 6번)」: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다윗에 의해 상징된다. 그 이유는 말씀 속에서 ‘왕들’은 하느님의 진리라는 측면의 주님을 표현(represent)하고 ‘사제들’은 하느님의 선이라는 측면의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특별히 왕 다윗에 의해 표현되었다. 다윗은 교회에 관련한 것들을 잘 보살폈다. 그뿐아니라 시편도 썼다....다윗이 하느님의 진리라는 면에서 주님을 표현함은 주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도록 의도하심과 ‘다윗의 아들’이라 부른 것 그리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 혹은 ‘이새의 뿌리’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어머니로부터 얻은 인간(human)을 벗어 버리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인간(Human) 즉 신성한 인간 (Divine Human) 이 되셨을 때는 그분은 더 이상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다.”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419항): “천적인 것들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선들이고, 영적인 것들은 진리들과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선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믿음에 속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지식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용한다. 그러나 믿음처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천적인 것이다. 믿음은 위의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하프(harp, Lyre)와 오르간(panpipe or syrinx)이라는 두 가지의 악기를 통해 의미된다. 하프는 현악기로서 영적 진리를 의미하고, 오르간은 현악기와 관악기 사이에 해당되므로 영적 선을 의미한다.”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323항 1번과 12번): “ ‘하프’는 영적 진리들에서 오는 고백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하프가 현악기이기 때문이다. 현악기들은 영적인 것들 또는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들을 의미한다. 한편, 관악기는 천적인 것들 또는 선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을 뜻한다. 악기들이 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이유는 악기들의 소리 때문이다. 소리는 애착들(affections)과 상응한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애착들이 소리들을 통해 지각(知覺)된다. 다양한 애착들이 있고 다양한 소리들이 많은 악기들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악기들은 상응에 의해서 애착들을 의미하게 된다. 현악기들은 일반적으로 진리에 대한 애착 들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악기들은 선에 대한 애착들에 속한 것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악기는 영적 부류에 속하고 또 다른 악기는 천적 부류에 속한다. ...[12] 하프는 영적 진리들로부터 있게 되는 고백을 의미하며, 영적인 진리들은 주님의 영적 왕국 안에 있는 천사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비롯된 거짓들과 그 안에 거하는 악한 영들을 흩어버린다. 그래서 “악령이 사울을 덮칠 때 다윗은 하프를 뜯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되어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사무엘상 16:23)라고 말씀에 쓰여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은 왕들이 영적 왕국이라는 측면의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왕들은 영적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때의 사울은 영적 진리들에 반하는 거짓들을 표현하고, 이러한 거짓들은 하프의 소리에 의하여 흩어졌는데 그 이유가 하프는 진리에 대한 영적 애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표현적인 것들인 바, 이러한 사건에도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다.

질문 정리

- 1) 주님은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가?
- 2) 주님은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사무엘을 어디로 보냈는가?
- 3) 베들레헴에서는 다윗 외에 누가 태어났는가?
- 4) 사무엘이 이새의 큰 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 5) 그 때 주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 6) 주님은 이새의 아들 몇 명을 거절하셨는가?
- 7) 사람들에게 다윗을 데려오게 했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8) 다윗에게 기름 부어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이와 동시에 사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10) 다윗의 용모는 어떠했는가?
- 11) 이외에 다윗이 가진 특성은 무엇인가?
- 12) 다윗은 어떤 악기를 연주했는가?
- 13) 다윗은 사울의 관심을 어떻게 샀는가?
- 14) 사울은 어떤 지위를 다윗에게 주었는가?
- 15) 성경의 어떤 책이 다윗을 통해 부분적으로 쓰였는가?
- 16) 다윗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17) 다윗이 기름 부어진 후에도 사울이 권좌에 머물러 있음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그의 왕국을 잃게 될 것 2) 베들레헴 3) 예수, 베냐민 4)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 5) “이 아들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다”
- 6) 일곱 명 7) 양을 치고 있었다 8)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내림 9) 악령이 그를 괴롭힘 10) 불이 붉고 눈이 반짝이며 잘생긴 아이 11) 용사, 시인, 하느님께

순종 12) 하프(lyre, harp) 13) 음악으로 사울의 머리를 맑게 해줌 14) 무기당번
15) 시편들 16) 삶을 지배하는 진리가 영적으로 이해됨
17) 낡은 습관은 고쳐지기 힘들다

18

솔로몬의 지혜

머리말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항은 사무엘의 기름부음이 있기 전, 그는 베들레헬에서 목자이고 음악가이며 용사였다는 것이다. 또한 다윗에 의해 시편서의 많은 부분들이 쓰였음도 기억하자.

성서 본문: 열왕기상 3장

3장: 1. 솔로몬은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와 결혼동맹을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이하여, 자기의 궁과 야훼의 전과 예루살렘의 성곽을 다 짓기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두었다. 2. 국민은 아직 야훼의 이름으로 부를 전이 지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3. 솔로몬은 야훼를 사랑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향을 피웠다. 4.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하나 있었는데 솔로몬은 늘 그리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번제물을 천 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 5. 야훼께서 그 날 밤 기브온에 와 있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셨다. 6.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는 저의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오늘 그에게 주신 이 아들로 하여금 그의 왕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7. 하느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소인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으로 삼으셨습니까만 저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8. 그런데 소인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몸입니다. 9. 그러하오니 소인에게 명석한 머리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잘 가려 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히 그 누가 당신의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10. 이러한 솔로몬의 청이 야훼의 마음에 들었다. 11.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가 장수나 부귀나 원수 갚는 것을 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옳은 것을 가려내는 머리를 달라고 하니 12. 자, 내가 네 말대로 해 주리라. 이제 너는 슬기롭고 명석하게 되었다. 너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13.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지 않은 것, 부귀와 명예도 주리라. 네 평생에 너와 비교될 만한 왕을 보지 못할 것이다. 14. 내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이 내 길을 따라 살았듯이 내 길을 따라 살아 내 법도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네 수명도 길게 해 주리라.” 15.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훼의 계약 궤 앞에 나아가 서서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고 또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16. 그런데 창녀 둘이 왕에게 나와 섰다. 17.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말을 꺼냈다. “임금님,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여자도 집에 있었습니다. 18. 그런데 제가 해산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는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19. 그런데 그 날 밤, 이 여자는 자기의 아들을 낳아 몽개어 죽였습니다. 20.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이 계집종이 잠자는 사이에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 아들을 가져다 자기 품에 두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놓고 간 것입니다. 21.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젖을 먹이려다 보니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그 아이가 제 몸에서 낳은 아이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22. 그러자 다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산 아이는 내 아이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야”하고 우겼다. 첫 번째 여자도 “천만에! 죽은 아이가 네 아이이고 산 아이는 내 아이야”하고 우겼다. 그렇게 그들은 왕 앞에서 말싸움을 벌였다. 23. 그 때 왕이 입을 열었다. “한 사람은 ‘산 이 아이가 내 아들이고 네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네 아들은 죽었고 내 아들이 산 아이다’라고 하는구나.” 24. 그러면서 왕은 칼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왕 앞으로 칼을 내오자 25. 왕은 명령을 내렸다. “그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26. 그러자 산 아이의 어머니는 제 자식을 생각하여 가슴이 메어지는 듯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만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네 아이도 아니니

나누어 갖자”고 하였다. 27. 그러자 왕의 분부가 떨어졌다. “산 아이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그가 참 어머니다.” 28. 온 이스라엘이 이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왕에게 하느님의 슬기가 있어 정의를 베푼다는 것을 알고는 모두들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교리 요약

* 의를 사랑할 때만이 평화를 가질 수 있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정말 솔로몬 같아”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이 보통 이상으로 현명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어떻게 현명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장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20살도 안 된 젊은 나이에 보좌에 앉게 되자, “저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주님에게 말했다. 또한 “솔로몬은 야훼를 사랑하였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주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물으셨다. 솔로몬은 장수와 부귀 또는 원수 갚는 힘을 청하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understanding heart)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어 흑백을 잘 가려내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도록 주님께 요구했다. 솔로몬의 지혜는 겸손함,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의 견지에서 의를 행하고 싶은 바램 등에 기초한다. 시편 111편 10절을 읽어 보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요 그분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슬기를 깨친 사람이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 a good understanding have all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이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그분에게서 오는 힘을 꾸준히 찾지 않고 옳음을 행할 충분한 지식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여기면 슬기로워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만이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솔로몬

(Solomon, Shalom)의 이름은 “평화스러운”을 뜻한다. 우리의 모든 재난과 다툼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 혹은 자아를 신뢰함에서 비롯된다. 솔로몬의 통치 40년 동안은 평화로웠다. 그의 지혜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왕들이나 여왕들은 그의 가르침과 고견을 듣고자 그를 찾았다. 또한 그는 주님의 약속대로 부유함도 누렸다. 10장은 특별히 솔로몬의 신성화 에 대해 설명한다.

솔로몬 통치의 극치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한 것이다. 다윗 역시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그는 “전쟁의 사람, 용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거절되었다. 주님의 성전 (Temple)이란 주님의 계명들에 의해 지어진 인격(character)을 묘사한다. 이는 우리가 선한 삶의 극치를 이루는 작업으로, 자신의 이기적 생각과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이타적 사랑이 흘러 들어오도록 우리의 영혼 안에 길을 만들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시험과의 투쟁은 먼저 있어야 할 과정으로서 다윗의 통치를 통해 묘사된다. 전투가 승리로 끝날 때 평화와 행복이 뒤따른다.

솔로몬의 왕국의 신성화 가 왜 오래 지속되지 못 했는가하는 질문의 답은 나중 공부를 위한 배경이 된다.

제 1반

솔로몬이 받은 은총인 “지혜로운 마음”이란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지를 아는 것과 나아가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사랑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들을 재정리하는 기회를 갖자.

다윗은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적을 정복했다. 주님은 그가 죽기 전 예언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 솔로몬이 그의 뒤를 잇는 왕이 될 것임을 알리도록 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제사장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기름 붓게 했다. 솔로몬의 형들 중 하나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맞았다.

주님은 솔로몬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다. 주님이 언제나 약속을 지키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솔로몬은 아주 슬기로우어서 여러 왕들과 여왕들이 그의 고견을

듣고자 내왕했다. 또한 그는 아주 부유해져서 갖가지 아름다운 것들도 소유했다.

질문과 요점

- * 솔로몬이란 이름은 “평화스러운(peaceful)”을 의미한다.
- * 솔로몬은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은 매우 평화스러웠다.
- * 솔로몬의 신성화, 지혜 그리고 소유물에 관한 내용은 열왕기상 여러 장을 통해 언급된다.
- *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것이다.
- * 솔로몬과 다윗 모두 40년간 통치했다.

제 2반

솔로몬이 주님에게 청했던 내용을 살펴본다. “천사들이 생각하듯 생각하고, 천사들이 느끼는 것같이 우리도 느끼게 해 주소서”라는 찬송가의 구절을 인용해서 그것과 비교한다. 그리고 16-28절까지 읽자. 두 여인의 송사의 진실을 가리는 사건은 지혜로운 마음이 사용된 실례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역대기하는 룯기서와 같이 내적 뜻은 없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을 읽으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문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 * 솔로몬은 주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 솔로몬은 꿈속에서 무엇을 요구했는가?
- * 주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다윗의 통치기간은 평화롭지는 못했지만, 그는 적들을 다 무찔렀고 영토도 확장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곳에 수도를 세웠다. 또한 예루살렘 성 내의 두 큰 언덕 중 하나인 시온산에 새로운 성막을 짓고 궤를 안치하기도 했다.

주님은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의 승계자가 될 것임을 다윗에게 알리도록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가 임박하자 솔로몬을 다음 대의 왕으로 기름 부어지도록 했고, 백성들은 이를 기꺼이 받아 들였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스러움”을 뜻한다. 솔로몬의 통치기간은 매우 평화스러웠고, 다윗의 통치기간과 같이 40년 동안 지속되었다. 처음 성막은 시나이 산에서 지어졌고, 다음 성막은 실로에 있었다. 본문의 성막은 궤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이 기브온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솔로몬의 요청과 그 성취는 그가 위대해진 원인이다. 본문의 끝부분에 있는 두 어머니의 이야기는 “지혜로운 마음 (understanding heart)”에서 오는 일련의 지혜에 대한 좋은 예다. 우리가 의를 행함을 사랑하지 않고 타인의 선한 바램을 동정하며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슬기로우질 수 없다.

주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다. 다윗 역시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주님은 “다윗은 용사이므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성전의 건축이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을 사랑하게 되어 그분이 우리의 인격을 건축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윗의 전투는 성서의 다른 전투와 같이 우리가 겪는 시험의 시기에 해당된다.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한 후에만 주님께 순종함을 진실로 사랑하게 된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성전은 아니지만,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의 두 번째 언덕인 똑같은 위치에 지어졌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하기 위해 갔던 곳이다. 시온산은 다윗의 성막이 지어진 곳이며, 아주 견고한 성이다.

주님은 솔로몬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셨다. 열왕기상 일부의 내용은 솔로몬의 부유함과 아름다운 소유물 그리고 그의 신성화에 대해 알려준다. 여러 왕들과 여왕들이 솔로몬에게 질문하거나 그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왔다.

제 3반

세 왕과 세 왕의 의미를 재정리한다. 다윗의 상태는 사울의 상태를 밀어내고 있게 되었지만, 솔로몬으로 표현되는 상태는 다윗으로 표현되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성장해 온 것임이 언급된다. 성전을 지은 자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었음을 기억하자.

다윗은 용맹스러운 왕이었다.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 모든 적들이 굴복되었고 예루살

램 또한 정복되었으며, 시온산에 세운 새 성막에 궤도 안치되었다. 그는 궤를 위해 성전을 짓기 원했으나, 주님은 그가 “용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셨다. 성전은 천적 인격을 표현한다. 우리는 시험에 맞서 싸워야 하지만, 투쟁하는 상태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며 단지 인격의 건설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인격 속의 성전은 주님에 의해 우리 안에 건설된다. 그러나 이는 주님이 우리의 심정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안의 길을 깨끗이 할 때만이 가능하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았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기브온에서 주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다. 그곳은 성막의 가구들을 가진 옛 성막이 마지막으로 지어졌던 곳이다. (역대기하 1:1-6 참조) 백성들은 궤가 그곳에 없더라도 여전히 옛 성막을 그들의 주요한 예배 장소로 여겼고, 사무엘 때에 실로에서 있었던 것 같이 모든 정규적인 예배 행사를 그곳에서 계속 행했다. 솔로몬이 그곳에 오가는 동안, 그는 주님을 섬기는데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헌납하였는데 유명한 그의 꿈도 그곳에서 있게 된다. 그 꿈에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그에게 물으셨다. 솔로몬은 주님이 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이해하는 마음(understanding heart)” 즉 가장 슬기로운 선택을 했다. “Understanding”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실제로는 “들음(hearing)”을 의미한다. 귀(ear)와 듣는 것(hearing)은 순종(obedience)과 상응한다.

Understanding Heart - obedient heart는 진정한 지혜의 상징으로서 시비(是非)를 분별하는 능력이다. 이는 주님의 뜻에 맞는 의를 행하고 싶은 순수한 바람(desire)으로 비롯된다. 스웨덴복은 우리가 진실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배운 내용을 실천할 때만이 주님에 의하여 우리의 영혼이 계발되어 진다고 거듭 강조한다. 솔로몬의 지혜는 유명해져서 여러 왕들과 여왕들이 그의 고견을 듣기 위해 그를 찾아 왔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스러움(peaceful)”을 뜻한다. 우리는 의를 행함을 사랑하게 될 때 평화를 얻게 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천국적 인격을 지으신다. 열왕기상 6장 7절을 읽도록 하자. 성전은 우리의 심정(heart)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성전은 우리가 준비한 재료들로 주님에 의해 아주 조용하게 지어진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지을 때 쓰실 돌이나 목재를 다듬고 있는 것이 된다. 성전이 지어지는 데는 7년이 걸렸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 주님께서 6일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휴식하신 것을 안다. 이것은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안의 성전을 완성하는데 요구되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울은 우리의 힘으로 옳은 것을 행하고 우리의 사상으로 옳은 것을 판단하려는 시도를 묘사한다. 이러한 기초로 하늘의 왕국은 우리 안에 결코 건설될 수 없다. 다윗은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한 진리에 따라 의를 행하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며 힘을 주시는 분으로 신뢰함을 표현한다. 우리는 이로 인해 우리의 내적 악들을 인식하고 정복하게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하고 우리의 바깥쪽 삶도 정리정돈 하게 된다. 솔로몬은 우리가 말씀의 행함을 사랑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듭남의 마지막 상태를 묘사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게 된다. 열왕기상 일부 내용을 통한 솔로몬의 부귀신성화 와 소유물 등은 우리의 영혼 안에 갖게 되는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한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두 여인의 송사를 다루는 광경은 솔로몬의 지혜로움의 한 예이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두 여인 중에서 진정한 어머니는 아들을 죽이기 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이해하는 솔로몬의 재판을 본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어머니인 체 하는 가짜 어머니는 진리에는 실제 관심이 없고 다만 진리들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기 원하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반면, 진짜 어머니는 실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진리를 보존함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지혜로운 마음이란 모든 진리와 선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주님의 소유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귀와 듣는 것 = 순종

성전 = 주님이 거쳐하시는 진정한 인격

솔로몬 = 말씀에 순종함을 사랑하게 될 때 있게 되는 통치하는 진리

제 4반

본반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예로 들어 본다. 의를 행함을 사랑할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 “Understanding heart”로 함축된 것에 대해 알아본다.

세 왕들 즉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거듭나는 우리의 단계를 표현한다. 사울 단계의 우리는 계명을 의무로서 따르며, 세상에서 번영하고 더불어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 다윗 단계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며, 우리의 행실 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바르게 고치고자 하는 의지에서 계명을 지킨다. 솔로몬 단계의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또한 스스로의 삶에서 그것의 이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 따라서 우리의 심정 안에 계명들이 새겨져 있게 되어 더 이상 우리의 이기적 바램과의 싸움이 없게 된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스러움”을 의미한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사랑함이 평화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해하는 마음(understanding heart)”을 주님에게 요구했다.

지식(knowledge)과 총명(intelligence) 그리고 지혜(wisdom)는 서로 다르다. 누군가가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나 그 지식들을 조직화하여 삶에 응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총명치 못하며 더 나아가 삶을 통해 총명과 지식이 입증할 때까지 지혜를 얻지는 못한다.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었다. 성전 건축에 이용된 각종 자재들 즉 돌과 나무 등은 진리와 선함에 관한 기초적 상징물이다. 성전을 짓는 자재들은 거룩한 땅 밖에서 온 것들로 각각의 자재는 현지에서 다듬어져 가져왔다. 이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일상생활에 응용되어 우리의 것으로 만든 진리와 선함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시험에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속의 돌과 목재들을 다듬는다. 그러나 실제로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돌들과 목재들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우리의 성전은 천국적 인격이며, 주님에 의해 우리들 안에 지어진다.

열왕기상 6장 7절을 읽어 보자. 성전이 지어지는 시간이 7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전이 아주 조용하게 지어져서 7년이 거의 지나서야 (즉,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성취한 선함이 넘칠 때), 성전은 그의 형태를 우리의 의식 안에 드러낸다. 이때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을 완성하여 실질적으로 천국에 속하게 된다.

성전의 지성소는 전체가 금박을 한 나무잎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는 우리의 심정 안에 있어야 할 사랑을 상징한다. 모든 성전 건축이 마무리 되자 궤는 그 안으로 모셔 졌고,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으며” 솔로몬은 엄숙한 봉헌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중심이 되어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내 삶을 헌신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삶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다.

솔로몬이 요구하지 않은 부와 신성화 까지도 더해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솔로몬이 가진 굉장한 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진실한 선한 삶이 소유하게 되는 영적인 부를 자세히 그린다.

엄밀히 말하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솔로몬과 같은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하나의 시험을 극복하면서 솔로몬과 같은 상태를 한정적으로나마 체험하게 된다. 즉, 우리는 스스로의 악들을 인식하여 주님의 도움을 받아 그것들과 싸우고 그것들과 반대되는 것을 사랑하게 될 때 신뢰감 속에 있던 평화와 아름다움 그리고 영적인 부의 일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두 어머니의 이야기는 지혜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한다. 우리는 모든 진리가 우리 자신의 총명의 산물이 아니며 주님의 것임을 심정(heart) 으로부터 인식하기 전에는 슬기로워질 수 없다. 성경에서의 아들은 언제나 진리를 의미한다. 두 어머니는 진리에 대한 두 종류의 다른 애착을 표현한다. 그래서 한 여인은 진리에 대한 참된 애착을, 다른 여인은 진리에 대한 거짓된 애착을 의미한다. 진짜 어머니는 진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했지만, 진리가 나쁘게 되는 것 즉 그것이 파괴되는 것 대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반면, 가짜 어머니는 진리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진리를 파괴하려고 한다. 오늘날 주님과 말씀에 관한 거짓

가르침은 인간의 총명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굳건한 마음을 갖고 중심을 지키면서 주님과 말씀을 불신하는 것들이 주어질 때 그러한 이유들을 분석하면, 우리는 많은 거짓들의 홍수에서 건져내지고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굳건히 설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제 5반

세 왕들의 의미를 재고하고 지혜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제 5절을 통해 솔로몬의 소원을 살펴보고, 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솔로몬이 보좌에 오름은 우리에게 새로운 상태가 열림을 묘사한다. 우리는 이에 관련된 몇 가지 일반적 요점들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는 새로운 왕이 이전 왕의 아들 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 갈 때와는 다른 계보였다. 둘째는 솔로몬은 다윗의 명령에 의해 기름 부어졌고 즉각적으로 왕권을 승계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솔로몬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왕들을 도와주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건축하는 일과 영토를 치장하는 일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이다.

스웨덴본은 요한 계시록 설명 654항 29번에서 솔로몬은 천적 왕국과 영적 왕국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즉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의미를 가진 솔로몬은 다윗의 통치의 결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는 다윗이 이룬 업적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사울과의 투쟁으로 지연되고 이웃한 적들과의 전쟁으로 가득했던 다윗의 통치 시기와는 판이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진리를 자연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영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변화는 매우 느리며 상당히 힘들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적 이해성이 세워지고 거둢남에 반하는 악들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끝냄으로써 훈련과 힘이 축적되면, 우리는 투쟁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시기를 맞게 된다. 이는 천적인 상태로, 이러한 상태에서의 우리는 의를 사랑하고 행한다. 다윗의 죽음은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진리에 복종하는 것이 더 이상 없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진리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스러움 또는

“천적(celestial)”상태는 솔로몬에 의해 표현된다. 이것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이 우리의 심정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되면, 주님이 진리에 대한 지각(perception of truth)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의 최고 정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데, 이는 요한계시록의 “극복하는 이에게 나는 하느님의 낙원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겠노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가장 완전한 상태를 표현하는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며 여호와 외의 다른 신들까지도 숭배하도록 허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솔로몬의 부정한 행실들은 왕국이 분단되는 요인이 되며 또한 높은 상태에 있다 해도 우리를 심하게 공격하는 시험들은 상존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우리는 이 시험을 저지해야 함을 알고 있다. 솔로몬이 세상에 오신 후의 주님을 표현함을 기억한다면, 솔로몬의 다중 결혼과 우상 숭배에 대한 관용은 주님의 이름 혹은 인격에 관한 지식여부와 상관없이 종교적 원리 하에 의롭고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하고 모든 종교의 선이 주님에게로 이끌리도록 애쓰신 주님의 사랑을 묘사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솔로몬은 그의 꿈속에서 주님에게 “그러하오니, 소인에게 지혜로운 마음(understanding heart)을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잘 가려 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이 바램이 솔로몬을 표현한다. 선한 것 안에 세워진 마음은 진리를 지각하게 된다. 지식(knowledge)과 총명(intelligence) 그리고 지혜(wisdom)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지식은 기억 안에 있는 사실(facts)들의 축적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실에는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모두 포함된다. 지식은 우리의 생각을 위해 필요한 기초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계명들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명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 총명은 합리적 능력에 속하는 것으로, 섭리(providence)가 우리에게 놓이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지식들을 응용하며 배열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총명 없이 계명에 관련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 지혜는 심정과 지성 양쪽 안에 있게 된다. 우리가 계명을 배우고 삶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계명에 맞추어 갈 때, 우리는 계명이 삶의 범임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이러한 발달 단계는 본문 1절에서 파라오의 딸이 기억적 지식을 사모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더욱 흥미롭다. 또한 열왕기상 7장부터 9장 2절까지도 읽어 보자. 밀로는 예루살렘 성벽 중 하나였다. (사무엘하 5:9도 참조)

우리는 계명들이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심정(heart)안에 새겨질 때 지혜로워진다. 진정한 우리의 존재는 심정으로부터 이뤄진다. (마태복음 12:34-35 참조)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명백히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다하더라도 선함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혜로워질 수 없다. 또한 계명을 준수하려는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이러한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마태복음 7:24-26)”는 말씀을 기억하자. “어리석은 자는 제 마음에 이르기를 하느님이 없도다.(시편 14편 1절)”라는 말씀에서도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즉,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획득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흑백을 가릴 수 있게 된다. 솔로몬의 요구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누가복음 12장 31절)”라는 말씀을 되새기게 한다.

동화 중에는 소원을 들어줄을 기초한 것들이 많으며, 어린이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익숙하다.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슬기롭지 못한 선택과 그에 따른 재난의 결과들을 기초하여 전개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일반적 진리를 바탕으로 한다. 즉 어른들은 동화를 통해 고대 말씀의 어떤 것을 찾고자하여 어린이들에게 그것을 들려주며, 어린이들이 피상적으로나마 슬기롭게 무엇을 소원해야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주님은 실제로 젊은이들에게 “너희에게 줄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라고도 하셨다.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목적을 선택하는 자유와 그것을 수행하는 자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주님은 동화 속 이야기 보다 더 나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주님은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슬기로운 소원이 무엇인지 미리 알려 주시며, 어리석은 소원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짧지만 그 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삶은 지금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하신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투쟁하면 그것들

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짧은 삶이 끝난 후의 우리는 영원한 가난 속에 직면하게 됨도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선들을 소원하며 일해 가면, 우리는 그것들을 실패 없이 얻게 되리라 약속하신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것이 되는 영원한 선들은 저 세계에서도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한없이 큰 공간을 짓고 그 공간을 쉽게 채우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너로부터 요구하리라. 그러면 네가 모아둔 이러한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이것은 네 자신을 위해 쌓아둔 것이지 하느님을 향한 재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는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주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 주님이 처음 우리의 바램을 물으실 때,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선택을 하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 역시 솔로몬이 누린 평화와 신성화 를 누리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1555항)」: “[2] 인간이 어떻게 진정한 지혜에까지 도달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총명이 지혜는 아니지만 지혜로 인도해 준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진리와 선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혜로워지면 그렇게 된다. 지혜는 오직 그 사람의 삶에 의해서만 단언된다. 사람은 지식들 곧 아는 것을 통해 지혜나 삶에 소개 되어진다. 사람 안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의지(will)와 이해성(understanding)이다. 의지가 우선하는 부분이며 이해성은 그 다음에 해당 된다. 사후 삶은 의지부분에 의해 결정되며, 지적 부분에 의해서는 결정되지 않는다. 의지는 유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주님께 의해 인간 안에 형성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심은 순진함(innocence)과 부모, 유모 그리고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많은 천적인 것들 또한 의지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다. 아기와 아동기 때에 이러한 천적인 것들이 그 안에 심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첫 단계(first plane)가 형성된다.

[3] 그러나 이해성이 주어지지 않는 인간은 진정한 인간일 수가 없으므로 의지만으로 는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가 없고 이해성과 의지가 함께하여야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해성은 반드시 지식들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므로 사람은 아동기부터 지식들을 점진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두 번째 단계 (second plane)가 이루어진다. 지적 부분이 지식들, 특히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에 대해서 가르쳐지게 되면 처음으로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거듭남이 시작되면, 주님은 유아기 때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천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지식들을 이용하셔서 선들과 진리들을 우리의 지적부분에 심으신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지적인 부분과 주님께서 심어 두신 천적인 것들이 하나를 이루게 된다. 주님께서 지적인 부분과 천적인 것들을 결합(conjoin)하실 때 그 사람에게에는 선행(charity)이 주어진다. 그는 이렇게 주어진 선행으로 행동을 시작하는데, 이때의 선행은 곧 다른 아닌 양심(conscience)이다. 이렇게 그는 처음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며 이것은 단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새로운 삶에 있게 되는 빛이 지혜로 불리는데 이 지혜는 다른 것에 우선하며 총명(intelligence)위에 놓인다. 이렇게 세 번째 단계(third plane)가 이루어진다. 사람이 육을 입고 사는 동안 이러한 단계들을 이루면, 그는 저 세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완전해 간다. 이러한 고찰들은 무엇이 총명의 빛인지, 그리고 무엇이 지혜의 빛인지에 대해 보여 준다.

질문 정리

- 1) 다윗은 사울과 무엇이 다른가?
- 2) 다윗이 가진 특별한 재능은 무엇인가?
- 3) 성경의 어느 책이 다윗을 통해 주어졌는가?
- 4) 다윗의 통치 때에 성취된 것은 무엇인가?
- 5) 다윗은 궤를 어디에 놓았는가?
- 6)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누구인가?
- 7)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인가?
- 8) 솔로몬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9) 솔로몬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10) 기브온에 무엇이 있었는가?
- 11) 기브온에서 꿰뚫던 솔로몬의 꿈속에서 말한 이는 누구인가?
- 12) 주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물었는가?
- 13) 솔로몬은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14)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무엇을 지었는가?
- 15) 솔로몬의 통치는 몇 년간 지속되었는가?
- 16) 솔로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들에 순종했다
- 2) 음악, 시인
- 3) 시편
- 4) 평화
- 5) 예루살렘
- 6) 솔로몬
- 7) 다윗
- 8) 평화스러움
- 9) 기브온
- 10) 성막(tabernacle)
- 11) 주님
- 12)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 13) 지혜로운 마음 (Understanding heart)
- 14) 성전(temple)
- 15) 40년
- 16)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랑함

19

엘리아와 아합

머리말

본과의 역사적 시대는 솔로몬 왕국의 분열 이후이다. 따라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자료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열왕기상 12장을 통해 왕국의 분열에 관한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왕국이 분단된 이유도 이해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17; 18장

17장: 1. 길르앗의 티스베에 살고 있던 티스베 사람 엘리아가 아합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 물론 이슬도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요.” 2.야훼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내렸다. 3. “이 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릇 개울에서 숨어 지내며 4. 개울물을 마셔라. 음식은 까마귀들을 시켜 날라다 주도록 하리라.” 5. 엘리아는 야훼의 말씀을 따라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릇 개울로 가서 살았다. 6. 까마귀들이 아침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 그는 계곡의 물을 마셨다. 7. 그렇게 얼마를 지내는데 개울의 물마저 말라 버렸다. 온 땅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8. 야훼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내렸다. 9. “여기를 떠나 시돈 지방의 사렙다로 가서 그 곳에서 살도록 하여라. 거기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해 놓았다.” 10. 그래서 엘리아는 그 곳을 떠나 사렙다로 갔다. 마을에 들어서 보니 한 여인이 뿔감을 짚고 있었는데 과부였다. 엘리아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떠 주실 수 없겠소?” 11.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했다.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만 가져다 주시오.”

12. 여인이 대답하였다. “군 떡은 없습니다. 있다면 천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뒤주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빨감을 조금 주워 다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나 모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13.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집에 들어가서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시오.

14.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15. 이 말을 듣자 과부는 곧 집 안에 들어 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과부 모자에게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16.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 그대로 뒤주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동이 나지 않았다.

17. 이 일이 있는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눕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하여져서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18. 여인이 엘리야를 추궁하였다. “오, 하느님의 사람이여! 어른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오시어 내 죄를 일깨워 주시고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19. 그가 말하였다. “부인, 아이를 좀 봅시다.” 그는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누웠다.

20. 그리고 그는 야훼를 소리쳐 불렀다. “오, 나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기어이 제가 머무르고 있는 과부의 집에 슬픔을 내리시어 아이를 죽이시렵니까?” 21. 그는 아이 위에 세 번 엎드려 몸과 몸을 맞추고 나서 야훼께 기도하였다. “오, 야훼 나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몸에 다시 생명의 호흡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22. 야훼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 다시 생명의 호흡을 주시어 마침내 아이는 살아났다. 23.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 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부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24. 그러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과연 하느님의 사람이십니다. 어른께서 전하신 야훼의 말씀도 참이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18장: 1. 삼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2.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다. 3. 가면서 보니 사마리아에 기근이 매우 심하였다. 아합은 궁내대신인 오바디야를 불렀다. 오바디야는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4. 그는 왕후 이세벨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백 명을 오십 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날라다 주어 살려 낸 사람이었다. 5. 아합이 그 오바디야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나와 들어서 전국을 다녀 보자.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만날지도 모르니 모든 샘과 계곡을 살살이 뒤져 보자. 어떻게든 말과 노새를 살려야지 그냥 죽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6. 이리하여 그들은 전 국토를 둘로 나누고 한쪽은 아합 자신, 다른 쪽은 오바디야가 담당하여 두루 다니면서 물을 찾기 시작하였다. 7. 오바디야는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만나러 온 엘리야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인사를 하였다. “아니, 엘리야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8.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소. 가서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에 와 있다고 전하십시오.” 9. 그러나 오바디야는 놀라며 말하였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는 것입니까? 10. 선생님의 하느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왕은 선생님을 찾기 위하여 모든 나라, 모든 왕국을 걸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11. 그런데 나더러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보고하라는 말씀입니까? 12. 내가 선생님을 떠난 즉시 야훼의 영이 선생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보고를 듣고 왕이 왔을 때 선생님은 여기 계시지 않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야훼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13. 내가 한 일은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이세벨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학살했을 때, 야훼의 예언자 백 명을 오십 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날라다 주어 살려 내었습니다. 14.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나더러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안다고 보고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 15.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기필코 오늘 왕을 만나리다.” 16. 그러자 오바디야는 아합을 찾아 소식을 전하였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17.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을 건넸다.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인가?” 18.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왕 자신과 왕의 가문입니다. 왕께서는 야훼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19.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멜산으로 모이게 하여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세벨 왕비에게서 녹을 받아 살고 있는 바알의 예언자 사백 오십 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사백 명도 함께 모아 주십시오.” 20.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예언자들에게 가르멜산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21.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22.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야훼의 예언자로서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요.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사백 오십 명이나 있습니다.

23. 이제 우리에게 황소 두 마리를 끌어다 주시오. 그들에게 한 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그냥 두게 합시다. 나도 한 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24. 당신들은 당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나의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겠소. 어느 쪽이든지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 하느님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25.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십시오. 황소 한 마리를 택하여 제물로 드리고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마시오.” 26. 그들이 준비한 황소를 받아 잡아 놓고는 아침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오, 바알이여, 대답하십시오.” 그러나 대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 예언자들은 자기네가 만든 제단을 돌면서 절뚝거리는 춤을 추었다. 27.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였다. “바알은 신중인지 아니면 여행 중인지 혹은 잠이 드셨는지도 모르니 어서 깨워 보아라.” 28.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자기네 의식을 따라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흘렸다. 29. 한낮이 지나 제사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신접한 모습으로 날뛰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답은커녕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없었다. 30.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자기 앞으로 다가오라고 말하였다. 백성들이 모두 다가 오자 그는 허물어진 야훼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31. 엘리야는 일찍이 야훼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려 주신 야곱의 열 두 아들들에게서 나온 지파의 수대로 돌을 열 두개 모았다. 32. 엘리야는 그 돌 열 두 개로 야훼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는 곡식 두 가마 정도 들어 갈 만큼 큰

도랑을 뚫다. 33.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송아지를 잡아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물을 네 동이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자 34. 그는 그렇게 한 번 더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세 번을 붓자 35.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흘렀고 옆 도랑에 가득 괴었다.

36. 제사 드리는 시간이 되어 예언자 엘리야가 앞으로 나와서 외쳤다. “오,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이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제가 한 모든 일이 당신의 말씀을 좇아 한 것임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37. 응답해 주십시오. 야훼여,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께서 하느님이심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당신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38. 그러자 야훼의 불길이 내려 와 제물과 함께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웠고 도랑에 괴어 있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려 버렸다.

39. 온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40.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사로잡으시오.” 엘리야는 백성들이 사로잡아 온 그 예언자들을 키손 개울로 끌고 가 거기에서 죽였다. 41.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이젠 돌아 가서서 음식을 드십시오. 내 귀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42. 아합이 돌아가서 음식을 드는데 엘리야는 가르멜산 꼭대기에 올라 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묻었다. 43. 엘리야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라고 일렀다. 시종이 올라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와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야는 일곱 번이나 되풀이하여 가 보라고 명하였다.

44. 시종은 일곱 번째 보고 와서는 바다에서 손바닥 만한 구름이 한 장 떠올랐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시종에게 명령하였다. “아합에게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채비하여 내려가시라고 일러라.” 45. 그러는 동안 하늘이 구름으로 덮이어서 캄캄해지면서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아합이 병거를 몰아 이즈르엘을 향하여 가는데 46. 엘리야는 야훼의

힘에 사로잡혀 옷을 걷어붙이고 아합을 앞질러 이즈르엘 어귀까지 뛰어 갔다.

교리 요점

- * 우리가 거듭남의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의 지성 부분은 심정부분 보다 더 즉각적으로 시험에 복종 당한다.
- * 심정 속에 있는 이타적인 사랑 즉 주님을 사랑함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에 스스로를 과신하게 되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라는 “경계심과 기도”를 게을리 하며 아예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오래 동안 성공을 누리더라도 그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앞서 우리는 여러 왕과 여왕들이 솔로몬에게서 지혜와 조언을 구했음을 배웠다. 솔로몬은 세월이 흐르면서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 파괴하라고 지시하신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나라의 여인과도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는 많은 외국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녀들을 궁전으로 데려왔고 그녀들의 우상 숭배를 위한 신전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러다 결국 그도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이것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재물이나 쾌락에 빠져 계명의 제 1번을 잊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다.

솔로몬은 그의 모든 아내들을 부양하고 왕궁의 호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야 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부담이 날로 늘어가게 되자, 백성들은 솔로몬이 죽은 후 그것을 가볍게 해 달라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간청했다. 슬기로운 르호보암의 노신들은 백성들의 호소를 수락해야 한다고 르호보암에게 조언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더욱 무거운 세금을 징수했다. 그

결과 북쪽의 열 지파는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 국가는 이스라엘 왕국이라 불렀다. 남쪽 왕국은 유다 왕국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솔로몬의 계보를 충실히 지키고 수도를 예루살렘에 두면서 성전에서의 예배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첫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감을 막기 위해 「베델」과 북쪽 끝 「단」에 각각 금송아지를 세웠다.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악하며 우상을 숭배했다. 또한 그들의 통치기간은 매우 짧았고 폭정을 일삼았으며 왕의 계보 또한 쉽게 바뀌었다. 이러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주님을 예배함을 잊고 세상적 관심과 이기심으로 추론하도록 될 때 있는 우리 마음의 향방에 대한 것을 표현한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강했던 왕의 하나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다. 역사가는 그를 위대한 왕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지만, 성서에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어느 왕들 보다 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자”라고 평가된다. 주님이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라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아합의 통치 시대 때, 주님은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 오랜 기근이 들어 나라가 고통 받게 될 것임을 아합에게 알리도록 하셨다. 세상적인 마음은 하늘의 비 즉 주님께에서 오는 진리를 받을 수 없다. 주님은 우리가 이기적인 이익 추구에 빠져 흡수될 때에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험한 신호를 보내신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익히고 들은 말씀의 구절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감추어 두고 보존 시키신다. 이는 아합이 도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꺼이 경청하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존해 두신 상황과 같다.

우리는 가르멜 산에서 엘리야의 대결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열심히 불렀고,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제례 의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흘렸다. 그러나 하늘로부터의 불은 그들의 제단에 내려오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 역시 열심히 일하며, 때로는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재물과 권력을 얻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행복은 심정 속에 있는 이타적 사랑으로부터만 비롯되며,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분에게만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자아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 나서서,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느님이라면 나를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라고 말했다.

제 1반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은 둘로 분열되었고 북쪽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예배를 중단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엘리야가 보내졌음을 간단히 설명 한다.

솔로몬은 “이해하는 마음(understanding heart)”을 주님께 요구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 주셨고, 권력과 부 그리고 각종 아름다운 것까지 그가 소유하도록 하셨다. 우리는 솔로몬이 주님의 많은 은총을 받았으므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을 것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온갖 좋은 것을 해주더라도 자녀들은 부모에 늘 순종하지만은 않는다. 또한 더욱 이기적이고 버릇없이 되어버린 자녀들은 순종이라는 단어 그 자체까지도 잊게 된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이다. 솔로몬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백성들은 이로 인해 그에게 불만족하게 되었다.

본문의 이해를 위한 요점 및 질문정리

- *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은 왕국을 하나로 이끌 수 없었다.
- * 솔로몬 왕국은 둘로 갈라져 남쪽 왕국은 유다로,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다.
- *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은 주님을 잊었고, 두 금송아지를 왕국의 남쪽 지역인 베델과 북쪽 지역인 단에 세웠다.
- * 이스라엘 왕 중 하나인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이 숭배한 바알신을 숭배하게 되었다.
- * 주님은 아합을 일깨우기 위해 어떤 큰 예언자를 보내셨는가?
- * 엘리야는 아합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할 때, 주님은 그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 * 아합이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무엇을 하자고 제의했는가?
- * 백성들은 어디로 모였는가?
- * 어떤 대결이 있었는가?
- * 바알 예언자들은 하느님이 자기들에게 귀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 엘리야는 그의 제단을 어떻게 지었는가?
- * 주님은 진정한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보여 주셨는가?
- * 불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어떻게 말했는가?
- * 엘리야는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는가?
- *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제 2탄

먼저 일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한다. 성서 지도를 통해 기럿 개울, 사렘다 마을, 가르멜산, 이즈르엘 등의 지역을 살펴보자. (기럿 개울의 정확한 위치는 확정되어 있지 않음) 누가복음 4장 24-26절도 읽어 보자. 바알송배, 가뭄과 흉년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불에 대한 상응도 설명한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자.

- * 왕국을 통털어 세 번째 큰 왕은 누구였는가?
- * 그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그는 주님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 *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 * 그는 무엇을 지었는가?

솔로몬의 슬기로우면서도 그가 시험에 빠지게 됨을 막지 못했고, 그는 집권 말기에 왕국을 깨트리는 잘못을 행하였다. 그는 스스로가 아주 위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에 다른 종교를 가진 많은 외국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그는 아내들이 그들의 신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신전을 지어 주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여호와를 예배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분열되어 국력이 약해졌다. 더불어, 그 스스로도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되어 많은 재정과 인력이 허비되었고 이를 위한 세금가중으로 백성들의 불평은 늘어만 갔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좌에 앉게 되자, 백성들은 그들의 부담을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나이 많은 대신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수락해야 한다고 왕에게 건의했다. 반면, 젊은 대신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짐을 주어 왕의 권위를 과시하면 그들은 어떠한 불평도 못할 것이라고 왕에게 건의했다. 그리고 왕은 젊은 대신들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그 결과 북부 백성들이 반기를 들어서 결국 왕국은 둘로 분열되었다. 유다라 불리는 남쪽 부분만이 솔로몬의 계보에 순응했고, 예루살렘을 계속 수도로 지키면서 성전에서의 예배를 지속했다. 그러나 열 지파에 해당하는 북쪽지역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세겜을 수도로 정했으며, 솔로몬의 휘하에 있었던 장군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감을 막기 위해 두 개의 금송아지를 베텔과 단에 세웠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 그의 왕권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 예언 하셨고 또 그대로 되었다. 그러나 여로보암 후의 이스라엘 왕들 역시 금송아지에 대한 숭배를 계속하였으며 다른 우상들도 가져왔다. 이스라엘 왕들 중의 많은 이들이 폭동으로 살해되고 왕의 계보는 자주 바뀌었다.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자였다.

아합과 이세벨은 가뭄에 대한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렸다. 그러나 주님은 엘리야를 보살피셨다. 누가복음 4장 25-26절을 보면, 가뭄이 상당히 길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서 지도에서 사렙다 지역을 찾아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었는지 알 수 있다.

주님은 극심한 고통이나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지어는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아합 왕과 같은 사람들까지도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엘리야가 숨었다가 돌아와 오바디야를 만나는 말씀의 구절을 읽어보자. (본문 18:1-16) 아합과 같은 악한 왕도 오바디야라는 좋은 궁내 대신을 거느리고 있었다.

우리의 “좋은 궁내 대신”이란 우리가 이기적 심정상태에 있을 때 이미 배워둔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 특히 말씀으로부터 익힌 것들에 관한 기억을 의미한다. 엘리야는 선한 오바디야를 통해서 아합의 귀를 열리게 할 수 있었다.

성서 지도에서 가르멜 산을 찾아 보자. 이 산은 긴 산등성으로, 한쪽 끝은 바다를 접하고 다른 끝에서는 이즈르엘 평야가 내려다보인다, 그리고 이곳에서 키손 개울물이 시작되는데, 이 개울은 오래 전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들을 물리친 곳이기도 하다.

본문 18장 21-24절을 통해 엘리야가 백성에게 제안한 대결을 알 수 있다. 바알에 대한 예배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앞자리에 자신을 먼저 세우는 것을 표현한다. 사람들은 때로 이기적 목적들을 위해 아주 열심히 일하며 고통까지도 감수한다. 이것이 바로 바알신의 예언자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하루 종일 바알신을 불러대며 절뚝거리는 춤을 추었고, 칼로 몸에 상처를 내기까지 했다. 바알의 예언자란 이기적인 것이 옳다고 믿게 만드는 생각과 논쟁들을 뜻한다.

본문 18장 31-35절을 보면, 엘리야가 제단을 준비한 것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는 주님의 응답에 아무 것도 간섭할 수 없었음을 백성들에게 입증하기 원했다. 하늘로부터 온 불은 주님의 사랑 즉 이타적인 사랑을 표현한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스스로가 잘 나서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총으로 비롯됨을 인식하게 될 때, 이 사랑은 우리의 심정 안에 이르게 된다. 이타적 사랑만이 진실한 행복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이기적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재미나 그들이 주장하는 삶의 행복은 한시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머지않아 싫증이 나게 되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게 되는 바, 그 안에는 진실한 만족이 없다.

백성들이 주님을 다시 예배할 준비가 되자 비가 내렸다. 우리는 물이 진리를 의미함을 배웠다. 하늘로부터의 비란 우리에게 내려오는 주님의 진리를 표현한다. 우리가 이기적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예배하게 되면,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환히 비추게 된다.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본문의 내용을 기억해 보자.

- * 본문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이 왕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인가?

- * 그들은 어떤 신을 섬겼는가?
- * 어떤 예언자가 아합에게 경고하도록 보내졌는가?
- * 엘리야는 처음에는 어디에 숨었는가?
- * 누가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었는가?
- * 개울물이 마르자 주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는가?
- * 엘리야는 과부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 * 그는 과부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 * 그 여자를 위해 엘리야는 무슨 기적을 베풀었는가?
- * 엘리야는 무엇을 지었는가?
- * 그가 주님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제 3반

솔로몬의 시험과 그 결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예배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떨어져 나간 사실 또한 알아본다. 주님이 엘리야를 특별히 보호하심, 기쁨과 흉년의 의미, 아합의 마음이 겸손해지자 엘리야가 돌아온 것 그리고 제시한 대결 등의 의미들은 우리에게 강한 교훈을 준다.

솔로몬의 통치는 천국적 삶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한다. 솔로몬의 통치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번영을 누렸고 그들의 이름도 해외까지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진보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의 시험을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 승리는 그것에 따른 고질적 시험을 갖고 있다. 고질적 시험이란 자기만족으로, 승리로 기뻐하며 스스로가 충분히 강하다고 인식하는 순간 시험과의 투쟁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다.

솔로몬은 통치 후반기 동안 그의 번영과 부귀에 취해서 여러 국가로부터 아내들을 취하였고, 여러 나라의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지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신성화 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했다. 결국 이로 인해 국가는 분열되기 시작했고, 통치의 말기에는 솔로몬 또한 우상을 숭배하였다. 우리는 천국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격이 자랄수록 새롭고 더 깊은 악들을 우리 내에서 발견하고 그들과 싸워 승리해야

한다.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는 둘로 분열되었다. 남쪽의 유다왕국은 솔로몬 왕권을 유지하며 수도를 예루살렘에 두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처음에는 세겜을 수도로 하고 후에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인간을 이루는 근본적인 두 부분 즉 이해성과 의지를 표현한다. 우리는 두 부분이 일치할 때 평화로운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안의 이 두 부분이 서로 교착 상태에 있는 경우가 더 흔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꼭 옳은 것만을 본다고는 할 수가 없다. 또한 옳은 것을 행하기 원하였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우리 마음에 있는 잘못된 사상들로 인한 것이다. 본문 이후 구약성서 대부분은 구세주가 오시기까지 대치하는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이다. 결국 두 왕국은 적들의 포로가 되고 만다. 유다 왕국에는 선왕들이 몇이라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국은 악한 왕들 뿐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사상이 거짓화 되어 가는 때에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선한 의지가 우리를 움직여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그려준다. 거짓 신상들을 세워 놓음은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특수한 악들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의 측면에서 이러한 악들이란 자신만 추켜올리는 경향과 세상의 이러한 경향으로 빠지게 됨을 뜻한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외세에 저항하기에는 모두 약했다. 이는 그들의 힘이 여호와에 의존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주님께게서 등을 돌리게 되면 약해진다.

여로보암은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송아지 신상을 세웠는데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어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숭배하도록 했다. 이것의 의미는 영에 속한 것을 우선하지 않고 “자연적 선함, 학식 또는 세상적 성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표현한다. 세겜과 베델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두 제단들이 있었던 곳임을 배웠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지금 전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폭동과 반정의 역사였다. 그들의 악은 금송아지를 세워 놓도록 만드는 것과 같이 끊임이 없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었던 죄의 길을 따라 갔고, 그의 죄로 이스라엘 왕국 백성을 죄짓게 만든 자”라고 반복되어 말해진다.

엘리아는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며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아합의

통치 시대에 출현 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합의 통치는 오래 지속되고 번영했다. 비종교적 역사가들은 아합을 위대한 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칭찬이 한 구절도 없다. 그는 시돈왕 에드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 이세벨은 역사상의 여인들 중 가장 사악한 여자들 중의 한명이라고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녀는 아합과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유인했다. 바알 숭배는 자아 사랑으로 통치됨을 뜻한다.

아합과 이세벨 통치하의 이스라엘 왕국은 거짓과 이기적인 것으로 통치되는 우리의 마음을 뜻한다. 인간은 대개 무엇보다도 자신을 우선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잊기 원한다. 주님의 예언자인 엘리야는 말씀을 표현한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없애려고 애썼지만, 주님은 그를 보존하셨다. 주님은 처음엔 그를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릇 개울에서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숨어 있도록 하셨고, 후에는 지중해에서 북쪽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사렙타 지방에서 살도록 하셨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후방”을 상기하도록 그려주고 있다. 우리는 본문에서 묘사된 이스라엘 왕국의 과격한 상태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모른척하고 이스라엘 왕국과 같은 극도의 악한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

성경에서 엘리야의 첫 등장은 가뭄과 흉년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된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자아가 될 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비”가 우리의 마음에 내려질 수 없게 되므로 “선함의 열매” 또한 우리의 행동에서 맺혀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더불어 번성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끼며, 우리의 “땅”은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과의 합의 하에 스스로에게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진리를 상징하는 아합 왕은 마침내 물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때가 주님이 다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그리고 아합은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디야를 궁내 대신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시는 주님의 섭리인 것이다. 우리 속의 모든 것이 옳음에서 멀어져 있더라도, 행실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는 옳음에 대한 우리의 기억적 지식은 존재한다. 이것이 아합의 궁내 대신으로 오바디야가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주님은

이 기억적 지식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물을 찾아 나설 때 아합과 오바디아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했으며 엘리야가 만난 사람은 오바디아여야만 했다.

엘리야는 대결을 위해서 아합에게 바알의 모든 예언자를 가르멜산에 모이게 하라고 말했다. 가르멜(carmel)산은 한쪽에서는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즈르엘 계곡을 관망할 수 있는 낙타의 등과 같은 형태다. 이즈르엘 계곡은 과거에 바락과 시스라의 군대 사이에 결정적 싸움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가르멜산으로 올라감은 우리의 모든 축적된 지식, 시험을 이긴 승리, 극복 못한 시험 등 과거의 모든 경험을 관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의 생각을 끌어올림을 뜻한다.

바알의 예언자들 즉 자아를 두둔 하려는 논쟁들은 아주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 낼 수 없었다. 하늘로부터의 불이란 이타적 사랑을 의미하며, 그것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 열두 개의 돌로 쌓인 엘리야의 제단은 계명에의 순종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단에 네 동이씩 세 번이나 부은 물은 엘리야에 대항하는 모든 논쟁을 의미한다. 이 물이 쏟아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의 불은 떨어져 당겨졌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보고 이기심에서 벗어나 주님을 섬기려고 결정하면, 우리의 땅은 큰 비로 한 번 더 적셔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유다왕국 = 의지 부분

이스라엘 왕국 = 이해성 부분

엘리야 = 예언적 말씀

바알 = 자아를 하느님처럼 여김

제 4반

본문을 통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간결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구약성서의 이야기는 솔로몬에 이르러 점진적으로 진보하는 상태가 절정을 이룬 듯하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욱 깊고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는 성공 역시 그것에 뒤따르는 시험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약함과 악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지점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많은 국가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위풍을 부러워했다. 그래서 히브리 국가는 타 국가와 결혼을 금하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러 국가들로부터 많은 아내들을 취하였다. 이것은 삶의 영적 측면에서 종교적 원리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좋아하며 맛보려는 우리의 경향성(tendency)을 표현한다. 이는 우리가 선한 생활을 확립했다고 여길 때 빠져 들기 쉬운 결점 중의 하나이다. 솔로몬은 아내들이 예배하는 우상들을 위해 제단과 신전을 지었고, 결국 그 또한 우상을 예배하는 과오를 범했다. 그리하여 그의 왕국은 그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고, 그의 아들은 남쪽 부분의 두 지파만 통치하게 되었다. 분열된 왕국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유다는 의지를 표현하며 이스라엘은 이해성을 표현한다. 솔로몬 통치 하의 단일 왕국으로서의 가나안 땅의 이 두 부분은 우리가 아는 옳은 것과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갖춰져 있는 상황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아주 짧아서 곧 의혹들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 즉, 스스로가 좋아하는 길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늘 섬기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혹은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하는 등의 의혹이다.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은 솔로몬 왕국의 장엄함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값(price)에 의문을 제기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늙은 대신들의 충언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스스로의 권위를 과시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은 떨어져 나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쪽 유대 왕국으로 빠져 나감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놓고 예배하도록 했다. 금송아지를 세우는 자연적 선 즉 우리의 외향적 선한 일들을 진정한 선으로 여기며 주님을 섬기고 인식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됨을 표현한다. 우리는 물질적 혜택만을 진정한 선함으로 여기는 세상적인 논리에 설득되기 쉽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친절함과 자애로움이 눈으로 확인되면, 그는 주님을 예배하며 하느님을 인식한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친절하고

이웃을 돕는 것이 중요하며 주님을 믿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추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려는 의도와 그분의 진리에 삶의 지침을 두지 않은 행위는 진정한 선이 아니다. 이러한 의도와 지침이 마음에 없게 되면,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금송아지를 세워 하향하는 모습과 같으며, 우리의 영적 하향의 시초가 된다.

다윗의 계보는 유다 왕국을 끝까지 사수했다. 그 왕국의 소수 왕들은 아주 선하여 진정한 예배를 유지시키면서 부분적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제 16장을 보면, 이 왕국의 통치기간은 짧고 폭풍 같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의지와 이해성이 나뉘져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다. 자아를 최상으로 여기는 마음에서는 어떠한 원리도 길게 유지될 수 없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악의 시리즈와 우상적 왕들 그리고 왕권이 폭동으로 자주 바뀌는 기록이다.

이스라엘 왕 중 가장 사악했던 아합은 보좌에 올라 역사상 악녀의 대명사로 지칭되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다. 그들은 모두 바알을 숭배했다. 이것은 자아 사랑이 삶의 표준이 됨을 표현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가뭄과 흉년이 올 수 밖에 없었음이 쉽게 이해된다.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는 영적 가뭄과 기근은 바로 자아를 마음의 중심에 앉힌 결과이다.

엘리아의 이야기는 앞서 보았던 어두운 배경과는 다르다. 엘리아는 모든 예언자들처럼 말씀(the Word)을 표현한다. 그가 아합에게 말하는 것같이, 주님은 우리가 자아 중심에 빠지고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될 때 말씀을 통해 알려 주신다.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못 들은 척 하려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부터의 소리가 있다. 주님께서서는 엘리아를 먹이시고 보호하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리를 보존시키신다. 우리는 영적 가뭄과 기근으로 힘들게 되면, 엘리아를 찾아 나서며 그의 말을 경청하게 된다.

엘리아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거대한 사건들 중 하나다. 이 이야기의 세세함은 그 자체로도 충분한 감명이 있고,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가뭄이 계속된 3년 반이라는 시간은 마음이 이기심으로 가득해져서 새로운 전환점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말한다. 이 시기의 마지막 시점에서

는 아합 역시 물을 찾아 나선다. 그는 하느님을 경외한 오바디야를 충신으로 데리고 있었다. 오바디야란 삶의 더 나은 것에 대한 기억을 뜻한다. 이 기억은 악이 우세할 때도 살아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이 악한 사람의 마음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아합은 물을 찾아 나설 때 이 길로 향한 것이다. 반대로 오바디야는 다른 길로 나섰기 때문에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오바디야였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가르멜산으로 모이게 하여 바알과 여호와와의 대결을 목격하도록 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나의 중심이 되어 버린 자아를 숭배하는 마음과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맞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들어 올려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낮은 차원에 있는 마음은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함으로 자아 숭배와 주님 예배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바알의 사제들과 예언자들은 아주 많았는데, 이들 모두는 자아 숭배를 옹호하는 거짓된 추론들을 의미한다. 이런 거짓 추론들은 우리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며 끊임없이 바알을 불러댄다. 자아 사랑은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이타적 사랑 즉 주님의 불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열 두 개의 돌로 쌓은 엘리야의 제단은 자신을 지배하도록 주님의 법을 쌓은 것을 의미한다. 엘리야의 제단에 바쳐진 송아지는 우리가 행한 모든 선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식하는 것의 표현이다. 번제물 위에 쏟아 부은 물이란 우리가 진실 된 것이라고 판단한 잘못된 것들 즉 주님에 대한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세상적 추론을 의미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주님을 향해 똑바로 세운 제단 위에 하느님의 불이 떨어졌음을 확인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파멸되었고, 역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이는 우리가 한 번 더 하느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은 다시 행복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

제 5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바로 잡아가야할 시험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를 분석한다. 주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상적 추론 사이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현대 기독교인 혹은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사상을 점검하고 그 중 타당한 것과 주님과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스스로를 가르치는

계기를 마련하자. 열왕기상 18장 21절의 엘리야의 말은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스웨덴북의 설명에 따르면 본문은 고대 히브리 교회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다. 여기서 히브리 교회, 즉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교회의 역사를 간략히 요약해 보자.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이 교회의 초기에 해당 된다. 그 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치며 히브리 교회는 점진적으로 발달하여 성장하게 된다. 그러다가 이집트의 총독이 된 요셉의 비호로 이집트에 정착하였지만,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인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그들의 고통을 가엽게 여기신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호렙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계명들을 받지만 믿음의 부족으로 40년간의 광야를 방황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광야 생활은 그들을 하나의 국가로 뭉치게 만들었고 이 후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느님께서 지시하신대로 땅을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 그 다음이 “모든 이가 자기 눈에 드는 대로 행동”하여 혼란과 고통, 그리고 판관을 통한 주님의 구하심이 반복되는 판관의 시대였고,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음으로 열왕기가 시작되었다. 다윗의 정복 사업이 솔로몬의 현명한 통치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질서와 사회체제를 갖춘 진정한 국가로 거듭났고 내부의 모든 적들을 소탕했으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다. 그 후 긴 세월은 아닐지라도 강력한 국가가 되어 다른 나라들이 공물을 바쳤고 평화로운 시대를 누렸다.

스웨덴북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이 인간의 영적 발달과 연관이 아주 깊다고 설명한다. 진정한 영적 발달은 이기심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를 찾아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데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세파에 시달리면서 자연적 지식들 또는 세상의 쾌락들에 일시적으로 속박된다. 따라서 계명에 따르는 질서 있는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쟁과 오랜 고통을 견디어야 한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고통 속에 버려두시지는 않아 우리를 인도할 진리를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데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절반만 통과한 채 만족해 버리고는 우리 속 깊이 박힌 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대신 그들과 타협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님의 섭리로 우리 내면의 인격은 그것을 지배할 더 높은 차원의 진리들을 지각해감으로서 우리의 마음은 점진적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하기까지 이르는데 이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평화가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맞보았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상태들은 이 세상 삶에서 거듭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오게 되며 저 세상까지도 연결된다. 우리는 이 같은 상태가 필요하지만 그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유한하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높고 고귀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악과의 싸움터 맨 앞에서 계신다. 따라서 주님이 실제 싸우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싸우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영적 승리는 늘 새로운 시험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우리의 마음이 성장해 감에 따라 더욱 강하고 깊은 악들을 주님께서 노출시켜 인식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새로운 악과 싸울 준비를 갖추었다면 그 악을 이길 새로운 길이 또 열리게 된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통해 솔로몬이 많은 외국 여인들을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절에서는 “솔로몬은 늙어 그 여인들의 꾀에 넘어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왕은 선왕 다윗만큼 자기 하느님 야훼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승리의 실재와 그에 따른 즐거움과 평화란 승리들이 연출해낸 결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주님은 한 번 더 우리의 애착들에 악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셔서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했던 악들이 노출되도록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 임무에 착수하도록 하신다.

스웨덴북은 교회라는 측면이 개별적이든지 일반적이든 간에 이스라엘 왕국은 교회 속에 있는 영적 또는 “생각” 측면을 표현하고 유다 왕국은 교회 속에 있는 천적 또는 “사랑” 측면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AC 4292) 주님께 관련해서는 이해성과 의지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스웨덴북의 천국의 신비 제 8770항을 통해 이스라엘 교회가 표현적 교회임을 엄두하고 분열된 두 왕국을 떠올리면, 분열된 이유에 대해서 흥미 있는 논리들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의 개인적 생활과 말씀의

이야기들을 연결시켜 본다. 분열된 왕국의 역사는 곧 성인 생활의 역사를 의미한다. 우리는 하고자 하는 마음(desire)과 그를 이해하는 마음(understanding)이 항상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행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 없음에도 선한 바램(desire)들을 가지며, 행동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나쁜 바램을 갖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분열된” 상태가 되는 데, 이 때 우리의 심정은 이쪽으로 향하고 우리의 판단력은 다른 곳에서 헤매게 된다. 심정과 이성이 함께 할 때 만족이나 성취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상태는 길게 지속되지 못해서 우리는 자기만족 혹은 탐욕으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분열되는 방향으로 유도된다. 이는 우리가 분열된 상태에서만 우리의 이기적 느낌을 인식하는 새로운 진리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도록 하셨다. 우리의 세상적 바램들은 이기적이다. 우리의 생각들이 이기적 마음에 항상 복종하는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이기적 목적에 맞는 것들만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로 접근할 수 없다. 생각과 애착(affection)의 분리는 일시적이며, 조금 더 높은 평면에서는 재결합을 도모한다. 선한 바램을 가지려면 그를 수행할 지혜를 구해야 하고, 새로운 진리를 배우려면 그것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바램을 육성해야 한다. 선한 바램에 적절한 지식이 더불어 있지 않으면, 어떤 선도 성취될 수 없으며 자아 사랑으로 급속히 빠져들게 된다. 반면, 단순히 아는 것으로 만족된 진리는 급히 열매 맺지 못하는 추론의 영역으로 빠져서 결국 상실된다.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결국 두 왕국 모두 다른 왕국들의 포로가 되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국의 일곱 번째 왕이다. 하지만 그는 첫 왕 여로보암의 후손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왕국의 왕의 계보는 세 번의 폭동으로 이미 변해 있었다.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은 영적 인격의 성장이 목적이다. 우리의 생각이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있게 되면 결국 새로 어떤 것이 나타나거나 혁명적인 사상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쉽게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가 악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어느 왕들 보다 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다. 그는 여로보암이 세워 놓은 금송아지에 대한 숭배를 지속했고 바알을 숭배한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 또한 그는 그의 아버지가 수도로 정한 사마리아 땅에 바알 제단과 신전을

세웠다. 바알에 대한 숭배는 주님에 대한 예배가 거꾸로 되어 자아 숭배로 빠지게 됨을 뜻한다. (AE 324-21) 아합의 통치 하에 있음은 삶의 생각하는 부분이 금송아지를 세운 일 즉 “외향적 선한 일”을 최고의 선으로 간주한 것보다 후퇴된 자기만족 혹은 희열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게 됨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면, 가뭄과 기근이 뒤따른다. 자신만을 잘 섬김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오는 진리에 문을 닫게 되므로, 우리 속에 자양분을 주어 키워야 할 영적 생명은 죽게 된다. 스웨덴북은 “천국을 통해 흐르는 하느님의 진리가 악 속의 거짓들 때문에 받아질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다른 신들’ 또는 ‘바알’이 의미하는 바이며 그 신들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뜻이다.”라고 설명한다. (AE 644-8) 악에 근거한 거짓들이란 언제나 튀어 나오는 거꾸로 된 추론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신의 길만을 고집할 때 타인의 좋은 충고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비는 물론, 이슬 한방울도” 그 땅에 내릴 수 없다.

주님은 이러한 위기에 엘리야를 보내셨다. 예언자들의 전도 여행은 악을 항상 질책하고 악에 대한 벌을 예언하며, 선한 이들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용기를 불어 넣는 것이다. 따라서 예언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항상 미움을 받고 선한 이들에게 흠모된다. 그 당시에는 엘리야를 제외하고도 예언자가 아주 많았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 18장을 보면, 오바디야가 이세벨로부터 구원한 예언자만도 백 명에 이른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예언자들로부터 외향적 지침에 관한 많은 직접적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말씀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말은 항구적이며 보편적 의미를 전달한다. 그 중 엘리야는 예언자 중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말씀의 예언서 부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지칭된다. 모세와 엘리야는 말씀의 법 부분과 예언 부분들을 상징하는데, 이 두 사람은 주님이 변모하셨을 때 주님과 대화하기도 했다. 스웨덴북은 천국도 이와 같아 엘리야라는 이름 대신에 “예언적 말씀”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S.S. 71) 엘리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예언되는 상황으로 나타나 악을 책망한다. 그리고 만약 악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 보여준다. 또한 선한 삶의 보상도 보여준다. 신약성서에서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해 “장차 올 엘리야”라고도 불린다. (마태복음 11:14) 오늘날의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서 시대와 같은 예언자들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말씀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경고하실 때 실패하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천적인 삶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이끄는 데도 실패하지 않으신다.

엘리야는 처음에 그 땅 안의 작은 그릇 개울가에서 주님께 의해 보호되었다. 그를 먹인 까마귀란 비록 진실은 아니지만 영적 삶의 어느 정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자연적인 생각들을 표현한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등마루에 머물렀을 때, 노아가 까마귀를 처음 내어 보냈던 이야기를 상기해 보자. 시냇물이 마르게 되자, 엘리야는 그 땅 밖으로 보내졌다. 물이 다 마르는 때는 엘리야가 되돌아 올 시기가 가까워짐을 뜻한다. 이처럼 주님은 말씀 속의 어떤 것을 우리 안에 보존하시면서 우리의 의식이 알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살아있도록 배려하신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외적 영역, 우리 마음들의 배경 혹은 외적 환경이 절망적이라고 판단하고 말씀의 어떤 것을 떠올리고 싶을 때까지 그것을 보존하시며 기다리신다. 과부란 선하게 살기를 원하나 진리가 결핍된 상태를 뜻한다. 우리 삶의 상태는 아합 통치하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표현되고 있다. 거룩한 땅 밖의 과부란 외적 형태에 조금 남아있는 부드러운 감정에 기대서라도 말씀이 호소된다는 것이다. 과부의 아들은 이러한 막바지 상황에서도 영적 생명으로 자랄 수 있는 약간의 씨를 의미한다. 엘리야는 죽기 전에 남아 있는 한줌의 밀가루와 기름을 먹으려고 장작 두 개를 쭈고 있는 과부를 발견했다. 이는 외적 온정을 지원해줄 자양분조차 없어진 때를 표현한다. 엘리야는 그 여자에게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 오라”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렸다. 이는 “뭔가를 해 보라. 그 일이 아무리 작더라도 주님을 인식하면서 해 보라. 그러면 조금 밖에 안 남은 네 속의 선함이 곤경을 이겨내게 해주며, 생명으로 들어가는 진리로 길이 다시 열릴 때까지 지탱시켜 줄 것이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 관한 실제 지식이 없거나 자기만족 혹은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 온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행동에 미치게 될지 모르는 말씀의 구절들을 기억들 안에 붙잡고 있다. 우리는 엘리야가 사렙다의 과부에 의해 보존되고 이와 반대로 엘리야가 그 여자를 보존시키는 예들의 의미를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알게 된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의 행복이 없다고 낙심할 때 혹은 인생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용한 것처럼 되는 때를 의미한다. 이 후에 각 사람과 살아 남아있던 말씀이 위력을 보여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들어 올려져서 우리의 영적 생명은 다시 살아나 회복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 힘을 인식하고 그 힘의 출처를 확인하게 되어 주님에게로 향하게 된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세상적으로 되어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시는 소리들에 우리의 귀를 막더라도,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엘리야를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보존하셔서 우리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신다.

아합 역시 물을 찾아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그는 하느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궁내 대신인 오바디아와 함께 물을 찾아 나섰는데, 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오바디아가 엘리야를 발견하고 엘리야에게 아합을 오도록 함은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아합은 엘리야에게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인가?”라는 인사말을 했다. 사리사욕은 언제나 주님의 소리가 자기를 망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따라서 대결은 불가피하였고, 모든 백성들은 가르멜 산으로 호출 되었다. 이는 마음 전체가 영적 빛 안에서 명확하게 보고 판단될 수 있는 높이까지 이르러야 함을 표현한다. 엘리야는 대결할 쟁점에 대해,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라고 명백히 말했다. 이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주님을 사랑함과 자아를 사랑함은 직선의 좌우 극점처럼 서로 상반 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에서 사리사욕을 몰아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아를 섬기고자 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약속된 어떠한 축복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일에만 주님을 섬기며 6일간은 자아를 섬길 수는 없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재산을 얻을 때까지 자아만을 섬기고 그 후에 모은 재산을 좋은 것을 위해 써도 만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느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공부하며 슬기로운 삶에 대해 그분 보다 잘 아는 이가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섭리에 따라 주어진 그대로 받아 간직해야 한다. 즉, 주님의 말씀을 인간의 사상들에 꿰맞춤으로 해서 주어진 말씀을 변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양자택일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세상적 요구, 자극 혹은 이기적 추론에 상당히 오랫동안 귀를 기울여 우리가

해야 할 대담한 선택을 주저하거나 거절하게 됨을 표현한다.

바알을 위한 예언자는 수백 명이었지만, 주님의 예언자는 한 명뿐이었다. 이는 거짓된 방법은 아주 많으나 진실한 방법은 하나 뿐임을 의미한다. 세상적 추론의 소리는 많으며 꽤 떠들썩하다. 바알 예언자들은 한 낮이 되기까지 바알을 불러댔다. 그들은 절뚝거리는 춤을 추며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우리는 거짓 예언자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 누군가가 “그는 분명히 의로움에 틀림없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자기 일생을 바친 걸 생각해 봐!” 하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의 불은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들의 번제물 위에는 떨어지지 않았다. 하늘로부터의 불이란 주님의 이타적 사랑이 심정 안으로 오는 것을 뜻하며, 그 불만이 행복을 줄 수 있다. 반면, 자신만을 헤아리고 자신의 총명을 유일한 삶의 길잡이로 여기는 이들은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엘리야는 허물어진 야훼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는 열 두 개의 돌로 야훼의 제단을 쌓았다. 이는 순수한 선함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말씀의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며 주님을 예배함으로 돌아가야 함을 뜻한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번제물을 준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선함이 행해져야 한다. 엘리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번제물 위에 물을 퍼부어 제단에 흘려넘치도록 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 스스로 좋을 대로 논쟁함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다. 논쟁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예배를 통해 부를 때,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의 노력들을 행복과 평화로 채워 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실재하심에 대한 참된 증거가 된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아추구를 중심에 두지 않고 삶을 주님을 섬기는 기회로 여긴다.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사랑하며 자신을 잊게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된다. 우리가 가르멜 산으로 올라가 이 대결을 관찰한다면, 우리는 진리에 대한 의심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될 것이다

후에 바알의 모든 예언자들을 잡도록 백성들에게 명령되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이 사로 잡아온 그 예언자들을 키손 개울로 끌고 가 거기에서 죽였다”함은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할 분이 주님임을 인식하여 자아사랑을 방어해 온 모든 거짓 추론들을 찾아내고 말씀으로부터 온 진리의 빛으로 그것들을 파괴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후, 엘리야는 아합에게 먹고 마시라고 말했다. 우리의 “개인적 특질”은 우리를 타락하게 했다. 그러나 비가 다시 오게 될 때 즉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 상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원기가 회복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4844항 12번)」: “엘리야에 관련된 모든 것은 성경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표현적이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게 되자 사렘다 과부에게로 보내졌고,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먼저 과부가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고 그 후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은 것, 그리고 과부의 집에 있던 소량의 밀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않는 것 등은 모두 표현적이다. 비가 오지 않아 든 흉년은 교회 안에 진리가 피폐해 졌음을 표현한다. 사렘다의 과부란 진리를 갈망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뜻한다. 엘리야에게 먼저 만들어준 떡은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온 선을 표현하며 자기가 가졌던 작은 선함을 주님을 사랑함에 먼저 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 여자가 자기 자신과 아들보다 주님을 사랑함을 우선했다는 것이다. 밀가루 한줌이란 선에서 근원되는 진리를 의미하고, 기름 몇 방울이 들어있는 병이란 선행(charity)과 사랑(love)을 뜻한다, 엘리야는 말씀을 표현하므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질문 정리

- 1) 솔로몬은 무엇을 지었는가?
- 2) 솔로몬은 말기에 어떤 실수를 범했는가?
- 3) 실수의 결과는 무엇인가?
- 4) 분열된 두 왕국의 이름은 무엇인가?
- 5) 어느 왕국에 예루살렘이 있었는가?
- 6) 북쪽 왕국의 왕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감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 7) 역사가들은 북쪽 왕국에서 어느 왕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가?
- 8) 아합의 아내 이름은 무엇인가?
- 9) 아합의 통치기간에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는가?
- 10) 어떤 예언자가 아합에게 경고하기 위해 보내졌는가?
- 11) 아합은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려 했는가?
- 12) 주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 13) 엘리야가 아합에게 되돌아 와서 어떤 대결을 제시했는가?
- 14) 대결은 어디서 있었는가?
- 15) 바알 예언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의 하느님을 불렀는가?
- 16) 엘리야는 그의 제단을 어떻게 했는가?
- 17) 엘리야가 주님을 부르자 어떻게 되었는가?
- 18)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 19) 바알 예언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20) 대결의 결과로 무엇이 왔는가?
- 21) 이스라엘과 유다는 각각 무엇을 표현하는가?
- 22) 엘리야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성전 2) 우상에게 예배했음 3) 왕국이 갈라짐 4) 이스라엘, 유다 5) 유다
- 6) 두 개의 금송아지를 세웠다 7) 아합 8) 이세벨 9) 가뭄 10) 엘리야 11) 죽이려고 했음 12) 까마귀가 그를 먹였음 13) “불로 응답하는 하느님...” 14) 가르멜산 15) 한 낮이 되기까지 불렀다 16) 열 두 개의 돌로 쌓고, 물 열 두 동이를 부었음 17) 불이 내려왔다 18) “야훼가 하느님이십니다” 19) 엘리야가 그들을 죽였다 20) 비가 내렸다 21) 이스라엘 - 지성 또는 이해성, 유다 - 심정 또는 의지 22) 예언의 말씀

20

아사왕의 통치

머리말

본과에 앞서 미리 알아야 할 것은 솔로몬 왕국이 두 왕국으로 분열됨과 그 두 왕국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주변의 이야기를 재정리하고, 유다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에 충실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도 지속했음도 언급한다.

성서 본문: 열왕기상 15장

15장: 9.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이십 년에 아사가 유다 왕위에 올라 10. 예루살렘에서 사십 일 년간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 11. 그런데 아사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야훼께서 보시기에 곧바른 일을 하였다. 12. 왕은 전국에서 남창들을 소멸하고 그의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없애 버렸다. 13. 왕은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여신에게 바치는 음탕한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그것을 토막 내어 키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14. 산당은 그대로 보존되었지만 아사는 일생 동안 야훼께 한결같이 신실하였다. 15. 그는 자기의 부친과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바친 각종 금은잡기들을 야훼의 전에 바쳤다. 16.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전쟁을 하였다. 17.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유다를 침략하였다. 또 라마성을 튼튼하게 보수하여 유다 왕 아사로 하여금 군대를 출동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18. 그러자 아사는 야훼의 전과 왕실창고에 남아 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거두어서 사신을 시켜 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내며 청을 넣었다. 당시 시리아는 헤지온의 손자이고 타브림몬의 아들인 벤하닷왕이 다스

리고 있는데,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정하고 있었다. 19. “나의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 맺으신 동맹은 나와 당신 사이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보냅니다. 부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으신 동맹을 파기하시고 바아사로 하여금 우리 영토에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20. 벤하닷은 아사왕의 청을 받아들여 군사령관을 불러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온, 단, 아벨벳마아가, 긴네렛, 그리고 납달리 전 지역을 짓부수었다.

21. 바아사왕은 이 소식을 듣자 라마성을 보수하다 말고 다르사 지방으로 철수하였다. 22. 이에 아사왕은 유다 전국에 총동원령을 선포하여 바아사가 라마성을 보수하는데 쓰던 돌과 목재를 옮겨 와서 미스바와 베나민 지방의 게바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게 하였다. 23. 나머지 행적, 치적 및 그가 축성한 성읍들에 관하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왕은 나이가 많아지자 다리를 앓았다. 24. 아사는 열조와 함께 잠들어 조상 다윗의 성에 있는 그의 왕실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교리 요점

* 우리는 삶의 첫째에 주님을 섬김 이외의 것을 놓는 일에 끊임없이 대항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본과의 공부가 성서의 뒷장으로 되돌아간 것은 분단된 왕국의 역사를 기술하는 열왕기서의 두 책이 각각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을 따로 기술하여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체 160과를 망라해서 네 번의 공부는 이스라엘 왕국을, 또 네 번의 공부는 유다 왕국을 공부하도록 계획되었다. 유다 왕국의 역사에 관한 공부는 소수의 선왕들을 통해 명백해 진다. 그 왕들 중 첫 번째인 아사는 열왕기상 15장에 등장한다.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남쪽 부분인 유다는 여전히 솔로몬의 계보에 충직했고 예루살렘에서의 예배 또한 꾸준히 지켰다. 북쪽 부분인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을

거절했고 다른 왕을 세웠으며, 두 금송아지상들을 베델과 단에 세워 그것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국가가 되어 더욱 나빠져 갔다. 반면, 유다는 개혁을 피하려는 소수의 선한 왕들도 가졌으며, 그들은 주님에 대한 예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왕국의 백성들은 그들 주위의 이교도 국가들로 인해 점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우리는 “갈라진 마음(divided mind)” 즉 옳은 것을 행하기 원하나 무엇이 옳은지 확실치 않은 상태와 옳은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기 원치 않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러한 심정 상태는 성경에서 분열된 왕국(divided kingdom)으로 표현된다. 남쪽의 유다는 심정(heart)을 표현하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지성(mind)을 표현한다. 솔로몬 치하의 평화스러운 단일 왕국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바를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평화스럽고 행복한 때를 누리는 상황을 묘사한다.

이러한 솔로몬의 상태에 뒤따르는 것은 일차적으로 반역하는 우리의 지성이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 “주님을 전적으로 따름이 정말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인가?”하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 이기적 생각은 우리의 “더 좋은 성향(better nature)”이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온 원리들로 향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위 같은 질문이 일어나게 한다. 유다의 선한 왕들은 이와 같은 원리들을 표현한다. 아사왕은 백성들이 세운 우상들을 제거했다. 우리는 교인으로서의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아사왕처럼 판단하여 우리에게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호소되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가치가 없음을 인식하며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사왕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거 하지는 않는다. 본문 14절에서는 “그러나 산당(high places)은 제거되지 않았으며(보존되었으며)”라고 기술되어 있다. 산당이란 우상들을 높이 세워 놓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높은 높은 곳이다. 우리는 우리가 “숭배”해 왔던 것의 무가치함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의 판단 안에 있는 자기만족감과 자긍심은 쉽게 포기하지는 못한다. 자긍심은 산당을 통해 표현된다. 아사왕은 개혁을 완전히 마무리 짓지 않아 후에 주님을 신뢰하는 대신 시리아 왕에게 원조를 청하도록 마음이 동요되었고 시리아 왕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성전의 보물들을 포기했다. 본문의 23절에서는 “왕은 나이가 많아지자

다리를 앓았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에 대한 자랑을 일삼게 될 때, 주님의 길을 향해 걷는 대신 세상적 길로 되돌아가 뒤쳐지게 되어 결국 영적 다리를 앓게 된다.

제 1반

앞서 공부했던 사악한 아합왕과 아사와 같은 선왕의 차이점을 언급한다. 우상숭배에 관한 것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출애굽기 20:2-6)는 계명을 되새겨 본다. 아사가 우상을 어떻게 타파했는가와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한 그의 공적 그리고 우리 같은 실수를 행했음도 살펴본다. 아사는 이로 인해 늙어 다리 병을 앓게 된다.

북쪽 왕국의 첫 왕은 백성들이 관습대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되돌아오지 않고 다른 왕국으로 흡수될 것을 우려하여, 남쪽 경계인 베델과 북쪽 경계인 단에 금송아지상들을 세워놓고 큰 축제를 벌여서 백성들이 즐기도록 했다. 북쪽 왕국의 백성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결코 되돌아가지 못했다. 그들은 주님이 보내신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화되어서 주님이 그들을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적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남쪽 왕국의 백성들은 성전을 가졌고, 그곳에서의 예배가 그들에게 주님을 상기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웃국가의 우상을 섬기도록 한 시험을 자주 겪었고 우상을 세우기도 했다. 역대 왕의 대다수가 선하지 않았지만, 선한 왕들이 때때로 등극해서 백성들이 진정한 하느님을 예배하도록 선도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공부 해보자.

- * 유다의 세 번째 왕의 이름은 누구인가?
- * 그는 선왕이었는가?
- * 그가 행한 치적은 무엇인가?
- * 그는 하려고 했던 것 중 무엇을 못했는가?
- *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아사왕을 어떻게 해치우려고 했는가?
- * 아사왕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 * 아사왕은 시리아왕 벤하닷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제공했는가?
- * 벤하닷은 아사왕을 어떻게 도왔는가?
- * 아사왕은 늙어 어떤 신체적 고통을 가졌는가?

제 2반

성서 지도를 보면서 왕국을 공부하면 내용을 기억하기 쉬운 것이다. 아사왕이 험지 않은 산당과 시리아에 도움을 청함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됨을 살펴본다. 개혁을 하려면 말끔히 해 버리는 즉 “cleaning up”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 지 알아 보자.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악했다.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욱 나빠져 결국 아시리아에 정복당했으며, 모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의 역사는 이와 다르다. 유다의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들이었는데, 이는 15장 4절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다의 모든 왕이 선하지는 않았고, 백성들 또한 다른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그곳에 성전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님을 상기하도록 해주었다. 그들은 때로 성전관리를 게을리하고 보수조차 하지 않았으며, 악한 왕은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때마다 선왕이 등장하여 주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시키고 개혁을 시도했다. 따라서 유다왕국은 이스라엘 왕국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결국 유다 왕국도 정복당하게 되어 많은 백성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지만, 그 중 일부는 그 땅에 남았고 후에 일부 사람들은 되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기도 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백성의 후손이다.

제 14절에서는 “아사는 일생동안 야훼께 한결같이 신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그가 언제나 의를 행하기 원했음을 뜻한다. 본문 후반부에서 그는 실수를 행하지만, 그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큰 성안의 백성들은 아주 사악하여 하늘로부터 쏟아진 “불과 유황불”로 멸망되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이후에 그들의 악과 유사한 이들을 소돔같은 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열왕기를 보면 다른 왕들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언급된 경우가 많다. 이는 그 왕들이 우상들을 모두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세워두는 산당은 그대로 방치했음을 뜻한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우상을 다시 세우고자 하면 쉽게 새로운 우상을 섬길 수 있었다. 우상들은 다양한 종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일부 백성들은 여전히 이러한 우상들을 숭배했다. 우리는 어떤 형상도 예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진정한 우리의 우상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것들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우상을 만든다. 어떤 이는 돈, 권력, 스포츠 혹은 육체적 쾌감 등을 우상으로 섬긴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재미에 빠지거나, 어떤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어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길지라도, 만약 그것을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 즉 높은 곳(산당)에 두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 성장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각자의 우상을 가지며 이와 같이 행동한다. 젊은이들이 우상을 지지하거나 그것을 섬기도록 하는 유혹들을 방치함은 그들 안의 산당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하나의 우상을 없애면 또 다른 우상이 쉽게 우리 마음속의 높은 장소를 차지하게 된다. 높은 장소들(high places)이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의미한다.

아사는 여로보암의 후손이 아니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겨우 2년동안만 통치했으며, 백성들은 이싸갈 지파의 바아사에 이끌리어 나답을 반역했다. 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역대기하서의 14장부터 16장까지는 아사의 통치에 관해 설명한다. 역대기서는 내적 의미는 없지만, 우리는 그 책을 통해 보다 자세한 역사를 알고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아사왕이 주님 대신 시리아 왕을 신임하여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과 그의 통치 말기가 초기보다 행복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들에 답해 보자.

- * 유다왕 중에서 첫 번째 선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였는데, 그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첫 번째 선왕의 치적은 무엇인가?
- * 그 밖에도 아사왕의 다른 치적도 있었는데, 그는 해야 할 일들 중 무엇을 하지 못했는가?

- * 아사가 왕위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누구였는가?
- * 바아사는 아사를 어떻게 괴롭혔는가?
- * 아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 * 아사는 원조하는 대가로 시리아 왕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 아사는 얼마동안 통치했는가?
- * 그는 노력에 무슨 병을 앓았는가?

제 3반

분단된 두 왕국이 우리 속에서 의미하는 바와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할 때는 선 가운데 머물기 힘들다는 것을 이해한다.

주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서 유다 왕국의 계보는 언제나 다윗의 아들이 지켜왔다. 후대 왕들 중에는 악한 자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다윗의 후손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심정이 주님의 진리에 의해 한번 움직여진 후에는 주님의 진리에 대한 우월성이 우리의 심정에서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유다에는 나쁜 왕들과 좋은 왕들이 같이 있었다. 나쁜 왕은 우상을 세우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상태에 빠졌다가도 때로 멈추어 스스로 점검하기도 하며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기도 한다. 그것이 선한 왕들이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진다. 우상이란 주님을 섬기는 것 외의 다른 것을 삶의 궁극의 목표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인 우상들은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인식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 유다 백성들은 아사의 통치 전까지는 성전 예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상들은 예루살렘 밖 “높은 장소” 즉 산당(high place)에 세워져 있었다. 이는 주일에 교회에 참석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게을리 하지 않으나 자기가 집착하는 지식, 돈 혹은 쾌락 등을 추구하는 때에는 주님을 잊을 수 있음을 뜻한다. 아사왕은 우상들을 제거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것이 나쁨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악으로 물들이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미 발견된 악조차도 말끔히 제거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악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악은 스스로를 변론하고 보호할 거짓을 우리의 생각에 심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하여 옳다고 간주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는 “나”의 판단만을 신뢰하려드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높은 장소가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높은 장소를 헐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쁜 의미의 “높은 장소”가 주님 앞에 있어야 할 진정한 인간성에 반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아사왕이 산당처리 문제를 소홀히 함으로 초래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선한 왕들도 이와 유사하게 의지력이 강하지 않아서 산당(높은 장소)을 보존하였고, 그 결과 백성들은 선한 왕이 죽은 후에 그곳에다 새로운 우상들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지속해 갔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자기 총명을 자랑하는 자만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상적 목적이 생겨서 주님에 대한 예배를 우리 삶의 외곽으로 서서히 밀어놓게 된다. 본문 후반부의 유다 왕국은 성전을 보수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 결국 성전 마당에까지 우상들이 침범하게 된다.

시리아왕은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시리아와 아시리아는 우리의 합리적 능력을 상징한다. 특히 시리아는 우리 마음의 자연적 평면에 있는 합리적 능력을 뜻한다. 우리의 이성은 진리 혹은 거짓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데 사용되며, 우리가 지지하는 쪽을 위해 작용을 한다. 우리의 이성은 선한 능력과 악한 능력 모두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추론능력이 선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주님과 이웃을 섬기겠다는 심정(heart)속의 바램(desire)이다. 시리아는 아사왕의 동맹국으로 활약했다, 아사왕은 시리아의 원조를 얻기 위해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포기했다. 그래서 아사왕은 잠깐 동안 그의 나라를 구했지만, 그 인과에 따른 재난이 후대에 닥쳐서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 이유가 아사왕은 주님을 신뢰하는 대신 시리아왕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역대기하 14장부터 16장을 참조) 아사왕이 시리아에 도움을 청한 것은 세상적인 것을 수단으로 하여 주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 하려는 것과 유사하다. 이것은 또한 학자들이 노아의 홍수에 관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홍수의 흔적을 추적하고 방주를 발견하려는 노력과 같다. 고난이 닥치자 하느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시리아의 왕에게 원조를

구한 아사왕이 성전의 금과 은을 포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어 우리의 영적인 시험을 이겨내고자 결심하며 주님과 말씀에 관한 내적 확실성을 실제로는 포기해 버리는 것을 뜻한다.

아사왕의 이러한 신뢰부족은 그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제 23절에서는 “왕은 나이가 많아지자, 다리를 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리란 우리의 외향적 지침(outward conduct)을 표현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신뢰함 대신 자연 혹은 인간을 신뢰하면, 우리는 주님의 법으로 규율하려는 대신 다른 것으로 움직여진다. 이러한 움직임이 영적 다리를 앓게 됨으로 묘사된다.

기본 상응 공부

시리아 = 자연적 평면에서 쓰이는 합리적 능력

발 = 외향적 지침 (outward conduct)

제 4반

우리는 의를 행하겠다는 의지가 세상적 추론에 교묘히 이끌리게 되는 상황에 대해 미리 알고 그러한 시험에 대비하도록 무장해야 한다. 엘리야가 가르멜 산에서 “야훼가 하느님이거든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거든 그를 따르라.”라고 했던 것을 되새겨 본다. 아사왕의 이야기는 이 선택의 기로에 대한 중요한 예증이 된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들은 하느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도 기억하자.

앞서 우리는 분단된 왕국이란 바렘(유다)과 생각(이스라엘)이 서로 협력하지 않는 상태의 삶을 묘사한다고 배웠다. 솔로몬 왕국으로 표현된 평화스럽고 행복한 상태란 우리의 심정이 영적 성장으로 바르게 향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이며 반역적인 시기도 많이 가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안에 있었던 악한 왕들로 표현된다. 그러나 선하게 되기를 늘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자주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한다.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의 통치기간은 자기 검증의 시기에 해당된다. 아사는 솔로몬의

증손자였다. 유다의 모든 왕들은 다윗의 계보였다. 이는 심정으로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의 통치자임을 인식함을 의미한다. 수도를 예루살렘에 둠은 우리가 주일 혹은 최소한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라도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 유다의 백성들은 큰 축제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그러나 예루살렘(교회)밖, 즉 세상의 삶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습관에 빠져 있었다. 이것이 높은 장소(high place)에 우상을 세우는 것이 뜻하는 것이다. 높은 장소(산당)란 자만심이나 자기 과신을 뜻한다. 우상들은 세상적 사람들이 인생의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목적들을 의미한다. 그러한 목적들에는 돈, 권력, 지위 쾌락 혹은 다양한 종류의 기술 등이 있다. 아사왕은 이러한 우상들은 제거했지만 “산당은 그대로 보존 되었다.” 이것은 우리 안의 자만심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의미한다. 스스로의 선한 면을 드러내어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은 쉽다. 마치 산당을 그대로 남겨둔 채 그 안의 우상만 치웠을 때 우상을 다시 세우는 일이 쉬운 것처럼 말이다. 아사왕의 아들은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손자는 악하여 결국 그 땅은 다시 우상 숭배로 타락해 버렸다.

아사왕의 통치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왕국은 백성들의 예루살렘 출입을 막기 위해 예루살렘 근처에 성읍을 지어서 유다 왕국을 위협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선한 의도에 자물쇠를 채우려고 논쟁을 벌이는 노력을 표현한다. 이러한 위기에 아사왕은 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구했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로 그 대가를 치렀다. 이러한 아사왕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신앙 보다는 기적에 기대고 그것의 이해를 “자연적인” 것에서 찾거나 교회를 섬기며 충실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이유를 어떤 상식적 추론으로 설명하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사왕이 포기한 보물들이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하느님의 말씀인 은(silver)과 내 심정 속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하는 금(gold)이었다. 시리아란 선과 진리에 관한 외적 지식들을 삶에 적용하려는 우리의 합리적 능력을 뜻한다. 이 능력이 친구 혹은 적도 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시리아는 친구로서 나타나지만, 그 원조의 목적은 그들의 이득을 위함이었지 우정 때문은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아사왕은 동맹자에 의해 더 약해졌고 시리아는 더 강해져서 점점 위협한 적으로

되는 상황으로 역사는 전개 되었다. 이것은 우리 안의 세상적인 논쟁들 역시 때로는 아주 쉽게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때가 많은 것을 표현한다.

노령의 아사왕이 “다리를 앓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 추론과 타협하여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은 충분히 신뢰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 삶의 지침이 곧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길에 서서 걸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들리며 긴장하고 불안하여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성경 전체를 통해 걷는 것(walking)이란 삶의 지침을 상징한다. 자신의 원리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가끔 우리에게 “마음을 넓게 써야 좋은 것 아니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 그럴 때 마다 우리는 “멸망으로의 길은 넓고 생명으로의 길은 좁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제 5반

산당의 상응과 주님 대신에 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했던 아사왕의 실수에 대한 의미를 중심으로 다룬다. 역대하 16장 7-10절과 역대하 15-17장까지도 읽어보자.

유다왕국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의지(will), 바램(desire), 애착(affections) 그리고 동기(motive) 등을 표현한다. 이스라엘 왕국은 지성, 이해함, 진리, 지식 또는 행동 등을 표현한다. 왕국이 분열된 후 이스라엘이 유다 보다 더 빨리 타락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성은 의지 보다 더 타락하기 쉬움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지속적이지 못하였고, 왕들은 모두 악했다. 반면, 유다는 다윗의 계보에 따르는 왕위를 유지했고 다섯 명의 왕들은 선했다. 유다의 백성들은 대부분 우상을 좋아했고 악했지만, 선한 왕들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우리가 선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지닐 때에 있게 되는 우리의 애착 적인 삶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대신 세상적인 것에서 비롯된 지식에 의존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태도 묘사한다. 유다의 경우 그 중심 원리 즉 왕은 오랫동안 주님을 신뢰하는 쪽에서 우세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해진 바램과 애착, 즉 그 땅의 백성들은

흔들리는 생각들에 유도되어 더욱 타락되어서 선한 왕들마저도 그들을 질서로 되돌려 놓지 못한 상황에 이른다.

분단된 왕국의 지도를 보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북쪽 국경 근처에 위치한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방어적 역할을 크게 했지만, 이스라엘이 적으로 된 상황에서의 예루살렘은 공격받기 쉬운 처지가 되었다. 본문의 라마란 사무엘 시대에 나오는 라마가 아니다. 여기서 라마는 “언덕(hill)”을 의미할 뿐이다. 가나안 땅에는 몇 개의 라마가 있었는데, 본문의 라마는 이스라엘과의 경계에서 예루살렘과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게바는 아사왕이 라마에서 가져온 재료로 지었는데, 경계선 동쪽 지역에 위치한다. 아사왕과 바아사왕 사이의 작은 충돌을 지도를 보면서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애착과 지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게 된다. 우리의 지성이 그릇된 길로 벗어나게 되더라도 우리의 애착들은 어떤 사상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아사왕과 바아사왕의 충돌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사상들의 테두리에 괴팍한 추론이라는 요새를 견고하게 지어 놓음으로서 의지의 움직임을 조절시켜 보려고 애쓰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다. 아사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인바 왕국의 초기 시대에 속하는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타락의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선한 의지의 힘으로 괴팍한 추론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같은 재료 즉 같은 사실과 논쟁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요새, 즉 주님께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요새를 짓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바 역시 “언덕”을 뜻한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관계에 따른 모든 상세함은 우리 속의 생각과 바램의 상호 작용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

아사는 솔로몬의 증손자로 선한 왕이었다. 제 11절에서는 “아사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야훼께서 보시기에 곧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그를 평가한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산당은 그대로 보존하였지만 아사는 일생동안 야훼께 한결같이 신실하였다.” 또, “왕은 전국에서 남창들을 소멸하고 그의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없애 버렸다.” 또한 “왕은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여신에게 바치는 음탕한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라고 한다. 아사가 보좌에 오르기 전의 유다 왕국은 두 왕, 르호보암과 아비얌이 있었다. 우리의 지적 부분이 주님에 대한 충절을 저버릴 때 또는 우리의 지성이 하느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음을 중단할 때에 우리의

심정에 나타나는 즉각적인 결과는 당연히 나쁠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선한 심정은 이를 인식하게 되므로, 악의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고 이를 위한 개혁도 진행된다. 이것이 바로 아사왕이다. 스웨덴북은 "소돔인들은 선용이 눈곱만치도 없으며 자아추구만을 사랑함이 극의 상태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설명한다.

스웨덴북의 저서 천국의 신비(Arcana coelestia) 제 2722항에서는 “그러나 산당(high places)은 제거되지 않았다(14절)”라는 구절에 대해, “고대 교회(Ancient Church)에서는 거룩한 예배가 산 또는 작은 숲에서 거행되어졌다. 산에서 거행된 이유는 산들은 예배의 천적인 것을 의미했고 작은 숲은 예배의 영적인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다른 다양한 표현적 형상들과 마찬가지로 그 의미는 점차 흐려져서 후대에는 산이나 숲들이 마치 거룩함 그 자체인 것처럼 예배하기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산당을 쌓고 나무로 형상을 만들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근본적으로 거룩했던 것들을 우상으로 변모시켰던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0-23절을 읽어 보자. 산당이란 좋은 면에서는 주님을 드높이는 것을 표현하지만, 나쁜 면에서는 자아를 드높이는 것을 표현한다. 분단된 왕국 시대 때 산당들은 전국에 퍼져 있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중요성과 총명이 우리의 일상적 삶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검토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산당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산당들을 남겨 두면, 우리는 인식하고 거절했던 옛 우상에서 또 다른 새로운 우상을 쉽게 세우게 된다.

영적인 의미에서 산당을 제거함의 실패는 아사의 이야기 후반부와 직접 연결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사왕은 그의 선한 의도를 죽기 전까지 지켰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대신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심각한 실수를 행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성곽을 둘러쳐 아사를 위협했을 때, 아사는 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구했다. 역대기하 16장 7절을 보면, 예언자 「하나니」가 주님을 신뢰하는 대신 시리아를 신뢰한 아사왕을 질책하고 그로 인해 아사왕이 몹시 화났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기 자만심으로 더러워진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리아는 좋은 의미에서는 자연적 수준에서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올바르게 추론함을 표현한다. 시리아에는 고대교회(Ancient Church)의 잔류가 있어왔음을 우리는 발람의 이야기나 동방박사(Magi)의 이야기에서 배웠다. 아사가 시리아에 의존하려 든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서

오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적 총명에 속하는 지식들에 의존하려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다. 시리아에 원조를 구하면서 아사는 “야훼의 전과 왕실 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거두어서” 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이는 외적인 어려움의 극복과 진보를 구하기 위해서 내적인 선과 진리를 희생시키는 상황을 말해준다. 유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에서 같이 영적 총명이라는 성벽이 없는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적들이 강해 질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자칫하면 보물을 하나씩 포기해 버리기 쉽다.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이 증명되는 진리 즉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리만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해준다고 단정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계시로서 오게 되는 영적인 보물들을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한다.

아사가 늙자 “다리에 병을 앓았다”고 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의존함에서 인간 총명이라는 번덕스러운 것을 신임하게 될 때 우리의 도덕적 인격마저도 하향길로 접어들어 감을 말한다. 발이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삶의 지침을 말하며 이 지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걷는다. 절름발이를 잠깐 멈추어 서서 치료받도록 주님이 몇 번이나 부르셨는지 상기해 보라. 우리가 진리를 테스트해 보는 식으로라도 인간적인 총명을 세우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우리는 술 취한 자의 걸음걸이 같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되고 만다. 주님은 의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이 길이니 그 안에서 걸으라”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사야 40장 말미를 보면,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 나리라. 날개 쳐 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411항 18번」: “그날이 오면, 너희는 더러운 손으로 만들어 놓고 위하던 은 우상, 금 우상을 저마다 내버릴 것이다...” (이사야 31:7); 이 말씀은 자기 총명에 빠져있는 자들이 신성한 것들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현명하다고 믿는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사는

이들로 배움으로 명예를 얻는 것조차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만 추구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를 볼 수 없으므로 거짓들을 잡아서는 그것들이 진리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삶의 지침들이나 사랑들을 선호하는 거짓들이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우상들”로 의미된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들이 자기 총명 속에서 비롯되었음이 “너희는 더러운 손으로 만들어 놓는”의 의미이다.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6435항 4번과 11번)」: “[4]예언서에는 산과 언덕에 관한 언급이 꽤 많다. 이 산과 언덕은 내적 의미로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선들을 의미한다... [11] 산과 언덕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선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대 교회(Ancient Church)에서는 하느님께 대한 예배가 산이나 언덕 위에서 행하였다. 그리고 후대의 히브리 국가도 산이나 언덕 위에 제단을 차려 놓았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언덕이 없는 지역일 경우는 높은 제단을 건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들은 산이나 언덕 자체가 거룩한 것인 양 여겨 버리고는 산이나 언덕이 의미하는 거룩한 것들에 관해서는 아예 생각지도 않게 되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어 버렸다. 그러한 이유로 이런 형식의 예배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인들에게 금하여졌다. 고대에 존재했던 이러한 표현(representative)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온산이 선택되어졌다. 이 시온산은 가장 높은 의미로는 주님의 신성한 사랑에서 나오는 신성한 선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주님의 왕국 안에 있는 신성한 천적 영역과 신성한 영적 영역을 표현하게 된다.”

질문 정리

- 1) 오늘 공부에 등장한 유다의 왕은 누구입니까?
- 2) 그는 선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 3) 그가 행한 일 중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 4) 그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 5) 이스라엘 왕은 아사왕을 이겨보려고 무엇을 했습니까?
- 6) 누구에게 아사왕은 도움을 청했습니까?
- 7) 아사왕은 무슨 선물을 시리아 왕에게 보냈습니까?

- 8) 노령 때에 아사왕은 무슨 병을 앓았습니까?
- 9) 오늘의 우리에게 우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 10) 산당(high places)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질문의 답

- 1) 아사(Asa) 2) 선왕 3) 우상을 파괴한 일 4) 산당을 없애지 않았음
- 5) 라마를 지었다 6) 시리아왕 벤하닷 7) 성전의 금과 은 8) 발병
- 9) 돈, 권력 등등 같은 것에 “예배함” 10) 자기 자신의 총명을 자랑함

21

시편에 관해서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시편 19편과도 연관 된다. 시편서의 역사와 성전 예배 때 시편의 사용에 관한 것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개인 생활에 있어서 시편의 활용 및 시편서의 영적 특성을 강조한다. 사무엘하 23장 1-2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다윗의 증언과 주님의 말씀을 꼭 읽어 두자.

성 서 본 문: 시편 1편, 사무엘하 23장 1-2절

1편: 1.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2.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3.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 철 따라 열매 맺으리. 4.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5.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 못하리라. 6.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사무엘하 23장: 1. 이것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야곱의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요,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귀여워하시는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세우신 영웅의 말이다. 2. 야훼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어 말씀하셨다. 당신의 말씀을 내 혀에 담아 주셨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꾸준히 찾고 있을 때에 행복하게 된다.
- * 우리가 무신론적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은 하향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시편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 받으며 대중적으로 읽혀지는 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단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시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시편들은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다윗이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1-2절에서 증언한다. 다윗은 왕이면서 음악가였다. 시편들은 노래로서 다윗에게 주어졌다. 그 이유는 음악은 감동을 주는 감정의 표현으로 심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편은 주님 쪽에서 우리 삶과 우리 쪽에서 주님이라는 쌍방 관계에서 갖게 되는 모든 감정이 적절하게 표현된 주님으로부터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느님에 관해 생각하게 될 때, 시편의 특정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시편 23편이 가장 사랑 받으며 알려진 이유는 역경에 처해 삶의 용기를 잃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때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사가 잘 되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 만족하면, 자신의 삶이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 시편들은 이러한 상태들을 깊이 탐사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안내와 교정에 따른 생각의 방향을 제시해 주며 그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되새기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에 맞도록 시편을 “짜깁기”하기도 한다. 또한 그들의 형편에 잘 융화되는 부분만을 읽고 위로 받으려하며 나머지 부분은 경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시편 1편은 끝없는 진정한 행복의 유일한 길은 주님의 법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 법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것이며, 주님의 법은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나 시련에 빠졌을 때나 변함없이 되새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제 1절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특별한 시험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는 하느님과 영적인

것들에 관해 진정한 믿음을 갖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러한 충고로부터 삶의 원리들을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만인이 이렇게 하는데...”라고 말하며 행동한다. 이것은 영적 죽음을 향한 첫 번째 단계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는 죄를 받아들이게 되어 결국에는 하느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마저 포기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슬피하는 자리에 동석한다. 4절에서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다”고 주님이 무신론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과정은 속되며 좁은 안목에 불과한 것이다.

제 1반

시작에 앞서 시편은 노래들로 다윗에 의해 쓰여 지도록 주님이 선택하심과 예루살렘의 성막과 성전에서 의 예배 때에 시편들이 불려짐 그리고 우리도 예배에서 시편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첫 구절을 통해 나무의 자람과 우리 영혼의 성장이 서로 같음을 언급한다. 우리의 생명나무가 자라야 할 강가는 말씀의 강이란 것도 언급한다.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는 여러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는 매우 다르다. 그들은 우리가 가끔 찬송으로 사용하는 시편을 히브리어의 노래로 불렀다.

다윗은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궤를 그곳으로 옮겨왔다. 또한 그는 새로운 성막을 지어 궤를 그곳에 보관했다. 그는 많은 시편들을 썼고, 그것들은 예배에서 찬송으로 불려졌다. 이는 다윗이 왕이면서 음악가로서 하프연주를 했기 때문이다. 그들 예배에 있어서 음악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었으며, 레위지파의 어떤 가문은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전문으로 하도록 훈련되었다.

사무엘상 23장 1-2절에 있는 다윗의 말을 읽어 보면, 주님이 다윗의 마음에 말을 놓아주셨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주님은 시편 뿐만 아니라 말씀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제 1절은 우리에게 행복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 알려준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 우리는 주님이 시편 1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문의 이해를 위해 다음의 요점과 질문을 기억하자.

- * 시편의 많은 부분은 다윗에 의해 쓰여 졌다.
- * 시편들을 다윗 스스로 작성했는가?
- * 주님은 시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하신다.
- * 주님은 무엇이 복 있는 자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 * 주님은 복 있는 자를 무엇에 비유하시는가?
- * 주님은 사악한 자를 무엇에 비유하시는가?
- * 주님은 마지막 절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 (ungodly)의 길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시는가?
- * 주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의를 행할 때는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못될 때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없음을 말씀하신다.

제 2반

말씀에 있어서 시편의 위치, 시편의 기원과 히브리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것, 시편의 일반적 특징과 목적 등을 간략히 소개 한다. 또한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삶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토의해 보자.

본장에서는 말씀의 부분이면서 그 자체로 볼 때는 역사적이지도 예언적이지도 않은 말씀에 대해서 공부한다. 내적 의미로는 구약의 역사적 책이 열왕기하에서 끝나며, 구약의 예언서는 이사야서에서 시작된다. 열왕기하와 이사야서 사이에는 열 개의 책이 놓여 있는데, 스웨덴본에 따르면 그 중 한 책만이 내적 의미를 지닌다. 나머지 아홉 권은 룻기서와 같이 시대의 생활상을 표현하고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그것들은 새교회를 위한 말씀(Word for the New Church)에는 속하지 않는다.

시편서는 다윗서라고도 부른다. 이는 많은 시편이 다윗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이다. 히브리 원어로는 시편이라는 시가(詩歌)들이지만, 영어에서는 이러한 시가들이 운문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노래로 불릴 수 있으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노래로 부르거나 하면 영창 형태로 부를 수 있다. 시편은 유대인의 예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시편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다양한 악기와 잘 훈련된 성가대에 의해 찬송으로 불렸다. 시편 150편에서는 연주할 악기의 종류가 언급되고 있다.

시편은 주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 가져야 할 혹은 갖게 되는 감정이나 생각 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사랑했고, 그 안에서 도움을 발견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기 원하지만, 우리의 감정 표현 중 많은 것들이 이기적이며 잘못된 것임도 알고 있다. 또한 표현된 우리의 감정들 중에는 우리가 의미하지도 않는 것도 허다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을 읽고 노래로 부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양식에 따라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편 제 1편은 우리에게 양식의 기본을 주고 있다. 우리는 “복 있어라(blessed)”는 “행복함(happy)”을 의미함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간혹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여긴 것들이 실제로는 반대현상을 초래하는 것을 본다. 주님만이 진정한 것을 알고 계시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경청해야 한다.

마지막 두 구절은 우리가 주님에 관해 배우려 하지 않거나 그분이 옳다고 한 일련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행복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부해 온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자.

- * 다윗은 누구였는가?
- * 우리는 그가 시편을 작성하지 않았음을 어떻게 아는가?
- * 시편이란 무엇인가?
- * 시편서에는 몇 개의 시들이 있는가?
- * 주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 * 두 번째 것은 무엇인가?
- * 세 번째 것은 무엇인가?
- * 우리는 그 대신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 * 우리가 주님의 충고를 받는다면, 우리는 무엇 같다고 하셨는가?

* 사악한 자는 무엇 같다고 말씀하셨는가?

제 3반

일반적 개론으로 시편서를 소개하고, 시편 제 1편이 우리 행복의 진정함을 판명케 하는 삶의 기초가 됨을 언급한다. 그리고 3절과 4의 상응을 대조하고,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한다.

부활 후 주님은 일부 제자들의 이해성을 열어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셨고, 그들을 당황케 한 많은 일들을 설명해 주셨음을 누가복음 24장을 통해 알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이해할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씀도 있다. 주님은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셨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의 첫 5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이다.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를 전기 예언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서까지를 후기 예언서라고 부른다.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애가서와 다니엘서를 그들의 정경(canon)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또한 유대인들은 위의 두 권과 룻기서 그리고 열왕기하서와 이사야서 사이의 열 책들은 정경과 똑같은 영감(inspiration)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아서 게투빔(Kethubim) 또는 거룩한 저술(Sacred Writings)라고 하여 따로 모아 놓았다.

새 교회에서 정경(canon), 즉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책들은 유대인의 정경(canon)에 시편서와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성경 중에서는 네 복음서와 요한 계시록을 더한 것이다. 스웨덴봄에 의하면 이러한 책들은 주님의 생애(Lord's Life)에 관련된 내적 의미를 지닌 말씀들로서 그 연계성이 분명하다고 한다. 상응(correspondence)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책들이 지니는 내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다니엘서와 예레미야 애가도 공부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특별히 주님이 시편서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이라고 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시편은 많이 읽히며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심정상태에 대한 표현과 필요성을 시편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각기 다른 심정상태들에 주님이 뜻하실 수 있는 것 혹은 뜻하시려는 것들에 관한 서술이 간단명료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만족한 상태에 있거나 자기 자랏에 빠져 있을 때는 시편을 읽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의 약함을 인식하여 주님의 필요성을 절감할 때는 시편을 자주 읽게 된다.

시편 제 1편에서 말하는 “복 있음”이란 행복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세상적 충고에 귀 기울려 주님을 도외시하는 이들에 합세하거나 스스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그와 반대된 주장을 가진 이들을 무시하면 행복해 질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삶의 길잡이로 삼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되새길 때 행복해 질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의 심정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으며, 행복이 따르는 이타적 사랑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절은 거듭남을 완성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다. 나무는 일반적 원리들(general principle)을 뜻하고, 강은 우리의 마음 안으로 흘러오는 주님의 진리를 뜻한다. 주님의 진리만이 우리의 원리들을 건전하고 강건하게 하며, 우리 생각을 온전하고 분별력 있게 한다. 주님께 순종함을 삶의 기초로 삼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꾸준히 공급받아 자양분을 얻는 사람은 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나무의 잎사귀란 이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생각들을 의미한다. 진정한 생각들은 주님의 진리에 의거하므로 시들지 않으며 결코 버려지거나 바뀌질 수도 없다. 나무의 열매란 유용한 삶을 뜻하며, 그 삶은 하느님과 인간을 섬기는 삶이다.

4절의 사악한 자와 같은 겨란 주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고 무가치한 생각을 뜻한다. 인간의 총명에 의존한 사람들은 그들의 사상이 변해야 하는 필요성에 항상 직면한다.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이 세대를 위해 진리인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진리가 안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는 있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것은 하느님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그린 것이며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사고에 뿌리가 없는 즉 바람이 불면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린다. 본문은 어느 시대와 어느 환경에서나 적용될 불변하는

진리의 시냇물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는 이사야 40장 7-8절의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 가는 야훼의 입김에. 백성이란 실로 풀과 같은 존재이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라는 구절을 기억해야 한다.

기본 상응 공부

강 = 주님께에서 나와 흐르는 진리

잎 = 원리들이 자란 생각들

열매 = 유용한 일들

겨 = 무가치한 생각들

제 4반

제 1-3절까지 경고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이 경고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의지에 가장 잘 도달되도록 쉬운 문체로 주어진 것도 기억해야 한다.

음악은 감정 표현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말이나 어떤 형식 없이도
노래를 할 수 있다. 그 예로 우리는 콧노래나 휘파람을 부는 것으로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다. 그러나 우리가 언어로 노래하면, 그것은 말 보다 더 오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된다. 이는 감정이 음악에 의하여 더 잘 전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편을 단순히
읽는 것 보다 노래 형식을 취함이 더 나으며, 음악이 주는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영창하는 법을 배우면 더욱 효과적이다. 시편은 노래로 부르도록 의도 되었다. 시편은
음악가이기도 했던 다윗을 통해 써졌기 때문이다. 시편은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에
대한 규정으로, 레위지파의 가문은 시편들을 노래 부르도록 훈련되어 악기를 켜며
노래했다. 이는 역대기상 15장 16-22절을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유언을 통해 시편이 그의 창작이 아님을 밝혔다. 시편의 말들은
주님께 의해서 다윗의 입에 놓여진 것이었다. 열왕기하서와 이사야서 사이에 있는
열 책 중 시편만이 내적 의미를 지닌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위의 열 책과 룯기,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다니엘서는 따로 분류했다, 그들은 그 책들을 게투빔(Kethubim), 혹은 신성시 할 만 한 저술,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보다 영감이 적은 책들로 간주했다. 새교회(New Church)에 대한 성경속의 “정경(canon)”은 히브리인들의 정경에 시편,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다니엘서가 포함된다. 새 교회의 경우 이 책이 정경에 속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하는 구분은 내적 의미를 포함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시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친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예언서와 더불어 시편은 그분에 대하여 쓰여진 것이라고 하신다. 시편의 일부는 글자에서조차 주님의 생애를 예언한다. 이에 대한 예증으로 시편 22편 18절을 읽어보자.

시편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본성의 약함을 깨닫게 되는 과정, 우리가 모든 창조물과 삶의 경험들로부터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게 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삶에 대한 안내와 힘을 주님으로부터 꾸준히 구해야 함 등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다.

시편 제 1편은 우리 삶의 모형이다. 우리가 축복 받고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법을 기쁘게 여기며 밤낮으로 그것을 되새겨야 한다. 이럴 때만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번성케 해 주신다. 하느님을 공경하는 자는 열매가 풍성한 나무와 같고 강건하여서 어떤 폭풍우에도 잘 견디어 낸다. 무신론자는 “바람에 날리우는 겨와도 같다”는 주님의 가르침은 틀림이 없다.

시편은 “악을 행하기를 중단하고 의를 행하기를 배우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피해야 할 것들을 말하면서 시작된다. 특별히 시편 1편 1절의 세 가지 금기 사항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출발점과 같이 중요한 것들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절에 있는 세가지 자세 즉 걷고, 서고 그리고 앉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걸다가 아주 매력적인 외모를 지녔으나 세상적이며 아주 이기적이어서 종교나 선한 원리들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마주 쳤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우리가 이러한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해가 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가 함께 하자는 요청을 거절치 못한다면, 더욱이 그것을 엄중하게 거절하거나 다른 길로 가야 함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치 않고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하자.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그와 함께 그의 집에 도달하게 되고 그는 우리를 집안으로 초대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즉각 헤어지는 대신 그와 더불어 얘기하면서 대문간에 우물쭈물 하며 서 있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는 그의 집에 들어가

서 그와 함께 앓는다. 이제 그는 우리를 자기의 동료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원리에 반대된 생각이나 암시를 진정한 원리로 대체시켜 가는 과정을 그린다. 이를 통해 시편 1편의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 새교회인인 잔 바이지로우(John Bigelow, 1817 - 1911)는 「저항은 초반에(Resist Beginning)」라는 그의 저서에서, “처음에는 참아주다가, 그 다음에는 불쌍하다고 동정하더니, 그 다음에는 내 식구같이 얼씬 안아준다”라고 표현한다. 이 책에는 우리 마음에 간직할 만한 유용한 구절이 많다. 우리의 가장 공통된 경향 중 하나는 우리가 금지된 길로 들어섰다가도 우리의 힘으로 쉽게 그 길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되새기기 위해서 시편을 공부해야 한다. 주님 대신 자아를 신뢰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

제 5반

시편이 대중적이게 된 이유와 그 요소를 언급한다. 또 선과 악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는 것에 따라 있게 되는 각기 다른 결말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설명하고 있음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타협하고 싶은 시험에 계속 부딪힌다. 따라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시편의 한 두 편 혹은 한 두 절씩 뽑아 읽어서는 안 되며, 전 시편을 읽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응용하도록 해야 한다.

시편서를 공부하기에 앞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먼저 읽어 두자. 유대인들은 시편이 율법서나 예언서와 같은 영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편에 대해 주님은 이것을 주님에 대해서 쓰인 것이라고 강조 하셨고, 스웨덴북은 시편은 주님의 생애를 다루는 아주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시편 22편과 같은 부분에서는 문자적으로 주님의 생애를 생생히 보여주신 것이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새교회의 정경(New Church “canon”)의 여부는 신구약의 책들 중 그 책의 내적 의미의 포함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교리적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믿음을 흔들려 놓아 혼란을 준 경우도 있으며 논란의 쟁점이 된 경우도 있다.

정경의 절대적 신성함에 대한 유대인들의 입장은 스웨덴북 시대의 기독교인들 보다 더 민감한 부분이었다. 그들은 신성한 영감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확인 되지 않은

책들을 케투빔(Kethubim) 또는 거룩한 저술 (Sacred Writing)이라하고 따로 분류시켜서 일종의 문집 (collection)으로 엮었다. 따라서 그들이 율법과 예언서라고 말할 때는 이 문집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 또한 시편에 어떤 신성한 영감이 실재하고 있음을 다윗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시편을 성전 예배시에도 자주 사용하였지만 시편의 절대적 신성함에 대하여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들은 시편서를 우리의 찬송가 정도로 여긴 것 같다.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려는 심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당연히 있었다. 시편 137편을 보면, 그들의 노래가 해외까지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역대상 15장 16-22절을 보면, 레위인 가문의 일부는 성악과 기악을 위해 특별히 훈련되었고 성막이나 성전 예배 때에 그것들이 동원되었음도 알 수 있다. 시편 150편에서는 시편에 따른 악기들이 소개된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히브리 이름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악기들도 발견된다. 단어 “셀라(Selah)” 는 시편의 여러 부분에 나오는데, 이는 음악적 기호법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시편을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영창을 위한 규율은 실제로 아주 단순하며, 영창식의 노래만이 말씀의 배열을 바꾸지 않고 부를 수 있다. 즉, 하느님의 질서와 그 연속이 파괴되지 않는 노래 방법인 것이다.

시편이 다른 말씀의 책과 달리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편은 평범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완전한 표현은 주님에 의하여 우리의 입술 위에 놓이기도 한다. 둘째, 시편은 진실한 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내적 경험 전체를 망라하고 있다. 셋째, 시편은 우리가 자연 가운데 있는 주님의 손과 인생의 매 사건 안에 있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데 도움을 준다. 이와 더불어, 시편은 우리가 주님을 대함에 있어서 마치 친한 친구를 대하는 것 같은 친근감을 준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시편을 읽거나 노래 부를 때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모든 시편을 하나하나의 기도문으로 여겨야 한다.

제 1편을 살펴보자. 이 내용이 시편의 제 일편이 된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것 즉 선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선택이란 하느님을 믿고 순종함 그리고 하느님과 말씀을 부정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 고유의 자유선택권이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믿게 하거나 믿지 못하게 할 수 없다. 비록 우리가 어떤 선택이든 한 쪽을 선택한 후에는 우리의 선택을 뒷받침 해줄 것 같은 많은 자료를 찾는 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느님을 공경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란 간단히 말해서 서로 반대 방향을 보는 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선택 결과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신다. 즉, 하느님을 공경하는 자는 행복하며 그렇지 않은 자는 불행하다는 것이다.

“악을 꾸미는 자리”는 “야훼께서 주신 법”과 직접적으로 대치된다. 이는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 문제점의 시발점에 관한 것이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의 법과 세상적인 추론을 타협시키려고 하는 시험은 꾸준히 우리에게 붙어 다닌다. 시편은 우리가 악을 꾸미는 자리에 앉도록 스스로를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죄인들의 길을 걷게 되며 마침내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려 못쓰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스웨덴북은 계시록 설명 687-6항에서 이러한 단계들에 관한 윤곽을 밝히고 있다.

넷가에 심어진 열매가 풍성한 나무로 그려진 하느님을 공경하는 자는 에덴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연상케 한다. 이 나무는 열매가 죽어 있는 다른 나무와 대치되고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수 강가에 있던 생명나무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2절은 스웨덴북의 “생활의 법칙”에 관한 첫 번째 즉 “하느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라”를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 보도록 한다. 마지막 구절인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보살피신다”는 전 성경책에 대한 열쇠에 해당된다. 시편 전체에 흐르는 영적인 주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선택에 대한 것으로, ‘하느님이나 아니면 자신이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선택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다. 이는 주님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와 대치되는 상황의 양면을 자주 볼 필요가 있음도 아시기 때문이다. 어두운 쪽을 향해 눈길을 돌리거나 악에 대한 저주를 말씀 밖에서 찾아내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법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고 악을 꾸미는 곳으로 향한다. 주님은 말씀을 쓰신 분이며, 우리가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구절만 반복해서 읽지 말아야 하며, 모든 시편을 순서대로 읽고 묵상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687-6항」: “이러한 표현들 (시편 1:1) 즉 걷는 것(to walk), 서는 것 (to stand), 앉는 것 (to sit)이라는 표현들은 서로 연속되는 동작으로 쓰인 것이다. 「걷는 것」이란 의도(intention)에서부터 오는 생각(thought)의 삶과 관련이 있고, 「서는 것」이란 의지(will)로부터 오는 의도의 삶과 관련이 있으며, 그리고 「앉는 것」이란 삶 그 자체인 의지의 삶과 관련이 있다. 「걷는 것」을 내포하는 「조언(counsel)」은 생각과 관계가 있고, 「길(way)」을 내포하는 「서는 것(standing)」은 의도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 것 (to sit in a seat)」은 인간 삶의 근원(the being [esse] of man's life)인 의지에 관계된다.”

질문 정리

- 1) 왕국이 분단되기 전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인가?
- 2) 다윗의 특별한 재능은 무엇인가?
- 3) 다윗은 그가 쓴 것들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4) 다윗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쓰인 책은 무엇인가?
- 5) 시편이란 무엇인가?
- 6) 유대인들은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 7) 주님은 시편에 대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우리는 시편 1편을 기억하는가?
- 9) “복된 자”란 무엇을 뜻하는가?
- 10) 행복해지고자 하면, 금해야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 11)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2) 선한 사람은 무엇에 비유되는가?

- 13) 악한 자는 무엇에 비유되는가?
- 14) 주님은 시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 15)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는가?

질문의 답

- 1) 다윗 2) 음악과 시 3)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4) 시편 5) 노래
- 6) 찬송가(hymns) 7) 시편은 주님께 관해 쓰여 있다고... 8) “복되어라...” 9) “행복한 자” 10)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11) “주님이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12) 나무(tree) 13) 겨(chaff) 14)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필요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심
- 15)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하면, 주님이 주신 법을 낙으로 삼고 그것을 밤낮으로 되새겨야 한다.

22

이사야를 부르심

머리말

본과에서는 성경의 예언서를 공부하게 된다. 따라서 대 예언서들의 역사적 개요를 간략하게 언급한다.

이사야는 아모쓰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그는 우찌야 통치 13년 또는 서기 전 780년쯤에 태어났으며, 예언자로서 그의 활동기간은 약 60년간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는 아모쓰, 호세아, 요엘 그리고 미가(소 예언서 부분)와 동시대에 존재한다. 이사야서는 크게 3부분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5장까지의 예언들이다. 두 번째는 36장에서 39장까지의 히즈키야 왕의 역사적 전말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로 분류된다.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이다. 그는 아나돏(Anathoth)이라는 베냐민 지파 영토에서 태어났으며 사제 중의 한사람이다. 그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4마일 정도 떨어진 북쪽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다른 예언서와 달리 이 책은 예레미야라는 개인에 관한 언급이 많다. 그는 젊은 시절에 고향에서 살았으며 예언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로 인해 혹독한 시달림을 겪었다. 그가 처음 모습을 나타낸 때는 이사야 시대에서 약 130년 후였다. 그는 하느님이 내린 직분을 그의 고향땅에서 약 41년간 수행했고, 그 후는 이집트에서 예언했다.

에제키엘은 예루살렘이 붕괴되기 약 11년 전 즉 서기 전 599년에 여호야김과 그의 시종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들은 유프라테스강 줄기의 하나인 「그발」강가에 서 식민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는 「델아브」에 집이 있었고 결혼도 했었다. 그는 타향 생활 15년째 되던 해(B.C 593)에 예언하기 시작했으며, 예루살렘 붕괴 후 16년

동안 예언직분을 수행했다. 그는 타향살이 동안 줄곧 백성들에게 존경 받았고, 많은 장로들 역시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는 타향생활 중에 자연사했다, 그의 무덤은 바그다드에서 좀 떨어진 「케펠(Kefel)」에 위치했고, 수많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방문했다. 그는 다니엘과 엇비슷한 시대의 인물이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 왕족의 일원으로 여호야김왕의 집권 3년째 되던 해 (604 B.C.)에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 바빌론으로 잡혀 갔다. 그는 세상적 부귀를 누린 유일한 히브리 예언자이기도 했다.

성서 본문: 이사야 6장

6장: 1. 우찌야왕이 죽던 해에 나는 야훼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옷자락은 성소를 덮고 있었다. 2. 날개가 여섯씩 달린 스랍들이 그를 모시고 있었는데, 날개 들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들로는 발을 가리우고 나머지 둘로 훨훨 날아 다녔다. 3.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4. 그 외침으로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의 연기가 자욱하였다. 5.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뵈다니.....”

6.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돌을 불집게로 집어 가지고 날아 와서 7.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너의 입술에 이것이 닿았으니 너의 악은 가시고 너의 죄는 사라졌다.”

8. 그 때 주의 음성이 들려 왔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하고 내가 여쭙었더니 9. 주께서 이르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아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말아라.” 10.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뜨지 못하게 하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와서 성해지면 어찌 하겠느냐?”

11. 나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하고 여쭙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도시들은 헐려 주민이 없고 집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고 농토는 짓밟혀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 12. 야훼께서 사람을 멀리 쫓아 내시고 나면 이 곳엔 버려진 땅이 많으리라. 13. 주민의 십분의 일이 그 땅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들마저 상수리나무, 참나무가 찍히듯이 쓰러지리라. 이렇듯 찍혀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인데 그 그루터기가 곧 거룩한 씨다.”

교리 요점

* 말씀으로부터 순수한 진리를 얻으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을 기꺼이 섬기려는 강한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가정 예배를 부모에게

이사야서에서 시작되어 말라기서에 이르는 성경의 책은 총 17권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를 예언서라 부른다. 예언서는 크게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로 분류된다. 크다 혹은 작다 즉 대 혹은 소라는 분류는 책의 부피에 의한 것이며, 내용의 비중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은 대 예언서에 해당된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는 책도 썼다.

이사야는 네 왕의 통치기간 중에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다. 히즈키야왕은 네 왕 중에 으뜸이었다. 예레미야 역시 유다에서 예언했지만, 그는 이사야 후기 시대에 해당된다. 그는 유다왕국이 붕괴될 때에도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잡혀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늙자 백성들은 그를 억지로 이집트로 끌고 갔다. 그는 그곳에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을 썼다.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끌려간 후부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 즉, 그들은 타향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이사야서는 친숙하면서도 아름다운 구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주님의 강림에 관한 예언을 포함한다. 복음서들을 보면, 이사야서를 자주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주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부분을 살펴보자. 예언자들의 말은 사람의 사건이 아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 일 뿐이다. 본문은 한

사람이 진실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특질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 중 첫째는 주님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표현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둘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해야 하는 것이다. 자만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다. 셋째는 기꺼이 주님을 섬기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삶을 통해 늘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며 또한 늘 준비가 되어있어 기회가 주어질 때 즉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한 것처럼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제단에서 가져온 뜨거운 돌(living coal)이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은 주님의 이타적 사랑이 우리 삶에 와 닿는 것을 묘사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많은 잘못을 행하고 그로 인해 불행해졌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가 있게 된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에게 진정으로 쓸모 있는 인간이 된다.

예언자들의 선교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 시대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그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경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선한 이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보호와 도움을 보증시켜서 행복이 있을 것임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하느님의 섭리 하에 예언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와 전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보내지게 된 것이다. 주님은 예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듣기만 할 뿐 깨닫지 못하는 자 혹은 보기만 할 뿐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 1반

이사야의 환상을 중심으로 다루고, 예언자들이 선교의 무엇에 중점 하였는지도 살펴본다. 이사야의 환상과 더불어 주님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확증 했을 때 그것을 주님이 쓰시도록 용단을 내리는 이사야의 결단력과 겸손함도 언급한다.

본문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다음의 요점과 질문의 답을 기억하자.

- * 예언자란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 * 주님은 주님을 대변하는 예언자들은 항상 보내셨다.
- *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일들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변하지 않으면 있게 될 일에 대해서도 말했다. 또한 의를 행하는 자에게 어떤 행복이 있게 될 것인지 말해 주었다.
- * 성서의 열여섯 권을 예언서라고 부른다.
- * 그 중 네 권은 내용이 많으며 나머지 열두 권은 내용이 적다.
- *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도 썼다.
- * 대 예언서에 속하는 네 권의 책 이름은 무엇인가?
- * 이사야가 환상에서 처음 본 것은 무엇인가?
- * 주님의 보좌 위에 있는 스랍(seraphim)의 형상은 어떠한가?
- * 이사야는 스스로가 왜 쓸모없다고 느꼈는가?
- * 스랍은 이사야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주님은 그분 앞에 제단을 쌓은 예언자 엘리야와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에게 그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의 하느님이 진정한 하느님이심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는 일부 예언자들을 성경이 기록되는데 사용하셨다. 예언자들은 그들의 인간적 재능으로 성경의 책들을 구상하지 않았다. 주님은 받아 써야 할 말씀들을 그들에게 직접 알려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예언서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본문은 이사야가 예언자로 주님의 부름을 받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사야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국에서 예언했듯이 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내지지 않았다. 이사야는 유다의 네 왕의 통치기간 동안 예언했다.

제 2반

네 개의 대 예언서들의 역사적 연대와 이사야의 환상에 대한 의미를 언급한다. 성경 지도를 통해 성경의 나라들 즉 가나안,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고 바빌론의 위치를 확인해 보자.

본문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 * 이사야는 어느 왕의 통치시대에 살았는가?
- * 이사야는 환상 중에 누구를 보았는가?
- * 그는 주님의 보좌 위에 있는 무엇을 보았는가?
- * 왜 이사야는 벌벌 떨었는가?
- * 그의 입술은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은 오래 전부터 그랬듯이 성서의 구약만을 사용한다. 구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된다: 율법서와 예언서 그리고 신성시되는 책들이다. 율법서란 모세의 책이라고도 하며 구약의 첫 다섯 권을 뜻한다.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Former Prophets)와 후기 예언서(Latter Prophets)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기 예언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역사서로 간주하는 책들로서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들이다. 이 책들은 후기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예언자들을 통하여 쓰였다. 후기 예언서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언서라고 여기는 책들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해당된다.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애가와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분류하지 않고 거룩한 책(Sacred Writings) 또는 케투빔(Kethubim)이라 불리는 항목에 열 한 권의 다른 책들과 함께 분류하였다. 따라서 이 책들은 율법이나 예언서와 같은 영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새교회에서는 히브리 정경(canon)을 인정하며 더불어 시편서,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다니엘서를 추가한다.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는 예언자의 이름에 따라 불려진다. 대 예언서라는 단어에서 대(Major)는 내용이 많음을 의미하며, 소 예언서는 그에 비해 내용이 적어서 소(Minor)라고 말한다. 따라서 모든 예언서는 동등하게 중요하다. 대 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서가 해당된다.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이 포로가 되기 전 마지막 다섯 왕 시대에 예언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후에는 이집트에서 예언했고, 그곳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썼다.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유다 백성의 포로들 틈에 있었다. 에제키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예언했으며, 그곳 「그밭」강가 근처에서 살았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예언했다. 출애굽기 30장 20절과 33장 20절을 읽어 보자. 이사야는 자신과 모든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

고, 자신이 환상까지 보아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단의 불이란 주님으로부터 오는 순수한 이타적 사랑을 의미한다. 이사야의 입술은 하느님의 사랑이 접촉되면서 주님의 말씀들을 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입술로 된 것이다. 이사야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느낀 순간은 바로 주님을 섬길 준비가 완료된 순간이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로 인해 겪게 될 어려운 시련 때문에 머뭇거릴 때가 많다. 이사야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죄에 대해 그들이 싫어할 많은 것들을 말하도록 불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예언자의 직분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주신 메시지가 이웃들에게 정말 값어치 있는 것임을 확신한다면 이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사야의 용기,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 3판

영감의 상응에 대해 자세히 공부한다. 상응에 따라 제시되는 원리들을 토론해 보자. 겸손함과 자발성은 주님의 부르심을 섬김으로 살아내는 필수요건이다.

예언서들은 역사적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대 예언서 가운데 첫 두 권은 거룩한 땅에서 예언되었고,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왕국이 점령된 후 이집트에서 예언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권은 거룩한 땅 밖이 아닌 포로 생활지에서 예언되었다. 히브리인들은 예레미야 애가와 다니엘서를 영감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그 책의 예언들이 거룩한 땅 내에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에제키엘서는 영감 있는 책으로 인정했다. 그 이유는 에제키엘이 자주, “예루살렘에 내 영이 옮겨져서”라고 말했고, 예언의 대부분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환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의 말기에 예언했다. 그들의 예언 내용들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나라의 숙명적 파멸을 예언했으므로

대중적 인기를 누릴 수 없었고 심지어 그들 모두 심한 박해까지 당했다. 반면, 다니엘과 에제키엘은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존경 받고 권세도 누렸다. 에제키엘은 포로들 중에 존경 받았으므로, 사람들은 언제나 그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의 환상도 기쁘게 받아들였다. 다니엘은 바빌론 왕의 특별자문이 되도록 훈련받은 사람 중의 하나로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 또한 그는 주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능력, 지혜롭게 자문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 때문에 대대로 왕들의 총애를 받았다.

이사야서는 성서에서 긴 책 중 하나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도 많다. 열왕기서의 히즈키야왕과 연결지어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이사야서가 두드러지게 부각될 때가 많다. 이 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와 사적 조사에 따르면, 이사야서의 27장은 이사야가 죽은 후 소수의 저자들에 의해 삽입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약성서의 증거들은 27장의 저자가 이사야임을 지지한다. 말씀의 저자가 주님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을 쓴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성경이 단지 인간의 작품이라고 가정하는 많은 무신론적 성경 연구가의 학설들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주님을 대변하게 될 사람이 지녀야 할 요소들을 문자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명백히 보여준다. 그 중에서 첫째가 바로 주님을 “뵙는” 것이다. 보좌위에 계신 주님을 본 이사야의 환상이란 요한 계시록 1장의 요한의 환상과 같이 주님이 진리이고 그분이 통치하심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 날개가 달린 스랍”이란 하느님의 진리의 힘을, “얼굴을 가리우고”란 내적 인격을 보호하시는 힘을 뜻한다. 그리고 “발을 가리우고”란 행동을, “훨훨 날아 다닌다”란 우리의 생각이 물질적 세계를 초월하게 됨을 의미한다.

환상에 대한 이사야의 첫 반응은 자신의 무가치함으로 두려워 떤 것이다. 이러한 반응 또한 진정한 예언자를 위한 요소이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라고 한다. 스랍이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댄 제단의 뜨거운 돌은 하느님의 사랑 즉 순수하며 이타적인 사랑이 점화되는 순간을 의미하며, 이때서야 비로소 무가치했던 심정이 깨끗해지며 입술이 진리를 말할 수 있다. 이 후에 그는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주님의 일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부름을 들은

사람이 필요함을 이해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과 곤경이 뒤따른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좋은 백성이 되고자 하면, 우리는 이사야가 그랬듯이 각자의 부름에 기꺼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해야 한다.

본문의 후반부는 이사야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받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자신감으로 가득하여 그들의 귀를 틀어막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메시지를 경청하고 심정으로 그것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가 재건되기 위한 씨앗으로서 봉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교훈이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경청하지 않는 자만심으로 가득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때때로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새 교회의 진리를 이웃에 전달할 기회가 생기게 됨으로 격려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귀를 닫고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듣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때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적은 수일 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진리들을 환영하는 이웃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영적 성장에 힘쓰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진리를 전하는 데 힘을 씀으로 하늘과 땅위에서 주님의 왕국이 보존되며 번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보좌 = 심판

스랍(Seraphim or Cherubim) = 보호하시는 하느님의 섭리

얼굴 = 내면의 인격

제 4반

이사야의 환상에 있던 몇 단계를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는데 중점을 둔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에는 많은 역경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삶을 통해 기독교적 삶을 포기하게 되는 시험과 맞서는 용기를 얻어야 할 것이다 .

예언서 열일곱 권이 성경에 배열된 순서는 역사적 연대와 꼭 맞지 않는다. 몇몇 예언서들은 유다왕국과 이스라엘왕국이 몰락된 후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열왕기서의 연대순을 따른다. 그 중 요나서는 시대적으로 가장 이른 예언서로 추측된다. 예언서는 각기 다른 때와 장소를 가지며, 그 말씀들은 당대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원문의 특성이나 성경의 글자에 나타나는 역사적 암시들을 이용하여 역사적 배열을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학자들의 연구는 철저한 인간 중심주의에 기초한다. 우리가 그들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꽤 흥미로운 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신앙을 배제한 인간의 논리들일 뿐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서의 가치는 예언자의 성품 또는 시대와 백성에 대한 결과들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 가하는 것이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예언서로부터 배우는 것은 크게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는 우리의 심정상태 혹은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다른 하나는 주님이 스웨덴북을 통해 새 시대에 주신 내적 의미를 찾아내려는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 예언서는 간단한 교훈을 담는 부분과 글자적으로 볼 때 어두운 면을 폭로하는 (dark sayings)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할 양식(food)이며, 모든 시대와 모든 이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주님은 대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가르치고 보여주려고 하신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가 삶의 길가에 놓인 웅덩이를 피하고 행복으로 인도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배려하신다. 주님은 올바른 길을 찾는 이들을 도우시는데 결코 소홀 하시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예언자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울 수 없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것이다.

대 예언서 즉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말기에 속한다. 첫 두 권은 왕국이 몰락하기 전에 예언된 것이다. 예레미야는 왕국 몰락 후에 이집트에서 예레미야 애가도 썼다. 에제키엘서와 다니엘서는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왕국이 몰락된 후 포로 생활 지역에서 예언된 것이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왕국의 파멸을 예언하여 심한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게 존경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언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되리라 생각된다. 예언자들이란 곧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들로서,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언자들은 곧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희망을 상징하게 된다. 이것을 상응으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암담하고 극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련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의미이다.

본문은 주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대목으로서,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진정한 교훈이 담겨 있다. 이사야가 했던 경험은 누군가가 주님을 대신하여 타인에게 말하고자 할 때 갖춰야 할 것들을 알려준다. 그 중 첫째는 왕이며 심판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겸손한 태도로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제단의 불 즉 주님의 이타적 사랑의 접촉으로 인해 성별 또는 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자발적이어야 한다.

본문 마지막 절에는 아껴두신 것(remnant)에 대한 예언이 있다. 이것은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예언자의 말을 경청하며 기억하는 이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살아 있도록 허락하시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껴두신 것 즉 거룩한 씨가 남아 있게 된다. 거룩한 씨란 언제나 주님께로 되돌아 갈 가능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안의 양심이 늘 살아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심정과 지성 안에 있는 선함과 진리의 부피에 상관없이 그 선함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측면에서 내려다보면 우리의 지성 안에 있게 되는 진리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올바르게 슬기롭게 인생경로를 선택했는지를 생각하고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5반

예언자들의 선교생활을 통해 교훈을 찾는다.

예언자들은 주님을 대변한다. 그들의 말이 비록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도 그들의 말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며, 주님께서 히브리인들과 모든 인류를 위한 내용이 표현되도록 주님께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이다. 구약성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언자들의 말은 각 개인의 영혼의 삶에 대한 것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자들의 말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각 개인의 영적 생활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 주님은 예언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날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또한 주님은 예언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열쇠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예언서의 공통사항은 악을 지적 또는 질책하고 악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여줌과 더불어 의를 지키는 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다. 모든 예언서는 이 같은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반복되지는 않는다. 설사 글자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문맥상으로는 아주 다른 의미를 내포하므로, 각각의 예언서는 특별한 조건과 필요성에 대한 각각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리는 말씀의 문자적 측면으로부터 각 예언서의 일반적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각 예언서의 특별한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얻는다.

대 예언서의 저자들은 모두 유다왕국 출신이다.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은 유다 왕국의 말기시대에 살았으므로 포로가 되는 경험을 했다.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일찍이 포로가 되었고 망명생활동안 예언했다. 예레미야는 포로가 되기 직전 사로잡힐 운명을 예언하고 백성들에게 항복하기를 권유했다. 이로 인해 그는 바빌론 왕에 의해 고향에 머무르도록 허락되었지만, 후에 잔류하던 나머지 백성들에 의해 강제로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썼다. 다니엘서는 바빌론에서 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니엘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정경(canon)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에제키엘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에제키엘이 환상을 위하여 자기의 영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고 자주 언급하기 때문이다.

본문에 있는 이사야는 “우찌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고 우찌야, 요담, 아하즈 그리고 히즈키야 시대에 유다에서 예언했다. 이스라엘 왕국과 대비 되는 유다 왕국이 우리의 심적인 측면을 상징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삶의 애착 측면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메시지는

우리의 애착 이 마음과 행동면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아주 멀어져서 자아 사랑과 주님 사랑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때에 전달되는 것이다. 우찌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나병환자였다. 선한 사람이 지닌 나병이란 순수한 선함을 식별하기 위한 지식이 결핍되어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같은 상태를 각자 완전히 경험했을 때는 본문 1절의 “우찌야 왕이 죽던 해에” 속한다. 주님은 이때에 비로소 어떤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 오신다. 이때야 말로 이사야가 부름 받는 적절한 시기이다. 그 후의 요담왕 역시 선했지만, 그는 사악한 아하즈(Ahaz)의 말을 따랐다. 이는 갈대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의지력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은 하지만, 곧바로 포기해버리는 무기력함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혁신하기 위해 다시 일어나서 그에 따른 통괄적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자발적으로 주님의 충고를 받아들인다. 이는 히즈키야 왕이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이사야의 충고를 따랐다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히즈키야는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개혁을 수행했다.

에레미야서는 국가의 과멸에 대한 예언이다. 에제키엘서는 요한 계시록의 요한의 환상과 흡사하며,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서 매우 인상 깊다. 다니엘서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포로들 중 신실한 자들의 소리라 할 수 있고, 그들은 귀향이 허용해질 만큼 바빌론의 통치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예수의 탄생에 관한 아름다운 예언과 친숙해졌고, 이사야가 히즈키야왕을 치료하는 장면을 통해서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의미도 발견한다. 본문에서 주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부분은 예언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 원리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려는 자들에게 필요한 근본원리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사야는 전지전능하신 주님 즉 왕과 심판하시고 보좌위에 앉아 계신 분(Jehovah Zebaoth)으로서 천군 천사에게 호령하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았다. 보좌 주위에 있는 스랍(Seraphim)이란 주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뜻한다. 날개란 영적인 진리(AC 8765)를 뜻하고, 세 쌍의 날개란 우리속의 내향적인 것 (interiors 얼굴)과 외향적 (exteriors, 발)인 것을 보호하면서 자연적 수준에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그것을 끌어 올리는 영적 진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을 뜻한다. 이사야는 스스로가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무서워 떨었다. 입이란 애착에서 나오는 생각(AE 580)이며, 입술

이란 인간 속에 있는 내적인 것들 (AC 1286)을 의미한다. 스웨덴북은 요한계시록 설명 580항을 통해 환상속에서 이사야의 순수함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이사야는 그의 순수함으로 인해 주님의 전달자가 될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7-19절까지의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에서 나온다. 이는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사야에게 주어진 메시지의 첫 부분은 복음서에서도 자주 인용된다. (마태 13:14, 마가 4:12, 누가 8:10, 요한 12:40) 이 대목은 주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는 성서의 말씀과 더불어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준다. 스웨덴북은 이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은 오로지 자연적 현상만 주시했을 뿐이며 만약 그들이 영적인 것을 지각했다면 신성모독을 범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용 가능한 만큼만 진리를 인식하고 볼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도 그분의 자비에 속한다고 하신다.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으로 되면 진리에 대해서는 닫히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이러한 이기심의 해로움에 대해 “도시들은 헐려 주민이 없고 집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고 농토는 짓밟혀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 (11절)”고 하시는 것이다. 되돌아 올 “십분의 일(tenth)”이란 아껴두신 선(the remains of good) 즉 주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도록 언제나 보존해 두시는 선을 뜻한다. 모든 새교회는 이와 같은 “십분의 일”에 기초하며, 이는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껴두신 것들은 강직함과 항구성을 지니기 때문에 상수리나무 즉 참나무와 유사하다.

우리 역시 주님의 특사가 되도록 하는 부르심을 받는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왕으로 그리고 심판하시는 이로서 보게 된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마태 5:48)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단지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될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의 인격과 권능에 대해서 뚜렷하고 선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 후에 우리는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깨달으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부터 멀어져 있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깨끗하게 해주는 불 즉 주님의 이타적 사랑의 불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동기(motives)들을 순수하게 해주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영감이 일으켜진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전달된 메시지는 명료하게 되어 세상적이며

이기적이었던 것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천국적 인격이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두신 우리 속의 선한 그릇이기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580항 4번)」: “치품천사중 하나가 예언자의 입과 입술을 건드림(touching)이란 예언자의 내면이 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내면이란 이해성과 의지를 뜻하며 가르침의 선물이 시작되는 것이다. 제단에서 가져 온 뜨거운 돌이란 하느님의 사랑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모든 정화가 있게 된다. 입과 입술이란 생각과 애착(affection) 혹은 이해성과 의지를 뜻한다. 이 두 가지가 정화될 때 인간은 부정함과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너의 부정함이 떼어져 나갔고 너의 죄가 사하여 졌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뜨거운 돌을 입과 입술에 대었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부정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은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303항)」: “인간은 자기가 인식하고 믿는 것 즉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것들로부터 삶을 이룬다. 스스로의 마음에 확신이 서는 것이나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룩한 것들을 모독 하는 경우는 스스로 그것들이 거룩한 것임을 인식하여 확신하지만 결국 그것들의 거룩함을 부정하게 될 때 이다.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도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안다고 하는 이들과도 같다. 주님의 강림 때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했다. 따라서 말씀 중에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피폐(Vastated)해 지다’ 또는 ‘황폐해지다’라고 하는 데 이것은 더 이상 어떤 믿음(faith)도 지니지 않음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말씀의 내면의 의미들이 열려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해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심장이 멈춰버린 사람들과 같기 때문이다. 믿음의 신비는 인간이 이러한 상태 즉 아주 피폐해져서 더 이상 어떠한 믿음도 없는 상태(앞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신성모독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에 이르지 않으면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주님은 슬기로운 자, 즉 그분을 인식하고 믿는 자를 “사람”이라 부르신다.”

질문 정리

- 1) 예언자의 직분은 무엇인가?
- 2) 이스라엘 왕국에 보내진 큰 예언자는 누구인가?
- 3) 어떤 관관이 예언자였는가?
- 4)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 5)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예언서는 어떤 책들인가?
- 6) 예언서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 7) 왜 대 또는 소 예언서라고 부르는가?
- 8) 대 예언서는 몇 권인가?
- 9) 대 예언서의 책 이름들은 무엇인가?
- 10) 본문의 책 이름은 무엇인가?
- 11) 이사야는 언제, 어디서 예언했는가?
- 12) 이사야는 환상 중에 누구를 보았는가?
- 13) 거룩은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4) 이사야는 왜 놀랐는가?
- 15) 주님은 이사야의 입술이 순수하게 되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 16) 주님은 무엇을 물으셨는가?
- 17) 이사야는 뭐라고 답변했는가?
- 18) 예언자들의 선교란 무엇인가?
- 19)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1)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 2) 엘리야 3) 사무엘 4) 율법서, 예언서, 기타서적
5)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 열왕기 6) 대 예언서; 소 예언서 7) 책의 부피에
따라서 8) 네 권 9)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10) 이사야서 11)
우찌야, 요담, 아하즈 그리고 히즈키야왕 시대에 유다에서 예언했다. 12) 주님 13)
여섯 날개 14) “불순한(unclean)” 입술 때문이다 15) 뜨거운 돌을 입에다 대었다
16)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17)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18)
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함 19) 주님의 환상을 볼 것, 겸손할 것, 성별 되어야
할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섬길 것

23

활활 타는 화덕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멸망되는 과정과 포로가 된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바빌론에서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포로라는 단순한 사실의 의미도 언급한다.

성서 본문: 다니엘 3장

3장: 1. 느부갓네살왕은 금으로 신상 하나를 만들어 바빌론 지방 두라 벌에 세웠다. 그 높이는 육십 척이요, 나비는 육 척이나 되었다. 2. 느부갓네살왕은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지방 모든 관리들을 자기가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도록 불러 들였다. 3. 그래서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신상 앞에 나와 제막식에 참석하였다. 4. 그 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인종과 말이 다른 못 백성들은 들으시오. 4.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거든 곧 엎드려 느부갓네살왕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시오. 6.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않으면 당장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을 것이요.” 7. 그리하여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인종과 말이 다른 못 백성들은 엎드리어,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했다. 8. 이 때 어떤 바빌론 사람들이 나서서 유대인들을 고발하였다. 9. 그들은 느부갓네살왕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10. 임금님께서서

영을 내리시어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엣드리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1. 엣드리어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는다고 칩령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12. 그런데 임금님의 칩령을 무시하고 임금님께서 위하시는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임금님께서 바빌론 지방 관리로 임명하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13. 느부갓네살은 몹시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왕 앞에 끌려 오자, 14. 느부갓네살이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는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내가 위하는 신을 섬기지 않았다니, 그게 사실이나? 15. 이제라도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는 대로 곧 엣드리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할 마음이 없느냐?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화덕 속에 던질 터인데, 그래도 좋으냐?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 줄 신이 과연 있겠느냐?”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왕에게 대답했다. “저희는 임금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할 마음이 없습니다. 17.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 주실 힘이 있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들을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 넣으셔도 저희를 거기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18.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을 섬기거나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19.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듣고는 금방 안색이 달라지며 노기에 차서 화덕의 불을 여느 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지피도록 하고, 20. 군인들 가운데서도 힘센 장정들을 뽑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였다. 21. 사람들은 그들을 도포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활활 타는 화덕 속에 집어넣었다. 22. 왕명이 그만큼 급했던 것이다. 화덕이 너무나 달아 있었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넣던 사람들이 불길에 타 죽고 말았다. 23.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뽕뽕 묶인 채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졌다. 24. 그런데 느부갓네살왕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그는 벌떡 일어나 측근자에게 물었다. “뽕뽕 묶어서 화덕에 집어넣은 것이 세 명 아니었더냐?” 그들이 대답했다. “임금님, 그렇습니다.” 25. “그런데 네 사람이 아무 탈없이 화덕 속에서 거닐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나? 저 네 께 사람의 모습은 신의 모습을 닮았구나”하면서 26.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는 화덕 어귀에 가서 이렇게 외쳤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서 나오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화덕에서 나온 다음 27.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왕의 측근들이 모여 와 그들을 살펴보니, 몸이 불에 데기는커녕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도포도 눌지 않았으며 불길에 닿은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28.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이야 말로 찬양받으실 분이구나”하며 느부갓네살은 외쳤다. “저들의 하느님께서, 어명을 어기면서까지 목숨 걸고 당신만을 믿고 저희의 신 아닌 다른 신 앞에서는 절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이 신하들을 천사를 보내시어 구해 내셨구나. 29. 이제 나는 영을 내린다. 인종이나 말이 다른 못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에게 욕된 말을 하지 못한다. 욕하는 자는 토막 내어 죽이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리라. 이처럼 자기를 믿는 자를 구해 줄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으리라.” 30. 그리고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빌론 지방에서 더 높은 벼슬을 내렸다. 31.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은 이 느부갓네살왕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빈다. 32.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표적을 너희에게 들려주는 것이 더없이 기쁘다. 33. 그가 보이신 표적은 놀라웠다. 그 베푸신 기적은 굉장하였다. 그는 영원히 왕위에 앉으시어 만대에 이르도록 다스릴 왕이시다.

교리 요점

* 주님은 우리가 곤란과 시험의 상태일 때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계신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유다왕국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었고 주님께 신신했던 소수의 왕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왕국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선한 왕들의 노력과 예언자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고집했다. 결국 유다는 바빌론에게 점령당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든 학설 혹은 학식 그리고 세상의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들을 고집하면, 우리의 이기심은 우리의 심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본문의 다니엘과 3명의 소년들은 유다왕가 집안에 속한다. 그들은 그들의 탁월한 재능 때문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 바빌론 왕국에서 교육되도록 미리 보내졌고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들은 주님께 신실하였고 어린 시절에 양육된 대로 실천했으므로, 주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번성시켰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요셉처럼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예언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오르도록 하셨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 3명도 행정관 수준의 직위에 올랐다.

이스라엘 왕국은 우리의 지성을 그리며 유다 왕국은 우리의 심정을 뜻한다.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출발되었기 때문에 먼저 멸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세상적 추론에 귀 기울이게 되면, 시편 1편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된다. 우리의 심정이 선한 의지를 지향하더라도 그것을 보호하며 인도해 줄 진리가 없으면, 지성 또는 이해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망한 후 심정을 상징하는 유다 또한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선과 진리의 결합이 없게 되면 이기심이라는 악이 우리 마음에 득세하게 된다. 이기심 혹은 자기의 길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바로 바빌론이다. 따라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기적인 심정을 이끄는 원리를 표현한다. 그리고 그 원리란 자기자랑 또는 자신의 지혜만을 믿는 상태들을 뜻한다.

느부갓네살은 황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땅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예배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화덕 속에 던지라고 명령했다. 신상에 절하지 않은 대가로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불 화덕에 던져졌다. 여기서 활활 타는 화덕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꾸준히 찾고 있을 때 우리를 굴복시키려 찾아오는 시험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들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주님은 지상 생활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들과 대적하고 극복하셨다. 우리가 신실하다면 주님은 불가마속에서도 상처를 입지 않은 채 3명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험들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

제 1반

믿음이 강한 세 청년이 불 속으로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시험이 강하고 어려워도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서있게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다왕국의 왕족 중 4명의 젊은이들은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한 후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바빌론의 왕은 그들이 특별한 자문위원이 되어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후하게 대접했다. 그러나 바빌론의 백성들은 그들이 가르쳤던 진정한 하느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따라서 네 명의 젊은이들은 바빌론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많은 잘못들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그들 중 한명이 다니엘이다. 그는 후에 주님의 예언자가 되었고 다니엘서를 썼다. 이 책에서는 주위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이 언급되는데, 서두에는 젊은이들이 왕이 제공한 음식의 일부를 거절하는 것이 언급된다. 이는 그들의 종교적 법률이 그 음식을 금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음식을 제공하는 내시부의 대신들에게 채소와 물만을 요구했다. 바빌론의 대신들은 그들이 채식만하여 건강을 해치게 되면 왕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 두려웠지만, 이 젊은이의 요구를 한 번쯤은 들어 주기로 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올바르게 행동했으므로 그 음식이 그들에게 잘 맞도록 하셨다. 이리하여 그들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살이 올라 보기에 좋았다.

우리가 선하며 의를 행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언제나 도우신다. 주님은 활활 타는 화덕에서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를 안전하게 구하신 것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담대해 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의를 행하려는 것도 돕게 된다.

다음의 요점과 질문의 답들을 통해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자.

- * 느부갓네살왕은 큰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명령했다.
- *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왕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왕은 대신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가?
- * 그들은 불에 태워졌는가?

- *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는 화덕 속에 그들과 함께 누가 있는 것을 보았는가?
- * 젊은이들을 불 속에 던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 그 뒤 왕은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의 하느님께 욕된 말을 하지 못한다고 명령하였다.
- * 왕은 세 사람에게 더 높은 벼슬을 내렸다.

제 2반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우리는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존경받는 사람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닌 일생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사람의 행동은 일시적 충동이 아닌 그가 가진 원리로부터 비롯됨도 염두해야 한다.

유다왕국은 악한 왕과 선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모두 악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왕국은 더욱 악해져서 주님께 순종치 않았고, 주님 또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게 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해 동쪽 땅으로 끌려갔고, 외국인들이 그들의 땅을 채웠다. 주님의 지상생활 시대 때 사마리아인들은 그 외국인들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했던 열 지파는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잃어버린 지파들”이라고도 불린다.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다.

아시리아왕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복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당시 유다 왕은 왕 중에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히즈키야였으므로 주님은 유다왕국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그 뒤를 잇는 유다의 왕은 주님을 떠나게 되어 바빌론의 군대에 의해 정복되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그 땅의 중요한 인물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주님은 70년이 지난 후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들에게 약속하셨다.

바빌론 왕이 유다에게 첫 승리를 거뒀을 때, 그는 유다의 중요한 인물들을 잡아갔다. (열왕기하 24:11~16) 끌려간 이들 중에는 재능을 가진 4명의 왕족이 있었다. (다니엘서 1:1-7)

다니엘의 갈대아인 식의 이름인 벨트사살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다. 이는 다니엘이

주님에 의해 예언자들 중의 일인이 되도록 뽑혔고, 그의 이름이 예언서의 책들 중 하나가 되었고 말씀 안에서 항상 다니엘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그 외의 다른 세 명은 갈대아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네 명 모두가 바빌론 왕을 섬기도록 훈련되었지만 그들은 주님께 신실했다. 그들의 신실함의 첫 증거는 그들이 훈련받을 때 제공된 왕의 풍요로운 음식을 거절한 것이다. 그들은 풍요로운 궁중음식 대신에 풀 종류(pulse)와 물만을 요구했다. “풀 종류(pulse)”란 야채류(vegetables) 혹은 씨리얼(cereals)의 옛말이다. 그들은 교육기간 내내 그것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궁중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오래전 요셉에게 주어졌던 능력 즉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느부갓네살왕의 이상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느부갓네살은 바빌론 전역을 통치하는 자로 다니엘을 임명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요구했던 대로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에게도 높은 지위를 주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뽀내기를 좋아하고 거만했으며, 그의 명령을 사람들이 행하게 만들고 그것을 즐겼다.

주님은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하셨다. 이처럼 우리가 의를 위해 올바르게 행동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 또한 우리의 바른 삶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인식하고 경외 하도록 한다. 느부갓네살왕이 하느님을 경외하게 된 것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바른 신앙생활 때문이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자.

- * 그들의 히브리 이름은 무엇인가?
- * 그들은 바빌론에서는 뭐라고 불렸는가?
- *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 * 그는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 * 명령에 불복종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했는가?
- *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에 어떻게 처신했는가?
- * 느부갓네살은 격노하여 어떤 명령을 했는가?
- * 그 결과 그의 부하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 느부갓네살은 불가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 느부갓네살은 어떤 새 명령을 내렸는가?
- *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제 3반

“군중을 따르려는 심리”에 대해서 언급한다.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그들의 선함을 남에게 굳이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올바르다고 알고 있는 것을 실행했다. 이러한 그들의 자세는 포로생활 초기부터 쌓아진 것임을 주목한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지만, 결국 그들의 바른행동으로 인해 큰 인물로 부각될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아시리아는 유다왕국을 정복하지 못했다. 적이란 측면에서 아시리아는 거짓추론을 표현한다. 거짓추론은 이해성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만, 심정 속에 있는 선한 동기 자체는 파괴할 수 없다. 그러나 심정(heart)을 부패하도록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유다의 후대 왕인 히즈키야는 당시의 왕 중에서 개혁을 과감히 실행했던 선한 왕이었지만, 친구인 체 하고 내왕한 바빌론의 사절단을 입궁 시키고 그들에게 모든 보물을 보여주는 큰 실수를 행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빌론은 유다를 정복했고 지속적으로 유다의 보물과 지도자들을 빼앗아 갔다. 결국 바빌론은 예루살렘과 성전 자체까지도 파괴했다. 바빌론이란 “자아사랑에서 비롯된 지배욕”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심정에 있을 수 있는 적을 뜻하고, 점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선한 의도들을 강탈한다.

다니엘은 바빌론 왕의 포로 잡이가 있기 전에 최초로 끌려간 집단의 일원이었다. 그 후 왕국의 젊은이들은 바빌론 왕의 자문위원으로 훈련되도록 선발되었고 후한 대접을 받았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후한 대접으로 인해 바빌론을 숭배하며 그것에 만족하게 되었다. 그들 중 네 명 즉 다니엘, 하나니야, 미사엘 그리고 아자리야는 여호와께 충실하겠다고 결심하고 유다에서 양육되던 시절에 익혔던 것들을 계속 수행해갔다. 또한 그들은 갈대아어로 이름이 주어져 벨트사살,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라고도 불렸다. 그들은 먼저 왕의 풍요한 음식을 먹기를 거절했다. 이는 세상적인 보상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려는 습관을 지지하는 생각이나 욕망이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채우게 되는 것을 거절함을 표현한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을 고려하지 않거나 그 길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내세우려 하면, 우리는 바빌론 왕의 포도주를 마시고 왕이 제공하는 풍요로운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첫째 자리에 놓게 되는 시험을 예비와 관련지어 밝혀준다. 느부갓네살 즉 바빌론의 왕이란 자아사랑(self-love)에 근거한 원리가 우리를 주도함을 뜻한다. 원리란 자기 총명이며, 자기 총명(self-intelligence)이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는 생각 즉 독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말씀 속의 모든 진리를 왜곡하게 되며 자기의 영예를 위해 교회를 악용할 수 있게 말씀의 의미들을 사사로이 해석한다. 느부갓네살은 금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그것에 예배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불복종하는 자에 대해서는 “활활 타는 화덕”에 던져 넣겠다고 했다. 세상적인 쾌락에 가득한 사람들은 선한 생활은 어렵고 고달픈 것이어서 불만족스런 욕구가 불타고 있는 것, 즉 고통 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하기가 쉽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이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불가마 속에서 고통당할 때조차 주님께 신신했다. 그들의 믿음이 의로웠기 때문에 주님은 불가마 속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주님은 지상에 계신 동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수행 하셨다. 따라서 주님은 시험가운데 있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극복할 힘을 주신다. 세 젊은이들은 불에서 보호되었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진정한 하느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어떤 누구도 그들의 하느님을 욕하지 못한다는 칙령을 내리도록 했다.

다니엘도 이와 비슷한 것을 겪게 되는데, 주님은 사자의 입에서 그를 구해 내셨다. 그리고 네 명의 청년은 바빌론의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되어졌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오래 전 요셉에게 주셨던 능력 즉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로 인해 후대 왕들은 그를 높은 벼슬자리에 계속 앉혀 놓았다. 그를 제외한 다른 세 명에게는 성들을 다스리는 지방장관의 임무가 주어졌다. 느부갓네살은 네 청년들을 통한 경험으로 인해 여호와가 가장 높은 하느님이심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의 아들인 벨사살

역시 다니엘의 능력을 인정하였다. 또한 그의 승계자 다리우스는 반정으로 정권을 잡았으나, 다니엘만은 여전히 전 국토의 통치자로 남겨 두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통치시대까지 신성화 를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레스는 유대의 백성들이 유다로 귀향해도 좋다고 선포한 왕이다.

기본 상응 공부

아시리아 = 마음의 합리적 평면

바빌론 = 자아사랑에 근거한 지배욕

느부갓네살 = 자기충명, 거만, 자기 생각만 내세움, 자아사랑이 주도하는 원리

제 4반

주님께서 시험, 승리 그리고 시험 중에 우리와 함께 하는 실제성을 다룬다. 주님께서 아주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많은 위협에서 우리를 구해주심을 강조한다.

예언자 다니엘은 말씀 중에서 아주 특출한 인물에 속한다. 그는 부와 권력이라는 시험과 맞서면서도 충실성과 용기를 잃지 않는 훌륭한 본보기로서 성경에 우뚝 서 있다. 그는 성서의 여느 인격자들과 아주 다르며, 약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바빌론 왕이 쓸모가 있다고 여겨 유다 함락 초기에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중 일부인 다니엘을 비롯한 준비되어진 젊은 히브리인들은 우리의 자연적 속성 안에 있게 되는 이기적이며 세상적 요구에 일찌감치 복종당해 버린 우리의 영적 속성과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주님의 준비하심을 상징한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 세 명은 호화로운 음식과 바빌론 왕이 하사하는 포도주를 거절했다. 우리 역시 이기적 감정과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며 말씀의 진리들을 공부하려 한다면 영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오게 마련이다. 즉, 우리는 날마다 강함과 인격의 아름다움을 얻어 가게 된다.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 세 명이 “궁중요리를 먹는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살이 올라

보기에 좋았다.”고 쓰여 있는 바와 같다.

외적 번영 혹은 칭찬 자체는 자아에 의존하는 시험과 하느님을 잊게 하는 새로운 시험을 불러들인다. 이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네 명의 청년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표현된다. 각각의 히브리어 이름은 주님의 이름 즉 엘로힘(Elohim) 또는 여호와(Jehovah)의 음절 el 또는 ah를 포함하고 있지만, 새로운 이름에서는 이 음절이 빠지고 자아를 칭찬하는 특성을 표현하거나 우상의 이름에서 취한 것을 포함한다. 바빌론은 성경 전체를 통해 “자아사랑에 근거한 지배욕”을 상징한다. 이처럼 간단한 언어 하나에까지도 우리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기적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란 자기 총명이라는 원리를 의미한다. 즉, “나는 무엇이든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판단하는 마음자세이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 신상은 자아를 금으로 도금해 놓은 것을 상징하며, 하느님 대신으로 그것을 숭배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만일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첫 번째로 섬기지 않으면, 너희 속의 자연적 바램은 너희를 태워 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아를 통제함으로 인한 행복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자아를 우상으로 세우려는 시험에 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을 경외함 대신 파멸을 내다보게 된다. 또한 우리의 자연적 열정은 증폭되어 우리를 태워 버린다. 이는 일곱 배나 더 뜨겁게 지핀 불이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를 불에 태우고자 집어 던진 군인들을 삼키는 장면과 같다. 불속에서 세 청년은 “몸이 불에 데기는커녕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도포도 눈지 않았으며 불길이 닿은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된다. 그들은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했으므로, 주님은 시험이라는 불가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님은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시험에 부딪히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유한한 인간 본성을 입으셨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즉, 불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해 주신다.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가 왕 앞에 끌려 갔을 때 그들은 홀로인 것처럼 보였지만, 왕국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은 그들과 달랐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적 환경에 둘러싸이게 되면, 우리는 무기력하며 외로운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오로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진짜 무기력하여 누구에게도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없고 선한 인격 앞에도 무기력함을 깨달아야 한다. “군중을 따름” 또는 “남들도 다 그러니까”라는 말은 나약하고 구태의연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어떤 용기도 발전도 없다. 주님의 가르치심처럼, 반석위에 지은 집만이 굳건히 서 폭풍우를 이기는 것이다.

제 5반

바빌론, 느부갓네살 그리고 금 신상의 의미를 현대의 종교적 사고에 응용해 본다. 열왕기하 20장 12-17절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시점과 연결되며, 시편 1편 1-2절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 청년의 완전한 믿음과 연결된다.

본문은 구약성서를 따라 내려오는 긴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다. 국가의 반쪽인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당해 동쪽으로 끌려갔고 되돌아오지 않았다. 나머지 반쪽인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정복되었다. 유다의 백성 중 일부는 나중에 되돌아오도록 예언되었고 되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였지만, 이것 역시 외국 주인(왕)의 허락에 의해서였다.

유다왕국의 퇴조는 주님을 섬기려는 의지가 퇴보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선하고자 하는 마음의 퇴조로서 우리의 심정 안에 다른 동인들을 허용하는 것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야기 된다. 아시리아가 유다를 파괴하도록 허용 되지 않은 것은 세상적 추론은 우리의 선한 바램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성이 이미 세상적 추론의 포로가 된 상태라면 이것은 우리의 선한 의지가 퇴보하는 것을 가속화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영적 진리와 영적 바탕으로 추론하는 능력은 선한 심정의 필수 방파제이며, 우리는 그것이 없이는 악을 식별할 수 없다. 이는 아사왕이 아시리아에게 원조를 청하고 그 대가로 성전의 보물들을 지불했던 것과 히즈키야 왕이 바빌론의 사절단을 친구처럼 우대하면서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과 같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 안에 있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우리는 처음에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선함이라는 것이 그저 교회에서 여러 과정들을 거치며 생기게 되는 것쯤으로 무시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열의도 사라져 더 배우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기계적인 행위가 되어 예배 또한 형식적인 관습이 되어 버린다. 또한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게 만드는 특별한 기회로 삼아 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나”의 속에 들어있는 많은 악들을 인식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그것들을 늘 경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잃고 자신의 방법, 즉 사심이 가득한 방법으로 교회의 일들을 처리하려는 고집스러움으로 빠지고 만다. 이것이 발생할 때 마다, 우리는 “유다”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상징하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본은 계시록 설명 제 1010항에서 “존경 받기를, 통치하기를, 탁월해짐을 사랑함이 교회의 마지막 상태이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천국의 빛을 소멸시키며 지옥의 어두움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다니엘은 포로들 중에서 예언자였다. 그는 유다의 왕가 출신으로, 포로 초기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그를 포함한 세 명의 청년이 본문에 등장한다. 그들은 탁월한 정신적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궁전에서 양육되며 갈대아의 모든 지식으로 훈련되었다. 다니엘은 여호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대신으로 남아 있었고, 후에 벨사살과 다리우스 그리고 고레스왕의 대신들 틈에도 남아 있었다. 그는 대략 90세 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근접한 국가들의 언어인 갈대아어 또는 아람어(Aramaic)로 쓰였다. 제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 있다. 이 책은 타 예언서보다 대화체가 많다. 그리고 이 책에서의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관한 것, 활활 타는 화덕에 관한 것, 사자굴에 관한 것 그리고 벨사살의 축제는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로서 많이 인용된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에제키엘서나 요한 계시록과 같은 기이한 환상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스라엘과 국가들이 파멸하는 모습

으로 교회의 미래에 관한 환상도 담고 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다니엘서를 예언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언자 다니엘”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책의 적절한 지위를 회복시키셨다. (마태복음 24:15, 마가복음 13:14)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의 개인적 역사는 역경에 부딪힐 때 주님에 대한 신실함과 순종으로 얻게 되는 보상을 보여준다. 그들은 첫째로 왕의 풍요로운 음식으로 그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거절했다. 바빌론 왕의 포도주와 음식은 자기 칭찬을 극도로 추구하는 악과 거짓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 중에 “만일 너 스스로 진보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줄 자가 없다”라든지 “하느님은 자신을 돌보는 자 만을 돌볼 뿐이야” 등등과 같은 말이 있다. 포도주와 음식 그 자체가 악과 거짓을 상징하지는 않듯이 이러한 표현들도 그 자체로는 좋은 의미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이기심에 가득한 사람의 공명심을 채우는데 쓰이게 되면 모든 업적과 성공의 근원이 바로 “나의 노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때 이 표현들은 이기적인 공명심을 채우는 거짓들이 되는 것이다. 네 명의 청년들은 왕의 음식대신 채소(pulse)를 먹었고, 포도주 대신 물을 마셨다. 이것은 심정의 선함과 말씀 속의 진리로부터 파생되는 단순한 원리를 함모함을 묘사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얼굴은 궁중요리를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도 살이 올라 보기에 더 좋았던”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는 용기를 갖고 자아보다 주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을 꾸준히 실천해 가는 이들은 자기 이익만을 고집한 사람들이 이를 수 없는 명예를 얻게 된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대 위에 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면,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바빌론은 “자아사랑에서 나온 지배욕”을 표현한다. 바빌론 왕은 자아만을 섬기도록 하고 모든 진리를 뒤집는 자아 총명의 원리를 의미한다. 스웨덴붉은 느부갓네살이 “진리의 모독과 더불어 파괴”를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그가 금 신상을 세워놓고 예배토록 하는 특수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총명을 주님의 가르침보다 우월하게 여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대신 인간의 판단을 예배하게 되는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모든 진리가 나의 판단과 논리에 맞춰져야 한다고 여긴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떤 암시적인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악기들, 왕국 대신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활활 타는 화덕, 세 청년의 갈대아어로 지어진 이름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것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종의 최면술처럼 영향을 주며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데,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세 청년들과 반대 되는 인간의 총명을 근원으로 하는 주장들이다. 그래서 제 16-18절에서 세 청년은 날카로운 주장으로 이러한 것들과 대치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하는 말은 이런 것이다. “우리를 향해 비판하는 것이 대체 뭐란 말이나?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하느님의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명령들을 우리와 하느님을 엮어주는 접합제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이 갖는 크고 위대한 가르침들을 신앙심이 부족한 신학자들이나 성경 연구자들이 지각없이 꾸며놓은 정교한 학술적 용어나 합리화 시켜 놓은 교리들로부터 구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위협마저 느껴지는 느부갓네살의 협박에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한 분 하느님 외에 선한 자는 아무도 없소이다”라고 대답했던 것 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에 뽕뽕 묶어서 던져진 세 사람이 멀쩡할 뿐 아니라 ‘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그들과 불속에 함께 있는 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신하들은 깜짝 놀라고 만다. 이것은 시험은 진정한 믿음을 상하게 하지는 못하며,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지상생활 중에 인간으로서 가능한 모든 시험들을 겪으셨고 그것들을 모두 극복하셨다. 이것은 시험을 극복하게 하게 하는 진정한 능력은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는 것을 뜻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1010항)」: “명예욕과 지배욕 그리고 남보다 우월함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교회가 갖게 되는 마지막 상태이다. 이때에 거짓은 진리에 대항하여 싸우게 되는데 그것은 이러한 지옥적인 사랑이 마지막 상태에 처한 교회를 지배하려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옥적 사랑으로

부터 생겨난 악에서 나오는 거짓 마음의 중심이 되어 끝내는 진리를 뒤엎어 버린다. 이런 사랑이 그 어떤 것 보다 우세해지면 천국의 빛을 소멸시키고 점점 지옥의 어둠을 드리운다. 이런 사랑의 소유자는 천국과 교회의 측면에서는 아주 두꺼운 어둠 안에 있는 상황 즉 거짓들 안에만 있으므로, 그 사람 안에는 교회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 안의 자연적 빛이 발하는 광채로 인해 영적 빛이 상대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광채가 망상적인 빛에서 나오는 이유는 자기 총명을 사랑함과 자기가 영광을 받기 원함으로부터 불이 붙여져 밝혀진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이러한 총명은 아주 사악하거나 혹은 정신이상자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런 지옥적 사랑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마음에 속한 모든 것이 뒤 집어져서 더 이상 어떠한 진리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선을 행하려는 의지도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 그러나 선용(uses)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이 때는 인간이 명예나 영광을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의 특출함을 선용에 응용한다. 그리하여 명예, 지배욕 그리고 탁월성 등은 선용을 위한 수단 정도에 불과하게 된다. 자연계로부터의 많은 사람들은 존경받고 싶은 마음, 지배욕 그리고 탁월함을 자랑하는 마음을 소유하지만, 그들 중에서 선용을 사랑하는 자는 극히 드물다. 선용이란 섬기는 것이다. 명예 그 자체가 선용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선용으로 결실되어 지지 않는 것은 설사 그것이 사랑으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무용한 것이 되어 버린다. 선용으로 결실되어 지지 않는 사랑은 천국에 그 자리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가 천국은 곧 선용으로 통치가 되는 곳인데 이 말은 주님의 왕국은 선용의 왕국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결실인 선용이 곧 선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용으로 우리의 마음이 규율되어 질 때 그것은 곧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된다. 그 이유는 모든 선의 근원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유다왕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2) 포로들 중 어느 왕족 청년이 성경을 썼는가?
- 3)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누구인가?

- 4) 주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해롭게 했는가?
- 5) 바빌론 왕은 누구인가?
- 6)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 7) 그는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 8)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절했는가?
- 9) 느부갓네살은 세 청년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가?
- 10) 그들은 불에 태워졌는가?
- 11) 불가마 안에서 세 청년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 12) 불가마에 세 청년을 던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13) 느부갓네살은 결국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 14) 바빌론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다 2) 다니엘 3)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 아님
- 5) 느부갓네살 6) 금 신상 7) 음악이 울려 퍼지면 금 신상에 절하라
- 8) 아님 9) 활활 타는 화덕에 던지라고 했다 10) 아님 11) 주님 12) 죽었다
- 13) 어느 누구도 주님에 대하여 욕된 말을 하지 못한다.
- 14) 자기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는 사랑
- 15) 자기 칭찬이나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뽐내는 자

24

예언자 미가

머리말

본과는 소 예언서에 관한 공부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소 예언자들”과 “소”라 불리는 이유를 알아본다. 그리고 본문 6장 8절을 읽고 의미를 파악해 보자.

성 서 본 문: 미가서 6장

6장: 1. 잘 들어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일어나 산악을 향해 변명해 보아라. 할 말이 있거든 언덕들에게 말해 보아라.” 2. 산악은 야훼의 논고를 들어라. 땅의 주춧돌들은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걸어 논고를 펴신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죄상을 밝히신다. 3.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대답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며, 너희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느냐? 4.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앞장세워 종살이하던 데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5.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모압 왕 발락이 꾸민 계략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한 말, 시냇에서 길갈에 이르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도 이 야훼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6. “높이 계시는 하느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7. 수양 몇 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어나려면, 만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어나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8.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언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9. 야훼께서 이 성읍에 외치시는 소리, 유다 지파는 들어라. 이 성읍에서 사는 무리들은 들어라. 12. 남을 등쳐 치부한 것들아, 거짓말만 내뱉는 도시 놈들아, 말끝마다 사기를 하는 것들아, 들어라. 10. “천벌 받을 것들, 부정한 되로 부정 축재한 것들을 나 어찌 용서하겠느냐? 11. 자루에는 엉터리 추를 넣어 가지고 다니며 맞지도 않는 저울을 쓰는데 어떻게 죄 없다고 하겠느냐? 13.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치리라. 그런 죄를 보고 어찌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15. 너희는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기름을 짜도 몸에 발라 보지 못하며 포도를 짜 술을 빚어도 마시지 못하리라. 14.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은 것마저도 살이 되지 않으리라. 살아 보려고 버둥거리도 빠져 나갈 길 없고, 빠져 나가더라도 칼에 맞아 죽으리라. 너희는 오므리의 정책을 따르고 16. 그 아들 아합 왕조의 시정을 그대로 본 따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리니, 사람들은 그 끔찍스런 꼴을 보고 빈정거리며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교리 요점

* 선행(charity)은 삶의 근본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구약 성서의 마지막 열두 권을 소 예언서라고 부른다. 이 책들이 소 예언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대 예언서들 보다 분량이 작기 때문이지 예언서들에 어떤 구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구약시대의 책은 오늘날과는 달리 긴 양피지를 둥근 막대기로 말아 놓은 형식이었는데 소 예언서들은 하나의 두루마리 안에 다 들어가는 분량이 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라(Torah, Law)들을 이 같은 두루마리로 써서 “궤(ark)”라 부르는 조그만 방에 보관한다. 이 조그만 방은 우리의 교회가 교인들 모두의 시선이 모일 수 있는 중앙에 설치한 성경을 놓는 제단과 유사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 예언서와 친숙하지 못하다. 그 책들은 극히 적은 대화체로 이뤄져 있어 우리 마음에 담아두기가 힘들고, 문장들이 종종 단절되어 내용이 쉽게

연결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소예언서를 읽을 때면 주님은 언제나처럼 수호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셔서 말씀의 내적 의미를 인지하도록 도우신다. 따라서 주님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명확하고 직접적인 의미를 지닌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예언자 미가(Micah)는 유다의 세 왕들 시대에 살았으며, 그 중 히즈키야 왕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미가 1:1 참조) 미가는 타 예언자들처럼 백성들이 범한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계속 고집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결과를 그들에게 경고하도록 주님에 의해 보내졌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 따라서 예언자들은 대중적인 인기는 얻지 못했다. 미가서는 백성들의 정의, 맹렬함 그리고 기만성을 지적하면서 수많은 일을 해 주신 그들의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도록 호소하고 있다. 미가는 주님께 바치는 제물 따위로 백성들의 행위를 덮을 수 없다고 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 중에도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얻을 경우 그것의 일부를 교회에 헌납하거나 자선을 베푸는데 쓰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미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료들을 대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해야 할 것이며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그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기억하며 되새겨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것 밖에 무엇이 더 있겠는가” 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제 1반

미가 6장 8절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일상적인 사건과 예증을 통해 진행해 간다.

구약 성경의 끝 부분에는 소 예언서라고 하는 열두 권의 짧은 책들이 있다. 성경의 목차를 펴놓고 간략하게 살펴보자. 소 예언서의 예언자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에

서 살았다. 마지막 세 권은 유대인들이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후의 예언들이다. 각 예언서는 각각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모든 예언서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책은 현대의 우리의 책과는 다른 형태였다. 그들의 책은 짐승의 가죽 혹은 양피지의 긴 조각 위에 손으로 씌어졌고, 둥근 나무를 꿰어 말아 놓은 형태이다. 소 예언서의 책들은 아주 짧아서 한 두루마리 안에 모두 쓰여 있었다.

본문은 예언자 미가의 책에서 비롯된다. 미가는 유다왕국에 살면서 히즈키야 왕을 포함한 세 왕들 시대에 예언했다. 주님은 언제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함으로 인해 오는 결과들을 경고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고집스런 행동을 바꾸고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따르리라고 기대하셨다.

미가서 6장 1-12절에서는 주님이 백성에게 베푸신 좋은 일과 백성들이 저지른 나쁜 일이 거론되고 있다.

질문 및 요점정리

- * 주님은 미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 * 우리는 나쁜 줄 알면서도 행동했을 때 진정으로 행복했던가?
- * “정의를 실천함”이란 작고 큰 일 모두에 공정하며 정직해야 함을 의미한다.
- * “자비를 사랑하는 것 (to love mercy)”이란 타인을 해치기를 원하지 않으며 타인을 돕고 용서할 줄 알고 친절해야 함을 뜻한다.
- * “겸손하게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to walk humbly with the God)”이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교회에 참석하며 자신에게 즐거운 일 대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먼저 행함을 의미한다.

제 2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다. 그리고 최소한 본문 8절은 기억하도록 하자.

* 어느 죄가 오늘 본문에서 지적되었습니까?

* 이러한 죄에 대한 벌이 무엇이라고 미가는 말합니까?

미가서는 우리에게 선한 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명백하고 단순한 사항들을 요약해서 가르치고 있다. 미가는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즈 그리고 히즈키야의 통치시대에 살았고, 이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와 거의 같은 시대에 속한다. 미가는 당대 백성들의 죄들 중 일부를 지적하고 있다.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 읽어 보자. 오늘날의 사람들은 양식, 기름, 번제 할 동물을 교회로 가져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자식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가 시대의 백성들이 오늘날의 우리는 아주 다른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대부분의 시간과 물질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쓰기를 좋아한다. 또한 우리는 예배참석을 잘 지키고 헌금하며 자선을 위한 기부도 종종 함으로써 마치 스스로가 아주 선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기도 한다. 주님은 미가를 통해서 진정한 선한 생활(good life)은 가끔 낚의 눈에 주목되는 특별한 선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상 속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선함에 관계된 우리의 삶에는 세 가지 면이 있다. 행동 면에서 우리는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즉, 우리는 모든 일에 정직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 면에서 우리는 자비를 사랑해야 한다. 즉, 기꺼이 은덕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친절을 베풀며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험한 일을 당했다고 복수심을 품는 것이나, 마땅히 베풀어야 할 때 아까워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남을 도울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느님과 걷는 것 즉 조심스럽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이는 선한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즉 우리가 흠이 많고 잘못을 행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주님께 대해 지속적으로 배워 나가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행동하고자 한 것을 고집하는 대신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함을 심정으로 깨달아야 한다.

미가 시대로부터 칠백년 이상 지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미가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발견했던 과오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발견하셨다. 그리하여

주님은 선한 생활을 위해 그들에게 똑같은 규율을 주셨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까지를 읽어 보자.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구절들을 읽다보면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성서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며 그럼으로 구약과 신약은 실제적으로 한권의 책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적인 의미에서 구약은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삶을 보여준다. 주님은 율법과 예언을 성취(fulfill)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는 지속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이해할 것이다.

제 3반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이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본문을 이해함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모든 예언들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를 언급한다. 그리고 본문 6장 8절을 암송하면서 올바른 인격의 틀을 이해하도록 하자.

예언서들은 역사적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성경 연구가들은 성경에 있는 증거를 통해 소 예언서의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며 노력한다. 그들은 책 속에서 사용된 언어형태와 말해진 상황 등에 의해 분석하고 종합한다. 예언자 미가는 미가서 제 1장 첫 절에서 자신의 연대를 말하고 있다. 그는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로 유다에 살았다. 아모스와 호세이는 이보다 조금 이른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요나는 모든 예언자 중 가장 이른 시대의 인물로 추측된다. 스바니야는 유다의 웃시야 통치시대에 예언했고, 하박국은 유다왕국의 말기부터 포로 신세가 되는 초기시대까지 예언했다. 요엘, 오바디야 그리고 나훔의 시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소 예언서의 메시지는 연장자에게 아주 적합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미가서는 특별한 내용을 담은 두 단원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동방 박사들에게 길잡이가 된 예언으로서 본문 5장 2절이다. 다른 하나는 본문 6장 8절이다. 이 구절은 성경 가운데서 잘 알려진 아름다운 내용으로서,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기고 늘 되새겨야 할 중요한 구절이다. 선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에서 올바르게 서야 한다. 첫째는 자연적 단계로서 시작에 해당되는 인간의

바깥이 되는 행위가 그 중심이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인간의 안쪽이 되는 영 또는 이해성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인간의 가장 깊고 높은 곳인 혼 또는 심정에 해당된다. 이러한 삶의 지침이 필요한 것은 지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 우리는 영계에서 살게 되는 데 그 때 있게 되는 우리의 영원한 삶은 전적으로 지상에서의 삶의 내적인 질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천국은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들을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저세상에서 천국에 속 할 수 없게 된다.

어느 누구도 결코 단시간 혹은 한 번에 내적 선(inner goodness)을 달성할 수 없다. 내적 선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그 다음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한 행동과 생각들을 지키고 보호해 가면, 주님은 우리의 이기적 경향성 대신 새 심정(new heart)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은 재구성(reformation)과 거듭남(regeneration)의 과정이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뜻을 배우고 실천하되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매일 매일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미가는 다른 예언자들처럼 백성들이 범한 죄들을 낱알이 드러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심판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스스로를 검토하며, 우리 안에 내재된 죄들과 싸워 나가야 한다. 이러한 영적인 전투에 단순한 선한 행위나 입으로만 하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와 같은 고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꾸준한 자기반성과 객관적인 자아성찰을 통해 내안에 잠재된 악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죄처럼 여길 때 재구성과 거듭남이 있게 된다.

각각의 소 예언서는 그 나름의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삶의 많은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는 예언서의 말씀들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위한 규칙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그것들(6:8) 날마다 암기하면서 우리 삶의 길잡이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베들레헬 = 선과 하나되는 진리

번제물 = 내적 예배의 표현물

희생 제물 = 파생적 믿음에서 나오는 표현적 예배

제 4반

소 예언서들의 성경 상의 위치와 가치를 강조한다. 또한 모든 하느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선을 위해” 주어지고 있음도 강조한다.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구절을 예언서에서 찾아내어 그것을 생활 지침과 더불어 내적 삶의 지침으로 삼아보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한다.

구약 성서를 종결짓는 열두 권의 책 중 소 예언서라고 부른다. “소”라는 글자는 각 책이 짧아서이지 내용이 빈약해서 붙여진 것은 아니다. 「예언서와 시편」에 관한 스웨덴본의 설명에 의하면, 유대 교회 속에 축적되어간 악들로 인해 고대 유대교회는 완전히 피폐(vastation)되었고, 그뒤 더 내적인 교회, 순수한 품성을 지닌 교회 즉 새교회의 건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열두 예언자 모두는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고 이스라엘과 유다로 각기 독립된 후 예언하기 시작했다. 요나서는 소 예언서 중 시대적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요나는 호세아나 아모스와 부분적으로 동시대에 살았으므로 유다의 히즈키야왕과 아사왕 사이인 웃시아왕, 아마시아왕 혹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에 존재했던 것으로도 추측된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소 예언서 미가는 대 예언서 이사야와 동시대, 즉 유다의 히즈키야, 아하즈, 아담 이렇게 세 왕들의 통치 시대를 포괄한다. 이스라엘의 함락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유다의 히즈키야왕 통치 때였으므로, 대부분의 소 예언서는 유다에서 이뤄진 것이다. 당시의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상태여서 북쪽으로부터의 외세 침략에 아주 약해져 있었다. 마지막의 학개, 즈가리야 그리고 말라기서는 유다 백성이 바빌론 유수이후 귀환하면서 예언된 부분이다. 따라서 모든 소 예언서는 우리의 이해성이 세상적 추론에 의해 침식당하고 그것의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의 선한 의도가 이기심에 대항하고 투쟁하며 외칠 때 혹은 우리가 이기심으로 휩쓸렸을 때 오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다. 그러므로 소 예언서들의 내용은 어린이들보

다 연장자에게 바람직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명확하고 도움이 되는 구절도 포함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문 6장 8절에서는 선한 생활을 위한 규율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이 구절을 비교해 보자. 예배에 있어서 형식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만약 예배의 형식이 예배의식이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담지 못하는 습관적인 행동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다. 즉, 예배 의식은 우리 일상의 진정한 선함과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선함에는 세 가지 평면이 요구된다. 이는 행동 면에서 정의로울 것, 생각 면에서 고상하고 친절할 것 그리고 심정 면에서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함이다. 이 모든 요구사항은 이기심을 극복하게 해 준다. 우리가 사리사욕을 우선하면, 우리는 정의로울 수 없다. 또한 우리가 타인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따라야 한다고 고집하면, 우리의 생각은 친절하거나 고상해 질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의 의지로 해 내려고 하지 않거나 주님에 관해 더욱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서 겸손해 질 수 없다. 본문 10-12절에서 유다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규율을 위반하는 실례들을 살펴보자. 우리는 이 세 가지 규율의 빛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 즉 특수한 행동과 생각 그리고 느낌들을 인식하여 우리의 거듭남의 길에 있는 걸림돌들을 치워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 대신 걸림돌을 치워낼 수 없으므로, 우리는 자신 속의 과오와 싸워 나가야만 한다. 우리가 세 가지 규율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더 행복하며 향상된 삶을 누릴 것이다.

제 5반

본문에 담겨진 두 가지의 중요한 요점들에 대해 이해하자. 첫째,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읽으면 안 되며 그 전체를 규칙적으로 읽어야 진정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본문 6장 8절을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소 예언서들의 실용적 목적을 위해서는 성경에 나열된 순서대로 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이 순서는 연대 순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각 책의 연대는 책 내에서 몇 번 언급되었으나, 각 예언자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책들은 모두 하느님의 영감으로 수록된 것이므로, 유대교의 정경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그들이 예언한 시대를 서술하고 있으나, 요엘과 오바디아 그리고 나훔서는 그렇지 않다. 요나서는 가장 빠른 시대로 추측된다. 요나는 엘리사 이후의 첫 번째 예언자이며, 다른 이들과 달리 그의 책에는 개인적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시간적으로는 요나 다음이나 같은 시대 사람으로 추정된다.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예언했다. 스바니야는 유다의 웃시야왕 시대에 예언했고, 하박국은 여호야קים의 시대에 예언했다. 그리고 학개, 즈가리야 그리고 말라기는 예루살렘 재건 시에 살았던 예언자들이다.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요나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예언했고 그 외 예언자들은 유다왕국에서 예언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 이 책들이 각기 매우 짧아서 한 묶음 안에 모두 기록했던 것이다.

문자적 의미에서 예언서들은 모호할 때가 많다. 문자적으로 예언서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부패한 상태를 다루면서 하느님의 선물을 악용함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황폐함, 아껴두신 선한 것들(good remnant)의 보존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에 관하여 언급한다. 대부분의 예언서는 기이한 환상과 여러 가지 명령들을 담고 있어서 상응에 의해서만 그 진정한 의미가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요나서는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화체로 기록되어 있다. 열두 권의 소 예언서는 네 권의 대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질책하며, 자포자기에 이른 선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준다. 설령 소 예언서의 내용이 우리의 이해성에 설득적으로 와 닿지 않는 다 해도, 우리는 그 책들을 겸손하고 주의 깊게 읽어 나가며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영감 있는 말씀들을 읽게 되면, 그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에 상응하는 천국의 천사들과 연결시켜 주고 그 천사들은 말씀들을 섬김과 더불어 우리를 돕게 된다. 본문에서 다루지는 구절은 각 예언서에도 발견된다. 하지만 본문 속의 구절은 직접적이고 명확하여 우리의 사고와 지침의 꾸준한 길잡이로서 역사할 수 있다. 우리는 말씀의 어느 부분을 읽을 때라도 그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본문에서 주님은 예언자 미가를 시켜 백성들에게 해 주신 당신의 일을 증언하도록 그들을 산으로 부르신다. 산이란 우리의 생각이 보다 높은 곳에 이르러 우리의 삶을 관조할 때 주님께 보다 가까워지는 우리의 심정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산(높은 곳)은 주님의 끊임없는 자비와 보호하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지만 반대로 산은 타락한 오므리의 정책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던 아합 왕조를 본 따는 듯한 우리의 배은망덕함과 건망증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적 방법과 사리사욕을 따르는데 주저함이 없는 우리의 성급함에 대해 증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고되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좋은 어떤 것 혹은 진실로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것을 포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주님은 선한 삶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우리를 방치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 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라는 구절을 심정으로 알고 자주 입으로 되새겨야 한다. 세 측면으로 나누어지는 선한 생활의 세 가지 요구사항은 그 바깥 측면이 그 시작에 해당 된다. 정의를 실천 하는 것(공의를 행함, to do justly)이란 천국을 향한 첫 단계로 계명의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순종을 뜻하며, 재구성(reformation)의 시작이며 물로 세례 받는 단계이다. 많은 사람들은 신약성서의 부자 청년처럼 이것만으로 다 된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자비를 사랑함, love mercy)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정의는 우리를 상하게 하는 자는 벌을 받으며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받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자비(mercy)는 우리에게 우리의 적을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며, 우리를 박해하고 심술궂게 이용하는 이들에게도 선하게 대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받는 세례이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를 한계로 멈춘다. 그리고 주장하기를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한 행동을 하고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면 그 이상 더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지만 주님은 말씀 하신다. 아직 가장 깊은 단계(inmost plane)가 있다고... 이 단계는 가장 깊으면서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지침의 질(quality)이 결정지어 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이 깊은 단계에 이른 사람의 삶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함(walk humbly with thy God)”으로 묘사 될 수 있겠다. 주님은 한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의 길이 주님의 길과 상반될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길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겸손하게 하느님과 동행하며 모든 선함과 진리 그리고 능력은 주님께에서만 구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상태이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공부한 말씀의 안내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불로 세례 받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옳은 삶을 살고 이웃에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 자랑과 자아만족을 즐기고 심지어 자기 심정의 문밖으로 주님을 내어 놓기도 한다. 천국이란 주님이 계신 곳이다. 우리의 심정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혹은 나중에 천국에 있을 수 없게 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니...” (마태복음 22:37-38)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10143항 3번과 4번)」: “[3] 번제물(burnt-offering)과 희생 제물(sacrifices)이 특별히 의미하는 바는 악과 거짓으로부터의 정화(purification), 그리고 그 후에 있게 되는 선과 진리의 주입, 그리고 그 둘의 결합, 그럼으로 있게 되는 거듭남이다. 이러한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은 진정한 예배 안에 있게 되는 데 그 이유가 악과 거짓으로부터 정화된다는 것은 그것들을 그만 두었다는 것과 그것들을 멀리하고 그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과 진리의 주입이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과 선과 진리를 말과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선과 진리의 결합이란 선과 진리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 이유가 선과 진리가 사람과 결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의지와 이해성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러한 인격을 가지게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신성한 예배가 있게 된다. 그것은 그가 모든 것에서 신성함을 찾고 신성을 공경하며 사랑하고 결국에는 신성함을 예배하기 때문이다.

[4] 예배가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것이 진정한 하느님에

대한 예배임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배에 속한 것을 입과 생각에서만 구성하고, 믿음의 선 혹은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게 되는 일(work)에는 비중을 두지 않는다. 주님은 찬양이나 기도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심정(heart) 곧 그들의 내면의 것들, 그들이 얼마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 지에 관해서만 주목하신다. 그러므로 만약 사람의 이러한 내면의 것들이 그의 찬양과 기도 안에 없다면, 이러한 찬양과 기도 안에는 생명과 영혼이 없는 것이 되고 단지 세상적인 것들 즉 아침들과 위선들 같은 것만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의 현명한 사람조차 싫어하는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질문 정리

- 1) 본문의 예언서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미가는 분단된 두 왕국 중 어느 곳에서 예언했는가?
- 3) 미가는 세 왕의 통치 시대에 예언했다. 세 왕은 누구인가?
- 4) 주님은 왜 예언자를 보내셨는가?
- 5) 미가 예언시대에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가?
- 6) 백성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 했는가?
- 7) 미가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 8) “to do justly”는 어떤 의미인가?
- 9) “to love mercy”는 어떤 의미인가?
- 10) “to walk humbly with thy God”은 어떤 의미인가?
- 11) 선한 생활에 대한 요구 사항은 우리 삶의 어떤 세 가지 단계에 있어야 하는가?
- 12) 왜 미가의 예언에서 이 세 가지 순서로 말씀이 주어졌는가?

질문의 답

- 1) 미가(Micah) 2) 유다 3) 요담, 아하즈, 히즈키야 4) 백성들의 잘못을 경고해

주기 위해서이다. 5) 속이고, 거짓말하고, 모독함 6) 희생 제물 7) 공의를 행하며(to do justly), 자비를 사랑하며(love mercy),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walk humbly)
8) 공정하고 정직함 9) 친절하고 도와주며 용서함
10)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함 11) 행위
(conduct), 생각(thought), 의지(will) 12) 우선 행위를 바르게 하고, 그것을 통해
생각을 깨끗케 하는 단계로 발전한 후에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의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

성전의 재건

머리말

성전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성막의 가구와 재건에 관한 근본적 계획을 고찰한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궤 또한 사라져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허용된 것은 모두 주님이 거룩한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성서 본문: 하께서 1장

1장: 1. 다리우스왕 제 이년 유월 초하루였다. 야훼께서 예언자 하개를 시켜 스알디엘의 아들 즈루빠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2.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백성은 아직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3. 야훼께서 예언자 하개를 시켜 하신 말씀은 이러하다. 4. “너희는 어찌하여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아랑곳없이 벽을 널빤지로 꾸민 집에서 사느냐? 5.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 돌아보아라. 6. 씨는 많이 뿌렸어도 수확은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성이 차지 않고, 입어도 따듯하지 않으며,

아무리 벌어 들여도 밀 빠진 독에 물붓기다. 7.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나의 성전을 지어라. 나는 그 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나 야훼의 말이다. 8.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 돌아보아라. 9. 많이 거두려니 했지만, 거두고 보니 얼마나 되더냐? 집에 들여 온 것마저도 내가 날려 버리리라. 만군의 야훼가 그 곡절을 일러 주리라. 너희가 나의 성전 무너진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제 집만 짓느라고 바빠 돌아다닌 탓이다.

10. 그러니, 하늘이 이슬을 내릴 성싶으나? 땅이 소출을 낼 성싶으나? 11. 나는 평지에도 산에도 가뭄이 들라고 선포하였다. 땅은 밀도, 포도주도, 올리브기름도, 밖의 어떤 소출도 내지 않아 사람도 짐승도 모두 배를 곯게 되었다. 너희가 손이 닳도록 한 일이 모두 허사가 되었다!” 12. 스알디엘의 아들 즈루빠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와 그밖에 살아남은 모든 백성은 저희의 하느님 야훼께서 보내신 예언자 하깨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야훼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13. 그래서, 하깨는 야훼의 특사로서 야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였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 야훼의 말이다.” 14. 야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즈루빠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와 그 밖에 살아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의 하느님, 만군의 야훼의 성전에 들어 가 일을 시작하였다. 15. 때는 유월 이십사일 이었다.

교리 요점

* 건전한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먼저 오셔야만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예언자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지속적인 존경을 받았음은 그가 느부갓네살왕, 메대왕 다리우스 그리고 페르샤왕 고레스 때에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바빌론에서 노예화 되지 않았고 일부는 그곳에 정착하여 번성했으므로, 고향으로 귀환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주님은 많은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거룩한 땅에서 태어나셔야 했다. 따라서 끌려간 백성들 중 일부는 되돌아 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해야 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포로가 된지 70년 후에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예레미야 29:10) 고레스 왕은 백성들의 귀환을 허용했다. 역사가인 에즈라는 주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임무를 맡겼다고 말했다. 그래서 고레스는 귀환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돈, 양식, 옷 그리고 가축 등을 원조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스스로도 과거 느부갓네살왕이 빼앗아 온 성전의 금과 은 집기들을 되돌려 보냈다. 귀환자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옛 솔로몬의 성전 위치에 제단을 쌓고 새 성전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 그 후, 그들은 거의 16년 동안 더 이상 건축에 대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전을 보지 못한 이유를 사마리아인들과 가졌던 언쟁 탓으로 돌렸다. 사마리아인들은 과거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을 끌고 가 정착시킨 사람들이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성전 재건이 지연된 것은 그들과의 언쟁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언자 하깨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성전 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의해 보내졌다. 성전 재건이 지연된 진짜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집을 짓는 것을 우선하지 않고 그들의 편함을 위해서 그들의 집을 짓기를 우선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집이란 인격에 대한 상징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지시에 따라 그분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인격을 짓는다면, 우리의 인격은 주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안과 이익을 위한 집을 짓기에 집중하여서 자신 안의 주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방치해 둔다.

하깨는 백성들이 뉘우치고 성전건축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여서 성전 재건은 그 후 4년 만에 완공됐다.

제 1반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깨의 예언이 주는 교훈을 찾아본다. 그리고 본문 1장 4절을 암송하면서 주님의 섬김이 우리 삶의 첫 번째에 위치해야 함을 기억하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은 유다 왕국이 바빌론 왕에 의해 정복되었을 때 파괴되었고, 그 안의 금과 은 집기들도 모두 바빌론에 빼앗겼다. 주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이 지난 후 그들의 땅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

고, 70년 이후 고레스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영감을 불러 넣으셨다.

요점 및 질문정리

- * 고레스왕은 귀환을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돈과 가축 그리고 의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고레스왕은 그들이 귀환할 때 과거 느부갓네살왕이 성전을 불태우면서 강탈해 온 금과 은 집기들도 가지고 가도록 했다.
- * 백성들이 그들의 땅으로 귀환했을 때, 그들은 과거 성전이 있었던 곳에 먼저 제단을 쌓았다.
- * 다음 해에 그들은 새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 * 그 후 그들은 실망에 빠졌고 그들의 집을 재건하는데 급급하여, 16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성전 재건은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 * 어느 예언자가 백성들을 질책하러 보내졌는가?
- * 그 예언자는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멈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 * 그 예언자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는지 말했는가?
- * 백성들은 그의 말을 경청했다
- * 백성들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그 뒤 4년 후에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다.
- * 그 후, 그들은 과월절 축제를 가졌다.

제 2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역사의 줄거리에 중점을 둔다. 그 줄거리는 에즈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책을 참고하여 하개의 질책과 더불어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을 놓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고찰한다.

- * 어떤 히브리 예언자가 바빌론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까?

- * 그 예언자의 세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 * 이 친구들이 무슨 일로 극히 위험한 지경에 처하기도 했습니까?
- * 그들은 누가 구해 냈습니까?
- * 그 결과 바빌론의 왕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 어느 예언자를 주님은 그들에게 보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습니까?
- *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 지연된 진짜 이유가 뭐라고 하깨는 말했습니까?
- * 그리하여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유다의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갔지만, 노예 같은 비참한 대우는 받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주님께서 70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으므로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읽어 보자.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강제 이송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샤가 바빌론의 통치자가 되었다. 이후 유다의 왕들은 느부갓네살왕의 시정을 따랐으며, 여호와와 그들이 경외해야 할 하느님이심을 인식하고 있었다. 주님은 고레스왕의 심정에 이러한 인식을 강하게 심으셔서 히브리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할 수 하도록 종용하셨다. 이에 대한 것은 에즈라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에즈라서는 내적 의미는 없지만, 우리에게 포로 신세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의 사정을 잘 알려 준다.

에즈라서 16장까지의 성전재건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황폐된 채 버려진 성전의 터를 보았을 때, 그들은 먼저 성전 재건을 약속하는 제물을 바쳤다. 그 후 그들은 각각 그들의 땅에 집을 짓고 작물을 가꾸기 위해 흩어졌다. 그 뒤 십칠 개월 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수확을 기념하는 축제를 갖기 위해 모였다. (레위기 23:33-36 참조) 그때 그들은 번제를 위한 큰 제단을 쌓았고, 그들은 다음 해에 성전의 기초를 닦았다. 그러나 그들은 사마리아인 (과거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고 대신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과 곤란한 일을 겪게 되어 약 16년 동안 성전 짓기를 미루었다.

백성들은 주님의 질책이 있는 뒤 예언자의 말에 순종하여 4년 만에 성전재건을 마쳤다. 고레스왕은 과거 느부갓네살왕이 강취했던 성전 예배를 위한 금과 은 집기들을 되돌려 주었다. 그러나 궤(ark)는 결코 되돌아오지 않았다. 궤는 솔로몬의 지성소

(Holy of Holies) 안에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었을 당시 궤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백성들과 더불어 주님의 나타나심은 궤를 통해 있어 왔다. 따라서 바빌론에서 귀환 후의 유다 백성들은 궤의 부재로 인해 더 이상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이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장차 유다 백성 사이에서 거룩한 땅으로 강림할 것이라고 예언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주님의 강림은 약 사백여 년이 지난 후 있게 되는데, 이 세월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없다. 이 세대에 대한 유일한 기록들은 성경에 포함된 에즈라서와 느헤미야서이다. 이 책들은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그 과정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 외에 이 시대에 관련이 있는 성경의 책들은 하깨, 즈가리야, 말라기서이다. 예언자들은 귀환 후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들 중 소수의 선한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했다.

그들은 성전이 완성된 뒤 과월절을 기념했고, 이후에 국가생활 형태로 정착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어떤 외국 세력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들은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에도 그들의 왕(헤로데)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로마 총독의 통치하에 있었다.

제 3반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재건하는데 외적환경을 방해요소라고 여겼던 것과 이와 반대로 하깨가 그들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지 못했던 실제 이유를 지적한 점을 중점 살펴본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지연되는 실제 원인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 주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Be honest with yourself”라는 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페르샤의 고레스왕은 바빌론을 정복한 후 유다에서 온 포로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빌론에 머물러 있기를 선호했다. 그러나 소수의 귀환을 결심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와 고향을 지켜야겠다고 여기며 바빌론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다. 바빌론이란 자아 사랑에 근거한 지배욕을 표현한다. 바빌론이 우리에게 있는 상태란 모든 것의 중심이 자아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인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경향성을 뜻한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성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바빌론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곳을 떠나 영적 삶인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요구된다.

예루살렘의 몰락과 더불어 바빌론의 신전에 보존되었던 성전의 금과 은 집기들은 고레스에 의해 그 집기들의 용도에 알맞도록 돌려보내졌다. 성경에서의 그릇(container)은 교리(doctrine)를 상징한다. 따라서 성전의 금과 은 집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 주는 말씀에 있는 선과 진리의 교리를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자아를 섬김(service of self)에 쓰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사리추구에 눈이 먼”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의 행동적인 면에 있어서는 계명을 준수하는 척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빌론 신전 안에 보관된 성전의 집기가 갖는 의미이다. 우리는 자아가 아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바램으로 주님의 교리에 순종하고, 바르게 처신하고자 하는 바램으로 의를 행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상적 원리와 이기적 중심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 벗어나 주님으로 귀향하고자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의 터에 성전을 재건해야 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했던 이유는 지상에서 있게 될 주님의 삶의 무대가 바로 거룩한 땅이었으며, 말씀에서 예언된 것들의 성취와 고대 교회 시대에 건설된 성경의 각 장소들의 상응 때문이다.

그들은 귀환한 후 성전을 재건하는데 20년 이상을 소요했다. 에즈라서는 내적 의미는 없지만, 성전 재건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사마리아인들은 거룩한 땅의 북쪽지역인 이스라엘 왕국의 자리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강제로 이주 시킨 사람들이다. 귀환한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함을 허용하지 않았다. 사마리아인들은 바빌론 왕에게 이를 잘못 전달하여 그는 성전 재건을 중지 하도록 명령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포기하는 적절한 구실로 사용되었다.

예언자 하개는 백성들에게 “이 백성은 아직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너희는 어찌하여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아랑곳없이 벽을 널빤지로 꾸민 집에서 사느냐?”라고 성전 건축의 중단에 대해 말했다. 우리의 “널빤지로 꾸민 집”이란 우리의

아주 협소한 만족감, 위로 혹은 쾌락과 같은 밑바닥에 속한 선을 돌보려는 우리의 “권리(rights)”를 뜻한다. 우리가 먼저 재건해야 할 주님의 집이란 주님을 섬기는 자세와 겸손에 기초를 둔 인격이다. 주님의 집(인격)은 우리가 원하는 것 혹은 우리의 물질적 삶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얻는데 방해 요소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인격의 사람들에게 하깨는 경고하기를, 삶 중심에 주님의 집을 짓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어떤 번영이나 만족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하깨 서에는 “너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돌아보아라. 씨는 많이 뿌렸어도 수확은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성이 차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아무리 벌어드려도 밭 빠진 독에 물붓기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자신만을 고집하는 사람 혹은 자신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든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기본 상응 공부

용기, 그릇 = 교리 (doctrine)

성전의 금과 은 집기들 = 말씀에서 온 선과 진리의 교리들

제 4반

3반에서의 요점을 폭넓게 적용해 본다.

에즈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수용소 신세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귀환했던 것, 성전의 재건 그리고 국가형태의 재조직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준다. 두 책은 말씀의 내적 의미는 없지만, 성경에 수록된 다른 책들과 더불어 말씀의 속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역사적 자료와 배경을 제공한다. 에즈라서 1장 1-2절에서는 “페르샤 황제 고레스 제 일 년 이었다. 야훼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샤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고레스는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리고 그것을 적은 칙서를 전국에 돌렸다. “페르샤 황제 고레스의 칙령이다. 하늘을 내신 하느님 야훼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유다나라 예루살

램에 당신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지워 주셨다.”라고 기록된다. 페르샤는 당시 강력하여 바빌론의 영토를 정복했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의 포로 생활 후 거룩한 땅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29:10) 그들이 귀환해야 했던 것은 예언에 따라 주님의 강림 전에 준비과정으로서 유대주의의 재건설과 성전의 재건에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에즈라서에서 서술하는 성전 재건에 관한 환경상의 요인과 예언자 하깨가 지적하는 성전 재건에 관한 심정상의 요인을 비교해 보자. 우리는 에즈라서에서 백성들이 기록해 두고 기억하기를 원한 그대로의 바깥쪽 역사에 관한 실상을 본다. 그러나 우리는 하깨서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안쪽에 감춰져 있는 영적 요인들을 알 수 있다. 에즈라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재건 과정을 16년이나 지연 되게 했다고 생각케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깨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지연된 원인이 주님을 섬기는 대신 자신들의 안락을 우선하고자 핑계를 찾았던 백성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본문 2절에서는 “이 백성들은 아직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라고 서술한다. 우리 역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미루기 위해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운 점을 핑계로 삼고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세상은 아직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선은 안정된 교회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활용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무언가를 찾는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거야.” 하지만 이런 주장과 방법은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 게으름의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하깨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과의 좋지 않은 일을 성전재건의 지연에 대한 핑계로 삼은 것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의 결실을 맺는데 실패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안락함에만 관심을 둔다든지 또는 소심함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이다.

본문의 역사는 에즈라의 견해와 하깨의 견해를 비교하고 고찰하면서 알 수 있다. 전쟁을 예로 생각해 보자. 흔히 전쟁은 적국에 대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형세에 따른 결과로 추측되지만, 전쟁의 사실적 원인은 모든 이들의 심정 속에 틀어박힌 이기심과 세상의 견지로 인한 것이다. 전쟁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개개인의 심정으로

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평화는 군사적 균형, 정치 혹은 경제적 조절에 의해 달성되고 보존된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평화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겸허한 개개인의 심정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진정한 평화가 평화의 왕으로부터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인관계가 의롭고 자비로우며 주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 쌍방의 차이점을 보완해 간다면 세상적 평화는 당연한 것이다. 주님의 성전은 반드시 먼저 세워져야 하는데, 이는 개개인의 심정과 지성 속에 먼저 주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에즈라의 자취하에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매우 슬퍼했는데, 그 이유가 새로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께서도 이러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2장 3절)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이미 황폐되어 저질이 되어 버린 인격을 재건하는 과정의 시작이 초라하고 불품없이 느껴짐을 뜻한다. 내 속에 이미 틀이 박힌 나쁜 습관들을 늦게라도 깨우치고 고쳐 보려고 애쓸 때, 남모를 고심과 실망만이 마음에 가득함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을 하께를 통해 우리가 정말 신실하다면 그 마지막은 그 시작 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예전의 성전보다 더 신성화 로울 것이다...” (하께서 2:9)

제 5반

포로들의 귀환과 재건에 관한 역사를 살펴본다. 우리는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더라도 귀환과 재건에 관한 기사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는 그것에 관한 성경의 기사들이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 담긴 깊은 의미를 통해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훈을 찾아본다. “귀환”이 뜻하는 구체적인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갖는 의미를 알아본다.

열왕기하 마지막 몇 구절에서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포로가 된 후 37년 만에 바빌론왕의 친절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시작이다. 예레미야 27장 10절에서는 70년 후에야 백성들이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쓰여 있다. 에즈라서 1장 1절에는 " 주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기 위하여 페르샤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쓰여 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도록 했다. 이 후의 바빌론 정복자들인 메대왕 다리우스와 페르샤왕 고레스도 그것을 인정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세상적 견지에서 번영했으므로, 그들의 고향으로 귀환할 마음이 없었다. 고레스는 귀환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남아있기를 원한 자들에게는 금, 은, 가축, 의복 그리고 지원 예물을 내놓아 귀환자를 협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는 귀환하는 백성에게 과거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취했던 금과 은 집기들도 되돌려 주었다. 첫 번째 귀환한 이들의 숫자는 하인과 하녀 7,337명을 빼고도 42,360명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즈루빠벨은 귀환 길의 지도자였다.

이 후 약 8년 뒤에는 아르닥사짜 황제 통치시대 때 에즈라의 지휘 하에 두 번째 귀환이 있었다. 남자만 최소 1,750명에 그들의 가족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에즈라는 서기관이며 사제였고 아론의 직계 후손이기도 했다. 조세퍼스(Jesephus)는 에즈라가 바빌론에 체류한 이들의 대 제사장이었다고 말한다. 이는 에즈라가 페르샤왕의 후한 대접을 받았던 것, 귀환 여정과 성전재건을 위한 기금마련에서 충분한 성과를 얻었던 것, 예루살렘의 공공업무에 사람들을 임명한 것, 판관과 행정관을 임명한 것 그리고 범법자를 사형까지 언도한 것 등을 근거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에즈라서가 예언서적 위치에 있어야 함은 아니다. 이 책은 즈루빠벨 하에 귀환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에즈라가 귀환하는 것까지에 관한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불과하다. 느헤미야서는 (특히 8장) 초막절 때에 예루살렘에 대거로 모여든 군중이 있었음과 그곳에서 에즈라가 군중들에게 법전을 낭독했음을 알려 준다.

스웨덴북은 요한 계시록 설명 (AE 1029°)에서 교회의 소멸과 포로 생활의 관계, 그리고 귀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뒤의 참고 문헌 참조) 여기서 스웨덴북은 왜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귀환하여야만 했는지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하고 있다. 유다 백성들의 귀환은 말씀과 예배가 그 형체로나마 주님의 강림이 있을 때까지 거룩한 땅에서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귀환한 유다백성들은 더 이상 선과 진리에 관한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게 되었다. 세 예언자인 하깨, 즈가리야 그리고 말라기는 백성들이 그들의 사정을 알도록 하고, 소수의 선한 이들에게 메시아의 약속을 공포하기 위해 보내졌다. 그러나 예언서들 외의 많은

다른 역사적 자료들은 예언적 말씀에 해당되지는 않고 단지 주님의 삶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에 불과 할 뿐이다.

고레스왕은 백성들이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 주님의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귀환을 선포했다. 그러나 성전의 기초가 놓인 후 거의 16년 동안 성전건축은 중단되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인들 대신 데려다 놓은 이방인들인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짓는데 일조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즈루빠벨이 그 제의를 거절하자 사마리아인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성전 재건이 지연되게 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인들은 고레스왕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예루살렘은 언제나 반역만 하는 성이었으므로 재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왕은 편지의 내용에 동의해 성전 재건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유대 인들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서 성전재건은 마냥 지연되었다. 그러나 예언자 하깨와 즈가리아의 훈계와 간곡한 권유로 인해 백성들은 다리우스왕에게 대표단을 보냈다. 당시 관습은 메대와 페르샤의 법이 바뀔 수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대표단의 요구대로 다리우스는 과거 고레스의 비망기를 찾아내 확인했다. 그래서 성전의 재건이 다시 시작되어 이후 4년 만에 완성되었다. 결국 성전재건은 기초가 놓이고 완성되기까지 2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된 것이다. 이리하여 큰 축제와 과일절 기념과 더불어 성전 봉헌 예배가 있게 되었다. 구약 성서에서의 과일절 기념의 의미는 국가적으로 한 단계 진보하는 것과 각각의 개혁의 성취를 알리는 신호이다.

성전이란 주님의 계획에 따라 지어진 인격체 즉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따라서 성전의 재건이란 악으로부터 벗어나 선함으로 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표현한다. 예언자 하깨는 백성들이 거룩한 땅으로 돌아 온 뒤 그들의 높은 목적에서 얼마나 빨리 되돌아섰는가를 생생히 보여준다. 백성들은 그들이 누울 집은 지었으나 주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방치했다. 이는 주님에 대한 내용적 헌신은 결여되고 형식적으로만 헌신하는 개혁의 생활상을 표현한다. 그들에게는 스스로의 안락이 최우선 과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재구성(reformation)은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것은 본문에서 “너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돌아보아라. 많이 거두려니 했지만, 거두고 보니 얼마나 되더냐? 집에 들여 온 것마저도 내가 날려 버리리라. 만군의 야훼가 그 곡절을 일러 주리라. 너희가 나의 성전 무너진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제 집만

짓느라고 바빠 돌아다니는 탓이다.”라고 표현된다.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는 언약의 궤(ark)가 없었다. 솔로몬 성전의 파괴 후 궤의 보존 혹은 회복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주님이 임하셔서 계실 중심부가 텅 비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귀환한 백성들의 국가적 형태의 회복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한 개혁을 시도할 때도 있게 된다. 되돌아가는 길 즉 주님으로의 귀환은 생각만큼 행복하거나 쉽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외적 생활 혹은 사회생활은 질서 있게 해 두어서 사회에서 존경받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인격은 다시 완전히 세워져야 하며, 그것은 긴 세월이 요구되는 아주 느린 과정이다. 우리가 우리의 무기력함과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셔야 만이 구원, 행복 그리고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할 때까지 주님은 새로운 성전에 오시지 않는다. 우리 자신의 명성 혹은 눈에 보이는 신성화 로움으로 지어진 성전은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즉 후에 즈루빠벨의 성전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던 것이다. 그 후 주님의 강림 전 헤로데왕 때에 또 다른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이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성전이다. 이 성전 역시 A.D. 70년경 로마인에 의해 파괴되었다.

성전 회복 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이들에게 슬퍼하는 날의 끝이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확고히 공포했다. 즉, 말라기 4장 2절에서는(공동 번역 3:20)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 두려운 줄 알고 살았으니, 너희에게는 승리의 태양이 비쳐와 너희의 병을 고쳐 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하깨서 2장 9절에서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예전의 성전보다 더 신성화 로울 것이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나는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구약 성서는 자아대신 주님을 찾고 절대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끝을 맺는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1029^e항)」: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은 과거 교회의 영적인 것들을 표현해왔던 지위를 잃게 되었다. 그들은 그 지위를 통해 천국과 교통할 수 있었지만, 그 지위가 아시리아왕의 손아귀로 넘어간 후에 그것은

불가능했다. 즉, 그들은 더 이상 표현성을 갖지 않고 천국과의 교통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다 백성들은 믿음의 선과 진리를 표현해 왔던 율법이나 모든 지위 등을 뒤섞고 모독하여 선과 진리의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남지 않게 되었다. 유다 백성들이 상징하던 교회가 바빌론과 하나가 되어 버렸을 때 그들의 왕, 왕자, 전 백성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을 포함하여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모든 집기들까지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성전도 불태워 졌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상징하는 바는 교회 속의 거룩한 것들에 대한 모독을 의미한다. 바빌론이 의미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모독이다. 하지만 그 결과 하느님의 교회를 상징했던 땅 즉 거룩한 땅은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 의하여 더 이상은 모독되지 않게 되었고, 다만 바빌론이 상징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예레미야에 의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바빌론왕에 항복하게 될 것이고, 만일 스스로 포기치 않고 그 땅에 남아 있겠다하면, 칼에 의하여, 기근에 의하여 각종 질병과 같은 재앙으로 죽게 되리라"라고 예언되었다. (25:1-11)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유다 백성들은 칠십 년의 포로 생활 후에 귀환되어 질 것이고 성전 또한 재건되어 질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성전의 재건이 반드시 필요했던 까닭은 상응의 원리로 주님께서서는 유다 왕국의 땅에서 태어나야만 했고, 그럼으로서 교회가 무엇이며 하느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귀환한 곳에 남아있는 교회는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교회뿐, 그전에 있던 유다 백성들로 상징되던 교회는 이미 남아있지 않았다. 이것은 주님께서서 예언서들을 통해 이러한 여러 나라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들에서 알 수 있고, 또한 그 땅의 백성들이 탄생하신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를 보면 이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은 로마제국에 의해 다시 한 번 파괴 되어졌고 성전도 불타버렸던 것이다."

질문 정리

- 1) 어떤 통치자 때에 유다 백성들의 귀환이 허용 되었는가?
- 2) 그들의 포로생활은 얼마동안 지속되었는가?

- 3) 고레스왕은 귀환하려는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 했는가?
- 4) 왕은 귀환 백성들에게 무엇까지 되돌려 주었는가?
- 5) 귀환자들은 성전재건의 지연 원인으로 어떤 것을 핑계 삼았는가?
- 6) 어떤 예언자가 핑계 많은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 보내졌는가?
- 7) 예언자는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 8) 성전의 금과 은 집기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9) 유대인들이 거룩한 땅에 되돌아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고레스 2) 70년 3) 성전을 재건하라고 4) 성전에서 강탈해왔던 금과 은 집기들 5) 아직은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6) 하깨(Haggi) 7) 자신들의 안락에 더 관심이 있었다. 8) 어떻게 올바르게 사느냐에 관한 말씀의 가르침 9)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유대주의의 재 건립과 성전재건을 위함이다.

26

주님이 세상에 오시다

머리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연속적인 성서임을 주지해야 한다. 신약과 구약 사이는 약 400여 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유대 민족은 거룩한 땅에 정착함과 더불어 옛날의 예배를 재건했다. 모든 신약 성서의 공부는 구약성서의 내용에 의존되어 연속된다. 따라서 우리는 신, 구약 관계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이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뤄져 있듯이, 우리는 지상에서의 주님의 삶에 관해 공부할 때에도 주님의 이중적 본성 즉 아버지로부터 온 신성(the divine)과 신성을 옷 입힌 마리아로부터 온 유한한 인성(the finite humanity)을 기억해야 한다.

성서 본문: 마태복음 1장 18-25절, 2장 13-23절

1장: 18.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20.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22. 이 모든 일로써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23.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 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25.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내다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다.

2장: 13. 박사들이 물러 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 줄 때까지 거기에 있거라”하고 일러 주었다. 14.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5.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6.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 본 때를 대증하여 베들레헬과 그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17.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18.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9. 헤로데가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20.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하고 일러 주었다. 21.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가서 23.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그를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교리 요점

- *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곱해하여 더 이상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를 통해 인도하실 수 없게 되자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야만 했다.
- * 어린 시절 주님이 받은 교육은 말씀의 글자에 관한 것이었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구약은 성전재건과 주님의 강림을 예언함으로 마무리 된다. 본문과 구약성서 시대 사이는 약 사백년의 시간차가 있으며, 그 기간은 힘든 고난의 역사였다. 그들은 거룩한 땅에 있었으나 오랜 시간 타민족의 통치하에 놓여 있었다. 유대의 후손들의 오랜 역사는 하느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주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지상에서 주님의 교회를 표현하는 권리를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이 “율법과 예언서를 성취”하시기 위해 유대인의 어머니로부터 그곳에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하느님의 섭리 하에 계속 보존되었다.

주님이 태어나실 때 백성들은 그들의 왕 헤로데가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로마 황제의 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헤로데는 로마 총독의 감독 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옛 성전 터에 새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으며, 교회 지도자들은 그곳에서 종교 법률을 성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메시아를 아주 강한 왕으로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구원자로 인식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헤로데는 메시아에 게조차 그의 자리를 양보하기를 원치 않았다.

신약 성서 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리스도(Christ)란 그리스어 (Greek word)로 메시아 즉 하느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예수(Jesus)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Jehovah Saves)”를 의미한다.

우리는 주님이 이집트로 피신하여 살게 된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던 것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가서 보호받았던 것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집트가 기억적 지식을 의미함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이집트로 피신한 사건으로부터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악들을 정복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주님께서 악들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 본성을 입으시고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었다. 스웨덴봄은 사람의 영적 본성을 영(spirit)과 혼(soul)로 구분하는 데 여기서 영은 영체 즉 육체 안에서 형성되어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될 영으로된 몸을 뜻하며, 혼은 영체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영은 우리의 삶의 질에 따라 그 모양과 형상이 결정되어 지는 우리의 내적인 몸이고 혼은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이르는 곳, 곧 우리 생명의 근원이다. 그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soul)은 하나님 즉 신성한 사랑 자체였다. 하지만 그분의 영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육체에 존재하던 모든 악들을 이겨내는 가운데 성장하고 계발되어 져야만 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겪는 재구성과 거듭남의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대적하여 싸우셨던 악들은 우리들이 싸우는 악들과는 차원이 달랐는데 그 이유가 주님께서서는 그 때까지 인류에게 축적된 모든 악한 경향성들과 싸우셔야 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어떤 지식도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배워야만 했다. 이것이 이집트에 체류하셨다로 기술된 말씀의 의미이다. 주님 역시 기억적 지식을 마음(His mind)에 저장하셨는데, 이는 구약성서에 관한 글자적 지식을 뜻한다. 복음서들을 보면 주님께서 구약성서에 대해 매우 해박하셨음 알 수 있다. 주님의 인간적 본성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 3장에서 주님의 세례 받는 내용으로부터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 1반

예수의 친아버지가 요셉이 아님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꿈속에서 요셉에게 지시되었던 것과 아기에 대한 사항을 강조한다. 또한 나자렛의 이름과 그곳에서 주님이 성장했음도 기억하자.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공부해 보자.

- * 성경은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가?
- * 지금 우리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가?
- * 신약성서의 첫 권은 무엇인가?
- *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 그분의 어머니는 누구였는가?

- * 그분의 아버지는 누구였는가?
- * 마리아 남편의 이름은 무엇인가?
- * 본문 23절 예언에서 주님은 무엇이라 불렸는가?
- * 헤로데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 * 요셉은 거룩한 땅으로 주님을 데려가도 되는 시기를 어떻게 알았는가?
- * 요셉과 마리아는 거룩한 땅 어느 곳에서 살았는가?
- * 나자렛은 어느 지역의 일부인가?
- * 주님은 어느 지역에서 성장하셨는가?

주님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주님 역시 우리와 같이 아기로 태어나 성장해야만 했다. 본문은 주님이 아기였을 때 어떻게 돌보였는가를 알려준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본 후 그것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별을 따라 거룩한 땅으로 갔고, 헤로데 왕에게 유대의 새 왕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헤로데 왕은 이에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매우 반가운 체했다. 헤로데 왕이 위선을 부린 이유는 그는 새로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새로 태어난 왕을 확인하여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헤로데 왕의 명령을 받은 율법학자들은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성서의 예언을 찾아냈다. 헤로데는 동방박사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알려주며 예언의 주인을 찾으면 꼭 자기에게 돌아와서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주님을 발견하고 가져온 선물, 향금, 유향 그리고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러나 그들은 꿈속에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되어 다른 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갔다.

제 2반

성서지도를 통해 신약시대의 팔레스틴에 있던 3지역을 기억한다. 또한 각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본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공부하자.

- * 성서는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가?
- *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성경의 어떤 부분인가?
- * 말라기서 3장과 4장에는 무엇에 관한 예언이 있는가?
- * 신약 성서는 어떤 큰 사건과 더불어 시작되는가?
- * 동방박사들의 출신지는 어느 곳인가?
- * 그들은 주님의 탄생을 어떻게 알았는가?
- * 그들은 거룩한 땅으로 가는 행로를 어떻게 발견 했는가?
- * 그들은 주님에게 무슨 선물을 가져 왔는가?
- * 그들은 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않았는가?
- *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를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 * 이 사항은 요셉에게 어떻게 밝혀졌는가?
- *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한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발견된다.
- * 이 예언에서 주님은 어떻게 불렸는가?
- *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인가?
- * 주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 * 주님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 *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로데는 무슨 행동을 저질렀는가?
- * 오래 전 누가 이집트에 내려갔었는지 기억하는가?
- * 그들은 왜 그곳으로 갔는가?
- *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어느 구역에 속했는가?
- * 나자렛은 어느 영토에 있었는가?
- * 이집트에서 나자렛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것을 요셉은 어떻게 알았는가?
- * 요셉은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 * 본문 1-2장에서 주님은 몇 번이나 요셉의 꿈에서 말씀하셨는가?

본문은 주님 자신에 관한 것과 이집트로 피신하신 것에 대해 알려준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지만, 주님의 친아버지는 아니었다.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며,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진 자”란 뜻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Greek word)로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에 해당된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름들을 알고,

그들의 의미 또한 이해해야 한다.

본문은 동방박사의 출발을 있게 한 사건과 주님이 꿈에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주로 한다. 당시의 유다는 로마황제의 통치 아래 있었고 헤로데가 왕이었다. 따라서 헤로데왕은 로마에 공물을 바치며, 그 지역 내에 있는 로마 총독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당시 다른 유대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여호와에게 아주 신실한 체했고, 과거 솔로몬과 스룹바벨의 성전 위치에 아주 큰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이 성전은 다음 대 왕에 가서야 완성되었고, 그것은 성전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 그러나 헤로데는 선한 왕이 아니었으며, 성전을 지은 것 또한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였다.

백성들은 구약성서에 있는 많은 예언들을 통해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타민족의 압제 하에서 벗어나 큰 국가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헤로데 또한 이러한 예언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를 발견하면 돌아 갈 때 꼭 자신에게도 알려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그의 진심이 아니었다. 그는 유대의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유대교의 믿음에 충실한 척했다.

이집트는 특수한 기후 조건으로 고대 세계의 곡식 창고였다. 많은 국가들은 양식이 부족할 때 그곳에서 양식을 사거나 얻어 왔다. 우리의 마음 역시 육체와 같은 양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더욱 발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말씀에서의 이집트는 지식이 저장될 수 있는 마음의 평면 즉 기억적 지식을 의미한다. 기억적 지식이란 교회 혹은 학교 등으로부터 배워서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된 각종 지식을 뜻한다. 주님은 아기였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으며, 이로 인해 헤로데로부터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이는 주님 또한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처럼 배워야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mind)을 채운 지식 중 특별한 것은 구약성서에 관한 글자적인 지식이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구약성서를 인용하셨음을 주목해야 한다.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까지는 구약성서의 마무리 후부터 사오 백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었다. 바빌론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 후손들은 상당히 많았고, 그들은 거룩한 땅 전역에 흩어져 살았다. 그 땅에는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렀다. 이방인이란 유대교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 땅에는 로마 황제의 명을 받들기 위한 병사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그 땅에 거주하도록 이동시킨 사람들의 후손으로, 그리스인들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국가의 사람들도 섞여 살았다. 그들은 특히 북쪽 지방에 많이 거주했다. 당시 거룩한 땅은 남쪽의 유다, 중부의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의 갈릴래아 세 지역으로 나뉘었다. 성서지도를 참조하면 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님은 나자렛에서 거의 성장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지상 생활 마지막 3년 동안 갈릴래아 해변가 가버나움에서 거주하셨으며, 큰 축제 때와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때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 주님의 생애와 연결되는 네 장소 즉 베들레헴, 나자렛, 가버나움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억하도록 하자.

제 3반

주님의 신성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의미와 그곳에 주님이 체류했음이 언급된다.

성경의 첫 절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의 의미를 상기해 보자.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영(spirit)이 자연적인 면과 영적인 면 모두를 지니게 되며, 삶을 통해 두 가지 중에서 스스로에게 우선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음을 뜻한다. 주님은 성서의 시작에서부터 인간이 자연적 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불행만을 초래하게 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공부해온 성경의 이야기들을 대략 훑어보면, 사람들은 주님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며 그들의 자연적 감각만을 신뢰했다. 그들은 점차 삶의 내적 즉 높은 평면에 대한 의식을 잃어 순수한 영적 진리의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주님은 이 세상에서 명령을 지키면 보상이 따르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방법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상과 벌을 통한 방법조차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하는데 성과를 보지 못하는 때가 왔다. 성경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자들 즉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 무지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는 정말로 의를 행하기 원하고 하느님을 믿으며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진리를 배울 수 없었고, 인간이 창조되고 도달해야 하는 천적 수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인류가 하느님과의 모든 연결을 잃어버리고 파멸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주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에게 다가 오셔야만 했다. 주님께서 진리를 삶으로 완성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또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해 지상에 오셔야만 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시험을 극복케 하는 그분의 권능을 입증해 보이고 진정한 인간 삶의 본모습을 보여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던 것이다.

구약성서에는 주님의 강림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다. 그 중 두 예언은 마태복음 1장과 2장 (1:23,2:6)에 인용되어 있다. 사람들은 강림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고 이론적으로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통 받고 억압받는 가난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헤로데와 같은 통치자,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착복하기에 바빴고, 종교는 그들의 행동을 은폐하거나 명예를 취하는 수단으로만 이용했다. 헤로데는 가장 큰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그곳에서의 예배가 부패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헤로데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종교가 겉치레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본문 2장 7-8절과 2장 16절에서 유다의 왕인 헤로데는 우리의 심정을 주도하는 이기심을 표현한다. 이기심은 진리가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언제나 완강히 저항한다. 이는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결국 이기심이 멸망하기 때문이다. 메시아란 “기름 부은 자”로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이다. 본문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명확히 가르치고 있으므로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다. 예수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란 구세주 즉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의미한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으로서 인간 형체로 세상에 오신 하느님 자신을 뜻한다.

요셉은 본문 1장과 2장에서 여러 번 주님에 의해 꿈속에서 훈계되고 있다. 본문의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와 연결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구약과 신약은 계속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증으로서 마태복음 1장의 시작에서 예수의 계보를 설명한다는 것, 본문의 예언들 그리고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이집트로 피신하여 살게 된 것 등이다. 앞서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이집트에 대해서 공부했다. 히브리인들은 초기에 이집트로 내려간 일이 꽤 많았다. 이집트는 고대 세계의 곡식 창고로 기억적 지식을 뜻한다. 우리가 학교 혹은 교회 등에서 삶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을 때는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주님 역시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날 때 무기력하고 무지하여 지식을 습득해 나가야 했다. 하지만 주님은 어느 인간보다도 더 빨리 완전하게 습득해 갔다. 또한 주님은 특별히 구약성서의 글자적 지식을 완전하게 배우셨기 때문에 신성은 늘 그분에게 흐르고 있었고 전 삶이 성서로 충만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성서를 자주 인용하신 것은 이러한 것을 증거 한다. 주님이 유아기 때 직접 이집트로 피신하셨던 것은 그분의 삶의 단계 중에서 배움의 단계를 표현한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거룩한 땅은 3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남쪽의 유다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면 즉 의지를 표현한다. 중앙의 사마리아는 삶 가운데서 생각하는 면을 표현한다. 그리고 북쪽의 갈릴래아는 우리 삶 가운데서 행동(conduct)하는 측면을 표현한다. 주님은 유다의 베들레헬에서 탄생하셨다. 이는 우리가 태어날 때 신뢰심과 순진함을 가지고 태어남과 같다. 그리고 주님은 이집트로 가셨는데, 이는 우리의 배우는 상태를 표현한다. 그 후 주님은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 가셨는데, 그 땅은 베들레헬이 아닌 갈릴래아였다. 주님은 갈릴래아에서 성장하셨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보다 바깥쪽, 곧 자연적인 면에서부터 거듭남을 시작하여야 주님의 질서에 맞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선교하는 삶 즉 그분의 마지막 지상 생활의 3년은 갈릴래아의 가버나움에서 지내셨으며, 큰 축제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늘 사마리아를 거쳐 내려가시고 되돌아 오셨다. 이는 우리의 삶이 말씀에 맞아 질서 있게 되는 것을 표현한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자연적인 면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육신만을 위한 삶 즉 의식주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이거나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깊은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발전하는 삶은 느리지만

규칙적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규칙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음으로 영혼이 성장을 할 영감을 얻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삶의 두 가지 다른 면들로 보이는 자연적인 삶(육체적인 행위가 근본이 되는 삶)과 영적인 삶(마음의 작용이 근본이 되는 삶)이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지각하게 된다.

기본 상응 공부

유다 = 교인들이 갖는 의지 또는 동기적인 측면
사마리아 = 사고적인 측면
갈릴래아 = 외향적 행동 측면
헤로데 = 심정 속에 자리 잡아 주도하는 이기심

제 4반

주님이 세상에 오신 때와 장소 등을 살펴본다.

주님은 세상으로 오셔야 함을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주님의 강림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간혹 “주님은 왜 더 일찍 오시지 않았는가?”, “주님은 사람들이 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내버려두셨을까?”, “주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 왜 사람들이 그토록 고생하도록 방치하셨는가?” 등의 의문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주님께서 강림하신 목적이 구원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 즉 영적으로 최하의 상태가 된 인간들과 접촉하시려는데 있기 때문임을 염두하면 쉽게 가능하다. 즉 주님께서 인간 영적 상태가 최악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오실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극에 이른 악을 스스로 입으신 인성으로 이겨내심으로 더 이상 지옥의 힘이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를 염두하고 시편 139편을 주의 깊게 읽어보자. 시편 139편은 인성을 입으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다. 즉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도 거기 계시며...”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시고 강림하신 것이다. 주님은 가장 낮은 상태의 인간 본성을 입으시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승리하며 거치지 않은 상태가 없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됨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한 밤중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온 세상이 전무후무한 최악의 상태가 되어 영적으로 아주 캄캄해 졌을 때 그 안에 빛의 근원이신 주님이 온 인류의 희망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상응으로 담겨진 가장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에 미리 담겨진 삶을 인간들 가운데 살아 내실 때가 오자, 그 분은 상응적으로 예언 되어졌던 배경을 통해 오신 것이다. 성서의 예언을 통해 주님을 알았던 사람들만이 그분을 인식하고 받아들여려는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기독교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발달하고 성장했다하더라도 교회의 시작은 유대교회 즉 율법 시대의 선한 자들의 일부로부터 있게 되었다. 앞서 우리는 이것이 이전 교회들의 각 사람 속에 든 진리였음을 공부했다. 주님은 예언의 성취와 예언의 상응으로 인해 다윗의 성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다.

주님의 강림은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연역이 B.C와 A.D로 구분되는 것이 주님의 강림으로 인한 것이다. 강림 당시까지 인간의 본성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주님의 강림과 더불어 느리지는 하지만 인류의 거듭남이 다시 시작되었다. 주님의 신성화 하심(Glorification)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있게 되어 새로운 힘과 더불어 그분의 성령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 즉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인적 거듭남을 통해 전 인류의 거듭남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는 이 과정의 한 부분을 점유한다. 우리가 주님께 대해 공부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인류의 영적 발달이 진전되도록 기여하게 될 것이다. 반면 우리가 자연적 경향성만을 고집하면, 우리의 영적 발전은 더욱 지연될 것이다.

본문 1장과 2장은 성탄절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동방 박사의 방문을 강조한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로 마태복음서가 시작된 것, 구약성서가 인용되었던 것 그리고 주님이 이집트로 피신 가는 일 등으로 본문이 구약성서와

연결되어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주님이 이집트로 피신한 것은 그분 역시 우리처럼 외적 기억 안에 지식을 획득해야 했음을 표현한다. 본문 1장에서는 주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음을 알려준다. 이는 요셉이 그분의 아버지가 아니었음과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인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한다. 당시 교회의 상태는 헤로데의 위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헤로데는 당시 가장 큰 성전을 짓고 있었다. 그는 그 사업으로 스스로가 여호와를 공경함을 과시하려고 했을 뿐 실제로는 하느님을 죽이려 했다. 신약의 첫 권이 마태복음으로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 성경은 한 저자에 의해 기록된 연속적인 이야기이므로 신약과 구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주님은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 만약 우리가 율법과 예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서의 참 뜻 역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구약의 예언들이 주님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제 5반

본문 1장을 통해 말씀이 주는 생생한 영감을 강조한다. 그리고 주님이 지상에 계실 동안 가졌던 그분의 이중 속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한다.

본문 1장은 주님이 처녀에게서 탄생됨을 강조한다. 이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믿지 않으려함에 기반 한다. 성경의 글자에는 이 사실을 의문시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찾을 수 없다. 주님은 자연적 아버지 없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다. 주님이 신성한 분임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출생이 인간들의 출생과 같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것이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상속된 것에 의해 한정되어져 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해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스웨덴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내적 마음(internal mind)의 형체를 상속받고, 어머니로부터 외적 마음(external mind)을 상속 받는다. 상속된 두 형체(form)중 어머니로부터 상속된 악한 경향성들은(evil tendencies) 거의 정복될지 모르나,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악한 경향성들은 오로지 조절만 가능하

다. 우리가 이것들을 조절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노력하면, 주님은 저 세상으로 들어갈 때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배려하신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한계성으로 지속적으로 남아 있게도 된다. 주님이 자연적 아버지를 가진다면, 주님은 우리와 같이 유한한 혼(soul)을 지니며 모든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시고 발달과 성장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갖지 못하실 것이다. 또한 그분의 인성(His humanity)을 신성(divine)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했다. 즉, 생명이신 하느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거룩한 아기라는 외형(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하시게 되는 거룩한 역사의 시작이 마리아의 태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아기의 내적 마음은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 그러나 아기의 외적 마음과 육체(body)는 마리아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태초부터 인성(humanity)에 누적 되어있던 모든 악한 경향성을 내포한다. 우리는 내적 마음과 외적 마음을 가진다. 우리는 보다 높은 것과 낮은 본성 사이의 수많은 투쟁을 경험한다. 내적으로는 생명이신 하느님 자체지만, 외적으로는 최초의 타락 후 인류가 쌓아온 모든 악을 가져야 하는 아기 예수가 성장하며 벌이게 될 영적 투쟁은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된 주님의 세 이름은 주님이 인간 모습을 취하시는 성육신(Incarnation)들을 표현한다. 임마누엘(Immanuel)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를 의미한다. 예수(Jesus)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Jehovah Saves)”를 뜻하며, 그리스도(Christ) 혹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어진 자(Anointed one)” 즉 태초부터 약속된 구세주를 뜻한다. 주님께서 스웨덴복음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상응의 지식을 토대로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한다면 주님의 신격(deity)에 대해서 뿐 아니라 말씀 속에 담긴 영감(inspiration)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잘 증거하고 있다. 마태는 이러한 진리를 담은 이야기들을 소설이라도 쓰듯이 억지로 짜 맞추어 놓은 것은 아니다. 25절이라는 짧은 구절들 안에 구약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신약에서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그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어렵없는 일이다.

이집트는 자연적 지식들을 상징한다. 주님은 헤로데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옮겨지셨고, 아브람은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갔었다. 기근(famine)이란 주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앞서 우리는 이집트로 내려감이 결핍된 지식을 배우기 위함을 표현한다고 배웠다. 주님이 이집트로 가신 것은 그분의 지상 삶 중에서 배우는 시기를 표현한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요한 계시록 설명」에서, “주님은 여느 사람과 똑같이 교육받아 졌으며, 그분은 단지 그분의 신성으로 인해 세상의 누구보다 더 슬기롭고 총명하게 모든 것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서술한다. (AE 654-19) 그리고 윌리엄 부루스(William Bruce)는 그의 저서 「마태복음 주석」에서, “신성(Divine)은 혼(Soul)이 인간이라는 육체(body)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라는 인격(person)인 인간(human)안에 계셨다. 우리의 혼은 지식을 가지며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외적 인간에게 영감(inspire)을 주지 않는다. 외적 인간은 단지 한 인격에게 영감을 획득할 수 있는 자질을 줄 뿐이다. 혼은 육체 또는 외적 인간이 ‘지혜안에서 그리고 정신적 도덕적 발달 안에서’의 성장을 이루어 그 근본적인 씬씀이에 알맞은 도구로 준비될 때까지 혼이 갖는 힘은 우리의 외적 인간에게는 명백해지지 않는다. 이성(reason)과 자유(liberty)는 영에 속한 능력이다. 지식이 없을 경우 합리성(rationality)은 선택할 자유와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고 서술한다. 주님은 어린 시절에 우리와 같이 감각적 지각을 통해 지식을 배우셔야 했다. 주님은 특별히 그분의 기억들 속에 성경의 글자를 저장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 그 이유가 성경의 글자를 저장하는 것이 그분의 외적 인간이 자라는 척도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의 이성은 그동안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배운 말씀의 의미들을 이해케 해 주고, 더 나아가 이해되어진 말씀들을 그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선택을 가능케 하여 준다. 주님은 성경의 모든 것을 배우셨고 무한한 지혜로 성경의 모든 의미들을 이해하셨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은 그 지혜가 이해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배우시는 과정은 완전한 내적 인간(internal)의 존재로 여느 인간 보다 더 빠르고 완전해졌다.

요셉이 아기 예수를 돌봄에 있어 천사의 계시에 따랐다는 것에 대해 어떤 억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주님은 나자렛이라는 마을에서 오랜 동안 사셨는데, 그곳에서의 주님의 삶과 훈육에 대해서도 상당한 억측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목수인 요셉의 아들인 예수께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요한 7:15). 그러나 말씀의 이야기 그 자체에서도

우리는 요셉 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아기 예수가 비범했음을 확신하게 되는 일들을 알 수 있다. 스웨덴북을 통해 한 가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시절에 주님은 말씀 속의 것들 외에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양육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AC 1461) 그러므로 주님이 이집트에 체류함은 그분이 어린 시절에 성경의 글자를 배웠다는 사실을 실감있게 그리고 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왕인 헤로데의 삶을 주도하는 원리는 이기심(selfishness)이다. 우리가 하느님으로서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자마자 들이닥치는 시험은 우리의 이기심이 들고 일어나 우리의 결정을 바꾸게 하기위해 온갖 수단과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는 헤로데가 분노하여 주님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구절의 내용이다. 헤로데는 두 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내아이를 죽였다. 숫자 둘이란 선과 진리의 결합(conjunction)을 뜻하고, 베들레헴은 천국과 지상을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교회 속에 남아 있는 순진함과 선함을 의미한다. 당시 거룩한 땅의 세 구역은 우리의 삶에 있는 세 가지 평면을 뜻한다. 유다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던 곳으로, 주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마지막 지상 생활을 그곳에서 마무리 하셨다. 유다의 땅은 천적(celestial) 혹은 의지(will)적 평면을 뜻한다. 주님은 갈릴래아에서 지상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시면서 선교 사업을 행하셨는데, 그 땅은 자연적 평면 혹은 외향적 지침이나 행동을 표현한다. 사마리아 땅은 유다 땅과 갈릴래아 땅을 연결하는 중간 지역으로, 주님은 그 땅을 통하여 올라가시기도 하고 되돌아오시기도 했다. 그 땅은 영적(spiritual) 혹은 생각하는(thought) 평면을 표현한다. 이러한 우리 삶의 세 가지 부분은 실제적인 외향적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정기적인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훈과 영적 호흡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두 평면 사이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 즉, 우리는 주님을 예배함과 그분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뜻을 응용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654항 19번)」: “아기이신 주님이 이집트로

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받은 첫 훈육을 의미한다. 주님은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훈육되어졌지만, 그분의 근원이 되는 신성으로 인해 어느 누구보다 더욱 총명하고 지혜롭게 훈육 되었다. 하지만 이집트로 가셨다는 것은 훈육에 대한 단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스라엘 교회나 유대 교회를 통해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관련이 있으므로 주님 스스로도 그러한 표현을 입으셔서 그대로 지키셨는데 이것은 법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표현적인 것들(representatives)은 천국과 교회의 궁극의 형상들(the outmosts, 물질계에 나타나는 현상적 물질적 형태)이다. 그럼으로 모든 선행(先行)하는 것들, 즉 합리적, 영적, 천적인 것들은 모두 이 궁극의 형상들 안에 거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도 합리적, 영적, 천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궁극의 형상들 안에 계실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힘이 궁극의 형상들 안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먼저 된 것들로부터 궁극의 형상들을 통하여 모든 지옥들을 복종시키셨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질서 안으로 환원케 하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에서의 삶의 전부가 표현적인 것이 되는 까닭이며 또한 그분의 고난(passion)에 관련된 복음서의 모든 것들은 그 당시 교회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것은 천국과 교회 속의 모든 선과 진리, 그리고 신성에 상반되는 것들 이었다.”

질문 정리

- 1) 성경은 크게 어떻게 나뉘는가?
- 2) 글자상의 역사로 구약성서는 어떤 국가에 대한 것인가?
- 3) 이스라엘 민족은 몇 지파인가?
- 4) 그 땅의 큰 두 부분에 정착된 국가는 무엇인가?
- 5) 이스라엘 왕국에 속했던 백성들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 6) 어떤 나라가 유다 백성을 포로가 되게 했는가?
- 7) 유다 백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바빌론에 붙잡혀 있었는가?
- 8) 포로가 된 백성 중 일부는 귀환했는데, 이것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 9) 귀환한 백성은 무엇을 다시 지었는가?
- 10) 신약 시대의 거룩한 땅은 어떻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었는가?

- 11) 예수는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12)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 13)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 14) 주님은 요셉의 꿈에서 어떻게 아기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5) 당시 유다의 왕은 누구인가?
- 16)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느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 17) 헤로데 왕은 왜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 18) 헤로데는 이를 어떻게 실행했는가?
- 19) 요셉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였는가?
- 20) 요셉의 가족은 어디에 정착했는가?
- 21) 주님이 이집트로 가신 장면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 22) 주님은 왜 유대인 어머니를 통해 거룩한 땅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질문의 답

1)신약과 구약성서 2)히브리인 국가 3)열 두 지파 4)이스라엘, 유다 왕국 5)아시리아로 끌려갔다 6)바빌론 7)70년 8)유대주의의 재 건립 9)성전 10)갈릴래아, 사마리아, 유다 11)베들레헴 12)마리아 13)하느님 14)예수 15)헤로데 16)이집트로 피신하라고 하심 17)자기 왕권을 뺏길까봐 18)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사내 아기들을 죽였다 19)헤로데가 죽은 때이다 20)나자렛 22)성경을 배우심 24)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와 상응적 의미를 완성하기기 위해

27

동방 박사의 방문

머리말

이 공과는 절기를 위한 특별 공과이다. 이 공과에서는 기초 1반을 제외하고 지적해주어야 할 것은 말씀에서 동방의 박사의 이름이나 그 수가 몇 명인지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말씀에서 세가지 선물이 말해진 것으로 미루어 아마 현인들(박사들)의 숫자도 셋일 것 같다는 대중의 추측이 이어져 오다가 전통으로 굳혀진 것 뿐이다. 이 세 명에게 주어진 이름, 가스팔(Gaspar), 멜키울(Melchior), 벨다살(Balthazar) 역시 전설적일 뿐인바, 말씀의 일부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성탄절의 많은 연극 혹은 이야기들은 이러한 전통에 기반 한다. 우리는 성경 교육과정 처음부터(어린 아이들을 포함) 성경과 전통(tradition)을 구분하여 알아야 한다. 이는 성경과 전통의 혼동은 시간이 지나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서 본문: 마태복음 2장

2장: 1. 예수께서 헤로데왕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나셨는데 그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4.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 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5.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6. ‘유다의 땅 베들레헬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고 하였습니다.” 7. 그 때에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8.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 주시오”하고 부탁하였다. 9.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 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아이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10.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11. 그 집에 들어 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2.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13. 박사들이 물러 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하고 일러 주었다. 14.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4.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6.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 본 때를 대중하여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17.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18.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9. 헤로데가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20.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하고 일러 주었다. 21.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가서 23.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그를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교리 요점

*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순종이다.

* 주님은 때가 찼을 때(in the fullness of time, plenituck temporis)오셨다. 즉 어떤 선과 진리도 인간 중에 더 이상 없을 때 주님은 오신 것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부모들은 성탄 절기 때 아이들을 위해 선물과 음식을 준비하고 나무를 장식하는 일들로 바쁘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쉽게 잊는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은 성탄의 거룩함과 성탄의 의미에 관한 지식이다.

성탄절 첫 해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풍부한, 이전에 없었던 선물 즉 그분 자신을 주셨다. 우리는 이에 대해 그분의 생일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가 선물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을 때도 흔하다.

우리는 주님의 생일날 그분에게 선물을 드려야 한다. 동방 박사들은 그분에게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선물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선물들을 드린 것은 그것들의 물질적인 가치 때문은 아니었다. 그들은 세 가지 선물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별을 보았을 때 그 별의 의미를 알고 있었음과 같다. 그들은 주님과 가까이 살면서 창조된 모든 것들의 상응적 의미를 알았던 고대 시대로부터 전해 온 지식의 일부를 전해 받고 그것을 간직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었다.

금은 사랑을 상징하며,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 중의 하나이다. 유향은 우리의 지성, 생각, 신뢰 그리고 믿음의 헌납이다. 몰약은 나무의 진한 액으로 아주 쓴맛을 지닌다. 이는 금과 유향이라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과히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선물을 삶 가운데서 기꺼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때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쪽에서 삶을 시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며 올바른 길을 흠모하면, 주님은 우리의 진리가 비록 작더라도 동방 박사의 길을 안내한 별처럼 우리를 안내해 주셔서 그분께 근접할 수 있도록 하신다. 또한 우리는 베들레헴 근처 거룩한 땅에 살고 있는 목자와도 같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태어나 양육되고 부모에게 올바른 길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목자들은 큰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은 아주 먼 곳의 박사들에게 나타난 별빛과 같은 것이다. 목자들은 주님께 가는데 박사들의 긴 여행이 아닌 아주 짧은 거리만을 갔다. 그러나 주님을 발견하는 조건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즉, 선한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바램만이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상징하는 별 또는 마음의 진리를 밝히는 빛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먼 옛날 현명한 박사들처럼 우리도 슬기로워져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받기 위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때 그분의 발아래 우리의 선물을 내 놓을 것이다. 우리의 선물은 우리의 사랑인 황금, 우리의 신뢰와 믿음인 유황 그리고 우리의 순종인 몰약이다. 우리는 이 선물을 준비함에 있어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제 1반

세 가지 선물의 의미와 별의 실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엮어 본다.

우리는 성탄절 날 친구 혹은 친지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며 선물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 선물에 앞서 우리가 왜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지 알아야 한다. 성탄절은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이 언젠가는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이는 주님이 스스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구약성서에는 주님의 강림에 대한 예언들이 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 전에는 「고대 말씀(Ancient Word)」이라 일컬어졌던 또 다른 성서가 있었다. 이 성서는 오래전에 잃어 버렸지만,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 성서가 말했던 것을 소중히 여기며 기억하려고 했다. 거룩한 땅의 동쪽 먼 나라에 있던 이들은 고대 말씀을 더 사랑하며 기억했다. 그들이 간직한 예언들 중 하나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면 별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알고자 한 선한 사람들과 슬기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별을 관찰하고 있었다.

요점 및 질문정리

- * 주님은 올바른 삶을 보여 주시기 위해 세상으로 오셔야 했다.
- *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 그분을 찾아서 동방으로부터 누가 왔는가?
- *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찾아 왔는가?
- * 박사들은 먼저 어디로 갔는가?
- *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디에서 주님을 발견하라고 그들을 보냈는가?
- * 박사들을 제대로 인도한 것은 무엇인가?
- * 그들은 어떤 선물을 주님께 드렸는가?
- * 아기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여자의 남편 이름은 무엇인가?
- * 박사들은 왜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 * 주님은 요셉의 꿈속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는가?
- * 주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선물들은 바로 주님을 사랑함과 신뢰함 그리고 순종함이다.

제 2반

성서 여러 부분을 참조하면서, 성탄절과 별에 관한 상응을 알아본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공부하자.

- * 우리는 누구의 탄생을 기념하는가?
- * 그분은 언제 세상에 오셨는가?
- *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그분의 출생과 삶에 관해서 배웠는가?
- * 성경은 어떻게 둘로 구분되는가?
- *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 주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 그분을 찾았는가?
- * 그들은 어디서 왔는가?
- * 그들은 주님이 태어나셨음을 어떻게 알았는가?

- * 박사들은 처음에 어디로 갔는가?
- * 당시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였는가?
- * 헤로데는 그들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았는가?
- * 박사들은 주님이 계셨던 집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 * 그들은 어떤 선물을 주님께 드렸는가?
- * 박사들은 왜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 * 헤로데는 왜 주님이 계신 곳을 알기 원했는가?
- * 주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 * 구약성서에서 이집트로 갔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 * 헤로데는 주님을 왜 죽이려고 했는가?
- * 헤로데는 어떤 참혹한 일을 저질렀는가?
- * 요셉이 이집트에서 귀환했을 때 어디로 주님을 모셨는가?

태초의 사람들은 악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처럼 자유로운 선택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인도자를 주님으로 삼거나 혹은 스스로를 인도자로 여기는 것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기적인 방도를 선택하게 되어 점차 악하게 되었다. 결국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은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게 되어 후에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까지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게 되었다. 이리하여 주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 세상으로 오셔야만 했다. 주님의 강림에 관한 첫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다.

구약성서는 인류의 점차적인 영적 하향에 관한 이야기다. 신약성서는 주님에 의해 영적 회복이 이뤄지고, 인간이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다. 주님은 이 이야기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네 명에 의해 각기 쓰인 네 권의 복음서를 주셨다. 「복음(Gospel)」이란 “좋은 소식(good news)”라는 뜻이다. 주님의 삶은 선행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다.

베들레헴(Bethlehem)이란 “빵의 집, house of bread”라는 뜻이다. 성경에서 잘 알려진 두 사람 즉 베냐민과 다윗은 그곳에서 태어났다. 주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주님이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나도록 선택하셨다고 누가 복음서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주님이 인간의 영혼에 자양분이 되는

빵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육체가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함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으로부터 선함을 받아 섭취해야함을 뜻한다. 우리는 이를 떠올리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기도해야 한다.

민수기 24장 15-19절을 읽어 보자. 17절의 예언은 고대 말씀의 한 부분으로, 박사들이 살고 있는 동방의 먼 나라에서 말씀의 일부로서 전해 내려왔다. 그 지역 출신의 발람은 아주 이기적이어서 습득한 지식을 마술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주님을 환영하며 경배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동방 지역의 선한 사람들은 늘 별을 지켜보고 있었다.

율법학자들은 구약성서를 읽고 쓸 수 있었다. 그들의 일상 업무는 구약성서를 읽고 베끼는 것이었다. 그들이 인용했던 예언은 말라기서 5장 2절에서 볼 수 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종을 상징하며, 이는 우리가 주님에게 드려야 할 선물들이다. 우리는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을 때, 주님께서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인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3반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할 세 가지 선물을 언급한다. 고대 말씀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었던 또 다른 동방 지역의 인물인 발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본다.

구약성서는 인간이 주님대신 자아를 찾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영적 하향 길로 접어드는 과정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진리에 문을 닫게 되었다. 우리는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면 진리를 볼 수 없다. 사람들은 모세 시대 때부터 성경과 모세의 법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은 법이 의미하는 바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율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율법은 그들 중 학식 있는 자들에 의해 책으로 만들어져 대대로 물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다. 주님은 “하느님의 계명을 무익한 결과로 만든 자들”이라며 그들을 지적하셨다. 결국 신약 성서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는 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 사람들까지도 진실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악은 점점 더 강해져 이 세상뿐 아니라 영계에서도 극성을 부리게 되었다. 이는 수많은 악인들이 영계로 갔기 때문이다. 주님은 지옥의 권세와 싸워 극복하고 영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 주시기 위해 세상으로 오셔야만 했다. 주님께서 이 과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육체를 입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셨다. 이는 신성이 신성 그대로 존재할 때에는 그분 근처에 절대 악이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마리아가 어머니로 선택되고 그 여인을 통해 인간의 몸과 마음의 형체를 얻음으로써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에게는 인간의 아버지는 없으며 그분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탄생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서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탄생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 무관심한 자는 주님의 탄생에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것이며, 사악한 자는 그것을 말하되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주님의 탄생은 단순한 선행과 슬기로우심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만 말해질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을 환영하기 때문이다. 목자와 동방의 박사들 또한 위의 두 계층에 속한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에 의해 인도되었다. 그들은 고대 말씀의 일부를 전승 받은 고대 교회에서 비롯된 선한 자들(a good remnant of the Ancient Church)에 해당된다. 발람의 예언(민수기 24:17절) 역시 별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는 그 별을 물리적 별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별은 영계로부터 온 빛을 의미하며,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을 표현한다. 별은 안내하는 빛이다. 이는 오래 전 항해 때에 별이 안내 역할을 했음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목자들은 큰 빛을 보았는데, 그것은 박사들이 본 빛과 같은 것이었다. 성경에는 박사와 목자들을 제외하고는 별 혹은 빛을 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다.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인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종을 상징한다. 진실로 슬기로운 사람은 그 선물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가 주고받는 성탄절의 선물에도 그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님은 첫 성탄절에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셨다. 우리의 심정 안에 주님의 이타적 사랑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선물을

많이 받아서 기뻐하기 보다는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 행복하게 된다. 즉,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해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때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이집트는 우리의 기억적 지식을 표현한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어린 시절을 거쳐 기억적 지식을 획득하셔야 했다. 이는 주님이 그분 내에 신성한 생명이 담기고 표현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가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이 태어나신 후 이집트로 피신하신 것을 통해 기술된다.

동방 박사와 요셉은 “꿈에” 지시를 받았다. 잠자는 시간은 우리의 세상적 생각과 관심이 한 쪽에 놓이게 되므로, 주님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실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말씀 안에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가르쳐졌다. 주님은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잠 잘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해서 아주 많은 일을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씨뿌리는 자(The Sower)」라는 책에서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의 이야기들은 두 왕들을 대비시켜 준다. 그중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로데왕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다. 주님은 신성한 사랑과 진리의 권능을 가진 왕이며, 헤로데 왕은 인간의 심정을 장악하고 있는 악과 거짓의 권세를 대표한다. 악마가 주님의 면전에서 발악을 했던 것 같이 새로운 왕의 출현은 헤로데를 당혹하게 했음이 당연하다.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추구하며 인정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배우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맞춰 감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왕임을 표현해야 한다. 주님의 진리들을 추구하는 이들은 영적으로 슬기로운 자 즉 동방의 박사이다. 동방의 박사들이 지닌 지식은 바로 그들이 본 별이다. 그들은 그 별을 기쁨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주님에게로 확실히 인도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본 상응 공부

금 = 사랑

유향 = 믿음

몰약 = 순종

헤로데 = 마음을 통치하는 거짓

제 4반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의미와 기독교인으로서 그분의 생애를 배우고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리고 목자와 동방의 박사의 상응을 우리 속에서 찾아본다. 또한 우리 안이 자아 혹은 자기 추구로 가득하면, 주님이 우리의 심정과 지성 안으로 오실 수 없음도 강조한다.

우리는 구약 성서에서 인류가 영적으로 하향하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접한다. 즉, 어린 아이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첫 상태에서부터 심정과 지성이 그분으로부터 차차 멀어져 갔다. 결국 처벌이라는 공포와 보상이라는 희망을 통해서만 주님을 순종했다. 사람들은 수세기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법들을 그들 스스로가 만든 관습(전통)으로 덮고 법들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데 주력했다. 그리하여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쯤에는 그분께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마저도 그분의 법과 전통 사이를 구별하지 못했다. 주님이 바리사이와 사람들에게 “사람의 계명을 하느님의 것인 듯 가르친다.”라고 지적 하셨다. (마태복음15:1-9) 이로 인해 주님은 삶의 진정한 길을 보여 주시고, 사람들이 저항하기에는 너무 강해진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주님은 밤에 태어나셨는데, 이는 그분이 인류가 영적인 밤에 처했을 때 오셨음을 표현한다. 그 때는 물질주의적이었으며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이기도 하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시기가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지니고 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생명의 빛에 의해 인도될 것이다. 우리는 성탄절을 매년 기념할 때마다 새로움을 얻는다. 이는 우리 주위의 상황과 더불어 우리 자신도 변해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각자의 상태와 세상의 모든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으로 오셨음과 그분을 신뢰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사들은 동쪽에서 주님의 별을 보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별이란 천국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을 표현한다. 스웨덴북은 “높은 천국의 천사들이 높은 차원의 진리로 대화할 때, 낮은 천국의 천사들이 이를 관찰하게 되면 이러한 대화가 그들의

창공(sky)에 별처럼 보여 진다.”라고 말한다. (AR 65, AE 402, TCR 160참조) 박사들이 본 별은 이와 같은 영적 빛이다. 그들의 영적 눈은 주님에 의해 영적 빛을 보도록 열려졌다. 그들의 눈이 열린 이유는 그들이 고대 말씀으로부터 온 지식들을 매우 흠모했기 때문이다. 발람은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별에 관해 예언 했으며, 박사들과 같은 지역 출신이었다. 우리가 진실로 슬기로우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별을 인식하고 따라가게 된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행복과 평화는 그 빛 안에서 걸을 때만이 가능하다.

박사들은 주님에게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을 예물로 가져왔다. 우리가 슬기롭다면, 우리는 이 예물들로 주님께 드려야 할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종을 표현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을 섬김과 경배함으로 여길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 안의 경로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이 세상에 역사하게 된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타인의 복지를 자신의 복지보다 우선순위로 여기며 삶의 한정된 시간을 자신만을 위해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생일날 그분께 바쳐야 할 예물이다. 그리고 주님은 저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큰 선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선물을 어두운 과거 속에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매일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지금 세상에 계시면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위해 말씀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별을 따라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베들레헴이란 “빵의 집(house of bread)”이라는 뜻이며, 후에 주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부르셨다. 헤로데는 악과 거짓의 모든 권세를 표현한다. 본문의 헤로데는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서 영적 생명의 시작을 파괴하려드는 악과 거짓의 권세를 뜻한다. 헤로데가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는 이야기는 악과 거짓이 달성할 수 있는 죄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헤로데가 아기 주님까지 파괴토록 허용되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늘 거기에 머무르신다. 주님은 한동안 “이집트에” 보존되셨다. 이집트란 우리의 기억적인 지식을 뜻한다. 그러나 그분은 “헤로데가 죽은 뒤에” 즉 시험이 정복된 뒤에

되돌아 오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제 5반

동방의 현인의 방문과 세 가지 예물의 상응 그리고 주님의 강림하신 이유를 간단히 설명한다.

고대 교회는 고대 말씀과 상응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고대 교회에 속한 이들은 주님을 섬기는 대신 이기적 목적이나 세상적인 것들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 상응에 관한 지식도 그들의 흥미만을 증진하는데 이용했다. 이것이 바벨탑을 짓는 장면으로 묘사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이 각종 형상이나 상징물 속에 있던 영적 의미를 거두어 버리심에 따라 그것들은 각양각색의 우상으로 전락되어 지상에 흩어졌다. 그들 중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교회의 형성을 위한 기반으로 선택되었다. 이외의 다른 이들은 수많은 다신교의 국가를 형성해갔다. 스웨덴북은 고대 말씀의 잔재가 그의 시대에 「대 타타르(Great Tartary)」라는 지역(분명치는 않으나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다고 말한다. 이 지역의 사람들 중 극히 일부는 고대 말씀의 잔재가 되는 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로부터 얻은 지식을 흠모해서 상응에 관한 일부 학문이 그들 중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동방에서 주님을 찾아 온 현인들은 위와 같이 선한 이들이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분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는 등의 지식을 알고 기억했다. 또한 그들은 별을 그분의 오심에 대한 징조로 간주 했다. 별에 관한 예언은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발람의 입을 통해 기록된다. 발람 역시 동방박사와 같은 지역 출신이다. 발람이 상응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가 발람에게 제단이나 희생 제물에 대해 특별히 지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의 지식을 사용하려고 한 악인이다. 동방의 현인들은 별을 보았을 때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 그들은 거룩한 땅까지 가는 긴 여행을 기꺼이 감수하고 메시아에게 경배하며 그분 발아래 예물을 바쳤다. 그 예물은 그들의 상응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여 선택되었다고 추측된다. 말씀에는 몇 명의 현인들이 경배하러 왔는가와 그들의 이름에 대한 기록이 없다.

단지 전통(관습)적으로 세 가지 예물이 있었으므로 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전해질 뿐이다.

우리는 앞서 공부를 통해 해와 달과 별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천국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을 뜻함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인간들에게 그분에 관한 지식과 천국적 삶에 관한 지식을 확실하게 주셨다. 별들은 그분의 오심에 대한 자연적이며 아름다운 상징물이었으며 물질적 별은 아니었다. 동방의 현인들을 제외하고는 별을 보았다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 없다. 별은 분명히 나타났지만, 보통의 질서 안에서는 사라졌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본 큰 빛은 별이 아니다. 빛과 별 모두는 영적 나타남으로, 목자와 현인들의 영적 눈은 별과 빛을 보도록 열렸다. 목자들은 그들 주위에 있는 빛을 본 것이다. 이는 그들이 선하며 순진한 심정 상태 속에서 성경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방의 현인들은 오랜 전통을 제외하고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별로서 새로운 영적 시대의 빛을 보았던 것이다. 목자들은 교회 내에 있는 선한 사람들을 표현한다. 반면, 동방의 현인들은 아주 작은 지식도 흠모하며 그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표현한다. 목자들은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 아주 짧은 길을 갔으나, 동방의 현인들은 기나긴 여행을 해야만 했다.

현인들은 주님이 탄생하신 장소를 파악하는데 희박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곳으로, 진리적 측면에서의 교회를 표현한다. 이방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주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예상되었다. 그래서 현인들은 그곳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예언되어 왔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성경의 글자적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당시 교회는 사실 참된 교회는 아니었지만, 주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줄 진리는 갖고 있었다.

베들레헴은 이전에는 「유브라테(Ephratah)」라 불렸다. 그곳은 베냐민의 출생지이며 라헬의 매장지이기도 하다. 베냐민과 같이 베들레헴은 “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인 것(the spiritual of the celestial)”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들 속의 지상적인 것과 천국적인 것 사이의 고리(link)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심정 속에 있는 선함의 결과로 인해 얻게 되는 진리를 의미한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대

신으로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이 기근으로 인해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그리고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렸던 요셉의 감정이 베냐민으로 인해서 풀리게 되고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님과 인간 그리고 하느님을 하나로 연결하는 인성의 하느님이신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것이다. 또한 베들레헴은 다윗의 성이었는데, 이는 진리적인 측면에서의 주님 즉 그분의 왕권적 특질을 표현한다. 「베들레헴」의 이름은 “빵의 집”이라는 의미이며,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빵)”이라고 말씀하셨다. 현인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별들은 주님이 계신 정확한 장소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 처음에 나타난 별 즉 처음 그들의 지식은 그저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즉 성경으로부터 가르침을 얻은 후에 별(지식)은 구체화되었다.

성서에서 주님께 바쳐지는 모든 봉헌물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우리 삶의 헌신을 표현한다. 동방 현인의 세 가지 예물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행동에서의 헌신을 표현한다. 우리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세 가지 예물은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이었다. 금(gold)이란 심정(heart)의 예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느낌들 즉 자기 자랑, 미움, 복수심, 시기심 혹은 탐욕 등을 우리의 심정으로부터 몰아내는 노력이다. 유향(Frankincense)이란 지성(mind)의 예물로서,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빛으로 자신의 사상을 검토하려는 결정과 더불어 자신의 사상이 말씀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거짓으로 여기며 그를 거절하는 노력이다. 즉, 하느님의 지혜는 언제나 불변하여 그것만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것보다 훨씬 나음을 신뢰하는 노력의 예물인 것이다. 몰약(Myrrh)이란 우리가 행동적인 면에서 드리는 예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과 같이 남에게 하려는 것을 꾸준히 노력함이다.

동방 현인들은 예물을 바친 후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헤로데의 부탁을 무시하여 그에게 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되돌아갔다. 주님을 찾으려는 현인들을 도운 헤로데의 동기는 아기 주님을 죽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인들은 계시를 통해 이러한 음모를 알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의 섭리는 때때로 이기적인 동기(motive)들을 이용하여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교회를 빠지지 않고 출석하거나 친구를 전도하는 이유가 주일 학교에서 성탄절에 주는 선물 때문이라면 그들은 선물 때문에 교회를 빠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주일 학교에서 말씀과 진리를 배워 성인으로 성장할 기초를 닦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를 토대로 성장하여서 어른이 된 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하기를 결심하게 된다면 어린 시절의 이기적 동기는 결국 선한 결과를 낳는데 이용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때에 주님께서는 이기심에 대한 참된 이해를 주셔서 우리의 영이 더욱 더 수행되게 하신다.

본문의 후반부는 우리가 이미 발달시켜 놓은 세상적 삶의 기반 위에 동방 현인의 방문으로 인한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스웨덴북은 한 개인이 거듭나기 시작하면 곧이어 시험이 오도록 허용된다고 말한다. 헤로데는 과거의 삶을 통치해왔던 악과 거짓이 영적 삶의 새로운 시작을 파괴시키려고 발광함을 상징한다. 이러한 악과 거짓은 주님의 씨, 곧 영적 삶의 근원은 악과 거짓이 차지했던 마음속에서 싹트고 성장할까봐 갖은 몸부림을 치게 된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는 주님의 씨를 우리의 기억 속 즉 이집트에 보존하시는데, 그것은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즉 우리가 첫 시험에 승리할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 뒤 이 씨앗은 외향적인 행동을 상징하는 갈릴래아에서 양육되기 시작된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심정(hreat)으로부터 싹터 지성(mind)에 의해 확증되어지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바깥에 해당되는 행위이다.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 자리 잡은 악과 거짓들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 곧 주님의 탄생이 우리의 삶의 행동 속에서 증거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9293항)」: “황금과 유황 그리고 몰약은 사랑의 선과 주님에 대한 믿음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금은 사랑으로부터의 선에 속한 것들, 유황은 믿음으로부터의 선에 속한 것들 그리고 몰약은 사랑과 믿음이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방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고대 시대로부터 내려온 선조들의 지혜나 지식이 있었다. 이 지식이란 세상과 지상에 존재하는 것들 안에

있는 천적인 것과 신성한 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고대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천국이나 신성과 상응되어 표현됨과 그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므로,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을 주님께 바쳤다. 이런 사실은 이방인들의 오래된 기념비들 혹은 오래된 책들을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동방 박사들은 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이 하느님께 바쳐야 할 선들을 의미함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고대 교회 속에 있었던 예언적 저술로부터도 주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과 그 때에 별이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질문 정리

- 1)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인가?
- 2) 주님은 언제 세상에 오셨는가?
- 3)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4) 주님 외에 누가 그곳에서 태어났는가?
- 5) 박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 6) 왜 그들이 오게 되었는가?
- 7) 그들은 별의 의미를 어떻게 알았는가?
- 8) 그들은 먼저 어디로 갔는가?
- 9) 헤로데는 박사들이 찾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가?
- 10) 박사들은 주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장소를 어떻게 발견했는가?
- 11) 그들은 어떤 예물을 주님께 바쳤는가?
- 12) 박사들은 왜 헤로데에게 되돌아가지 않았는가?
- 13) 요셉은 주님을 어디로 피신시켰는가?
- 14) 요셉은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가?
- 15) 헤로데는 어떤 참혹한 짓을 행했는가?
- 16) 주님을 거룩한 땅으로 다시 모시도록 요셉에게 언제 말해졌는가?
- 17) 그들은 어디를 거주지로 정했는가?
- 18) 첫 성탄절 날 주님은 어떤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19)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세 가지 선물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1) 예수 2) 각 년도가 해당됨 3) 베들레헴 4) 베냐민, 다윗 5) 동쪽 6) 별을 보았기 때문 7) 상응에 관한 고대 지식으로 8) 예루살렘 9) 율법 학자들이 예언서에서 발견했다 10) 별의 인도로 11) 금, 유향, 몰약 12) 꿈에 지시를 받았기 때문 13) 이집트 14) 꿈으로 15) 베들레헴 주위의 모든 사내아이들을 죽였다 16) 헤로데가 죽은 후 17) 갈릴래아의 나자렛 18) 그분 자신 19) 사랑, 믿음, 순종

28

세례를 받으신 주님

머리말

세례자 요한에 관한 면모를 살피기 위해 마태복음 11장 7-15절과 14장 1-12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1절을 읽어 보자. 또한 누가복음 1장 5-20절과 39-45절 그리고 57-80절, 누가복음 3장 10-14절, 요한복음 1장 19-30절,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말라기 4장 5-6절을 읽고 본문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

성 서 본 문: 마태복음 3장

3장: 1.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2.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하고 선포하였다. 3.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4.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5. 그 때에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 각 지방과 요르단 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가서 6.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 7. 그러나 많은 바리새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독사의 족속들이! 닥쳐 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8.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9.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 사실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12. 그분은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13.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를 떠나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오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15.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하고 대답하였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시는 대로 하였다.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홀연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다. 17. 그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 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교리 요점

* 세례란 거듭남이 있기 전에 있어야 할 회개와 개혁을 뜻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구약 성서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악해져서 주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질 때 즉 주님이 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에게 닿을 수 없을 때 주님 스스로 메시아 혹은 기름 부은 자(구세주)로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수차례 예언되었다. 강림의 때가 가까이 이르면 주님의 길을 닦을 전달자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

사람은 한 번 나쁜 습관으로 빠지게 되면 단번에 그것을 고칠 수 없다. 심리학자들 중에는 자살의 이유 중의 하나가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한꺼번에 실감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 안의 악들을 인식하는 것 또한 단계별로 조금씩 덜 한 것부터 인식하기 시작해 하나하나씩 그 악들과 싸워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점진적으로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들로 재구성해 나가 결국 선을 사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주님 앞에 보내진 전달자이다.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다. 천국은 그 나라를 원하는 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천국을 손에 쥐는 조건의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말씀 속의 교훈을 배우며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바깥 삶 즉 일상생활을 정리 정돈하여 깨끗케 함을 표현한다. 세례자 요한이 말한 더 높은 차원의 세례 즉 주님이 주시는 세례인 성령과 불의 세례는 우리가 삶의 행위적 측면(일상생활)들을 질서에 맞게 해 놓아 그분의 길을 예비해 놓으면 우리의 지성 안에는 그분의 진리가 들어오고 우리의 심정 안에는 그분의 이타적 사랑이 들어오게 됨을 말한다. 즉, 우리가 책임지고 이루어야 할 부분은 세례자 요한인 물세례에 해당되며 이것을 이룬 후 그 다음은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다.

주님은 사실 우리처럼 회개해야 하는 어떤 악도 범하지 않으셨다. 이는 본문 14절에 있는 요한의 말로 잘 표현된다. 주님은 우리의 본보기이시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례받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본문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례 받아야 하는 중요성을 이해할 것이다.

세례 그 자체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려는 의도와 바램을 나타내는 거룩한 상징이다. 성인이 세례를 받을 때는 당사자 스스로가 이 고백을 한다. 유아나 어린이가 세례 받을 경우는 부모가 기독교적 생활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서약한다. 외형적 세례는 세례 받은 이들을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 모임에 소개하는 것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세례는 성서에서 취해진 말씀을 가지고 수행된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기독교 천사들과 세례 받은 자를 연결해 준다. 그리고 이 행위는 주님이 새로운 길로 세례 받은 이에게 도달할 수 있는 다리도 만들어 준다.

제 1반

세례자 요한에 관한 점들을 상기한다. 엘리야와 세례자 요한의 유사점과 주님 또한 요한을 엘리야로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본다. 주님의 세례를 설명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의 본보기를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세례에 대한 상응을 간략히 언급한다.

앞서 우리는 주님이 태어나셨던 곳, 사악한 헤로데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을 모시고 이집트로 피신한 것 등을 배웠다. 그들은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그 후, 주님은 요셉에게 그의 꿈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베들레헴이 그들의 진짜 고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거룩한 땅의 먼 북쪽 지역인 나자렛으로 되돌아갔으며, 주님은 그곳에서 성장하셨다. 성경은 예수가 “날로 튼튼하게 자라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라고 기술한다. 주님은 거의 30세에 이를 때까지 약속된 메시아로서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다. 「메시아」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은 자”와 같은 뜻이다. 주님은 사무엘에 의해 사울과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으로써 그들이 선택되었음을 보여주셨다. 구약 성서 전반을 통해서 하느님 자신인 메시아가 장차 세상에 오심이 예언되었다. 예수님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요한은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위대함을 알았다. 요한의 이런 인식 때문에, 그는 처음에 주님에게 세례 베풀기를 주저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가는 방법과 세례 받아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받으셨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들었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았다.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자.

- * 주님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누가 보내졌는가?
- * 왜 세례자 요한으로 불렸는가?
- * 그는 어디서 살았는가?
- * 그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 * 그의 음식은 무엇인가?
- *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외쳤는가?
- * 주님이 오시면 그분은 어떻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했는가?
- * 예수님은 요르단 강에서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하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는가?
- *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무엇이었는가?

제 2반

예언의 말씀들을 먼저 찾아본다. 세례자 요한이 왜 “장차 올 엘리야”로 불렸는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회개의 의미를 언급하고, 우리가 심정 안에 주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만 하는 이유도 설명한다. 그리고 세 가지 세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다음 질문을 통해 본문을 공부해 보자.

- *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 주님은 마태복음 첫 장에서 어떤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셨는가?
- * 그 이름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 * 요셉은 헤로데로부터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 주님의 전달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 *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 세례자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 * 그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 * 그는 무슨 음식을 먹고 살았는가?
- * 그는 그에게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 * 요셉과 마리아는 되돌아 온 뒤 어디에서 살았는가?
- * 그는 어느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 * 요한은 주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했는가?
- * 요한은 처음에 왜 주님에게 세례 베풀기를 원치 않았는가?
- * 주님이 세례 받으신 후 무슨 광경이 나타났는가?
- *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무엇을 말했는가?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을 읽어 보자. 본문은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성서 사전에서는 “요르단 (the descender, 하강)은 팔레스틴의 강으로 헐몬 산의 높은 기슭에서 시작해 사해의 머리 부분까지 연결된 약 200마일 정도 길이의 강이다. 여리고 앞 쪽은 얇은 개울이며, 요르단 강의 개울같이 얇은 곳에는 두 개의 전통적 장소가 있다. 주님은 두 개울 목 중에서 세례 받으셨다고 추측된다. 성서에서의 언급은 없지만 위쪽 개울물로 추측된다. 후에 사도 요한과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 세례가 베풀어진 곳도 두 장소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설명된다.

성령은 주님 자신의 영에 대한 이름이다. 물은 진리를 그리고 불은 사랑을 상징한다. 물세례란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따라 우리 생활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표시이다. 이는 우리의 지난 잘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며 발견된 것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게 보인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다. 이런 과정 후에, 주님은 우리의 지성과 심정 속에 그분의 사랑하는 영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채워 주신다. 이리하여 우리는 의를 행하며 행복해 진다. 잘못된 행위 혹은 습관 등은 불행만을 자초하기 때문에 이 외의 것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 이는 세례자 요한이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주님 앞에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이기도 하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회개하거나 의를 행하지 않고 죄의 벌만을 피하기 원했다. 요한은 그들이 회개하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다고 확고히 말했다. 우리 역시 잘못을 행한 후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벌을 피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그것이 잘못으로 판명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고통 받게 된다. 이는 회개가 아니며 어떤 선도 있을 수 없다. 12절을 읽고 알곡과 쪽정이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주님은 그분이 세상에 오심이 삶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도록 종용하셨다. 주님 위에 내려 온 비둘기는 그분의 완전한 순진성을 표현한다. 그분은 실제로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도 잘못을 행하도록 시험 받으셨고, 우리와 같이 진리로 그것과 맞서야만 하셨다.

예수의 혼(Soul)은 하느님 자신이였다. 그러나 그분이 세상에 계신 동안은 자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리었다. 이는 우리와 같이 신성하지 않은 마음과 몸으로 그분 자신을 옷입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 3반

세례와 회개 그리고 주님이 세례 받으신 의미를 설명한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라고 한 이유와 마태복음 1-2장의 교훈을 연결하여 설명한다.

마태복음서에는 주님이 이집트에서 되돌아오신 후 나자렛에서 성장하셨다는 기록 외에는 그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본문은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신 때부터 그분의 적극적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때 그분의 나이는 30세였다.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을 읽어 보자. 주님이 태어날 당시, 소수의 사람만이 그분의 출생을 말할 수 있는 심정 상태를 갖고 있었다. 선해지기를 원했던 이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모든 지식을 잃은 상태였다. 따라서 그들은 무지하고 악한 삶을 영위했다. 이런 심정상태에서 그들은 주님을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악함을 인식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 개혁하려는 시작이라도 해야 했다. 이는 히브리 민족이 국가 형태를 갖추기 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의 주님에 대한 반역적 소질을 청산하고 거룩한 땅에 발 디딜 수 있었음과 유사하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보내져서 회개를 촉구하고 삶을 정화하고자 한 이들이 세례를 받도록 조처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잘못을 인식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것을 행함을 배울 수 없다. 이것은 회개라고 한다. 우리의 심정은 아주 이기적이고 우리의 지성은 스스로의 행위를 위한 핑계나 변명을 찾는데 영특하기 때문에 회개는 무척 힘들다. 요한은 과거 예언자들처럼 야생적이고 거칠었으며,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차림새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려고 결심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세상살이를 아주 팍팍하게 느끼는 우리의 심정을 그린다. 물론 베푸는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와 같다. 이는 주님의 진리에 따라 자신의 삶을 정화하고자 하는 바램을 뜻한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된다. 그때 그분의 영은 사랑으로 우리의 심정을 채우고, 그런 후에 팍팍하게 느껴지던 삶이 변화하여 의를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기뻐하게 된다. 물세례란 우리의 일상생활을 정화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책임 부분이다. 성령 세례는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지성(mind)에 이를 때 우리의 생각이 정화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불세례는 우리의 심정(heart)안으로 주님의 이타적 사랑이 진입하여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 잘못을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요한 앞에 세례를 받기 위해 나선 이유는 스스로의 선함을 인정받고 죄악에 대한 벌을 피해 보려는 속셈에서였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라고 말했다. 즉, 그는 악을 멈추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들을 호통한 것이다. 악행을 끊고 선한 행실을 배우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할 규율이다.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주님이 세례 받으신 후 그분 위에 내려 온 비둘기가 상징하듯이 그분은 회개해야 할 어떤 악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진리를 수단으로 모든 악들과 싸우는 시험들이 가득한 삶을 사셔야 했기 때문이다. 새 중에 비둘기, 동물 중에 양은 순진함을 상징한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자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선조 대대로 유전되어 온 모든 악들을 지니고 태어나듯이, 그분은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태초부터 인류가 쌓아온 모든 악들을 지닌 인성을 입으셔서 모든 악들을 정복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악을 극복해 갈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것이다. 유한한 인간 본성은 하느님이 아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님 내에 있는 신성한 영혼이 아닌 인간 본성만을 보았다. 따라서 그분의 지상 생활에 대한 기록은 그분을 하느님의 아들 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다.

기본 상응 공부

- 물세례 = 말씀속의 진리로 생활을 정화함
- 성령세례 = 주님의 진리로 생각을 정화함
- 불세례 = 주님의 이타적 사랑으로 심정을 정화함
- 비둘기 = 순수함 또는 순진함

제 4반

세례에 관한 교리와 세 가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의 광야 여행이 거룩한 땅의 정복을 가능케 했듯이 요한의 선교가 주님의 공생애를 가능케 했음을 언급한다.

마태복음서는 누가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유아시절 혹은 어린 시절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주님이 이집트에서 되돌아오셔서 나자렛에 정착했다는 2장의 기록만 있을 뿐이다. 3장은 약 30년이 지난 후 있게 되는 세례자 요한의 선교로 시작된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서도 누가복음과는 달리 그의 부모가 되는 엘리사벳이나 즈가리야에 관한 이야기 없이 세례자 요한이 등장한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술되어 있고,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술되어 있다.

제 15절에서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신다.: “지금은 내가 하지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구절이 세례를 강요하는 데에 쓰인 것 또한 사실이다. 주님께서도 받으신 중요한 것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다 받아야한다는 식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이해할 필요는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한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를 알려준다. 천국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 삶의 문에 계시면서 우리의 심정과 지성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신다. 회개란 주님의 영이 우리의 지성으로 들어오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심정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말씀으로부터 온 진리로 우리의 삶을 정화하는 것이다. 상응으로 보는 세례는 세례 받은 자의 영을 기독교 천국에 속한 천사들과 연결시켜 주는 것을 뜻하며, 지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속한 기독교 공동체의 일부로 공인되는 행위를 뜻한다. 본문에서 세례는 결과적으로 선한 생활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세례 받는 자들과 그들의 부모 혹은 보호자들은 약속한 내용을 지키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세례로 열려진 영혼과 천국의 길은 언제나

열려있어 천국적 삶을 꾸준히 배양하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이는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로 세례를 행하는 요한은 외적 삶의 재구성을 뜻한다. 재구성이란 계명의 질서 안에 생활을 놓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우리 삶의 수행에 있어서의 첫 번째 목표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 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러한 작은 시작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는 못하며 오로지 주님께 의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임무 즉 행실로 계명을 실천하기위해 정진하면 그것은 ‘물로 받는 세례’를 뜻하며, 이를 통해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이뤄지는 성령세례와 불세례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된다.

주님의 선교는 세례 받으신 이후 시작된다. 이는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셔서 악과 싸워야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 또한 우리처럼 성서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로 마음을 비추어 악을 인식하고, 그것을 죄처럼 여겨 금하는 단계들을 거치신 것이다. 사실 주님은 회개해야 할 어떤 실질적인 죄도 갖지 않으셨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동안 주님께서 악을 행하지 않으셨음은 순진함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그분이 세례 받으신 후 그분 위로 내려오므로써 증명된다.

주님이 선교를 시작하신 것은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통해 그분의 영혼이 바로 하느님 이시다 는 확증을 얻으신 후 이다. 마리아로부터 취해진 마음(mind)과 육체(body)는 무한한 하느님이 아닌 과거부터 사람들이 지녀온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육체 속에는 육체를 통제하고 움직이는 마음이 존재하고, 그 마음의 깊은 속에는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작용까지 조정하는 ‘자의지’가 있다. ‘자의지’는 타고나는 것으로 그것의 본성은 이기적이다. 그 이유는 ‘자의지’가 조상 대대로부터 누적되어 내려온 인간의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아 중심적이며,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 극복해야할 첫 번째이자 최후의 적인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지상의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면적 이기심은 갖지 않으셨다. 주님의 자아는 모든 인류를 위한 신성한 이타적 사랑이다. 그분은 마리아로부터 입은 외면적 자아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언제나 지옥에 의해 공격될 수 있었고 우리들 처럼 외면적 평면에서 지옥과 싸우셔야 했지만, 언제나 그것을 정복하실 수 있었다.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이를 처음 만날 때처럼 외면적 모습만을 보았다. 우리가 외면으로 접한 친구더라도 그를 알게 되면 그의 내면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을 배워 가면, 우리는 그분의 속, 즉 그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된다. 따라서 주님의 참된 의지는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미 우리의 이해성 안에 들어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또는 하느님이라 불리지 않고 하느님의 아들 또는 사람의 아들로 불리신 것이다. 그분은 자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음을 지상적 삶이 거의 끝날 때까지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사야 9장 6절을 읽고, 이것이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각자 살펴보도록 하자.

제 5반

세례자 요한이 신약과 구약의 연결점이 되었다는 것, 요한의 메시지의 의미, 세 가지 종류의 세례 그리고 주님이 왜 세례받기 원하셨는지를 살펴본다.

본문과 더불어 마태복음 11장 7-15절, 마태복음 17장 10-13절, 요한복음 1장 19-30절 그리고 「천국의 신비」 발췌문 9372항을 읽어보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한은 스스로 증언하기를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였고, 예수께서도 요한이 말라기 4장 5-6절의 예언을 성취시켰음을 증언하신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요한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라기서의 예언은 주님의 오심으로 지상이 저주를 받아 불태워지지 않도록 특사(요한)를 보내어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갖게 되는 의문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이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그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이가 악한 생활을 영위해 온 나머지 진리나 올바른 것을 까맣게 잊어 버렸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 후 그가 어떤 계기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우치게 되었고, 자신은 그 진정한 삶으로 돌아 갈수 있는 어떤 가능성 또는 준비도 없는 아주 어둡고 캄캄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으로 자신을 질책하며 “나는 죽일 놈이다” 혹은 “나는 죽어 마땅한 쓸모없

는 인간일 뿐이야”하고 한탄하다가, 급기야는 자신을 정말 죽이는 파멸로 치닫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벌어진 돌발적인 자살은 떠맡아야 할 악과 과오가 너무 엄청나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게 보여 도피하다보니 취하게 된 극단적 선택인 것이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올바른데 대한 지식 없이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다. 선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리 준비되어 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오심은 그들에게 아마도 갑작스럽게 들이 닥친 번개의 고압전류와 같았을 것이다. 타락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우선 스스로의 악한 길에서 돌아섬으로서 천국의 영향력이 그들을 감싸줌으로서 그들이 주님께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그 길이 열린다. 다시 말하면, 우선 우리의 행실을 고쳐 나감으로서 기본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만 우리들 속에 깊이 감추어진 악들이 드러내질 수 있게 되어 주님의 도움으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영적 성장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악들의 존재조차 느끼지 못한다.

행실에 있어서의 나쁜 점들을 깨우치고 고치며 궁극적으로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 계명과 가르침에 대한 순종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례 요한”이다.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 중 특히 모세,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세례 요한은 더욱 극명히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장차 올 엘리야”라고 불린 이유이다. 그가 입고 있는 낙타 털옷은 말씀을 입히고 있는 성서 글자를 표현한다. 그의 가죽띠란 외적인 것들이 서로 묶여져 영적인 뜻과 연결을 맺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가 먹은 메뚜기와 들꿀은 가장 외적인 진리와 그에 따른 기쁨(delight)을 표현한다.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거주했는데, 이는 교회의 몰락한 상태를 묘사한다.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다. 누가복음 3장 10-14절을 보면, 요한이 그에게 온 각 층 사람들의 악들을 지적하고 그들이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되돌아서도록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만 할 뿐 자신의 죄를 버리고 정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회개는 “미안합니다 또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을 배우며 죄가 반복됨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언약에서 우리의 몫이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해내기

거절한다면, 주님은 그분의 몫을 우리에게 주셔서 언약을 완성 시킬 수 없게 되고 그분의 영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주님의 영이 죄가 있는 곳에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과오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과감히 버려야한다는 것을 느끼지만, 의지가 약하고 게을러서 오히려 과오를 위한 변명을 찾기에 분주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신의 과오들과 그것들의 근원이 되는 악들에 대해 슬며시 눈 감아 버린다. 주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경계하여 과오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어떤 악이 내안에 있음을 인식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 그것들을 내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 자신과 싸움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집안에 있는 자가 자기 원수”라고 하신 것이다.

물세례는 회개에 대한 상징적 표시로서 주님의 진리에 의거한 외적 삶 즉 일상생활을 정화하는 것을 뜻한다. 요르단 강은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를 거룩한 땅 즉 영적 삶으로 들어가게 해 줄 진리들을 상징한다. 이 진리들이란 말씀에서 얻는 단순한 진리를 뜻하며, 단순한 진리는 십계명에 가득 포함되어 있다. 「나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르단 강에 그의 몸을 일곱 번 씻음으로 문둥병을 치료받은 것처럼 요한은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구약 성서 속의 모든 씻음은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기독교의 세례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거룩한 씻음 즉 할례를 대신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성찬식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번제나 축제를 대신하는 행사에 해당된다. 유아 세례는 세례 받는 유아의 부모가 주님의 진리에 따라 아이를 양육시키겠다는 의지의 표시로서,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기독교로의 입문을 상징한다. 또한 스웨덴북에 따르면, 세례식은 말씀에 쓰인 그대로 수행되어 지므로 그 자체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천국의 천사들과 그의 영이 연결되며, 상응을 통해 어린이는 어린이 천사와 어른은 각자에 맞는 천사들과 연결되어 진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세례 받은 후 천국적 분위기를 느끼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요한은 또 다른 세례에 관해 말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베푸실 세례 즉 “성령과 불”의 세례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실제적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축복할 수 없다. 물세례는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물세례가 있는 후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고쳐 나가면 전에 횡행하던 이기적 영의 자리를 주님의 영이 채우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다. 마지막으로 이타적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심정(heart)속에 들어와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의를 행함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불세례이다. 스웨덴복이 회개는 거듭남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몫이며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주님이 그분의 몫을 이루시는데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느님, 깨끗한 심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올바른 영으로 새롭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문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례가 진정으로 선한 생활을 위한 필수 단계임을 본보기를 통해 가르쳐 주셨다. 요한은 주님을 메시아로서 알아보고 자기는 그분의 신발조차 들고 다닐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인식하여 그분이 자기에게 나올 때 세례 베풀기를 주저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다. 세례는 우리에게 회개를 상징한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분이 입고 있던 인간성으로 인해 그분은 세상에 누적된 모든 악에 대한 경향성(tendencies)을 지니셨다. 따라서 그분도 모든 악을 느끼며, 우리와 같이 말씀을 수단으로 그것들과 싸워야만 했다. 그분은 진리를 수단으로 그분이 입으신 인성을 정화시켜 신성한 형태로 변화시키셨다. 주님께서 물세례를 받는 것은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 내외의 일체를 이룬 것임을 상징한다. 그분이 받은 세례는 그분의 삶의 외적 평면을 신성화시키신다는 표시이며, 우리의 거듭남의 원형(prototype)이 된다. 비둘기와 하늘로부터의 음성이란 이 일의 내적 결과에 대한 상응적 표시에 해당된다. 이 일이란 그분이 시험을 승리로 이끌어 인성에 있던 악을 몰아내는 만큼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가 그분의 인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작업을 말한다. “사랑하는 아들”이란 신성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인성을 뜻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복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9372항)」: “성경에는 말씀에 관한 측면으로

또는 신성한 진리로 주님을 표현하는 부분이 많다. 그 중에서도 모세,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아주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요한이 거처했던 유다 광야란 주님이 세상에 오실 당시에 말씀이 사람들 속에 점유된 상태를 표현한다. 말씀의 가장 바깥 면 또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외적 양상은 세례자 요한의 ‘음식’과 ‘옷’으로 기술되어 있다. ‘낙타의 털’이란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난 기억속의 진리 (memory-truths)들을 의미하고, ‘가죽띠’란 모든 내용적인 것들이 질서적으로 보존 되어 연결하는 외적인 묶임(bond)을 의미한다. ‘메뚜기’란 아주 보편적인 진리 또는 말단에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 ‘들 꿀’이란 이러한 끝 진리들이 산출하는 즐거움 (pleasantness)을 의미한다.”

「진정한 기독교 (True Christian Religion 제 677-684항)」: “세례의 첫 효용(use) 은 세례인이 기독교회로 입문되는 것과 동시에 영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세례가 교회로의 입문을 상징한다는 것은 유아 세례를 살펴보면 이해된다. 유아들은 아직 어떤 이성적 능력도 없고 이제 막 뻗어 나온 새 가지와 같아 믿음에 속한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나 유아들은 세례를 통해 기독교 천국에 소개되고 그곳에서 돌봄을 받도록 주님께 의해 천사들이 할당 된다. 세례의 두 번째 효용은 기독교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속량자, 구세주를 알고 인식하여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함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삶을 영위해 간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세례의 세 번째 효용 곧 마지막 효용은 인간이 거듭남을 의미하며, 이는 각 세례가 존재하는 목적에 해당되는 본질적 효용이므로 마지막 세례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2) 주님은 헤로데로부터 구원되기 위해 어느 곳으로 피신하셨는가?
- 3) 주님의 공생애는 언제 시작 되었는가?
- 4) 누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졌는가?
- 5) 세례자 요한은 어떤 옷을 걸치고 있었는가?

- 6) 그의 음식은 무엇인가?
- 7)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8) 그는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 9) 요한이 말한 세 가지 세례란 무엇인가?
- 10) 누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왔는가?
- 11) 예수를 보고 요한은 무엇을 느꼈는가?
- 12) 주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 13) 주님이 세례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내려 온 것은 무엇인가?
- 14)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어떻게 말했는가?
- 15) 세례의 세 가지는 무엇을 묘사하는가?
- 16) 세 가지 세례의 효용들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베들레헴 2) 이집트 3) 30세 4) 세례자 요한
- 5) 낙타 털옷에 가죽 띠 6) 메뚜기와 들 풀 7) 회개하라! 8) 요르단 강
- 9) 물, 성령, 불세례 10) 예수 11) 자신의 무가치함
- 12) “이렇게 해야...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 13) 비둘기 14)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15) 회개, 개혁, 거듭남
- 16) ①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불리게 되고
 - ② 그가 주님을 알고 따르며
 - ③ 그의 삶의 안과 밖이 모두 거듭 나게 되는 것

29

시험을 받으신 주님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문제로 여겨질 것이다. 우리는 각자에게 오는 시험을 똑바로 보고 굳세게 싸워나감을 배워갈 때만이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를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바람은 총명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허사가 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이를 고치려거나 제지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때로 그것을 단행하기 위해 심한 꾸지람이나 매를 들지만 쉽게 교정하지 못하기도 한다. 우리는 본과를 통해 시험은 지옥에서 오는 것이며 각 사람의 지성과 심정을 장악하기 위한 악령과 천사들의 싸움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싸움의 결정적 요소는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성서: 마태복음 4장 1-11절

4장: 1.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2. 사십 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몹시 지장하셨을 때에 3.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하고 대답하셨다.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느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7.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하고 대답하셨다. 8. 악마는 다시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 주며 9.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하고 말하였다. 10.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하시지 않았느냐?”하고 대답하셨다. 11.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지상생활 동안 많은 시험들을 받으셨다.
- * 우리의 영은 처음부터 영계에 존재하여서 좋은 영들과 나쁜 영들 양쪽 모두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주님이 아기였을 때 이집트에 머문 구절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는 앞서 공부를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셨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무지에서 출발해 배움을 통해 기억적 지식을 획득하고 또 그를 통해서 진리를 깨우치셔야만 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습득하기로 선택한 지식은 구약 성경이었다. 본문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습득된 지식의 일부를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것이 뒤틀리고 깨뜨려지도록 하는 시험을 겪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받으셨음에 대한 이유이다. 40일간의 주님의 시험은 그분의 공생애를 위한 준비과정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응을 통한 깊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 이 때, 주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수행된 그분의 모든 시험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는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도 설명해 준다. 시험은 본질적 성격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즉, 주님을 꾸준히 찾는 대신 외향으로 나타나는 선함만을 만족하는 형태의 시험과 우리가 교회에 잘 참석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만 되풀이하면 지상에서 우리의 삶에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시험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아주 돌아서서 자신의 복지에만 몰입하는 삶을 영위하는 시험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악마는 상징적 모양새로 지옥의 영향력을 표현한다. 각 시험마다 주님은 “성서에 쓰여 있나니” 라는 형식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다. 주님의 권능은 말씀의 글자 안에 존재한다. 말씀의 글자는 우리와 주님 그리고 천사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주님과 천사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담긴 말씀의 구절들이 우리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매일 성경을 반복하여 읽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며 그들이 말씀의 구절을 암송하도록 해야 함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본문에서 강조되는 첫 번째 사항은 성경을 빠지는 날이 없이 매일 읽으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끊임없이 붙어 다니는 죄”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한 결점들이 있다. 우리가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신의 나쁜 습관을 금하거나 그것에 반대되는 어떤 구절을 찾아내서 그 구절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시험이 들 때마다 그 구절을 상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제 1반

본문을 공부하는 이가 어리더라도 시험의 본성이나 근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선하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우리는 각자에게 있던 시험들을 떠올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되돌아보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 나쁜 생각이나 자극들이 각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악령들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과 주님처럼 우리도 유혹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하게 되고자 하면 주님과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주님은 세례 받으신 후 홀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거하시면서 시험과 대항하여 스스로 강건해지셨다. 시험이란 우리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기 원할 때 있게 되는 내적 갈등을 뜻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어떤 물건을 집에 두고 나가면서

아이에게 그 물건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외출했다고 하자. 집에 홀로 남게 된 아이는 그 물건을 보며 고민에 빠진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물건에 대한 호기심 역시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때 아이의 마음에는 “살짝 보는 것은 괜찮잖아?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라는 속삭임이 들린다. 사실 이 작은 소리는 아이의 마음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지옥의 악마에게서 온 유혹의 소리로 아이를 유혹하여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 그와 더불어 외치는 목소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아이의 수호천사의 목소리로서 “절대 그래서는 안 돼. 부모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돼. 그것은 나쁜 행동이야.”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이 때 아이의 마음은 시험에 들게 된다. 즉, 악마의 말과 천사의 권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아이가 악마의 말을 선택하게 되면, 호기심은 풀 수 있으나 부모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 아이가 천사의 권유에 귀를 기울이면, 후에 부모님께 칭찬 받게 될 것이다.

주 예수는 우리처럼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 악마들의 속삭임을 종종 들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악마들에게 언제나 “NO” 라고 말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셨다. 또한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가 잘못을 행하도록 유혹될 때 악마에게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보여주신다. 주님은 악마의 시험을 겪게 될 때마다 “성서에.... 라고 쓰여 있나니....” 라고 성경을 인용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인용할 때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언제나 돕고 계신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을 배운다.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을 하도록 유혹되면, 우리는 “이것은 악마가 나에게 속삭이는 거야. 나는 악마와 합작할 수 없지 않는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먼저 다짐해야 한다. 그 후 우리는 유혹받은 것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올바른 것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의지로 악을 배제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다.

질문으로 요점 정리

- * 악마는 처음에 주님을 어떻게 시험했는가?
- * 주님은 유혹에 무엇이라고 답하셨는가?
- * 그 후 악마는 주님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 * 악마는 주님에게 무엇을 해보라고 말하였는가?
- * 악마는 주님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했는가?
- * 주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 * 이 후 악마는 어디로 갔는가?
- *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 * 과거 악마가 자기를 시험한 때가 있었다고 기억되는가?
- * 시험에 대항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본문은 말하는가?
- * 악마가 주님을 떠나자, 누가 그분의 시중을 들었는가?

제 2반

우리는 회개의 정의와 그의 중요성을 공부했다. 본문은 우리 각자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교가 되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자기의 특이한 결점(단점)을 인식한다. (2) 결점을 금하거나 또는 결점에 반대되는 지침을 명령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서 기억하도록 한다. (3) 각자의 결점으로 빠져 들려할 때, “악령이 내 속을 또 뒤집고 있는 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4) 스스로 성경구절을 암송한다. 큰소리로 낭독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시험이 사라져버릴 때까지 더욱 깊이 생각하고 반복한다. (5)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곁에 천사가 와 있음을 기억한다. (6)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선하고 유용한 활동을 즉시 행하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공부하자.

- * 세례자 요한은 누구인가?
- *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 주님은 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셨는가?
- * 어떤 징조가 하늘로부터 있었는가?
- *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뭐라고 말했는가?
- * 본문에서 세 가지 시험은 무엇인가?
- * 본문 4절과 7절 그리고 10절에서 주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답을 찾아보자.
이 대답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 쓰여 있나니”라는 답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 신명기 8장 3절과 6장 16절 그리고 6장 13절을 읽어 보자.

주님은 우리와 같이 지상에 계셨을 때 잘못을 행하도록 유혹되었다. 본문은 주님이 시험을 받은 내용이다. 또한 성경에서 그분이 시험되어졌다고 언급된 유일한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 역시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 접하고 극복된 각기 다른 종류의 시험들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비유임을 이해해야 한다.

악마는 “극악한”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하지 않는다. 선 보다는 악을 사랑하기를 선택한 저 세상의 모든 자들 즉 지옥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악마라고 부른다. “악마”란 악의 모든 권세를 의미한다. 성경에서의 “사탄”은 거짓의 모든 권세를 뜻한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주야로 단식하셨다. 우리는 한번쯤 자신의 마음을 선하게 혹은 전보다 더 낮게 하겠다고 결심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심을 지키는 것이 과히 쉽지 않음도 느꼈을 것이다. 이 상태는 주님이 광야에서 단식 하셨음과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 이것은 결심을 하고 과거에 즐기던 나쁜 습관들을 금하고 살다보면 숨통이 막혀 터질 듯 갑갑하게 느끼는데, 이때에 누군가가 과거의 나쁜 습관들 중 하나를 해도 괜찮다고 유혹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이뤄진 장소가 왜 광야인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할 것이다.

주님은 성경으로부터의 인용문으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이는 우리가 시험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 잘못된 것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은 말씀 안에 계시고 그분의 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정 속으로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극복해야 할 특수한 결점들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것들과 반대되어 말하고 있거나 금지를 명하는 구절들을 찾아 익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될 때마다 그 구절들을 암송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암송해야 하며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을 때까지 암송할 필요가 있다. 그 구절을 기억하며 반복해서 말하는 노력 자체가 우리의 잘못된 마음상태를 회복시켜 줄 것이

다. 우리는 시험이 극복될 때 올바른 행동에 행복을 느끼게 된다. 본문의 11절을 읽어 보자. 우리는 시험을 이겼을 때 특별한 종류의 행복과 만족감을 갖게 된다. 또한 우리는 우리 곁에 천사가 가까이 있음과 우리가 느낀 행복이 바로 천사가 느끼는 행복임도 알게 된다.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잘못된 것을 행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가 올바른 것을 행하려고 결정하면, 우리는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제 3반

세 가지 시험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실례를 들어본다. 우리는 본문의 6절을 읽고, 성경은 우리의 과오들을 고치는데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므로 과오에 대한 변명을 찾는데 그것을 인용해서는 안 되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사용하면 악마가 성경을 인용하는 것과 같음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 공부했듯이, 세례는 주님의 진리에 따라 우리의 생활을 정화하겠다는 바램의 표시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심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종 어려운 시기를 맞는다. 이때에 미덕을 행하는 것은 괴팍하고 메마른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기적 탐욕은 전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진다. 이는 주님이 세례 받으신 직후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시험받으신 이유이다.

주님이 악마에게 시험받으신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이다. 세상에는 왕이라 할 수 있는 큰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악을 사랑함으로 통치되는 지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마라 불린다. 악마 (the devil)란 악에서 나오는 모든 힘을 인격화한 것이고, 사탄 (Satan)은 거짓에서 나오는 모든 힘을 인격화 한 것이다. 이처럼 본문에 기록된 세 개의 시험들은 주님이 지상 생활을 통해 겪게 되는 것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험이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케 만들라는 것, 즉 하느님에 관한 지식과 영적인 것이 없이 외적 선한 일(external good work)을 행하는 것만으로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험이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는 것이며, 스스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라 했으니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시험이며, 우리의 어리석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하고 입으로 말하면 나머지 6일 동안 자신을 기쁘게 할 이기적인 일에 집중하여 어떤 과오를 행하게 되더라도 주님이 사랑으로 용서하실 것이므로 우리의 구원에는 전혀 상관없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본문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준다.

세 번째 시험은 악마에게 절하며 예배하라는 것이다. 이는 주님의 뜻을 배우며 실천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리추구와 자기만족만을 추구하는 시험이다.

이 세 가지 시험은 행동과 사고 그리고 의지라는 세 단계에서 있게 되는 우리의 모든 시험을 요약해 주고 있다. 주님은 세례 받으신 후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악한 경향성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간 계셨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에게 있어 단 한 번의 시험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즉, 우리가 글자에서 느끼듯이 한 번의 큰 전투로 그분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거듭남과 아주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유아기 때부터 항상 시험들을 접하셨고 그것들이 점차 어려워져 마지막으로 가장 크고 어려운 시험인 십자가에서의 고난에 이르는 더욱 깊은 형태의 시험들을 극복해 가셨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런 시험들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함축되어 있을 뿐이다. 앞서 공부했듯이, 광야는 메마른 심정상태를 상징하며 숫자 40은 시험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이다.

우리는 주님이 시험자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주목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어린 시절에 이집트에 체류하셨던 것은 그분도 우리처럼 어린 시절에 배워야 하셨음과 특별히 그분이 배우려고 선택한 것은 구약성서의 글자였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 때마다 “성경에....라고 쓰여 있나니...”하고 답하시고, 제시된 악을 금하는 가장 명확한 성서의 구절을 인용하실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들을 위한 최상의 본보기이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 계신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경의 구절들을 배워 나가고 시험을 겪을 때 마다 그것들을 반복하면, 주님의 권능은 구절들을 통해 우리의 심정 안으로 들어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있는 어떤 나쁜 점을 깨달아서 그것을 고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있는 나쁜 점을 꼬집고 나무라는 구절이나 그것에 대치되는 선함을 명령하는 구절을 찾아서 늘 암송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어떤 구절을 갖지 못하거나 갑자기 시험이 닥쳐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있다. 이러한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구절이 제 10절의 “사탄아! 물러가라!” 이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를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탄과 악마”는 우리의 자연적 이기심을 충동질하기 위해 언제나 우리 곁에 바짝 붙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용감하게 시험들을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는 악마 대신에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천사들을 선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11절을 읽어 보자. 앞서 배웠듯이, 우리는 언제나 두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육체적 몸과 자연적 감각은 우리들 주위의 물질적 세계에 우리의 의식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세계인 우리의 바램과 생각들은 물질이 아니며, 우리 영혼은 영적인 세계에 있다. 스웨덴봄은 우리는 때로 천사들에 의하여 일종의 그림자 같이 보이기도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지옥 혹은 천국에서 있음을 선택한다.

기본 상용 공부

돌 = 진리, 특히 자연적 평면의 진리

빵 = 사랑의 선

제 4반

본 반에서는 구체적인 시험에 관한 것을 언급한다.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고 매일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도 강조한다.

주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 직 후, 그분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세례의 의미가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진리에 의거해서 살려고 결심하는 것이라고 느낀다면, 그 순간 바로 여기에 맞는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주님은 지상에서의 삶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이러한 시험을 모두 접하기 위해서 유한한 인성을 입으셨다. 우리는 각 복음서를 읽을 때 주님이 입으신 본성으로 그분이 투쟁하는 모습은 상기하지 않을 때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 투쟁의 전체는 광야에서의 시험으로 본문에 함축되어 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천적인 의미를 밝힌 스웨덴북의 “천국의 신비”와 그 책에 관련된 많은 성경 구절들은 주님의 연속적인 투쟁에 관하여 알려 준다. 이러한 책들을 읽어 보면, 투쟁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님에게 있게 된 것은 모든 이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바램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주님의 생애가 언급된 부분은 성경의 의미 중에서 가장 깊은 의미에 속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광야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보신 바대로의 교회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분이 광야에서 겪은 시험들이란 사람들의 의지와 반대된 상태에서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발견하려는데 따른 어려움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 삶의 측면에서 광야란 사리 추구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갖는 실망 혹은 불확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숫자 40은 시험을 상징한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단식하시며 시험과 씨름하셨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말씀에 있는 이에 대한 기록은 우리를 가르치시려는 비유인 것이다. 주님이 입으신 인성은 인류로부터 있는 것으로, “광야”이며 시험으로 꼭 찬 상태를 뜻한다. 처음의 상태는 욕을 만족시키고 더 열망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있는 이 열망을 이해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세 가지 시험 중 첫 번째는 가장 낮은 의미 즉 육체적인 열망을 묘사함을 알 수 있다. 선함에 대한 외적이며 자연적인 사상에 만족하려는 상태와 이웃에게 물질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님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사고가 필요치 않다는 생각은 바로 이 시험이 오게 되는 이유이다. 두 번째 시험은 지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온 진리를 알고 있으나 겸허하게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고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성전 꼭대기란 지적인 오만을 묘사하며, 그 시험은 자신의 악을 변명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본문에서와 같이 악마가 성경을 인용하는 상태이다. 가장 깊은 시험은 세 번째 시험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만들려는 시험으로, 우리의 의견과 뜻을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는 태도이다. 무한한 권능을 지닌 주님과 그분의 의지가 올바름을 이는 사람들에게 이 시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

기 위한 그분의 가장 깊은 사랑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시험은 갯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통해 잘 표현되어 있다. (마태복음 26:39) 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 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한 것을 알지 못 하나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쉽게 이해될 것이다.

주님은 시험 때마다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다. 그분은 세례에 따른 약속을 수행하셨고, 그분의 유한한 인성을 판단하셔서 그것이 진리에 순종하도록 강요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 속에 있는 신성이 인성을 지휘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질서 속으로 배열시키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신 것은 악을 타파하시기 위함이었고, 악마가 성경을 인용한 것은 악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대신 악마를 모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이러한 일련의 시험들의 성공적 결말을 보신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유한한 몸 안에 신성이 명백해져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시게 된다. 그리고 선한 이들은 그들의 자연성을 주님을 섬기는데 주력하도록 놓을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비로소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며, 기적들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되었다.

제 5반

우선, 주님이 지상생활 전체에서 시험을 만나셨음을 언급한다. 본문 후반부의 인용문을 통해 세 가지 시험의 의미를 설명한다. 또한 시험의 일반성, 시험의 근원, 우리에게 시험이 허용된 이유 그리고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시험이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마음 즉 바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그 바램이 자신에서 비롯된다고 느끼지 못한다. 또한 시험에 대항하려는 바램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낮은 자아와 보다 높은 자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자아가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이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 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것들을 휘저어 우리의 의식세계로 가져오는 자극제는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부터만 생겨날 뿐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의

영향력 사이에서 완전한 균형을 유지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따르고 싶은 자극을 선택함도 자유롭도록 섭리하신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능력을 초과하는 시험이 우리에서 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 (고린도전서 10:13) 사람들은 때로 “이번 시험은 나에게 역부족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답변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지난 일을 되돌아보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된 상황은 별로 없다. 우리는 올바른 행하도록 돕는 집단과 잘못되도록 유도하는 집단 즉 좋은 집단과 나쁜 집단 사이에서 선택할 자유가 늘 있었다. 우리가 이 세상 주위의 집단 외에 다른 보이지 않는 집단도 있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도움이 된다. 우리는 선한 영적 집단과 악한 영적 집단 중에서 어느 한 집단을 선택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들 집단의 영향을 느끼며, 때로 그들의 소리를 듣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의 속에서 임의로 생겨나 있게 되는 좋고 나쁜 생각들이나 느낌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생겨난 생각들이나 느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의 소지는 우리에게 있다. 분노, 미움, 시기심, 앙심, 탐심 혹은 자만심 등은 해하기 좋아하는 악령들에 의하여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된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 있는 악하고 패악한 집단들의 행동과 별로 다를 바 없다. 악하고 패악한 집단들은 악한 일로 기쁨을 느끼는 자들의 집단이므로 곧 악령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악하고 패악한 집단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면 우리의 삶은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듯이, 나쁜 생각들이나 느낌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여 따르지 않는 한 우리의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악한 집단의 제안에 대해 “NO”라고 잘라 거절하듯, 악령들의 제안에도 우리는 단호히 “NO”라고 자를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으면 선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영원히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선한 것을 보지 못하면 선택 자체조차도 우리에게 없게 되기 때문이다. 선택이란 양자택일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우리가 자신내의 악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악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수준에 따라 우리 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더 깊은 악들을 이용해 악령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허용하시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차원의 선들을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힘든 운동을 열심히 해나가면 우리의 근육이 단련되듯이, 우리의 인격도 더 깊은 악에 노출됨에 따라 더욱 발달되며 강건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험을 받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의 약함을 잘 알지 못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악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주님이 허용하시는 시험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 시험에 정면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위해 우리 안에 준비해 두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

주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그분이 지상 생활 마지막까지 날마다 극복해 가셨던 모든 시험을 상징한다. 주님이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기사 내용의 세부 사항들은 상응물이며 명백한 비유이다. 앞서 공부했던 세례자 요한의 내용과 같이, 유다 광야란 당시 교회의 상태를 표현한다. 주님의 세례는 그분이 입으신 인성을 정화하시겠다는 결심을 묘사하는 것이다. 인성이 정화됨으로, 그분의 혼이신 신성이 그 힘을 인성에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시험은 세례 직후 즉각적으로 수반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서도 적용되는데, 시험이 옴과 동시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 또한 찾아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숫자 40은 시험을 상징한다. 본문에서는 시험자가 “악마”로 불리며 “사탄”으로서 말해지고 있다. 이 둘은 개개인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악에 속한 모든 힘이 “악마”라는 용어로 함축된 것이다. 거짓에서 오는 모든 힘은 “사탄”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 주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지옥의 모든 세력의 공격을 접한 것이다.

주님께서 겪으신 세 가지 시험은 삶의 세 가지 차원에서 있게 되는 시험들을 의미한다. 돌이란 자연적 평면에 있는 진리들이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굶주린 배를 채우라는 것은 가식적인 선행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수준으로 자연적인 차원에서의 자기만족을 뜻하며, 이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 선행을 하는 목적은 선행을 통해 기대되는 명예나 칭찬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을 인도자시며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심을 믿지 않는 상태이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시험한 사탄에게 하신 주님의 답은 인간이 원칙적으로 모두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진실된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뜻하신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은 지적 평면의 시험으로서 “믿음만, faith alone”으로도 충분히 구원된다고 생각하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믿노라고 말만하면 그분이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고방식이다. 성전 꼭대기란 주님에 대한 지식의 만족을 표현한다. 성전은 교회속의 교리를 상징한다. 따라서 성전 꼭대기에서 자신을 던진다는 것은 자신이 아는 진리를 따르려는 노력 없이 삶의 높은 상태에서부터 삶의 낮은 상태로 가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교회에 아주 열심인 사람이 주일을 지키는데 게으름이 없으나 그의 마음에 ‘나는 신앙이 아주 좋으니 저 사람들보다는 더 낫지’ 또는 ‘내가 이렇게 교회 일에 열심인데 주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더 배려해 주실 거야.’와 같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이 싹튼다면 그때가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이 오는 시기이다. 이리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 인용문을 신명기 6장 16절에서 찾아보면, 우리는 하느님을 시험하는 대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함과 “주님께서 옳게 보시는 일을 해야”함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로 진정으로 소원한다면 더욱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 같은 수준의 선행들로는 주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선한” 지점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아주 선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바로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서 있어서 ‘아차!’ 하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심정 속에 든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어야 하며, 그것들이 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어야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주님께서 겪으신 세 번째 시험은 가장 깊고 어려운 것이었는데, 이것은 인성의 자연적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기심이 우리 심정을 완전히 소유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일에 자아를 우선시함은 "사탄에게 절하며 예배 하는" 것에 해당된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인간적 이기심 안에는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모든 악과 모든 거짓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자아로 삼아 버리는 것은 곧 악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는 것이 되고 지옥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 된다. 우리는 이 시험을 경험하게 될 때

시험의 양상과 관계없이 자아를 부정하고, 우리의 힘과 인도를 주님으로부터 찾으며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구원될 수 있음을 다짐해야 한다. 즉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매 시험에서 주님의 대답은 성경에서 온 인용문이었다. 이는 주님께서 시험에 대처하는 가장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음양으로 겪은 시험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것들도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시험은 근본적으로 한 가지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지옥 중에서 지옥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선택해내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성서에서 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도와주시도록 길을 연다는 것이다. 말씀은 실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야곱의 사다리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꼭대기에 계신 주님에게로 올라가고 주님의 진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통로가 된다. 발밑이란 땅인데, 사다리가 연결시켜준다. 사다리란 우리 마음속에 든 말씀의 글자에 해당된다. 우리가 시험에 답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할 때는 “사다리”를 세우는 것이며, 이로 인해 주님과 천사들로부터만 올 수 있는 평화와 만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바로 본문의 마지막 절인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가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1690항): 주님의 삶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겪으신 것과 그 시험들을 모두 승리로 이끄신 것으로 가득하였음은 구약성서의 말씀 중 많은 것들을 통해 증거가 된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험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것은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암시된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4:13)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까지 즉 인성을 가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로 증명이 된다... 주님의 마지막 시험은 그분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적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인데, 이것은 곧 세계의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주님의 삶을 증거 하는 복음서들은 광야에서의 시험을 제외하면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그분이 겪으신 다른 시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겪으시는 시험들의 진정한 의미가 알려지지 않았다. 그 까닭은 글자적인 의미로 나타내어 질 수 있는 것은 아주 미약하여 이러한 수준에서 말하고 대답하는 것은 영적인 시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겪으신 시험은 인간의 범주에서는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비통한 것이었다. 마태(4:1-11), 마가(1:12-13) 그리고 누가(4:1-13) 복음서들에 있는 시험에 대한 증거들은 모든 시험을 요약적으로 함축하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전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써 지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 맞서 싸우셨음이다. 모든 시험은 그 사람의 중심원리가 되는 사랑을 공략한다. 그래서 시험은 그 사람이 가진 사랑의 정도만큼에서 있게 된다. 사랑이 공격받지 않는다면 시험도 없다. 그 이유는 사랑이 파괴되면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랑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생명은 전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위대하여 순수한 사랑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도가 없다.... 주님의 참 생명인 사랑은 “그분의 배고프심”으로 의미된다. 그분이 세상사랑 즉 세상사랑 속에 있는 모든 것과 싸우셨다는 것은 ‘악마가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로 표현되고 있다. 그분이 자아사랑 즉 자아사랑에 속한 모든 것과 싸우셨다는 것은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로 표현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승리하셨음은 시험이 끝난 후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라고 말해진 것으로 요약된다.”

질문 정리

- 1)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누가 왔었는가?
- 2) 세례자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 3) 그는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 4)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5) 주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자,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 6) 주님은 뭐라고 답변 하셨는가?

- 7) 주님이 세례 받으시자,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왔는가?
- 8) 하늘의 음성은 뭐라고 말했는가?
- 9) 세례 받으신 후 주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 10) 주님은 광야에서 얼마 동안 계셨는가?
- 11) 거기서 누가 주님을 시험했는가?
- 12) 첫 시험은 무엇인가?
- 13)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 14)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 15) 매 시험마다 주님은 어떻게 답하셨는가?
- 16)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도록 유혹될 때 재빨리 사용할 수 있는 두 마디의 말은 무엇인가?
- 17) 시험이 끝나자 누가 와서 주님을 시중들었는가?
- 18) 세 가지 시험은 각기 무엇을 의미하는가?
- 19) 왜 주님은 시험 받으셨는가?

질문의 답

- 1) 세례자 요한 2) 유다 광야 3)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음
- 4) 회개하라! 5) “제가 선생님께 세례 받아야 합니다.” 6)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7) 비둘기 8)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 9) 광야 10) 40일 11) “악마”
- 12) 돌이 빵이 되게 해 보라 13) 스스로 뛰어 내려 보라 14) 악마에게 절해보라
- 15) “성서에 ...라고 쓰여 있다” 16) “사탄아 물러가라!” 17) 천사 18) ① 선함을 자연적 수준에서 생각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 ② 우리가 어리석은데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③ 주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 19) 그분의 인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30

주님의 첫 제자들

머리말

본과를 통해 제자와 사도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 두자.

성서: 마태복음 4장 12-25절

4장: 12.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래아로 가셨다. 13. 그러나 나자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즈불룬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14.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15. “즈불룬과 납달리, 호수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래아. 16.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7.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하고 말씀하셨다. 18. 예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걸어가시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로 만들겠다.”하시자 20.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갔다. 21. 예수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 이번에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는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22.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22. 그들은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라 갔다. 23. 예수께서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24.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예수께 데려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도 모두 고쳐 주셨다. 25. 그러자 갈릴래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물질적으로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것과 똑같은 기적을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다.
- *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사상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할 것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이 성장해 왔던 나자렛 지역을 떠나 갈릴래아 해변가인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는 것이다.

물은 진리를 상징하며, 바다는 진리가 한 장소에 많이 모여 있는 것 즉 우리의 기억(memory)을 묘사한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바다 중에서 거룩한 땅에 있는 갈릴래아와 사해는 가장 중요한 바다로 등장한다. 요르단 강 역시 진리를 상징한다. 그러나 요르단의 명칭은 “내려가는 것, descender”이란 의미이며, 이는 주님으로부터 인간의 마음 안으로 흘러 내려가는 진리를 상징한다. 이 두 바다는 우리 내의 두 가지 다른 수준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요르단 강물은 갈릴래아 바다와 사해 바다로 흘러간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분의 가르침을 알 수 있다. 물론 삶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어떤 이는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고 그것들을 활용함이 없어서 결국 무엇도 이롭이 없게 된다. 즉, 생명이 없는 말씀이 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을 담고 있는 지성(mind)이 바로 사해이다. 사해에는 고기가 없으므로, 어부와 배도 없다. 반면, 갈릴래아 바다는 고기로 가득해 고기잡이배가 언제나 그 위에 떠 있고, 그곳의 많은 이들은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이것은 아직 영적 영역이 파괴되지 않은 인간의 마음 안에 꺼내져서 사용되는 것을 기다리는 말씀으로부터 온 살아있는 진리가 가득함을 의미한다. 이는 주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가버나움에서

사셨던 것과 그분의 첫 제자들이 어부였던 이유이다.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들이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꾸준한 동반자로서 주님의 변모한 모습까지도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들은 학식 있는 자들도 아니며 세상이 인정하는 중요 인물도 아니었다. 주님은 그들의 어떤 점을 보신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본문을 통해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주님을 인식했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그들의 모든 관심사와 이익을 버리고 즉각 그분을 따라나서며 그분께 순종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첫 제자(배우는 자)가 되었고, 후에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란 “파견됨, sent out”이란 뜻이며,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한 자들이다.

기독교인으로 불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즉 “기름부은 자”로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심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자아 충족 혹은 세상적 포부를 위한 관심에서 벗어나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들을 배우며 그분께 순종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삶속에서 보다 나은 인격으로 또는 보다 성숙하고 현명한 대화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일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선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갈릴래아 바닷가에 살던 어부들과 같게 된다. 즉,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단순히 명령하신 것을 듣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 1반

우선, 갈릴래이란 단어를 설명한다.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들이며, 이들은 모두 어부였다. 베드로의 두 가지 이름을 언급한다. 낚시 바늘로 고기를 잡는 것과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의 차이에 따른 의미상의 차이도 살펴보자. 주님이 그들에게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 그분이 의미하신 바도 간단히 설명한다. 주님은 그분을 따르도록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네 제자들과 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베들레헴은 주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거룩한 땅의 남쪽에 해당된다. 주님은 나자렛에

서 성장하셨는데, 그곳은 거룩한 땅의 북쪽 지역에 해당된다. 주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조용하게 사셨다. 그 후, 주님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주거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 가버나움 역시 북쪽 지역이었지만, 그곳은 갈릴래아 바다의 동쪽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갈릴래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가버나움에 사는 많은 이들은 어부였다. 그들은 갈릴래아 바다에 고깃배를 소유 하면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 나갔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네 명의 어부들에 관한 것이다.

질문 및 요점정리

- *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들은 주님께 순종했는가?
- * 주님은 어떤 두 명의 다른 형제를 보셨는가?
- *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주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 * 첫 제자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접하는 이들이다.
- * 그들은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분과 함께 다녔고, 그분은 그들을 가르치셨다.
- * 제자(disciple)란 “배우는 자, learner, pupil”라는 뜻이다.
- * 제 23절은 주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세 가지 일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 * 그것은 무엇에 관한 일들인가?
- *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자 주님께 가져 온 병은 무엇인가?
- *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 * 주님은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하셨듯이 그분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제 2반

성서 지도를 통해 갈릴래아의 위치를 찾아본다. 이와 더불어 거룩한 땅의 세 부분과 주님의 생애와 관련된 지역들을 재고 해본다. 본문에 인용된 예언의 말씀(이사야 9:1-2)을 찾아 읽고, 그 예언이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음도 살펴보자.

본문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 * 주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 * 가버나움이란 어디에 위치하는가?
- * 시몬이란 이름 외에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은 무엇인가?
- *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가?
- * 제 24절에는 어떤 다른 병 증세가 기술되어 있는가?
- * 어떤 병이 의지 평면에 속하는가?
- * 어떤 병이 생각 평면에 속하는가?
- * 어떤 병이 행동 평면에 속하는가?
- *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며 가르치시는가?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기 위해 나자렛에서 요르단 강으로 가셨을 때 그분의 나이는 약 30세였다. 그 후, 그분은 광야에서 40일간 계셨고 나자렛으로 되돌아가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4장 16-32절을 통해 알 수 있다. 갈릴래아 호수가의 도시 가버나움은 그분의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의 중심지였다.

갈릴래아 호수는 복음서에서 꽤 비중 있는 지역이다. 물은 진리를 상징하고, 바다는 기억 안에 모여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바다 안에 있는 고기들은 이 같은 지식에 대한 우리의 애착(affection)을 묘사한다. 주님께서 갈릴래아 호수가에 있는 도시를 공생애 동안의 주거지로 삼으신 것은 지식을 구하고 배워서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곰곰이 생각한 결과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것 혹은 자기가 사랑해야겠다는 것을 기억 안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이것은 고기잡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첫 네 제자들이 어부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13-18절을 보면, 시몬이 또 다른 이름을 어떻게 얻었는지 알 수 있다. 베드로란 돌 또는 바위를 의미한다. (요한복음 1:42) 첫 네 제자들이 어부였다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길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지식과 인간적 판단에 의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주님이 가려내심을 뜻한다. 주님이 그들 중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신 첫 4명은

사도들이 되었다. 사도(apostle)란 “파견되는 자, one sent forth”라는 뜻이다. 주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도록 하셨다. 그러나 사도들은 처음에는 제자였다. 제자(disciple)란 배우는 자, 생도(learner 혹은 pupil)에 해당된다.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동행해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랐다. 제 23절은 주님이 공생애에 하셨던 세 가지에 대해 알려 준다.

병의 증세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삶의 세 가지 평면 즉 의지와 생각과 행동 면에서 곤란을 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서지도를 통해 거룩한 땅을 살펴보면 가버나움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본문 25절에는 지도에 있는 여러 장소가 언급된다. 데카폴리스(Decapolis)는 “열 개의 도시들”이란 뜻이다. 그 도시들은 요르단 강 동쪽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양쪽 구역이 접해지는 곳에 위치한 로마의 성읍들에 관한 이름이다.

많은 사람들은 치료받기 위해 주님을 따랐다. 그러나 4명의 제자들은 아프지 않았다. 그들은 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선했으며 약속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어서 주님을 보자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그분에게 배우는 것 외에 바라는 것이 없었다.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자신의 길만 옳다고 고집하며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한다. 다른 한 부류는 올바른 것을 찾아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한다. 우리 각자는 두 부류 중 어디에 속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주님은 먼 옛날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부르셔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주님은 그들 네 제자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어 가르치실 준비를 완료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들 네 명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첫 제자가 되고 나아가 그분의 사도가 되어져 갈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배우고 감화 받게 하는데 쓰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가르침을 살아내어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도의 삶이 되는 것이다.

제 3반

바다, 고기잡이, 고깃배 그리고 그물에 관한 상응을 살펴본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의 모습과 제자 된 후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토론해 본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이름은 우리 모두에게 꽤 친숙하다. 그들은 주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어서 그분의 공생애 기간 동안 늘 함께 했다. 또한 그들과 더불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는 주님이 부르신 첫 네 제자였다.

그들은 갈릴래아 바다 근처인 가버나움에 거처했고, 그들 모두는 어부였다. 바다란 기억에 모인 지식을 표현하므로, 이는 우연이 아니다. 고기란 이 같은 지식에 대한 애착 즉 이 같은 지식에 대한 애착심을 뜻한다. 영적인 어부란 삶에 유용한 지식을 기억으로부터 발견하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뜻한다. 이들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다. 네 명의 사람들은 주님과 처음 대면했을 때 배 안에 있었다. 그들 중 두 명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다른 두 명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중 이었다. 스웨덴붉은 배 혹은 그물은 교리를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 교리(doctrine)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교리는 가르침이며 말로 표현되도록 체계화한 진리를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나 선에 관해 말할 때 교리를 말하게 된다. 또한 선행과 선함을 말할 때에도 교리를 말하게 된다. 따라서 교리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가 진실 혹은 거짓인지와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때때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진리인지 점검하지 않고 자신이 믿기 원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교리는 어떤 때는 배(ship)와 같이 그리고 어떤 때는 그물처럼 비유될 수가 있다. 네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 전 앉아 있던 배는 그들이 양육되어 왔던 교회 속의 포괄적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들의 그물이란 그들 스스로 “고기를 잡기 위하여” 즉 그들의 지식이 일상생활에서 쓸모 있도록 하기 위해 엮어진 사상을 묘사한다. 그들은 그들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불려졌다. 즉,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교리 혹은 사상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불려 진 것이다. 이러한 부름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있다. 즉,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우리의 주장만을 고집하려는 자연적 생각과 사상을 떠나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이며 선생이심을 인식하도록 불려 진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본문은 주님이 행하신 몇 가지 일을 보여주고 있다. 제 23절을 자세히 읽어 보면, 주님이 하셨던 세 가지 일을 알 수 있다. 주님은 전도하시며 가르치셨고, 병을 고치셨다. 제 24절을 읽고, 주님께 치료받기 위해 온 아픈 사람들의 병은 어떤 것들이며 그것들은 어떤 영적 병을 표현하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 두려워 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혹은 나쁜 감정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나쁜 성격, 증오, 또는 폭력적인 욕구 등의 해로운 감정들을 조절할 수 없게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마귀 들린 사람의 상태처럼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의 방식이 잘못 되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마치 미친 사람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올바른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중풍에 걸린 자와 같다. 말씀에 언급된 모든 약함이나 질병들은 각각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어떤 조건, 인간적인 부귀, 혹은 능력도 중요하지 않다. 모든 인간들은 이미 창조 때부터 주님의 추종자였으며, 그분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실 수 있다. 주님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밝혀주시는 데, 지금의 우리는 그 때의 제자들이 이해했던 것보다 더 낮게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육안으로 그분을 보고 들었지만, 우리는 영 안에서 심정과 지성으로 그분을 뵈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있다.

기본 상응 공부

고기 = 기억적 지식에 대한 애착

배 = 넓은 측면의 교리

그물 =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짜놓은 교리
 질병들 = 영혼에 있는 무질서들
 악마에게 소유 당함 = 자신의 이기심과 악한 포부로 움직이는 것
 미친자(lunacy) =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어서 더 나은 진리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상태
 중풍병자 = 자기의 선한 의도를 꾸준히 이행하는데 무능력함

제 4반

자신의 사상을 고집하는 대신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주님을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의무임을 강조한다.

주님은 약 30세가 되시던 때에 공생애에 진입하셔서 약 3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 계셨다.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그분의 공생애에 관한 짧은 구절을 통해 지성과 심정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의 그분의 공생애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오래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서술임을 이해할 수 있다.

공생애 시작 초기에 주님은 첫 번째로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후에 모두 사도가 되었다. 열 두 사도들은 야곱의 열 두 아들과 같이 우리 속의 모든 자질과 애착들을 표현한다. 주님은 우리 속의 모든 자질과 애착들이 그분을 따르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 살아있는 것, 즉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도록 늘 부르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즉시 듣고 따르기 시작하면, 첫 번째 단계인 제자 즉 배우는 자가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배움이 완성되면, 우리는 지상의 하늘 왕국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도가 되어 세상에 보내진다. 우리는 주님의 사도가 되기를 바라며, 구원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올바른 것 혹은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우리의 사상적 표준은 복음이며 자신을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하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갈릴래아 바다에 있는 어부들은 주님의 첫 제자들이었다. 바다는 기억 안에 저장된 지식을, 고기는 각자를 위한 지식에 대한 애착을 표현한다. 배란 보편적인 교리를 표현한다. 네 어부들이 탄 배는 그들이 양육되었던 교회의 교리를 표현한다. 그리고 그물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지식과 생각들을 토대로 만든 인간적 방법론을 표현한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교리와 철학 그리고 논리 체계들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배우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물을 손질”하는데 많은 세월을 허비한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따르고 우리에게서 빛을 찾으려고 애 쓰지 말고 그분에게서 배우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가 말씀 속의 진리들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곧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첫 번째 네 명의 제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 속의 진리를 배우고 깨우치면, 우리는 주님의 육성을 직접 들으며 배웠던 제자들 보다 명확히 주님의 참된 뜻을 알게 된다. 말씀 속의 진리를 증거하고 그것을 인류에게 전하는 것이 스웨덴봄의 사명이었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주님의 재림은 영적 재림으로 그것의 목적은 인류의 총명이 크게 발달함에 따라 말씀의 속뜻을 배우고 깨우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이라고 한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1-32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인간 속에서 나온 추론이 아닌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들이다. 인간의 추론은 거짓 명제를 기초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거짓 명제는 대개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주님에게서 진리를 찾지 않아도 인간 스스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근본이다. 이러한 것을 기반하고 출발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성에 묶이게 되며,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 즉 가시적인 한계 안에 머물고 만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적인 단계에 갇혀서 더 이상의 영적 발전이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자연적 단계를 벗어나야만 이 세상에 있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진정한 위치나 그 관계를 명확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주님의 진리뿐이다.

주님이 갈릴래아 바닷가에 서서 어부들에게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때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선택이 그들을 역사적으로 저명하게 만들 뿐 아니라 기독교회의 반석들이 되어 인간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었을까? 학술적인 논리나 과학적 사고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론들 대신 말씀으로부터 주님을 찾아 삶의 인도를 받으려는 것은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듯 하찮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생은 특히 영적 성장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와 같아서 강인한 체력과 고통을 인내할 끈기가 필요하다. 영혼으로 완성된 삶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완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세상적인 성취나 만족감에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것들보다 중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5반

첫 네 제자들의 의미, 그들이 호명된 차례 그리고 부름 받은 결과는 중요하다. “사람의 어부”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그 속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선교에 노력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인지를 토론 해보자. 우리가 교회의 교리를 이용해 우리의 지식 속에 담긴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찾고 일상생활에 응용하는 습관을 지닌다면,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쓸모 있는 사도가 되기 전에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주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심이 주는 궁극적인 의미는 신성에 속한 그분의 진정한 능력이 물질계까지 내려오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주거지를 나자렛에서 갈릴래아 해변의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것이 상징한다. 바다란 기억 안에 수집되어 있는 지식을 뜻한다. 고기란 단순히 기억된 지식을 쓸모 있고 살아있게 만드는 지식에 대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의 첫 네 제자들은 어부였으며, 본문에서는 가진 지식을 어떻게든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진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어부로 상징되고 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분이 살아있는 진리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그물을 버렸다. 즉, 그들은 간직해 왔던 그들의 철학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이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살아왔던 자연적 진리 대신 영적 진리를 주시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 주님의 왕국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첫 네 제자들은 열 두 사도 중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사도들은 야곱의 열 두 아들과 같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동원되어야 할 우리 속의 모든 능력을 표현한다. 즉, 자연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다가 영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도록 바뀐 모든 능력을 표현한다. 요한계시록 설명 820-821항(뒷면 참조)에서 첫 네 명의 제자들의 의미와 그들과 주님의 관계에 관한 명확한 서술을 발견할 수 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주어진 그들을 부르시는 기사는 실제적으로도 같다. 그들을 부르신 순서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의 출생 서열과도 유사하다. 베드로는 르우벤과 같이 진리 또는 믿음을 표현한다. 요한 복음(1:35-42)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아는 주님을 미리 알아서 그분에 대해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증거 한다. 이것은 진리 또는 믿음을 상징하는 베드로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순종을 바라는 것을 상징하는 안드레아가 먼저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안드레아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되어 베드로 보다 먼저 주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안드레아는 성경 이야기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구약 성서의 후기에 시므온이 유다에게 흡수된 것처럼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는 영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있다면,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던 초기의 바램이 선행 (charity)의 삶 안에 녹아들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레위와 같이 선행을 표현하며, 요한은 선행 의 행위(일)를 표현한다.

스웨덴복음은 진정한 질서로 발달되어 가는 단계는 먼저 순종하려는 바램으로 출발하여 하느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선 뒤에 선 또는 선행을 사랑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선한 일로 끝맺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요한이 다른 제자보다 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인격 발달의 진정한 순서를 기억해야 한다. 선한 일 혹은 통상적으로 말해지는 외향적 선한 행위는 그것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근원하지 않으면 순수한 선이 아니다. 스웨덴복음은 이를 인공적인 과일과 비교하여, “인공적인 과일도 외형상에 있어서는 진짜 과일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속은 아스팔트 같은 먹지 못할 유해한 물질도

함유되어 있다...”라고 설명한다.(DP 21513)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속의 각 층 즉 생각과 의지와 행동 면을 표현한다. 따라서 그들이 주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되었음은 당연하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목격하도록 허락 되었다. 또한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는 장차 올 일들이 말하여졌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말해진 것을 이해하지 못한 때가 많았으며 더러는 아예 잊어버리기까지 했다.

갈릴래아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은 제 23절에 요약되어 있다. 그 일들은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에게 다가설 때에 우리 삶의 외적 평면에 있게 되는 그분의 일들을 묘사한다. 주님은 먼저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는 우리의 모든 자질을 유용하게 해주신다는 뜻이다. 그 후, 주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즉, 우리가 진리를 받으려는 상태에 있는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교리를 보여 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법칙에 따라 사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보여 주신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사람들 중에 있는 온갖 허약함과 병자들을 치료하셨다. 이는 우리의 영적 건강함을 지속하는데 방해되는 나쁜 습관이나 그릇된 사고방식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이다. 이 일은 더 넓어져서 우리의 종교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의 취미나 활동분야까지도 주님에게 나아오게 되어서 올바르게 정립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본문 25절에서 요르단 강 건너편으로부터 온 많은 무리로 표현된다.

본문에는 세 가지 형태의 병이 언급되는데, 그것들은 우리 속의 세 가지 평면에 있는 악을 묘사한다. 악마에게 소유당한 이들 즉 마귀 들린 사람은 심정에 있는 악을 표현한다. 간질병자는 지성 속에 있는 거짓을, 중풍 병자는 우리의 선한 의도를 수행하려는 것을 힘들게 하는 나쁜 습관들을 표현한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있게 되는 모든 선한 결과들은 우리로 하여금 완고함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게 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821항)」: “복음서의 말씀 중에 사도 베드로

는 주님께에서 온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의미하며, 어떤 경우 이와 반대 의미인 선으로부터 분리된 진리도 의미한다. 진리는 믿음 속에 있고 선은 선행(charity) 속에 있으므로, ‘베드로’는 선행으로부터 있는 믿음도 의미하게 된다. 어떤 경우 이와 반대되는 의미인 선행에서 분리된 믿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열 두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처럼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뜻하므로 선과 진리들에 관한 모든 것을 표현한다. 이는 모든 진리들은 믿음 속에 있고, 선들은 사랑 속에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의미에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믿음, 선행 그리고 이타적인 행위들을 표현한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주님을 따랐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셋을 하나로 표현한다. 세 사람들이 하나인 이유는 선행 없이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며 이타적인 행위가 없는 선행은 참된 선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믿음에 대한 순종을 뜻하는 안드레아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처음 부름을 받았다.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 받아졌다. 또한 주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그분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변모하신 모습을 보여 주셨고, 시대의 종말과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도 했다. 또한 주님은 게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도아네르게스이라고 기술된다. ‘천둥의 아들’이란 천적인 선에서 나온 진리를 의미한다. 요한은 선한 일이란 측면에서 교회를 표현한다. 선한 일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선행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요한은 다른 제자보다 더욱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질문 정리

- 1) 주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어떤 바다 근처에 주거지를 두셨는가?
- 2) 그분이 사신 곳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주님이 부르신 첫 제자들은 누구인가?
- 4)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 5) 그들은 부름 받을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6) 주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7) 주님이 부르시자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 8) 주님의 공생애를 구성하는 세 가지 형태는 무엇인가?
- 9)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형태는 무엇인가?
- 10) 주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 11) 바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2) 고기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3) “사람의 어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 1) 갈릴래아 2) 가버나움 3)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4) 어부
- 5) 그물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다. 6) “나를 따라 오라” 7) 즉각 따라 나섰다.
- 8) 가르침, 전도하심, 병을 고치심 9) 마귀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 10) 사방 각처에서 왔음 11) 기억 안에 모아진 지식 12) 지식에 대한 애착
- 13) 주님의 왕국으로 다른 이들을 이끌어 들이는 것

31

산 위에서의 설교

머리말

산 위에서의 설교 규모를 가늠해 봄으로써 세심하게 공부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그리고 최소한 마지막 비유는 기억하도록 하자.

성서: 마태복음 5, 6, 7장

5장: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2.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7.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8.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다. 9.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10.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갇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 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15.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 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둔다. 그래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16.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18. 분명히 말해 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일 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9.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20.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1.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 법정에서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24.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 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 와 예물을 드려라. 25.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형리에게 내 주어 감옥에 가둘 것이다. 26. 분명히 말해 둔다.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 나오지 못할 것이다. 27.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29.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30. 또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31. “또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그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32.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33.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느님의 옥좌이다. 35.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느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그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다.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다. 37.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8.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양갓음하지 말아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겹옷까지도 내 주어라. 41. 누가 억지로 오 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 리를 같이 가주어라. 42.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리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 43.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46.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나?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8.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6장: 1.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2.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3.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그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5.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6.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 주실 것이다.” 7.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 주시는 줄 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9.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10.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11.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15.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16.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하고 다닌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17. 단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18. 그리하여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19. “재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 와 훔쳐 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서는 좀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 와 훔쳐 가지도 못한다. 21.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22.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23.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만일 네 마음의 빛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25.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26.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 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일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온갖 신성화 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 입지 못하였다. 30.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31.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32.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7장: 1.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 받지 않을 것이다. 2.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3.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의 티를 빼내어 주겠다’고 하겠느냐? 5.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 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7.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8.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9.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10.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1.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2.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 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14.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 드는 사람이 적다.” 15.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마는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 있다. 16.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20.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21. “나더러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22.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하고 말할 것이다. 23. 그러나 그 때에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24.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25. 비가 내려 큰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26.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27. 비가 내려 큰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29.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다.

교리 요점

- * 주님의 진리 위에 인격이 세워져야 한다.
- * 복이란 주님에 의해 주어진 행복을 위한 규율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앞서 공부했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주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각 곳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병을 치료하셨다고 쓰여 있다. 따라서 그분이 많은 설교를 하셨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분이 강연하셨던 목적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본문의 첫 부분도 “예수께서는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시작된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들을 언제나 “산 위에서의 설교”라고 부른다.

갈릴리에 있는 산은 세상적인 삶의 평면 위에 있게 되는 영적인 전망대 또는 영적인 견해를 상징한다. 영적인 견해와 자연적인 견해는 본질적 면에서 수준이 다르다. 인간적으로 지혜롭다는 견해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 설교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설교는 축복으로 시작하고 있다. “복 있음(blessed)”이란 행복(happy)을 의미한다. 축복 조항을 읽고, 그곳에서 언급된 조건 중 어느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보자.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것으로,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다. 이천 여 년 전 주님의 육성으로부터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그분이 진리를 말함을 인식했음은 본문 7장 마지막 절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5-7장까지 산 위에서의 설교에는 각각 유명한 단원이 있다. 제 5장은 주님이 주시는 복, 제 6장은 주님의 기도 그리고 제 7장은 황금률에 관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매우 평범하며 실제적인 교훈이 담겨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경험과 문제들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올바른 것을 알고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 십계명은 세상이 변하더라도 선한 삶의 기본 법칙이라는 것, 외향적 선한 삶만으로 충분치 않고 올바른 심정을 가져야 하는 것,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닌 자아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우리 삶의 본보기로 삼아 정진해야 한다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선을 행하고 하늘에서의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세상적 미래를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세상적 성공을 하지 못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 남을 비평하기 보다는 자신을 비평해야 한다는 것, 열심히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이 그 예이다.

성직자들은 본문의 구절에서 많은 설교 재료를 발견한다. 7장의 마지막 비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노력을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인격이라는 집을 지어야 할 기초가 하느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반석임을 보여 준다. 주님은 인간적 편견을 상징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며, 구원의 길은 이를 피하여 그분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신다.

제 1반

주님이 산 위에 앉아 계신 모습과 그분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을 연상하면서 공부해 보자. “복 있음”이란 행복을 말한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그 바램은 산 위에서의 설교를 통해 말해지고 있다. 각 비유 속에 있는 중점 단어와 그 의미를 알아본다.

우리는 교회에 참석해 설교를 듣게 된다. 우리는 때로 설교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리둥절해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교회에 참석해 설교를 경청하다 보면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성직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뜻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주님도 지상에 계셨을 때 설교하셨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분의 설교 중 가장 긴 것을 “산 위에서의 설교”라고 부른다. 산 위에서의 설교는 훌륭한 비유로 끝을 맺는다. 비유란 그 속에 어떤 의미를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그 중 한 가지 비유를 읽어 보자. (7:24-27) 우리는 집 안에서 살고 있으나 대체로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스스로 지은 또 다른 집이 있다. 집의 내부와 외부는 세월이 흐를수록 바뀌기도 하지만 자기 집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라는 집이다. 우리의 인격이라는 집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들을 재료로 삼아 지어진다. 그 집의 기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것의 표준을 자신의 사상에 두고 자신의 인격이라는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사상이 바뀌거나 잘못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격이라는 집을 내리치는 비바람은 시험을 뜻한다.

질문 및 요점 정리

- * 산 위에서의 설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 * “복 있음”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통해 그분은 우리를 진실로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 * 산 위에서의 설교는 아름답고 지혜로 가득한 가르침이다.
- * 산 위에서의 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 * 6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다.
- * 7장에서 우리는 황금률을 발견한다.
- * 주님이 설교를 마치시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가?
- * 그들은 왜 놀랐는가?
- * 주님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분이 하느님이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다.

제 2반

산 위에서의 설교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계명의 적극적인 면으로서 주님의 축복도 언급한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우리의 심정 속에 주님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때다.

성경에는 산에서 있었던 굉장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계명이 시나이 산에서 주어졌던 것, 주님이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 가셨던 것, 주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그분의 가까운 제자들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 엘리야가 제안한 대결 그리고 그 대결이 가르멜 산에서 있었던 일 등이 그 예다. 산꼭대기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높은 상태에 있는 것 즉 우리가 주님에게 가까이 있을 때를 뜻한다. 우리는 그때에 일상생활을 내려다보며, 자연적 삶과 영적 삶의 진정한 위치를 알게 된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분의 가르침이 필요함을 보시고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는 주님이 군중을 보았을 때, 그들의 육신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보셨기 때문이다.

산 위에서의 주님의 설교를 여느 책들과 비교하면 그리 긴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많은 내용과 본문이 주고자하는 교훈들이 담겨 있다. 우리는 본문 5장부터 7장까지의 각 장에는 특별히 잘 알려진 단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5장의 여덟 가지의 복, 6장의 주님의 기도 그리고 7장의 황금률에 대한 가르침은 신앙인으로서 명심해야할 것들이다.

본문은 복(blessing)으로 시작된다. “복 있음(blessed)”은 시편 1편에서 배운 바와 같이 “행복”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주님이 본문에서 “복 있는...”이라고 명명하신 서술들이 실제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행복(happy)이 쾌락(pleasure), 출세, 대중적 인기, 부유함 혹은 막강한 영향력 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소유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을 때가 허다하다. 이는 행복이 주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이다. 주님으로부터 온 행복은 우리의 심정 속에서 느껴지는 그분의 이타적인 영이다. 우리가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이들이 자신을 위해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잘 안된 일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할 때는 행복할 수 없다. 자신을 잊고 타인을 돕기를 사랑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준다. 이것이 복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특질들을 우리 속에 발달시키고 싶다면, 산상 설교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그 의미를 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심정 안에 분노와 원망이 체류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줄 때, 용서와 친절함이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타인들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자신 마저도 자기를 칭찬하려 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적 성공 보다 선하게 처신해 가려는데 먼저 신경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에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과오를 먼저 찾아보려 하지도 않고 남의 과오부터 들먹거리서는 안 될 것이다.

비유에서 집이란 우리의 인격을 말한다. 우리의 집을 세워야 할 반석이란 주님의 진리이다. 모래는 우리 자신의 견해 또는 삶의 길을 알기 위해 주님의 진리를 탐구치 않은 이들의 견해이다. 비나 홍수 그리고 바람이란 우리의 삶에 들이 닥치는 시련이나 시험을 말한다. 이러한 시련과 시험 모두는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모두 똑같이

오고 있다.

질문정리

- *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비유가 있는가?
- * 그 비유는 무엇인가?
- * 폭풍이 불었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었는가?
- *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떠했는가?
- * 군중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는가?
- * 왜 주님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제 3반

우리 삶의 안내자는 자아가 아닌 주님이심을 강조한다.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이해하도록 한다.

산이란 주님께 더욱 가까이 있는 상태 즉 생각과 느낌의 보다 높은 평면을 뜻하고, 갈릴리란 세상에서의 일상생활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살피기를 원한다면, 세상적인 평면위로 우리의 마음을 한 단계 높이 들어 올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 올림 즉 산에 오르는 마음의 상태 없이 우리는 산상 설교 즉 산 위에서의 설교인 주님의 가르침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설교는 행복으로 인도되는 삶의 특질을 서술함으로 시작된다. “복 있음”은 시편 1편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행복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외적 아름다움, 뛰어난 사업능력, 재력, 건강 혹은 자아신뢰 등을 갖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태어날 당시 가지거나 우리가 쟁취해야 할 최상의 것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가 이것들을 소유하거나 쟁취하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서 이것들을 소유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한 이들을 보게 된다. 주님은 복 안에서 행복을 위한 확실하고 유일한 규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제 17절을 읽어 보자.

복 있음이란 계명을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명을 지킨 결과가 산상 설교에서의 복들이 가지는 특성(quality)으로 표현된다. 이사야는 “악을 행함을 중단하고 선하기를 배우라”라고 말한다.

산 위에서의 설교의 가르침들은 복의 특질들이 일상생활에서 실현되는 실제적인 예들이다. 산 위에서의 설교의 나머지를 다시 읽고, 주님이 올바른 내적 삶을 어떻게 지적하고 계시는지 정리해 보자. 또한 설교들은 방대한 내용이 글자 속에 들어 있으므로, 한 번에 읽기보다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우리는 본문의 각 장마다 유명한 단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즉, 5장에서의 복과 6장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리고 7장에서의 황금률이 그러하다. 각 절들의 내용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친숙할 것이다. 이는 수많은 설교 혹은 강연 등에서 이를 인용하고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산상 설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자극을 주어 스스로를 점검하도록 인도한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설교를 들었던 신약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가르침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행복하단 말인가?”라고 중얼거리기도 한다. 이런 질문이 있게 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함(poor in spirit)”을 “연약한 마음, 겁쟁이(poor-spirited)”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이 의미하신 것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함이란 자신에만 집착하지 않는 이들 즉 스스로가 약한 존재임을 실감하고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슬퍼하는 사람”이란 진정으로 자신의 악들을 후회하며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다. “온유한 자”란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하기보다 자신이 해함을 당하기를 선택하는 이들이다. 우리는 산 위에서의 설교를 읽어 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사상을 놓지 말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는 산 위에서의 설교를 마무리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집은 우리의 인격이며, 반석(rock)은 주님의 진리이다. 모래란 인간들의 의견들이다. 비와 홍수 그리고 바람은 선함과 악함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삶에 있게 되는 시험과 시련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위에 우리의 인격의 집을 짓고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느끼고 생각하려고 언제나 노력하면, 우리는 시련과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게 된다. 그럼으로 시련과 시험 또는 사별과 실망을 겪게 되는 것, 즉 주님이 허용하시어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험과 시련도 우리의 영혼에 간직될 선함을 위한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대처하게 된다. 이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집 안에 거하시게 되어 우리가 언제나 행복하게 되고, 그분의 이타적 사랑인 행복의 원천이 우리 심정 안에 있게 된다. 행복이란 내적인 느낌이며,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마침내 주님은 권위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이는 그분만이 권위를 가지셨고, 그분은 하느님이셨기 때문이다.

기본 상응 공부

모래 = 인간의 의견들

폭풍 = 시련이나 시험

제 4반

산 위에서의 설교에 대해 일반적으로 서술하고, 그 안에 자주 사용되는 유명한 단원들을 언급한다.

산 위에서의 설교는 마태복음서의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서는 6장에만 그것의 내용이 담겨 있어 보다 짧은 형태를 취한다. 마태복음서는 복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되어 주님의 기도와 황금률도 포함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설교를 공부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위한 많은 영적 양식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가” 때 지어 몰려 온 군중의 육신들 이외의 것도 보셨다. 그분은 그들의 영혼과 영적 약함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보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산 위로 데리고 올라 가셨다. 산에 오른다 함은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 사상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행복에 대한 규율을 주셨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할 때 반드시 배양되어야 할 영적 특성들에 관한 것이었다. 군중들은 설교 말씀에 놀라지 않았는데, 이는 복의 조항들이 그들이 느끼는 행복의 필수 요건으로의 특질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세상적으로 생각하여 산상 설교의 복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불행과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지 않는 것이 다행일지도 모른다. 주님이 산으로 데리고 간 사람들은 기꺼이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 주님은 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셨다. 화학 성분으로서의 소금은 두 요소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소금은 삶에서 진리와 선이 하나로 되고자 하는 바램을 표현한다. 군중들은 선해지기를 원했으나 선한 삶의 방법을 잃은 상태여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을 수 없었다. 이것은 본문에서 “소금이 짠 맛을 잃은” 모습으로 표현된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진리와 선함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꾸준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군중들에게 일점일획의 홀트림 없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그분은 외향적 즉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충분치 않음도 보여 주셨다. 주님은 바리사이파사람들에 의해 해석된 빼뜯어진 계명의 몇 가지를 열거하셨고, 각 경우에 영 혹은 동기가 순수해야 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첨가해주셨다. 주님은 사람의 심정이 자기추구, 증오, 시기, 탐욕, 혹은 미움에서 친절, 자비, 용서, 순수함 혹은 겸허함으로 변화되기를 추구하신 것이다.

산 위에서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에 대한 비유는 모든 설교를 생생한 그림으로 압축한다. 집이란 우리의 인격을 표현한다. 집을 세워야 할 반석은 주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들을 뜻한다. 모래란 물에 쉽게 휩쓸리는 것으로서, 불안정한 인간의 견해를 의미한다. 폭풍은 우리의 시험 혹은 시련을 뜻하고, 이것들은 우리의 선함과 악함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된다. 우리는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슬기로운 결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세상사를 접할 때 인간의 견해를 설득력 있는 용어들로 간주할 때가 흔하며, “현대 학자들”의 견해를 중시하여 주님의 가르침에 냉소 할 때도 있다. 우리는 이러할 때 "내가 스승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스승들의 증언들을 명상하기 때문이다"라는 시편의 기사를 깊이 묵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제 5반

5장 첫 절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

산상 설교는 어느 설교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읽혀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어느 인간의 설교보다 많은 교훈을 담고 있다. 한 절의 말씀이 가지는 교훈만으로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교훈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 산상 설교이다. 또한 과거에 산상 설교에 대해 들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가르침은 언제나 새롭게 들려온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정통하다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읽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경이로운 사실은 산상 설교가 주어지지 수많은 세월이 경과했고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에 의해 읽히고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가 그것을 통해 새로운 교훈을 얻는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참 행복의 조항들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 구절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규율임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자주 읽으며 반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삶에 있어서 이 규율들을 중심 원리로 삼았는가를 돌이켜 봐야 한다. 즉 겸허한 마음, 애통함, 온유함 혹은 박해받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냐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산 위에서의 설교의 진리들 역시 이와 같다. 말씀의 각각의 구절은 우리가 실제로 쓰고 신뢰하는 자연적 추세와 반대되어 있으며, 우리의 자연적 유전성과 무관함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것은 본문의 5장 1절에서 주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된 이유이다. 주님은 그들을 보셨을 때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그들의 심정과 지성을 보고 계셨다. 주님은 그들을 악들과 파괴로 인도하는 그들의 무지함을 보셨다. 또한 주님은 삶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위해 하느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함도 보셨다. 주님이 산에 오르심이란 사람들이 익숙해져 온 생각의 수준에서 벗어나 끌어올려져야 함을 뜻한다. 이렇게 끌어올려진 후에 주님은 그들에게 명백하고 실용적인 교훈들을 주셨다. 즉, 그분은 그들이 행복하고 복 받는 삶을 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삶의 변화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순서를 밟아 가셨던 것이다.

주님은 특별히 지적하시는 말씀과 독단적으로 보이는 설교도 주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 지를 명백히 보여 주셨다.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주님이 권위를 갖고 그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주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실 때 듣고 있는 무리에 속한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산 위로 가서 영적 생각을 해야 하며, 권위를 갖는 유일한 그분으로부터 삶의 길을 배워야 한다. 자아추구, 자아신뢰 혹은 권력이 삶의 성공을 가져 올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사실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불안, 거절, 고통, 실망 그리고 파괴를 가져다준다. 주님은 직접 이를 말씀하고 계신다. 진정으로 끝없는 행복은 겸손하고 순수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이들에게만 온다.

5장부터 7장까지의 실용적 가르침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 우리가 진리에 따라 살지 않으면 진리에 대한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는 짠 맛을 잃은 소금과 감추어 놓은 등불과 같다.
- * 계명은 영원한 진리로서 영원히 필요하다. 그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바뀌지 않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깨뜨려지지 않는다. 주님 스스로도 계명을 초월하시지 않고, 그것의 일점일획까지 성취하셨다.
- * 율법의 글자(형식)만 지키는 것은 충분치 못하므로, 우리는 심정으로 그것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미움은 진짜 죄이며, 살인은 미움의 행동적 결과일 뿐이다.
- * 되돌아 올 것을 기대하고 주는 사랑은 이기적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선을 보여주려는 능력에 달려 있다.
- * 우리의 인격적 완전함의 이상은 주님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영적 목표를 완전하지 못한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
- * 우리가 칭찬, 보상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의를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면, 우리는 영적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이 같은 선행은 우리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 세상적 성공을 얻지 못함을 아쉬워 할 필요는 없다. 이는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가 주님께서 정하신 우리 존재의 목적을 하나씩 이루어 가는데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 악과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자아를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 *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 우리의 할 바가 현재에 의를 행하고, 장래를 주님께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 타인을 비평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을 먼저 비평해야 할 것이다.
- * 우리는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발견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 옳은 길 보다 잘못된 길이 훨씬 많음으로, 우리는 옳은 길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말씀의 글자에서 나오는 힘 이상의 것을 음미할 수 있다. 성경의 말씀을 위한 대체물과 생각을 표현해내는 단순하거나 더 기발한 방법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산상 설교 자체를 반복하여 읽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일 것이다.

산 위에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의 반석(rock)이나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라는 구절의 “돌”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즉 임마누엘이라는 진리를 뜻한다. 우리의 집은 우리의 인격이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 갈 때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우리의 사상은 과감히 버려야 될 것이다. 바람이 불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사막의 모래 산이나 파도에 휩쓸리어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바닷가의 모래사장의 모래는 인간에 의해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사상을 상징한다. 이러한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사상에 따라 형성된 인격이 곧 모래위에 지은 집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격에게는 어떤 안전성과 항구성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비 바람은 두 가지 형태의 집에 똑같이 불어 닦친다. 비 바람 즉 시련이나 시험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이다. 세상적인 번영이 선함을 약속하는 곳은 결코 없다. 자신에 기초하거나 다른 인간 존재 위에 신뢰를 둔 사람들은 비 혹은 바람에 부셔져 버린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에 기초한 이들의 선함은 비 혹은 바람에도 버티어 나간다. 「사별(bereavement)」을 예로 생각해

보자.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랑했었던 사람이 간 곳은 영계이고 그 세계를 위해 우리 모두가 창조되었다는 것과 그곳에서만 우리가 영원한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각 개인을 사랑하시고 최고의 선한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안내해 주심도 알게 된다. 따라서 견디기 힘든 손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일시적이며 어쩌면 필수 사항일지도 모른다고 여기게 된다. 우리는 이 세계에 생존하는 한 수행할 선용(uses)이 있음과 수행된 선용은 이 세상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가져간다는 것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계에서 어떤 슬픔을 경험하더라도 명랑하고 희망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음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이 세상 삶 이상의 어떤 삶을 보증 받고 있지 않다. 이 세상에서 잊혀진 것들은 그들에게 영원히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사별할 때 어떠한 지혜나 선용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사별만을 슬퍼하는 것으로 그들의 정력만 낭비될 뿐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격은 단단한 반석 위에 있지 않아서 점점 더 침식될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9207항)」: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의 소금’이란 선을 갈망하는 교회속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함은 어떤 선도 갈망하지 않는 진리를 뜻한다. 이러한 진리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음을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다’라고 기술된다. 따라서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즉, 선을 갈망한다는 것은 선을 행함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만이 진리와 선이 합쳐진다.”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1193항)」: “인간이 유용함을 삶으로서 사랑하는 것을 첫 째로, 세상 사랑과 자아 사랑을 두 번째로 하면, 전자는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구성하며 후자는 자연적인 것을 구성하게 된다. 이것은 마태복음서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의 의미이다. (6:33) ‘그의 나라 즉 하늘나라’란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의미한다. ‘의(justice)’란 영적, 도덕적 그리고 시민적 선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서 행해지는 모든 선이 곧 하나의 유용(use)이다. 그럼으로써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유용함이 우선 순위에 놓이게 되면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선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삶은 그분의 지배를 받아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뜻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에게 관계된 하느님의 섭리는 영원한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더 주시는 모든 것’은 양식과 의복에 관련되어 기술된다. 양식(food)은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는 모든 내적인 것을 뜻하고, 의복(raiment)은 육체가 의복으로 옷 입혀져 있듯이 모든 외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내적인 것은 사랑과 지혜와 관계되며, 모든 외적인 것은 부귀 혹은 명예와 연관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유용함 그 자체를 위해 유용함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해준다. 인간의 지혜는 곧 유용함에서 오는 것이며, 이러한 지혜는 바로 천국에서의 부귀의 척도가 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질문 정리

- 1) 주님은 세례 받으신 후 어디로 가셨는가?
- 2)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 3) 매 때마다 주님은 악마에게 어떤 형식으로 대답 하셨는가?
- 4)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 5) 산 위에서의 설교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 6) 복 있음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7) 주님은 우리가 늘 예상하는 것과 같은 복을 열거하셨는가?
- 8) 주님은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치셨는가?
- 9) 산 위에서의 설교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10) 6장에서의 유명한 단원은 무엇인가?

- 11) 7장에서는 유명한 단원은 무엇인가?
- 12) 황금률의 구절을 기억하는가?
- 13) 산 위에서의 설교는 어떤 비유로 마무리되는가?
- 14) 우리의 집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15) 집을 세우기 위한 안전한 반석은 무엇을 뜻하는가?
- 16) 인간의 견해는 왜 모래와 같은가?
- 17) 주님은 왜 권위를 갖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질문의 답

- 1) 광야 2) 시험 받으셨다 3) “성서에... 라고 씌였나니...” 4) 산 위에서의 설교
5) 복(blessings), Beatitude 6) 행복(happy) 7) 아님 8) 주님 9) 3장
10)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11) 황금률 (the Golden Rule)
- 12) 성서참조 (마태 7:12, 누가 6:31) 13)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14) 우리의 인격 15) 말씀에서 온 진리 16) 흔들리고, 떠나려가고... 통일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17) 그분은 권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32

주님의 공생애

머리말

본문은 주님의 공생애를 간략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성서: 마태복음 8장

8장: 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뒤따랐다. 2. 그 때에 나병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주님,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하고 간청하였다. 3.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렇게 해 주마. 깨끗하게 되어라”하고 말씀하시자 대뜸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4.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해 준 대로 예물을 드려 네 몸이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5. 예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 가셨을 때에 한 백인대장이 예수께 와서 6. “주님, 제 하인이 중풍 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하고 사정하였다. 7.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 주마”하시자 8. 백인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9.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0.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감탄하시며 따라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11. 잘 들어라. 많은 사람이 사방에서 모여 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겠으나 12. 이 나라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

나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13. 그리고 나서 백인대장에게 “가 보아라.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간에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 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마침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그것을 보시고 15. 예수께서 부인의 손을 잡으시자 그는 곧 열이 내려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시중들었다. 16.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마귀 들린 사람을 많이 데려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 한 마디로 악령을 쫓아내시고 다른 병자들도 모두 고쳐 주셨다. 17.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그분은 몸소 우리의 허약함을 맡아 주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셨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8. 예수께서는 둘러서 있는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다. 19. 그런데 한 율법학자가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 가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0.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하고 말씀하셨다. 21.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하고 청하였다. 22.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 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하고 말씀하셨다. 23.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따라 올랐다. 24. 그 때 마침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뒤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25. 제자들이 곁에 가서 예수를 깨우며 “주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하고 부르짖었다. 26.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하시며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사방이 아주 고요해졌다. 27.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래져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하며 수군거렸다. 28.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마귀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29.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하느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하고 소리 질렀다. 30. 마침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놓아끼르는 돼지 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31. 마귀들은 예수께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32. 예수께서 “가라”하고 명령하시자 마귀들은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 떼는 온통

비탈을 내리달려 바다에 떨어져 물속에 빠져 죽었다. 33.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읍내로 달려가서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사람들의 일을 알렸다. 34. 그러자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와서 예수를 보고는 저희 고향에서 떠나 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교리 요약

- * 모든 치료의 능력은 주님 안에 있다.
- * 기적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행하시는 것을 가르쳐 준다.
- * 말씀 속의 모든 질병은 영혼의 결함 혹은 어떤 약함과 상응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주님의 공생애는 가르침과 전도 그리고 병 고침으로 구성된다. 본문을 8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여러 가지 실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접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님도 병을 고치셨고 그의 사도들에게도 병을 고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회들은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마누엘 스웨덴북의 저술에서 이러한 견해에 대한 명백하고 합당한 가르침을 발견한다. 그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우리가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거나 약을 먹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병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계에 있는 선물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 이를 위해 그분이 창조해 놓으신 각종 자연물의 도움을 얻어 올바르게 정정될 수 있다. 이 또한 의사들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들도 잘 치료할 수 없는 경우와 의사들이 “포기”한 것이 치료될 때도 보게 된다. 마지막 치료는 언제나 하느님의 섭리 하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분은 왜 언제나 우리를 치료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주님의 원칙적인 주된

관심사는 건강한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영혼을 수반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가 한 걸 같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느님의 법률을 자연적 측면과 영적 측면에서 완전히 이해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질병 혹은 사고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를 멈추어 생각하기 전 우리의 무식함, 이기심, 불순종 등의 결과로 고통 받도록 허용되어질 필요가 있다. 심지어 순진한 어린 아이들까지도 세상이 악들을 일깨워 주기 전 타고난 것들로 고통 받아야 하는 것이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의 사람들은 율법 혹은 물질적 세계보다 높은 세계에 대해 무지했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그분이 베푸시는 능력의 가시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신체적 또는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주님과 천국적인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이 발생될 때 종종 위의 사항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된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육체적 건강을 가장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헬렌 켈러(Helen Keller)를 떠올려 보자. 그녀는 세상에서 아주 유용한 삶을 보낸 이들 중 한 사람으로, 자신의 불리한 신체 조건을 극복하고 밝고 강건한 삶을 이끌어 후세대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물질적 몸을 한 쪽에 두고 저 세계에서 깨어날 때 쓰이는 건강한 영적 몸이 진실로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켈러 여사는 이를 실천했다) 이는 우리가 영원히 지니고 살아갈 것이 영적 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몸은 일상생활 가운데 선 혹은 악의 선택에 따라 건설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제 1반

주님이 지상에서 행하셨던 몇 가지 큰일을 열거하고, 본문의 세부 사항을 살펴본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심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본문은 주님이 사람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그 일들을 기적이라고 부른다. 우리를 치료하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

시다. 그분은 치료가 우리에게 최상이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때로 아픔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함도 알고 계신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건강할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아플 때는 심각하게 여겨 그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어느 때에 영계의 본향으로 취해져야 할지도 알고 계신다.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그분을 찾아 왔다. 그분은 많은 이들을 치료해 주셨다. 주님은 그들의 심정과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최상 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가도 알고 계셨다. 그들은 치료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믿어야 했다. 즉,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8장 23-27절을 보면,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 중의 하나를 알 수 있다. 우리는 간혹 폭풍을 경험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폭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도움 준비를 완료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육체적 눈으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주신다는 믿음을 잠시라도 떨쳐서는 안 된다.

요점 및 질문정리

- * 우리 모두는 건강하기를 바란다.
- * 우리를 약으로 치료하는 진짜 의사는 주님이시다.
- * 건강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과 같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 * 주님이 주무시는 동안 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 * 제자들이 깨우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 후,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제 2반

어떤 것을 성취함에 있어 믿음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도 밝힌다. 마태복음 13장 54-58절을 읽어 두자. 우리가 육체적 건강에 대한 문제에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건강한 육체는 큰 축복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중요성은 아님을 강조한다.

주님의 공생애는 크게 가르치심과 전도하심 그리고 병을 치료하심으로 구성된다.

본문은 주님의 병 고치심에 대해서 몇 가지를 기술하고 있다.

주님은 한 가지 조건으로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이는 본문의 2절, 3절, 10절 그리고 31절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치료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을 고치실 수 있음을 믿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서 하느님의 능력을 지닌 분으로 믿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적을 지켜 본 모든 이가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을 읽어 보자.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아픔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자연적인 것이다. 우리는 많은 질병이 청결치 못함, 해로운 음식의 섭취 혹은 잘못된 거주 습관으로 인해 야기됨을 알고 있다. 물론 사고로 인한 질병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질병들도 있다. 홍역이 만연한다고 모든 어린이가 홍역을 치르는 것은 아니다. 또 사고가 여기저기서 터진다 해도 누구에게나 그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의 법률에 순종하며 타인에게 조심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많은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순종과 세심한 분별력은 지성과 심정에 속하는 자질(quality)이다. 우리는 질병의 경우에도 영적 원인의 측면에서 전혀 감지 못할 때가 아주 흔하다. 그러나 결과에는 언제나 원인이 있으며, 주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주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 기적을 행하셔서 심정이 선한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주님은 그들의 건강한 육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두 가지 이유로 기적을 수행하셨다. 즉, 그분을 믿고자 하는 이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함과 말씀의 기록을 위해서였다. 각 기적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청할 때 우리의 영혼에 수행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실제적 비유들이다. 나병, 중풍, 열병 그리고 귀신 들림 같은 병들이 각각 영적 약함을 묘사함을 상기한다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지 못할 때, 올바른 것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분개함으로 인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를 때 혹은 내 정신이 우왕좌왕하여 어떤 역경 속으로 빠지려 할 때 등등 그 예는 아주 많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영적 병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인지 때로 우리는 “아, 도저히 나는 해낼 능력이 없는 인물이야.”, “나는 그저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을 뿐이야.” 혹은 “내 팔자가 이러니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풍랑을 잠잠케 한 기적은 주님이 자연 세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 주신 것이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신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로 보였다. 우리는 자연계의 법칙이 진실로 자연을 위한 하느님의 법칙이라는 것과 그 법칙이 언제나 하느님에게 속해 있음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기적에는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비유를 기억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본문에서의 풍랑(storm)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언제나 시험이라는 풍랑을 고요케 해주신다.

질문정리

- * 기적이란 무엇인가?
- * 본문에는 몇 개의 기적이 있는가?
- * 그 중 어떤 것이 병을 고치는 기적에 해당되지 않는가?
- * 비유에서 폭풍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제 3반

각종 질병들의 상응을 언급한다. 특별히 영적 나병, 중풍, 열병 그리고 귀신들림에 대해서 설명한다. 각자의 결점은 영적 질병이며, 이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가야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문은 주님의 공생애에 대한 몇 가지 기적들을 기술한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은 주님의 권능이 생명 없는 자연을 초월함을 보여준다. 사실 주님은 이 정도의 능력을 언제나 갖고 계시며 오늘날에도 변함없으시다. 우리는 종종 날씨를 자신의 기분에 빗대어 표현한다. 예를 들어, “그 사람, 오늘 일기가 아주 흐리던데”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됨을 뜻한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필요한 것을 갖고 계시며, 자연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나병, 중풍, 열병의 치료는 그분의 능력이 육체를 초월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까지 와 닿음을 보여준다.

병을 고쳐 주시는 유일한 조건은 그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것은 자연적 평면에서도 동일하다. 우리는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 이는 영적 평면인 우리의 애착이나 사고에서도 동일하다. 우리는 흔히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타고난 본성을 고칠 수 있지?” 혹은 “이것은 내 본성이고 내 운명이야.”라고 말하는 실수를 범한다. 이때에 주님은 우리를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9:26)

말씀에 있는 모든 질병은 영혼의 특수한 약함 혹은 결함과 상응한다. 영적 문둥병이란 “진리의 모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심정으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대로 살기 원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풍이란 올바른 길을 꾸준히 걸지 못하는 것 혹은 우리의 선한 의도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열병이란 내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라는 것이 끊어 오르는 상태를 표현한다. 마귀 들린 사람이란 악한 생각과 악한 흥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자연적 이기심의 결과들로서,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본문의 기적들은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결함들이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먼저 주님이 하나님이며 우리의 영적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이 후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협동해야 한다.

건강한 육체를 행복의 필수요건으로 간주하는 이들은 육체적 기적이 오늘날에도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자아를 잊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면, 우리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을 보존할 수 있다. 스웨덴북은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행하셨던 것과 같은 기적들을 수행하시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기적이 수행되면 인간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음에도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인간을 강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업의 성공 혹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는 이성의 시대에 있다. 주님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려는 것을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을 때의 사람들은

아주 세상적이고 물질적이어서 그분이 수행하신 기적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는 마태복음 9장 34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주님의 기적들은 그분을 믿고 있던 이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였지만, 그분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주님이 기적들을 수행하신 제일가는 목적은 그것들이 말씀의 글자의 한 부분으로 기록되어져 상응을 통해 전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그분이 각 사람의 영혼을 위해 행하실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각 기적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부라 되고, 기적의 중요성은 그것의 영적 의미에 있음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기적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본 상응 공부

문둥병 = 진리의 모독

열병 = 내면의 나쁜 바람이 불타고 있음

마귀 들림 = 악한 생각과 바람의 노예가 됨

제 4반

진정한 믿음의 본성과 기적이 베풀어진 두 가지 이유 그리고 오늘날에는 기적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내용을 이끌어 간다.

주님은 공생애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수행하셨다. 우리는 모든 기적들이 상응으로 수행되었음과 그 수행 과정은 하느님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적이란 “자연에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자연계의 법칙의 근원을 배제한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자연을 위한 주님의 법칙이며, 모든 자연은 영구적으로 그분의 조절 하에 있다. 의학의 연구는 질병에 대한 자연적 원인을 배우려는 시도이며, 자연을 수단으로 질병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올바르고 유용한 학문 분야이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병과의 투쟁에서 지거나 의사들이 그들의 치료를 포기한 뒤에 완치되는 경우도 있다. 주님은 언제나 건강의 근원이시

며, 이는 육체와 정신 모두에 해당된다. 주님은 의사, 약 혹은 자가 치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 온 이들에게 하느님의 권능이 직접적으로 현존하여 결과를 맺도록 하셨다.

하느님의 권능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은 주님이 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수행하시기 위한 선행 조건이었다. 이러한 믿음은 주님이 인간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는 주님과 인간 영혼의 내적 결합에 필수조건이다. 또한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즉 주님을 위해 문을 여는 것이다. 순수한 믿음이란 인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과 협동하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행하실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행하실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많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들은 악의에 찬 분노, 두려움 또는 걱정 근심 등에 깊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심정과 지성으로부터 거절하는 것보다도 깊은 연관이 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분의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았다. 이는 마태복음 9장 34절과 마태복음 13장 54-58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위의 구절에 해당되는 인격의 부류, 하느님의 능력이 자기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기는 이들 혹은 능력의 근원을 하느님 외의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이들에게는 참 기적이 수행되지 않았음은 복음서들을 통해서 이해된다. 즉,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사하시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믿으라고 강요하시지 않았다. 따라서 주님이 바라시는 기적의 참된 효과는 이미 믿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더 강건케 하는 것이다.

말씀에 기록된 기적들의 깊은 의미는 그 기적들의 상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의 신체적 건강 보다 영적 건강을 찾고 계신다. 단지 신체적 건강 혹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진정한 질서를 전복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신체적 건강 없이도 영적으로 건강한 이들을 볼 수 있다. 진정한 축복은 영적 건강이다. 건강한 사람들 중에 선하지도 않고 사회에도 이롭지 못한 이들이 많은 반면 신체적 장애나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강인한 의지력을 가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유용하게 된 자들을 보면 진정한 장애는 마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의 몇 가지 기적들은 우리 속의 영적 실패(결함)를 지적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여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병이란 위선을 표현하며, 스웨덴붉은 그것을 “진리의 모독”이라고 명한다. 나병 환자의 피부는 매우 희다. “양털같이 희다”는 것은 순결함 혹은 고결함을 상징하지만, 나병 환자의 흰 피부는 파멸이라는 무서운 병균을 보유한 상태이다. 그 병균은 피부에서 조직으로 확대되어 인간의 외관을 흉하게 한다. 이처럼 위선(hypocrite)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처럼 보여 모범시민인 듯 그 사람을 포장하지만, 그의 진정한 자아 곧 진실된 목적이 드러나게 되면 겉으로 보였던 선은 그에 의해 악용된 것으로 사실은 악인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만으로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의 겉치레 대신 주님의 도움으로 순수하고 진실한 선함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풍이란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여 똑바로 걷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병이다. 이는 선한 심정 속에 있는 의도를 행동으로 꾸준히 옮기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표현한다. 본문의 중풍병자는 이방인인 로마 제국의 백인대장의 하인이다. 주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의 위선과 하느님의 율법은 없지만 올바르게 사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순수한 바램을 가진 이방인들의 겸손에 대해 종종 언급하신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백인대장의 온전한 신뢰가 주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시지 않고도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었다.

열병이란 “속이 타오르는” 상태를 뜻하며, 이는 흔히 분노 혹은 잘못된 느낌으로 야기된다. 손(hand)이란 능력이 행동에 있는 것을 상징한다. 따라서 우리의 바램이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려 노력한다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밀어내 주실 것이다.

마귀를 쫓아내신 기적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안내자와 힘의 근원으로 여기면 주님이 우리 심정의 악한 열정과 지성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끗케 하심을 묘사한다. 돼지란 육체적 식욕을 상징한다. 우리의 악한 열정은 우리를 사람이 아닌 동물적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실례를 볼 수 있다. 본문의 구절 중 읍내의 사람들이 그들 형제의 병을 낫게 하는 것 보다 그들의 돼지 떼에 더 관심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제 5반

「하느님의 섭리」편 제 129-133항과 뒤에 인용된 단원을 읽어 두면, 본문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의 기적에 대한 본성과 그것의 목적 그리고 그 기적들이 오늘날의 질서에 왜 합당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언급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가운데도 성경의 기적들을 믿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 때문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초능력을 기꺼이 신봉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따라서 그들은 기적에 대한 어떤 증거도 거절한다. 이러한 자세는 지식 혹은 합리성에 기초하지 않은 의지의 충동적 행동의 결과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이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 창조물 안에서 권능을 행사하며 조절하심을 믿어야 한다. 자연의 힘에 하느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에 이미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연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전기를 예로 들어 보자. 전기는 태초부터 세상에 있어 왔고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어 왔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이다. 우리가 기적의 가능성을 부정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과학적 합리성 인데, 알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는 자연의 법칙조차도 알거나 이해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씨앗이 나무로 성장하는 과정, 혹독한 추위 속에서 생명이 보존되는 현상, 정교한 뼈들의 구조 혹은 수많은 일상생활의 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 주님은 세상을 만드셨다. 자연의 법칙은 자연을 위한 주님의 법칙으로, 그분만이 그것들을 완전히 이해하신다. 자연의 법칙은 기적이 수행되었다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적이란 하느님의 권능이 자연계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이를 따름이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수행한 기적들에 작용한 하느님의 권능이나 본문에 작용한 하느님의 권능은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 도구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모든 치료 역시 주님께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과 지금도 꾸준히 역사하시는 기적들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

가? 성경 속의 기적들은 시간적으로 보다 빠르며 때로는 즉각적으로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왜 지금 발생치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지상에서 인간의 눈에 나타나는데 극히 짧은 세월을 가지셨다. 또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히 외적이어서 외향적 평면에서만 감동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주님의 부활은 물질 주의적 억류와 감각적 생각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했다.

이와 더불어 당시의 기적들은 실제로 그 사람들을 확신시켜 주지도 않았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일어난 기적들을 보고도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초능력의 존재를 믿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섭리에 의해 여러 차례 영적 경험들을 갖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러한 경험들이 진짜(real)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경과되고 그 느낌이 퇴색되면 그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환상 또는 꿈이었다고 단언해 버린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지 못했다. 이는 마태복음 9장 34절을 보면 알 수 있다.

주님은 그분을 믿지 않는 이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수행하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이미 그분을 믿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만 기적을 수행하셨다. 주님이 좇아낸 진짜 마귀들은 쫓김을 받기 전 그분의 권능을 믿었다. 주님은 이 구절에서도 믿음의 측면을 아주 명백히 보여 주신다. 그 이유는 말씀의 모든 기적에는 그 사건에 연루되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선행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기적을 수행하신 또 다른 목적은 그것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이렇게 기록된 기적은 영적 진리가 포함되는 궁극의 형태인 말씀의 글자적 의미로서 성경 안에 영원히 있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 때문이다. 기적들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 건강 그리고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됨과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친다. 또한 각각의 기적들은 특수한 교훈을 준다.

본문의 기적은 세 가지 형태이다. 풍량을 잠잠케 하신 기적은 주님의 권능이 자연 위에 군림함과 더불어 자연 과학의 한계성을 명백히 보여 준다. 우리는 풍량의 원인을 알고 있다고 여기며 정확하지 않은 일기예보를 불평하기도 한다. 기상대 직원들은 전국의 대기 조건을 파악하고, 바람이나 구름을 따라 오는 폭풍을 미리 알려 주려고

노력한다. 그들이 정확한 일기를 예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바람의 경로에 무언가가 발생하여 폭풍을 사라지게 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폭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발생”은 우연이 아닌 법칙에 따라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법칙은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깊거나 높은 법칙이다. 주님의 의지는 그분이 갈릴리 바다의 배 안에 계셨을 때처럼 자연 안에서 실제로 움직인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영적 필요성에 따라 자연을 지휘한다.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또한 진실이다. 단지 이런 진실은 기적 안에 포함된 가르침 중에서 가장 바깥부분에 해당된다.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신 기적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에도 와 닿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사람들은 치료의 원인을 좋은 약, 명의, 의사를 신뢰함 혹은 타인의 기도 등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나 치료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신체의 요인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역사의 주인은 주님의 의지이다. 우리의 건강 회복과 우리의 지속적인 고난 그리고 영계로 건너가기까지 지휘 감독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본문의 기적들은 각각 특별한 교훈을 담고 있으므로, 하나하나가 공부의 과제가 됨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질병은 영적 상응을 갖는다. 또한 이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모든 세부사항도 의미가 있다. 다른 성서 본문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내용도 각자 세세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하느님의 섭리 (Divine Providence 제 133항)」: “기적에 대한 결과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있어서 다르다. 선한 이들은 기적을 바라지 않고 말씀의 기록을 믿는다. 그러나 악한 이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기적으로 믿음을 강요하거나 그 자체에 빠져들어 그것을 예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도 아주 잠시일 뿐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악들이 그것을 계속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악들에 있는 탐욕과 탐욕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외적 예배나 외적 경건함에만 치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적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일컬어 하나의 속임수, 만들어진 사건 혹은

자연에 있는 우연한 일이라고 단정하며 즉시 악으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그들은 형식적으로 잠시 예배한 뒤 되돌아서서 진정한 예배에 있는 선과 진리를 모독한다. 이러한 모독을 일삼는 이들이 가 있는 사후 세계는 모든 것 중에서도 최악의 상태이다. 말씀에 있는 기적들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적을 수행해야 한다면, 기적들은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기적이 없는 것에 대한 답을 얻었으리라 믿는다.

질문 정리

- 1) 주님의 공생애 중에 그분이 행하신 세 가지는 무엇인가?
- 2) 본문은 주님의 세 가지 일 중 주로 무엇에 해당되는가?
- 3) 기적이란 무엇인가?
- 4) 주님이 고치신 질병들은 무엇인가?
- 5)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지닌 어떤 병을 낫게 하셨는가?
- 6) 주님은 백인대장의 하인을 어떻게 낫게 하셨는가?
- 7) 주님은 제자들과 어디로 가셨는가?
- 8) 바다 한 가운데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9) 사람들이 주님을 깨우자,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0) 주님은 바다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 11) 각기 다른 질병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2) 주님이 병을 치료 하시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 13) 주님은 지상에 계신 동안 왜 기적을 수행하셨는가?
- 14) 오늘날의 우리는 왜 기적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가?

질문의 답

- 1) 가르침, 전도, 병 고침 2) 병 고침 3) 주님에 의해 행해진 굉장한 일들
- 4) 나병, 중풍, 열병, 귀신들린 자 5) 열병 6) 그분의 말씀으로 7) 배를 타셨다

- 8) 풍랑을 만났다 9)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 10)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11) 영혼의 약함과 결점들
- 12) 주님이 낮게 해 주신다는 믿음을 환자가 지녀야 했다.
- 13)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에 기적들이 기록되게 하시려고
- 14) 믿음을 강요당할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33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

머리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면 반드시 죽기 전에 우리들 속에 천국이 와 있어야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진리의 씨를 받아 잘 키우게 될 때 우리 속의 천국이 점진적으로 발달되어 감을 언급한다.

성서: 마태복음 13장

13장: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더니 2.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그대로 모두 호숫가에서 있었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로 나갔다. 4.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5.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6. 해가 뜨자 타 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7.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8.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백배가 된 것도 있고 육십 배가 된 것도 있고 삼십 배가 된 것도 있었다. 9.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10. 제자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저 사람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11.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였다. 12.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14. 이사야가 일찍이,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만 앎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17.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18.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내포한 뜻을 들어 보아라. 19.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21.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22.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23.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백 배 혹은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 24.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25.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26. 밀이 자라서 이삭이 낫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27.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이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28.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자 29. 주인은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30.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 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게 하겠다.’ 고 대답하였다.” 31.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32.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귀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 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33.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다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어떤 누룩에 비길 수 있다.” 34.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군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35. 그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내가 말할 때에는 비유로 말하겠고 천지 창조 때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36. 그 뒤에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그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37.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38.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요 가라지는 악한자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다.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40. 그러므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묶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끝 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41.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42. 불구덩이에 처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43. 그 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44.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45. “또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46.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47.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 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48.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49. 세상 끝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50. 불구덩이에 처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51.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한 말을 다 알아 듣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하였다. 52.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53. “예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곳을 떠나 54. 고향으로 가서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며 “저 사람이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 55.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56.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런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면서 57.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도 고향과 제 집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58.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별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

교리 요약

- * 하늘나라의 비유들은 천국적 인격의 발달을 다룬다.
- * 모든 사람은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충분히 받고 있다.
- * 주님의 진리는 그분의 진리에 순종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본문은 주님께서 언제나 비유로(34절)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가르쳐 준다. 본문의 11절에서 15절까지는 주님 스스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언급하고 계신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분의 명확한 가르침에 대해 어떤 때는 무지하고 고집스러워 그것을 듣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와 닿으려 하시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주 단순하며 마치 응고되면 단단하게 하나로 굳어 버리는 시멘트처럼 하나로 뭉쳐서 우리 마음의 바닥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우리는 본문에서 일곱 개의 비유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이다. 비유를 떠올리면서 본문을 읽어 가면, 모든 비유가 하나로 엮여 하늘나라가 발달되는 과정을 확연히 알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속에서 천국이 발달되어져야 함을 뜻한다.

우리 속에서의 천국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상황과 같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 속의 진리를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진리라는 모든 씨들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것들은 장차 새들이 휴식할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마음에 취한 모든 씨들이 뿌리를 내려 자라나지는 않는다. 간혹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고 천박하며, 심지어는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해 진리들이 질식해 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가라지들, 즉 우리에게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 사상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우리에게 참된 모습을 드러낸다. 시험이라는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고, 이렇게 하여 우리의 마음이 점차 순수해지게 된다. 이것은 마치 밀가루 반죽이 누룩에 의해 발효되어 마침내 맛있는 빵이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

네 개의 비유는 군중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었다. 이는 진정한 주님의 추종자가 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단계로서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비유였기 때문이다. 그 후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모아 더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군중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 세상적 사람들은 하늘의 지식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으며, 그들의 모든 자연적 혹은 이기적 야망을 포기하고 주님을 이해하며 예배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있는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사지 않는다.

마지막 비유에서 가르치시는 바는 주님 또는 자아를 선택하는 것이 매순간 마다 또는 날마다 반복되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행복이나 아니면 영원한 불행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선택(choice)은 우리가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본문에서 짚고 가야할 것은 49절에 있는 말, “세상 끝 날 (end of the world)”은 그리스어의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시대의 완결(종말), consummation of age”이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판은 물질세계의 파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자렛 동네 사람들은 주님을 단지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간주하여 주님의 현존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하느님이 유일한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임마누엘(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시다는 사실을 역사와 성경의 모든 증거로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큰 값어치가 있는 진주란 그리스도가 하느님 바로 그분이심을 진실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이리하여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이 천국을 향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된다.

제 1반

씨 뿌리는 자, 씨 그리고 여러 종류의 땅의 의미들을 알아본다. 본문을 통해 모든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좋은 씨가 우리들 마음에서 어떻게 발달되며, 무엇이 그 씨의 성장을 저지시키는지도 비유를 통해 알아본다.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에 해당된다. 비유란 그 속에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본문에는 주님이 사람들에게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그것은 해야 한다” 혹은 “네가 하고 있는 일은 옳지 않으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님께 순종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바꿔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제 삼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는 그것이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들으려고 한다. 이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나 책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난 후 부모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와 많이 닮았음을 느끼게 된다. 또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임을 납득하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스스로 행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눈치 채고 그제야 비로소 올바른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주님은 이러한 것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도 다를 바 없음을 알고 계신다. 이는 바로 주님이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이다. 말씀 전부가 비유들의 연합임을 깊이 공부해 가면 자연스럽게 납득될 것으로 믿는다.

요점 및 질문정리

- * 본문에는 아주 잘 알려진 비유들이 있다.
- *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이다.
- *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다.
- * 씨 뿌리는 자란 바로 주님이시다.
- * 씨는 말씀에서 온 진리이다.
- * 각기 다른 종류의 땅이란 무엇인가?
- * 주님은 하늘나라에 관한 몇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 주셨다.
- * 천국은 선한 이들이 죽어서 가게 되는 곳이다.
- * 주님은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면 천국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 * 주님은 천국적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 * 단 번에 천국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 우리는 옳은 것을 조금씩 배우고 그것을 행하면 즉 말씀에서 얻은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는 천국적 인격이 조금씩 자라게 된다.
- * 하늘나라에 관한 모든 비유들은 천국적 인격이 자라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제 2반

본문에서 주어진 비유들을 하나의 시리즈로 엮어 본다. 특히, 씨 뿌리는 자와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공부해 보자.

- * 비유란 무엇인가?
- * 본문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있는가?
- * 첫 비유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는가?
- * 우리는 언제나 옳고 그름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짧은 이야기를 선호하며 그것은 또한 쉽게 기억된다. 성경 공부를 통해 비유에 대하여 읽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비유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준비가 되면 그 의미들을 깨닫게 된다. 본문의 “군중”은 비유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주님이 그들에게 준 모든 비유는 그저 이야기에 불과했다.

우리는 천국을 선한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장소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은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본문의 비유들은 천국이 우리들 안에서 발달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첫 번째 과정은 씨가 뿌려져야 한다. 첫 번째 비유의 씨 뿌리는 자란 주님을 뜻한다. 씨란 “하늘의 말씀” 즉 하느님의 말씀에서 온 진리이다. 모든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를 듣는다. 씨의 향방은 하느님의 진리를 인정함과 그 진리에 순종함에 따라 결정된다. 주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진리가 겨자씨 같이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그 씨는 우리 삶 안에서 성장하여 장차 큰 나무 즉 우리에게 기둥이 되는 원리로 자랄 가능성을 담고 있음을 보여 주신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받아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심어져서 우리 안에 천국이 발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다.

성경의 가라지는 독(毒)보리의 일종으로 밀처럼 보이는 가짜 밀이다. 가라지는 밀과 같이 자라나지만 그것의 알맹이에는 독성이 있다. 우리는 잘못된줄 모르고 어떤 것을 행하거나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만 온다. 반면, 악하고 거짓된 모든 것은 지옥으로부터 온다. 우리에게 선과 악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때가 서서히 오는데, 이는 밀밭의 가라지가 충분히 자라기 전에 쉽게 식별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수확기 즉 끝에 가서는 가라지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주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좋은 길로 여겼던 인생의 길이 고난과 시험으로 빠지게 되는 길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가라지(tare)"임을 인식하고 즉시 제거해야 한다.

본문 속의 다른 비유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고 스스로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스스로 읽고 공부하고 깨닫게 되면, 이러한 모든 비유들은 큰 값을 치르고 산 진주의 비유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곳까지 이르게 해준다. 진주란 하느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자신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치운다는 것은 지식에 기초한 우리 자신의 사상과 이기적 바램을 천국적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 모두 포기한다는 뜻이다. 본문의 마지막 비유는 우리가 죽어 저 세상에 들어 갈 때 이 세상에서 선한 상태였으면 천국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악하였으면 지옥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됨을 명백히 보여준다. 우리는 사후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음을 명심해 두어야 한다.

제 3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choice)이며, 특히 생각과 느낌의 측면에서 선택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한다.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받아 잘 배양하고 생활 속의 가시나무는 뿌리부터 제거되어야 함을 언급한다. 그리고 말씀 내의 사건 혹은 이야기의 연속은 결코 우연이 아님도 지적한다.

본문의 34절은 주님이 언제나 비유로 가르치셨음을 알려 준다. 비유란 쉽게 이해되며 기억되는 단순한 이야기이다. 저장되어 있는 씨와 같이 진리의 씨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저장될 수도 있다. 씨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 그것은 뿌리를 내려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인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갖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더욱 이해하고 말씀으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본문의 세 가지 비유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천국적 인격의 발달을 다루는 일련의 시리즈를 형성한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막을 연다. 씨란 “하늘의 말씀”을 의미한다. 주님이 바로 씨 뿌리는 자시며, 그분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다.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부는 우리가 진리에 마음을 여는 정도와 진리를 흠모하는 정도 그리고 진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즉 씨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훈육된 자들이어서 비유의 깊은 이해가 주어질 수 있었다. 반면, 군중은 비유를 단지 이야기로만 들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여부는 각자에

의해 결정된다.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가 모든 악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것은 스스로의 인격 안에 있는 것들을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명확히 구분하는데 많은 세월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겨자씨의 비유는 말씀의 세부 사항까지 상세히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준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는 하찮은 진리라고 여기는 것도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누룩의 비유는 이기심이 우리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오랫동안 심각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느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시는 것이다. 이 후의 두 가지 비유는 우리가 천국적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이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진주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생활할 때 얻게 되는 주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의미한다. 마지막의 그물의 비유는 저세상에서의 심판을 다룬다. 이때의 우리의 동기(motives)는 겉옷을 벗고 선과 악이 분리되어 진다. 요한 계시록 21장 27절은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모든 비유를 통해서 천국 이라는 곳은 사후 심판에 의해 결정되어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전체를 통해 조금씩 우리의 심정과 지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을 이루는 바탕은 말씀에서 온 진리여야 하며, 그 진리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속의 악과 거짓을 뽑아낼 때만이 자랄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천국을 바래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배우고 순종하며 사랑하라고 강요하시지는 않는다. 그분을 섬기는 여부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으며, 그 선택은 일생에 걸쳐 이뤄진다.

기본 상응 공부

씨 = 말씀에서 온 진리

가라지 = 거짓

진주 =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한 그분에 대한 진정한 이해

제 4반

우리의 내적 생활 즉 사고 혹은 느낌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다. 또한 말씀이 비유로 쓰인 이유도 설명한다.

성경은 그 전체가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다. 비유는 평범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로서 쉽게 들리고 이해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 비유를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 삶의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은 비유 속의 내적 의미를 보게 되는데,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즉, 어린 시절 우리가 배운 성경 구절 혹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는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글자적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영적 필요성이 요구될 때에 그 이야기들 속의 의미가 우리에게 부각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성경의 어떤 구절을 반복해서 듣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문제를 겪거나 어떤 필요성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 중 몇 가지 상황이 본문에서 비유의 시리즈로 명확히 나타난다. 첫째는 천국적 삶이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말씀에서 오는 진리로부터 자란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성장이 단번에 이뤄져 남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커간다는 것이다. 셋째는 우리가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열매로 식별되며, 이후에 우리는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분리시켜 해로운 것은 던져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국적 인격은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이는 천국적 인격만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의 마지막 단원은 특별히 오늘날의 기독교계를 위한 적절한 말씀으로 여겨진다. 주님은 “고향으로 가셔서” 즉 나자렛으로 가셨을 때 기적을 많이 베푸시지 않았다. 이는 그곳의 사람들이 주님을 단지 인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트 계의 일부 인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긍정하지 않는다. 불신앙으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 영적 권능의 근원에서 차단되고 만다. 즉, 그들은 주님 대신 자신에게서 근원을 찾으려

고 한다. 주님과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은 기독교계의 반석이며, 개인적으로는 천국적 인격의 기초가 된다. 이것은 진리의 씨가 뿌리내리고 번성할 수 있는 “좋은 땅”이다. 우리는 주님만이 말씀을 통해 선을 행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제 5반

모든 비유는 우리들 속에서의 천국의 발달에 대한 시리즈를 형성하고 있다. 처음 씨 뿌리는 단계부터 마지막 수확하는 시기까지 간략히 다룬다.

비유란 그 속에 어떤 교훈을 가진 이야기를 의미한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말할 때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 형체에 담아 준다. 우리는 그들이 추상적 서술을 이해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이야기를 들려준다. 주님의 견지에서는 우리 모두 어린이에 불과하다. 인간의 마음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훈련되었다면, 주님의 진리 중 아주 소량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른다. 복음서에서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르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생각들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말씀에 있는 주님의 생각들(진리)이 자연물 혹은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극대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주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 말씀의 형체는 아주 순박한 형체인데, 이는 우리 경험의 일부를 사용해서서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님은 구원에 필요한 수단을 예비하지 않은채 모든 이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분이 군중들에게 말씀한 단순한 이야기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 남아 있게 된다. 그들이 주님에 대해 더욱 배우길 진정으로 원하면, 그들은 그들의 기억으로부터 이야기들을 상기하여 이야기의 속뜻을 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다. 어린 시절 우리는 말씀의 이야기들을 배울 때 그것들을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들로만 받아들인다. 사실 어린이들에게 성경이란 교회 한 구석에 놓아둔 사탕이나 연필자루 보다는도 관심 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님의 진리가 이야기라는 껍질 안에 담기게 되면, 어린이들조차도 그것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수월 해진다. 이렇게 진리가 이야기

의 형태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게 되면, 주님은 우리가 언젠가 그분의 진리를 간절히 원하게 될 때 우리 기억속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불을 밝혀 주실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그 이야기 자체는 아주 단순하다. 주님의 공생애 동안 거룩한 땅에서 넓게 뿌려진 진리의 씨로부터 비롯된 참된 지식은 우리가 글자적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진리의 세세한 사항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길가란 야생초로 우거진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잘 다져진 들판을 가로지르는 길이다. 돌밭이란 거의 표면까지 돌로 덮여 있어서 약간의 흙만이 지면에 있는 밭이다. 가시덤불이 있는 곳이란 밭의 한 구석들 즉 야생초들이 자라도록 내버려둔 장소들을 뜻한다. 주님이 배 위에 올라 앉으셔서 군중을 바라보셨을 때, 그분은 말씀을 받는 다양한 조건을 가진 인간의 심정과 지성을 보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주님이 스스로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다. 씨란 주님이 후에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바와 같이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 즉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심기 원하신 하느님의 진리이다. 그분의 입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라는 배아(germ)를 가진 씨이다. 그 씨가 올바르게 받아들여 잘 관리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열매를 맺는 식물로 자란다.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자에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다. 후에 주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 온 생명의 빵”이라고도 부르셨다. 주님이 군중을 향해 입을 여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의 심정을 각각 헤아려 알고 계셨다. 즉, 주님은 오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 광범위 하게 뿌려져 있는 씨들을 보셨다.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밭들은 그분의 진리가 뿌려지기 전에 보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그림에 색칠을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에는 일곱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이다. 스웨덴북은 주님의 창조 목적을 “인류로부터의 천국”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인간은 천국이 무엇이며 어떻게 천국에 도달할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주님은 태초로부터 하늘나라에 대해 알려 주시기 위해 우리의 이해성에 도달되도록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며 우리의 의지에 강력히 호소해 오셨다. 일곱 가지의 비유는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때부터 성장하기까지에 대한 회화적 묘사이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신다. 따라서 이러한 비유는 우리 안에서 천국이 시작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회화적 묘사이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어떻게 씨가 뿌려져 받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선한 씨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 실재(spiritual realities)가 깨어 있지 않을 때는 악령들이 우리 마음에 거짓된 씨를 뿌리려고 애쓰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밀과 가라지가 싹트는 초기에 선과 악을 전혀 식별할 수 없다. 그리하여 진리와 거짓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된다. 우리는 오로지 열매를 맺었을 때에만 그것을 식별할 수 있다. 이것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말씀의 뜻이다.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한다. 우리는 천국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천국적인 삶을 살고자 결심하면 우리의 눈에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가라지”가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고 수확 하려는 “밀”은 얼마나 적은지를 깨닫게 되어서 기가 죽고 풀이 꺾여 처음부터 시작할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시도한 것이 비록 조그마한 시작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성장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장차 진짜 나무가 되어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신다. 이 비유는 저세상에서 우리의 천국적 인격이 성장하게 될 때에 비로소 성취되어진다.

네 번째 비유는 누룩에 관한 것으로, 또 다른 영적 발달의 단계를 취하게 해주신다. 누룩은 묵은 밀가루의 일부로 거짓을 상징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사이파사람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거짓을 상징하는 누룩 또한 좋은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누룩이 없으면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 맛있고 소화도 잘되는 빵을 만들 수가 없다. 거짓 역시 주님에 의해 선용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발효시키고 가볍게 해준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악을 인식하고 그것을 추방하여 진리가 쉽게 안착하도록 즉 소화되기 쉽도록 하는데 쓰인다는 뜻이다. 영적 전투 혹은 시험은 영적 면에서 발효(fermentation)에 해당된다. (AC 7906)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베르가모 교회의 위험은 그들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과 니콜라오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는 자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독려하신다.

위의 네 가지 비유는 주님이 군중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후의 세 가지 비유는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시험 중에도 주님을 계속 섬겼던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천국적 삶의 상태들이다. 다섯 번째 비유인 밭에 감추어 놓인 보물은 하늘나라를 묘사한다. 영적 삶의 진정한 행복을 실감하기 위해 충분한 시험을 견뎌 낸 이들은 보물이 감춰진 밭을 사기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판다. 즉, 생명이 있는 주님의 길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고집을 기꺼이 버리게 된다.

여섯 번째 비유는 보물을 “값진 진주”로 요약한다.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하나의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버린다. 스웨덴북은 진주란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며, (AE 1044) “값진 진주”란 “주님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AR 916) 또한 그는 AR 916항에서 “주님에 관한 지식이란 교리 속에 든 보편적인 모든 사항과 그 교리로부터 오게 되는 교회 속의 모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기독교에 입문한 처음부터 이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믿지 않던 이가 갑자기 부흥회에 한번 참석함으로 인해 10년 동안 그분을 믿어온 이의 믿음 속에 있는 경험을 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님을 알려고 하고 오랜 세월동안 영적 생활을 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얻게 된다.

마지막 비유는 이 세상 삶의 막을 내리는 상황을 묘사한다. 그물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가득해 있다. 경험들은 선악에 관계없이 한 그물 안에 수집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의 무게가 측정되고, 선한 것만 천국의 새 생활 안에서 영원히 발전되도록 주님 앞으로 운반하여진다. 우리는 성서본문의 번역에서 “세상 끝 날...., end of the world”는 잘못된 번역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어로는 ”시대의 종말, consummation of the age”을 뜻한다. 즉, 우리 한 개인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말씀(the word)의 어느 부분에서도 물질적 우주의 파멸(종말)을 말하지 않는다.

본문의 마지막 사건은 전 가르침을 정리하고 강조한다. 즉,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필수 요건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한한 인간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고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밝힘 (Apocalypse Revealed 제 916항)」: " '그 열 두 문은 열 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라는 말씀은 주님에 관한 지식과 인식, 즉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이 하나로 연합되어 말씀으로부터 와서 교회에 소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열 두 진주' 역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들이 진주들' 이며 '문마다 한 진주'인 이유는 문은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들을 뜻하고, 한 개의 진주는 하나의 지식 즉 한 개의 그릇에 모아진 모든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지식이란 주님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사실 이 지식을 구성하는 것은 아주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지식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주님에 관한 지식은 교리에 속한 모든 것과 교리로부터 있게 되는 교회의 모든 것에 관한 보편적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분에 관한 지식과 인식이 진주 자체란 것은 마태복음서의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질문 정리

- 1) 비유란 무엇인가?
- 2) 주님은 왜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 3) 본문의 비유들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4) 본문의 첫 비유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5) 주님은 왜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셨는가?
- 6)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 7) 씨란 무엇인가?
- 8) 각기 다른 종류의 땅이란 무엇인가?
- 9)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살려면, 먼저 천국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 10) 본문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있는가?
- 11) 그 비유들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가?
- 12)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13) 비유 전체가 주는 일반적 교훈은 무엇인가?
 14) 값진 진주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속뜻을 가진 이야기 2)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깊은 뜻을 지녔기 때문이다.
 3)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이다. 4) 씨 뿌리는 사람
 5) 그들은 열심히 배우려고 했다. 6) 주님 7) 말씀에서 온 진리
 8) 각양각색의 마음들 9)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한다. 10) 일곱 개
 11) 씨 뿌리는 사람,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물, 진주, 그물의 비유
 12) 우리가 우리의 악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가르쳐 준다.
 13) 천국적 인격의 발달 14) 주님에 관한 지식과 인식

34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머리말

주님의 열 두 제자, 특별히 첫 네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언급한다. 그리고 「변모(transfigure)」의 의미를 본문의 구절들을 통해 공부한다.

성서본문: 마태복음 17장

17장: 1. 옛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 가셨다. 2. 그 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 3. 그리고 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4. 그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5.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6.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 7.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일어나라”하고 말씀하셨다. 8. 그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을 때는 예수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하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10. 그 때에 제자들이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11. 예수께서는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을 것이다. 12. 그런데 실상 엘리야는 벌써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사람의 아들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13. 그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교리 요약

- * 이 세상 삶은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주고 살찌울 때만이 중요하다.
- * 주님은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준비도 되지 않은 진리로부터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 * 진리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신성모독이 된다.
- * 우리가 주님의 삶을 공부하고 그분의 삶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신성화 하심과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변모(transfiguration)」란 글자대로 보면 “얼굴이 바뀜”을 의미한다. 본과의 주제에 「변모」란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본문의 환상을 읽어 보면 이해될 것이다. 환상을 보도록 선택된 세 제자들은 주님의 가장 가까운 추종자들이었다. 주님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들에게 특별한 교훈과 경험을 주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16장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고백인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구절을 찾을 수 있다. 주님은 그 믿음이야말로 그분의 교회를 기초하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본문의 베드로는 신성한 신성화 하심의 빛 안에서 주님을 뵈고 있다. 그럼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베드로의 첫 반응은 세 사람 모두 신성한 존재들로 보여서 모두를 예배하려 했던 것이다.

베드로의 첫 반응은 하늘로부터의 음성과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즉시 정정되었다. 그러나 세 제자들은 엘리야의 환상에 대해 의문을 떨치지 못했다. 이는 그들이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 의문에 대답해 주셨다. 세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었다. (요한복음 1:21) 엘리야를 다시 보리라는 예언은 이미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으로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벌써 말씀해주셨지만 단지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다. (마태복음 11:7-15)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예언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보여진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부활하신 뒤 “율법과 예언서 그리고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에 대한 것을 보여 주셨다. 세 제자들이 높은 산 위에서 가졌던 환상의 경험은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더욱 기억되며 이해되었을 것이다. 복음서의 말씀 안에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비밀들이 있다. 이는 그들도 우리처럼 각자의 교육이나 환경에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말씀이 전 시대의 모든 이들을 위해 주님께 의해 깊은 의미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본문의 높은 산은 사고의 높은 평면을 상징한다. 해같이 주님의 얼굴이 빛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깊은 측면이 하느님 자신임을 뜻한다. 우리의 해이시다는 것 혹은 그분의 의상이 “빛과 같이 희다”는 것은 순수한 진리를 묘사하며, 그 진리가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동을 옷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은 그분만이 율법과 예언서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뜻이다. “제자들을 덮은 빛나는 구름”이란 글자적으로는 똑같은 말씀인 듯 보이나, 그 안에 담긴 신성한 의미로부터의 진리가 우리에게 열려질 때를 의미한다. 하늘로부터의 소리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이다. 주님은 삶의 길을 그분으로부터 찾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제 1반

본문의 깊은 의미는 초심자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이해하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주님이 그분의 변모를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주님이 세례 받으신 직후에 있었던 소리와 유사함과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나타난 이유도 간단히 설명한다.

주님은 그분의 특별한 추종자가 되도록 열두 명을 뽑으셨다.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올바른 것을 배우고 선하게 되길 원했고 그분의 교회에 필요한 특질들을 그들에게서 발견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하늘로 되돌아가신 뒤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셔서 기독교회를 출발시켰다. 성경에서는 주님께 관해 배운 이들을 “제자(disciple)”라고 부른다.

주님이 첫 번째로 선택한 네 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다. 네 명 중 세 명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언제나 그분과 동행했다. 주님은 다른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보여주지 못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다.

앞서 공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 주셨고 엘리야는 대 예언자였다.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아주 큰 인물로 여긴다. 베드로가 그의 환상 중에 주님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을 때, 그는 처음에 세 분 모두가 동등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세례 받으신 주님」을 공부하면서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예수에 관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배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 외에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아들”이라는 언급은 자주 있다. 주님은 세상에 계셨던 동안 종종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다.

질문 및 요점정리

- * 세 제자는 누구인가?
- * 세 명의 제자들은 굉장한 환상을 보도록 허락되었다.
- * 주님은 그들에게 그 광경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디로 그들을 데려갔는가?
- * 그 산에서 그들은 주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보았다.
- * 「변모(transfigured) 됨」이란 「외모가 변화(changed in appearance) 됨」을 의미한다.
- * 주님의 얼굴은 무엇 같았는가?
- * 주님의 의상은 어떻게 달라져 보였는가?
- * 그들은 주님이 누구와 대화하는 것을 보았는가?
- * 모세는 누구인지 기억하는가?

- *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주어졌다. 또한 “율법(law)”이라 부르는 성경의 첫 다섯 권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 * 그 때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 그 소리는 무엇을 말했는가?
- * 이 소리가 있었던 또 다른 때는 언제인가?
- * 제자들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다.
- * 주님이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 * 그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그곳에 있었는가?
- * 주님은 이 환상에 대해 그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셨는가?

제 2반

주님이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것에 대한 상응을 언급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느낌은 자칫하면 세상적으로 되기 쉬우며, 우리의 삶은 세상적 현실 안에 존재함으로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제로 계신 주님을 뵈기 원하면, 우리는 먼저 말씀을 공부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세례자 요한과 주님의 세례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본문과 연관하여 본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공부하자.

- * 계명들은 어디에서 주어졌는가?
- * 팔 복은 어디에서 주어졌는가?
- * 높은 산에 오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주님은 어떤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가?
- * 주님의 외모는 어떻게 변했는가?
- * 그들은 주님과 함께 누가 있음을 보았는가?
- * 베드로는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가?
- *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는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 빛나는 구름으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 * 주님은 세례자 요한에 관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고대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모세로, 예언들은 엘리야로 표현했다. 제자들에게 보여진 환상은 주님이 과거 율법과 예언서들 안에서 약속된 진정한 메시아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육체적 눈이 아닌 영적 눈으로 환상을 보았고, 천국에서 천사들이 그분을 뵈는 것 같이 실존하신 그분을 보았던 것이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모든 여행길을 따라 다닌 동반자로서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목격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만이 진실한 메시아임을 확신했다.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고백은 16장 13-18절을 보면 알 수 있다. 18절에 언급되는 “바위(rock)”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그가 선언 했던 위대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진리를 뜻한다. 이 진리는 천국에의 입장을 가능케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뵈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공부하며 그분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면, 우리 역시 주님이 선택한 세 명의 제자들과 같이 되어 진정한 신성화 रो움과 아름다움 속에 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주님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혼란스러워 했다. 초막(tabernacle)이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환상으로 인해 주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도 예배되어야 한다고 착각했다. 그 후, 제자들은 주님만을 보게 되었을 때 그분만이 예배되어야 함을 실감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환상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라기 4장 5-6절을 읽어 보자. 엘리야와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말라기서의 예언을 성취시켰음을 알려 주셨지만, 그들은 이를 잊고 있었다. (마태복음 11:14)

제 3반

16장의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상응의 세부사항을 언급한다. 그리고 주님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진 환상을

타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이유를 설명한다. 요한복음 14장 22-23절을 읽어 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공생애 3년 동안 거룩한 땅의 이곳저곳을 다니셨고, 때로는 요르단 강 건너편까지 가서서 전도하며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셨다. 주님은 그분의 거처를 가파르나움에 두시고, 선교의 많은 시간을 갈릴리에 할애하셨다. 그분은 축제 때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 예루살렘에도 내왕하셨다. 그분의 모든 여행에는 열 두 제자들이 동행했다.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폭풍이 잔잔해지는 광경, 약간의 물고기과 빵으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는 기적, 소경이 눈을 뜬 기적, 나병환자가 완전히 치료된 것, 죽은 자가 다시 깨어난 것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을 목격했다. 그들은 주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생각 속에 점차 주님이 자리 잡아 갔고, 마침내 그들은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 이 고백은 기독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rock)이며, 이 진리를 받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린다.

16장 16절과 18절을 읽어 보자. 베드로가 바위 혹은 문지기가 아님은 23절에서 그의 자연적 또는 세상적 사상이 그의 앞을 가로막자 주님이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때만 중요함을 제자들에게 명백히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위험과 시험에 직면하면서 마음속에 그 진리를 굳건히 지켜 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힘든 것이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주님의 변모가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뒤 따라름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다는 믿음은 마음을 열게 하며 주님의 생애 속의 내적 아름다움과 신성화 하심을 보게 하고, 율법과 예언서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게 해준다. 이런 사항들은 주님의 변모하시는 이야기의 세부사항 속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 산으로 오른다 함은 우리의 마음을 높은 평면으로 들어 올려 하느님에게 더욱 가까이 감을 묘사한다. 얼굴은 내적 특질을 표현한다. 따라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은 그분의 특질 중 신성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겉옷은 일반적으로 진리에

대한 그림이며, 이 진리가 우리의 애착들을 옷 입히고 있는 것이다. 빛 같이 흰 주님의 의복은 그분의 모든 행동과 말씀을 옷 입히고 있는 신성한 진리를 묘사한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들을 표현한다.

베드로는 처음에 환상으로 인해 혼란을 일으켰다. 초막이란 단순한 종류의 예배를 뜻한다. 환상을 본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주님 모두를 위해 초막을 짓자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그가 세 사람 모두 예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즉각적으로 더 나은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이들을 덮은 빛나는 구름이란 글자를 통해 빛나는 말씀의 내적 의미들을 상징한다. 구름 속에서 말하는 소리는 주님의 신성에 대한 증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제자들이 고개를 들고 보았을 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후에 바울이 간증하는 바처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in him dwellth all the fullness of the Godhead bodily…….”(골로새서 1:19)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 안에 아버지 하느님과 성령이 함께 존재함을 의미한다.

세 제자들은 오랜 관찰과 훈육을 통해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준비되지 못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인간이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될 때 까지 그들의 환상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당부하셨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해주시는 것들이다. 주님은 우리가 진리를 받아서 올바르게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를 진리로부터 유보해 두신다. 스웨덴북은 진리를 인식하면서도 그에 따라 살아감을 거절하는 것은 “신성모독, profanation”이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행하는 잘못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주님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준비는 회개와 더불어 시작된다. 이런 이유로 주님 앞에 세례자 요한이 보내지게 된 것이다. 엘리야와 세례자 요한은 모두 회개를 촉구했다. 율법학자들로부터 제자들이 들었던 예언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알 수 있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주님이 이미 그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그 예언을 성취시켰다고 말해 주셨음을 알 수 있다. 요한은 엘리야는 아니었지만, 그는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왔던 것이다.

세 제자들은 그들의 육체적 눈으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영적 눈이 열려져 주님의 내적 본성을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지상과 천국에

서 진실을 볼 수 있는 데, 그것은 곧 주님을 바로 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본 상응 공부

넓은 측면에서의 겉옷 = 우리의 애착을 입고 있는 진리들

모세 = 역사적 측면의 말씀

엘리아 = 예언적 측면의 말씀

부름 = 글자적 측면의 말씀

제 4반

변모의 실제 의미를 살펴본다. 모든 말씀은 주님만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임을 가르친다. 주님은 두 가지 견해로 인식된다. 하나는 우리들 자신과 같이 유한한 인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하느님으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곧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사랑과 지혜를 알고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강림하신 한 분 뿐이신 창조주 하느님이심을 인식하는 것이다. 두 견해의 차이점은 본문의 내적 의미를 통해 명확히 구분된다.

주님은 가나안 지역의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기적을 수행하셔서 그분을 본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분의 가르침을 거절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분의 능력이 마귀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린 것이라며 헐뜯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에 의해 준비된 그분의 발아래 앉아 있었던 군중들은 그분의 능력이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분에 관한 학설을 아주 자세하게 가지고 있음을 16장 14절에서 볼 수 있다. 그들 중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이 구약 성서에 약속된 실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이심을 믿었다. 사도들도 이를 믿지 않았음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보의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기독교인으로서 기초가 되는 반석이다. 마태복음 16장 16-19절을 읽어 보자. 18절과 19절은 로마 카톨릭교의 교황권 신수설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초기 로마 카톨릭교의 주장은 주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인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처럼 믿게 되었고 영혼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거나 내쫓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믿어 버렸다. 그래서 초기 로마 카톨릭교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대 했다. 16장 23절을 읽어 보자. 주님이 보시기에 베드로가 타인들 보다 우월했다면, 주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것이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는 그분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 16장 18절에 있는 바위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고백한 위대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의미한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그 당시에도 적절했으며, 오늘날에도 아주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기독교계의 저술들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이론들을 발견하며, 심지어는 그분이 육체로 거하는 여호와이심을 부인하는 이론들도 접하게 된다. 그러나 위의 믿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며 조화를 이루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유일한 것이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허락된 변모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심을 믿고 말씀 가운데서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 질 수 있다. 환상을 보는 필수적 준비는 주님이 그들을 “높은 산으로 따로 데리고” 가신 구절 속에 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 관심 위로 끌어 올리고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 연결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세 제자들처럼 모세와 엘리야 즉 주님을 취급하는 말씀의 글자적 의미인 율법과 예언들을 접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글자를 읽어 가면, 우리는 주님만을 보게 된다. 즉, 우리는 성경 안에서 모세와 예언자들이 존재했다는 것과 그들의 업적을 중요하게 여겼던 처음의 생각들을 버리고, 말씀을 읽어가며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만을 듣게 된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참으로 신성화 하시는 주님을 뵈었다. 그들은 천국에서 뵈 수 있는 그분을 그들의 영적 눈으로 지상에서 미리 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환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필요한 준비를 갖추면 말씀의 영적 뜻 안에서 주님을 뵈 수 있다. 이러한 준비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겸허함과 더불어 시작된다.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은 주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환상이다. 그 후, 빛나는 구름과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제자들이 주님만을 뵈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구름이란 말씀의 글자에 대한 상징으로서, 구름이 빛난다함

은 말씀의 글자를 통해 빛나는 것 즉 글자 속의 영적 의미를 뜻한다. 하늘로부터의 소리란 말씀 속에서 선포된 진리의 힘이다. 이 후 제자들은 부활이 있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환상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분부를 받는다. 이러한 가르침이 주는 교훈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 새 교회의 가르침(New Church teachings)이 갖는 정당성 혹은 타당성이 그들의 마음에 와 닿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보낸다는 예언과 그 예언이 세례자 요한으로 성취되었음을 주님께서 밝히신 것에 대해 짚고 넘어 가자. 이 예언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볼 수 있다. 마태복음 11장 7-15절까지를 읽어 보면, 주님이 이에 대해 그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다른 주님의 가르침도 잊고 있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 중 하나는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복음서의 공부로부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후에 사도들이 말한 것 즉 사도행전이나 그들의 서간집으로부터 확증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교회의 결정이나 저명한 신학자의 논술을 중심으로 공부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계시는 주님을 뵈기 원하면, 우리는 영감된 말씀 (inspired Word) 안에서 그분을 찾아야 한다.

제 5반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변모를 목격하도록 허락하신 이유,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보여 진 이유 그리고 세 초막에 대한 베드로의 제안과 그에 대한 답의 의미 등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이 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큰 광경을 목격하도록 선택되었다. 이는 그들과 예수님의 가까운 관계와 성경의 내적 의미에서 그들의 역할 때문이다. 열 두 제자들은 우리 안에 교회를 건설하는 모든 선하고 유용한 애착들을 묘사한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전하는 능력 면에서 그들 모두는 교회를 표현한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세 개의 큰 필수조건들을 표현한다. 조건들이란 믿음(faith),

선행(charity) 그리고 선행의 일(the works of charity)을 뜻한다. 주님께 헌신하는 면에서 보면, 그것들은 지성과 심정 그리고 행동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셋은 세상과 개인의 측면에서 교회를 상징하도록 선택되었다. 세 가지 필수조건의 충족은 높은 영적 경험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높은 영적 상태, 즉 본문에서 높은 산에 오름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되면 보다 낮은 우리의 애착들은 일시적으로 뒤에 남기게 되고 주님께 대한 본질적 헌신에 해당되는 애착만이 그분에 의하여 “따로” 들리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 들리어진 애착들은 훗날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영적 발달에 필요한 때가 오면 깊은 계시를 받는 그릇들로 사용된다. 이 경험은 “옛새 후에” 오게 되며, “옛새 후”란 노력과 투쟁의 시기가 끝난 후를 뜻하는 창조의 육 일로서 어떤 영적 달성에 앞서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세 제자들이 본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물질적인 육체를 취한 신성 곧 신성한 사람(the divine human)이다. 이 분이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시키신 주님이시요, 말씀을 살아내신 바로 그 주님이시다. 영혼은 얼굴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에서 얼굴은 “내용물(interior)”들을 표현한다. 변모 가운데서의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의 가장 깊은 면이 우리의 심정을 따뜻하게 하는 신성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영계에서 주님이 해처럼 나타나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저세상에서의 해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옷(garment)은 그분의 사랑을 스스로 옷 입고 있는 진리를 표현한다. 주님의 옷은 제자들에게 빛같이 희게 보였다. 세 제자들의 마음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시험과의 투쟁과 가르침에 의해 준비되어졌다. 베드로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했다. 그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게 되고 그분의 마지막 신성화 하심의 수단인 부활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스웨덴북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마음을 준비함에 따라 각기 다르게 주님을 보게 된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저세상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초를 쌓지 않은 영적이며 신성한 것들을 볼 수 없다. 우리 또한 세 제자들이 산 위에서 그분을 뵈듯이 주님을 뵈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에 대해 공부하며 하느님에 관한 올바른 믿음을 형성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고정되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그대로 살아감으로서 그분의 진리를 삶으로 확증하게 된다면 그분을 뵈 수 있다. 계시록 22장 4절에서는 주님의 종들이

거룩한 성 안에서 “그분의 얼굴을 뵈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시편 기자는 “나는 떳떳하게 당신 얼굴을 뵈오리이다. 이 밤이 새어 당신을 뵈는 일, 이 몸은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한다. (시편 17:15)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구절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세 제자 즉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으로 표현되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을 흠모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변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뵈게 될 것이다. 마음의 눈 곧 영적인 눈으로 보는 세계인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눈으로 더욱 명확하게 그분을 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님의 육체(flesh)를 만드신 것은 말씀 자체이다. 스웨덴북은 변모에 관해 말하면서 “주님은 신성한 진리를 나타내셨다. 이 신성한 진리란 말씀이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인성(Human)을 신성한 진리로 만드셨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잉태 때부터 이미 그분 안에 있어 왔던 신성 자체에 인성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분의 인성도 신성한 선(Divine Good)으로 만드셨다”라고 설명한다. (AE 594-2) 주님은 성경의 진리를 갖고 예수로 살아내셨음을 제자들에게 명백히 하기 위해 그분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그들이 보도록 허락하셨다.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두 개의 큰 부분 즉 율법서와 예언서로 나눴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예언들을 대표했다. 후에 주님은 율법서와 예언서들이 그분에 관해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일부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 주시기도 했다. 또한 누가복음(24:27)에서는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라고 한다.

이 환상은 우리를 위해 의도된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일부 기독교계는 구약 성경의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구약이 단지 고대 히브리인들의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보여줄 뿐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변모의 환상 중에 주님이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은 구약 성경이 내적으로 하늘에 굳게 서 있는 것과(시편 119:89) 구약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하여 떼어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주님에 관해 알기 위해 언제나 구약을 읽고 공부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본문에서 얻게 되는 교훈 중 하나이다. 신약과 구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을 공부해야 한다. 변모의 환상에 있는 이러한 외적 연결은

살아있는 내적 연결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환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통해 더 깊은 교훈을 얻게 된다.

베드로는 환상이 율법과 예언의 거룩함을 알려 주었다고 인식했다. 그래서 그는 주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세 개의 초막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초막(tabernacle)이란 예배를 상징한다. 내적인 의미로서 베드로의 바램은 진정한 예배 속에 있는 세 겹의 특질 즉 심정 측면에서의 예배와 외향적 삶에서의 예배 그리고 사교 측면에서의 예배를 표현한다. 그러나 글자 차원에서 그의 제안은 그의 혼란스러움을 보여준다. 주님은 그의 제안에 대답하기 위해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러나 환상의 나머지 부분은 실제적인 주님의 대답이다. 제 5절을 읽어 보자. 빛나는 구름이란 말씀의 글자가 그 속의 신성한 진리로 인해 빛을 발하게 (illuminate)됨을 뜻한다. 여기서 소리란 신성한 사랑이 말하는 것이며, 말(words)들이란 신성한 사랑이 신성한 진리 안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고개(눈)를 들고 쳐다보았을 때는 예수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에서 눈을 들어 올림이란 이해성을 들어 올림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여 진 환상은 모든 것이 그들이 알고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 예수 안에 있음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우리 또한 이를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간증하는 것처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느” 분이시다. (골로새서 2:9) 이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며 여호와 하느님이심을 뜻한다. 신약과 구약은 똑같이 주님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주님뿐이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 왔을 때, 주님은 부활이 있을 때까지 환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는 부활이 세상을 위한 일반적 “징조(sign)”가 되며, 많은 이들이 주님의 변모를 믿지 않더라도 부활이 있게 된 후에는 그것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산했을 때 세례자 요한의 일과 선교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환상이 있는 산 위에 계속 머무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이라는 수련장으로 내려갈 때 새로운 빛으로 과거의 경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549-2)」: “주님은 “변모하심”에서 말씀이신 신성한 진리를 표현하셨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진리로 만드셨고,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분은 강림의 시작부터 있어 온 신성 자체 (Divine Itself)에 신성한 진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선(Divine Good)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변모하셨을 때 보여진 특별한 사건들은 신성한 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들로부터 그분은 그분의 인성 안에 신성한 진리를 가졌다. 이는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라고 표현된다. 그 이유는 얼굴은 내용물(interior)을 표현하며, 그 내용물들은 얼굴을 통해 빛나기 때문이다. ‘해’란 신성한 사랑을 의미한다. 신성한 진리는 빛나는 옷으로 표현된다. 이는 신성한 진리가 천국의 빛을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씀 가운데서는 빛으로 의미되고 있다. 빛은 말씀이며 말씀은 신성한 진리이다. 이것은 말씀에서 ‘그분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남으로 표현된다. ‘모세와 엘리야’는 말씀을 의미한다. ‘모세’는 역사적 말씀을, ‘엘리야’는 예언적 말씀을 뜻한다. 글자적 측면에서의 말씀은 제자들을 뒤덮은 구름으로 표현된다. 제자들은 말씀에서의 교회를 표현하므로, 그들은 그때 혹은 그 후에도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로부터 진리에 있는 교회를 뜻한다. 계시와 응답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신성한 진리에 의해 이뤄지며 그 진리는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같기 때문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고 하는 말씀이 있게 된다. 이것은 그분의 신성한 진리 혹은 말씀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주님이 처음 선택하신 네 제자는 누구인가?
- 2) 누가 주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보았는가?
- 3) 변모란 무엇을 뜻하는가?
- 4) 변모하시는 모습을 어디서 보았는가?

- 5) 환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가 대화하고 있었는가?
- 6)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제안했는가?
- 7) 제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인가?
- 8) 그 뒤 제자들은 누구를 보았는가?
- 9)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당부하셨는가?
- 10) 제자들은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1)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 12) 모세와 엘리야는 왜 주님과 함께 보여 졌는가?
- 13)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이 거론된 이유는 무엇인가?
- 14) 변모하심의 이야기 속에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2)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얼굴이 바뀜
- 4) 높은 산 5) 모세, 엘리야 6) 세 초막을 지읍시다.
- 7) 빛나는 구름과 소리 8) 예수님만 보았다 9)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 10)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나이까?”
- 11) 세례자 요한이 예언을 성취시켰다 12) 주님이 율법과 예언들을 구체화(embody)하여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13) 회개를 가르치심 (첫 단계)
- 14) 말씀 안에서 주님을 뵈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이에게도 환상이 가능하다는 것

35

종려 주일

머리말

본과는 교회 절기 공부로 분류 되는데, 이는 특별한 날로 지키는 주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여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 마태복음 21장 1-27절

21장: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벧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 보아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터인데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3. 혹시 누가 무어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습니다.’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어 줄 것이다.” 4.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5. “시온의 딸에게 알려라. 네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타시고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6.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겹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앉으시자 8. 많은 사람들은 겹옷을 벗어 길에 펴 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 놓기도 하였다. 9.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민이 들떠서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다. 11. 사람들은 “이분은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요”하고 대답하였다. 12.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 가 거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 내시고 환금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앉으셨다. 13. 그리고 그들에게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하고 나무라셨다. 14. 그 때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이 앞으로 나오자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15.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며 성전 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16. 예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들린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절름발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들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하고 대답하셨다. 17.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성밖에 있는 베다니야로 가서서 밤을 지내셨다. 18. 이튿날 아침에 예수께서 성안으로 들어오시다가 마침 시장하시던 참에 19.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로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곧 말라 버렸다. 20.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그렇게 당장 말라 버렸습니까?”하고 물었다. 21.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이 무화과나무에서 본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22.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하고 물었다. 24. “나도 한 가지 물어 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25. 요한은 누구에게서 권한을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늘이 준 것이냐? 사람이 준 것이냐?”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 권한을 하늘이 주었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26. 사람이 주었다고 하면 모두들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군중이 가만있지 않을 테지?”하고 의논한 끝에 27. “모르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다.

교리 요점

- *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규율하는 원리가 우리 속의 “왕”이다.
- *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사상을 포기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벗어 던지게 된다.
- * 주님만이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이기적 바램들을 제거하셔서 우리 영혼 속의 “성전”을 깨끗케 하실 수 있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종려주일이란 지상에서의 주님의 삶 중 마지막 주 초에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주님은 공생애 3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과 요르단 강 넘어 까지 가서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병을 치료하셨다. 주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 주심으로 인해 군중들은 그분을 따랐다. 그러나 그분이 군중을 매혹시키려 했다거나 군중들이 그분을 추종해서 기뻐하셨다는 기록은 없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위해 단지 그분을 따랐음을 명백히 말씀하시기도 했다. 또한 그분은 대다수의 군중이 그분을 떠나도록 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그들로부터 물러나서 그분의 가까운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본보기로서 주님을 택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적 일을 조용히 행하며 근심 없이 그것을 군중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모이는 두, 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사이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종려주일 즉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입성은 그분의 오심에 대한 징표를 드러내신 유일한 때였으며, 예언자 즈가리야를 통해 말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다. (즈가리야 9:9)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신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관관이나 왕들이 나귀를 타는 관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군중은 주님을 왕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분을 죽일 것임을 알고 계셨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왕은 한 나라가 인정한 통치자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치하도록 인정한

원리(principle)가 바로 우리의 “왕”이다. 우리에게는 앞서 「엘리아와 아합」에서 공부했던 바와 같이 선택이 주어져 있다. 선택은 주님 또는 바알이나와 하느님의 진리 또는 세상적이고 자기주의의 원리이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쪽이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 우리는 우리의 충절을 양쪽으로 갈라놓을 수 없다. 주님은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주님은 우리들을 다 섬기려 하면 우리의 영적 원리들이 희생됨을 그분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에 보여 주셨다.

사람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면서 그들의 겂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그분 앞에 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입히고 있는 겂옷 즉 우리 자신의 사상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발성을 표현한다. 또한 하느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치해야 하며, 우리와 세상의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는 모든 권능이 그분에게만 있음을 묘사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첫째로 이기적 이득을 위해 종교를 사용하고 있는 자들을 성전으로부터 몰아내셨다. 성전이란 영적 양상에 있어서의 우리의 인격을 상징한다. 성전을 깨끗하게 함이란 “영혼을 수색해서” 영혼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이기심을 발견하고 그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전을 깨끗케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긴 영적 투쟁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 1반

주님, 나귀, 나귀위에 간 겂옷 그리고 종려나무가지에 대해서 언급한다. 사람들의 환호와 특별히 주님을 환영한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본다. 그리고 종려 주일에 주님을 환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며칠 뒤에는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실도 언급한다. 우리가 선택할 때는 주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나태해지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부활절 앞의 일주일을 “성주간”이라 부르며 이 성주간의 첫 날(일요일)을 종려주일이 라고 부른다.

질문 및 요점정리

- * 이 일요일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요한복음 12장 13절을 읽어 보자.)
- * 이 일요일은 주님의 지상적 삶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된다.
- * 이 주간의 첫 날에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 * 주님은 두 명의 제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가?
- * 왕이나 관관들의 관습은 나귀를 타는 것이었다. 그리고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즈가리야 9장 9절에서 이 예언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게 환영했으며 어린이들까지도 그분을 환영 했다.
- * 대 사제 혹은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가 칭찬받음을 좋아하지 않았다.
- * 주님은 호산나라고 노래하는 아이들이 그들보다 더 슬기롭다고 말씀하셨다.
- * 대 사제 측근들의 권력은 강하여 사람들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였다.
- *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는가?
- *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성전에 바쳐지는 예물로부터 그들 자신을 위해 돈을 벌고 있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도적질하는 자들이었다.
- * 성주간이 끝나기 전 이들이 주님을 죽이게 된다.
- * 주님은 그들이 그것을 행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으나 전날과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 *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우리는 설사 의를 행하기 곤란한 조건에 놓이게 되더라도 의를 위해 용감하며 강건해져야 할 것이다.

제 2반

나귀, 종려나무가지 그리고 겔옷 등의 상응을 다룬다. 또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음과 우리 각자의 삶과 그것을 연관 지어 살펴본다.

지상에서의 주님 삶의 마지막 주 첫 날을 기념하는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른다. 나귀 위에 타는 것은 왕이나 관관들의 관습이었다. 나귀의 타박타박 걷는 모습 즉 그것은 믿음직하게 걷기는 하나 고집이 세서 주인이 지시대로 가려하지 않는 고집이 센 동물이다. 나귀는 자연적 이성 또는 “상식(common sense)”을 뜻한다. 이렇게 나귀로 표현되는 본성은 항상 땅만 쳐다보며 결코 하늘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귀로 표현되는 본성의 특징이라면 세상적인 일들에만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잘 어울려서 그 이상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타심이 이기심보다 우월하며 슬기로운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 우리의 상식은 “이타심은 나 자신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아.”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나귀가 말하는 이론의 서두이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신 나귀새끼 (colt)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다. (누가 19:30) 이는 보다 높은 원리들 아래 자연적 이성을 두는 권능을 가져오신 첫 번째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의미한다. 즈가리야 9장 9절을 보면, 주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음을 알 수 있다.

주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왕으로 환호하며 나귀 타신 그분의 길에 그들의 겹옷이나 종려나무가지를 깔기도 했다. 이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묘사한다. 우리의 “겹옷(garment)”이란 우리의 느낌을 입힌 생각들을 의미한다. 종려나무가지란 우리의 구세주로서 주님을 믿음을 뜻한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하느님이며 왕으로서 인식한다면, 우리 안의 모든 사상들은 그분의 진리의 심판에 복종해야 한다.

비둘기는 제물로서 사용되었다. 율법은 제물로 사용된 동물이나 새들이 모두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서 성전으로 가져 왔다. 사제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져온 제물에서 흠을 발견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것을 사게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었다. 또한 사제들은 성전 헌금을 “성전의 돈(shekel of the sanctuary)”으로 바꾸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 돈은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었다. 환전상들은 돈을 바꿔주고 그 값(fee)을 챙겼다. 주님이 인용하신 구절들은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볼 수 있다.

대사제나 율법 학자들은 그들 외에 어느 누구도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이 대중적 인기를 갖게 됨을 매우 두려워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인용하셨다. 시편 8편 2절을 읽어 보자. 이는 종교가 열매 맺는 선한 행위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영혼에 있게 되는 것을 묘사한다. 당시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분은 수차례 스스로를 구해내셨듯이 그때에도 자신을 구해내셨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분의 일을 마무리 짓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키기 위해 필요했음을 알고 계셨다.

질문 및 요점정리

- *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 주님은 어느 도시로 입성하셨는가?
- * 그분은 무엇을 타고 계셨는가?
- *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 * 주님은 밤을 보내기 위해 어디로 가셨는가?
- * 그곳에는 주님의 친구들이 있었다.
- * 요한복음 11장 1-5절까지와 누가복음 10장 38-39절을 읽어 보자.
- *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 3반

나귀에 관한 상응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리의 자연적 이성 즉 외관에 의한 판단이 주님의 진리의 법칙에 종속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하고 사울에 관한 내용도 재검토 한다.

우리는 성주간의 의미를 숙고해야 한다. 또한 오래전 종려주일에 주님을 왕으로서 환영하고 그 주일 금요일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 사이에 우리 자신도 속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종려주일은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의 첫 날이다. 주님과 그의 사도들은 과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 주님은 자신이 죽음에 처할 것을 사도들에게 말하자, 그들은 그곳에 가지 말자고 그분께 권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세상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의 일부분으로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
이셨다. 십자가는 자아를 극복한 승리의 상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신뢰하면, 그분은 우리에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시의 왕이나 판관의 관습처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나귀란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 부르는 것 혹은 자연적 이성(추론)에 대한 상징이다.
흔히 상식은 우리 자신 혹은 타인에게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보상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식은 주님의 시야에서 볼 때 현명하지 못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
원리일 뿐이다. 우리는 때로 일을 쉽게 처리하는 것보다 올바른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시험을 겪게 되기도 한다. 우리가 “우리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 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말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는 신호인
것이다. 이럴 때 스스로에게 “그렇다. 이것은 내안의 나귀가 하는 말이 구나!”라고
대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나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주님 한 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왕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만을 우리 삶의 통치자로 삼으며
그분의 법칙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법칙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그분 앞에 종려나무가지를 던지는 것이다. 그 이유는 종려나무란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원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 후에 우리는 우리의 사상이
주님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우리의 사상을 포기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 겹옷을 벗어 깔아 드리는 것으로 묘사된다. 우리의
겹옷이란 우리의 애착을 입히고 있는 사상들을 뜻한다.

주님은 환호성 속에 입성하신 후 제일 먼저 환전상과 비둘기 장사꾼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 내었다. 환전상과 비둘기 장수란 우리의 지성과 심정의 바닥을 맴돌며 주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를 간섭하려는 우리 속의 이기적 생각과 느낌들을 상징한다. 사제와
원로들은 순진한 어린이들이 주님께 “호산나”라고 부르는 외침을 듣고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규칙이 간섭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성전에서 주님이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뵈움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에게 귀를 기울였다. 이것이 당시 유대
교회의 영적 상태이었기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사건이 첨가된 것이다.
즉, 그들은 예배같이 보이는 것을 수행했지만 그것은 선한 인격 혹은 선한 일의

열매가 없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참석하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배워간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늘 반복해야 할 일은 삶 중에서 이기심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방치함으로써 주님과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밖으로 쫓겨나도록 방치하지 않는가에 대한 점검이다.

기본 상응 공부

나귀 = 자연적 이성

종려나무 =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원리

겉옷 = 우리의 애착을 입힌 사상들

제 4반

인간의 번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상기해 본다. 말을 잘하고 말씀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듯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삶에서 힘든 시험에 부딪치면 쉽게 돌아서고 마는데 그러한 마음 상태를 살펴본다. 성전의 숙청과 그 의미를 강조한다.

주님이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내용은 친숙하므로, 그것의 의미만을 재고하도록 한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 만든 장소를 표현한다. 우리가 실제로 신성한 진리의 통치를 인정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왕으로 군림하신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세상적 추론을 영적 원리 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심을 의미한다. 우리의 겉옷을 주님 앞에 벗어 깔아 드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종려나무가지란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인식하게 될 때를 뜻한다. 이리하여 주님은 우리 영혼의 내적 성전을 깨끗케 하시고, 우리의 거짓 사고와 이기적 바램들을 몰아내신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작은 아이들”, 즉 순진하여 신뢰하는 심정상태만이 주님을 경청하게 된다.

주님이 아셨던 바대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은 마지막의 시작이었다. 군중들의 일시적 지지는 그분에게 성전을 깨끗케 하시며 성전에서 가르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래서 그분은 이틀 동안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율법 학자들을 꾸짖으시며 시대의 종말을 예언하셨다. 그 예언의 말씀은 새롭고 진정한 교회를 설립하는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란 당시 교회들의 실상을 묘사한다. 이와 유사한 순간은 우리 삶에서도 발견 된다. 우리가 주님의 왕권과 권능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위선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으로 인해 확연히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우리는 그것들이 저주를 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시험을 겪으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즉시 식어버리게 된다. 비록 과거에 주님을 환영한 우리의 심정이 식었다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작은 시작인 싹을 버티게 하며 강건케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려주일은 일반적으로 보면 승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장차 올 어두운 사건에 대한 전주에 불과하다. 주님의 당당한 예루살렘 입성은 실제로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그림자를 내포하고 있다. 종려주일의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반성해 가야 한다는 것, 시험 중에도 주님만을 보아야 한다는 것, 이기적 욕망이나 두려움이 우리의 높은 목적들을 강탈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됨을 경고해 주고 있다. 성주간에 우리는 겸허히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지성과 심정 속에 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로 상징되는 악과 거짓들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과 자아 검증을 통해 순진함과 신뢰와 사랑의 심정 상태를 회복시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제 5반

왕은 진리를 표현한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의미를 언급한다. 이는 선한 행위 또는 선한 의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교리 하에 말씀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묵상해야 할 것이다.

거룩한 땅의 세 부분은 우리 삶의 세 영역을 의미한다. 갈릴래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영역의 삶을, 사마리아는 생각하는 영역에 속한 삶을 그리고 유다는 의지 영역의 삶을 뜻한다. 또한 그 영역들은 주님의 바램이 우리의 의지 안에서 나타남과 세 영역이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그림이기도 하다.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것, 즉 예루살렘에서 그 마지막을 보내심은 인간이 주님을 영접하는지 아니면 거절하는지를 살피기 위한 인간의 가장 깊은 의지에 대한 탐색을 묘사한다.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게 환영하며 그분을 그들의 왕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내의 정치적 권력은 주님의 적들에게 있었으며,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거절하도록 하게 만들어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 주님은 과거 구약시대에 왕이나 관관들이 했던 관습과 같이 부활 일주일 전 일요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군중들은 그분을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서 환영했고, 그분의 길 위에 그들의 겂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서 승리를 표현했다. 그들은 그분의 병 고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환영했다. 그들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 오시도록 대대적인 환영을 할 준비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 첫째는 외적 삶의 극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님의 권능을 인식할 때이다. 둘째는 우리가 병들게 되도록 방치한 자질들을 회복시켜 주는 그분의 권능을 인식하게 될 때이다. 그리고 셋째는 게으름이나 남용으로 인해 죽게 된 자신의 소생을 맞보게 될 때이다.

왕이란 통치하는 자다. 백성들은 왕의 법을 용납하여 순종하고, 왕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간주한다. 이는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의 일들로 묘사된다. 주님의 법칙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분은 우리의 이기적 바램이나 포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분의 법칙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길을 단번에 두 쪽으로 갈라 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그분은 “Stop!” 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는 주님의 법칙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로 상징되는 이기적 감정과 생각들, 그리고 비록 수는 적지만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뵈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군중이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애착들을 의미한다. 군중은 우리의 영혼 속 깊은

추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 기독교인의 마지막 시험은 인간의 본질인 이기심의 껍짐에 슬쩍 눈 감아 버리고 허용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하는 것이다. 눈 감는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법칙을 거절하는 것이오 이미 주님의 법이 올바른 것이며 최선의 것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는 말이다. 우리들 중 수많은 이들이 기독교적 삶은 올바르고 행복한 삶이오 따라서 기독교적 생활 지침의 결과로 오는 명확한 혜택을 목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지침을 질서있게 기꺼이 살아 보려고도 한다. 우리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를 주저치 않는다. 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것, 개개인에게 있는 변화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정말로 열려고 하고 우리 전체를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려는 지배 아래 복종케 하려고 들면, 우리는 우리 속에 든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의 힘이 너무나 강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과국적인 영적 상태는 살인자인 바라빠를 놓아주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으로 치닫는 것이 상정한다.

즈카리아 9장 9절에서 주님은 “어린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스웨덴본의 저술(AC.2781)에 의하면, 나귀(ass) 또는 망아지(colt)란 선과 진리의 측면에서의 자연적 인간(natural man)을 그려주며 주님이 나귀 위에 타셨다함은 그분이 왕이나 관관의 특권을 되찾으셨을 뿐 아니라 심정과 지성의 자연적 평면을 신성에 종속 시키셨다는 사실(fact)을 보여준다고 한다. 마가복음 11장 2절이나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망아지(colt)는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망아지라고 기술된다. 이는 주님만이 자연적 평면의 것들을 질서 아래로 환원시켜 진정한 선용에 봉사하도록 만드실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제자들이 그들의 옷을 주님이 타실 나귀 위에 퍼 놓았다는 기술을 통해 주님의 통치와 고침에 자신들의 사상을 복종케 하는 제자들의 진정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은 군중들이 “그분의 길에 그들의 겂옷을 깔아” 놓는 사실로도 표현된다. 종려나무는 “영적 선” 또는 “진리의 선”을 그린다. (AC 8369) 이 나무가지를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 위에 깔았다 함은 신성한 진리를 위한 진정한 애착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주님만이 각 사람의 삶 안에서 승리될 수 있도록 하시며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수확의 축제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오도록 명령되었고, (레위기

23:40) 솔로몬의 성전의 문과 벽에 종려나무 모양이 돌을새김 되었던 것이다. (열왕기 상 6:29,32) 요한의 환상에서 보좌 앞에 선 무리들도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 (요한계시록 7:9) 이들이야 말로 시편 92편 12절에서 노래하는 “의로운 사람”들로서 진리를 실질적인 생활에 응용하여 진리로부터 비롯된 선으로 이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삶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게” 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이루신 첫 열매 중 하나는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예배를 악용했으므로 성전을 모독했다고 할 수 있다. 성전은 주님의 집으로, 우리 각자 속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의미된다. 즉,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지성과 심정을 주님에게 열고 우리의 약함과 그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전은 글자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 제물로 바칠 동물의 판매 행위와 통용되는 금전을 성전 세겔로 바꾸어 줌이 성전 자체의 뜰 안에서 이득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또 바리새인과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들이 행한 외향적 경건심을 자신들을 위한 권력이나 명예로 취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었다. 환전상이란 성경을 이기적 충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둘기 장사꾼이란 명예나 존경을 받을 목적으로 경건한 체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그분이 행하신 첫 일은 성전을 깨끗케 하심이었던 것이다.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 마음에 영접되어질 때 과거의 종교생활에서 있어왔던 모든 이기적 동인들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는가? 기독교인은 자신의 결점을 늘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배우기 위해 늘 순수한 바램을 가져야 한다. 또한 체면이 아닌 진실로 원하여 교회에 참석해야 한다. 주님에 대한 진정한 인식은 이런저런 잡된 것들을 자신에게서 몰아내려 하는 마음의 태도를 깨닫게 해 준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밤을 지내시지 않으셨고, 베다니아에 있는 그분의 친구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자로의 집에서 머무셨다. 무엇이든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때가 낮 동안이다. 이런 낮의 상태에서 우리는 악에 대항하여 한 걸음이라도 더 진보하게 된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갖게 된다. 성경에

있는 세 나무 즉 올리브, 포도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한 나무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무화과나무는 바깥 행동 지침, 즉 일상생활에서의 선을 표현한다. 당시의 교회들은 전적으로 외적 교회였기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그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셨음이란 그 교회들이 적절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 것과 그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를 대표할 수 없음을 상징한다. 이러한 것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던 것으로 상징된다. 또한 이 사건은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곧 스스로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의해 곧 저질러 질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전도하고 설교한 것들이 실체화 되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영적으로 죽는 것임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2781항 8번)」: “ ‘나귀 위에 탄다는 것’은 자연적인 속성을 종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나귀의 아들인 망아지를 탄다는’ 것은 자연적인 합리성을 종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들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전통적으로 나귀를 타는 것은 왕이나 가장 높은 판관의 관례라는 것과 더불어 교회의 표현적인 것들이 성취되어야만 했으므로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이다. 위의 사항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그 시대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 있는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암나귀나 암나귀에서 출생한 망아지도 이를 표현한다. 이 동물에 의해 선과 진리적인 측면에서의 자연적 인간이 표현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는 자연성이 합리성을, 합리성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은 천적인 것을 그리고 천적인 것은 주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종속되는 질서이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오늘은 무슨 날인가?
- 2) 이 날은 무엇을 기념하는가?

- 3) 예루살렘 입성 때에 주님은 무엇을 타셨는가?
- 4) 제자들은 나귀 위에 무엇을 놓았는가?
- 5) 주님이 나귀를 타시자 그분 앞에 사람들은 무엇을 뿌렸는가?
- 6) 군중들은 뭐라고 외쳤는가?
- 7) 주님은 입성하신 후 어디로 가셨는가?
- 8) 그곳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9) 성전에 관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0) 이외에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 11) 주님은 밤을 어디서 보내셨는가?
- 12)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 13)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무엇을 그리는가?
- 14) 종려나무가지란 무엇을 그리는가?
- 15)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임은 우리 삶의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 1) 종려주일 2) 주님의 의기양양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 3) 나귀 4) 그들의 겹 옷 5) 종려나무 가지와 겹옷 6) 호산나 7) 성전 8) 환전상과 비둘기 장수를 내쫓으셨다 9)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10)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을 고쳐 주셨다
- 11) 베다니아 12)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 13) 그분만이 그분의 자연적 이성을 신성의 지배 아래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
- 14)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 15) 그분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규율하며 그 규율에 순종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

36

주님의 지상 마지막 주간

머리말

주님의 심문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관한 사건의 순서를 글자적으로 확실히 아는데 중점 한다. 십자가란 주님의 선함과 진리가 모든 악의 권세를 정복한 승리를 상징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가 그분의 안내를 받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으면 우리 역시 악의 정복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배반에 관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분을 배반하는 것임을 염두 하자. 그리고 과월절 축제 동안에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은 과월절을 대신하는 기독교회를 위한 것임도 기억하자.

성서: 마태복음 26; 27장

26장: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2. “너희가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과월절이 되는데 그 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잡혀 가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3. 그 무렵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가야파라는 대사제 관저에 모여 4. 흥계를 꾸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5. 그러면서도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고 하였다. 6. 그 때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7.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8. 이것을 본 제자들은 분개하여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9. 이것을 팔면 많은 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하고 말했다. 10.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여자는 나에게 가룩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11.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었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까지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12.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13.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14. 그 때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에게 가서 15.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 주면 그 값으로 얼마를 주겠소?” 하자 그들은 은전 서른 닢을 내주었다. 16. 그 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 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17.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께서 드실 과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렸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다. 18. 예수께서는 이렇게 일러 주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더러 ‘우리 선생님께서 자기 때가 가까 왔다고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과월절을 지내시겠다고 하십니다’고 말하여라.” 19.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과월절 준비를 하였다. 20.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21. 같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2. 이 말씀에 제자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하고 물었다. 2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것이다. 24.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25. 그 때에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나서서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하고 묻자 예수께서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셨다. 26.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하시고 27.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돌리시며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28.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29. 잘 들어 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다. 30.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32.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그

때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였다. 34.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35.
 베드로가 다시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36.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니라는 곳에 가셨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하시고 37. 베드로와 제베대오의 두 아들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38.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싸여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와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하시고는 39.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40.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에게 돌아 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나? 41.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며 한탄하셨다. 42. 예수께서 다시 가서서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고
 기도하셨다. 43.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니 그들이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44. 하는 수 없이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가서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45.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 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 가게 되었다. 46.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 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47.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를 따라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 왔다. 48.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49. 그는 예수께 다가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하
 면서 입을 맞추었다. 50. 예수께서 “자 이 사람아, 어서 할 일이나 하라”하고 말씀하시
 자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51. 그 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 버렸다. 52.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53.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 두 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54.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고는 55. 무리를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는 나를 잡지 않다가 지금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냐? 56.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그 때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57.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대사제 가야파의 집으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58. 베드로는 멀쩡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사제의 관저에까지 가서 일의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 가 경비원 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다. 59.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60. 많은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나타나서 61. “이 사람이 하느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하고 증언하였다. 62.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하고 물었다. 63.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내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대답하여라. 그대가 과연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하고 물었다. 64.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것은 너의 말이다”하시고는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 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의 구름 위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65.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느님을 모독했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방금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소? 66.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하고 묻자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하고 아우성쳤다. 67.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자들은 뺨을 때리면서 68.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맞추어 보아라.”하며 조롱하였다. 69. 그 동안 베드로는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여중 하나가 그에게 다가 와 “당신도 저 갈릴래아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하고 말하였다. 70.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무슨 소린지

나는 모르겠소.”하고 부인하였다. 71.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계로 나가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자렛의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오.”하고 말하였다. 72.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73. 조금 뒤에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 오며 “틀림없이 당신도 그들과 한 패요. 당신의 말씨만 들어도 알 수 있소”하고 말하였다. 74.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하고 잡아떼었다. 바로 그 때에 답이 올었다. 75. 베드로는 “답이 올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27장: 1. 이른 아침에 모든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짜고 2. 그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 3. 그 때에 배반자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쳤다. 그래서 은전 서른 닢을 대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며 4.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하고 말하였다. 5. 유다는 그 은전을 성소에 내동댕이치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6. 대사제들은 그 은전을 주워 들고 “이것은 피 값이니 헌금 궤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하며 7.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8.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불린다. 9.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정한 한 사람의 몸값, 은전 서른 닢을 받아서 10.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옹기장이의 밭 값을 치렀다”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네가 유다인의 왕인가?”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였다. 12. 그러나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3.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느냐?”하고 다시 물었지만 14.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5. 명절이 되면 총독은 군중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관례가 있었다. 16. 마침 그 때에 (예수)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17.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누구를 놓아 주면 좋겠느냐?”

바라빠라는 예수나? 그리스도라는 예수나?”하고 물었다. 18. 빌라도는 예수가 군중에게 끌려 온 것이 그들의 시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 19.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전갈을 보내어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왔습니다.”하고 당부하였다. 20. 그 동안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는 죽여 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21. 총독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 달라는 말이냐?”하고 묻자 그들이 “바라빠요”하고 소리 질렀다. 22.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자 모두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하고 소리 질렀다. 23. 빌라도가 “도대체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나?”하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더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하고 외쳤다. 24. 빌라도는 그 이상 더 말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기세가 보였으므로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하고 말하였다. 25. 군중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하고 소리쳤다. 26.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 주었다. 27.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 모아 예수를 에워쌌다. 28.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힌 뒤 29. 가시로 왕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린 다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의 왕 만세!”하고 떠들며 조롱하였다. 30.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31.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그 겹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갔다. 32.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여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33. 그리고 골고타 곧 해골산이라는 데에 이르렀을 때에 34. 그들은 예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35.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갖고 36. 거기 앉아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37. 그리고 예수의 머리 위에 죄목을 적어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다. 38. 그 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 하나는 예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39.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40.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던 자야, 네 목숨이나 건져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 와 보아라.”하며 모욕하였다. 41.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도 42.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 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고말고. 43.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또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네 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 보시라지.”하며 조롱하였다. 44.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45. 낮 열 두 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6. 세 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47. 거기에서 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48. 그리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곧 달려 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주었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하고 말하였다. 50. 예수께서 다시 한 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51. 바로 그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52.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53.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54.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55. 또 거기에는 멀리서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께 시중들며 따라 온 여자들이었다. 56. 그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베대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57.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태아 사람인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58.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쾌히 승낙하여 내어 주라고 명령했다. 59.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고운 베로 싸서 59.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아 놓고 갔다. 61. 그 때에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62. 그 날은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그 다음 날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몰려 와서 63.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그 거짓말장이가 살아 있을 때에 사흘 만에 자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64. 그러니 사흘이 되는 날까지는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서 감추어 놓고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심한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65.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어 줄 터이니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아라.”하고 말하였다. 66.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교리 요점

- * 십자가란 악을 정복한 주님의 승리를 상징한다.
- * 우리는 주님이 맞서서 극복하지 못한 시험은 직면하지 않는다.
- * 성만찬은 기독교회를 위해 과월절 대신 거행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종려 주일에 관한 공부는 주님이 어떻게 그분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첫 날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으며 그들의 왕으로서 환영 받았는가를 알게 해주었다. 마지막 주간의 뒷부분에서 의아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쉽사리 주님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을까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해결 방안을 만들어 놓고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변해 그것을 취소하는 경험을 회상해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본문에는 교인이라 자처하는 우리들을 뜨끔하게 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다. 첫 번째 사건은 유다의 행동과 그 행동 후에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행위 중 가장 나쁜 행위의 본보기로서 유다를 언급하기를 머뭇거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가 우리 안에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자신의 일시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할 때 바로 우리 안의 “유다”가 행동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사건은 주님이 붙잡히시자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는 상황이다. (마태복음 26:56)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이야기다. 우리가 정말로 강한 사람이라면, 말씀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또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꾸준히 묵상된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 가야 한다. 시편 1편 1-2절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생활 전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죽음은 이를 더 확연히 보여 준다. 주님은 무리들이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심정과 장차 일어나게 될 일도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꾸준히 앞으로만 전진하시며 각 시험을 극복하셨다. 즉, 주님은 그분 스스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까지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시키신 것이다.

새교회인들을 위해 십자가는 주님의 승리(victory), 즉 신성한 사랑이 인간 본성 속에 축적된 모든 악을 이긴 마지막 승리(triumph)를 상징한다. 이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발생할 수 없음을 표현해 주기도 한다. 주님은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겁내지 말라. 그들이 영혼 까지도 죽일 수는 없으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분을 죽이려는 자들과 전 시대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 모든 최악의 것을 그분에게 허용하신 것이다.

제 1반

베드로의 세 차례의 부인을 통해 주님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한다. 즉, 잘못된 것을 행하게 하는 시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리들이 주님을 거절함과 십자가의 이야기로 종려주일에 관한 기사와 연결 지어 본다. 또한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승리가 의미하는 바도 살핀다. 주님이 느껴보지 않았거나 극복하지 못한 시험은 단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주님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가까이 두고 시험이 올 때마다 그분께 기도해 나간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나쁜 자극이나 생각들에 “NO”라고 단호히 답할 용기를 주실 것이다.

주님이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과정과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환영했음을 기억할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의 시작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을 통치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들은 주님을 원치 않았는데, 이는 지도자들이 그들의 지배하는 자리를 뺏기기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고 군중에게 말했고, 결국 예수를 죽음에 처할 수 있도록 군중을 설득시켰던 것이다.

주님은 장차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가까운 제자들마저도 그분 곁에 있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분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음식을 잡수시는 동안 그들 중 한 사람이 그분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그들 중 한 명이 적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체포할 수 있는지 귀띔해 줌을 말한다. 주님이 그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서로 쳐다보며 수근 거렸다.

마태복음 26장 22절을 읽고 기억해 두자. 왜냐하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스스로가 쉽게 나빠질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주고 남에게 잘못의 탓을 돌리지 말고 자신에게 그 탓을 묻도록 준비해야 함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요점 및 질문정리

- * 주님은 월요일과 화요일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소비했다.
- * 밤에 주님은 베다니아로 나가셔서 그분의 친구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자로의 집에서 머무셨다.
- * 예루살렘은 과월절을 축하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 * 과월절은 어떤 날인가?
- * 목요일 저녁에 주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과월절 음식을 먹었다.
- * 그들 각자는 주님에게 뭐라고 물었는가?
- * 주님은 제자들에게 과월절 대신 새 축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보여 주셨다.
- *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축제를 시행한다.
- * 이 축제는 무엇이라 부르는가?

- * 저녁 식사 후 주님과 제자들은 어디로 나갔는가?
- * 유다는 주님을 어떻게 배반 했는가?
- * 주님은 종교 재판정에서와 로마 총독 앞에서 심문을 받았다.
- * 그들은 그분에게서 어떤 결점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에 관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 * 그들은 그분을 죽음에 처하게 했다. 이는 그들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 * 주님의 육체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제 2반

과월절의 역사와 과월절을 대신하는 성만찬의 구성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한다. 이후 예수의 심문, 십자가형, 장례 그리고 우리 삶에서의 그것들의 의미를 살펴본다.

다음의 질문 및 요점을 기억하며 공부하자.

- * 주님은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입성하셨는가?
- * 군중들은 그분을 어떻게 느꼈는가?
- * 어린이들은 뭐라고 소리쳤는가?
- * 주님은 군중의 감정이 그리 길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다.

마태복음 20장 17-19절을 읽어 보자.

주님은 그분의 마지막 주일의 월요일과 화요일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보내셨다.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은 바리새인, 서기관 혹은 대제사장들에 의해 휘저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요일에 아주 강해져서, 그 때 주님은 성에 오시지 않았다. 이는 주님이 성에서 주무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에 주님은 예루살렘 근처 작은 마을인 베다니아로 가서 친구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자로의 집에서 머무셨던 것이다. 그 후 주님은 목요일 저녁에 그분에게 일어날 일을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과월절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성으로 오셨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빵은 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하셨다. 그분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 순간에도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자신은 우리의 느낌(feeling)들과 생각(thought)들이다. 진정한 주님의 “몸과 피”는 그분의 선함(goodness)과 진리(truth)이다. 그래서 성찬식이 거행될 때는 주님의 이타적 사랑을 심정에 받고 그분의 진리를 지성에 받음을 상징한다.

우리가 어떤 육체적 재난에서 벗어나거나 육체적 고통에서 치료되기를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바램이 첨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 최선의 것을 아시며 그렇게 해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유다는 스스로가 행한 일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 목매달아 자살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잘못을 알면서도 행하며 그 일이 실제로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실상 실제적 결과의 악함을 보고 소스라치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주님의 심문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의 이야기를 세세히 읽어 보자. 유다 지역에는 주님 당시에도 왕과 제사장이 있었으나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따라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다. 주님의 심문은 거짓 심문이었다.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 했던 증언과 그분의 답변들을 읽는다면, 그분이 사형당해야 할 어떤 증거도 없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단지 주님을 믿기를 거절했을 뿐이다. 그들이 주님을 죽음에 처하게 만든 진짜 이유는 그들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분의 서술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이 삶의 진정한 길을 말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바꾸고 싶지 않았고,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이기심 또한 눌러 버리고 싶지 않았다.

본문은 우리의 삶이 구원되기 위해서 우리를 잘못되게 한 시험조차도 주님의 힘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십자가는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마지막이며 완전한 승리를 표시한다. 우리가 시험 당해질 때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질문정리

- * 과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가?
- * 주님은 저녁 식사 동안 어떤 새로운 기념일을 제정하셨는가?

- * 주님은 저녁 식사 후 기도하기 위해 어디로 가셨는가?
- * 그분의 기도는 무엇이였는가?
- *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 주님은 그가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가?
- * 주님은 왜 그를 못하게 막지 않으셨는가?
- *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그의 가장 좋은 친구를 배반하도록 유혹했는가?
- * 주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 베드로는 무엇을 했는가?
- * 주님은 어떻게 죽음에 놓이셨는가?
- * 그분의 옷을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 * 그분의 시신은 어디에 놓여 졌는가?
- * 그분이 부활하시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

제 3반

성만찬의 조직과 상응을 다룬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과 그 과정에 있게 된 일부 내용들을 상응으로 풀어 본다.

주님이 종려 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 그분의 도움을 절실히 원했던 사람들은 기쁘게 환영했다.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이 뺏겨질까봐 두려워 한 사람들은 그분의 입성을 불쾌하게 느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시지 않으셨다. 주님은 월요일과 화요일 동안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서슴없이 질책하셨고 그들을 본보기로 삼지 않도록 사람들을 훈계하셨다. 주님의 입성 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방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점차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등을 돌리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주님은 화요일 밤 성을 떠나서 목요일까지 되돌아오시지 않으셨고, 목요일 밤 과월절을 위해 되돌아 오셨다. 주님은 그분의 친구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자로의 집에서 밤을 보내셨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과월절 축제 때였음에는 깊은 영적 교훈이 담겨 있다. 주님은 유월절에 바쳐지는 어린 양(Paschal Lamb)이라고도 불린다. 십자가에 달리심은 주님의 기나긴 영적 전쟁의 최절정을 상징하며, 그 의미는 그를 통해 그분이 지옥을 정복하신 것이다. 이것은 곧 그동안 지속적으로 커진 악의 권세가 극에 달해서 어느 인간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린 지옥의 권세에 가장 큰 치명타를 가했다는 의미가 된다. 과월절은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반면, 성만찬은 과월절 대신 모든 기독교인을 위해 주님이 설립하신 것이며 지옥의 속박으로부터 그분에 의해 우리가 해방됨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주님은 빵과 포도주는 그분의 몸과 피라고 하셨다. 빵과 포도주란 우리가 그분의 추종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심정과 지성에 받아야 할 그분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에 대한 상징이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할지라도 그분 스스로를 구해내실 수 있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읽어 보자. 만약 주님이 육체적 죽음의 짧은 순간을 멈추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죽음을 통과하는 길을 보여주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은 큰 권능을 행사하여 스스로를 구해 내시고, 그분의 적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느님이심을 억지로 인정하도록 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들의 심정까지 바꿀 수 없으며, 그들은 두려움으로 그분께 순종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행복해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악마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노예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노예 상태를 원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 후 그분을 거절하는 것은 주님의 실재하심(presence)을 수단으로 존재하는 그들의 교회가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한다. 사도중의 하나인 유다는 고대 유대교회를 그린다. 그는 주님을 배반했고 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가 처음에는 진리를 인정하나 그것에 따라 살아 보려는 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스스로 죽이고 결국은 영적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주님과 인간의 중간 관계로서 유대교회의 역할이 끝난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을 당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군인들이 주님의 겉옷을 나눠 갖거나 제비 뽑은 사건은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다. 요한복음 19장 23-24절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주고 있다. 주님의 겉옷은 말씀의 글자를 표현하고, 그분의 속옷(inner

garment)은 말씀의 내적 의미를 그리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주님의 겉옷은 나뉘” 가진다. 자기들이 믿기를 원하는 것을 떠받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글자만을 인정하는 자세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내적 의미는 이런 방식으로 취급될 수 없다. 그것은 “흔슬없이 통으로 짠 것(woven without seam)”이기 때문이다. 아리마태아 사람인 요셉과 니고데모(요한복음 19:38-40)는 그 당시 산헤드린(Sanhedrin, 공회, 고대 유대교의 최고 재판소)의 구성원이었다. 그들은 주님에게 죄목을 뒤집어씌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다수가 떠들어 대는 군중 심리에 대항할 만큼 용감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후 빌라도에게 그분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간청하고 그의 허락을 얻어내 그분을 새 무덤에 안치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봉인하고 군인들이 그것을 지켜주기를 빌라도에게 요구한 사실은 주님을 거절한 후에도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주님을 거절할 때 때로 불필요한 논쟁에 노력하고 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논쟁은 주님을 믿는 이들의 귀에는 어리석은 논쟁으로만 들린다. 또한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에게 그 논쟁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일 뿐이다.

기본 상응 공부

성찬에서의 빵 = 신성한 사랑

성찬에서의 포도주 = 신성한 지혜

성만찬 =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받아야 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짐

제 4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한 새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교회의 가르침을 대조해 본다. 유대와 그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그려진 내용들은 고대 히브리 교회로부터 기독교회로의 전환을 말해준다.

종려 주일 주님의 의기양양한 예루살렘 입성은 주님이 아신 바대로 마지막의 시작이

었다.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군중들의 지지는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드러내 놓고 견책하며 성전을 깨끗이 하실 수 있는 기회였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 삶의 순간에도 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힘이 되신다고 강하게 느끼면, 우리는 자신들의 죄 혹은 위선을 명확한 빛으로 보며 스스로를 견책할 수 있다. 본문의 군중들처럼, 우리의 이러한 열정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오는 시험 중에 쏠살같이 식어버린다. 그러나 잠깐 있어졌던 열정이 비록 적다하더라도, 그것은 거듭나는 삶의 작은 씨로서 우리들 안에 존속하고 영혼을 강건케 하는 요소가 된다.

우리는 유다를 포함해서 열 두 제자로 표현되는 모든 특질들을 우리 속에 갖고 있다. 특별히 유다는 당대의 유대 교회의 특질을 표현해 주는데, 유대교란 예배라는 외형물만 존재할 뿐 내용물이 없었다.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때는 과일질이 마감되는 때였다. 이것은 선을 활성화하며 인도해 내는 참 진리는 이미 위선에 가득한 사람에게 는 악이 더 큰 발작을 일으키도록 자극할 뿐임을 보여준다. 축제 때에 주님은 성만찬 제도를 설립하셨고, 빵과 포도주를 그분의 몸과 피라고 부르셨다. 그 이유는 이것들이 그분의 선함과 진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유다는 빵과 포도주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가 상기해야 할 사항은 주님의 성찬에 참석하여 성찬을 받게 될 때는 우리 속에 어떤 위선도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함이다.

스웨덴봄은 주님의 마지막이며 최고도의 시험이 인간의 의지에 반대되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대한 시험이라고 말한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적으로 스스로 구해 내는 대신 죽음을 감수함으로써 시험을 이겨 내셨다. 성경대로 바른 삶을 살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냉소에 직면하기도 하며 친구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게도 된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결국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산 증거가 되며 그것들과 맞서 물러서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용기인 것이다. 이것들이 주님의 생애나 우리 모두의 삶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주님의 추종자들에게 십자가가 주는 의미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얼마나 아프며 피를 많이 흘렸을까, 그분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을 우리를 위해 감수하셨어...”라는 식의 동정심(pity)에 의해

주님에게 인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용기를 찬양하며 그분의 지상적인 생활에서 명백해진 특질, 즉 신성한 특질들을 사랑함으로 인해 그분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또한 주님의 추종자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생애에 관한 복음서의 증언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을 단지 그분에 관한 인간의 기록 정도로만 취급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어정쩡한 믿음인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역사적 인물로서 이용하려고 하여 그분을 자기들의 세상적 사상을 찬양하는 강연장에 걸어 둔 초상화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본문에서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주홍색 옷으로 바꿔 입혀 놓고 그분을 조롱하는 예배를 갖는 내용과 같다.

영적 의미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심과 주님을 무덤에 안장하는 일련의 사건들의 모든 세부 사항들은 당시 교회의 상태를 묘사한다.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과 니고데모(요한복음 19:38-40)는 지적측면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를 악용하는 측면을 그리고 로마 군인이나 이방인들은 고집스러운 정도로 진리를 거스르려고 하는 정도까지는 단혀있지 않은 마음 상태를 표현한다. 군인들이 주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짐은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를 통째로 취하지는 않으나 진리의 유용함을 보게 될 때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됨을 그려준다. 주님의 겉옷이란 글자적인 측면에서의 말씀(the Word)을 그린다. 그들이 제비 뽑은 의류(vesture, 가리개 옷)란 속옷(the inner garment)으로, 말씀의 속뜻(internal sense)을 표현한다.

제 5반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다룬다. 그 중 하나는 십자가에 대한 새 교회의 가르침과 세상에서 우세하는 교회들의 가르침과의 차이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을 배반함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성찬식은 기독교에 있는 큰 축제 중의 하나이다. 이 행사는 과월절이나 고대 히브리 교회에 지시되었던 모든 축제 혹은 바치는 제물들 대신에 거행된다. 과월절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반면 성찬식은 지옥의 속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기념한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여진 어린 양(the Lamb that was slain)”이시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그분의 몸과 피에 대한 상징물이며, 이 상징물은 그분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성한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 우리의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빵”은 신성한 선이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포도주”란 신성한 진리이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악과 거짓에 맞설 수 있도록 강건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성찬에 초대하고 계신 것이다.

“게세마니(Gethsemane)”란 “기름을 짠다(oil press)”라는 뜻을 지닌다. 기름이란 사랑에 대한 상징이다. 기름을 짠다는 것은 사랑의 측면에서의 시험에 대한 그림이며, 이 시험은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심도 깊다. 주님은 마지막 식사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리브산에 있는 게세마니 동산으로 가셨다. 그분은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는데 동참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셨다. 그분이 느끼셨던 육체적 고통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던 그 순간 그분의 생각 안에서부터 이미 큰 고통으로 느껴지셨던 것이다. 즉, 주님은 지성 안에 그분 자신을 결코 가지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서 거절될 뿐만 아니라 육(flesh)의 약함을 드러낸 그분의 추종자들로부터도 버림받게 된다. 그러나 그분은 이러한 죄들을 범하는 것에서 그들 모두를 구하셨다. 즉,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있는 거꾸로 된 의지들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참 신성한 능력의 힘으로 그들을 구하시고자 갈망하셨던 것이다. 가장 깊은 시험조차도 그분이 입으신 인성(Humanity)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그분의 기도의 형태 변화에서 보여 진다. 주님은 세 번 기도하셨다. 이는 세 평면에서 모든 것이 신성(Divine)으로 바뀌는 것을 표현한다. 첫 번째로 가장 외적인 기도는 그분이 성취해야 하는 신성한 질서로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정도였다. 이때 그분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는데, 이것은 영적 실재에 대해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함에 무능력한 우리와 진리로 잘 가르쳐졌음에도 생각 속에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향하려는 우리의 경향성 그리고 세상적 표준과 가치관을 도구삼아 생각하려는 우리를 그려준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라고 말씀하신다.

기독교계에서 유다는 가장 비열한 것을 상징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모든 이의 심정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그분의 사도가 되도록 복음서 앞부분에서 이미 선택하셨는데.” 그리고 “왜 주님은 유다를 선택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유대와 표현적인 유대 사이를 구별해야만 한다. 제 27장에서 보면, 유다는 자기 죄를 인식하여 그것을 원상태로 돌려 보려고 노력했으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목매달아 자살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북은 「진정한 기독교(True Christian Religion)」 책이 완성된 후 처음의 열 두 사도(original twelve apostles)가 재림을 선포하기 위해 영계의 전역에 파견되어 졌다고 말한다. 그의 말을 깊이 고려해 보면, 인간적인 유대의 고향은 천국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의 저술로부터 유다는 예배의 외적인 것들(externals)만을 사랑하는 당시의 교회를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외형적인 예배에 대한 애착(affection)은 필요한 것으로서 가치도 있다. 그러나 외적인 것에 치중할 경우 아주 쉽게 배반해 버린다. 우리가 당시의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들과 같이 세상적 존경과 권력 또는 우리의 이기심을 덮어두는 덮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외향적 경건심만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키스를 하고 배반하는 유대와 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외향적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는다는 취지를 함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유대의 배반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그분을 잡으려 온 적들에게 대항하라는 명령도 내리시지 않으셨다. 적들이 혹독한 짓을 하게 내버려두시는 일은 후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분의 의지가 열 두 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불러 적들을 쳐부수도록 했다면, 그것은 인간을 자유로이 놓아두시는 그분의 신성한 목적에 대치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진리를 원치 않는 타인에게 진리를 강요하고, 스스로의 무기로 악과 싸우려 하기도 한다. 진리는 꾸준하면서도 비강제적이다. 거짓만이 선두권을 잡기 위해 폭동적이며 악랄하다. 주님이 붙잡히시자 그분을 구하겠다고 충동적으로 칼을 꺼내는 베드로의 약점이 바로 그분이 심문 받는 동안 베드로로 하여금 그분을 부인하게 만든 약점이기도 하다. 약점이란 물질적 권능이 영적 권능보다 더 크다는 느낌이다. 이런 약점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널리 퍼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라는 것에 자기도 동참함으로 교회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보려하는 이들 그리고 성공적인 번영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를 버리는 이들은 모두 똑같은 약점을 드러낸다.

주님은 가야파라는 대사제와 무리들에게 먼저 심문 받으셨다. 국가라는 면에서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은 우리 속에 있는 교회 또는 우리와 주님과과의 관계를 표현함을

상기해야 한다. 진짜 심문이 날마다 거행되는 곳은 우리 속이다. 주님은 가야파와의 논쟁을 거절하셨고, 그분에게 덮어씌우려는 거짓 증거에 대한 답변도 아예 회피하셨다. 주님은 단지 그분의 신성을 주장하셨고, 그들의 심판관으로 나타나실 때만을 지적하신 후 그들이 선택한 결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대하신다. 우리는 당시 그 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증거를 갖고 있다. 복음서는 주님의 생애와 그분의 주장에 관한 확실한 기록으로, 전 시대를 위해 굳건히 서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는 이유는 그분에 관한 기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기 원치 않아서이며, 자신의 길을 고집하기를 더 좋아하고 자기 스스로 안내하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빌라도 앞에서의 심문은 우리의 의지가 결정한다 따라 추론함으로써 스스로 확증하려는 것을 표현한다.

많은 이들은 기독교의 처음에 십자가를 신학적 혹은 실제적인 하나의 별로써 간주하려고 했다. 오늘날의 많은 이들도 주님이 인간이 받아야 할 벌을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셨고, 우리의 벌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죄인을 대신한 예수의 희생(Vicarious Atonement)”이라고 부른다. 많은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이 교리를 거절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믿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구원 받아질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싶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설사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며 생활하거나 성경이 그분에 관한 유일한 지식의 근원임을 소홀히 하더라도 자신들은 구원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의 느낌 속에 있는 십자가란 패배나 비극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그들은 주님이 스스로 고통 받으신 사실에 그들의 동정심을 부추긴 후 스스로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처럼 여긴다. 이러한 것은 새교회 교리에 없다.

십자가의 고난은 유한한 인간성을 극복하는 주님의 마지막 승리이다. 주님은 그분이 준 선물을 인간들이 악용함에 따라 창조되어진 악의 권세를 만나고 극복하기 위해 유한한 인성을 입으셔야 했다. 그리하여 주님은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자발적으로 입으셨고, 유한한 인성을 마지막으로 벗으심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다.

십자가는 선과 진리에 대항할 능력이 악과 거짓에는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죽음마저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가르쳐준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400-14항)」: “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실 때와 천사들이 내려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러 내릴 때도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지진들은 교회의 상태가 그 순간 변화되었음을 암시하기 위해 발생된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게셀마니에서의 기도 중에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마지막 시험에 의해 지옥을 정복하셨고, 지옥에 있는 모든 것과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질서대로 놓으셨다. 이와 더불어 주님은 그분의 인성을 신성화 하셨다. 즉, 인성을 신성하게 만드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진’ 사실이 그분의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종려주일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 2) 주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가?
- 3) 주님은 마지막 과월절 음식을 드신 후에 어떤 새로운 기념일을 설립하셨는가?
- 4) 주님은 열 두 제자 중 하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5) 제자들 각자는 뭐라고 물었는가?
- 6) 어떤 제자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7) 유다는 주님을 어떻게 배반했는가?
- 8) 주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 9)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가?
- 10)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 11) 그는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 12) 베드로에게 자신의 예수에 대한 부인에 관해 주님이 말씀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한 것은 무엇인가?
- 13) 주님은 누구 앞에서 처음으로 심문 받았는가?

- 14) 누가 주님의 사형선고를 내렸는가?
- 15) 빌라도는 군중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었는가?
- 16) 주님은 어떻게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가?
- 17) 그분의 시신은 어떻게 묻혔는가?
- 18)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19) 성찬 때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20)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 1)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2) 과일절을 지키기 위해서 3) 성찬식(Holy Supper)
- 4) “나를 배반하리라” 5) “그게 저입니까?” 6) “가리옷 사람 유다(Juda Iscariot)”
- 7) 키스함으로 8) 도망갔다 9) 주님을 부인함 10) 아님 11) 세 번이나 부인했다
- 12) 닭의 울음 13) 가야파라는 대제사장 14) 빌라도, 로마제국 총독, 15) 예수를 석방할 것이냐? 혹은 바라빠냐? 16) 십자가에 달리심 17)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18) 무덤에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두었다 19) 주님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 20) 악과 거짓은 선과 진리를 대항할 어떤 권세도 없다는 것

37

부활하신 주님

머리말

종려주일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까지의 줄거리를 간략히 정리하며 시작한다. 종려주일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그분은 이틀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성밖의 베다니아로 가서서 그분의 친구들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자로의 집에서 머무셨다. 목요일 저녁 주님은 성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과월절을 기념하셨다. 이때에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이는 과월절 대신 기독교계에서 거행되는 기념일이다. 주님은 만찬 후에 기도하시기 위해 게세마니 동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이 그분을 붙잡았다. 그분은 대제사장 가야파, 헤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심문받으셨다. 그들은 그들이 사용한 거짓 증거 외에는 어떤 결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고, 금요일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성서: 마태복음 28장

28장: 1.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2.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 와 그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3.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4.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러쳤다. 5. 그 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으나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아라. 7.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거기에서 그분을 뵈게 될 것이오’하고 알려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8. 여자들은 무서우면서도 기쁨에 넘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나 급히 달려갔다. 9.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 걸어 오셔서 “평안하냐?”하고 말씀 하셨다. 여자들은 가까이 가서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하였다. 10.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1. 여자들이 떠나간 뒤에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안으로 들어 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대사제들에게 낱낱이 보고하였다. 12. 대사제들은 원로들과 만나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집어 주며 13.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시체를 훔쳐 갔다고 말하여라. 14.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하고 말하였다. 15.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6. 열 한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갈릴래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뵈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시대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교리 요점

- * 부활에 대한 불신앙은 고집적인 것이지 논리적이지는 못하다.
- * 부활절은 미래의 삶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움을 초월한 사랑의 힘과 거짓을 극복하는 진리가 모든 삶 안에 있어야 함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 * 주님의 부활은 비록 우리가 육체적 눈으로 그분을 뵈지 못한다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가르쳐준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부활절은 교회 달력에 있어서 실제로 가장 중요시하는 날이다.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지만, 부활절은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만 했던 일의 완성과 신성한 인성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광스런 확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활절 이야기에 어느 정도 친숙하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죽은 후 되돌아 와서 사후의 삶에 대해 말해주는 이가 없지 않는가?”라고 묻는다고 가정해 보자. 여러분은 생각 끝에 “주님이 되돌아 오셔서 우리에게 말했잖아.”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이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야. 그 기록들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라고 되물어지기도 모른다. 우리 역시 이러한 질문의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가장 가까운 제자를 포함한 그의 모든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들은 예수가 예견해 온 것들을 그분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착오를 범했다. 그분의 제자 중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수군대는 소리에 우물쭈물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과거의 직업으로 되돌아갔다.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기독교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를 바꾸었다. 부활의 믿음은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한다. 그 이유는 그 믿음에 포함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 “길ियो,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것과 하늘 아버지가 스스로 인간에게 밝히신 것 등 그분이 천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활은 하느님 자신이 복음서와 구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자신에 관해서 말씀 안에서 가르쳐 말씀하고 계심을 믿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며 공부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패턴에 따라 우리 삶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특전이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죽음이 우리의 진짜 삶으로 가는 입구이며 이 세상의 삶은 단지 시작에 불과해 영원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임을 인식한다

는 것도 의미한다.

이러한 사항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갈릴래아 산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뵈는 제자들과 같이 된다. 생각하는 우리의 평면은 세상적이며 이기적 생각뿐인 평면에서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더 순수한 공기를 호흡하게 되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천국의 태양 아래에서 진정한 위치와 관계를 가지고 펼쳐 나가게 된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과거 부활 신앙이 없었던 생각 속에서는 마치 우리 인생의 전체인 것처럼 크게 확대되어 보였지만, 부활신앙이 있는 생각 속에서 그것은 아주 조그만 사건으로 그것을 넘어있는 사랑스러운 장면만이 늘 보인다.

주님이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그분이 갈릴래아 산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내가 시대가 끝나는 날(consummation of the age)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바와 같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상의 어느 친구보다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신다.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기며 극복하여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있는 자들을 도와 주워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자.

제 1반

본문 10절까지를 중심으로 다룬다. 제자들에게 있어서와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본다. 주님은 죽음까지 정복하셨고, 우리의 삶은 육체가 죽은 후에도 똑같이 진행됨을 알아야 한다. 주님 스스로 죽음에 놓이도록 허용하신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심이었다.

다음 질문과 요점을 기억하며 공부하도록 하자.

- * 주님은 마지막 주간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는가?
- *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떠하셨는가?
- * 사람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했는가?

- *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 * 사람들은 며칠도 채 안 되어 주님에게 등을 돌렸다.
- * 그들은 주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 말씀하셔서 그분을 죽게 했다.
- * 일요일 이른 아침에 누가 무덤에 왔는가?
- *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주님이 치료해준 여인이다.
- * 다른 마리아는 어느 사도의 어머니가 되는 여인인가?
- * 여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을 때 무엇이 발생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 *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사실을 말하려고 달려갔을 때 누구를 만났는가?
- * 그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 * 주님이 다시 사셨음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에서 갖는 행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 일요일을 주일 혹은 주님의 날(Lord's day)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요일에 주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안식일로서 지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 *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마친 후, 그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 * 부활 40일 후에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

주님은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는 것과 그 후에 어떻게 일이 진전되리라는 것도 아셨지만, 죽음을 겁내지 않으셨다. 주님은 목요일 밤에 열 두 제자와 함께 과일절 기념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 성으로 들어 가셨다. 그 다음 주님은 잡히도록 허락 하신 바 다음날, 즉 금요일에 죽음에 놓이게 되셨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동의하지 않은 교회당의 두 지도자는 로마 총독에게 그분의 시신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허가를 얻었다. 그들은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장례를 준비했고,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그분의 시신을 안장 시켰다. 그리고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았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봉인했다. 경비병 또한 배치되어 있었다.

누가복음 24장 50-53절(사도행전 1:1-9)을 통해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다. 주님은 승천하셨다하더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 하셨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다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제 2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를 살펴 본 후 나머지 절에 대해서 언급한다. 본문과 더불어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1-12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18절도 공부한다.

다음 질문과 요점을 떠올리며 공부하도록 하자.

- * 우리는 부활 주일의 앞 주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 이 날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 그분은 어떻게 환영되셨는가?
- * 그분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 * 그녀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 누가 주님이 일어나셨다고 그녀들에게 말했는가?
- *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 왔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 이들이 떠나갔을 때, 그들은 누구를 만났는가?
- * 그분은 그녀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 종교 지도자들은 진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짓을 행했는가?
- * 주님을 믿고 싶지 않은 이들은 지금도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 * 주님은 어디서 제자들과 만나서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인정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를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 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바꾸게 하는 왕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도 안 되어 주님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그분을 죽게 했다. 주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 동안 그분의 시신은 무덤 안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일요일 이른 아침에 그분을 사랑했었던 여인이 무덤에 왔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만이 여인들이 그분의 시신에 바를 향을 가져온 사실을 말해 준다. 네 복음서에 있는 부활의 사건은 조금씩 다르다. 네 복음의 모든 사건은 실제로 발생했다. 두 사람이 한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세부사항을 똑같이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의 모든 말씀이 주님에 의해 영감 되어졌음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네 복음서 기자의 마음에 그분이 기록되어지기 원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장차 내적 의미 면에서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부활에 관한 각 복음서의 이야기에 담긴 각각의 특별한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든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들은 그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다시는 그분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들은 되돌아가서 과거 직업을 다시 행했다. 그들이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의 일부는 기억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새 소식, good news”를 전파 할 강함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회도 존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그분이 진짜 “부활과 생명” (요한복음 11:25)이심을 입증하시기 위해 죽음을 통과하셨다. 그리하여 주님은 육체적 죽음이 삶의 전진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과 죽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입증하셨다. 어떤 이가 여러분에게 “나는 사후의 삶을 믿을 수 없어. 아무도 되돌아 와서 그것에 관해 말해 주지 않았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그에게 “그렇지 않아.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위해 되돌아 오셨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의 시대에 거룩한 땅은 세 구역, 즉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래야로 나뉘어 있었다. 거룩한 땅은 천국적 인격을 그려주는데, 그 안에 세 가지의 부분이 있는 것이다. 유다는 우리의 심정 또는 의지 부분을, 사마리아는 우리의 지성 또는 이해성 부분을 그리고 갈릴래야는 우리의 행동 부분을 그린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기 원한다면 진리인 것을 생각하며 뜻할 뿐 아니라 올바른 것을 반드시 행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지정한

곳은 산 위였다. 높은 산 위에 오르면 아래의 넓은 땅을 내려다 볼 수 있고, 주변의 거리 관계 또는 전체적 시야로 볼 때 각 지점이나 길들의 관계를 훤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은 높은 영적인 관점을 그린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산 위에서, 즉 높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만이 주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함께 하신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높은 관점을 갖게 해 준다. 그 이유는 부활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삶은 영원한 삶에서 행복하기 위해 쓰여질 것들을 주님의 감독 하에 준비하는 삶에 불과함을 알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지 40일 후 주님의 승천이 거행되었다. 누가복음 24장 50-53절에 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비록 우리가 신체적 눈으로 그분을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는 그분이 약속하신 사항이기도 하다. 우리 역시 과거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분의 부름을 받아 내 이웃에게 새 소식, 즉 하느님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으며 천국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다는 소식을 알리는 일의 일부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제 3탄

본문은 짧으므로 한 절 한 절 설명을 더해가며 읽도록 하자. 특별히 제 10절을 중점으로 살펴본다. 본문의 이야기 자체는 친숙하게 여겨지므로 각 세부사항을 상응으로 검토하는 것, 즉 말씀의 진리를 살아있는 진리로 보게 되는 우리의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우리가 말씀의 글자에 대한 지식에만 머무르고 만족한다면, 이는 주님이 무덤 안에서 머무르고 계신 광경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을 꺼내고 섬김을 사랑하는데 선용하면, 주님은 일어 나서서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된다.

우리는 성탄절에 교회에 참석하며 아름다운 장식도 하며 선물도 준비한다. 우리는 부활절에도 이와 비슷하게 교회에 나가 싱싱한 백합으로 장식도 하고 새 봄나들이 옷도 차려 입는다. 그 이유는 부활절이 추운 겨울이 지난 후 따뜻하고 바깥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봄철에 있기 때문이어서 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 봄 옷 혹은 백합꽃과 같은 외적 즐거움은 일시적일 뿐 더 이상의 진전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부활절이 즐거워 할 영원한 봄철을 상징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사랑과 지혜 104항」에서 천국은 언제나

봄철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저 세상에서 새롭고 더 충만한 삶과 기쁨을 향해 언제나 전진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만 의존할 때의 우리는 언제나 힘의 한계에 부딪힌다. 우리의 육체는 늙어 헌 옷 같이 되어 가고, 우리의 마음은 각자 나름대로 한계에 도달된다. 우리의 선한 의지들은 그것들에 반대하는 것이나 무지로 인해 멈춰 서 있게 된다. 오로지 주님의 항구적인 현존(presence)에 의해서만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다.

무덤에 온 여인들은 이를 인식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위대한 어떤 분으로서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분을 한 인간으로 사랑했다. 오늘날의 많은 이들도 이와 같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시신이 무덤에 놓여진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과는 달리 그들의 전 직업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덤 근처에서 머물렀고, 그들이 사랑했던 스승의 시신을 위해서 마지막 섬김을 위한 향료를 준비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표현하며, 설사 지성 측면이 의심으로 인해 변해있다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생각 쪽에 애착이 기울고 있음을 그린다. 주님은 이런 애착들을 수단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그분의 존재 자체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 주실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마음속에 그리는 어린이 수준의 사상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분이야말로 언제나 현존하시는 주님이시며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구세주로서 인식하며 그분에 대해 배워야 한다.

본문을 보면, 부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취해진 조처들 뒤에는 그것이 불신임 되게 하기 위해 소문을 퍼트리는 일이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세상적 이론이 우리들 지성 쪽에 가하는 조처에 해당된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fact)이며, 그 사실은 사도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켰고 부활 신앙에 따라 모든 기독교 삶에서 성취되는 일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세상 삶이 전부이며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기는 사람과 이 세상 삶은 끝없는 저 세상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믿는 사람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한 측면은 아주 달라지며, 삶 자체 역시 달라진다.

부활 후 제자들은 주님을 갈릴래아에 있는 산 위에서 뵈게 되었다. 앞서 공부했던

바와 같이, 갈릴래이는 우리 삶의 바깥 평면을 말하며 산이란 생각 평면에서의 높은 상태를 표현한다. 우리가 세상적 관심사 위로 우리의 생각을 들어 올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될 때만이 그분을 뵈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만사를 처리하시게 된다.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래아에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원리를 근간으로 처리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사도들처럼 타인에게 “good news, 좋은 소식”을 전달하며 지상 위에 천국을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여인들 = 애착들

산 = 높은 관점 또는 영적 관점

제 4반

부활에 대한 불신앙, 특히 젊은이들이 세상을 만나는 태도가 아주 고집적이며 논리적 혹은 추론적이지 못한 사실을 지적한다.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미래의 삶에 대한 믿음, 미움을 극복하게 하는 사랑의 힘 그리고 삶의 매사에서 거짓을 이겨내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만이 진실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신뢰와 순종은 믿음의 척도이며, 영적 성공의 척도이기도 하다.

네 복음서는 주님의 심문,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부활 등에 있어 조금씩 다른 세부 사항을 알려 준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의심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될 수 없다. 어떤 이의 기록을 한 사람이 빼졌다 하더라도 동일 사건에 대해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똑같은 사건을 네 명의 증인이 기억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말씀이 기록되는데 있어서 기록자들이 선택하는 단어 하나까지도 주님의 지휘 감독 하에 있었을 것임과 각 복음서는 각각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이점에 별다른 마음의 동요가 없게 된다.

모든 복음서에서 부활을 처음 발견한 이들은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다. 그들은 일곱 마귀들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이다. 이 여인들은 비록 우리의 확증이 의심으로 기울어져 있다하더라도 진리에 대한 애착은 아직 주님 쪽을 향해 있음을 그려준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이 여인들로 상징되는 것과 같은 진리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봉사이긴 하지만 주님께 기대고 있다. 그리고 비록 성경이 그들의 지성에는 “봉인되어 있는 책”이 된 채로 들려 있을지라도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한다. 말씀의 글자 안의 영적 의미들을 알지 못한 때는 큰 돌을 굴러 막아 놓은 무덤이나 다를 바 없다.

예수라는 사람이 먼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식의 역사적 용모 만에 기울어져 있는 한 우리는 진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역사적인 그리스도는 우리 지성 속의 유한한 사상이라는 무덤이 폭발되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일어나신 그분을 본 여인들처럼 그분을 경배해야만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의 본모기를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발을 붙잡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하느님으로서 우리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내가 시대가 끝나는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그분을 보아야만 한다.

갈릴래아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뵈게 될 것이라고 말해졌다. 갈릴래아란 일상생활의 평면을 의미한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있기 위해 세상일로부터 물러서 있어야 한다. 우리는 매일 매일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외적인 “선한 일”을 해야만 주님께 가까이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리사이파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한 일을 했다. 본문에서 “열 한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갈릴래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고 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만나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일러주신 높은 장소(산)로부터 삶을 관조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 업무를 그분을 섬기는 기회로서 간주하고 그분의 방향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길에서만 우리의 삶은 그분을 증언하게 된다.

맹신적 또는 비판적인 기독교 신앙은 복음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아주 다르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없이는 “아무 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상기케 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 자신의 사상들은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른 삶을 말하며, 그 가르침에 대한 지식은 오로지 영감된 말씀(inspired Word)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이사야는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 불릴 것이다”(9:6)라고 예언했다. 이 구절은 그분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을 사랑했던 이들의 마음에서 주님이 일어나시는 방법과 우리의 마음에서 그분이 어떻게 일어나셔야 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제 5반

부활절 이야기의 일반적 의미는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나 무덤과 무덤을 봉인한 돌에 대한 상응은 언급하도록 한다. 부활의 역사적 결과와 새교회인들을 위해 함축된 의미를 중심으로 다룬다.

본문 10절까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으로, 단순하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다. 슬픔에 잠긴 여인들은 그들의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그분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 무덤에 온다. 그들은 그분에 대해 아주 많은 연민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마치 만사가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들은 봉인된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고 텅 빈 무덤과 흰 옷에 빛나는 용모의 천사들을 발견한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하며 주님이 일어 나셨고, 갈릴래아의 그들에게 오시 게 되리라고 말해준다. 그 후 그들은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말하기 위해 달려갈 때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뵈는다. 부활의 광경은 “안식일이 지나가고 그 이튿날 동틀 무렵에” 이루어 졌다. 밤이란 영적 어두움의 시기를, 새벽은 새로운 영적 시기 혹은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상태를 말한다. 본문 서두의 안식일이란 주님 안에서 쉬를 갖는 거룩한 안식일이 아니다. 이 안식일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안식일이요, 주님을 죽음에 처하게 했으니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힐 분이 없다고 여기며 의기양양함에 있는 쉬의 상태이다. 그리고 지진에 의해 시사된 변화는 교회 상태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

무덤을 봉인한 돌이란 성경의 글자에 대한 거짓 해석을 표현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해석을 앞세워 사람들이 성경 글자 속에 든 진리의 영을 보지 못하게 한다. 말씀의 글자에 대한 거짓 해석은 그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오늘날에도 강하여 사람들 사이에 다가오고 있다. 거짓 해석을 치워낼 때 봉인한 돌이 굴러져 내리는 것이요, 주님 자신이 축복하시며 권세를 펼치시기 위해 앞으로 나와 보여 지는 것이다.

무덤에 처음 있었던 자들은 사도들이 아니었다. 주님이 사도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자 모든 희망을 포기해 버렸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분이 죽으신 후까지도 그들의 스승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분을 섬기는 가장 빠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여인들이 묘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애착들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짓 사상으로 가득해져서 더 이상 진리를 찾지 않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까지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그분을 섬기고자 함이다. 이와 같이 섬김을 사랑하려는 영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선포가 먼저 있게 되는 것이다. 경비병들이란 주님을 무덤 속에서 못 나오도록 애쓰는 우리 마음속의 거짓 논쟁들을 표현한다. 거짓 논쟁들은 그리스도가 한낱 역사적 인물일 뿐임을 확신 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들의 논쟁은 부활의 권세 앞에서 흔들리며 죽은 자 같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은 우리 안의 진리에 대한 애착들을 격려하며, 이러한 애착들은 우리의 생각이 부활의 진리를 올바르게 배우도록 권유하며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갈릴래아에서 만나도록 해준다. 자발적 섬김의 갈릴래아란 우리의 일상생활적인 평면이다. 산이란 생각의 높은 상태를 말하며, 그 상태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갖는 비중과 그 관계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의지를 수행해 나가며 그분의 살아있는 영을 생활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능동적인 노력 없이는 우리가 가진 주님에 대한 지식은 죽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사건이 본문에 또 하나 있다. 여인들은 실제 주님을 보았을 때

“가까이 가서 그분의 두 발을 붙잡고” 있었다. 주님의 “발”이란 그분의 행동의 가장 바깥 평면을 말하며, 바로 거기에서 그분의 영이 우리의 행동지침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부활은 약속되어진 “예언자 요나의 기적”이다 (마태복음 16:4). 주님은 3일째에 일어 나셨고, 그 뒤 40일 후 승천하실 때까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걸으시고 대화하시면서 그들이 그분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러나 스스로 고집스럽게 억지로 눈을 감는 이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 질 수밖에 없어 그분을 볼 수 없다. 사도들이 그분을 보았다고 인정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도망했다. 또한 그들은 슬퍼하는 일과 의아함 그리고 의심하는 것조차 그만두었음을 누가복음 24장 13-21절의 대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 시키는 것조차 실패했을 정도이다 (마가복음 16:10-11, 누가복음 24:10-11). 그러나 제자들 스스로 그분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전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주님이 과거에 스스로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을 상기하여 믿음으로 세상에 전진할 태세를 갖추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위해 순교도 불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믿음은 아주 확고하여 타인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줄 수 있었고, 기독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기도 했다. 사실 기독교회의 실존 자체가 부활의 사실에 대한 완벽한 증거이다. 신성화 하신 주님의 영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의 과정을 바뀌게 했고 시민 생활의 새로운 형태를 야기 시켰다. 부활이 사실인가에 대한 논리적 추론은 없다.

우리가 부활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도들처럼 주님은 자신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동여 매주는 도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주님은 부활로 세상에 하나의 큰 표시를 주시어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한 증거물이 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함과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수반한다. 어떤 이들은 이 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부활절 아침 우리 마음에 특별히 가져야 할 또 하나는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측면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 그분이 하느님이

심 그리고 그분의 권능은 언제나 기나긴 삶의 측면에서 승리뿐이며 거짓과 악은 외관(appearance)이 아무리 보기 좋다하더라도 결국 패배뿐임을 입증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함을 삶의 지배적인 원리로 채택하여 꾸준히 행해 간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영적으로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사는 매우 힘든 것으로, 마치 재난과 같이 바깥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께 의해 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발달시키는 수단으로 돌려지게 될 것이다.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죽음, 곧 지상의 삶의 끝이라는 해를 가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불완전한 낡은 육신을 내던지는 것일 뿐 우리는 영계에서 더 충만하고 자유로운 삶을 이어가게 된다.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또 다른 삶으로 가는 입구일 뿐임을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원한 가치에 대한 확실성을 갖도록 해준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다. 즉, 우리의 신체적 눈이 주님을 볼 수 없다하더라도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천국이라는 머나먼 곳에 떨어져 계시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노력과 필요성에도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속의 문 앞에서 기다리시며 우리가 그분께 문 열어 주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분은 지상에 있는 우리의 어느 친구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로부터 들으실 준비를 늘 하고 계셔서 듣는 즉시 기꺼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조언을 받아 들일 때만이 가능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또한 그분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하신다. 우리는 복음이 주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염두 해야 한다.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진리는 우리 자신 속에 든 사상이 아니다. 스웨덴북의 저술에서는 주님의 영이 거짓을 통해서 는 역사되지 않음이 거듭 강조된다. 우리가 주님을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찾고 그분이 말씀 속에서 말하시는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실재하심(presence)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길을 연다면, 개인의 삶이든 교회이든 성공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2405항): 새벽(dawn)에 대한 상응에 관해서: “가장 적절한 의미로서 ‘아침’은 주님, 그분의 탄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왕국에의 접근을 뜻한다. 이 외에 새 교회의 일어남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상에서 주님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 즉 개별적인 측면과 일반적인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 측면으로는 지구상에 어떤 교회가 새로이 일어날 때이고, 개별적인 측면으로는 한 인간이 거듭날 때이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왕국이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 그가 하나의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아주 개별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랑과 믿음에서 오는 선이 사람 속에서 일하고 있는 순간이다. 왜냐하면 그 작은 선함 속에 주님의 탄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셋째 날 아침에 있는 주님의 부활은 각 개인의 일상생활, 더 세분하면 매 순간마다의 거듭나는 마음 안에서 다시 그분이 일어나신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측면과 개별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10591-10595항): “인간이 창조된 이후 각 인간은 내적 측면에서는 죽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분과 결합되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내적(Internal)인 것은 태어나는 모든 이들 안에 있다. 외적(External)인 것은 믿음과 사랑에 속하는 것들을 결과 안에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있는 것이다. 이 수단으로 해서 믿음과 사랑을 내적인 것의 소유물이 되게 해준다. 내적인 것은 소위 ‘혼(soul)’이라 불리며, 외적인 것은 ‘몸(body)’이라고 불린다. 인간이 세상에서 지니고 다니는 외적인 것은 세상에서의 유용(uses)을 위해 편의를 제공(accommodate)한다. 외적인 것은 인간이 죽을 때 한쪽 옆에 놓이게 되지만, 유용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 온 외적인 것은 저 세상에서도 죽지 않는다. 내적인 것과 후자의 외적인 것을 합쳐서 ‘영(spirit)’이라고 부른다. 인간이 세상에서 선했다면 선한 영(good spirit) 또는 천사가 된다. 반면, 인간이 악했다면 악한 영(evil spirit)이 된다. 인간의 영은 저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 보여진 인간 형체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 그것은 이세상에서와 같이 생각하고, 뜻하며 행동한다. 한마디로 지상의 삶에서 그를 담고 있던 육체 그 자체를 제외한 모든 것은 하나의 영적 인간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의 육체는 그가 죽을 때 뒤에 남겨지고 되고, 그는 결코 그것을 되찾지 못한다. 이렇게 인간의 삶은 연속된다는 것이 부활에 의해 의미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언급된 날은 어떤 날인가?
- 2) 우리는 왜 부활주일을 지키는가?
- 3) 사람들은 왜 주님을 왕으로 환영한지 며칠도 채 안 되어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는가?
- 4) 주님은 왜 목요일 저녁에 다시 성으로 들어 가셨는가?
- 5) 주님은 어떤 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 6) 우리는 성주간 중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요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7)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후 그분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는가?
- 8) 누가 부활주일 아침 무덤에 먼저 왔는가?
- 9)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10)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1) 천사는 주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만날 거라고 말해 주었는가?
- 12) 여인들은 달려갔을 때 누구를 만났는가?
- 13)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이 불신임되도록 어떤 음모를 꾸몄는가?
- 14)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15)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래아에서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해 하신 첫 말씀은 무엇인가?
- 16)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17)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격려는 무엇인가?
- 18) 주님은 왜 갈릴래아에 있는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셨는가?
- 19) 여인들은 왜 부활에 대해 제일 먼저 배웠는가?

질문의 답

1) 부활주일 2)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3) 그들이 시기심 많은 종교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4) 과일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5) 금요일 6) Good Friday 7) 새 무덤에 놓여졌다 8) 여인들 9) 열려진 무덤 10) 그분은 다시 사셨다 11) 갈릴래아 12) 예수 13) 경비병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퍼트리게 했다 14) 죽은 후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 15)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6)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17)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18) 갈릴래아 = 일상생활 (outer, everyday life) 산 = 생각의 높은 상태 19) 진리에 대한 우리의 애착은 외적 증거들이 의심을 조장하더라도 존속되기 때문이다.

38

요한의 환상

머리말

요한계시록과 복음서의 연결을 언급한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 후 대략 40여 년이 지난 AD.70년 경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마지막으로 「디도(Titus)」하의 로마 군인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기독교인들은 산산이 흩어져 소아시아와 그 넘어 까지 흩어졌다. 그래서 초대 교회들이 소아시아에서 발달되었다. 초심자들은 사도 요한과 세례자 요한을 혼동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시록은 그리스어로 묵시록 (Apocalyse)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베일이 벗겨짐(unveiling) 혹은 밝혀짐 (revelation)을 의미한다.

성서: 요한 계시록 1장

1장: 1.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느님께서 곧 일어날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당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 주셨습니다. 2.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 곧 내가 본 모든 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일들이 성취될 시각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4.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옥좌 앞에 있는 일곱 영신께서, 5.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6. 우리로 하여금 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당신의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영광과 권세를 영원무궁토록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7. 그분은 구름을 사용하여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모든 민족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8.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9. 여러분의 형제이며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을 같이 겪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이 견디어 온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언한 탓으로 파트모스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10.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울려 오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11. 그 음성은 나에게 “네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에페소, 스미르나, 베르가모, 티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이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어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2. 그래서 나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돌아 섰습니다. 돌아 서서 보았더니 황금등경이 일곱 개 있었고 13. 그 일곱 등경 한가운데에 사람같이 생긴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14.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 희었으며 눈은 불꽃같았고 15. 발은 풀무불에 단 놋쇠 같았으며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16. 오른손에는 일곱별을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고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17. 나는 그분을 뵈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18. 살아 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지만 이렇게 살아 있고 영원무궁토록 살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다. 19. 그러므로 너는 네가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20. 네가 보는 내 오른손의 일곱별과 일곱 황금등경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등경은 곧 일곱 교회이다.

교리 요점

- * 부활하시고 신성화 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 * 본문 1장에 있는 환상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 주님에 대한 완전한 그림이다.
- * 계시록은 새 교회의 “헌장(charter)”이기도 하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요한계시록은 기독교회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책이 되어왔다. 사실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비웃는 사람들까지도 이 책의 힘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책은 누군가가 가공했다거나 가공할 수 있는 것처럼 읽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예언으로서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역사적인 세상의 큰 사건과 이 책의 놀랄만한 예언들과 대비시켜 연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 책의 첫 절에서 요한은 “곧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고 하고, 제 19절에서는 “네가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라고 말한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다. 그는 영적 눈이 열려 기독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심정과 지성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은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빛이 비취는 자리에 나타났다. 그는 상징적인 심판의 과정에 대한 경이로운 광경을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본 것이다. 그는 맨 처음 주님을 보았다. 그분은 그가 세상에서 따라다녔던 스승이요, 오래 전 변모하셨던 분이셨다. 그러나 그 영광은 너무나도 위대해서 요한은 그분 발아래 죽은 자 같이 쓰러져 있었다. 바로 그 때 주님은 그에게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명백히 말씀하셨다. 부활하시어 신성화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다. 그 외 다른 하느님은 결코 없다.

많은 화가들은 그리스도를 그렸다. 하지만 그 그림들은 그분이 이렇게 생기셨지 않았을까하는 그들의 착상에 불과하다. 그 그림들은 그분이 지상에 계셨을 때 혹은 그 뒤 그분을 보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려진 그림이라 하더라도 닮은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주님이 수세기 전 팔레스타인 거리를 거닐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그들이 머물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섭리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 계신 주님, 즉 현존하시는 주님에 관해 생각해야 한다. 마태복음서에서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시대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하신 마지막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납득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다. 간혹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갖는다. 주님은 이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주고 계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림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떠올려야 할 주님, 곧 우리 사이를 걸으시며 복음서에 있는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신성화 하셔서 오른손에는 일곱별을 쥐고 입에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오고 대낮의 태양처럼 빛나는 주님이심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sword)은 악과 거짓된 것은 파괴하고 순수하며 선한 모든 것을 보호하고 방어해주는 그분의 진리이다.

제 1반

먼저 사도 요한에 관해 알아야 한다. 주님은 요한을 가장 사랑하셨다. 요한이 아주 늙었을 때 그는 교회로부터 외로운 섬에 유배되었는데, 그를 사랑했던 주 예수가 어느 일요일 아름다운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두 요한에 대해 구별하고, 계시록과 복음서의 시대적 연결도 알아본다. 그리고 변모하신 주님과 요한의 환상 속의 주님을 연결 지어본다. 특히 환상 속의 모든 것은 빛나는 형체였음을 주목하자. 빛이란 우리 삶의 길을 보여주는 주님의 진리에 대한 그림이다. 마지막으로 본문 12-16절을 읽고, 그 모습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주님이심을 명심하길 바란다.

앞서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가장 가까운 세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 가셔서 그들에게 굉장한 환상을 보게 해 주신 이야기를 공부했다. 그 세 제자 중의 한 명이 요한인데, 그는 세례자 요한이 아니다. 주님은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다. 요한은 열 두 사도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아주 오랫동안 생존했다. 그는 주님께 아주 신실해서 그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녔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었고 세례를 받아 일곱 개의 교회가 시작되어졌다. 요한은 고령이 되었을 때 거룩한 땅의 북쪽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감독하게 되었다. 그가 당시 쓴 것이 성서의 마지막 책이다. 그 책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며, 감추어진 것을 밝히신

다는 뜻이다. 그것은 종종 묵시록(Apocalypse)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그리스어로 그 의미는 같다.

질문 및 요점정리

- * 변모하신 광경에서 주님은 세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였는가?
- * 어떤 세 제자들이 변모하신 주님을 보았는가?
- * 세월이 많이 흐른 뒤 요한이 환상을 보았다.
- * 본문의 시대에 통치자들은 과거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 같이 기독교인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애썼다.
- * 요한은 아주 늙었고 적들에 의해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 되었다.
- * 요한은 어느 날에 계시록에 기록된 환상을 보게 되었는가?
- *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다. 이는 그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렸음을 뜻한다.
- * 그는 처음에 무엇을 들었는가?
- * 그 다음 그는 누구를 보는가?
- * 그가 주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말할 수 있는가?
- * 요한은 주님 주위에 있는 무엇을 보았는가?
- * 그분은 그분 자신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분은 요한에게 별들과 촛대들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 그분은 요한에게 누구를 위해 메시지를 주셨는가?
- * 그분은 요한에게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쓰라고 말씀하셨다.

제 2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주님이 사도들을 떠난 뒤 그들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 기독교회의 반석이 되었던 것, 초기 기독교도들이 받았던 박해 그리고 환상이 요한에게 많은 격려가 되었음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빛의 상응을 상기해 보고, 본문의 환상에 대한 세부사항 역시 아름다운 상응이므로 더욱 깊이 공부해야 함을 언급한다. 특별히 이 환상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것으로 주님을 생각해야 함을 명심하자.

어떤 세 제자가 변모하신 주님을 보았는가? 요한은 주님의 변모가 있는 뒤 오랜 후에 그분에 대한 경이로운 환상을 가졌다. 그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 거의 60여 년이 지난 때이다. 요한은 그때까지 생존한 유일한 사도였고 아주 늙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소아시아 혹은 더 먼데까지 흩어졌다. 초대 기독교회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조직되어 있었다. 요한은 에페소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였다. 그 교회는 아마 그곳에서 타교회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요한은 소아시아의 서쪽 24마일쯤 되는 에게해에 있는 작은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되었다. 어떤 성서 사전은 “이 섬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남쪽 언덕 위는 크라운 형식이 되어 전망이 좋은데 이곳에 ‘John the Divine’이라는 이름을 날게 한 수도원이 건립되어져 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성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전통(tradition)은 말한다.”라고 설명한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다. 즉, 그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영계 안의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도록 준비 되었다. 그는 그 음성이 그의 뒤로부터 울리는 듯해 그것을 보도록 준비 되었고 그 음성을 향해 돌아섰다. 이는 그분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기 전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여 먼저 돌아서야 됨을 말해준다. 알파와 오메가란 그리스어의 첫 번째와 마지막 알파벳에 해당된다. 여러분은 교회의 성단에 있는 가구들에서 이 글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Α, Ω"라고 쓴다.

환상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로서 알았던 사람이 하느님 자신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스웨덴북은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인식 못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나, 이 지식을 죽기 전 배우지 못했던 선한 이들은 저 세계에서 훈육되어질 수는 있다”라고 말한다. 물론 이 지식을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 이유는 하느님에 관한 진짜 진리로 우리의 삶을 기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진정한 교회는 세상에 빛을 주는 진리를 받드는 등경(등잔대, lampstand)과 같다. 천사란 “전달자(messenger)”라는 뜻이다.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위해 요한에게 메시지가 주어졌다. 그는 사실 이미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혹은

복음, 즉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알려준 전달자가 되어 있었다. 우리 역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려 노력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전달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전달자가 된다면, 우리는 저 세상으로 옮겨질 때 틀림없이 천사가 될 것이다.

질문정리

- * 일주일 중 어느 요일에 요한에게 환상이 주어졌는가?
- * 그 음성이 요한에게 말한 첫 번째는 무엇인가?
- * 환상과 더불어 요한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해졌는가?
- * 그는 주님 주위에 있는 무엇을 보았는가?
- * 주님은 어떻게 옷을 입고 계셨는가?
- * 그분의 음성은 무엇 같았는가?
- * 그분의 오른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는가?
- * 일곱 등경은 무엇을 그리는가?
- * 일곱 별은 무엇을 그리는가?

제 3반

환상의 상응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다루고, 특별히 빛에 대한 상응을 강조한다. 본문 13-16절을 읽고, 주님이 그분을 그린 그대로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 비록 요한이 주님을 과거 세상에서 그의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분임을 인식했다 할지라도 지금의 요한은 그분을 신성화 하신 존재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로 천국을 통치하시는 하느님으로 뵈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하자.

사도 요한은 “사랑 받은 제자”로 불렸다. 주님은 그에게 요한복음서를 쓰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요한 1,2,3서와 계시록까지 쓰도록 하셨다. 그는 여느 제자보다 더 오래 살기도 했다. 주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 제자들은 그분이 하늘(heaven)로 승천하심을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4장 50-53절에서 말해진다. 사도들은 승천 후 밖으로 나가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세상 각처에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의 전파는 A.D. 70년경 로마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 가세되었다. 그리하여 소아시아는 그들 활동의 본거지가 되었다. 기독교인의 그룹들은 그곳에

서 교회로 형성되어 갔다. 요한은 에페소 교회의 지도자로 추측된다. 그는 고령이 되었을 당시 주님의 제자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으므로, 그가 모든 기독교회의 총 지도자격이었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기독교인을 박해함으로 인해 에게해에 있는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상을 가졌다. 이 책은 그리스어로 묵시록(Apocalypse)이라고도 불리며 같은 의미를 지닌다.

구약성서는 율법과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신약성서도 법을 구성하는 복음서와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의 신약성서의 책들은 구약성서 속의 거룩한 저술(Sacred Writing)로 말하는 책들처럼 말씀(Word)의 일부가 아니다. (그 책들은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책들도 역사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흥미가 있으므로 계속 읽혀야 한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다. 그의 영적 시야는 “이미 본 것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도록 열려져 있었다. 환상은 그의 눈 앞에서 공연되는 권위 있는 상징적 활동사건과 같았다. 스웨덴봄은 “영계의 본체들은 물질계의 본체처럼 비활성적이지 않아서 영적 힘에 즉각 응답한다. 그래서 거기서의 모든 것은 천사, 영들 또는 악마들의 생각과 애착에 상응되는 바깥쪽 형체를 즉각 입힌다.”라고 설명한다.

요한의 환상은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그분이 과거 세상에서 섬겼던 그의 스승임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분 주위에 수반된 모든 것이 신격(deity)적이어서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다. 그리고 요한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들은 그분이 창조자 하느님이시며 요한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느끼게 해준다. 우리는 새 교회에서 이를 주님에 대한 우리의 환상으로 받고 있다. 우리는 두렵고 위세를 떨치는 하느님인 예수를 찾지 않는다.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우리에게 하신다.

요한의 환상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나 그분에 관해 생각할 때 마음속에 두어야 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빛남이다. 황금등경, 별, 불꽃같은 눈, 풀무불에 단 낫쇠 같은 발 그리고 얼굴은 “힘있게 비취는 태양처럼”...등등에서 눈에 띄는 것은 빛남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인간 형체로서의 인상을 가져보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 형체는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찬찬히 볼 수 없고 세부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 하다. 상응으로 볼 때 이 전체는 신성한 진리들이다. 금띠는 우리 모두를 묶어주는 신성한 사랑을, 황금등경은 우리 세대의 사람들을 교회로 만들어 주는 신성한 진리에 대한 사랑을 그려주는 것 외에는 모두 진리와 상응되고 있다. 좌우에 날이 선 검이란 악을 파괴하며 선을 보호하는 신성한 진리를 말한다.

연속되는 계시록의 환상들은 우선적으로 세상에 있는 교회, 인간의 심정과 지성 속의 상태들, 교회 혹은 마음을 에워싼 조건들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 이것들이 파괴될 것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시록은 “새 교회의 현장”이라고 불러 왔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관해 말씀 안에서 말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 책에서 그려진 악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과 싸우며 진정한 교회가 우리 각자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본 상응 공부

황금등경 = 신성한 진리에 대한 사랑
금띠 = 신성한 사랑

제 4반

새 교회를 위한 계시록의 중요성과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위해 그분이 환상을 주셨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환상의 세부사항들을 살펴보고 그 개념을 명확히 기억하자.

요한계시록은 “새 교회의 현장”이라고 불리며, 신약성서의 예언적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느님계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상징화된 주님의 진정한 교회의 건설과 이에 앞서 마지막 심판이 성취되는 그분의 진리의 마지막 처방에 대한 세부사항도 다룬다.

요한계시록은 초대 기독교 시대에 주어졌던 빛 안에서는 이해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상하고 불일치된 그 책의 해석이 세상에 떠돌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주님의 재림으로 말씀이 열려야 그것을 총명하게 해석할 수 있다. 즉, 그 책은 상응에 관한 교리의 빛으로만 온전히 공부될 수 있다. 그 책은 주님에 대한 요한의 환상으로 시작된다. 본문에 주어진 그림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붙잡고 있어야 할 주님의 진정한 모습에 가장 가깝다. 요한이 주님을 본 바와 같이 그분은 인간 형체 안에 계신 복음서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눈부신 광채로 휩싸여 있어서 사람들이 그분을 단지 역사적 이름 혹은 우리와 같은 유한한 인간으로 간주하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는 그분을 알파와 오메가요, 스스로 계신(the I AM) 하느님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교회의 반석은 주님에 대한 교리이다. 주님에 대한 교리를 제외한 교회의 다른 교리들은 이 교리로부터 뻗어 나오는 가지와 같으며 교인들의 삶의 질 또한 이 교리에 달려 있다. 성경공부에서 주님이라고 불리는 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주님 외에는 모든 천국을 통하여 천국의 하느님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구약성서에는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이 없음이 자주 강조된다. 따라서 강림에 대한 예언은 다름 아닌 창조주 여호와께서 친히 세상에 오실 것임을 의미한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선포하심으로서 또 다시 명확히 하신다. 주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 시험을 만나 극복하시고 평범한 인간과 같은 사람임을 그분 스스로 느끼시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자신 속에 거하는 영혼으로서의 신성보다는 그의 아버지로서의 신성을 찾으셨다. 그 이유는 그분이 스스로 하느님이라고 느끼면 시험 자체도 느낄 수 없게 되어 인간이 겪어야 할 시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극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시험도 신성을 건드리기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위일체(trinity) 즉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위의 사실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말이 수많은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한 요인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한 분의 하느님이 세 가지 용어로 분리된 것은 가상(apparent)적이며 일시적이거나 한 분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일 뿐 똑같은 한 분임을 알 수 있다. 새 교회인이라면 삼위일체가 지니는 문제점을 깊이 생각하고 확실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웨덴북이 강조하는 새교회 신앙의 기초가 바로 삼위일체가 아닌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한 분 하느님과 십계명에 따르는 신앙 생활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입고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그분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요 하느님이시며 우리의 친구요 동반자이심을 스스로 보여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여호와(Jehovah)이시다. 이것은 마치 왕이 자기의 뜻을 하달했으나 신하가 백성에게 그것을 잘못 전달함에 따라 그들이 그릇 판단하게 됨을 발견하여 왕이 몸소 노동자의 옷을 걸쳐 입고 그의 신하들이 모르게 다니면서 그들이 왕의 뜻을 알고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내용은 주님이 육을 입으심에 대한 목적이나 섭리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지극히 단순한 부분이라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때만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다.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셨다고 하는 복음서의 기록은 우리에게 그분이 이 세상에서의 일을 위해 입으셨던 유한한 옷을 벗고 그분 고유의 영원한 영광으로의 귀환을 의미함을 확증시켜 준다. 요한은 환상 속에서 바로 그분이 천국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과거 지상에서 그가 따라 다니고 모셨었던 친구요 스승이셨음을 인식했다.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이 환상의 세부사항에 대한 상응은 신성한 사랑과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여준다. 이것을 깊이 공부하게 되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을 통째로 우리 마음에 그리고 있어야 함이다. 우리는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쓰러져야 한다. 그 후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많은 물소리”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교회 속에 있는 것과 오른 손에 있는 별들 중 하나로부터 이끌어 내진 빛이 높이 세운 황금 등경인 교회 속에 있음을 실감해야 한다. 그리고 일곱 교회들에 대한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제 5장에서 보여지는 봉인된 책은 우리에게 주어진 참 말씀(the Very Word)이요, 계시록에서 그 봉인들이 떼어짐에 따른 심판은 우리가 말씀 속의 내적 진리들을 거절하거나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진행된다.

이 환상은 수세기 전 한 사람이 보았다는 정도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이 환상은 영원히 실재하며 현존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 영혼의 눈에 의해 보여져서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스스로를 검토하고 우리가 천사들 편에 설 수 있도록 해 준다.

주님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므로, 우리는 돌아서서 그분에게 경청해야 할 것이다.

제 5반

계시록의 첫 시작이므로 목차를 다루는 형식으로 전체적 윤곽을 살펴본다. 이는 세부사항을 읽게 될 때는 그 윤곽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상의 도입 부분을 새 교회의 첫 교리와 연관하여 토의해 본다.

사도 요한은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오래 살도록 허용되었다. 경이로운 환상이 그를 통하여 세상에 주어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이다. 이 환상은 파트모스 섬에서 주어졌는데,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시안(Domitian) 통치하인 A.D. 95년경 기독교 박해 중에 그곳으로 유배되었고 그의 나이는 당시 약 90세 정도였다. 이 환상이 영계 안에서 보여 졌다는 것은 본문 10절의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라는 기록으로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는 교회들의 상태와 장차 있을 것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해준다. 더욱 자세히 설명하자면, 태초 교회로부터 있어온 교회의 상태이기보다는 오히려 마지막 심판 바로 전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들의 상태를 다룬다는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전 역사를 망라하여 환상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응용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스웨덴봄에 의해 밝혀진 상응의 법칙만이 모순되지 않으며 일관된 해석을 가능케 한다. 경건하게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환상의 힘을 경험하기도 하고, 젊은이들 역시 그 말씀을 경청하기 좋아한다. 하지만 재림이 있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환상을 총명히 사용하지 못했다. 새교회인은 “믿음의 오묘함 안에 지적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본문의 환상을 과거 구약성서 속의 환상들과 마찬가지로 한편의 드라마 혹은 천사와 사람들을 위해 영계 안에서 공영된 방대한 살아있는 그림들로 생각할지 모른다. 각 예언자는 이런 드라마의 본질적 용모를 기록하고 지상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지상의 언어라는 최말단의 형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되도록 선택된 증인이다. 따라서 환상들의 글자적 세부사항은 아주 힘이 있어 놀랄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려고 시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환상들의 궁극의 값어치는 그 안의 상징적 의미에 있다. 주님은 요한 이후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시작 초부터 이미 존재하는 영적 힘에 대항하는 악과 진리와 거짓 그리고 천사와 악마들의 전투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선과 악, 즉 천사와 악마의 전투의 결과가 명백해질 때까지 악을 허용하시는데, 그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와 같은 맥락으로 수확의 때까지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선과 진리의 최후의 승리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환상이 열려진 후 즉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를 접한다. 요한이 교회들에서 인정된 지도자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교회들의 이름 하에 주님의 진리를 받거나 그것을 거절하는 모든 형태들이 기술되는데,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인 모든 형태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그것을 거절하는 모든 형태에 대한 특별한 위협들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 보좌, 봉인된 책, 어린 양 그리고 말씀을 통한 세상에서의 영적인 과정 즉 말씀에 문을 닫고 있던 마음이 점진적 열리는 영적인 과정이 주님의 섭리로 어떻게 지휘되는지 보여준다. 이 후 말씀의 열림으로 인간의 지성과 심정을 구석구석 뒤져 더 깊은 악들을 어떻게 들춰내는가를 보여 준다. 그리고 용과 짐승으로 표현된 악과 거짓의 권세가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기 위해 주님과 천사들에 맞서고 있는 것, 악과 거짓의 권세가 의기양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신 것, 선한 이들이 시험에 맞서 싸워 극복하여 주님의 권능 안에서 보존된 것 그리고 투쟁의 중간에서 태어난 새 교회가 보존되어 주님의 왕국이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우세해질 것을 보여준다.

요한계시록은 “새 교회의 헌장”이라고 불려 왔다. 그 이유는 새 교회의 설립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 교회의 도래는 말씀의 전 과정에 대한 우리 공부의 마지막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책을 전 말씀의 왕관이요 인간 역사의 최고점이며, 개인적 혹은 인류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영적 발달이 대단원의 드라마에 있게 되는 마지막 행동으로 인식해야 한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스웨덴뵐(Swedenborg)을 통해 허락하신 이 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접한다면 더욱 더 많은 영감과 광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의 저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또는 「계시

록 풀이, Apocalypse Revealed」를 참고해 보자.

본문 제 1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놀라운 그림을 보여준다. 요한은 그분을 “인자, Son of man”로서, 즉 세상에서 알았던 스승이심을 인식한다. 주님은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명백히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여 이 책은 천상천하의 영원한 하느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증거와 더불어 시작된다.

요한이 주님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 전 이미 많은 이들, 출애굽기 24장 9-10절의 모세와 칠십 장로들도 주님을 뵈었다. 모든 환상의 공통된 특색은 빛남 혹은 불의 나타남이고 주님의 인간 형체에 대한 특별한 언급도 있다. (에제키엘서 1:26-28 참조). 불과 빛남이란 신성한 사랑과 지혜에 대한 상징이다. 우리가 주님을 신성한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그분은 이 사항들을 늘 명확히 하셨다. 그분만이 실제로 사람인 바, 참 사람(Very Man, ipse homo)이시다. 그분의 신성한 인간이 궁극의 형태를 가졌을 때, 즉 강림 이후에야 그분에 대한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더욱 특별하게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주님에 관한 그림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시대의 화가들이 흠모해 보려한 상상적이며 유한한 표현에 불과한 그들의 그림 대신 본문의 그림을 곰곰이 생각하며 공부해야 한다. 요한의 환상은 “주님이 어떻게 생긴 분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이다. 만일 우리가 뚜렷하지 않은 주님의 초상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진짜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초상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인 그림처럼 머문다면, 그것은 화가가 그린 초상화처럼 인식 되어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초상의 세부사항 중에는 우리 상상 밖에 있는 부분도 있고 화폭에 그려 넣기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사실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유한한 인성을 넘어 신성한 인성으로 신성화 하신 주님을 상상케 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이를 공부하되, 이미 친숙해진 상응들을 상기하며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상기해 보자. 웃은 진리를, 금은 사랑을, 머리는 지휘하는 총명을, 머리카락은 진리가 말단 까지 뻗쳐 나가는 응용력을, 희다함은 순수함을, 눈은 이해성을, 발은 가장 바깥쪽 지침을, 못이나 구리는 자연적 선을,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말단에 있는 신성 혹은 우리에게 와 닿는 신성한 진리를, 별은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들을, 좌우에 날이 선 검은 악과 거짓을 공격하며 선함을 보호하는 신성한 진리들, 안색(얼굴)은 인격 속에 든 내용물을, 해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를 그리고 등경(촛대)은 지상의 교회 혹은 신성한 진리를 받아서 인류에게 전달하는 그들의 직무를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짧은 구절에 대한 해석을 위해 여러 페이지를 할애했다. 사실 이 환상 자체는 잠깐 동안에 읽혀질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기억에 담을 수 있는 구절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절들을 기억에 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주님에 대한 진정한 개념이 간직되어 주님에 대한 우리 생각을 그분이 직접 계발시켜 주시며 지휘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바,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매일의 생활을 꾸려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1장에 대한 소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이라 불리는 예언의 책을 상술해 왔지만, 어느 누구도 말씀의 내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 책 안의 개별적인 것들을 이어져 오는 교회,의 상태들에 적용하면서 역사적 사항들을 시민적 사건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적용해서 배웠다. 따라서 그들의 해설은 대부분 추측에 의한 것이어서 진리로서 단언할만한 빛 안에서 결코 나타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들의 해설을 참조해서 계시록을 읽을 경우 계시록이라는 성서는 한 개인의 사색에 의한 의견의 수준에 머물러 결국 한쪽으로 밀쳐지고 만다. 세상에 존재한 계시록에 대한 해설들이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것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저자들이 말씀의 내적 또는 영적 의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계시록 밝힘 (제 1장에 대한 서문적인 목차만 발췌했음)」: “제 12절에서 ‘그래서 나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라고 함은 생활의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지각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주님에게 돌아설 때 있어지는 상태로의 전환(inversion)을 의미한다. ‘돌아서서 보았더니 황금

등경이 일곱 개 있었고'라는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이 계발하시게 될 새 교회를 의미한다. 제 13절에서 '그 일곱 등경 한 가운데에 사람같이 생긴 분이 서 계셨습니다.'라고 함은 말씀의 측면에서 주님과 그분으로부터 교회가 있어짐을 의미한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라는 것은 신성이 진행됨, 즉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라는 것은 처음 것들과 최말단 것들 안에 있는 신성한 지혜로부터의 신성한 사랑을 의미한다. '눈은 불꽃같았으며'라는 것은 신성한 선의 자연성을 의미한다.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다'라고 함은 신성한 진리의 자연성을 의미한다. 제 16절의 '오른 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계셨으며'라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말씀 안에 있게 된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을 의미한다.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고'란 말씀과 말씀에 근거한 교리를 통하여 주님이 거짓을 쫓아 버리심을 의미한다.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빛났다'라고 함은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지혜를 의미하며, 이는 그분 자신으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복음서에는 어떤 두 요한이 있는가?
- 2) 어느 요한을 통하여 복음서가 기록되었는가?
- 3) 주님이 죽으신 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는가?
- 4) 초대 기독교회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 5) 복음서 외에 어느 책이 요한에 의해 쓰였는가?
- 6) 요한에게 계시가 주어질 당시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 7) 요한은 처음에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 8) 그는 돌아섰을 때 맨 처음 무엇을 보았는가?
- 9) 일곱 황금등경 한 가운데에는 누가 서 있었는가?
- 10)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 11) 그분은 오른 손에 무엇을 쥐고 계셨는가?
- 12)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그분은 일곱 등경과 일곱 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그분은 요한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 15) 이 환상에는 왜 여러 차례 빛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 16) 금띠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이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질문의 답

- 1) 세례자 요한, 사도 요한 2) 사도 요한 3) 모두 파괴 되어졌다
- 4) 소아시아 5) 요한 1,2,3서; 계시록 6) 파트모스섬 7)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 8) 일곱 황금등경 9) 부활하신 주님 10)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 11) 일곱 별 12)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13) 교회들과 천사들
- 14) 환상을 받아써라 15) 신성한 진리가 권능이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임
- 16) 모든 것을 묶어주는 신성한 사랑 17)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그려 보아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39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머리말

본문에서는 어린이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제시되는 공통점이 언급된다. 각 메시지에 있는 공통점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

- (1) 주님에 대한 환상 중 일부가 거론된다.
- (2) 선을 행하도록 교회에 명령한다.
- (3) 각 교회의 특별한 악들을 견책하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악들을 보여준다.
- (4) 각 교회가 그들의 악을 멀리할 때 따르는 보상을 제시한다.
- (5) “들을 귀 있는 자는...”라고 끝맺으며 각 교회가 순종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성서: 요한계시록 2, 3장

2장: 1. 에페소 교회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황금등경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2.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 낸 일도 잘 알고 있다. 3.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어 냈으며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 4.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5.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빛나갔는지를 생각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만일 그렇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경을 그 자리에서

치워 버리겠다. 6. 그러나 네가 잘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니콜라오파의 소행을 미워하고 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나는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8. 또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었지만 살아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9. ‘나는 네가 겪은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하다. 네가 유대인으로 자칭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10. 네가 장차 당할 고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 주겠다. 11.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승리하는 자는 결코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12. 베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13.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 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건히 믿고 있다. 또 나의 진실한 증인 안디바스가 사탄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14.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중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죄짓게 하였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으며 음란한 짓을 하게 하였던 자다. 15. 또 너희 중에도 니콜라오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16. 그러므로 뉘우쳐라. 만일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1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어 둔 만나를 주겠고 또 흰돌도 주겠다. 그 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18. 티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불꽃 같은 눈과 놋쇠 같은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느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19. ‘나는 네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고 네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20.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

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자처하며 내 종들을 잘못 가르쳐서 미혹하게 했고 음란한 짓을 하게 했으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다. 21. 나는 그 여자에게 뉘우칠 시간을 주었지만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뉘우치려고 하지 않는다.

22. 이제 나는 그 여자를 고통의 침상에 던지겠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도 뉘우치지 않고 그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버리겠다.

23. 그리고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여 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24. 그러나 티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의 가르침을 받아 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비밀을 배우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으니 25.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단히 간직하고 있어라. 26. 승리하는 자, 곧 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에게는,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27. 그는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28.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셋별을 주겠다. 29.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3장: 1.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하느님의 일곱 영신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네가 살아 있다는 말이 있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 2. 그러므로 깨어 나거라. 너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나는 네가 하는 일이 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3.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네 잘못을 뉘우쳐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나타날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 5. 승리하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워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6.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7.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네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너는 내 말을 잘 지켰으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9.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떠들어 대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나와서 네 발 앞에 엎드려 너를 경배하게 하겠으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10.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 세계에 환난이 닥쳐 올 때에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11. 내가 곧 갈 터이니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에게도 네 월계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라. 12. 나는 승리하는 자를 내 하느님의 성전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가 다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내 하느님의 이름과 내 하느님의 도성의 이름, 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로운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새기겠다. 13.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14. 라오디게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아멘이시며 진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느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15.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16. 그러나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17.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18.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고한다. 너는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 19.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네 잘못을 뉘우쳐라. 20.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21. 승리하는 자는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옥좌에 앉은 것같이 나와 함께 내 옥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22.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교리 요점

- * “선행과 믿음 안에” 있는 정도만큼 삶 속의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다.
- * 주님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교회는 그 자체로는 하나뿐이나 인간이 그것을 받는 양상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있게 된다.
- * 주님은 언제나 문을 두드리며 서계신다. 문을 열고 단음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앞서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일곱 황금등경은 일곱 교회이며 그분의 오른 손에 쥐고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라고 말씀하셨음을 배웠다. 천사란 단어는 전달자라는 뜻이다. 주님은 각 교회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요한에게 주신다.

언급된 일곱 교회는 실제 교회였다. 그 교회들은 초기 기독교로서 소아시아에 설립되었다. 교회들은 A.D. 70년경 로마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남아있는 사도들과 추종자들이 흩어진 뒤 특별하게 발달되었다. 주님이 요한을 통해 그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교회속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과 같이 견해를 달리하여 자칫 뿌루통한 것, 세상적인 가치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 또는 영적인 것들에 게으른 것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우리는 네 복음서에서 열두 사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몸조심에 급급했음을 보았다. 부활이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주어 그들 중 일부가 순교 당하는 고난을 감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갑자기 완전해지거나 반듯해진 것은 아니다. 기독교회는 시초부터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주님에게서 보다는 인간에게서 찾았고 복음서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람들의 편지(서간문)에 의존했으며, 주님의 부활 후 약 삼백여 년이 지난 때에는 니카야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결정에 교회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4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참고해야 한다.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것 이상을 주고 있다. 일곱 교회란 사람들의 일곱 형태를 보여준다. 우리들은 자신만의 특징, 능력, 약함 그리고 과오를 지니고 있다. 주님은 이러한 모든 면을 보시고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서 성장하는 선을 단단히 지속시켜라. 그러나 네 속의 악을 인식하며 회개하여 그 길을 바꾸어 천국에 준비된 네 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신다. 우리에게 도달 가능한 특별한 천국적 인격이 있음과 같이, 각 교회들에게도 신실함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약속이 주어진다. 우리는 라오디게이아 교회의 경우 그들의 “미적지근함” 때문에 가장 신랄한 질책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결점을 극복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아주 클 것임을 약속하신 것을 주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결점이 극복되는 것이 아주 힘들었기 때문이다. 영적인 “미적지근함”은 대부분의 우리가 지니는 죄가 아닐까? 우리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핑계를 찾으려하기 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할까를 궁리해야 한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영혼의 문 앞에서 계시며, 우리는 종종 그분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일과로 인해 문을 열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곤 한다. 예를 들어, 오늘은 너무 바쁘다보니 피곤해서 성경을 못 읽고 어제는 기분 나쁜 일 때문에 만사가 귀찮아 성경을 읽기는커녕 생각도 못했다는 변명들 혹은 이번 주일은 10년 만에 친구를 만나니 교회에 못 가고 지난 주일은 가게 수리 때문에 못 갔다는 등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핑계들은 얼마든지 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기 고집대로 길을 간다면 결국에는 불행을 만날 것이며 그분의 길을 선택한다면 영원한 기쁨(joy)으로 인도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다. 주님은 본문의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신다.

제 1반

주님에 대한 요한의 환상을 상기하고, 특별히 별과 등경을 재고한다. 일곱 교회가 실제 존재했음과 주님이 각 교회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음을 언급한다. 요한계시록 2장 1,8,12,18절과 3장 1,7,14절을 읽고 1장에서 요한의 환상과 연관 지어본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은 사도 요한이 고령이 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경이로운 환상에 대한 것이다. 일곱 교회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설립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요한이었다. 본문은 주님이 일곱 교회에 대해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며, 각 교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각기 다르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심정 속에 있는 모든 선함과 악함을 보고 계시며,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인도되도록 그분의 최선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 우리는 모두 각자 속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갖고 있다. 우리 속의 나쁜 것이 드러난 후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려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각각의 교회에게 그들의 좋은 특질과 더불어 나쁜 것을 들춰내셔서 진실로 천국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됨을 말씀하셨다.

3장 20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보려고 먼저 선택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쉽고 편리하다고 느껴서 선택한 것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길이고 올바른 것 즉 주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매우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인 것이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까이에서 계시서 우리가 그분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 곧바로 들어오시도록 준비하고 계신다.

질문 및 요점정리

- * 당시 요한은 어디에 있었는가?
- * 그가 본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 * 주님은 그분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하셨는가?
- * 주님은 몇 교회에 대해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셨는가?
- * 주님은 각 메시지의 끝에 그들의 신실함에 대해 특별하고 아름다운 약속을 주신다.
- * 일곱 교회와 같이, 우리 각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지고 있다.

- * 주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갖고 계신다. 우리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한다.
- * 본문에는 어떤 문 두 개가 언급되는가? 3장 8절과 20절을 읽어 보자.
- * 열린 문이란 천국의 문이다.

제 2반

성서 지도를 통해 기록한 땅과 소아시아 지역의 관계를 알아보고 일곱 교회들과 파트모스섬의 위치도 확인해 보자. 우리는 각기 달라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다루신다는 것, 우리 모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 주님은 우리의 좋은 점은 격려하시나 나쁜 점은 지적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됨을 통해 영적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며 공부해 보자.

- * 계시록의 책에 기록된 환상은 어디서 주어졌는가?
- *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이 환상이 주어졌는가?
- * 환상의 첫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 * 주님은 요한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 * 일곱 별이란 무엇이라고 말해졌는가?
- * 일곱 등경은 무엇이었는가?

성서 지도에서 본문의 일곱 성읍을 찾아보자. 요한은 에페소의 교회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일곱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환상을 가질 때 유배되어 있던 섬을 지도에서 찾아보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업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진리를 들어 올려서 인간의 마음에 빛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교회는 일종의 등경과 같으며 각기 나름대로의 영적 특성, 즉 교회와 천국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는 살아있는 영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 교회들의 “천사”이며 “전달자”이다. 요한의 메시지에서 각 교회 안에 있는 살아 있는 영이 주어진다.

일곱 교회들은 오늘날의 교회처럼 서로 달랐다. 각각은 미덕과 함께 결점도 지녔다. 주님은 그들의 미덕을 칭찬 하셨고 그들의 결점은 꼬집어 주셨다. 주님은 그들이

결점을 극복하면 그 교회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 주셨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들 안에 위선이 있기는 했지만,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신실한 교회로 기술된다. 주님은 그 교회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였고, 오로지 교회의 진리와 선함만을 굳게 지키라고 당부하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새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주목해야 한다.

반면,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심하게 견책 되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미적지근함” 때문이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삶으로 그냥 그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미적지근한 것임을 염두 해야 한다. 미적지근한 상태에는 그것이 가장 쉬운 삶인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주님은 이런 인생의 무리들에게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그들의 마음의 문은 언제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진리에 대해서 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문을 열고 그들의 길을 바꾼다면 가장 큰 약속 중의 하나를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사실 쉬운 길이 눈앞에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주님의 길, 즉 언뜻 보기에 무척 힘든 길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의지를 갖는 것은 무척 힘들다. 따라서 이 시험을 극복한 승리는 가장 큰 보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는 열심히 노력하며 정의만을 꾸준히 추구해온 이들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음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3장 13절을 읽어 보자. 우리는 귀를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말해지는 것을 언제나 듣는 것은 아니다. 듣는다 함은 순종을 의미한다. 우리가 선하게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에게 들음이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순종함 또한 따르게 된다.

제 3반

일곱 메시지 중 하나를 선택해 그 세부 사항을 공부한다. 주님은 우리가 각기 다른 우리 속의 특질을 발달시키고 각자의 특별한 시험에 투쟁해 나가기를 바라신다.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글자 외에 세 가지 주요한 내적 의미들을 지닌다. 첫째는 인류의 영적 역사에 관련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 개개인의 영적 발달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생애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요한 계시록, 구약 성서 혹은 복음서에서도 동일하다.

첫 번째 의미, 즉 내적인 역사적 의미에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은 사도들 혹은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결과로 발달된 기독교 조직의 여러 가지 형태를 그린다. 또한 각 시대에 존재하게 될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도 그려준다. 두 번째는 영적 의미라고 불리는데, 이는 우리의 종교생활 가운데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다양한 상태들을 그려준다. 세 번째는 천적 의미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양한 상태들 안에 있는 개인 또는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다루시시지를 그려준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모든 인간의 필요성을 만나고 모든 인간들이 도달하고자 자유로이 선택한 것을 가장 높은 상태로 끌어 올리시려는 적절한 반응(신축성)을 그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이것은 나쁘고 저것은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옳고 그름은 우리가 선행과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혹은 가까이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즉, 우리의 심정 안에 주님의 이타적 사랑이 들어 있는 정도와 우리의 지성 안에 그분의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를 가지는 만큼에 따라 결정된다. 사랑과 진리는 서로 손잡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사랑보다 지혜가 더 많거나 혹은 지혜보다 사랑이 더 많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시험에 빠지게 되어 회개하고 진정한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시험을 인식하고 싸워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진짜 있을 곳을 준비하는 것이며 가장 큰 행복을 갖게 될 것이다.

주님은 각 메시지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묘사하고 계신다. 그분이 언급하시는 모든 속성은 요한에게 보여준 그분에 대한 환상에 기초한다. 주님은 그 안에서 각각의 교회로 기술된 상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호소하시는 신성한 특질을 강조하고 계신다. 예를 들면, 스웨덴북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경우 주님께 근거를 둔 선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3장 7절에 언급된 모든 것은 진리로 행해져야 함을 뜻한다. 그들 앞에는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어떤 때는 그들 자신을 믿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부터 믿음을 가져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이들로 그려진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만물의 근원이심을

상기하고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해진다. 주님의 진리를 신뢰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지혜를 신봉하려함은 시험 중에서도 가장 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극복하려 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 이에 대해 주님은 “승리하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내 옥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

주님이 각 개인 또는 각각의 일곱 교회에게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신 바와 같이 승리의 보상에 대한 약속 역시 각각에게 다르게 주어지고 있다. 우리 각자는 가능성과 취약점 그리고 고유의 시험들을 갖고 있다. 어느 두 개인도 이 세상에서 똑같은 장단점 또는 시험을 가질 수 없다. 주님은 각 개인을 꿰뚫어 알고 계셔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루시고 각자가 창조하는 수준이나 위치에 도달되도록 최선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기본 상응 공부

에페소 = 생활의 선이 아닌 교회의 진리에 집착하는 이들

스미르나 = 생활은 선하나 교리에 거짓이 있는 이들

버가모 = 모든 것을 선한 일에 기초하려고 하나 진리 면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 이들

티아디라 = 선행에 근거한 믿음과 선행에서 분리된 믿음 그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들

사르디스 = 죽은 예배

필라델피아 = 선에 근거한 진리 안에 있는 이들

라오디게이아 =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이들

제 4반

각각의 일곱 교회들을 공부한다. 오늘날의 각기 다른 형태의 교회와 각 개인의 마음에 있는 각기

다른 형태를 생각해 봄으로써 스스로의 형태를 명확히 해 본다. 특별히 라오디게이아 교회를 상세히 다루고, “미적지근함”의 의미를 강조한다.

스웨덴북은 「계시록 풀이」에서, “이 계시록은 주님으로부터만 있는 것이고, 이는 새 예루살렘인 새 교회 안에 있게 될 이들과 천상천하의 하느님으로 주님을 인식하는 이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서문에서 아주 간략하게 기술되는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기독교계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로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교리의 진리에 역점을 두고 생활에 선함이 없는 이들이 에페소 교회로 의미되고 있다. 생활면에서는 선하나 교리 면에 거짓이 있는 이들은 스미르나 교회로 의미되고 있다. 선한 일에 교회의 전부를 두고 진리 면에는 아무 것도 두지 않는 이들은 베르가모 교회로 의미되고 있다. 선행 로부터 비롯된 믿음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선행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 티아디라 교회로 의미된다. 선행과 믿음이 없어서 죽은 예배에 있는 이들은 사르디스 교회로, 주님으로부터 선을 받아 진리 안에 거하는 이들은 필라델피아 교회로 의미된다. 자신을 신봉하다가 때로는 말씀도 믿어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이들은 라오디게이아 교회로 기술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양상들이 주님의 새 교회로 불려진다.” 이 메시지에 대한 일반적 의미와 우리에게 대한 적용은 이보다 더 간략하게 혹은 명확하게 서술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위의 간략한 인용문을 참고로 하여 스스로를 위해 메시지의 세부사항을 공부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공부함에 있어서 주님이 각 경우에 대해 그분 자신을 명백히 보이시는 항목을 주목해야 한다. 이 항목을 상응에 기반 하여 생각하게 되면 각자의 특별한 인격에 심금을 울리는 응답이 있게 될 것이다. 즉, 주님은 각자의 특성에 맞는 시험에 주목하게 하시고 시험에 임하는 성실도에 따라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보상을 약속하고 계신다. 스웨덴북은 “천국은 많은 사회로 나뉘어 있다. 각 사회는 뜻이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사회 나름대로 천국에서의 유용을 수행하며 그 이상의 것은 수행할 수 없다.”라고 설명한다. 어느 두 사회도 같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각 사회는 하모니를 이룬다. 그 이유는 모든 이들이 주님만을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바램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이 말한 “성전” 또는 스웨덴북이 말한 “가장 작은 형태로서의 교회”를 기억해야 한다. 이 메시지는 교파로 된 집단뿐 아니라 선하고자 하는 각 개인들, 즉 종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장을 공부할 때 자신을 공부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 속의 좋은 점, 약한 점, 우리 안에 거처를 두어야 할 주님의 특수한 면 그리고 우리가 쟁취해야 할 특별한 인격의 목적을 알게 해 준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각기 그분과 직통 관계를 맺고 있다. 그분은 각각의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과 가능성을 주시고, 이 세상과 천국의 양 세계에서 공히 채워야 할 특별한 장소를 설비해 두신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용(use)을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됨을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사항을 우리 자신의 선택에 유보해 두셔서 모든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선택에 대한 우리의 자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특질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동물로부터 구별된다. 또한 주님은 그분이 행하시는 만사에서 우리를 위해 선택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수호하신다. 자유란 내적 자유를 의미한다. 우리가 좋아해서 선택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즉, 외적 삶에서 우리의 모든 바램을 수행하는데 많은 방해가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생각하며 바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내적 자유이며, 자신의 바램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자유이다. 우리의 근본적 선택은 자아 혹은 주님이다. 우리가 자아를 먼저 놓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의 순종을 거절하게 되어 그분이 경고하시는 음성에 귀를 막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의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는 삶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며 그 안에서 삶의 길을 확실히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일곱 교회에 대한 각 메시지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끝맺고 계신다.

제 5반

제 4반의 일곱 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토의 형태로 진행한다.

본문의 의미에 대한 실마리는 제 1장의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등경은 곧 일곱 교회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스웨덴북의 「계시록 풀이」 제 65-66항에서는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라 함은 새 하늘에 있는 새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는 지상에 있듯이 천국에도 있다. 그리고 그곳에도 말씀에 근거한 교리가 있고 그로부터 설교도 한다. 영계에서도 별로 가득한 창공은 자연계에 서와 같이 나타나고, 이 나타남은 천국의 천사들의 사회로부터 있다. 거기에 있는 각 사회는 그 사회 아래에 속한 이들에게 별처럼 나타난다. 그리하여 그들은 천사들의 사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일곱 교회 천사들’이라 함은 천국에 있는 교회 전체로, 새 하늘(New Heaven)을 의미한다. 일곱 등경이 일곱 교회라 함은 지상에 있는 새 교회를 의미하며, 이 새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일곱 등경이라 함은 일곱 교회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며 교회 자체로는 하나이나 받는 양상에 따라 다양해진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한 왕의 왕관에 박힌 많은 보석과도 비교된다. 또한 그것은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 혹은 기관과도 비교된다. 서로 다른 모양과 기능을 지닌 세포와 기관들이 합쳐져서 이룬 것이 완전한 하나의 몸인 것이다. 모든 형체의 완전함은 다양한 것들이 질서에 맞게 배열되면서 가능해 진다. 이로 인해 새 교회 전체가 다양하다는 것이 일곱 교회로 기술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명심해 둘 사항은 교회는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서로 구별되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과 다양한 교회가 연계되어 있는 천국의 사회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의 교회 운동을 생각할 때도 이 점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만의 것이 이상적라고 말해서는 안 됨도 명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실제로 그들 각각이 이상적인 데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본문의 메시지가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 의미에서 새 교회의 메시지가 주는 기독교인들의 다양한 형태에 관해 생각해야 하고, 조직된 새 교회 안에서도 본문에 주어진 여러 형태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곱 개의 메시지에 있는 비슷한 양상을 모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메시지를 받는 이들의 형태에 따라 호소되도록 주님의 나타나심이 특별한 면에서 있다. (2)

주님은 각 형태에 있는 좋은 특질을 격려하시고 (3) 주님은 각 형태가 주목해야 할 약들을 지적하시고 (4)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자 한다면, 주님은 각각에 대해 달성 가능한 특별한 약속을 주시고 (5) 주님의 메시지를 수용 혹은 거절함은 우리의 선택에 놓여 있음을 상기 시켜 주신다. 즉,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신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계시록 풀이」의 제 2장과 3장의 서문 목차에서 일곱 교회에 대한 구분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독교계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리의 진리를 제일로 삼되 생활의 선이 있지 않은 이들은 에페소교회로 의미된다. 생활면에서는 선하나 교리 면에서는 거짓된 가운데 있는 이들은 스미르나 교회로 의미된다. 선한 일에 교회 관심의 전부를 두나 진리 면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 이들은 베르가모 교회로, 선행으로부터의 믿음 안에 있으면서 선행에서 분리된 믿음 속에도 있는 이들은 티아디라 교회로 의미된다. (제 3장) 죽은 예배 가운데 있는 기독교계의 사람들, 즉 선행과 믿음이 없는 이들은 사르디스 교회로 의미된다. 주님의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은 필라델피아 교회로, 자신으로부터의 믿음과 때로는 말씀으로부터의 믿음을 교대로 가져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이들은 라오디게이아의 교회로 기술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주님의 새 교회로 불려진다.”

위의 마지막 문장은 각 일곱의 장점이 새 교회에게 상당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아마 교회의 완전성을 위해 필수적일지도 모른다. 한 가지 측면이 강조되고 다른 측면이 희생될 때 견책이 발표된다. 어떤 교회가 그들의 중심원리를 교리에, 어떤 교회는 선한 의지에, 어떤 교회는 선한 일만 고집하는 것에, 어떤 교회는 믿음과 선행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려는 데에, 어떤 교회는 교회의 형식을 사랑하는 데에, 어떤 교회는 잘 조화된 기독교인에, 혹은 어떤 교회는 자기 검증과 신실하며 꾸준한 헌신의 필요성을 상기하는 데에 두어서 어느 한쪽 면만 본다면 유용하지만 결국은 다른쪽 측면이 결여된 상태가 된다. 그러나 교회가 조화를 이루며 교회로서의 충분한 선용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 형태의 각각을 인정하며 공헌한 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 중에 주목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조화된 삶을 꾸준히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누가복음 10장 30-37절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 수 있다. 이 비유는 외적 선한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쉽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유 후 즉각적으로 따라오는 이야기, 즉 마리아와 마르다의 내용에서 (누가복음 10:38-42) 마르다는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었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르다가 시중드는 일을 거들어 주지 않는다고 동생 마리아에 대해 불평할 때 주님은 “마르다, 마르다,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말씀에는 진리에 대한 중요성과 선한 일의 중요성이 균등하게 강조되어 말씀의 어느 구절이 한 쪽만 강조하는 데에 쓰여서 다른 쪽이 희생되지 않도록 배려되어 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해롭다는 질책은 “미적지근한” 라오디게이아 교회에 할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점을 극복한 이들에게는 모든 것 중 가장 높은 보상인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심이 뒤따른다. 라오디게이아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시험 속에 언제나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가장 보편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쉽게 보이는 길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심령을 다하고 용기 있게 주님의 의지를 취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향이 많다. 또한 우리는 내가 져야할 책임을 살피는 대신 내가 책임질 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헌신보다는 눈치껏 적당히 하며 몸조심하려는 경우도 많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들어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라고 하신다. 쉽고 대중화된 길을 찾는 것은 주님의 진리에 대해 문을 닫아서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모압에 대해 (예레미야 48:11)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 하였도다.”라고 말했다. 천국적 인격은 “술 찌꺼기 위에 있음”으로, 즉 쉬운 방법을 택함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능력, 특별한 기회들, 섬김을 위한 개인적 선용 그리고 달성함에 따른 특별한 왕관을 주시고 계신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밝힘 (Apocalypse Revealed, 제 202-204항, 라오디게이아 교회에

관해서)]: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씀은 어떤 때는 말씀의 신성과 거룩함을 부정하다가도 어떤 때는 그에 대해 긍정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하느님에 관해 부정하거나 긍정하기도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교회 속의 모든 것도 이와 동일하게 대한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때는 지옥에 있는 이들과 어울리고 어떤 때는 천국에 있는 이들과 어울린다. 마치 그들은 양쪽을 위아래로 날아다니면서 이쪽저쪽으로 얼굴을 돌려 댄다. 그들은 하느님의 실재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고도 물러서기도 한다. 그들은 초기의 확증이 되돌아 올 때는 인정하지만 되돌아오지 않을 때는 부정해 버린다. 그들이 뒤로 물러선 이유는 그들 자신과 세상에 몰두하여 저명해지기를 갈망함에 따라 자아욕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옥이 그들 위에서 넘실거리게 된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말씀은 그들이 말씀과 교회 속의 거룩한 것을 심정으로부터 부정하거나 인정함이 그들을 위해 차라리 더 나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와 거짓 혹은 선을 악과 섞어 버려 거룩한 것을 모독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진리와 거짓 혹은 선과 악이 분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천국 또는 지옥의 어느 곳에 있도록 준비될 수 없어서 합리적 삶은 파괴되고 오로지 삶의 최종적인 것 즉 고기 덩어리만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최종적인 것들에서 삶의 내용물을 분리시키고 나면 망상(phantasy)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누가 계시록에 기술된 환상을 보았는가?
- 2) 요한은 어디서 이 환상을 보았는가?
- 3) 그는 환상의 처음에서 누구를 보았는가?
- 4) 요한은 주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 5) 요한은 주님 주위에 있는 무엇을 보았는가?
- 6) 주님은 일곱 등경이 무엇이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는가?
- 7) 일곱 교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 8) 본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9) 이 메시지들의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 10) 그들은 어떻게 달랐는가?
- 11) 어느 교회가 가장 신실하다고 기술되는가?
- 12)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서 문은 어떻게 있다고 했는가?
- 13)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무엇이 나쁘다고 했는가?
- 14) 이 교회에 대해서 문은 어떠한다고 말했는가?
- 15) 각 메시지는 어떤 말로 끝맺는가?
- 16)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7) 본문 2장과 3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가?
- 18) 라오디게이아의 미적지근함은 왜 비난받았는가?

질문의 답

- 1) 사도 요한 2) 파트모스 섬 3) 부활하신 주님 4) 제 1장 23-26절을 읽어 보자.
- 5) 일곱 등경 6) 교회들 7) 소아시아 8)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 9) 선을 칭찬하고 결점들이 지적되며 약속이 뒤 따른다
- 10) 각기 다른 결점과 보상이 있음 11) 필라델피아 교회 12) 열려있다 13) 미적지근한 것 14) 닫혀있다 15) “들을 귀가 있는 자는...”
- 16) 들었으면 순종하라 17) 문을 닫는 것 혹은 여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다.
- 18) 극복하기 가장 힘든 결점이므로

40

거룩한 성

머리말

요한의 환상이 마무리되는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에서 붙여졌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과 기쁨을 더해 줄 것이다. 환상의 요점을 엄두 하고, 말씀의 시작에서 말씀을 끝맺고 있는 본문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성서공부 제 1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자아의 인도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있게 되는 우리 안의 선의 발달 혹은 악의 발달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1, 22장

21장: 1. 그 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 나는 옥좌로부터 올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 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흉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마술장과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자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향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9.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14.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열 두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5.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대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만든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았습니다. 그가 측량자로 그 도성을 재어 보았더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온 이었습니다. 17. 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았더니 사람의 자로 백 사십 사 척이었습니다. 이 자는 천사의 자이기도 했습니다. 18.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도성은 온통 맑은 수정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사파이어로, 셋째는 옥수로, 넷째는 비취옥으로, 다섯째는 홍마노로, 여섯째는 홍옥수로, 일곱째는 감람석으로, 여덟째는 녹주석으로, 아홉째는 황옥으로, 열째는 녹옥수로, 열한째는 청옥으로, 열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21. 또 열 두 대문은 열 두 진주로 되어 있었고 각각의 대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22.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23.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24.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25.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대문들을 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6.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보화와 영예를 그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 올 것입니다. 27.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 가지 못하고 흉측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도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22장: 1. 그 천사는 또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나와 2.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3. 이제 그 도성에는 저주받은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4. 그 얼굴을 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5. 이제 그 도성에는 밤이 없어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6. 그 천사가 또 나에게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곧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보여 주시려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다.”하고 말했습니다. 7. 그러자 주님께서 “자, 내가 곧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 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9. 그러자 그는 “이러지 말아라. 나도 너나 네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중에 지나지 않는다. 경배는 하느님께 드려라.”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는 이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때가 가까왔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12.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 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13. 나는 알파요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4.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15. 개들과 마술장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샅별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하고 외칩니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19.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느님께서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21. 주 예수의 품위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교리 요점

- * 거룩한 성에 관한 기사는 끝없는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는 우리 삶의 진정한 형체에 대한 환상이다.
- * 성으로 가는 우리의 “문”이란 말씀을 규칙적으로 공부하며 공부한 말씀 속의 진리를 삶에 응용하려는 항구적인 노력을 말한다.

가정 예배 편

많은 교회들, 특히 성서의 서술들을 글자대로 취하는 교회들은 세상의 끝 날이 언젠가 있을 것이며 그 끝 날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씀의 많은 부분이 실제 역사이지만, 새 교회의 경우는 말씀의 모두를 비유로 간주한다. 우리는

심판들이 이미 여러 번 있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 계승되어 내려온 다양한 교회들 각각에 심판이 있었다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각자 죽음을 맞아 영계로 들어갈 때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즉, 각자의 내적 생명이 드러나고 (revealed)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형성해 놓은 자신의 인격에 따라 지옥 또는 천국의 거처를 발견하게 됨을 믿는다는 것이다.

제 20장 12절에서는 “나는 또 죽은 자들이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된다. 많은 책이란 날마다 써 내려간 우리 삶의 기록이며, 생명의 책이란 하느님의 말씀이다. 천국적 인격이란 하느님의 가르침으로 모양을 만든 삶이다.

계시록에 있는 요한의 환상은 주님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하여 각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약속이 이어지는 심판의 전 과정에 대한 상징적 그림이다. 요한은 주님에 대한 환상을 본 후 보좌를 보았고, 그 위에 앉아 계시며 오른 손에 생명책을 들고 계신 그분을 보았다. 이 책은 처음에는 일곱 봉인으로 봉해져 있었다. 이는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있는 우리의 상태이다. 즉, 말씀을 읽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뜻한다. 주님은 그 다음 환상에서 하나씩 봉인을 떼시고, 각 봉인들이 떼어질 때마다 기이하고 격렬한 일들이 발생된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알게 될수록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더 많은 악들을 실감하게 되고 주님의 도움을 얻어 악과 싸워 극복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상 전체를 통틀어 선한 것도 밝혀지는데 그것은 주님에 의해 보호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속에서 발견되는 선은 어떤 것이든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는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게 하는 우리 삶의 진정한 틀에 대한 환상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고 그것의 깊은 진리를 인정하며 그 진리에 따라 살게 된다. 성의 성벽이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를 뜻하며, 성의 기초란 십계명으로 다져진 선한 생활의 기초를 의미한다. 보석들이란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진리들을 말한다. 진주 성문이란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함을 통해서만 성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내의

황금거리란 우리가 걷는 동안 배우는 것 즉 섬김을 사랑하는 길을 의미한다.

새 교회는 말씀의 글자 속에 들어 있는 의미를 밝혀 주신 것(revelation)에 기초한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교 Church of New Jerusalem” 이라고 부른다. 거룩한 성으로의 길은 주님에 의해 밝혀졌다. 그 길은 언제나 쉽지 않고, 세상적이며 자아 만족을 주는 길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 보겠다고 선택한다면, 주님과 천사들이 우리들과 함께 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계발시켜 주시며 영감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주신다. 22장 14절의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에서 두루마기를 뺀다함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제 1반

요한에게 아름다운 성, 즉 천국에 대한 환상이 주어졌음을 언급한다. 우리는 선하면 장차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21장 27절과 22장 11절을 읽고,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여부는 이 세상에서 결정해야 함을 재확인하자.

요한에게 일곱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진 뒤 그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경청하기를 거절하는 이들과 자기 좋을 대로 살겠다고 고집한 자들에게 저세상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환상이 주어졌다. 이와 더불어 환상은 우리에게 주님이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심을 보여준다.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생명의 나무와 강에 대해서 배웠다. 그들은 에덴의 동산에 있었다. 창세기 2장 8-12절을 다시 읽어 보자. 우리가 법도에 어긋나는 일들을 시작하기 전, 즉 아주 어리고 순진 했던 시절은 바로 에덴동산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법도에 어긋난 것을 멈추려고 노력하며 강건하고 선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요점 및 질문정리

- * 요한은 주님 외에는 열지 못하는 봉인된 책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
- * 책의 봉인들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큰 심판이 거행되었다.

- * 요한은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무엇을 보았는가?
- * 그 도성은 얼마나 많은 문과 기초를 가지고 있는가?
- * 그 도성들은 어떻게 측량되었는가?
- * 그 도성들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가?
- * 요한은 하느님의 옥좌로부터 흐르는 무엇을 보았는가?
- * 그 강가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었는가?
- * 성서 어느 부분에서 이 강과 생명의 나무를 읽었는가?
- * 이 성에 누가 들어 갈 수 없는가?

제 2반

우리 교회의 이름과 거룩한 성의 일반적 의미를 설명한다. 그 다음 본문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21장 23절과 22장 11절로 끝맺도록 한다.

다음 질문에 답하며 본문을 공부하자.

- * 계시록은 어떤 환상으로 시작되는가?
- * 이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 * 왜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메시지가 필요했는가?
- * 메시지들은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는가?
- * 그는 하느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무엇을 보았는가?
- * 그 강가에 무엇이 자라고 있었는가?
- * 여러분은 성서 어느 부분에서 이 강과 생명나무를 처음 읽었는가?
- * 천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시록 전체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진정한 그림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보도록 조금씩 인도된다. 처음에는 우리의 행동 면에서, 그 다음 우리의 생각 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깊고 깊은 심정 속을 보도록 인도 된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과정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자신 속에 결점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빛으로 가져가 밝히 살펴본 뒤 정복하고

자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는 머지않아서 하느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한다. 즉,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이 세상의 삶을 꾸러 가는 동안 있는 길고도 오랜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면, 우리는 주님이 인도 하시는 길을 따라 그 거룩한 성에 도착된다.

이 책의 마지막이며 성서 자체로도 마지막 부분인 본문은 천국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이 요한에게 주어지고 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이 성의 이름을 따라서 부른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교회는 열려진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21장 11-27절의 성에 대한 열거 사항들은 매우 아름다워서 반복해서 읽게 된다. 각 세부 사항에는 경이로운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상응에 관해 배울 때 더욱 이해될 것이다.

제 22장에는 성 내에 있는 것에 대한 환상이 요한에게 주어지고 있다. 창세기 2장 8-17절을 읽어 보자. 이는 대 예언서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에제키엘서 47장 1-12절도 읽어 보자.

물은 진리에 대한 그림이다. 큰 강이란 말씀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흐르는 진리를 상징한다. 진실로 진리를 원하는 사람만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제 21장 17절을 읽어 보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0-1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어 보자. 강가에서 자라는 생명나무는 우리의 아름다운 원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음을 믿는 것이다. 그것의 열매는 순수한 선함을 뜻한다. 22장 14절을 읽고, 어떻게 진실로 선하게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22장 11절에서는 이 세계를 지나 저 세계를 감이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하는 진리는 바로 '지상의 삶에서 악한 자들은 영들의 세계에서 깨어날 때도 악할 것이오, 지상의 삶에서 선한 자들은 계속해서 선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죽은 후에 자기의 심정을 바꿀 수 없다. 올바른 것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한 번 선택한 것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 22장 8절과 9절을 읽어 보자. 어떤 교회는 천사들이 이 세상의 남녀와 아주 다른 별개의 창조물인 것처럼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천사는 요한에게 그도 말씀의 가르침을 순종해왔던 예언자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타인에게 말 또는 행동으로 전달할 때는 모두 다 천사들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천국의 아름다운 천사들이 되는 것이다. 거룩한 성은 주님의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건축된 삶을 그린다. 21장 16-17절을 읽어 보자. 흔히 듣는 말 가운데, “네모반듯한 사람(Square Shooter)”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선한 삶은 정 입방체로 길이(진리)와 넓이(선) 그리고 높이(유용함)가 같음을 의미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올바른 것을 이해함과 그것을 올바르게 행함 그리고 이해와 행함이 그 속의 목적과 균형을 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삶의 근원과 방향을 주님에게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그 성이 “사람의 자 즉 천사의 자”로 측량되었다고 말해졌다.

제 3반

세부 사항의 상응을 살펴본다. 우리가 삶의 인도자로 주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지금 선택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문 첫 장의 2절은 모든 새 교회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이 구절은 상징적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에 대한 이유를 주기 때문이다. 구약성서나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은 교리적 측면의 새 교회를 의미한다. 또한 거룩한 성에 대한 환상의 모든 세부 사항은 그 교회와 교리의 영화로움 그리고 권능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다. 교리에 따른 삶은 교회를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만들어 준다. 스웨덴북은 성령에 감동된 요한을 데리고 간 “크고 높은 산”은 가장 높은 천국이라고 말한다. “크고 높은 산”은 모든 진리를 싸서 보호하는 말씀의 글자적 의미이다. 열 두 대문이란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을 말하며 이에 의해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 각 방면의 세 개의 문은 분리된 입구 하나씩으로 해서 세 개의 문이기보다는 겹문, 즉 바깥 문과 중간 문 그리고 안쪽 문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각 방면의 문들은 주님에 대한 세 가지 평면에서의 열림을 표현한다. 성의 주춧돌은 십계명과 같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 안에 있는 교리에 관한 것이다. 성의 길이와 넓이가 같다는

사실은 교리안의 선과 진리는 동등한 치수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보석들이란 교리 속의 모든 아름다운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것들은 마음 안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취하지만, 주님에 관한 지식을 살아 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순금으로 된 거리란 섬김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진리 속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21장 22절과 23절은 천국의 새 교회에 속한 이들이 그들 자신에게는 진리가 없고 주님만이 모든 선함과 진리를 갖고 계신다고 기쁘게 인정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제 22장에서 생명나무가 자라는 생명수의 강으로 다시 나타난다. 우리가 모든 지혜와 선함의 근원으로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선한 일” 곧 우리 안에 순수한 선함을 가진 행동이 우리의 진리가 발전하는 각 단계마다 나타나도록 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매 달 열리는 열두 가지 열매이다.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나뭇잎이란 생명나무로 그려진 원리로부터 발달되는 합리적인 진리들을 뜻한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순종함에 따라 규율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질병 역시 더욱 신속하게 치료될 것이다.

성의 문들이 언제나 열려 있지만, “신성을 모독한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함을 주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생명을 위해 진리를 갈망한 이들만이 성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배우고 말한 진리대로 삶을 엮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는 한낱 외적인 기억에 불과해 죽을 때에 그 진리들은 단혀져버리고 만다. 진리대로 살았던 것만이 그 사람의 심정 속에 쓰여져 있는 것이다. 제 20장 12절을 읽어 보자. 열려진 다른 책이란 말씀이며 인간은 말씀과 각자의 삶 의 비교로 심판된다. 우리 각자는 날마다 삶이라는 자기 책을 집필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선택한 모든 생각과 느낌은 우리 내적 삶의 한 부분이 되어 간다. 이는 바깥쪽과 자기 속의 생각 그리고 느낌이 다르다하더라도 관계없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바깥쪽 부분은 남겨두고 안쪽 부분만이 실제의 나로서 나타난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는 것이다.

제 22장 12절과 19절에서 주는 경고는 아주 심각하다. 우리는 성경공부를 더욱 깊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변경시키자 하는 시험을 겪게 되는 것,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보다는 자기주장을 대변시킬 자료 수집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자기 이론의 근거로 삼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머지않아 말씀의 글자마저 신뢰하지 않는 신앙으로 빠지게 되어 성경을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인간의 작품으로 등락시켜 버린다. 그리하여 말씀 자체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성경에 등장된 사람들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탐구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인간들의 생각을 극구 찬양하게 되어 말씀이 가져올 빛을 스스로 차단시켜 버린다. 우리가 말씀이 전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어떤 결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지 때문이다. 즉,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미련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성서의 끝을 장식하는 본문의 말씀이 주는 경고가 지니는 중요성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기본 상용 공부

거룩한 성의 성벽 = 말씀의 글자적 의미

열 두 대문 = 선과 진리에 관한 입문적인 모든 진리

주춧돌 = 천국적 인격을 짓기 위해 기초되는 진리

보석 = 영적인 빛을 받아 빛나는 개별적인 진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 밝히 알려진 말씀으로 된 진정한 체계

황금거리 = 섬김을 사랑하는 길

제 4반

성경의 전체적 윤곽을 떠올리며 공부를 시작한다. 본문은 개인과 인류라는 면에서 기나 긴 영적 역사의 최종점으로서 결말을 맺고 있다. 또한 새 교회인이 됨이 의미하는 바를 토론 주제로 삼아본다.

성경은 에덴의 동산으로 시작되어 거룩한 성으로 끝맺는다. 에덴의 동산은 초기 인류의 상태와 개인의 유아적 상태를 그려준다. 거룩한 성은 우리 각자와 모든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을 그려준다. 스웨덴붉은 성경이 “무지의 순진함”에서 “지혜로운 순진

함”으로 가는 여행길을 묘사한다고 설명한다. 동산은 주님이 우리 앞에 놓아두신
기회의 범주를, 거룩한 성은 우리가 도달 가능한 최고점을 그려준다.

우리는 동산과 도성의 양쪽에서 큰 강과 생명나무를 발견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룩한 성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생명나무란 모든 선과 진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원리를 그린다. 이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기쁨(delight)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인간 스스로 진리를 알며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뜻한다. 따라서 삶의 원리로서 후자의 원리를 선택한 이들은 영원히 거룩한 성 밖에
있게 된다. 두개의 원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이 세상 삶에 있어지는 근본적인
선택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상태들 그 하나하나의 단계(“달마
다 맺는 열매”)에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영양분이다.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나뭇잎
이란 주님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그분 만에게 의해 인도되기를 바램으로부터 튀어나오
는 생각과 추론이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러한 인식과 바램 안에 있게 되면
만국 백성이 글자대로 치료되어질 것이다. 불의, 암투 혹은 탄압 등은 다른 나무의
잎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거룩한 성에 관한 아름다운 그림, 열 두 기초, 크고 높은 벽, 금과 보석들, 결코
단혀 있지 않은 진주 문 그리고 주님 자신이 빛이 되심은 천국에 있게 될 우리의
내적 삶에 대한 그림들이다. 우리는 20장 21절에 있는 생명책과 같이 우리 삶의
책을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그려진 삶이란 열려진 말씀의
진리에 따른 삶이다. 이것은 모든 교회의 왕관에 속하는 새 교회의 삶이라는 뜻으로,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교회(Church of New Jerusalem)”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이
다. 우리 각자는 이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즉,
말씀을 글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 의미도 공부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밝혀진
교리를 공부하며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창세기 2장 16-17절과 계시록 22장 11-12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 삶의 시작에
깔려진 법들이 피할 수 없는 결말로 마무리 됨을 알 수 있다. 악한 삶 또는 선한
삶을 이루는 것, 불행 또는 행복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이 세상에서
선택한 것은 사후에는 반복될 수 없다.

제 5반

새 교회와 더불어 거룩한 성의 정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본문의 과제이다. 도성이란 체계적 교리를 표현한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요한 계시록 설명」 제 879항에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도성(city)은 교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집은 우리의 인격이다. 우리는 우리의 집인 인격을 어떤 교리라는 성안에 지으며 가르침을 통해 다른 이들과 연관을 맺으며 그들을 돕기도 한다. 예루살렘은 “교리적 측면에서의 교회”, 즉 주님의 가르침에 속한 도성을 말한다. 그 성안에는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주님에 대한 예배가 수행된다. 실존하는 예루살렘성은 단지 표현적 의미를 지닐 뿐이며, 그곳의 주민들이 외적 예배까지도 곡해시키자 예루살렘과 그의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하여 여러 교회가 있어졌으나 교회들의 신봉자들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으로 되어서 더 이상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는 바램으로 그들의 예배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그들의 교리의 성은 무너지고 사람들 역시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 전체를 망라하여 때가 되면 멸망하지 않을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모든 이를 위해 멸하지 않을 진리를 밝혀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이 진리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짓부수고 점점 커져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운 돌이다. 이는 또한 요한에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듯한 성이 하느님께로부터 천국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보여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스웨덴북은 예루살렘이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그 구절에 대해서, (AE 881) “요한은 이것을 하나의 성으로서 처음에 보았고 다음에는 신부(a Virgin Bride)로서 보았다. 성은 표현적으로 본 것이고 신부는 영적으로 본 것이다. 이런 방식은 천사들이 보는 방식이다. 그들은 말씀 속에서 도성에 관해 읽거나 듣거나 볼 때, 보다 낮은 생각 속에서는 성으로 보게 되고 보다 높은 생각 속에서는 교리적인 측면의 교회로 보게 된다. 그후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원하면, 그들은 아리따운 처녀로서 보게 되며 그들 속의 교회의 품질의 여하에 따라 다르게 입혀져 있는 신부를 보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볼 수 있도록 나에게도 허락되기도 했다. 이 교회는 약혼자를 위해 말씀으로 잘 차려 입은 신부, 결합과 결혼을 위한 신부 외에 다를 것이 없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로서의 예루살렘’이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결합되는 교회를 의미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신부의 겉옷 같은 이 성의 벽은 말씀의 진리를 그리고, 진리가 ‘잘 짜여 진 성벽’으로 거룩한 예루살렘을 만든다. (시편 122:3)”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새 시대를 위해 밝혀진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과 지침을 지키고 그것들을 명확히 만들거나 혹은 분명한 한계를 갖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벽 안쪽에 우리의 집을 짓게 된다. 이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교회의 세 번째 기본 교리를 떠올리게 한다. 세 번째 교리는 삶(생활)의 교리이다. 스웨덴북이 가장 많이 인용하거나 쓴 문장 중의 하나는 “모든 종교는 삶 속에 있고 종교의 삶(생명)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All religion is of the life and the life of religion is to do good”이다 (Life 1). 이 문장은 정말 아름답고 진정한 서술이다. 그러나 모든 서술들이 그렇듯이, 이 서술 역시 거짓화 될 수 있다. 만일 이 서술이 그것의 체계적 진리를 뽑아내서 그 체계에 반대되는 사상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데 사용된다면, 이는 예루살렘의 성벽에 놓인 돌을 빼내어 바빌론의 성벽을 쌓는 경우와 같아질 것이다. 이러한 서술이 악용되는 예를 들어보자면, “교리”가 좀 부족해도 어떻겠느냐는 식에 대한 변명에 이용되거나 우리가 이웃에 친절하며 자선을 베풀기만 하면 즉 “선한 일들”만 하면 되지 계명을 꼭 들먹거리야 하느냐 혹은 주님을 배우며 그분께 예배하러 꼭 교회에 가야만 할 필요성은 없다는 주장들을 지지하는데 쓰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스웨덴북이 말하는 “삶(생활)”이 의미하는 것, 즉 “선을 행함”이 의미하는 것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삶” 또는 “선을 행함”이란 외향적인 행동만이 아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3:27)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따라서 “삶”이란 인간의 가장 깊은 곳(inmost), 즉 인간의 심정이다. 종교의 삶은 이 심정 안에서 제일 먼저 있어야 한다. 주님은 미가서 6장 8절에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다. “선한 일”이란 우리가 인정을 베풀기 위해 주는 돈의 액수에 의해서와 사회적 개혁에서 큰 공헌을 남긴 것에 의해서도 측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개인적 공의, 공정, 자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만 측정될 뿐이다. “선을 행함”이란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다고 해서 하는 행동과 내 이웃이 선하다고 여겨서 하는 행동에도 있지 않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을 행함”이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이 선이라 믿으며 말씀과 그 속의 의미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배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배운 것을 행하고, 죄는 하나님에 적대하는 것임을 알아서 죄의 근원이 되는 우리안의 악을 멀리 하려는 것이다. 개인적 삶이 주님께의 순종과 겸손이라는 품성(quality)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바깥 행동에 관계없이 선을 행할 수 없다. “주님으로부터 온 선을 행한다면 그것들은 선이요 자아로부터 온 선을 행한다면 그것들은 선이 아니다.” (DL 9)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적대되는 죄로 알고 스스로 금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 속의 악들을 인정하기를 거절하면 즉 우리가 자신 속의 악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면, 우리는 진실로 인도자로서의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행하는 어떤 것에도 생명이 없게 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국사회와 새 교회의 가르침으로 살아내지는 그림이기도 하다. 이 그림은 천국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도 내려오는데, 모든 개개인이 가르침대로 사는 정도만큼 내려온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가 똑같다.” 그리고 측량자는 사람의 자요 “천사들의 자”이기도 하다. 길이, 넓이 그리고 높이라는 세 치수란 사랑과 지혜 그리고 행동을 뜻한다. 그 치수들이 똑같다 함은 완성된 삶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무지로 망쳐진 선한 바램이 없으며 실제 하지 않은 진리에 대한 지식도 없고,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 아닌 행위도 없다. 인간이 가져야 할 모든 선한 애착들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나 열 두 사도로 표현된다. 이것들은 성으로의 진입의 수단이며, 성을 떠받치는 수단으로 거기에 있다. 그 문들은 전혀 닫히지 않는다.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이는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것은 어떠한 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진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섬기는 것 또는 순종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도성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며 그곳에 들어가기를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그곳의 아름다움이 모두 표현이기 때문이다. 보석들이란 각기 다른 마음에 의해 다양하게 보여지는 진리들이며, 그 진리들은 영적 의미에서 반투명체이다. 금으로 된 거리란 섬김을 사랑해 가는 길을 뜻한다. 생명수의 강이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나오는 진리를 뜻하며,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은 생명수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들은 천국적 유용함(use)의 모든 형체들이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선택지기를 사랑하고 선 자체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아름다울 뿐이다. 도성에서의 예배는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 있고 모든 빛과 영화로움은 그분으로부터만 존재한다. 이는 진실로 선한 삶에 대한 보상과 면류관에 대한 그림이다. 진실로 선한 삶, 즉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사랑하며 계명에 따른 삶만이 그 도성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 계시록 밝힘 (Apocalypse Revealed 제 897 항)」: “하느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 같이 빛나는 벽옥과 같았다.’ 그 교회에서는 말씀이 이해되어질 것임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영적인 의미는 반투명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새 예루살렘의 교리 안에 있는 이들, 즉 그 교리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 말씀이 이해되어짐이 기술된 것이다. 그들이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이 빛난다. 그들이 읽는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수단으로 주님으로부터 빛이 발해진다. 그 이유는 주님이 말씀이요, 영적인 의미가 해처럼 그분으로부터 발출되어 천국의 빛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요한 계시록 밝힘 (제 935항)」: “주님이 받을 수 있는 선, 즉 영적인 선을 자기가 행하고 있다고 믿는 이도 그 사람 안에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있지 않으면 그 선은 상당히 미혹되어진 선이다. 진리가 없는 선은 선이 아니다. 설사 선이 없는 진리들이 자신에게 진리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 이유는 진리 없는 선은 이해성이 없는 인간의 자발성과 같고, 그 자발성은 인간이 아닌 짐승의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자발성은 예술가가 조각해낸 작품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지적인 것과 함께 하는 자발성은 지적인 것으로 인한 이해성의 상태에 따라 인간이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생명 상태는 의지가 이해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으며, 이해성 역시 의지가 없으면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의 메시지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 2)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왜 가장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가?
- 3) 계시록 21장 2절의 성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4) 그 도성은 몇 개의 문을 갖고 있는가?
- 5) 천사들은 어떤 도구로 이 성을 측정했는가?
- 6) 이 성의 모양은 어떠했는가?
- 7) 그 성의 기초에는 무엇이 보였는가?
- 8) 이 성의 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가?
- 9) 이 성은 누구로 인해 밝혀지고 있는가?
- 10) 누가 그 성에 들어가는가?
- 11) 하느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무엇이 보였는가?
- 12) 그 강가에서는 무엇이 자랐는가?
- 13) 생명나무와 강에 대해서 어디에서 공부했는가?
- 14) 요한이 경배를 드리려 하자 천사는 뭐라고 말했는가?
- 15) 우리는 성서의 마지막 절을 주로 어디서 사용하는가?
- 16) 거룩한 성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우리 교회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질문의 답

- 1)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지적하며, 경고하고 약속을 주고 있다.
- 2) 극복해내기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3) 새 예루살렘 4) 열두 문 5) 금 자 (gold reed) 6) 네모 반듯 했다. (foursquare)
- 7) 보석들 8) 진주 9) 주님 10)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이
- 11) 생명수의 강 12) 생명나무 13) 에덴의 동산 14) 하느님을 경배하라
- 15) (예배의 끝) 기도문에서 16) 교리의 진정한 체계는 열린 말씀 안에서만 발견된다.
- 17) 그 이름이 함축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몸으로 살아내어 보라는 도전장과 같다.

